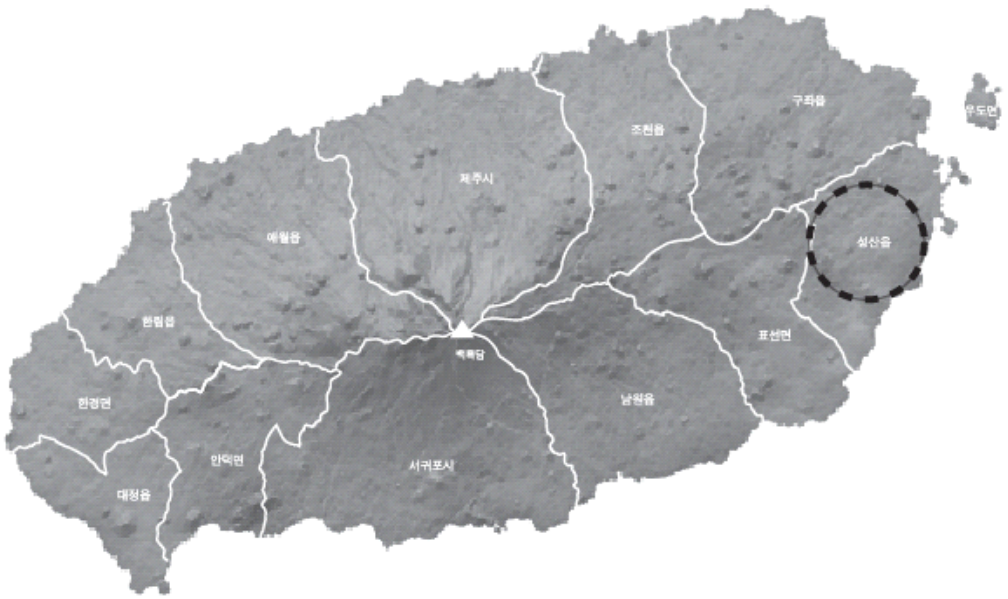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12-01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4
–성산읍 고성리

구술: 김두하 정계춘
전사·표준어 대역: 김승연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7년 제주어구술자료집(1-1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4

-성산읍 고성리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37
3. 밭일 ····· 81
4. 들일 ····· 156
5. 바다일 ····· 226
6. 의생활 ····· 276
7. 식생활 ····· 338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른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친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이 표준어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7년 3월 ~ 2017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이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는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배당함으로써 표준어 대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원만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함으로써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소속과 전공, 연구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과 구술 제보자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비고(담당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산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랑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5. 사업 추진 과정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본래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모든 사업 참여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모아 통일하였다. 매달 모임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회의를 거치며 통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불능인 경우는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기로 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의 띄어쓰기를 같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하고, ‘허는구나, 헷구나’ 등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한다. 구술자료의 @는 조사사, #은 구술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며, 첫 줄은 ‘들여쓰기’ 하기로 한다.

-장 구분을 할 때는 enter를 2회 치기로 한다.

한편 월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사된 모든 구술 자료는 표준어 대역을 한다.
- 조사된 내용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를 번갈아 가며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문맥에 맞게 의역한 경우는 주석에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 ’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그 내용을 밝힌다.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인 경우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석을 간단하게 처리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이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김승연, #1: 김두하, #2: 정계춘)

1. 조사 마을

101001 @ 저기 그, 이 마을이예? 어떵 뒐, 어떵 헤근에 만들어져신고마씨?(저기 그, 이 마을이요? 어떻게 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요?)

101001 #1 아 그거야 뭐. 요, 요 책엣 거 보면은 알아저 갈 테주.(아 그거야 뭐. 요 요 책에 거 보면 알아져 갈 테지.)

101001 @ 아 하, 하.(아 하, 하.)

101001 #1 아, 게난에 어떵 연.(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01001 @ 들어진 데로예. 들어진 데로.(들어졌던 대로요. 들어졌던 대로.)

101001 #1 어떵 연 만들어져 진 거는 뭐 나도.(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진 거는 뭐 나도.)

101001 @ 음.(음.)

101001 #1 이제 그 춤, 한 삼벡 년 이상 뒈니까. 여기 그 조성헌, ᄆᆞ을 만들어진 디가 흔 삼벡 년 이상 뒈니까. 그것에 데헤서는 우리가 잘 몰르주게.(이제 그 참, 한 삼백 년 이상 되니까. 여기 그 조성한, 마을 만들어진지가 한 삼백 년 이상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

101001 @ 예에, 맞수다게. 저 오래 뒌.(예에, 맞습니다. 오래 된.)

101001 #1 예.(예.)

101001 @ 뒌 거난예.(된 것이니까요.)

101001 #1 으.(으.)

101001 @ 예 그걸에 대해서 저 연구허거나 경 뭐 헌 것도 아니고. 들은 데로예, 들은.(예 그것엘 대해서 저 연구하거나 그렇게 뭐 한 것도 아니고. 들은 대로요, 들은.)

101001 #1 으.(으.)

101001 @ 흔 삼벡 년 뒀다. 저기 이 말이구나예?(한 삼백 년 됐다. 저기 이 말이군요?)

101001 #1 응.(응.)

101002 @ 그, 이 마을에는 이 마을에 성씨? 성씨는 저기 무슨 성씨로 성씨들이.(그, 이 마을에는 이 마을에 성씨? 저기 성씨는 무슨 성씨로 성씨들이.)

101002 #1 아, 게난.(아, 그러니까.)

101002 @ 막 하고예?(아주 많고요?)

101002 #1 아, 성씨가 고성[1]에는 지금 현제로는 정씨가 제일 하.(아, 성씨가 '고성'에는 지금 현재로는 정씨가 제일 많아.)

101002 @ 예에, 정씨예.(예에, 정씨요.)

101002 #1 뭐 정씨 촌이엔 헐 수도 잇고, 그 다음은 김씨. 에, 오씨.(뭐 정씨 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김씨. 에, 오씨.)

101002 @ 응.(응.)

101002 #1 이렇게 헤서 그 뭐 또 으라 가지 성덜이 뭐. 사름이 이때ᄁᆞ지 살다 보니까.(이렇게 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성들이 뭐. 사람이 이때까지 살다 보니까.)

101002 @ 음.(음.)

101002 #1 육지부에서 육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데충. 어디 조사흔 것덜이 거 잇을 테주.(육지부에서 육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대충. 어디 조사한 것들이 거 있을 테지.)

101002 @ 아 핫.(아 핫.)

101002 #1 아 그것도.(아 그것도.)

101002 @ 아 그, 그 처음에는 이 마을에 저기 어느 하르부지 성씨 성씨 가진 하르부지가 왓덴 헌 말은 들어본 도레[2]가 잇수꽈?(아 그, 그 처음에는 이 마을에 저기 어느 할아버지 성씨 성씨 가진 할아버지가 왔다고 한 말을 들어본 도리가 있습니까?)

101002 #1 아, 여기 현씨가 제일 문저 왓젱 허여.(아, 여기 현씨가 제일 먼저 왔다고 해.)

101002 @ 현 씨가 아.(현 씨가 아.)

101002 #1 응.(응.)

101002 @ 그 다음에는.(그 다음에는.)

101002 #1 에 현씨, 김씨.(에 현씨, 김씨.)

101002 @ 응.(응.)

101002 #1 그 다음에 정씨이 뒐 거라.(그 다음에 정씨가 될 거야.)

101002 @ 응 지금은 뭐 마을이 워낙 번창헤 부니까.(응 지금은 뭐 마을이 워낙 번창해 버리니까.)

101002 #1 에에.(에에.)

101002 @ 예.(예.)

101002 #1 어디가 잘 모르고.(어디가 잘 모르고.)

101002 @ 맞수다 어.(맞습니다 어.)

101002 #1 오씨도 이제, 오씨도 정씨보다는 문저 와실 거라이.(오씨도 이제, 오씨도 정씨보다는 먼저 왔을 거야.)

---

1) '고성'은 서귀포시 성산읍 행전마을 중 고성마을이다.

2) '도레'는 도리(道理)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해 나갈 방도(方道)의 뜻이나 여기서는 적의 뜻으로 쓰였다.

101002 @ 으음, 오씨도예. 정씨보단예, 먼저 아, 소리가.(으음, 오씨도요. 정씨보다는요 먼저 아, 소리가.)

101003 @ 그, 이 이 뭐 이 마을은 고성리난에. 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서 무슨 저 일들을 허멍 살아. 저 와신가마씨?(그, 이 이 뭐 이 마을은 '고성'이니까. 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서 무슨 저 일들을 하면서 살아. 저 왔는가요?)

101003 #1 아 게난게.(아 그러니까.)

101003 @ 맨 처음에로부터 한 번.(맨 처음으로부터 한 번.)

101003 #1 어, 거이가 거. 농사도 짓곡게. 바당에도 뎅기곡.(어, 거의가 거. 농사도 짓고. 바다에도 다니고.)

101003 @ 으.(으.)

101003 #1 게난 남자덜토 연날은 뭐 거 어선이나 이런 게 시원치를 아녓주. '터베'[3]라고나 이제 그 뭐 쪼그만 그 베덜.(그러니까 남자들도 옛날은 뭐 거 어선이나 이런 것이 시원하지를 않았지. 떼배라거나 이제 그 뭐 자그마한 그 배들.)

101003 @ 음.(음.)

101003 #1 헤가지고 그거 가져서 고기 나끄레도 다니고, 주로 여자들은 해녀를 헤서 이제 그 해조류라든가.(해가지고 그거 가져서 고기 낚으려도 다니고, 주로 여자들은 해녀를 해서 이제 그 해조류라든가.)

101003 @ 으.(으.)

101003 #1 이제 그 안네 그 구젱기나 그 이 어페류. 이런 거 잡는 거 잡아서 살아왓주게.(이제 그 안에 그 소라나 그 이 어패류. 이런 거 잡는 거 잡아서 살아왔지.)

101003 @ 예에.(예에.)

101003 #1 게고 농사엔 헌 거 머 옌날에야 무슨 농사가 머 쏠도 안 뒈고 ᄒᆞ니까.(그리고 농사라고 한 거 뭐 옛날에야 무슨 농사가 뭐 쌀도 안 되고 하니까.)

101003 @ 으.(으.)

101003 #1 조, 보리.(조, 보리.)

101003 @ 으.(으.)

101003 #1 감저.(고구마.)

101003 @ 으.(으.)

101003 #1 요런 거 그자, ᄒᆞ면서 잘 뒈지도 아녀는 거.(요런 거 그저, 하면서 잘 되지도 안하는 거.)

101003 @ 으 그 옛날엔 경 ᄒᆞ다 경 허다가, 그 다음엔 저기 지금은 뭐 과수원 일을?(으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하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엔 저기 지금은 뭐 과수원 일을?)

101003 #1 으 게난 거 과수원 난지도 ᄒᆞᆫ ᄉᆞ십 년 뒈기도 뒛는데에.(으 그러니까

3) '테배'는 떼배라고 하며 뗏목처럼 통나무를 엮어 만든 배로 주로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이용한다.

거 과수원 난지도 한 사십 년 되기도 되었는데.)

101003 @ 으.(으.)

101003 #1 이제 밀감이영.(이제 밀감하고.)

101003 @ 으.(으.)

101003 #1 게난 저것도 으라 가지로 지금 ᄒᆞ는데. 저거 뭐 돈이 안 뒈니까. 지금도 이 밀감, 금년도 지금 풀지 못헹 난린게.(그러니까 저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하는데. 저거 뭐 돈이 안 되니까. 지금도 이 밀감, 금년도 지금 팔지 못해서 난린데.)

101003 @ 응 이거 저기 밀감허기 전에도 감저허고 보리허고 조가 데부분이라나 신가마씨?(응 이거 저기 밀감하기 전에도 고구마하고 보리하고 조가 대부분이었는가요?)

101003 #1 예.(예.)

101003 @ 어, 유체도, 유체도 뭐 도중에 허다가 도중에 헹 설러불고?(어, 유채도, 유채도 뭐 도중에 하다가 도중에 해서 그만둬버리고?)

101003 #1 으, 중간에.(으, 중간에.)

101003 @ 으, 조, 보리.(으, 조, 보리.)

101003 #1 보리 다음, 감저 다음에 이제 유체는 뭐 깜짝허게.(보리 다음, 고구마 다음에 이제 유채는 뭐 깜짝하게.)

101003 @ 예에 허다가.(예에 하다가.)

101003 #1 어, 어.(어, 어.)

101003 @ 설러불고.(그만둬버리고,)

101003 #1 허다가 유체가 그 빤짝 헤낫주게.(하다가 유채가 그 빤짝 했었지.)

101003 @ 예.(예.)

101003 #1 거 돈도 좀 가고.(거 돈도 좀 가고.)

101003 @ 맞수다.(맞습니다.)

101003 #1 거 유체 갈안에, 그 새마을운동 허멍 그 스레트 다 올리고 헷주.(거 유채 갈아서, 그 새마을운동 하며 그 슬레이트 다 올리고 했지.)

101003 @ 아 유체 갈안예.(아, 유채 갈아서요.)

101003 #1 응.(응.)

101003 @ 거문 돈이 뒈신게마씨.(그럼 돈이 됐겠네요.)

101003 #1 응, 감저, 감저허고 감저뻿데기ᄒᆞ곡.(응, 고구마, 고구마하고 절간고구마하고.)

101003 @ 아, 아.(아, 아.)

101003 #1 유체ᄒᆞ곡 헤서.(유채하고 해서.)

101003 @ 아 감저는 고구마전분.(고구마는 고구마전분.)

101003 #1 응.(응.)

101003 @ 얘기허는 거 아니우꽈예?(얘기하는 거 아닙니까요?)

101003 #1 응, 그 겨난 그건 전분으로 홀 걸로 그 놀감저로 시꺼 가는 거는 전분허는 거고.(응, 그 그러니까 그건 전분으로 할 걸로 그 날고구마로 실어 가는 거는 전분하는 거고.)

101003 @ 응.(응.)

101003 #1 그 ᄑᆞ는 거는.(그 파는 거는.)

101003 @ 응.(응.)

101003 #1 그거를 다 그 뻿데기로 썰어게. 그 절간기[4]로 헤영.(그거를 다 그 절간고구마로 썰어. 그 절간기계로 해서.)

101003 @ 절간기 헤여 가지고예.(절간기계 하여 가지고요.)

101003 #1 뻿데기.(절간고구마.)

101003 @ 뻿데기는 헤 나면은 그 밧에서 바로 저기.(절간고구마는 해 나면 그 밭에서 바로 저기.)

101003 #1 아이고 저 테역밧디.(아이고 저 잔디밭에.)

101003 @ 아 테역밧디.(아 잔디밭에.)

101003 #1 으 이런데 그 널어야지게. 그냥 흑 밧딘 허민 새카망헹 흑 묻어비영.(으 이런데 그 널어야지. 그냥 흙 밭에는 하면 새카매서 흙 묻어버려서.)

101003 @ 예 맞수다 아.(예 맞수다 아.)

101003 #1 그거 깝이 뒈질 안허주게.(그거 값이 되질 안하지.)

101003 @ 예 그 절간긴 허면은 절간기는 집집마다 잇질 안허고, 빌어당도 허고 순 눌어근에?(예 그 절간기계는 하면 절간기계는 집집마다 있지를 안하고, 빌어다가도 하고 품앗이해서?)

101003 #1 아이, 으응, 동네에서 삿, 동네에서 이제 그거를 구입헤영 ᄒᆞ면은 이제 멧 집이.(아이, 으응, 동네에서 사, 동네에서 이제 그거를 구입해서 하면은 이제 몇 집이.)

101003 @ 멧 집이서?(몇 집에서?)

101003 #1 이제 공동으로 구입헤영 ᄒᆞ는 수도 잇고.(이제 공동으로 구입해서 하는 수도 있고.)

101003 @ 예, 예, 예.(예, 예, 예.)

101003 #1 기자 혼 사름 사당 ᄒᆞ는 사람도 잇고.(거저 한 사람 사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101003 @ 아 게문 옛날에 그 방에랑 ᄆᆞᆯ방에영 ᄒᆞ끔 비슷헌게마씨.(아 그러면 옛날에 그 방아랑 연자매하고 조금 비슷하군요.)

101003 #1 아니 ᄆᆞᆯ방에가 아니고 절간기엔 헌 거 그. 이, 동글랑헌 걸로 칼 부쩌근에 감저 놓왕 둘르면은.(아니 연자매가 아니고 절간기계라고 한 거 그. 이, 둥근 걸로 칼 붙여서 고구마 놓아서 돌리면.)

101003 @ 돌려서예.(돌려서요.)

---

4) '절간기'는 날 고구마를 절편으로 잘라주는 기구를 말하고 있다.

101003 #1 팍팍 썰어지엉 나오는 거주게.(팍팍 썰어져서 나오는 거지.)

101003 @ 예, 예, 게민 몰방에도 혼 몇 집이서 모여근에 방에허곡 허지 안헤수꽈?(예, 예, 그러면 연자매도 한 몇 집에서 모여서 방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101003 #1 아 거 건 동네서.(아 거 건 동네에서.)

101003 @ 동네서 허는 거고예? 경.(동네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101003 #1 응.(응.)

101003 @ 예 거문 삼춘도 이제 저기 뻿데기 널레 가곡 들이레 가곡 헤납디가?(예 그러면 삼촌도 이제 저기 절간고구마 널러 가고 들이러 가고 했었습니까?)

101003 #1 어 헤낫주게.(어 했었지.)

101003 @ 예. 이것도 몰리민 혼 며칠 걸려신고마씨? 혼 보름?(예. 이것도 말리면 한 며칠 걸렸는가요? 한 보름?)

101003 #1 한 일주일.(한 일주일.)

101003 @ 한 달은.(한 달은.)

101003 #1 이상 걸려서.(이상 걸렸어.)

101003 @ 몰령?(말려서?)

101003 #1 보름ᄁᆞ장은 안 걸리고.(보름까지는 안 걸리고.)

101003 @ 응, 일주일?(응, 일주일?)

101003 #1 응.(응.)

101003 @ 비 맞을 뗀 어떵 헤신고마씨예?(비 맞을 땐 어떻게 했는가요?)

101003 #1 비 맞을 뗀 강 다 들영 이제 건 눌어야주게. 더퍼서 비 안 맞게.(비 맞을 땐 가서 다 들여서 이제 그것은 가려야지. 덮어서 비 안 맞게.)

101003 @ 아.(아.)

101003 #1 비 맞으면 세카망헤병 다 썩어벼.(비 맞으면 새카매버려서 다 썩어버려.)

101003 @ 맞수다. 삼춘 그 저기 들여난 일. 한번 골아 골아줍서. 삼춘이 경험헤시난에 그 뻿데기 널고.(맞습니다. 삼촌 그 저기 들였던 일. 한번 말해 말해주십시오. 삼촌이 경험하셨으니까 그 절간고구마 널고.)

101003 #1 아게, 널곡. 널민 그거. 다 널어 놓으면은 거 혼 사흘 정도 몰류민. 그거를 또 뒛싸야 뒈여.(아, 널고. 널면 그거. 다 널어놓으면 거 한 사흘 정도 말리면. 그거를 또 뒤집어야 돼.)

101003 @ 뒛싸.(뒤집어.)

101003 #1 아, 뒤집어 놓아야. 이제 그 다시 그 뒤로 몰룰 거 아니라게.(아, 뒤집어 놓아야. 이제 그 다시 그 뒤로 말릴 거 아니야.)

101003 @ 맞수다. 예, 그 뒤집을 때는 그 ᄒᆞ나ᄒᆞ나 뒤집어신가마씨?(맞습니다. 예, 그 뒤집을 때는 그 하나하나 뒤집었는가요?)

101003 #1 아니 기자 살살 이렇게 ᄒᆞ면서.(아니 거저 살살 이렇게 하면서.)

101003 @ 아 왔다 갔다.(왔다 갔다.)

101003 #1 응.(응.)

101003 @ 허면서.(하면서.)

101003 #1 응.(응.)

101003 @ 그것도 보면은 그냥, 흔 그 마지기로 헙니까? 그거? 몇 평으로 헙니까. 몇 평 그?(그것도 보면 그냥, 한 그 마지기로 합니까? 그거? 몇 평으로 합니까. 몇 평 그?)

101003 #1 아 게난게.(아 그러니까.)

101003 @ 평수로.(평수로.)

101003 #1 그거 평당, 그 다. 그 전에는 이 저. 감자를 심어도오. 이게 뭐 벡 평, 이벡 평만 심는 거 아니고.(그거 평당, 그 다. 그 전에는 이 저. 고구마를 심어도. 이것이 뭐 백 평, 이백 평만 심는 거 아니고.)

101003 @ 음.(음.)

101003 #1 흔 천 평.(한 천 평.)

101003 @ **ᄒᆞ게 천 평?(**하게 천 평?)

101003 #1 이렇게 그 잇는 밧딘, 다 심을 수도 잇고 다른 농사 ᄒᆞ다가 나머진 다 헐 수도 잇는 거니까.(이렇게 그 있는 밭에는, 다 심을 수도 있고 다른 농사 하다가 나머지는 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101003 @ 음.(음.)

101003 #1 경 경 헹 ᄒᆞ면은 그거.(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거.)

101003 @ 경 테역밧이 경 하신가? 그거.(그렇게 잔디밭이 그렇게 많았는가? 그거.)

101003 #1 아 게난.(아 그러니까.)

101003 @ 집집마다 널젠 허민.(집집마다 널려고 하면.)

101003 #1 테역밧이 엇이므로.(잔디밭이 없으므로.)

101003 @ 응.(응.)

101003 #1 이제 그, 집집에서도 허고. 여기저기 게난 그, 그 당시에는 이거 데수산봉[5]도.(이제 그, 집집에서도 하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 그 당시에는 이거 '대수산봉'도.)

101003 @ 응.(응.)

101003 #1 이 나무가 저렇게 이제는 꽉 들여찻주마는 그 엿날에는 이제 쉐덜 질르멍 쉐멕이고 뭐허고.(이 나무가 저렇게 이제는 꽉 들어찼지만 그 옛날에는 이제 소들 키우면서 소먹이고 뭐하고.)

101003 @ 불 놓고.(불 놓고.)

101003 #1 목장허고.(목장하고.)

101003 @ 예.(예.)

101003 #1 불도 놓곡 헤낫주게. 그때는 나무가 엇인 때는 다 잔디밧.(불도 놓고

5) '대수산봉'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에 소재한 오름이다.

했었지. 그때는 나무가 없던 때는 다 잔디밭.)
101003 @ 아 잔디밭.(아 잔디밭.)
101003 #1 응.(응.)
101003 @ 테엿밧이난예.(잔디밭이니까요.)
101003 #1 으.(으.)
101003 @ 거기도 널고예. 맞수다.(거기에도 널고요. 맞습니다.)
101003 #1 게난 그듸 다 강. 지여다근에.(그러니까 그데 다 가서. 지어다가.)
101003 @ 어 지금 허고는 지금 상황으로 저기 형편으로 생각해서는 도데체가.(어 지금 하고는 지금 상황으로 저기 형편으로 생각해서는 도대체가.)
101003 #1 응.(응.)
101003 @ 이해 이해가 안 뒈쿠다예.(이해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요.)
101003 #1 응, 게난 지금은 그걸 허젱헤도 널 데가 없어.(응,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하려고해도 널 데가 없어.)
101003 @ 응.(응.)
101003 #1 이제는 이제는 그 망사들 많이 나오니까.(이제는 이제는 그 망사들 많이 나오니까.)
101003 @ 응.(응.)
101003 #1 그런 거 사다근에.(그런 거 사다가.)
101003 @ 만약에 허게 뒈면.(만약에 하게 되면.)
101003 #1 응 싹 우이헤근에 널며는 뒈겟지마는 그멘 그런 게 없으니까.(응 싹 위에해서 널면 되겠지만 그땐 그런 것이 없으니까.)
101003 @ 응.(응.)
101003 #1 이 저 테역밧벳기 의존헐 띠가 없어.(이 저 잔디밭밖에 의존할 데가 없어.)
101003 @ 맞수다. 그때는예.(맞습니다. 그때는요.)
101003 #1 게난 막 그 우의 촐 비는 밧.(그러니까 아주 그 위에 꼴 베는 밭.)
101003 @ 응.(응.)
101003 #1 이 부락벳깃디 나가서도 그 마차로 다 시꺼가근에. 거기서.(이 마을 밖에 나가서도 그 마차로 다 실어가서. 거기서.)
101003 @ 돌려근에 절간기로 놔근에예?(돌려서 절간기계로 넣어서요?)
101003 #1 골아근에.(갈아서.)
101003 @ 거 헐 때는 골체엔 헌 거 들러근에.(거 할 때는 삼태기라고 한 거 들어서.)
101003 #1 아, 어?(아, 어?)
101003 @ 골체로 받아근에.(삼태기로 받아서.)
101003 #1 으, 골체로혜근에 널곡.(으, 삼태기로해서 널고.)
101003 @ 널곡예.(널고요.)

101003 #1 들일 땐 또 다 모두왕 허, 헛.(들일 때는 또 다 모아놓아서 허, 헛.)

101003 @ 예.(예.)

101003 #1 그거.(그거.)

101003 @ 맞수다. 테역도 막 붙으곡 헤가지곡.(맞습니다. 잔디도 마구 붙고 해가지고.)

101003 #1 으 응.(으 응.)

101003 @ 경 헤도 밧이서. 흑 우이 넌 것보다는 낫으큰게마씨.(그렇게 해도 밭에서. 흙 위에 너는 것보다는 낫겠군요.)

101003 #1 어.(어.)

101003 @ 낫으쿠다.(낫겠습니다.)

101003 #1 응, 게난 그때도 비오는 게 문제주게 거.(응, 그러니까 그때도 비오는 것이 문제지 거.)

101003 @ 응 비와 난 다음 더프는 거는 모다놩 덮으는 거는 ᄂᆞ람지로 헤근에.(응 비와 난 다음 덮는 거는 모아놔서 덮는 거는 이엉으로 해서.)

101003 #1 어 ᄂᆞ람지로 더프든지. 그 때는 비니루[6]도 별로.(어 이엉으로 덮든지. 그 때는 비닐도 별로.)

101003 @ 엇어노난.(없었으니까.)

101003 #1 엇어노니까.(없었으니까.)

101003 @ 예 맞수다. 거난 조허고 보리허고 감저 그 크게 생각허는게. 그게 큰 농ᄉᆞ고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하고 보리하고 고구마 그 크게 생각하는. 그게 큰 농사고요.)

101003 #1 응.(응.)

101003 @ 경 헤도 조허고 보리허고 고구마 중에서, 여기서 뭰 거는 무슨 농사가 뒈코마씨? 제일 버친 거.(그렇게 해도 조하고 보리하고 고구마 중에서, 여기서 되었던 거는 무슨 농사가 될까요? 제일 부친 거.)

101003 #1 아, 여긴 조도 잘 뒈고, 보리도 잘 뒈여.(아, 여기는 조도 잘 되고, 보리도 잘 됐어.)

101003 @ 아, 조허고 보리?(아, 조하고 보리?)

101003 #1 으.(으.)

101003 @ 거문 조는? 조도 막 저 여럿 잇지 안우꽈?(그러면 조는? 조도 아주 저 여럿 있지 않습니까?)

101003 #1 아 ᄋᆞ라, 흐린조, 모인조.(아 여러, 차조, 메조.)

101003 @ 흐린조, 모인조.(차조, 메조.)

101003 #1 이렇게 이시난에. 뭐 ᄀᆞ랑조[7]엔 헌 것도 잇고.(이렇게 있으니까. 뭐 'ᄀᆞ랑조'라고 한 것도 있고.)

---

6) '비니루' 비닐(vinyl)이다.

7) 'ᄀᆞ랑조'는 조의 일종으로 자잘한 좁쌀이다.

101003 @ 아.(아.)
101003 #1 으라 가지 그.(여러 가지 그.)
101003 @ ᄀᆞ랑조?('ᄀᆞ랑조?')
101003 #1 응.(응.)
101003 @ 흐린조, 모인조.(차조. 메조.)
101003 #1 응.(응.)
101003 @ ᄀᆞ랑조. 또 노랑, 노랑?('ᄀᆞ랑조.' 또 노랑, 노랑?)
101003 #1 게난 조는 다 노랑 헌 거난게.(그러니까 조는 다 노랑 한 거니까.)
101003 @ 다 노랑 헌 거.(다 노랑 한 거.)
101003 #1 허 헛.(허 헛.)
101003 @ 검정 검정 거는 흐린 거.(검정 검정 거는 차진 거.)
101003 #1 응.(응.)
101003 @ 예 맞수다. 보리는 또 두줄보리. 무슨 막 허지안헙니까? 보리.(예 맞습니다. 보리는 또 두줄보리. 무슨 마구 하지안합니까? 보리.)
101003 #1 게난 보리는 에 그 종류가 그것도, 눌우리,[8] 솔누리.(그러니까 보리는 에 그 종류가 그것도, 늘보리, 쌀보리.)
101003 @ 아 솔우리.(아 쌀보리.)
101003 #1 뭐.(뭐.)
101003 @ 눌우리이.(늘보리.)
101003 #1 또 그 나중에는 종자가 막 좋은 것덜이 나와낫주.(또 그 나중에는 종자가 막 좋은 것들이 나왔었지.)
101003 @ 나중에 맥주멕이여. 무시거여 헤근에예?(나중에 맥주보리다. 무엇이다 해서.)
101003 #1 응.(응.)
101003 @ 그거는 나중에 나온 거 아니우꽈예?(그거는 나중에 나온 거 아닙니까?)
101003 #1 응.(응.)
101003 @ 멕주멕 헤근에.(맥주보리 해서.)
101003 #1 그 종자가 자꾸 개량이 뒈어가니까.(그 종자가 자꾸 개량이 되어가니까.)
101003 @ 응, 응.(응, 응.)
101003 #1 나와낫는디.(나왔었는데.)
101003 @ 응, 예 그건 뒛고예.(응, 예 그건 됐고요.)
101004 @ 그러면은 저기 이 아까 대수산봉도 잇고 경 헷주마는 오름허고 내허고.(그러면은 저기 이 아까 '대수산봉'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오름하고 내하고.)
101003 #1 응.(응.)

8) '눌우리' 늘보리 이삭의 모양이 네모진 보리다.

101004 @ 바위.(바위.)

101004 #1 아, 출왓덜 아.(아 꼴밭들 아.)

101004 @ 바위.(바위.)

101003 #1 엇.(엇.)

101004 @ 저기 아까 농사는 저기 저 넘어가고예. 그 다음에 이 마을 주변에 오름이나 내나 바위나 굴 굴 ᄀᆞ튼 거 잇이민 ᄀᆞᆯ아줍서.(저기 아까 농사는 저기 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을 주변에 오름이나 내나 바위나 굴 굴 같은 거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101004 #1 아, 이 동네는 내는, 그 연 지금은 다 이제 그 고수천[9] 헤가지고 알로 파가지고 헤부니까. 내엔 없는데 옌날은 남제긴내[10] 허면은.(아, 이 동네는 내는, 그 연 지금은 다 이제 그 '고수천' 해가지고 아래로 파가지고 해버리니까. 내라고는 없는데 옛날에는 '남제긴내' 하면.)

101004 @ 남제긴내?('남제긴내?')

101004 #1 남제긴내 허민, 고성 그 바로 중간으로 이 저 동남[11]더레 막 흘러가는 낸데. 저게 오게 뒈민, 궹장이 크주게.('남제긴내' 하면, '고성' 그 바로 중간으로 이 저 '동남'쪽으로 막 흘러가는 내인데. 저게 오게 되면, 굉장히 크지.)

101004 @ 응.(응.)

101004 #1 막 주위 다 휩쓸어 가곡.(아주 주위를 다 휩쓸어 가고.)

101004 @ 아, 아.(아, 아.)

101004 #1 거게 저 성읍[12]이로부터 시작헤서 주욱 오는 낸디.(그러니까 저 '성읍'이로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낸데.)

101004 @ 예. 남제긴내예.(예. '남제긴내'요.)

101004 #1 응.(응.)

101004 @ 아.(아.)

101004 #1 견디 이제는 남제긴내가 엇어져시난에. 이제 헤, 헤 전부 다 알르로 그. 고수천 사업을 헤연에 그듸 그.(그런데 이제는 '남제긴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헤, 헤 전부 다 아래로 그. '고수천' 사업을 해서 그데 그.)

101004 @ 아, 묻어부런마씨. 묻어 와부러수꽈??(아, 묻어버렸어요. 묻어 와버렸습니까?)

101004 #1 아니 저 그, 것ᄀᆞ라 뭐엔 ᄀᆞᆫ느니? 저, 뭐 헷주게. 그 네귀방정ᄒᆞ게 헹다 파네.(아니 저 그, 그것보고 뭐라고 말하니? 저, 뭐 했지. 그 네모반듯하게 해서 다 파서.)

101004 @ 응.(응.)

---

9) '고수천'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천 바닥을 매끄럽게 까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 하천을 말한다.

10) '남제긴내'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에 소재한 하천이다.

11) '동남'은 서귀포시 성산읍 행정 마을 중 고성마을의 옛 이름이다.

12) '성읍'은 서귀포시 표선면 행정마을 중 성읍마을이다.

101004 #1 다 공그리 가운디 궹장이 크게 밑으로 물 흘르게.(다 콘크리트 가운데 굉장히 크게 밑으로 물 흐르게.)

101004 @ 덮어 부런마씨?(덮어 버렸어요?)

101004 #1 응.(응.)

101004 @ 덮은 게 아니고 정비를 허여 정비를.(덮은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해 정비를.)

101004 #1 응.(응.)

101004 @ 내창 정비를.(내 정비를.)

101004 #1 응.(응.)

101004 @ 남제긴내예? 경 허곡 그 그 이외에는 내는 엇수과?('남제긴내'요? 그렇게 하고 그 그 이외는 내는 없습니까?)

101004 #1 내에?(내?)

101003 @ 예, 남제긴낸 말고.(예, '남제긴내'는 말고.)

101003 #1 아, 그건 뭐 고성 중간으로도.(아, 그건 뭐 '고성' 중간으로도.)

101003 @ 예,(예.)

101003 #1 큰 거도.(큰 것도.)

101004 @ 응 큰 거, 족은 것도 막 골아줍서.(응 큰 거, 작은 것도 막 말해주십시오.)

101004 #1 족은 게, 족은 거는.(작은 것이, 작은 거는.)

101003 @ 무슨 내, 무슨 내.(무슨 내, 무슨 내.)

101003 #1 어, 소소히 오는 거야 그거 머. 길 우이로 흘르는 건.(어, 소소히 오는 거야 그거 뭐. 길 위로 흐르는 건.)

101004 @ 음.(음.)

101003 #1 헌데.(한데.)

101004 @ 음.(음.)

101004 #1 거 비가 많이 와서 크게 뒈민. 크게 수산[13]으로 헤가지고.(거 비가 많이 와서 크게 되면. 크게 '수산'으로 해가지고.)

101004 @ 성읍으로 가?('성읍'으로 가?)

101004 #1 성읍으로 헤가지고 오는 내가 굉장히.('성읍'으로 해가지고 오는 내가 굉장히.)

101004 @ 아, 유명허고 크구나예.(아, 유명하고 크군요.)

101004 #1 으.(으.)

101004 @ 물도.(물도.)

101004 #1 컨. 헨디.(커서. 하는데.)

101004 @ 물도 크고.(물도 크고.)

101004 #1 응 게서 그 저짝. 그 양어장 쪽으로 헹 막. 물이 다 바다로 네려 가

13) '수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중에 있는 수산마을이다.

부러. 네려가 버리는데 그게 흘르는 동안에 궹장이 피해가 많주게.(응 그래서 그 저쪽. 그 양어장 쪽으로 해서 아주. 물이 다 바다로 내려가 버려. 내려가 버리는데 그것이 흐르는 동안에 굉장히 피해가 많지.)

101004 @ 피해가 많아예.(피해가 많아요.)

101004 #1 으, 밧 ᄀᆞ뜬 거, 거 옆에 밧. 자갈로 다 묻어불고 흑 다 파가불곡.(으, 밭 같은 거, 거 옆의 밭. 자갈로 다 묻어버리고 흙 다 파가버리고.)

101004 @ 으 보통 여름에, 저기 하수다예.(으 보통 여름에, 저기 많습니다요.)

101004 #1 아 게난 비가 많이 올 때.(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101004 @ 예에.(예에.)

101004 #1 게난 일 년에 한 두 번은 와 그 내가.(그러니까 일 년에 한 두 번은 와 그 내가.)

101004 @ 크게예? 음.(크게요? 음.)

101004 #1 게민 피해가 크주게.(그러면 피해가 크지.)

101004 @ 음 사람도 쓸어나수꽈? 사람도 쓸어나수꽈?(음 사람도 쓸었었습니까? 사람도 쓸었었습니까?)

101004 #1 아, 사름도 죽어낫주.(아, 사람도 죽었었지.)

101004 @ 그 오름은.(그 오름은.)

101004 #1 오름은 여기 그 저, 큰물믜,[14] 족은물믜[15] 허주.(오름은 여기 그 저, '대수산봉', '소수산봉' 하지.)

101004 @ 아, 물믜예?(아, '물메'요.)

101004 #1 응, 물믜오름이엔 허주게.(응, '물메오름'이라고 하지.)

101004 @ 응.(응.)

101004 #1 큰물믜는요 데수산봉이고, 족은물믜는 저 소수산봉.[16]('큰물메'는요 '대수산봉'이고, '족은물메'는 저 '소수산봉.')

101004 @ 응.(응.)

101004 #1 저기 신양 그, 요 들어가는 입구에.(저기 '신양' 그, 요 들어가는 입구에.)

101004 @ 들어가는 입구?(들어가는 입구?)

101004 #1 잇인 족은물믜.(있는 '작은물메.')

101004 @ 응 데수산봉?(응 '대수산봉?')

101004 #1 응 그게 고성에 이신.(응 그게 '고성'에 있는.)

101004 @ 응 고성(응 '고성')

101004 #1 고성 저 방듸[17]라고.('고성' 저 '신양'이라고.)

101004 @ 예.(예.)

---

14) '큰물메'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에 소재한 오름이다.
15) '족은물메'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에 소재한 오름이다.
16) '소수산봉'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에 소재한 오름이다.
17) '방듸'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마을의 옛 이름이다.

101004 #1 이 신양리가 방듸주게 옌날.(이 ‘신양’이 ‘방듸’지 옛날.)

101004 @ 예, 예.(예, 예.)

101004 #1 게 고성이리로 허단. 이제.(그래서 ‘고성’이이로 하다가. 이제.)

101004 @ 신양리로 나가부니까.(‘신양’이로 나가버리니까.)

101004 #1 신양리로 헤서 행정구역이 바뀌난.(이제 ‘신양’이로 해서 행정구역이 바뀌니까.)

101004 @ 바뀌난.(바뀌니까.)

101004 #1 거 신양으로 헤서 헷주. 옌날은 고성이구.(거 ‘신양’으로 해서 했지. 옛날은 ‘고성’이구.)

101004 @ 고성이구?(‘고성’이구?)

101004 #1 응.(응.)

101004 @ 아.(아.)

101004 #1 신양이가. 게난 그 섭찌[18]에 가면은.(‘신양’이가. 그러니까 그 ‘섭지’에 가면은.)

101004 @ 음 그 옛날에는예. 옛날엔 경 허고. 거면은 굴 같은 거는 엇수과?(음 그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굴 같은 거는 없습니까?)

101004 #1 굴?(굴?)

101004 @ 응.(응.)

101004 #1 굴이 수산에 가민 이서도.(굴이 ‘수산’에 가면 있어도.)

101004 @ 고성엔?(‘고성’에는?)

101004 #1 고성엔 엇어.(‘고성’에는 없어.)

101004 @ 고성엔 엇고 음.('고성'에는 없고 음.)

101004 #1 응.(응.)

101004 @ 굴은 없고예. 으 거문 이거는 넘어가고.(굴은 없고요. 으 그럼 이거는 넘어가고.)

101005 @ 그 다음에는, 이 마을에 기관이엔 헌 거 잇지 안우꽈?(그 다음에는, 이 마을에 기관이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101005 #1 아, 기관, 옌날. 이 고성 성이 잇언. 그 뭐여 정의현 현청[19]이. 고성 잇엇주게.(아, 기관, 옛날. 이 ‘고성’ 성이 있었어. 그 뭐야 정의현 현청이. ‘고성’ 있었지.)

101005 @ 예.(예.)

101005 #1 아주 옌날은.(아주 옛날은.)

101005 @ 응.(응.)

101005 #1 게 허다가 성읍이로 옮긴 다음에 이 현청이 엇어지고.(그렇게 하다가

18) ‘섭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에 위치한 바닷가 이름이다. 지금은 ‘섭지코지’로 더 알려져 있다.

19) ‘정의현 현청’은 조선조 태종 16년(1416) 성산읍 고성리에 설치되었던 정의 현청이 조선조 세종 5년(1423) 성읍으로 옮긴이래 500여 년간 현청이었다.

‘성읍’이로 옮긴 다음에 이 현청이 없어지고.)

101005 @ 예.(예.)

101005 #1 에, 그 후에.(에 그 후에.)

101005 @ 음.(음.)

101005 #1 그 후에, 멘사무소가 이 고성에 잇어낫서.(그 후에, 면사무소가 이 ‘고성’에 있었었어.)

101005 @ 면사무소가예.(면사무소가요.)

101005 #1 쪼끔.(조금.)

101005 @ 응.(응.)

101005 #1 잇어낫는데 그게 ᄒᆞ다가 또 자꾸 이동덜. 이제 성산[20]에 갔다가 또 고성에 오고.(있었었는데 그게 하다가 또 자꾸 이동을. 이제 ‘성산’에 갔다가 또 ‘고성’에 오고.)

101005 @ 아, 성산에 갔다가.(아, 성산에 갔다가.)

101005 #1 음.(음.)

101005 @ 고성에 오고. 지금은 고성에 잇인 거라예.(고성에 오고. 지금은 고성에 있는 거예요.)

101005 #1 응.(응.)

101005 @ 응.(응.)

101005 #1 지금은 읍사무소난에.(지금은 읍사무소니까.)

101005 @ 예, 지금.(예, 지금.)

101005 #1 응.(응.)

101005 @ 고성에 있고. 게문 우체국은?(‘고성’에 있고. 그럼 우체국은?)

101005 #1 우체국은 에, 중간에 성산에만 잇다가.(우체국은 에, 중간에 ‘성산’에만 있다가.)

101005 @ 아.(아.)

101005 #1 에, 중간에 고성 앗 우체국으로 헤서.(에, 중간에 ‘고성’ 앗 우체국으로 해서.)

101005 @ 거문 성산도 잇고. 고성도 잇고 우체국은.(그럼 ‘성산’도 있고. ‘고성’도 있고 우체국은.)

101005 #1 어.(어.)

101005 @ 지금? 현재에? 으 게문.(지금? 현재에? 으 그럼.)

101005 #1 응, 신산[21]도 잇고.(응, ‘신산’도 있고.)

101005 @ 예 거문, 예 파출소, 지서는 어떵 헤수과? 옛날은 지서엔 헷주예?(예 그럼, 예 파출소, 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은 지서라고 했지요?)

101005 #1 응 옌날엔 파출소가 고성도 잇어낫주. 성산은 옌날은 ᄉᆞ구경찰서라고

20) ‘성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행정마을 중 성산마을 이다.
21) ‘신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행정마을 중 신산마을 이다.

헤서. 그 ᄉᆞ삼사건[22] 때는 ᄉᆞ구경찰서랏주. 그 디가.(응 옛날에는 파출소가 '고성'도 있었었지. '성산'은 옛날은 사구경찰서라고 해서. 그 사삼사건 때는 사구경찰서였지. 그 데가.)

101005 @ 아.(아.)

101005 #1 여기가.(여기가.)

101005 @ 음.(음.)

101005 #1 저 일구는 제주시고, 이구는 서귀포. 삼구는 모슬포, ᄉᆞ구경찰서는 성산포라 경찰서가.(저 일구는 '제주시'고, 이구는 '서귀포.' 삼구는 '모슬포,' 사구경찰서는 '성산포'야 경찰서가.)

101005 @ 아.(아.)

101005 #1 경 뒛단.(그렇게 되었다가.)

101005 @ 아.(아.)

101005 #1 그게 그 ᄉᆞ삼사껀이 넘고 육이오사변이 그 후에 경찰서가 엇어져서. 경 헤서 지서ᄒᆞ고 동남엔 또 파출소 잇어나고.(그것이 그 사삼사건이 넘고 육이오사변이 그 후에 경찰서가 없어져서. 그렇게 해서 지서하고 '동남'에는 또 파출소 있었었고.)

101005 @ 응, 동남에는.(응, '동남'에는.)

101005 #1 응.(응.)

101005 @ 파출소 잇어나고예?(파출소 있었고요?)

101005 #1 음.(음.)

101005 @ 아 게난에 경찰서는 성산에 잇어낫다는 거구나예.(아 그러니까 경찰서는 '성산'에 있었다는 것이군요.)

101005 #1 응.(응.)

101005 @ 성산에, 그때는 성산허고 고성이 저기, 경 분리 될 때라나신가마씨?('성산'에, 그때는 '성산'하고 '고성'이 저기, 그렇게 분리 될 때였는가요?)

101005 #1 아 이 고성이ᄒᆞ고 성산이 부락이 틀리잔여게.(아 이 '고성'이하고 '성산'이 마을이 다르잖아.)

101005 @ 그 처음서부터?(그 처음서부터?)

101005 #1 응.(응.)

101005 @ 아, 경 헷구나예. 그 다음에 경찰서허고, 그 다음에 리사무소허고.(아, 그렇게 했군요.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이사무소하고.)

101005 #1 아, 리사무소야 뭐. 메 동네마다, 리마다 리사무소야 다 잇주머.(아, 이사무소야 뭐. 매 동네마다, 이마다 이사무소야 다 있지.)

101005 @ 예.(예.)

101005 #1 잇인 거난.(있는 것이니까.)

---

22) 'ᄉᆞ삼사건'은 '사삼사건' 1948년 제주도 민간에서 일어났던 소요사건을 군에서 폭동이라고 규정하여 군 • 경이 대다수 민간인을 무차별로 사살한 일로 제주도 민간인들이 피해가 극심했던 일을 말한다.

101005 @ 예, 그 다음에 경노당 잇고.(예, 그 다음에 경로당 있고.)

101005 #1 아, 이 경노당은 이거 멧 헤 안뒛서.(아, 이 경로당은 이것 몇 해 안됐어.)

101005 @ 멧 헤 안둬고예?(몇 해 안되고요?)

101005 #1 응.(응.)

101005 @ 이거 분회는 이거는, 이거는 성산읍 분횐데.(이거 분회는 이거는, 이거는 성산읍 분회인데.)

101005 #1 응.(응.)

101005 @ 이거는 이것도 멧 헤 안둬수꽈?(이거는 이것도 몇 해 안됐습니까?)

101005 #1 에, 아니 둬기야 이거 흔 십여 년 둬긴 뒛주게.(에, 아니 되기야 이거 한 십여 년 되기는 됐지.)

101005 @ 응.(응.)

101005 #1 뒛주마는 뭐 분회나 이거 소위 대한노인회. 그 조직상으로 그 ᄒᆞ는 거난.(됐지만 뭐 분회나 이거 소위 대한노인회. 그 조직상으로 그 하는 거니까.)

101005 @ 응.(응.)

101005 #1 이제 제주도는 연합회고.(이제 제주도는 연합회고.)

101005 @ 음.(음.)

101005 #1 게난 처음은 남군, 북군, 서귀포, 제주시혜서, 이 노인회 그 지회도 네 군데 잇다가. 그 특별자치도로 뭐 헐 때 바꽈지니까 이젠 합뼝이 둬가지고, 우린 서귀포허고 남제주군이 ᄒᆞ나가 둬버리고, 제주시ᄒᆞ고 북군ᄒᆞ고 또 ᄒᆞ나가 둬버리고. 이렇게 ᄒᆞ니까 지금 우린 서귀포시에 속헤 잇는 거주.(그러니까 처음은 남군, 북군, '서귀포,' '제주시'해서, 이 노인회 그 지회도 네 군데 있다가. 그 특별자치도로 뭐 할 때 바뀌지니까 이제는 합병이 돼가지고 우린 '서귀포'하고, 남제주군이 하나가 돼버리고, '제주시'하고 북군하고 또 하나가 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는 '서귀포시'에 속해 있는 거지.)

101005 @ 응 거문 이제 학교하고, 학교는 초등학교하고.(응 그러면 이제 학교하고, 학교는 초등학교하고.)

101005 #1 에, 아이.(에, 아이.)

101005 @ 옛날은 궁민학교주만.(옛날은 국민학교지만.)

101005 #1 아이 이 성.(아이 이 성.)

101005 @ 초등학교, 중학교하고.(초등학교, 중학교하고.)

101005 #1 아 이 중학교도 여기 잇섯고. 고등학교도 요 고성에 잇다가.(아 이 중학교도 여기 있었고, 고등학교도 요 '고성'에 있다가.)

101005 @ 응.(응.)

101005 #1 요 요 지금 동남으로 성산으로 들어가는 그 동산에 잇다가. 저 짝 오지리[23]로 수고[24]가 이전을 헷주게.(요 요 지금 '동남'으로 '성산'으로 들어가는 그

23) '오지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행정마을 중 오조마을이다.

동산에 있다가. 저 쪽 '오조'이로 '수고'가 이전을 했지.)

101005 @ 아, 원래는 고성에 있었다가.(아, 원래는 '고성'에 있었다가.)

101005 #1 응 으.(응 으.)

101005 @ 아, 그 경 허고 그 또 파출소 기관 또 더 다 기관이엔 헌 건 국가에서 운영허는 거 아니꽈?(아, 그 그렇게 하고 그 또 파출소 기관 또 더 다 기관이라고 한 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101005 #1 응.(응.)

101005 @ 경 허고 또 다른 기관은 잇인가마씨?(그렇게 하고 또 더 다른 기관은 있는가요?)

101005 #1 다른 기관이사, 이 촌에 그런 건 잇을 수가 엇주.(다른 기관이야, 이 촌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101005 @ 응.(응.)

101005 #1 뭐 읍사무소 안네 무신 각.(뭐 읍사무소 안에 무슨 각.)

101005 @ 음.(음.)

101005 #1 어, 옌날에 그 은행헤도이. 성산 안네 금융조합 ᄒᆞ나 잇어낫고.(어, 옛날에 그 은행해도. '성산' 안에 금융조합 하나 있었었고.)

101005 @ 음.(음.)

101005 #1 경 허다가 나중엔 농협이라든가 수협. 이런 거 다 이제 그거는 그 후에 다 만들어진 것덜이니까.(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농협이라든가 수협. 이런 거 다 이제 그거는 그 후에 다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101005 @ 응 그 제주은행도 일찍이 잇어나수게예?(응 그 제주은행도 일찍이 있었었지요?)

101005 #1 응, 제주은행도 동남에.(응, 제주은행도 '동남'에.)

101005 @ 응.(응.)

101005 #1 쫌 오렛주.(좀 오랬지.)

101005 @ 오레 있엇고예?(오래 있었고요?)

101005 #1 음.(음.)

101005 @ 예 조합 같은 거, 경우는 뭐 농협조합.(예 조합 같은 거, 경우는 뭐 농협조합.)

101005 #1 응, 농협도 옌날은 이 고성에. 이 동부리, 이 성산읍에 동부 쪽에 조합허고 서부리 조합허고 양쪽에 잇엇어. 서부리 조합은.(응, 농협도 옛날은 이 '고성'에. 이 '동부'이, 이 성산읍에 동부 쪽에 조합하고 '서부'이 조합하고 양쪽에 있었어. '서부'이 조합은.)

101005 @ 응.(응.)

101005 #1 신산이 잇엇고. 동부리는 이제 고성에 잇엇고. 경 ᄒᆞ단 이게 나중에

24) '수고'는 서귀포시 성산고등학교의 전신인 수산고등학교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마을에 소재해 있다.

합뼝이 뒈가지고 성산농협협동조합으로 성산농협 경 ᄒᆞ단 이젠 일출봉협동조합으로 이제 막.(‘신산’이 있었고. ‘동부’이는 이제 ‘고성’에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것이 나중에 합병이 돼가지고 ‘성산농협협동조합’으로 ‘성산농협’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일출봉협동조합’으로 아주.)

101005 @ 예.(예.)

101005 #1 개편허멍 지금.(개편하면서 지금.)

101005 @ 예, 거문예. 그거는 뭐 고성이 워낙 큰 큰 디난마씨게예.(예, 그러면요. 그거는 뭐 ‘고성’이 워낙 큰 큰 데니까요.)

101005 #1 어 고성이 그.어 ‘고성’이 그.)

101005 @ 예, 예.(예, 예.)

101005 #1 읍 소제지난게.(읍 소재지니까.)

101005 @ 예, 예. 읍 소재지난.(예, 예. 읍 소재니까.)

101005 #1 음.(음.)

101006 @ 그 쪼금 전에 저기 한 두 번, 세 번째 질문에 그 바다일 같은 거 막 헷덴 허면서예?(그 조금 전에 저기 한 두 번, 세 번째 질문에 그 바다일 같은 거 아주 했다고 하면서요?)

101006 #1 응.(응.)

101006 @ 남자 어른덜도 헷덴 허니까는, 이 마을에 계. 계엔도 허고 접이엔도 허는디예.(남자 어른도 했다고 하니까, 이 마을에 계. 계라고도 하고 ‘접’이라고도 하는데요.)

101006 #1 접.(계.)

101006 @ 예 계허고 계나 접이나, ᄀᆞ뜬 말인 거 닮은디. 어떤 것들이 잇어나신고예? 뭐 꽂접?(예 계하고 계나 ‘접’나 같은 말인 거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요? 뭐 꽂계.)

101006 #1 아, 계엔 헌건 소위 말 허면은 접, 접.(아, 계라고 한건 소위 말하면 계, 계.)

101006 @ 음.(음.)

101006 #1 걸 그냥 접이엔 허주게.(거를 그냥 계이라고 하지.)

101006 @ 응.(응.)

101006 #1 거, 동네별로 장사가, 이제 영장[25]이 나도. 그 동네서 이제 ᄀᆞ찌헤서 운상. 옌날에야 그 사름 다. 다 어께로 다 메어가고 뭐허고 ᄒᆞ지 안헤사게?(거, 동네별로 장사가, 이제 영장이 나도. 그 동네에서 이제 같이해서 운상. 옛날에야 그 사람 다. 다 어깨로 다 매어가고 뭐하고 하지 않았니?)

101006 @ 예.(예.)

101006 #1 게난 거게 걸 동네접으로 헤서, 그 사름덜은 꼭 그때는 나와서.(그러니까 거 그것을 동네계로 해서, 그 사람들은 꼭 그때는 나와서.)

25) ‘영장’은 영장(靈葬)을 말한다.

101006 @ 응.(응.)

101006 #1 그 장사 지네는데 ᄀᆞ찌 참여허도록 허는 이런 접들이 이섯주.(그 장사 지내는데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계들이 있었지.)

101006 @ 예.(예.)

101006 #1 게난 거머 ᄋᆞ라 가지 접이 많주.(그러니까 거 여러 가지 계가 많지.)

101006 @ 응.(응.)

101006 #1 많주만은 그거 일일이.(많지만 그거 일일이.)

101006 @ 화단[26] 접.(화단 계.)

101006 #1 으.(으.)

101006 @ 화단 접도 허곡 멜 들민.(화단 계도 하고 멜 들면.)

101006 #1 아, 멜케,[27] 에 요런 것도 잇엇고.(아, 멸치계, 에 요런 것도 있었고.)

101006 @ 으 거문 저기 아까는 상 상 난디.(으 그러면 저기 아까는 상 상 난데.)

101006 #1 으.(으.)

101006 @ 그 메엉 가는 거는 화단이엔 헙니까?(그 매어 가는 거는 화단이라고 합니까?)

101006 #1 응 화단 접.(응 화단 계.)

101006 @ 화단 접?(화단 계?)

101006 #1 으.(으.)

101006 @ 화단접이엔 허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동네엔도 헙니까?(화단계라고도 하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동네라고도 합니까?)

101006 #1 아 게메, 그게 동네가 영.(아 글쎄, 그게 동네가 이렇게.)

101006 @ 응.(응.)

101006 #1 그 이웃한. 게 고성도 골이 잇엇써. 골.(그 이웃한. 그럼 '고성'도 골이 있었어. 골.)

101006 @ 골?(골?)

101006 #1 그 영 돌아 가멍.(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101006 @ 응.(응.)

101006 #1 에, 소위 벵딋까름[28]동네, 성안[29]동네, 남문[30]동네, 웃도릉[31] 웃동네 ᄒᆞ문, 장만이동산,[32] 아 요런 이 저 동네별로 허문은 거이 접이나 계가.(에, 소위 '벵딋가름'동네, '성안'동네, '남문'동네, '웃도릉' 윗동네 하면, '장만이동산', 아 요런 이 저 동네별로 하면은 거의 계나 계가.)

---

26) '화단'은 상여에 지붕 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를 말한다.
27) '멜케'는 멸치계를 말한다.
28) '벵딋가름동네'는 서귀포시 성상읍 고성리에 소재해 있다.
29) '성안동네'는 서귀포시 성상읍 고성리에 소재해 있다.
30) '남문동네'는 서귀포시 성상읍 고성리에 소재해 있다.
31) '웃도릉'은 서귀포시 성상읍 고성리에 소재해 있다.
32) '장만이동산'은 서귀포시 성상읍 고성리에 소재 있다.

101006 @ 응.(응.)

101006 #1 다 그 동네별로 이루어지주게. 그 뭐 서로 ᄀᆞ찌 다 협조헤서 항상 보면서 사는 사람끼리 이게 접을 허는 거주. 무신 어디 웨딴 디서 와서 허는 게 아니니까.(다 그 동네별로 이루어지지. 그 뭐 서로 같이 다 협조해서 항상 보면서 사는 사람끼리 이것이 계를 하는 거지. 무슨 어디 외딴 데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101006 @ 여기도 동네별로 몇 반 몇 반 잇어나지 안헤수꽈?(여기도 동네별로 몇 반 몇 반 있었었지 않았습니까?)

101006 #1 응, 멧 반 멧 반 다 잇주게.(응, 몇 반 몇 반 다 있지.)

101006 @ 응 게난 반별로 뭐 십 반.(응 그러니까 반별로 뭐 십 반.)

101006 #1 으.(으.)

101006 @ 옌날에는 그 저 물, 쉐 멕이레 갈 때도.(옛날에는 그 저 말, 소 먹이러 갈 때도.)

101006 #1 으.(으.)

101006 @ ᄀᆞ찌 헤근엥에 뭐.(같이 해서는 뭐.)

101006 #1 게난 그 쉐 멕이레 가는 것도. 그 동네에서 소 길르는 사름덜끼리.(그러니까 그 소 먹이러 가는 것도. 그 동네에서 소 기르는 사람들끼리.)

101006 @ 끼리.(끼리.)

101006 #1 기자 아침에 그 촘 쉐막에 메엇당. 쉐 아침에 네놩. 일찍 ᄒᆞ며는 오늘은 누게가 갈 ᄎᆞ레여.(거저 아침에 그 참 외양간에 매었다가. 소 아침에 내놓아서. 일찍 하면은 오늘은 누가 갈 차례다.)

101006 @ 응, 응.(응, 응.)

101006 #1 쉐 ᄀᆞ끄레 갈 ᄎᆞ레여. 허민 그 다 물아아졍 가근에.(소 가꾸러 갈 차례다. 하면 그 다 몰아가지고 가서.)

101006 @ 응, 응.(응, 응.)

101006 #1 멕이당. 저녁엔 또 물앙 들어오는 거라.(먹이다가. 저녁에는 또 몰아서 들어오는 거야.)

101006 @ 그거는.(그거는.)

101006 #1 게 그것도.(그럼 그것도.)

101006 @ 접인가마씨?(계인가요?)

101006 #1 게 ᄒᆞᆫ 가지 접이나 마찬가지인거라.(그럼 한 가지 계나 마찬가지인거야.)

101006 @ 아 물, 저 쉐 멕이고.(아 말, 저 소 먹이고.)

101006 #1 응, 응.(응, 응.)

101006 @ 물 멕이고 허는 것도 접이고예.(말 먹이고 하는 것도 계고요.)

101006 #1 응.(응.)

101006 @ ᄀᆞ레 아까 물방에 허는 것도.(맷돌 아까 연자매 하는 것도.)

101006 #1 아, 물방에.(아, 연자매.)

101006 @ 거문 물방에 접이엔 헙니까.(그러면 연자매 계라고 합니까?)

101006 #1 으, 것도게, 물방에 그 동네 물방엔 ᄒᆞ니까 접이나 그 ᄒᆞ민은 초집 지엉ᄒᆞ니까 거 집 일레 다.(으, 것도, 연자매 그 동네 연자매라고 하니까 계나 그 하면은 초가집 지어서 하니까 거 집 이으러 다.)

101006 @ ᄒᆞ곡 으.(하고 으.)

101006 #1 접들이 나가서 집도 일곡.(계들이 나가서 집도 이고.)

101006 @ 응.(응.)

101006 #1 그 파손 뒈민 고찜도 허곡.(그 파손 되면 고치기도 하고.)

101006 @ ᄀᆞ찌 헤야 뒈는 거난예. 응(같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응.)

101006 #1 응, 응.(응, 응.)

101006 @ 거문 혹시 큰일 헐 때 물 지어 나르곡 허는 것도 접에서 헤신가마씨?(그러면 혹시 큰일 할 때 물 지어 나르고 하는 것도 계에서 했는가요?)

101006 #1 아, 거 동네서 허메게.(아, 거 동네에서 하지.)

101006 @ 동네에서?(동네에서?)

101006 #1 동네에서 접 아니라도.(동네에서 계 아니라도.)

101006 @ 응.(응.)

101006 #1 큰일 나든지 불이 나든지 허민 동네싸름덜이 다 허벡이 지엉.(큰일 나든지 불이 나든지 하면 동네사람들이 다 허벅을 지어서.)

101006 @ 응, 응.(응, 응.)

101006 #1 다 나사주게.(다 나서지.)

101006 @ 맞수다.(맞습니다.)

101006 #1 거 뭐 불 화재 나도, 겐디 이젠 그런 걸 볼 수가 없어.(거 뭐 불 화재 나도,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

101006 @ 예 맞수다예. 거문 이거는 그냥예 경 허고 그 다음에.(예 맞습니다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1007 @ 그 다음에 그 풍습 잇지 안우꽈? 이 마을에 독특한 풍습, 독특헌 특징이라든가 그 옛날서부터.(그 다음에 그 풍습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 독특한 풍습, 독특한 특징이라든가 그 옛날에서부터.)

101007 #1 여기 풍습이엔 헌 게.(여기 풍습이라고 한 것이.)

101007 @ 으, 혹시 정월달에?(으, 혹시 정월달에?)

101007 #1 거 옛날에는이, 그 우리 고성싸람덜이 상당이 연극도 잘 허여서. 연극ᄀᆞ뜬 것도 헤가지고 그 리사무소에서 그.(거 옛날에는, 그 우리 '고성'사람들이 상당이 연극도 잘 하여서. 연극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 이사무소에서 그.)

101006 @ 응.(응.)

101007 #1 으, 춤 이런 행사를 많이 허곡. 소위 걸궁.[33](으, 참 이런 행사를 많

33) '걸궁'은 동네에 경비를 쓸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패를 짜서 각처로 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재주를 부리며 돈이나 곡식을 구하는 일을 말한다. 걸립(乞粒)의 제주말이다.

이 하고. 소위 걸궁.)
101007 @ 으.(으.)
101007 #1 걸궁헤서 막 꿩과리 치멍. 그 퉁수 불멍 헹.(걸궁해서 막 꽹과리 치면서. 그 퉁소 불며 해서.)
101007 @ 으.(으.)
101007 #1 막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엑멕이라든가 이 춤 정월둘 뒈민 막 헷는데. 요즘 그게.(아주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액막이라든가 이 참 정월달 되면 막 했는데. 요즘 그게.)
101007 @ 요즘은예.(요즘은요.)
101007 #1 어 싹 없어져가지고 원.(어 싹 없어져가지고 전혀.)
101007 @ 예.(예.)
101007 #1 이제 구경을 못 허니까.(이제 구경을 못 하니까.)
101007 @ 으 그 걸궁 헐 때는 집이도 집안에 강도 가서 마루에 가근에.(으 그 걸궁 할 때는 집에도 집안에 가서도 가서 마루에 가서.)
101007 #1 으.(으.)
101007 @ 헤주고.(해주고.)
101007 #1 거.(거.)
101007 @ 마당에 가 가지고.(마당에 가 가지고.)
101007 #1 응 거기 입담 좋은 사람덜이.(응 거기 입담 좋은 사람들이.)
101007 @ 예.(예.)
101007 #1 막 가서 뭐엔 곧곡게.(막 가서 뭐라고 말하고.)
101007 @ 응.(응.)
101007 #1 경 허민.(그렇게 하면.)
101007 @ 그 사름덜은.(그 사람들은.)
101007 #1 그 ᄒᆞ면은 쏠도 거려다 주곡.(그 하면은 쌀도 떠다 주고.)
101007 @ 쏠도 거려다 주고?(쌀도 떠다 주고?)
101007 #1 뭐 ᄒᆞ곡 헤, 헷.(뭐 하고 헤, 헷.)
101007 @ 예 술도 멕이곡예?(예 술도 먹이고요?)
101007 #1 예.(예.)
101007 @ 거 입담 좋은 사람들은 특별나게 뭐 심방이 허는 건 아니고예?(그것 입담 좋은 사람은 특별나게 뭐 심방이 하는 건 아니고요?)
101007 #1 으.(으.)
101007 @ 마을에서.(마을에서.)
101007 #1 그자 동네사람덜.(그저 동네사람들.)
101007 @ 동네사람들이 허고예?(동네 사람들이 하고요?)
101007 #1 응.(응.)
101007 @ 그 여기 그옛날에 보민은. 물에 우물 물이엔 허지 안헙니까? 그.(그

여기 옛날에 보면. 물에 우물 물이라고 하지 안합니까요? 그.)

101007 #1 어, 것ᄀᆞ라 거시기게. 에 통물[34]이엔 허여. 통물.(어, 그것보고 거시기. 에 '통물'이라고 해. '통물.')

101007 @ 통물?('통물?')

101007 #1 응.(응.)

101007 @ 그 두레박 놔 가지고예.(그 두레박 넣어 가지고요.)

101007 #1 으 응.(으 응.)

101007 @ 거기도 가기네 막 영 돌고.(거기도 가서 아주 이렇게 돌고.)

101007 #1 아 글쎄.(아 글쎄.)

101007 @ 경 헤신가마씨?(그렇게 했는가요?)

101007 #1 그거 뭐 넘어가당. 돌 수도 잇일 거난. 그건 똑.(그거 뭐 넘어가다가. 돌 수도 있을 거니까. 그건 딱.)

101007 @ 예.(예.)

101007 #1 그게 그 문세 그 디 강 돌라 헌 거는 엇고.(그것이 그 문서 그 데 가서 돌아 한 거는 없고.)

101007 @ 으.(으.)

101007 #1 그 아 게난 자기네가 허고 싶은 데로 허는 거니까. 아 누게 시켱 허는 것도 아니고.(그 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니까. 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101007 @ 아.(아.)

101007 #1 으 ᄒᆞ면서 신이나면은 그자.(으 하면서 신이나면 그저.)

101007 @ 응.(응.)

101007 #1 끼가 헤, 헷. 셍기면 지 허고저 헌데로.(끼가 헤, 헷. 생기면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101007 @ 응.(응.)

101007 #1 으 허는 거니까. 그건 누게가 말릴 수도 엇곡.(으 하는 거니까. 그건 누가 말릴 수도 없고.)

101007 @ 응 그 경 헤도. 정월이민 제일 큰 행사난에 마을에서 뭐 포제[35] 같은 것도 허곡.(응 그 그렇게 해도. 정월이면 제일 큰 행사니까 마을에서 뭐 포제 같은 것도 하고.)

101007 #1 응, 포제 허주게.(응, 포제 하지.)

101007 @ 포제허곡. 그 다음 마을 굿도 헤나지 안헤수과?(포제하고. 그 다음 마을 굿도 하지 않았습니까?)

101007 #1 어?(어?)

101007 @ 마을에서 굿.(마을에서 굿.)

---

34) '통물'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에 소재해 있다.

35) '포제'는 포제(酺祭)다. 제주에서, 매년 정월 첫 정일(丁日)에 지내는 동제(洞祭)로서 儒式으로 지낸다. 논밭의 충해가 심할 때에 그 피해를 물리치기 위하여 지내던 제사다.

101007 #1 어, 마을에서 해녀덜은 영등굿[36] 허주게.(어, 마을에서 해녀들이 '영등굿' 하지.)

101007 @ 해녀들은 영등굿으로 허고.(해녀들은 '영등굿'으로 하고.)

101007 #1 어, 어.(어, 어.)

101007 @ 마을에서 허는 것은 어수꽈?(마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101007 #1 응, 마을에서.(응, 마을에서.)

101007 @ 응 마을에서 허는 거예?(응, 마을에서 하는 거요?)

101007 #1 응, 마을에서.(응, 마을에서.)

101008 @ 예 그 저기 이 특산물은 어떤 건고마씨? 고성리 허면은 특산물.(예 그 저기 이 특산물은 어떤 것인가요? '고성'이 하면 특산물.)

101008 #1 특산물?(특산물?)

101008 @ 응.(응.)

101008 #1 고성리에 특산물이엔 헌 게. 일반 뭐 여기서 생산 뒈는 거뿐이주. 과이 특산물이 엇주게. 다 요센 밀감 뭐 한라봉[37] 뭐 ᄒᆞ는 건 다 ᄒᆞ니까.('고성'이에 특산물이라고 한 것이. 일반 뭐 여기서 생산 되는 거뿐이지. 과히 특산물이 없지. 다 요새는 밀감 뭐 '한라봉' 뭐 하는 건 다 하니까.)

101008 @ 예 아, 옛날 농사도.(예 아, 옛날 농사도.)

101008 #1 어.(어.)

101008 @ 땅은 땅도 저기 좋은게마씨. 조허고 보리허고.(땅은 땅도 저기 좋네요. 조하고 보리하고.)

101008 #1 어.(어.)

101008 @ 잘 뒛덴 허난에.(잘 되었다고 하니까.)

101008 #1 땅이 이 고성더레가 젤 궨찬허주. 게난 이 짝 그 간두니[38] 지경.(땅이 이 '고성'으로가 젤 괜찮지. 그러니까 이 쪽 그 '간두니' 지경.)

101008 @ 응.(응.)

101008 #1 요 요 이 해안가 이 신양리로 영. 이짝 오면은 거 성산더레 들어가는 이 간두니 지경은. 여기는이 보리가 잘 뒈났서.(요 요 이 해안가 이 '신양'이로 이렇게. 이쪽 오면 거 '성산'으로 들어가는 이 '간두니' 지경은. 여기는 보리가 잘 되었었어.)

101008 @ 응.(응.)

101008 #1 거 웨 그런고허니까. 그듸 듬북 ᄀᆞ뜬 거.(그것 왜 그런가하니까. 그데 듬북 같은 거.)

101008 @ 예.(예.)

101008 #1 해초.(해초.)

---

36) '영등굿'은 음력 2월에 제주에서 영등할머니에게 올리는 당굿. 음력 2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해녀와 어부를 위하여 베풀어진다.

37) '한라봉'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귤 종류 중 하나다.

38) '간두니'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에 소재해 잇다.

101008 @ 아.(아.)

101008 #1 저 듬북 ᄀᆞ뜬 거 앗어당 ᄀᆞᆯ앙 저 보리 갈면은.(저 듬북 같은 거 가져다가 깔아서 저 보리 갈면.)

101008 @ 응.(응.)

101008 #1 보리가 궹장이 잘 뒈낫서.(보리가 굉장히 잘 되었어.)

101008 @ 보리예, 듬북으로예, 아, 듬북은 잘도 상당한 그 그 거름 아니꽈?(보리요, 듬북으로요. 아, 듬북은 잘도 상당한 그 그 거름 아닙니까?)

101008 #1 응, 걸름.(응, 거름.)

101008 @ 아주 듬북이예?(아주 듬북이요?)

101008 #1 으.(으.)

101008 @ 듬북 헤다근에 그걸로 밧을 저기 거름을 줘시난.(듬북 해다가 그걸로 밭을 저기 거름을 줬으니까.)

101008 #1 으 게난, 그 또 그 늘리는 땅이 이서. 듬북을 놓으민, 땅도 듬북을 잘 맞는 디가 잇고, 안 맞앙 허민 땅이 늘려 불어가지고. 그 늘린다는 게 산성이 뒈부는지 뭔 거는지 모르주마는이.(으 그러니까, 그 또 그 늘리는 땅이 있어. 듬북을 놓으면, 땅도 듬북이 잘 맞는 데가 있고, 안 맞아서 하면 땅이 늘여 버려가지고. 그 늘린다는 것이 산성이 되어버리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101008 @ 아.(아.)

101008 #1 그레서 곡식이 또 아니 뭴 수도 잇어 이 땅이 다 이제.(그래서 곡식이 또 아니 될 수도 있어 이 땅이 다 이제.)

101008 @ 늘린다는 것은.(늘린다는 것은.)

101008 #1 으 허.(으 허.)

101008 @ 누뜨린다는 말이꽈?(누른다는 말입니까?)

101008 #1 아니 아니, 늘려 늘려.(아니 아니, 늘여 늘여.)

101008 @ 아니 뭐 늘린덴 허민.(아니 늘인다고 하면.)

101008 #1 밧이 힘이 엇어져 가지고.(밭이 힘이 없어져 가지고.)

101008 @ 맞질 않는다고 허는 거주 성질이.(맞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지 성질이.)

101008 #1 으.(으.)

101009 @ 이 마을에 그래도 자랑거리.(이 마을에 그래도 자랑거리.)

101009 #1 자랑거리?(자랑거리?)

101009 @ 삼춘님이 생각허고 삼춘님도 경 생각허주마는 또 놈도 다른 삼춘들도 생각 헐 수 있는 자랑거리. 젊은 사람 입장이 아니고 삼춘네.(삼촌님이 생각하고 삼촌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남도 다른 삼촌들도 생각 할 수 있는 자랑거리. 젊은 사람 입장이 아니고 삼촌네.)

101009 #1 자랑거리나마나 고성은 그, 옌날부터 양촌이라고 헤서. 이제 춤 남자덜토 무슨 그 욕심덜이 엇인 동네라 이 딘.(자랑거리나마나 '고성'은 그, 옛날부터

양촌이라고 해서. 이제 참 남자들도 무슨 그 욕심들이 없는 동네야 이 데는.)

101008 @ 으.(으.)

101009 #1 게난 모든 거 신양 같은 디도 다 뺏겨버리고. 이 고성도 성두[39]엔 가면은 그 부락 젓긋디까지도 다 오조리 지경이라. 아, 이레서 그 전연 뭐 이 욕심이 엇인 동네고.(그러니까 모든 것 '신양' 같은 데도 다 뺏겨버리고. 이 '고성'도 '성뒤'에는 가면은 그 마을 근처까지도 다 '오조'이 지경이야. 아, 이래서 그 전혀 뭐 이 욕심이 없는 동네고.)

101008 @ 으.(으.)

101009 #1 기자 그 다 순박헌 사람덜만.(거저 그 다 순박한 사람들만.)

101009 @ 아, 양보들 다 헨.(아, 양보들 다 해서.)

101009 #1 으 순헌 사름덜만 다 산덴 ᄒᆞ주게.(으, 순한 사람들만 다 산다고 하지.)

101009 @ 아, 그렇구나예. 양촌이예.(아, 그렇군요. 양촌이요.)

101009 #1 으.(으.)

101009 @ 게난 점잖타 이 말씀이구나예.(그러니까 점잖다 이 말씀이군요.)

101009 #1 으.(으.)

101009 @ 크게 경예 그건 잘 들어쑤다. 이밖에 이 마을에 대해서예.(크게 그렇고요 그건 잘 들었습니다. 이밖에 이 마을에 대해서요.)

101009 #1 예.(예.)

101009 @ 더 삼춘님이 생각허는 거.(더 삼촌님이 생각하는 거.)

101009 #1 아이 뭐 그런 거 난 몰르크라.(아이 뭐 그런 거 난 모르겠어.)

101009 @ 아니면은 사람덜이 똑똑허다. 양촌이난에 공부를 잘 시켜서.(아니면 사람들이 똑똑하다. 양촌이니까 공부를 잘 시켜서.)

101009 #1 아니 게난에뭐, 똑똑헌 사름도 많주게.(아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지.)

101008 @ 응.(응.)

101009 #1 공부헤서 나가곡 게난. 지금 그 전에 살던 춤 우리 아덜덜토 두 게나 다 육지 나가 부리니까. 나 혼자만 지금 늘근이가 살아.(공부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살던 참 우리 아들들도 둘이나 다 육지 나가 버리니까. 나 혼자만 지금 늙은이가 살아.)

101008 @ 으.(으.)

101009 #1 게난 이제는 세끼덜 믿엉 살 수가 엇게 뒈엇서게. 이젠 늙어 가며는.(그러니까 이제는 새끼들 믿어서 살 수가 없게 되었어. 이젠 늙어 가면.)

101008 @ 응.(응.)

101009 #1 겐 다 나가 부리니까. 아, 할망 하르방 살당 할망이나 하르방이나 ᄒᆞ나 이제 가불게 뒈면은. 아 ᄒᆞ나만 이게 문제 아니라?(그렇게 다 나가 버리니까.

39) '성두'는 성뒤(城後)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에 있는 장소 중 하나다.

아, ‘할머니’ ‘할아버지’ 살다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하나 이제 가버리게 되면. 아 하나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101008 @ 응.(응.)

101009 #1 요즘 세상은 경헌 세상이라노니까.(요즘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라서.)

101008 @ 응.(응.)

101009 #1 게난 우리 그 노인회에서 그 아, 늘근이들끼리 서로 보살피멍 살자고 허는.(그러니까 우리 그 노인회에서 그 아, 늙은이들끼리 서로 보살피며 살자고 하는.)

101008 @ 으.(으.)

101009 #1 이런 그 시대가 지금 돌아 왐서.(이런 그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

101009 @ 음, 게난 그 똑똑험이 이제는 결국은 자랑거리는 안 뒘신게예.(음, 그러니까 그 똑똑함이 이제는 결국은 자랑거리는 안 되고 있네요.)

101009 #1 아니 게난 이 고성도 그 전에 살던 한 오륙십 프로가 다 나가 부럿서.(아니 그러니까 이 고성도 그 전에 살던 한 오륙십 프로가 다 나가 버렸어.)

101008 @ 예.(예.)

101009 #1 게난 이제 여기 들어왕. 살아 있는 게 육지 사름덜이. 거이 오십 프로는 못 뒈도 혼 사십 프로는 차지허고 잇서.(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와서. 살아 있는 것이 육지 사람들이. 거의 오십 프로는 못 되도 한 사십 프로는 차지하고 있어.)

101008 @ 응.(응.)

101009 #1 웨부. 웨지인 (외부. 외지인.)

101009 @ 외지 사람.(외지 사람.)

101009 #1 으.(으.)

101009 @ 거 외지 사람이고?(거 외지 사람이고?)

101009 #1 응, 게난 우리 동네만 가도. 다 웨지 사람이지. 우리 그전 그 토벡이로 살던 사름은 엇서.(응, 그러니까 우리 동네만 가도. 다 외지 사람이지. 우리 그전 그 토박이로 살았던 사람은 없어.)

101009 @ 그 자제분들이 다시 돌아오거나를.(그 자제분들이 다시 돌아오거나를.)

101009 #1 아 게메 돌아올.(아 그러니까 돌아올.)

101009 @ 아직까진.(아직까지는.)

101009 #1 나간 사람덜 돌아올 건가? 안 돌아와.(나간 사람들 돌아올 건가? 안 돌아와.)

101009 @ 그거는예.(그거는요.)

101009 #1 음.(음.)

101009 @ 생각 못허는 바고예.(생각 못하는 바고요.)

101009 #1 거는.(거는.)
101009 @ 음.(음.)
101009 #1 아 쪼금 아들덜 헤어근에 잘 뭬와주멍 잘 낭 놔두면은 다 나가부니까.(아 조금 아들들 해서 잘 배워주면서 잘 낳아서 놔두면 다 나가버리니까.)
101008 @ 아 예.(아 예.)
101009 #1 아, 이 고성은 특히 젊은 사름도 엇서.(아, 이 고성은 특히 젊은 사람도 없어.)
101009 @ 젊은 사람도 없고예. 예에 그렇구나예. 그건 안타깝긴 허우다. 삼춘, 게문 물 한 모금만 더 마시고 두 번째로예. 항목으로 넘어가게마씨. 안타까운 것도 잇인게마씨. 자랑만이 아니다예. 안타까운 것도.(젊은 사람도 없고요. 예에 그렇군요. 그건 안타깝기는 합니다. 삼촌, 그러면 물 한 모금만 더 마시고 두 번째로요. 항목으로 넘어가요.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자랑만이 아니네요. 안타까운 것도.)
101009 #1 아이, 그러니까.(아이, 그러니까.)
101009 @ 음.(음.)
101009 #1 가족이엔 헌 게 같이 더불엉 막 살아지면 얼마나 좋으리야마는.(가족이라고 한 것이 같이 더불어서 아주 살아지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101009 @ 음.(음.)
101009 #1 건 그렇겐 못허고 세대변천에 따라서 으라 가지.(건 그렇게는 못하고 세대변천에 따라서 여러 가지.)
101009 @ 음.(음.)

2. 제보자 일생

102001 @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삼춘에 대한 탐구예. 제보자 그, 삼춘이 일생에 대해서예. 저기 저 골아줍서 예. 삼춘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그거에 대해서예. 한 번 추근추근 골아 주십시요. 우선에 우선에 삼춘님이 이름, 성함 성함허고 나이허고.(그 다음에는 이제는 삼촌에 대한 탐구요. 제보자 그, 삼촌의 일생에 대해서요. 저기 저 말해주십시오 예. 삼촌이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거에 대해서요. 한 번 자근자근 말해 주십시오. 우선 우선 삼촌님이 이름, 성함 성함하고 나이하고.)
102001 #1 허, 허, 허, 허.(허, 허, 허, 허.)
102001 @ 주소허고 허, 허.(주소하고 허, 허.)
102001 #1 이름은 김 두 하고.(이름은 김 두 하고.)
102001 @ 예.(예.)
102001 #1 나이는 갑술 생.(나이는 갑술 생.)
102001 @ 으.(으.)
102001 #1 지금 팔십.(지금 팔십.)

102001 @ 여든두 살 뒐 거고.(여든두 살 될 거고.)
102001 #1 이제 을미년 허면은 팔십 둘 뒐 거주.(이제 을미년 하면 팔십 둘 될 거지.)
102001 @ 예. 지금 현재는 팔십 ᄒᆞ나고예?(예, 지금 현재는 팔십 하나고요?)
102001 #1 으.(으.)
102001 #1 아직 을미년이 안 뒈시난에예.(아직 을미년이 안 되었으니까요.)
102001 #1 으 으.(으 으.)
102001 @ 으, 태어나곡 태어난 집이 어느 지경이고 고성리에서.(으, 태어나고 태어난 집이 어느 지경이고 '고성'이에서.)
102001 #1 고성리.('고성'이.)
102001 @ 예.(예.)
102001 #1 에 일사, 천사백구십오 번지에서 태어나긴 헷주.(에 일사, 천사백구십오 번지에서 태어나기는 했지.)
102001 @ 아, 음.(아, 음.)
102001 #1 태어나고 지금 사는 거는 그 곁에 주만은.(태어나고 지금 사는 거는 그 곁의 지만.)
102001 @ 음 바로.(음 바로.)
102001 #1 일사이이오 번지. 게난 지금 도로 명으로 헹은.(일사이이오 번지. 그러니까 지금 도로 명으로 해서는.)
102001 @ 응.(응.)
102001 #1 고성 중앙로 육십오 다시 십일.('고성' 중앙로 육십오 다시 십일.)
102001 @ 음 옛날 지경은?(음 옛날 지경은?)
102001 #1 어?(어?)
102001 @ 아, 여기는 잇어.(아, 여기는 있어.)
102001 #1 옌날 지경 일사이이.(옛날 지경 일사이이.)
102001 @ 천사백이십이 다시 오 번지 음.(천사백이십이 다시 오 번지 음.)
102001 #1 옛날 지경, 일사이이. 게난 나가 어릴 적에는 뒈게 고생을 많이 헷서.(옛날 지경. 일사이이. 그러니까 나가 어릴 적에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
102001 @ 음.(음.)
102001 #1 우리 아버지가 나 다섯 설에 돌아가 버리니까.(우리 아버지가 나 다섯 살에 돌아가 버리니까.)
102001 @ 아.(아.)
102001 #1 우리 어머니도 다른디 가버리고 ᄒᆞ니까. 나 할머니 하르버지 밋테서 헤멍 살앗주게.(우리 어머니도 다른데 가버리고 하니까. 나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하며 살았지.)
102001 @ 아, 아이고 고생 많이 헤수다.(아,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2001 #1 어, 그래서 춤. 일도 어릴 적에 많이 허고.(어, 그래서 참. 일도 어릴

적에 많이 하고.)

102001 @ 예.(예.)

102001 #1 크면서 많이 고셍도 허고 헷주만은 그자 그런데로.(크면서 많이 고생도 하고 했지만은 그저 그런대로.)

102001 @ 음.(음.)

102001 #1 살아와시난에.(살아왔으니까.)

102001 @ 거문 할머니 하르버지 손에서 커신게예?(그럼 할아버지 손에서 컸네요?)

102001 #1 으.(으.)

102001 @ 으, 할머니 하르버지 손에서 크고. 그, 그러면 두 번 어. 그래도 할머니 하르버지 손에서 허고, 할머니 하르버지가 여기서 웃 조상 웃대로부터 한 십대를 살았덴 하셔시난.(으,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고. 그, 그러면 두 번 어.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서 웃 조상 윗대로부터 한 십 대를 살았다고 하셨으니까.)

102001 #1 으.(으.)

102001 @ 게난 십대 여기서 저 고성리에 그 조상이 오신지가 몇 저기.(그러니까 십대 여기서 저 '고성'이에 그 조상이 오신지가 몇 저기.)

102001 #1 어 오신 대가. 여기 오신지가 에, 십. 흔 삼백 년 뒛주게.(어 오신 대가. 여기에 오신 지가 에, 십. 한 삼백 년 되었지.)

102001 @ 삼백 년예?(삼백 년요?)

102001 #1 응.(응.)

102001 @ 거이 뭐 저기.(거의 뭐 저기.)

102001 #1 우리 우리가 설 촌.(우리 우리가 설 촌.)

102001 @ 설 촌예.(설 촌요.)

102001 #1 설 촌, 우리 하르버지가.(설 촌, 우리 할아버지가.)

102001 @ 응.(응.)

102001 #1 이제 그 설 촌 그 현씨. 여기 현 씨가 제일 문저 들어왓는데. 여기 현 씨 할망한티. 우리는 저 어디 위귀[40]랏주게.(이제 그 설 촌 그 현씨. 여기 현 씨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여기 현 씨 할머니한테. 우리는 저기 '의귀'였지.)

102001 @ 아 위귀?(아 의귀?)

102001 #1 응 우리 그 경주 김 씨 그 거기랏는데.(응 우리 경주 김 씨 그 거기였는데.)

102001 @ 응.(응.)

102001 #1 거기 그 헌마 공신헌 만 자 일 자 하르버지가 잇는데. 그 하르버지 손자가, 이제 우리 하르버지주.(거기 그 헌마 공신한 만 자 일 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손자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지.)

---

40) '위귀'는 서귀포시 남원읍 중 의귀마을이다.

102001 @ 아 조상이.(아 조상이.)
102001 #1 손 손자가 우리 하르버지라.(손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야.)
102001 @ 아 손 손자가.(아 손 손자가.)
102001 #1 음.(음.)
102001 @ 아. 여기 입도하신.(아. 여기 입도하신.)
102001 #1 응.(응.)
102001 @ 분이 하르버지가예.(분이 할아버지가요.)
102001 #1 응, 우리 고성이.(응, 우리 '고성'이.)
102001 @ 응.(응.)
102001 #1 여기에 온, 게난 우리 하르버지 여기 고성 온 하르버지 형은 수산에 오고. 우린 아시 동셍은 이 고성에 왓주게.(여기에 온,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여기 '고성' 온 할아버지 형은 '수산'에 오고. 우리는 아우 동생은 이 '고성'에 왔지.)
102001 @ 응 동셍은 고성.(응, 동생은 '고성.')
102001 #1 경 헤서 지금ᄁᆞ지.(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2001 @ 거, 한 십대, 십 대를 잡아야 뒈키여예?(거, 한 십대, 십대를 잡아야 되겠네요?)
102001 #1 어.(어.)
102001 @ 십대예.(십대요.)
102001 #1 경(그렇게.)
102001 @ 십대허고 경주 김 씨고 이는 쫌 전에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은 그 삼춘님이 다섯에 부친이 돌아가시긴 헷지만은 부모님이.(십대하고 경주 김 씨고 이는 좀 전에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은 그 삼촌님이 다섯에 부친이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102001 #1 응.(응.)
102001 @ 살아생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덴 들읍디가?(살아생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다고 들으셨습니까?)
102001 #1 에.(에.)
102001 @ 부모님이.(부모님이.)
102001 #1 어, 우리 아버님은. 그 중간에 그 일본을 갓다가.(어, 우리 아버님은. 그 중간에 그 일본을 갔다가.)
102001 @ 응.(응.)
102001 #1 와가지고, 이제 몸이 아파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오. 여기서 그 춤 그 병으로 헤서 돌아가셧주.(와가지고, 이제 몸이 아파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여기서 그 참 그 병으로 해서 돌아가셨지.)
102001 @ 응.(응.)
102001 #1 게난 나가 다섯 쌀 적에니까 우리 아버님은 에, 서른 전이 돌아가셧주게.(그러니까 내가 다섯 살 적이니까 우리 아버님은 에, 서른 전에 돌아가셨지.)

102001 @ 아. 아파가지고.(아. 아파가지고.)
102001 #1 음.(음.)
102001 @ 아, 거문 일본에 다녀셧으면은 아버님께서는.(아, 그럼 일본에 다녔으면 아버님께서는.)
102001 #1 게난 우리 고모님도 일본에 살앗고.(그러니까 우리 고모님도 일본에 살았고.)
102001 @ 음.(음.)
102001 #1 헤서 그 친척덜이 그 일본에덜을 가낫주. 경 헨 ᄒᆞ니까. 우리 족은아버지도 일본 뭐 그때부터 일본에 간 살아불고.(해서 그 친척들이 그 일본에를 갔었지. 그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도 일본 뭐 그때부터 일본에 가서 살아버리고.)
102001 @ 음.(음.)
102001 #1 그러니까 실지 나 우리 원 난 이 우리하르버지 허고 할머니 손에서.(그러니까 실제 나 우리 전혀 난 이 우리할아버지 하고 할머니 손에서.)
102001 @ 음.(음.)
102001 #1 춤 자라면서.(참 자라면서.)
102001 @ 으.(으.)
102001 #1 아 게고 우리 할머니나 하르버지가 기자 모든 거 다. 잘 헤 줘서. 나 공부도 시켜주고.(아 그리고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거저 모든 거 다. 잘 해줬어. 나 공부도 시켜주고.)
102001 @ 예, 예에, 예.(예, 예에, 예.)
102001 #1 아 경 헨ᄒᆞ니까 큰 거난에게.(아 그렇게 해서하니까 큰 것이니까.)
102001 @ 맞수다. 맞수다게예.(맞습니다. 맞습니다요.)
102001 #1 아버지 어머니 보단 낫주게.(아버지 어머니 보다는 낫지.)
102001 @ 예예, 맞수다.(예예, 맞습니다.)
102001 #1 허, 헛.(허, 헛.)
102001 @ 지금으로 보면 할머니 하르버지가 부모예.(지금으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요.)
102001 #1 어.(어.)
102001 @ 예 부모렌 헤도, 나이가 그.(예 부모라고 해도 으, 나이가. 그.)
102001 #1 으.(으.)
102001 @ 그 그렇게 뭐 허지도 아니허고예. 게민 형제분들은? 또 그렇게.(그렇게 뭐 하지도 아니하고요. 그러면 형제분들은? 또 그렇게.)
102001 #1 아, 나 ᄒᆞᆫ자벳기 엇주게 그러니까.(아니 나 혼자밖에 없지 그러니까.)
102001 @ 예, 예.(예, 예.)
102001 #1 그러니까 ᄒᆞᆫ자벳기 잇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독자주.(그러니까 혼자밖에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독자지.)

102001 @ 아.(아.)
102002 @ 게난 아버지는 특별히 뭐 기술을 해서?(그러니까 아버지는 특별히 뭐 기술을 해서?)
102002 #1 아, 아니.(아, 아니.)
102002 @ 아니면 학교 공부를 허러 그거는 아니고예?(아니면 공부를 하러 그거는 아니고요?)
102002 #1 아, 공부도 옌날은 한학을 헷주.(아, 공부도 옛날은 한학을 했지.)
102002 @ 예, 예.(예, 예.)
102002 #1 음.(음.)
102002 @ 일본에 공부허러 가신 거는 아니고예.(일본에 공부하러 가신 것은 아니고요.)
102002 #1 어.(어.)
102002 @ 으, 거문 어머니, 어머니도 뭐 기억은 잘 모르시쿠다마는.(으, 그럼 어머니, 어머니도 뭐 기억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102002 #1 아니, 어머니도.(아니, 어머니도.)
102002 @ 어머니는?(어머니는?)
102002 #1 어머니도 이제 그. 에 여기서 살다가 혼자게.(어머니도 이제 그. 에 여기서 살다가 혼자.)
102002 @ 음.(음.)
102002 #1 그 뭐 ᄒᆞ니까 개가를 헤가지고.(그 뭐 하니까 개가를 해가지고.)
102002 @ 어.(어.)
102002 #1 어디 가서 살다가 에 늙언 또 못 사니까. 이젠 또 나신디 올 수벳기 엇엇주.(어디 가서 살다가 에 늙어서 또 못 사니까. 이젠 또 나한테 올 수밖에 없었지.)
102002 @ 아 예.(아 예.)
102002 #1 그레서 이제 ᄀᆞ찌 살다가 돌아가셔서.(그래서 이제 같이 살다가 돌아가셔서.)
102002 @ 예.(예.)
102002 #1 늘근 후에.(늙은 후에.)
102002 @ 예 어머니도 특별나게 뭐 물질을 하시거나 농.(예 어머니도 특별나게 뭐 물질을 하시거나 농.)
102002 #1 아, 물질도 헷을 거고게 거 뭐.(아, 농사는 했을 거고 거 뭐.)
102002 @ 농사도 헤실 거고.(농사도 했을 거고.)
102002 #1 농ᄉᆞ도 헤실 거고.(농사도 했을 거고.)
102002 @ 예.(예.)
102002 #1 그 거 다 자기가 먹엉 살젠 허면은.(다 자기가 먹어서 살려고 하면.)
102002 @ 맞수다.

102002 #1 누구나 다 노력헤야 먹엉 사는 거난에.(누구나 다 노력해야 먹어서 사는 거니까.)

102002 @ 맞수다. 거문 하르버지는 저기 뭐 부모역할이지만은 하르버지는 농사를 주로 이렇게 짓엇구나예.(맞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저기 뭐 부모역할이지만은 할아버지는 농사를 주로 이렇게 지었군요.)

102002 #1 아이.(아이.)

102002 @ 엄청나게예.(엄청나게요.)

102002 #1 농사도 허고 그 엿날부떠.(농사도 하고 그 옛날부터.)

102002 @ 응.(응.)

102002 #1 이제 그 우리가 종순집이니까.(이제 그 우리가 종손집이니까.)

102002 @ 으.(으.)

102002 #1 나가 종순이주 죽.(내가 종손이지 죽.)

102002 @ 으.(으.)

102002 #1 나가 그 춤 우리 그 고성 온 하르버지로부떠 죽 헤서.(내가 그 참 우리 고성 온 할아버지로부터 죽 해서.)

102002 @ 종손이.(종손이.)

102002 #1 내가 종순이라.(내가 종손이야.)

102002 @ 아이고.(아이고.)

102002 #1 게난 종순인디 지금ᄁᆞ지는 종순 가지는 큰 대는 대가 끈어저 보질 안 헷서. 양젤 흔 번 데려보지 안헷주. 지금ᄁᆞ지는.(그러니까 종손인데 지금까지는 종손 가지는 큰 대는 대가 끊어져 보지를 안 했어. 양자를 한 번 데려보지 안 했지. 지금까지는.)

102002 @ 아.(아.)

102002 #1 나도 아덜은 잇언 지금. 육지 간 살아도 쭉.(나도 아들은 있어서 지금. 육지 가서 살아도 쭉.)

102002 @ 아.(아.)

102002 #1 벌문[41]은 아니레도 ᄒᆞ낙씩은 꼭 꼭, 헤헤.('벌문'은 아니라도 하나씩은 꼭 꼭 헤헤.)

102002 @ 아.(아.)

102002 #1 상속은 ᄒᆞ게끔 헤놓왓주게.(상속은 하게끔 해놓았지.)

102002 @ 예에, 아 하르버지가 정성이 뭐예, 하르버지가 할머니가 뭐 기가 막히게 경 허니까 고등학교까지도 보내고.(예에, 아 할아버지가 정성이 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뭐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니까 고등학교까지도 보내고.)

102002 #1 어.(어.)

102002 @ 예게 농사도 많고.(예 농사도 많고.)

102002 #1 으 나도 농ᄉᆞ 많이 ᄒᆞ고.(으 나도 농사 많이 하고.)

41) '벌문'은 문벌을 '벌문'으로 말했다.

102002 @ 농사 허고예.(농사 하고요.)

102002 #1 으.(으.)

102002 @ 할머니도 물질헤나신가마씨?(할머니도 물질했는가요?)

102002 #1 아 거 할머니도 헤나고.(아 거 할머니도 했었고.)

102002 @ 바당일예. 할머니도 허고 하르버지도뭐. 그러면 할머니가 농ᄉᆞ 바당일도 허면은 그. 하르버지도.(바다일요. 할머니도 하고 할아버지도. 그러면 할머니가 농사 바다일도 하면은 그. 할아버지도.)

102002 @ 마줌 나가는 거.(마중 나가는 거.)

102002 #1 바다에서 고기 나끄레도. 이 베 헤서. 보제기 노릇도 헤서. 고기도 잘 잡아낫젱 허여.(바다에서 고기 낚으래도. 이 배 해서. 어부 노릇도 해서. 고기도 잘 잡았었다고 해.)

102002 @ 아.(아.)

102002 #1 아이 난 모르는데.(아이 난 모르는데.)

102002 @ 예.(예.)

102002 #1 경 거 고기도 잡아당. 막 풀레도 뎅기고.(그렇게 거 고기 잡아다가. 마구 팔래도 다니고.)

102002 @ 아, 팔기도 하고예?(아, 팔기도 하고요?)

102002 #1 으 으.(으 으.)

102002 @ 그 때는 고기 헐 때는 베는 어떤 베로, 테우로 헤신가마씨?(그 때는 고기 할 때는 배는 어떤 배로, 떼배로 했는가요?)

102002 #1 아니 아니 그 족은 그 저 풍선.(아니 아니 그 작은 그 저 풍선.)

102002 @ 예에 풍선예.(예에 풍선요.)

102002 #1 돛 ᄃᆞᆯ아근에 멀리 가젱 허민 돛 ᄃᆞᆯ앙 가고 경 아니허민 네 젖엉 가곡 허멍.(돛 달아서 멀리 가려고 하면 돛 달아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노 저어서 가고 하면서.)

102002 @ 거문 이거 베 허젠 헤도 경영헤도 이것도 뭐가 상당이 능력 잇어사 베도 운영허곡 허주. 농사짓곡. 경 헤시쿠다예?(그러면 이거 배 하려고 해도 경영해도 이것도 뭣이 상당이 능력 있어야 배도 운영하고 하지. 농사짓고. 그렇게 했겠습니다요?)

102002 #1 아 경 게난게 농사 안 짓을 뗀 바당에 가곡.(아 그렇게 하니까 농사 안 지을 땐 바다에 가고.)

102002 @ 바당에 가곡.(바다에 가고.)

102002 #1 어, 농사엔 헌 건 일 때가 잇는 거 아니라게.(어, 농사라고 한 건 일 때가 있는 거 아니야.)

102002 @ 어.(어.)

102002 #1 농번기를 지나면은.(농번기를 지나면.)

102002 @ 하르버지는 풍류도 잘 알아나신가마씨?(할아버지는 풍류도 잘 알았는

가요?)

102002 #1 에이 헤, 헤, 헤.(에이 헤, 헤, 헤.)

102002 @ 일 일 헤가지고예.(일 일 해가지고요.)

102002 #1 응 그런 거 잘 몰를 거라.(응 그런 거 잘 모를 거야.)

102002 @ 예에.(예에.)

102002 #1 나도.(나도.)

102003 @ 음 그 어머니는예, 저기 마을이 저기 어머니 고향.(음 그 어머니는요, 저기 마을이 저기 어머니 고향.)

102002 #1 아.(아.)

102003 @ 어머니 친정이 어딘 가마씨?(어머니 친정이 어데 인가요?)

102003 #1 고성 저 이구 저, 신양리 신양리.('고성' 저 이구 저, '신양'이 '신양'이.)

102003 @ 아 신양리 신양리예. 신양리 출신이옌 허민 되큰게예. 신양이고 거문 신양에 무신 성씨는 어무니 성씨는?(아, '신양'이. '신양'이요. '신양' 이 출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신양'이고 그러면 '신양'에 무슨 성씨는 무슨 어머니 성씨는?)

102003 #1 김씨.(김씨.)

102003 @ 김씨?(김씨?)

102003 #1 광산 김씨라.(광산 김씨야.)

102003 @ 아 광산 김씨예. 예.(아, 광산 김씨요. 예.)

102004 @ 겨곡 어릴 적에, 저 삼춘 자랄 때 놀이를 노는 것들 많이 자치기여, 연 날리기여,(그렇고 어릴 적에, 저 삼촌 자랄 때 놀이를 노는 것들 많이 자치기다, 연 날리기다.)

102004 #1 으.(으.)

102004 @ 막 그 많이 헤실 거 아니우꽈? 말 타기 놀이여.(아주 그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말 타기 놀이다.)

102004 #1 어.(어.)

102004 @ 또 불 가져근에도 헤나고 그런 것들 이시민 좀 골아줍서.(또 불 가져서도 했었고 그런 것들 있으면 좀 말해주십시오.)

102004 #1 아 게난 그 놀이 헐 때는 자치기.(아 그러니까 그 놀이할 때는 자치기.)

102004 @ 예.(예.)

102004 #1 게난 그 당시에는 우리 두릴 때. 놀 때는 일제시대라노난이.(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릴 때. 놀 때는 일제강점기라서.)

102004 @ 예.(예.)

102004 #1 그, 소위 일본말로 골으민.(그, 소위 일본말로 말하면.)

102004 @ 뭐 하시아다리[42]마씨?(뭐 '하시아다리'요?)

---

42) '하시아다리' '하시다리' 일본말로 놀이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102004 #1 어 그, 일본말덜도 막 ᄀᆞᆯ아낫저마는.(어 그, 일본말들도 아주 말했었다만.)

102004 @ 잊어부런?(잊어버려서?)

102004 #1 이젠.(이제는.)

102004 @ 일본말 말고 제주말로만 ᄀᆞᆯ아줍서 허, 허.(일본말 말고 제주말로만 말해주십시오 허, 허.)

102004 #1 게 길거리에서 막ᄒᆞ는 놀이덜 그자 잇주게.(그럼 길거리에서 마구하는 놀이들 그저 있지.)

102004 @ 뭐 술레잡기.(뭐 술래잡기.)

102004 #1 자치기도 허곡 또.(자치기도 하고 또.)

102004 @ 술레잡기도 허고.(술래잡기도 하고.)

102004 #1 으.(으.)

102004 @ 곱을락.(숨바꼭질.)

102004 #1 곱을락 ᄀᆞ튼 거 허, 허, 허.(숨바꼭질 같은 거 허, 허, 허.)

102004 @ 곱을락 ᄀᆞ튼 거는 여자들이 헙니까?(숨바꼭질 같은 거는 여자들이 합니까?)

102004 #1 아이 남ᄌᆞ도 허주 곱을락.(아이 남자도 하지 숨바꼭질.)

102004 @ 아.(아.)

102004 #1 곱을락허게 뒈면 곱을락은 막 동네가 다 시끄럽주게. 그 막 ᄉᆞ방이 돌아뎅기멍 곱아부니까.(숨바꼭질하게 되면 숨바꼭질은 아주 동네가 다 시끄럽지. 그 아주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숨어버리니까.)

102004 @ 아.(아.)

102004 #1 옆집이고 뭐.(옆집이고 뭐고.)

102004 @ 어, 곱을락 말 타기.(어, 숨바꼭질 말 타기.)

102004 #1 응, ᄆᆞᆯ 탕 막.(응, 말 타서 아주.)

102004 @ 말 타기.(말 타기.)

102004 #1 거시기ᄒᆞ곡.(거시기 하고.)

102004 @ 말 타기엔 헙니까? ᄆᆞᆯ 타기엔 헙니까?(말 타기라고 합니까? 말 타기라고 합니까?)

102004 #1 으 어.(으 어.)

102004 @ 어.(어.)

102004 #1 그 요꼬마이[43]엔 헌 게 일본말로 잇섯는데 거 무신 놀인지를 나도모르크라.(그 요꼬마이라고 한 것이 일본말로 있었는데 거 무슨 놀이인지를 나도 모르겠어.)

102004 @ 요꼬마이? 요꼬마이라고.(요꼬마이? 요꼬마이라고.)

102004 #1 응.(응.)

---

43) '요꼬마이' 일본말로 놀이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102004 @ 요꼬마이엔 요것도 길거리에서 허는 거마씨?(요꼬마이라고 요것도 길거리에서 하는 거요?)

102004 #1 응.(응.)

102004 @ 아 그 사람 찾고 막 허는 것꽈? 아니면 그 영 터치[44] 헤가지고.(아 그 사람 찾고 막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렇게 '터치' 해가지고.)

102004 #1 아 아이 아이.(아 아이 아이.)

102004 @ 술레, 그런 것도 아니고?(술래, 그런 것도 아니고?)

102004 #1 그 그것도, 방치기 ᄀᆞ뜬 거주게. 방치기.(그 그것도, 방치기 같은 거지. 방치기.)

102004 @ 아 방치기. 으 거문.(아 방치기. 으 그러면.)

102004 #1 그.(그.)

102004 @ 으.(으.)

102004 #1 그 놀곡, 그 그 게난. 그 옌날은 우리 두린 때는이.(그 놀고, 그 그 그러니까. 그 옛날은 우리 어린 때는.)

102004 @ 으.(으.)

102004 #1 그 ᄆᆞ쉬, 춤 혹교나 안 가게 뒈민은 ᄆᆞ쉬 ᄀᆞ끄레 가야 뒈거든.(그 마소, 참 학교나 안 가게 되면 마소 가꾸러 가야 되거든.)

102004 @ 예.(예.)

102004 #1 게난 일요일 날인. 우리가 무신 노는 게 아니라. 딱 허민 ᄆᆞ쉬 ᄀᆞ끄레 갈 것도 공일날 어떵 허영 이제 안 가젱 허민. 나라도 보네젠 ᄒᆞ면은 그날은 어떵 헤영 잡앙.(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우리가 무슨 노는 것이 아니라. 딱 하면 마소 가꾸러 갈 것도 공일날 어떻게 해서 이제 안 가려고 하면. 나라도 보내려고 하면은 그날은 어떻게 해서 잡아서.)

102004 @ 예.(예.)

102004 #1 일요일 날은 ᄆᆞ쉬 ᄀᆞ끄레 가는 거라. 게 ᄆᆞ쉬 ᄀᆞ끄레 가민은, 거 가을에는 밧데 감자들 뭐 다 놓앙 잇이민 그거 파당 구워도 먹곡.(일요일 날은 마소 가꾸러 가는 거야. 그래서 마소 가꾸러 가면, 거 가을에는 밭에 고구마들 뭐 다 놓아서 있으면 그거 파다가 구워도 먹고.)

102004 @ 응.(응.)

102004 #1 어 경 허멍 거 ᄆᆞ쉬 ᄀᆞ끄레 제미잇주게.(어 그렇게 하면서 그 마소 가꾸러 재미있지.)

102004 @ 음 맞수다.(음 맞습니다.)

102004 #1 가민 그 벌레도 타먹곡.(가면 보리수 열매도 따먹고.)

102004 @ 응, 가을에예.(응, 가을에요.)

102004 #1 으.(으.)

102004 @ 그.(그.)

---

44) '터치'는 터치(touch)로 손을 대거나 건드림을 말한다.

102004 #1 봄엔 가민 밋에 가시탈 ᄀᆞ뜬 것도 타먹고.(봄에는 가면 밑에 가시딸기 같은 것도 따먹고.)
102004 @ 아, 탈 타먹고.(아, 딸기 따먹고.)
102004 #1 으 아 그러면서 ᄒᆞ루를.(으 아 그러면서 하루를.)
102004 @ 으.(으.)
102004 #1 쉐 조름에 조치멍 뎅겨야주게.(소 꽁무니에 쫓으며 다녀야지.)
102004 @ 그 저기 새로 헤서 영 저 소리 내는 거? 피리 풀피리엔 허는 것도.(그 저기 새로 해서 이렇게 저 소리 내는 거? 피리 풀피리라고 하는 것도.)
102004 #1 응.(응.)
102004 @ 많이 불어납디가?(많이 불었었습니까?)
102004 #1 에이고 우리 그런 못.(에이고 우리 그런 건 못.)
102004 @ 그런 건 안해나수꽈?(그런 것은 안했었습니까?)
102004 #1 응.(응.)
102004 @ 삼춘 연날리긴 어떵 헤납디가?(삼촌 연날리기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02004 #1 뭐?(뭐?)
102004 @ 연 만들어근에 허는 거?(연 만들어서 하는 거?)
102004 #1 아, 만드는 것사게.(아, 만드는 것이야.)
102004 @ 응 것도 상당 헷실 거 아니우꽈?(응 그것도 상당 했을 거 아닙니까?)
102004 #1 아 그것도 가오리연 잇고.(아 그것도 가오리연 있고.)
102004 @ 응.(응.)
102004 #1 그 저.(그 저.)
102004 @ 대 연.(대 연.)
102004 #1 그 사각으로 뭰 것 ᄀᆞᆯ안. 거 무시 거엔 헌다마는.(그 사각으로 된 거 말해서. 거 무슨 거라고 한다마는.)
102004 @ 방패연.(방패연.)
102004 #1 방페연.(방패연.)
102004 @ 예.(예.)
102004 #1 거 그거 다 만들어근에.(거 그거 다 만들어서.)
102004 @ 예.(예.)
102004 #1 그건 만드면은게. 거 옌날은 이딘 전주가 엇이니까 아무데서나 연을 띠와저.(그건 만들면. 거 옛날은 이데는 전주가 없으니까 아무데서나 띄워져.)
102004 @ 응.(응.)
102004 #1 게 요즘은 이 전선이여 뭣 때문에 연을 아무데서나 못 띠우주마는.(그럼 요즘은 이 전선이다 뭐 때문에 연을 아무데서나 못 띄우지만은.)
102004 @ 응.(응.)
102004 #1 게난 연 날리는 거 그거 제미잇엇주게.(그러니까 연 날리는 것은 그거 재미있었지.)

102004 @ 아.(아.)

102004 #1 게.(그럼.)

102004 @ 연은 누게가 어릴 적에 누게가 만들어, 스스로 만듭디가? 아니면 하르버지가 만들어 줍디가? 아니면.(연은 누구가 어릴 때에 누구가 만들어,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102004 #1 아이 연.(아이 연.)

102004 @ 동네 강 만들어 달렌 헙디가?(동네 가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102004 #1 아니 동네에서덜 다 만들주. 연 만들젠 허민 모여져서.(아니 동네에서들 다 만들지. 연 만들려고 하면 모여져서.)

102004 @ 응.(응.)

102004 #1 것도 창호지 사오곡 데.(그것도 창호지 사오고 대나무.)

102004 @ 깍으곡.(깎고.)

102004 #1 응 훌트곡 헤여근에.(응 훑고 해서.)

102004 @ 예 어.(예 어.)

102004 #1 거 뭐 풀로 다 부치멍.(거 뭐 풀로 다 붙이면서.)

102004 @ 붙이곡예, 예. 동네서 모영예?(붙이고요 예. 동네서 모여서요?)

102004 #1 응.(응.)

102004 @ 경, 것도 밥풀로예.(그렇게, 그것도 밥풀로요.)

102004 #1 아 게 게.(아 그럼 그럼.)

102004 @ 그 싸울 때는, 연싸움이엔.(그 싸울 때는, 연싸움이라고.)

102004 #1 헤, 헤.(헤, 헤.)

102004 @ 헌 게 잇지 아니우꽈? 하, 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 하.)

102004 #1 아, 게메 연싸움이엔 헌 게. 줄 걸어근에, 줄 약헌 거 지는 거난에 이건뭐.(아, 그러니까 연싸움이라고 한 것이. 줄 걸어서, 줄 약한 거 지는 거니까 이건.)

102004 @ 아 그게 그때 막 그 무시거?(아 그것이 그때 아주 무엇?)

102004 #1 아, 그때야 줄이 무신 요세ᄀᆞ추룩 씨원허지 아녀. 실 ᄀᆞ뜬 거 허여근에 연 띄웟주. 무신.(아, 그때야 줄이 무슨 요즘처럼 시원하지 아니해. 실 같은 거 해서 연 띄웠지. 무슨.)

102004 @ 응 거기 뭐 유리 ᄲᆞ아근에 막 칠허곡 헤가지곡.(응 거기 뭐 유리 빻아서 마구 칠하고 해가지고.)

102004 #1 에이.(에이.)

102004 @ 그러진 안 헤봐수꽈?(그러지는 안 해봤습니까?)

102004 #1 그런 건 안 헤봣저.(그런 건 안 해봤어.)

102004 @ 아 그런 건 안 헤꾸나예. 그러면 연은, 그 보통 저 들어보면은, 그 띄와 불 때가 잇지 안읍니까? 보름 전에 띄운다든가. 집에 연을 놔두지 안 헷덴 헤가지고 그런 얘길 들은.(아 그런 건 안 했군요. 그러면 연은, 그 보통 저 들어보면, 그

띄워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102004 #1 몰라 나 그런 말도 못 들으고.(몰라 나 그런 말도 못 듣고.)

102004 @ 아 그런 건 안 허고 그자 재미로 헤가지고.(아 그런 건 안 하고 그저 재미로 해가지고.)

102004 #1 제미로 허당. 아니 연사게. 허당 날려불민 말 거주.(재미로 하다가. 아니 연이야. 하다가 날려버리면 말 거지.)

102004 @ 날려버리면.(날려버리면.)

102004 #1 뭐 아니 그거 봉그레도 강. 봉가도 다시홈도 띠움도 허주마는.(뭐 아니 그거 주우래도 가서. 주워도 다시하기도 띄우기도 하지만은.)

102004 @ 아.(아.)

102004 #1 그, 그 그때는 그 씰로 허니까이 그 줄이 약헤가지고이.(그, 그 그때는 그 실로 하니까 그 줄이 약해가지고.)

102004 @ 응.(응.)

102004 #1 쯔끔허민 줄 짤라졍.(조금하면 줄이 잘라져서.)

102004 @ 맞수다.(맞습니다.)

102004 #1 으.(으.)

102004 @ 연, 게민 자치기, 거 이 중에서 자치기를 제일 많이 어릴 적에는 한.(연, 그러니까 자치기, 거 이 중에서 자치기를 제일 많이 어릴 적에는 한.)

102004 #1 으 자치기 허여.(으 자치기 해.)

102004 @ 일고 으둡, 예 자치기도 많이 허곡 헤시크라예. 자치기 만드는 낭은 대충 어떵 낭으로?(일곱 여덟, 예 자치기도 많이 하고 했겠네요. 자치기 만드는 나무는 대충 어떤 나무로?)

102004 #1 아이 그냥 소나무도 허곡.(아이 그냥 소나무도 하고.)

102004 @ 아.(아.)

102004 #1 이디 신 나무도 허곡 뭐.(여기 있는 나무도 하고 뭐.)

102004 @ 예.(예.)

102004 #1 그냥 잡남헤서 ᄒᆞ면은.(그냥 잡나무해서 하면은.)

102004 @ 응.(응.)

102004 #1 오히려.(오히려.)

102004 @ 거 잘 때리고?(거 잘 때리고?)

102004 #1 쎄 쎄주게.(세 세지.)

102004 @ 예.(예.)

102004 #1 허, 허.(허, 허.)

102004 @ 예, 잘 헤가지고 잘 ᄆᆞᆯ라서예?(예, 잘 해가지고 잘 말라서요?)

102004 #1 예.(예.)

102004 @ 예 그 저기 펭이는예? 하영 만들어 봅디가?(예 그 팽이는요? 많이 만들어 봤습니까?)

102004 #1 펭이?(팽이?)
102004 @ 예.(예.)
102004 #1 펭이도 많이 처봣주.(팽이도 많이 쳐봤지.)
102004 @ 음, 펭이.(음, 팽이.)
102004 #1 거 펭이 만드는 건 뭐. 소나무 헤다근에 알만 까까불어근에.(거 팽이 만드는 건 뭐. 소나무 해다가 아래만 깎아버려서.)
102004 @ 아.(아.)
102004 #1 깎앙 또 밋테 못 박아근에 둥굴 때 그 다이지 안허게.(깎아서 또 밑에 못 박아서 둥글 때 그 닳지 않게.)
102004 @ 예.(예.)
102004 #1 밑에 곡지에.(밑에 꼭지에.)
102004 @ 밑에 곡지에.(밑에 꼭지에.)
102004 #1 응 못 박아근에.(응 못 박아서.)
102004 @ 아, 거기 팽이 잘 저기 돌려난 자리 잇지 안우꽈? 팽이가 어디 허민은 어디에서는 팽이가 이 뒤집어지지 안 헤근에 잘 돌앗.(아, 거기 팽이 잘 저기 돌렸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팽이가 어디 하면 어디에서는 팽이가 이 뒤집어지지 안 해서 잘 돌았.)
102004 #1 아 게난.(아 그러니까.)
102004 @ 경 헹 잘 이겨근에.(그렇게 해서 잘 이겨서.)
102004 #1 그 땅이 딴딴허면은 잘 돌곡.(그 땅이 딴딴하면 잘 돌고.)
102004 @ 응.(응.)
102004 #1 땅이 물렁물렁 허며는 안돌곡 ᄒᆞ는 거난에게.(땅이 물렁물렁 하면은 안돌고 하는 거니까.)
102004 @ 거난 그런 디 촞앙가근에 허곡 허지 안헙니까예?(그러니까 그런 데 찾아가서 하고 하지 안합니까요?)
102004 #1 그렇주게.(그렇지.)
102004 @ 팽이체는.(팽이채는.)
102004 #1 응.(응.)
102004 @ 무시걸로?(무엇으로?)
102004 #1 펭이체는 데에다가 그 헝겁.(팽이채는 대에다가 그 헝겊.)
102004 @ 헝겁으로.(헝겊으로.)
102004 #1 응.(응.)
102004 @ 아.(아.)
102004 #1 헝겁 무끄더든가 이 헝겁으로 꼬앙,(응, 헝겊 묶든가 이 헝겊으로 꼬아서.)
102004 @ 예.(예.)
102004 #1 꼬아근에.(꼬아서.)

102004 @ 무거근엥에.(묶어서.)

102004 #1 밋테 쯔끔 북삭[45]허게 헤영 그 걸로 때리주게.(밑에 조금 푸석하게 해서 그 걸로 때리지.)

102004 @ 아, 신사라[46]도 안 헤나수꽈?(아, '신사라'도 안 했었습니까?)

102004 #1 아 게메 신사락도 허곡 뭐또 허고, 신사락도 노 꼬아사 허주게.(아 그러니까 '신사라'도 하고 뭐도 하고. '신사라'도 노 꼬아야 하지.)

102004 @ 예 신사라예, 신사라 헤가지고예.(예 '신사라'요. '신사라' 해가지고요.)

102005 @ 그예, 저기 그 일제시대엔 허면은 일제시대 때를.(그요, 저기 그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때를.)

102005 #1 으.(으.)

102005 @ 얘기허는 건디. 공출 같은 거예?(얘기하는 것인데. 공출 같은 거요?)

102005 #1 응.(응.)

102005 @ 그런 거 헐 때는 기억나는 거 잇이민 집에 와근에 무신 거 가져가라 뭘 뭐 가져갓저 허멍.(그런 거 할 때는 기억나는 거 있으면 집에 와서 무슨 거 가져가라 뭘 뭐 가져갔다 하면서.)

102005 #1 아 게메, 옌날에 공출을 허젠 허면은. 공출을 말없이 헤 부리면 이상이 없는데이. 공출을 못허잖아게. 거 게고저고 네 놓렌 허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를 춤 일본 놈들은 군량미사 허젠사. 그걸 아 그 보리, 조 ᄀᆞ뜬 거. 아 그걸 헤당. 뭣사 허젠 경 밧찌렌사 헷는지 모르지마는. 저게 아니 네면은 막 그때는 그 면사무소 직원덜이, 막 나와서 집을 다 쑤셔. 뭐 어디 곱진 게 없는가 헤서.(아 그러니까, 옛날에 공출을 하려고 하면은. 공출을 말없이 해버리면 이상이 없는데. 공출을 못하잖아. 거 그러고저러고 내 놓으라고 하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을 참 일본 놈들은 군량미야 하려고야. 그것을 아 그 보리 조 같은 거. 아 그걸 해다가. 뭣이야 하려고 그렇게 바치라고야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게 아니 내면 아주 그때는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 마구 나와서 집을 다 쑤셔. 뭐 어디 숨겨놓은 것이 없을까 해서.)

102005 @ 응.(응.)

102005 #1 그레서 막 춪아네면은 막 메도 ᄯᅳ리곡.(그래서 마구 찾아내면 아주 매도 때리고.)

102005 @ 으.(으.)

102005 #1 곱졋젱. 게난 아 옌날엔게 먹엉 살젠 허민 거 곱질 수도 잇는 거고. 아 경 이녁 먹을 거ᄁᆞ지 다 줏어 강. 그 빼어가젠 ᄒᆞ니까.(숨겼다고. 그러니까 아 옛날에는 먹어서 살려고 하면 거 숨길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게 이녁 먹을 거까지 다 주워 가서. 그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102005 @ 식께 때, 이제 메 허젠도 허문 곤쏠 같은 거, 헤근에.(제사 때, 이제,

45) '복삭'은 푸석의 의미로 쓰였다.

46) '신사라(新西蘭)'는 집 울타리 안에 심는 식물로 잎을 두들겨 꼬아 밧줄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메 하려고도 하면 흰쌀 같은 거, 해서.)

102005 #1 아 게.(아 그러니까.)

102005 @ 곱쩡 놔두기도 허곡 헤실 건디예?(숨겨서 놔두기도 하고 했을 건데요?)

102005 #1 그렇주게.(그렇지.)

102005 @ 곱지기도 헤실 거고.(숨기기도 했을 거고.)

102005 #1 아 제사 헐 거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야.(아 제사 할 거는 우리 제주도 사람이야.)

102005 @ 예.(예.)

102005 #1 춤 제사는 어디 강 꿩이라도 저건 지네는 게.(참 제사는 어디 가서 꿔서라도 저건 지내는 것이.)

102004 @ 응.(응.)

102005 #1 우리 제주도 사람덜이 ᄆᆞ음인디.(우리 제주도 사람 마음인데.)

102005 @ 예.(예.)

102005 #1 조상에 데한.(조상에 대한.)

102005 @ 예 것도 곱젓실 껀디 그것도.(예 것도 숨겼을 것인데 그것도.)

102005 #1 게난 그거는 어디 가서라도 구허든지. 꾸든지 빗네든지 헤서 제사는 지네는 거라.(그러니까 그거는 어디 가서라도 구하던지. 꾸든지 빚내던지 해서 제사는 지내는 거야.)

102005 @ 예.(예.)

102005 #1 음.(음.)

102005 @ 그것도헤근에 촛앙 가졍 가부럿덴 헌 말 아니웃꽈? 거문.(그것도해서 찾아서 가져서 가버렸다고 한 말 아닙니까? 그럼.)

102005 #1 응? 아이 게난게.(응? 아이 그러니까.)

102005 @ 공출 때는.(공출 때는.)

102005 #1 그 제사 지네는 것사뭐.(그 제사 지내는 것이야.)

102005 @ 응.(응.)

102005 #1 제삿날 가까왕 허면은. 그때 꼭 왕. 그거, 아 것도 그 사름덜토 출장 나오면은게. 거 메 날 나오는게 아니난에게 무슨.(제삿날 가까워서 하면. 그때 꼭 와서. 그거, 아 그것도 그 사람들도 출장 나오면. 거 매 날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102005 @ 응, 놋그릇 같은 거. 그런 것들 막.(응, 놋그릇 같은 거. 그런 것들 마구.)

102005 #1 아 그거.(아 그거.)

102005 @ 다 그것도 가져갔지요?(다 그것도 가져갔지요?)

102005 #1 다 가저갓주. 공출 다헤서 가져가서.(다 가져갔지. 공출 다해서 가져갔어.)

102005 @ 놋그릇, 이 솥만 가져가지 안 혜영 다 가져갔구나예?(놋그릇, 이 솥만 가져가지 안 해서 다 가져갔군요?)

102005 #1 아 게난 무쉐는 필요가 엇서.(아 그러니까 무쇠는 필요가 없어.)

102005 @ 아 놋쉐?(아 놋쇠?)

102005 #1 그 저 동.(그 저 동.)

102005 @ 동예?(동요?)

102005 #1.(이.)

102005 @ 예.(예.)

102005 #1 놋그릇덜.(놋그릇들.)

102005 @ 예 놋그릇로예.(예 놋그릇으로요.)

102005 #1 그 총 총알사 멩글젠 그거.(그 총 총알이야 만들려고 그거.)

102005 @ 예 경 헷구나예. 그거.(예 그렇게 했군요. 그거.)

102006 @ 저기 삼춘은 경 헤도. 사삼사건 때에 그 경험이 잇섯실 거 아니우꽈? 나이가 떼가예?(저기 삼촌은 그렇게 해도. 사삼사건 때에 그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이 때가요?)

102006 #1 중ᄒᆞᆨ교 떼난.(중학교 때니까.)

102006 @ 예 중학교 떼, 그떼 혹시 그 생활에 사삼사건도 길어 노니까는, 그 경험했던 거는 잇시민?(예 중학교 때, 그때 혹시 그 생활에 사삼사건도 길었으니까는, 그 경험했던 거는 있으면?)

102006 #1 아 게, 우리도 중학교 떼 경찰관 허곡 순찰을 돌앗젠 허난.(아 그럼, 우리도 중학교 때 경찰관 하고 순찰을 돌았다고 하니까.)

102006 @ 아 순찰예?(아 순찰요?)

102006 #1 응, 거 웨 그런고허니까. 이 그 각 부락마다 다 성을 다앗거든.(응, 거 왜 그런가하니까. 이 그 각 마을마다 다 성을 쌓았거든.)

102006 @ 성 쌓기.(성 쌓기.)

102006 #1 돌로 헤서 높이. 넘어오지 못허게 헤근에 그, 주위에 다 보촛막 다 멘들언.(돌로 해서 높이. 넘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 주위에 다 보초막 다 만들어서.)

102006 @ 으.(으.)

102006 #1 여자고 남자고 다 이제 밤에는 와서. 그 놈덜 오는 거를 막기, 막진 못허주마는 오는걸 알기 위헤서.(여자고 남자고 다 이제 밤에는 와서. 그 놈들 오는 거를 막기, 막지는 못하지만은 오는걸 알기 위해서.)

102006 @ 으.(으.)

102006 #1 경 헹 보초를 상 허면은, 이제 각 부락마다 경찰관덜이뭐 총덜 가정 오라근에. 그 각 부락마다 주둔소가 잇거든이.(그렇게 해서 보초를 서서 하면, 이제 각 마을마다 경찰관들이 총들 가져와서. 그 각 마을마다 주둔소가 있거든.)

102006 @ 예.(예.)

102006 #1 그 경찰관덜 ᄒᆞ면은 아, 이제 그 중학셍도 그때도 나오렌 헤가지고.

밤엔 ᄀᆞ찌 경찰관허고.(그 경찰관들 하면은 아, 이제 그 중학생도 그때도 나오라고 해가지고. 밤에는 같이 경찰관하고.)

102006 @ 으응 ᄀᆞ찌 순찰허고.(으응 같이 순찰하고.)

102006 #1 으 ᄀᆞ찌 헤, 헤, 헤, 헤.(으 같이 헤, 헤, 헤, 헤.)

102006 @ 으응.(으응.)

102006 #1 총 메곡헤여근에 ᄍᆞᆺ아 뎅겻서.(총 매고해서 쫓아 다녔어.)

102006 @ 응.(응.)

102006 #1 견디 그 저 이덕구[47] 그 저 데천동서 죽을 때, 우리 그 디 토벌도 가 왓서.(그런데 그 저 이덕구 그 저 '대천동'에서 죽을 때, 우리 그 데 토벌도 갔다 왔어.)

102006 @ 으응, 학생들허고 경찰들허고예.(으응, 학생들하고 경찰들 하고요.)

102006 #1 응, 경 헨 하여튼 그 구좌[48]로부터 표선[49] 그ᄁᆞ지. 그 데천동[50]ᄁᆞ지. 딱 일열로 헤네 ᄌᆞ근ᄌᆞ근 ᄎᆞᆺ아 가는 거라.(응,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구좌'로부터 '표선' 그까지. 그 '대천동'까지. 딱 일렬로 해서 자근자근 찾아 가는 거야.)

102006 @ 아.(아.)

102006 #1 나머지 폭도를 ᄎᆞᆺ기 위헤서.(나머지 폭도를 찾기 위해서.)

102006 @ 아.(아.)

102006 #1 경 헤도 허, 허. 경 헨 그디 간 ᄒᆞ룻ᄌᆞ냑 잔.(그렇게 해도 허, 허. 그렇게 하고 그데 가서 하루저녁 자서.)

102006 @ 아.(아.)

102006 #1 헤산헨 와 벳저마는.(해산해서 와 버렸지만.)

102006 @ 게민 걸어근에 여기서 ᄌᆞ근ᄌᆞ근ᄌᆞ근 올라가는가마씨?(그럼 걸어서 여기서 자근자근차근 올라가는가요?)

102006 #1 응, 다 연결헹. 각 부락 거시기로 다 연결헤서.(응, 다 연결해서 각 마을 거시기로 다 연결해서.)

102006 @ 연결헤 가지고 야 대단허다예.(연결해 가지고 야 대단합니다.)

102006 #1 그 데천동 거기ᄁᆞ지 우리 가 와서.(그 '대천동' 거기까지 우리 갔다 왔어.)

102006 @ 게난에 삼춘은 중학교 학생 뗀데도.(그러니까 삼촌은 학생 땐데도.)

102006 #1 응.(응.)

102006 @ 경 허고.(그렇게 하고.)

102006 #1 응.(응.)

102006 @ 마을에서는 이제 나이든 남정네들은 다 ᄀᆞ찌 헤실 거 아니우꽈?(마을에서는 이제 나이든 남정네들은 다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

47) '이덕구'는 제주사삼사건 때 관련된 인물이다.
48) '구좌'는 제주시 구좌읍을 말한다.
49) '표선'은 서귀포시 표선면 중에 있는 표선마을이다.
50) '대천동'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102006 #1 으.(으.)

102006 @ 그 저 뭐 다 돌아가멍사 헷주만은예?(그 저 뭐 다 돌아가면서야 했지만요?)

102006 #1 어, 아 여자도 헤서.(어, 아 여자도 했어.)

102006 @ 여자도 헤근에예?(여자도 해서요?)

102006 #1 응.(응.)

102006 @ 아, 그때 갈 떼는 무시거? 막대기 지퍼근에 가곡. 총 들고 가고 막 경 헤신가마씨? 그 그 아까 이덕구산디 이덕구 헌 대천동까지 올라갈 때는.(아, 그때 갈 때는 무엇? 막대기 짚어서 가고. 총 들고 가고 아주 그렇게 했는가요? 그 그 아까 이덕구인지 이덕구 한 '대천동'까지 올라갈 때는.)

102006 #1 아, 그때는 그, 경찰관덜허고 다 ᄀᆞ찌. 이 청년 학생 헐 것 없이 다 합동으로 가니까.(아, 그때는 그, 경찰관들하고 다 같이. 이 청년 학생 할 것 없이 다 합동으로 가니까.)

102006 @ 으.(으.)

102006 #1 뭐, 그자 우리는 산보 겸 가온 거주 거 무신.(뭐, 그저 우리는 산보 겸 가온 거지 거 무슨.)

102006 @ ᄀᆞ찌 똘라근엥에.(같이 따라서.)

102006 #1 예.(예.)

102006 @ 경 헤도. 여기 고성은 중산간[51]이 아니난예?(그렇게 해도. 여기 '고성'은 '중산간'이 아니니까요?)

102006 #1 예.(예.)

102006 @ 그 사삼에 대한예. 그런 거 마을 막 불살라 불고. 집 불살라 불고.(그 사삼에 대한요. 그런 거 마을 마구 불살라 버리고. 집 불살아 버리고.)

102006 #1 아.(아.)

102006 @ 경 허문.(그렇게 하면.)

102006 #1 그 그 오란에. 그 뭐 그런 그.(그 그 와서는. 그 뭐 그런 그.)

102006 @ 그런 건 엇어?(그런 건 없어?)

102006 #1 헤 본 거는 별로 업써.(해 본 거는 별로 없어.)

102006 @ 아.(아.)

102006 #1 없는데 흔 사람 올라갓다 네려 와가지고 나중에. 막 다 뭴 츰에 그냥. 흔 이십팔 명을 흔꺼번에.(없는데 한 사람 올라갔다 내려 와가지고 나중에. 아주 다 될 참에 그냥. 한 이십팔 명을 한꺼번에.)

102006 @ 마을에서?(마을에서?)

102006 #1 어 거, 갓다 오란 곱앗던 사람 촛아네난. 누게누게 다 이제 가담헷쩬 골아부니까.(어 거, 갔다 와서 숨었던 사람 찾아내니까. 누구누구 다 이제 가담했다

51) '중산간' 제주의 중산간을 가리키고 제주어 '웃드르'라는 말과 동일하다. 해안에서 해발 200m 이상 고도의 땅을 중산간이라 한다.

고 말해버리니까.)

102006 @ 아.(아.)

102006 #1 남노당에 다 가입뤤 사름 누게 누게엔 다 골아부니까. 다 심어단.(남로당 다 가입된 사람 누구 누구라고 다 말해 버리니까. 다 붙잡아다가.)

102006 @ 아. 마지막 헐 때에.(아. 마지막 할 때에.)

102006 #1 응 ᄒᆞ루에 이십팔 명.(응 하루에 이십팔 명.)

102006 @ 어디?(어디?)

102006 #1 응, 성산.(응, 성산.)

102006 @ 성산 터진목[52]에서.(성산 '터진목'에서.)

102006 #1 터진목서.('터진목'에서.)

102006 @ 터진목에서 아.('터진목'에서 아.)

102006 #1 응.(응.)

102006 @ 거문 여기는 그래도 산에서. 그 수산사람덜이 여기 많이 피난 와신가 마씨? 그때.(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산에서. 그 '수산'사람들이 여기 많이 피난 왔는가요? 그때.)

102006 #1 아 그.(아 그.)

102006 @ 소개해 가지고?(소개해 가지고?)

102006 #1 수산 이리 수산.('수산' 이리 '수산.')

102006 @ 수산 이리?('수산' 이리?)

102006 #1 응, 수산 수산 이리는 이제 집을 완전이 다 소개시켜부럿주. 그떼엔.(응, '수산' '수산' 이리는 이제 집을 완전히 다 소개시켜버렸지. 그때에는.)

102006 @ 예 그떼헤서.(예 그때해서.)

102006 #1 그뗀.(그땐.)

102006 @ 그떼 헤서 여기로예?(그때 해서 여기로요?)

102006 #1 응.(응.)

102006 @ 해안이난예?(해안이니까요?)

102006 #1 응.(응.)

102006 @ 이쪽에 소개 와신게예?(이쪽에 소개 왔네요?)

102006 #1 아이, 여기도 오고 신양도 가고뭐.(아이, 여기도 오고 '신양'도 가고.)

102006 @ 맞수다.(맞습니다.)

102006 #1 아는데.(아는데.)

102006 @ 예.(예.)

102006 #1 촛앙 가시난.(찾아서 갔으니까.)

102006 @ 맞수다 예.(맞습니다 예.)

102006 #1 응.(응.)

102006 @ 다 연고 잇는 디 촛안 가시난.(다 연고 있는 데 찾아 갔으니까.)

---

52) '터진목'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에서 성산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목을 이르는 지명이다.

102006 #1 어.(어.)

102007 @ 이젠 로맨스우다. 로맨스.(이젠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102006 #1 응.(응.)

102007 @ 삼춘님이 로맨스, 젊은 때 한번 생각해 봅서예. 중매결혼 헙디가. 아니면 연애결혼 헙디가?(삼촌님의 로맨스, 젊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매결혼 하셨습니까. 아니면 연애결혼 하셨습니까?)

102007 #1 나?(나?)

102007 @ 예.(예.)

102007 #1 아, 나 거 할머니ᄒᆞ고 하르버지만 잇어부니까. 일찍 나 일찍 결혼 헷주.(아, 내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만 있어버리니까. 일찍 나 일찍 결혼했지.)

102007 @ 예.(예.)

102007 #1 나 스무 살에 결혼 헷주게.(내 스무 살에 결혼했지.)

102007 @ 쓰무 살?(스무 살?)

102007 #1 응.(응.)

102007 @ 쓰무 살이민 일찍잇꽈?(스무 살이면 일찍 입니까?)

102007 #1 으 으.(으 으.)

102007 @ 열일곱 살 때에도 허고 열여섯 살에도 허곡.(열일곱 살 때도 하고 열여섯 살에도 하고.)

102007 #1 아이, 게난게.(아이, 그러니까.)

102007 @ 허난게.(하니까.)

102007 #1 그 뭐이냐 허면은. 경 ᄒᆞ난.(그 뭐이냐 하면. 그렇게 하니까.)

102007 @ 으.(으.)

102007 #1 경 허난 게난 우리 할망 그자 아까움으로 난 그자 계속 오래 산거난에 헤, 헤, 헤, 헷.(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그저 아까워함으로 나는 그저 계속 오래 산거니까 헤, 헤, 헤, 헷.)

102007 @ 게난 하르버지가 정해줜에?(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정해주니까?)

102007 #1 어.(어.)

102007 @ 아, 중매로예.(아, 중매로요.)

102007 #1 아이, 그때 나는 ᄒᆞ교 뎅길 때.(아이, 그때 나는 학교 다닐 때.)

102007 @ 게메 학생 떼.(그러니까 학생 때.)

102007 #1 으 결혼 헷주게.(으 결혼했지.)

102007 @ 겐디 상당히 멋져시쿠다. 학생이난게.(그런데 상당히 멋졌겠습니다. 학생이니까.)

102007 #1 아 멋진 게 아니라.(아 멋진 것이 아니라.)

102007 @ 동네서덜.(동네에서들.)

102007 #1 건 나도 어쩔 수가 업주.(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지.)

102007 @ 응.(응.)

102007 #1 밥을 못 얻어먹으니까. 할머니도 이젠 늙어불고.(밥을 못 얻어먹으니까. 할머니도 이젠 늙어버리고.)
102007 @ 아 예.(아 예.)
102007 #1 음 이제 뭘 허니까. 생활 홀 쑤가 없지 아녀게.(음 이제 뭘 하니까. 생활 할 수가 없지 아니하니.)
102007 @ 예, 예.(예, 예.)
102007 #1 하르버지 할머니.(할아버지 할머니.)
102007 @ 예.(예.)
102007#1 경 헤니까 이제는 난 아, 겨고 우리 집이 제사가 종손이라노니까.(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나는 아, 그리고 우리 집에 제사가 종손이라서.)
102007 @ 으.(으.)
102007#1 일 년에 열두 번 이상을.(일 년에 열두 번 이상을.)
102007 @ 쯔, 쯔, 쯔.(쯔, 쯔, 쯔.)
102007#1 제사를 지넷어.(제사를 지냈어.)
102007 @ 응.(응.)
102007#1 경 헌디 도무지. 이젠 나도 이거.(그런데 도무지. 이젠 나도 이거.)
102007 @ 응.(응.)
102007#1 사람은, 우선 사람이 우선이니까 하, 하.(사람은, 우선 사람이 우선이니까 하, 하.)
102007 @ 예 응.(예 응.)
102007#1 살젠 허민.(살려고 하면.)
102007 @ 예. 맞수다게. 게난 뭐 중매고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매고요?)
102007 #1 응.(응.)
102007 @ 얼굴은 봔 갑디가? 얼굴은.(얼굴은 보아서 갔습니까? 얼굴은.)
102007 #1 아이.(아이.)
102007 @ 결혼식 전에?(결혼식 전에?)
102007 #1 동네 동네.(동네 동네.)
102007 @ 아 알아지는디이?(아 알아지는데?)
102007 #1 에.(에.)
102007 @ 아.(아.)
102007 #1 동네 아주망 이난 뭐.(동네 여자분 이니까 뭐.)
102007 @ 게난.(그러니까.)
102007 #1 관계없지.(관계없지.)
102007 @ 그 맨 처음에 느, 장가가라 헙디가? 아니면.(그 맨 처음에 너, 장가가라 했습니까? 아니면.)
102007 #1 게난 안 가켄 헷주게.(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했지.)

102007 @ 하.(하.)
102007 #1 난 장겔 나는 절대 안 간다고 헤서.(난 장가를 나는 절대 안 간다고 해서.)
102007 @ 예, 예.(예, 예.)
102007 #1 집에서, 어디 다른 디 간. 살단도 오고. 장겔 안 가젠 막.(집에서, 어디 다른데 가서. 살다가도 오고. 장가를 안 가려고 아주.)
102007 @ 아 도망도 다니고.(아 도망도 다니고.)
102007 #1 도망도 가고.(도망도 가고.)
102007 @ 아이고.(아이고.)
102007 #1 ᄒᆞ다가.(하다가.)
102007 @ 아.(아.)
102007 #1 어쩔 수 없이 뭐.(어쩔 수 없이 뭐.)
102007 @ 게난 그떼 장가가렌 헐 떼 그 저기 점찍은 그니깐 처녀허고 장게를 간 거 아니우꽈예?(그러니까 그때 장가가라고 할 때 그 저기 점찍은 그러니까는 처녀하고 장가를 간 거 아닙니까?)
102007 #1 아 점찍은 것도 아니고.(아 점찍은 것도 아니고.)
102007 @ 으 그냥 누구안티 가라.(으 그냥 누구한테 가라.)
102007 #1 어.(어.)
102007 @ 저디 있져허난?(저데 있다하니까?)
102007 #1 누구헌티 가라허난. 난 뭐 그 당시에는 뭐 우린 연애엔 헌 것도 몰르고.(누구한테 가라하니까. 난 뭐 그 당시에는 뭐 우린 연애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102007 @ 음.(음.)
102007 #1 음, 그것도 몰르고 뭐 하, 이걸 장게 가야 될 건가. 어떻게 헤야 될 껀가.(음, 그것도 모르고 뭐 하, 이거 장가를 가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102007 @ 아 고민이.(아, 고민이.)
102007 #1 뭐 걱정 허단.(뭐 걱정 하다가.)
102007 @ 고민이 핫구나예. 장개에 대해서예?(고민이 많았군요. 장가에 대해서요?)
102007 #1 음.(음.)
102007 @ 그 여 여자에 대한. 이성에 대한 감정보다도.(그 여 여자에 대한. 이성에 대한 감정보다도.)
102007 #1 음.(음.)
102007 @ 집안.(집안.)
102007 #1 어.(어.)
102007 @ 때문에.(때문에.)
102007 #1 응.(응.)
102007 @ 집안 때문에.(집안 때문에.)

102007 #1 집안 때문에 이걸 어쩔 건가헤서 걱정을.(집안 때문에 이걸 어쩔 건가해서 걱정을.)

102007 @ 고민을 하영 헷구나예.(고민을 많이 했군요.)

102007 #1 걱정을 하영 허고. 고민도 하영 허곡.(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102007 @ 게민 되게 감성보다도 이성이 앞서신게예?(그러면 되게 감성보다도 이성이 앞섰군요?)

102007 #1 헤, 헤. 난 몰라.(헤, 헤. 난 몰라.)

102007 @ 하, 하.(하, 하.)

102007 #1 헤, 헤, 헤, 헷.(헤, 헤, 헤, 헷.)

102007 @ 예에.(예에.)

102007 #1 아 게난 뭐.(아 그러니까 뭐.)

102007 @ 사쩍인 예.(사적인 예.)

102007 #1 그레서 경 츰 그떼 장게라도 가난. 나가 집이엔 헌 게 지금ᄁᆞ지 헷지. 나 혼자 뭐 어디사 갈른지도 모른 형펜 아니라게난.(그래서 그렇게 참 그때 장가라도 가니까. 내가 집이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했지. 나 혼자 뭐 어디야 갔을지도 모르는 형편 아니야 그러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혼자니까.(혼자니까.)

102007 @ 예에.(예에.)

102007 #1 그레서 츰 하르버지 할머니, 돌아가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셧주. 경헨 허니까.(그래서 참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 그렇게 해서 하니까.)

102007 @ 응.(응.)

102007 #1 아, 그럭저럭 이제 살아 온 거주.(아, 그럭저럭 이제 살아 온 거지.)

102007 @ 예에.(예에.)

102008 @ 사주는 본 거 아니우꽈예?(사주는 본 거 아닙니까?)

102008 #1 응?(응?)

102008 @ 사주. 하르버지가 사주 봔에 며느리 데령 와수꽈?(사주. 할아버지가 사주 봐서 며느리 데려서 왔습니까?)

102008 #1 아이고.(아이고.)

102008 @ 저 손지ᄒᆞ고 며느리ᄒᆞ고.(저 손주하고 며느리하고.)

102008 #1 우리 하르버지가 그걸 아니헤영은.(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아니해서는.)

102008 @ 응.(응.)

102008 #1 사주도 보곡. 텍일도 ᄒᆞ곡 다.(사주도 보고, 택일도 하고 다.)

102008 @ 아.(아.)

102008 #1 응.(응.)

102008 @ 저기.(저기.)

102008 #1 헤서 메칠날 갈 거여 헹.(해서 며칟날 갈 거다 해서.)

102008 @ 아, 집안에서 게민 그 요즘 유학이엔 헌 그런 풍습은 막 깔려 잇인게마씨. 집안 아버지도 뭐 한문.(아, 집안에서 그러면 그 요즘 유학이라고 한 그런 풍습은 매우 깔려 있었군요. 집안 아버지도 뭐 한문.)

102008 #1 아.(아.)

102008 @ 저기예.(저기요.)

102008 #1 어.(어.)

102008 @ 한문을 헷덴 허니까예.(한문을 했다고 하니까요.)

102008 #1 으.(으.)

102008 @ 하르버지도 그런 거 허고예.(할아버지도 그런 거 하고요.)

102008 #1 으.(으.)

102008 @ 게난 그 상당 헤시쿠다. 그거? 게난 딱 맞으난에 맞아네 허니깐 장게를 보낸 거고.(그러니까 그 상당 했겠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딱 맞으니까 맞아서 하니까는 장가를 보낸 거고.)

102008 #1 으.(으.)

102008 @ 그 사주로 맞게 잘 이제까지 돌아보면 잘 살아진 거 닮은게마씨.(그 사주로 맞게 잘 이제까지 돌아보면 잘 살아진 거 같군요.)

102009 #1 에 헤, 헷.(에 헤, 헷.)

102008 @ 건강허시고예. 예.(건강하시고요. 예.)

102008 #1 그.(그.)

102009 @ 그 삼춘예? 결혼 헐 때는 옛날 예단이엔 헌 건 잇지 아니우꽈예?(그 삼촌요? 결혼 할 때는 옛날 예단이라고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102009 #1 응.(응.)

102009 @ 그거 헐 때는 어떻게 저기 그 마련해져 해집디가?(그거 할 때는 어떻게 저기 그 마련해져 해졌습니까?)

102009 #1 그때는. 예단이엔 헌 게 엇엇고.(그때는. 예단이라고 한 것이 없었고.)

102009 @ 응.(응.)

102009 #1 예장[53]이엔 헌 게 잇엇주. 예장. 거 뭐냐면 홍세함.[54](예장이라고 한 것이 있었지. 예장. 거 뭐냐면 '홍세함.')

102009 @ 아.(아.)

102009 #1 가져 갈 때. 그 쏘곱에 광목 혼 필 놓고, 돈 얼마 놓고. 이제 여장.(가져 갈 때. 그 속에 광목 한 필 넣고, 돈 얼마 넣고. 이제 예장.)

---

53) '예장' 예장(禮狀) 혼서(婚書)다.

54) '홍세함'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納幣函)이다. 함속에는 예장과 무명을 넣는다.

102009 @ 아.(아.)

102009 #1 시우멩춘(時于孟春)[55]이엔 헤영 씌는 거.('시우맹춘((時于孟春)' 이라고 해서 쓰는 거.)

102009 @ 예에.(예에.)

102009 #1 그거 써서 그거 헤근에 노란 보제기에 쌍 앗엉가면 다 뒌 거라.(그것 써서 그거해서 노란 보자기에 싸서 가져가면 다 된 거야.)

102009 @ 아 그거마씸?(아 그거요?)

102009 #1 어.(어.)

102009 @ 아니 그거 남자는 경 허주만. 여자는게 이불도 헤사 되고.(아니 그거 남자는 그렇게 하지만. 여자는 이불도 해야 되고.)

102009 #1 아 여자는.(아 여자는.)

102009 @ 옷도 헤사 되고.(옷도 해야 되고.)

102009 #1 게메 이불도 ᄒᆞ곡.(그러니까 이불도 하고.)

102009 @ 보선도 헤야 되곡게.(버선도 해야 되고.)

102009 #1 아 게난.(아 그러니까.)

102009 @ 예.(예.)

102009 #1 여자는 여자 홀, 지네가 알앙 허는 거난.(여자는 여자 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102009 @ 반지는 헤줍디가?(반지 해주셨습니까?)

102009 #1 안 헤줘서 우리.(안 해줬어 우리.)

102009 @ 아, 반지는 안허고예. 그 그러면은.(아, 반지는 안하고요. 그 그러면은.)

102009 #1 아 우리사게 지금.(아 우리야 지금.)

102009 @ 예.(예.)

102009 #1 그 때게 몇 년도니?(그 때 몇 년도니?)

102009 @ 예.(예.)

102009 #1 아 헤, 헤.(아 헤, 헤.)

102009 @ 게 어른들이 할머니가 다 해줘실 거우다. 옷도 ᄒᆞ고.(그럼 어른들이 할머니가 다 해줬을 겁니다. 옷도 하고.)

102009 #1 허 몰라 난 어떵사 헷는지. 허, 허.(허 몰라 난 어떻게야 했는지. 허, 허.)

102009 @ 저기 이 무시거냐 허면예? 삼춘이 그 시집 올 때 잇지아니우꽈?(저기 이 무엇이냐 하면요? 삼촌이 그 시집 올 때 있잖습니까?)

102009 #2 응.(응.)

102009 @ 시집 올 때 경 헤도 저기 그 예물로 이 예물 헌 거 있지 안우꽈예?

55) '시우멩춘(時于孟春)'은 봄이 시작되는 처음 시기다. 맹춘(孟春)은 초봄 이르는 말로 제보자는 좋은 때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고 했다.

예물이.(시집 올 때 그렇게 해도 저기 그 예물로 이 예물 한 거 있지 않습니까요? 예물이.)

102009 #2 예물이 어디 시우꽈게. 옌날에게.(예물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102009 @ 게난 보선도 잇곡게. 거 어른덜안티 일가들안테 허게 뒈면은 저기 ᄒᆞ나라도 그 저.(그러니까 버선도 있고. 거 어른들한테 일가들한테 하게 되면 저기 하나라도 그 저.)

102009 #1 보선.(버선.)

102009 #2 우리 그런 거 엇어수다.(우리 그런 거 없었습니다.)

102009 #1 보선헷주 보선.(버선했지 버선.)

102009 #2 아이고.(아이고.)

102009 @ 응 보선예.(응 버선요.)

102009 #2 아이고.(아이고.)

102009 @ 보선 몇 베씩 헤가지고 어른들한티 안네고 저기 어른한티? 예 그거 들어 보젠 헤수다예. 보선ᄒᆞ고, 그 결혼 헐 때, 그 예물로 받은 거 무신 거 잇수과? 신랑 집이서 받은 거.(버선 몇 켤레씩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드리고 저기 어른한테? 예 그거 들어보려고 했습니다요. 버선하고, 그 결혼 할 때, 그 예물로 받은 거 무슨 거 있습니까? 신랑 집에서 받은 거.)

102009 #2 아 받은 거.(아 받은 거.)

102009 @ 신랑한티 받은 거?(신랑한테 받은 거?)

102009 #2 무시것사 헤신디 잊어변에 알아지쿠과? 하르방, 준 거 튼네 ᄀᆞᆯ아봅서.(무엇이야 했는지 잊어버려서 알아지겠습니까? 할아버지, 준 거 떠올려 말해보십시오.)

102009 @ 응.(응.)

102009 #1 나안티나 줘서? 우리 하르버지가.(나한테나 줬어? 우리 할아버지가.)

102009 #2 헛, 헛, 헛, 헛.(헛, 헛, 헛, 헛.)

102009 #1 하, 핫.(하, 핫.)

102009 @ 게메 하르버지가?(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02009 #2 하르방이 줘도 알아실 테주게.(할아버지가 줘도 알았을 테지.)

102009 #1 할머니가.(할머니가.)

102009 #2 하르버지가 줘도 알아실 테주게 무시거 주켄 헤영.(할아버지가 줘도 알았을 테지 무엇 주겠다고 해서.)

102009 #1 아니.(아니.)

102009 @ 그 옷을 할머니가 그니까 그 때는 저기 시어른이 안 계셔부니깐 할머니가예.(그 옷을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때는 저기 시어른이 안 계셔 버리니까 할머니가요.)

102009 #2 응.(응.)

102009 @ 주장헤근에 헤실 거우다 게. 경 허난 할머니가 며느리, 경 헤도 며느

리 아니우꽈? 며느리 허게 되면은 옷을 헤기네 해줘신가마씨?(주장해서 했을 겁니다 게.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며느리, 그렇게 해도 며느리 아닙니까? 며느리 하게 되면 옷을 해서 해줬는가요?)

102009 #2 아이, 옷 혼 불 헤줍디다.(아이, 옷 한 벌 해주었습니다.)

102009 @ 옷 혼 불예?(옷 한 벌요?)

102009 #2 예.(예.)

102009 @ 예 옷 혼 불이면 치마허고 저고리예?(예 옷 한 벌이면 치마하고 저고리요?)

102009 #2 예.(예.)

102009 @ 치마 저고리. 이것도 멩지로 헤신가마씨?(치마 저고리. 이것도 명주로 했는가요?)

102009 #2 예.(예.)

102009 @ 치마 저고리예 저고리.(치마 저고리요. 저고리.)

102009 #2 멩지로 허질 아녀고 그때 저 호박단[56] 양단.[57](명주로 하지를 않고 그때 저 호박단 양단.)

102009 @ 아, 호박단 양단.(아, 호박단 양단.)

102009 #2 예.(예.)

102009 @ 호박단 양단예?(호박단 양단요?)

102009 #2 예 양단.(예, 양단.)

102009 @ 호박단 양단.(호박단 양단.)

102009 #2 치메 저고리.(치마 저고리.)

102009 @ 치메 저고리예?(치마 저고리요?)

102009 #2 예.(예.)

102009 @ 아, 거면 치메 저고리 헐 때는 보면은 이 쏙에 그 속치메도 다 ᄀᆞ찌 허는 거 아니?(아, 그러면 치마 저고리 할 때는 보면 이 속에 그 속치마도 다 함께 하는 거 아니?)

102009 #2 아니.(아니.)

102009 @ 아닛과? 그러진 아녀고예?(아닙니까? 그러지는 아니하고요?)

102009 #2 저고리허고 치메.(아니 저고리하고 치마.)

102009 @ 저고리허고 치메예? 거문 저고리 허고 치메가 이게 그 옷감이 다 똑 같아나수과? 다 호박단 양단?(저고리하고 치마요? 그러면 저고리 하고 치마가 이것이 그 옷감이 다 똑 같았었습니까? 다 호박단 양단?)

102009 #2 응, 호박단 양단으로.(응, 호박단 양단으로.)

102009 @ 아, 그 색깔은 어떵 해신고마씨?(아, 그 색깔은 어떻게 했는가요?)

102009 #2 섹 다 분홍 거.(색 다 분홍 거.)

---

56) '호박단' 태피터(taffeta)인데 광택이 있는 얇은 평직 견직물로 여성복이나 양복 안감, 넥타이, 리본 따위를 만드는 데에 쓰인다.

57) '양단' 양단(洋緞)은 은실이나 색실로 수를 놓고 겹으로 두껍게 짠 고급 비단의 하나다.

102009 @ 분홍 거예. 우알 다 분홍 거예?(분홍 거요. 위아래 다 분홍 거요?)
102009 #2 응.(응.)
102009 @ 예, 알아수다. 고맙수다.(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02009 #2 헛, 헛, 헛.(헛, 헛, 헛.)
102009 @ 호박단 양단이엔 헌 것도 여기서 처음 들어수다.(호박단 양단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102009 #2 헛, 헛, 헛.(헛, 헛, 헛.)
102009 #2 예 고맙수다예.(예 고맙습니다요.)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헙디가?(결혼식은 어디서 했습니까?)
102010 #1 집이서 헷주. 어디서 헤.(집에서 했지. 어디서 해.)
102010 @ 집이서 마당에서예?(집에서 마당에서요?)
102010 #1 어.(어.)
102010 @ 게민 신랑 각시가 그 저 사모관대허곡 그 다 쓰고?(그러면 신랑 각시가 그 저 사모관대하고 그 다 쓰고?)
102010 #1 응.(응.)
102010 @ 이 활옷[58]입곡 활옷입고예?(이 활옷입고 활옷입고요?)
102010 #1 예.(예.)
102010 @ 마당에 그 저 상 차려놔근에.(마당에 그 저 상 차려놓아서.)
102010 #1 응.(응.)
102010 @ 절 허고 헤신가마씨?(절하고 했는가요?)
102010 #1 아이 절허고 뭐 헌 거 아녀고.(아이 절하고 뭐 한 것은 아니하고.)
102010 @ 아 그냥.(아 그냥.)
102010 #1 그냥 강.(그냥 가서.)
102010 @ 그 상객 와근에예?(그 상객 와서요?)
102010 #1 상 받앙.(상 받아서.)
102010 @ 아 상 받앙예?(아 상 받아서요?)
102010 #1 으응.(으응.)
102010 @ 상 받는 게 결혼식이난.(상 받는 것이 결혼식이니까.)
102010 #1 응.(응.)
102010 @ 사돈잔치[59]허곡.('사돈잔치'하고.)
102010 #1 예.(예.)
102010 @ 게난 신부 집이 가기네. 새각시 집이 강 상 받고.(그러니까 신부 집에 가서. 신부 집에 가서 상 받고.)
102010 #1 응.(응.)
102010 @ 말 타근에 옵디가?(말 타서 왔습니까?)

58) '활옷'은 전통 혼례 때에 새색시가 입는 예복이다.
59) '사돈잔치', '사돈열멩'이라고 해서 잔치를 할 때 양가 사돈끼리 인사를 하며 예를 나누는 의식을 말한다.

102010 #1 응 말 타고.(응 말 타고.)
102010 @ 말 타고.(말 타고.)
102010 #1 응.(응.)
102010 @ 새각시는 가마타고 아.(신부는 가마타고 아.)
102010 #1 어.(어.)
102010 @ 아 거 봅써게.(거 보십시오.)
102010 #1 어?(어?)
102010 @ 홍세함[60]은 누게가 져수꽈?('홍세함'은 누가 지었습니까?)
102010 #1 몰라. 그건.(몰라. 그건.)
102010 @ 건 기억 안 남수과?(건 기억 안 납니까?)
102010 #1 응.(응.)
102010 @ 어, 경 헤근에. 와근에 새각시 데령 와불민 걸로 끗이꽈?(어, 그렇게 해서. 와서 신부 데려서 와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102010 #1 끗이주게.(끝이지.)
102010 @ 새각시 집에 다시 안가고마씨?(신부 집에 다시 안가고요?)
102010 #1 아, 가고 안가는 것사게 장게가고 난 다음에사게.(아, 가고 안 가는 것이야 장가가고 난 다음에야.)
102010 @ 경 허난, 삼춘.(그러니까. 삼촌.)
102010 #1 가고정허민 가고 가기 실프면 마는 거지.(가고자하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마는 거지.)
102010 @ 새각시 집이 강. ᄒᆞ룻밤 잠니까 장 옵니까? 아니면 그냥 데령만 옵니까?(신부 집에 가서. 하룻밤 잡니까? 아니면 그냥 데려만 옵니까?)
102010 #1 아이.(아이.)
102010 @ 데령만 옵디가?(데려만 왔습니까?)
102010 #1 아니 데령만 오주게.(아니 데려만 오지.)
102010 @ 아침에 가근에.(아침에 가서.)
102010 #1 응.(응.)
102010 @ 아.(아.)
102010 #1 그디 강. 상 받곡. 뭐ᄒᆞ곡 다 헤근에.(응, 그데 가서. 상 받고. 뭐하고 다 해서.)
102010 @ 상 받곡.(상 받고.)
102010 #1 인사허곡.(인사하고.)
102010 @ 예.(예.)
102010 #1 으 헤서. 새각시 촐리민 ᄃᆞᆯ앙.(으 해서. 신부 차리면 데려서.)
102010 @ 응 잔치는 몃 칠 동안 헤신고예? 도세기 잡고 물 길어오고.(응 잔치

60) '홍세함'은 혼례를 치루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納幣函)으로 함속에는 예장과 무명을 넣는다.

는 며칠 동안 했는가요? 돼지 잡고 물 길어오고.)

102010 #1 하이고 그거 가문잔치[61]여.(하이고 그거 '가문잔치'다.)

102010 @ 예.(예.)

102010 #1 그 제라헌 그 잔치 전에 가문잔치 헤서 일가덜이영. 막 다 동네사람덜 요즘도 경 허지 아녀게.(그 본래 잔치 전에 '가문잔치' 해서 일가들하고 아주 다 동네사름들 요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102010 @ 예.(예.)

102010 #1 아시날 헤서 그 둣날은 번거로우니까.(전날 해서 그 뒷날은 번거로우니까.)

102010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2010 #1 그 예식허곡 뭐 ᄒᆞ곡 허젱 허문.(그 예식하고 뭐 하고 하려고 하면.)

102010 @ 도세기 잡는 날 허고.(돼지 잡는 날 하고.)

102010 #1 경 허고 ᄒᆞ곡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돈잔치허레 이제 가곡.(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돈잔치'하러 이제 가고.)

102010 @ 아.(아.)

102010 #1 응 아 우린 동네니깐 우린 그날그날 ᄒᆞ루에 다 영.(응 아 우리는 동네니까는 우리는 그날그날 하루에 다 이렇게.)

102010 @ 아, 동네난예?(아, 동네니까요?)

102010 #1 응.(응.)

102010 @ 게난 그 잔치 날 다음 날에 사돈잔치 허렐 가는구나예?(그러니까 그 잔치 날 다음 날에 '사돈잔치' 하러 가는군요.)

102010 #1 예.(예.)

102010 @ 새각시 집에예?(신부 집에요?)

102010 #1 아, 그 사돈잔치 허레 갈 때엔 뭐,(아, 그 '사돈잔치' 하러 갈 때에는 뭐.)

102010 @ 이바지[62]허고.(이바지하고.)

102010 #1 도세기다리도 ᄒᆞ나 놓곡 쏠도 ᄒᆞᆫ 말 놓곡 영 헹. 가실 거라.(돼지다리도 하나 넣고 쌀도 한 말 넣고 이렇게 해서 갔을 거야.)

102010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2010 #1 어.(어.)

102010 @ 이바지엔 헌 거?(이바지라고 한 거?)

102010 #1 경 허민 그 디 사돈칩 식구덜 모이곡 헤근에.(그렇게 하면 그 데 사돈집 식구들 모이고 해서.)

102010@ 예.(예.)

102010 #1 ᄒᆞᆫ.(한.)

---

61) '가문자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이 잔칫집에 모여서 치르는 간편한 잔치다.

62) '이바지'는 결혼을 전후하여 신부 쪽에서 예를 갖추어 신랑 쪽으로 정성 들여 만들어 보내는 음식을 이르나 제주도에서는 형편에 따라 돼지나 계란 같은 것을 하기도 한다.

102010@ ᄀᆞ찌 나누어?(같이 나누어?)

102010 #1 혼 혼 떼민 나눠 먹어아정 돌아오는 거주.(한 한 끼니면 나누어 먹어 가지고서 돌아오는 거지.)

102010 @ 예 그떼 결혼식사진 찍읍디가? 그떼는.(예 그때 결혼식사진 찍었습니까? 그때는.)

102010 #1 몰라 안.(몰라 안.)

102010 @ 안 찍언?(안 찍어서?)

102010 #1 안 찍어서.(안 찍었어.)

102010 @ 안 찍언예?(안 찍었어요?)

102010 #1 응.(응.)

102010 #1 여기는 경 헤도 촌이라부난예. 시[63]에 사름은예. 저기 찍엇덴 허는 어른도 있긴 이십디다 뭐. 그 시에 어른들은예.(여기는 그렇게 해도 촌이니까요. 시에 사람은요. 저기 찍었다고 하는 어른도 있긴 있었습니다 뭐. 그 시에 어른들은요.)

102010 #1 아 그때 다 거이 찍는디. 사진사가 그뗀 엇엇서.(아 그때 다 거의 찍는데. 사진사가 그땐 없었어.)

102010 @ 귀헤근에예?(귀해서요?)

102010 #1 응.(응.)

102010 @ 불르젠 허문 어려워근에.(부르려고 하면 어려워서.)

102010 #1 응, 요즘은 사진기가 막 하난 기자.(응, 요즘은 사진기가 아주 많으니까 거저.)

102010 @ 음.(음.)

102010 #1 부수 찍어도 뒈는디이.(무수히 찍어도 되는데.)

102010 @ 으.(으.)

102010 #1 그때는 사진기가 경.(그때는 사진기가 그렇게.)

102010 @ 맞수다. 사진사를 불러야주게예.(맞습니다. 사진사를 불러야겠지요.)

102010 #1 어.(어.)

102011 @ 예. 신혼살림은 그냥 집이서 헌 거 아니우꽈예?(예. 신혼살림은 그냥 집에서 한 거 아닙니까요?)

102011 #1 응.(응.)

102010 @ 집이서.(집에서.)

102011 #1 집이서.(응, 집에서.)

102010 @ 집이서예.(집에서요.)

102011 #1 족은 방이서.(작은 방에서.)

102011 @ 예.(예.)

102012 @ 거문 자제분은 어떵 뒘수과? 아들 둘 허고.(그러면 자제분은 어떻게

63) '시'는 시(市), 제주시를 말한다.

됩니까? 아들 둘 하고.)
102012 #1 뚤 ᄋᆞ섯 게 ᄋᆞ둡, 팔남매라.(딸 여섯 개 여덟, 팔남매야.)
102012 @ 아들 둘에 뚤 ᄋᆞ섯예.(아들 둘에 딸 여섯요.)
102012 #1 응.(응.)
102012 @ 아이고 아이고 다복허시우다.(아이고 아이고 다복하십니다.)
102012 #1 아 게난 그.(아 그러니까 그.)
102012 @ 아이 대단허시우다.(아이 대단하십니다.)
102012 #1 나는, 난 혼자지만은.(나는, 난 혼자지마는.)
102012 @ 예.(예.)
102012 #1 응.(응.)
102012 @ 완전.(완전.)
102012 #1 아 이거 자식이라도 많이 나서 뭘 홀려구.(아 이거 자식이라도 많이 나서. 뭘 하려고.)
102012 @ 아.(아.)
102012 #1 헤가지고 네 노력을.(해가지고 내 노력을.)
102012 @ 예.(예.)
102012 #1 많이 헷주게.(많이 했지.)
102012 @ 다 공부 시키곡. 허젠 허민 게민 아들은 몇 번째 봅디가?(다 공부 시키고. 하려고 하면 그럼 아들은 몇 번째 보셨습니까?)
102012 #1 게난 아들이.(그러니까 아들이.)
102012 @ 아.(아.)
102012 #1 다섯 번째 봣주게.(다섯 번째 봤지.)
102012 @ 아들 다섯 번째.(아들 다섯 번째.)
102012 #1 아들 다섯 번째. 아니 아니 ᄋᆞ섯 번째. 일곱 번째 그 다음은 또 아들 ᄒᆞ나 더 나카지카부덴 나카지카부덴 허단 보난.(아들 다섯 번째 아니 아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다음은 또 아들 하나 더 낳아질까보다고 낳아질까보다고 하다가 보니까.)
102012 @ 아.(아.)
102012 #1 또 뚤 나볏서.(또 딸 낳아버렸어.)
102012 @ 아.(아.)
102012 #1 경 ᄒᆞ난 ᄋᆞ둡 게 난 설러부럿주게. ᄋᆞ소 일곱. 게난 아들을 나젠 허난. 뚤을 열심히 난 거주.(그렇게 하니까 여덟 개 낳아 그만두어버렸지. 여섯 일곱.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딸을 열심히 낳은 거지.)
102012 @ 아 게 열심히 나고.(아 그렇게 열심히 낳고.)
102012 #1 허 헛.(허 헛.)
102012 @ 경 허난 여청[64] 삼춘안티 잘 헤사 뒈큰게마씨?(그렇게 하니까 '여편'

64) '여청' '예펜' '예청' '여편(女便)'는 여자어른을 높여서 부르는 제주말이다.

삼춘한테 잘 해야 되겠네요?)
102012 #1 아이고.(아이고.)
102012 @ 아이고.(아이고.)
102012 #1 그 이상 나가 더 헐 수가 엇서.(그 이상 내가 더 할 수가 없어.)
102012 @ 하, 하.(하, 하.)
102012 #1 요세도 아팡 막.(요새도 아파서 아주.)
102012 @ 아.(아.)
102012 #1 에 헤, 헤, 헤, 헤, 헷.(에 헤, 헤, 헤, 헤, 헷.)
102012 @ 경 헤도 완전 행복헌게마씨게.(그렇게 해도 완전 행복하십니다요.)
102012 #1 어?(어?)
102012 @ 삼춘 건강도 허시고마씨.(삼촌 건강도 하시고요.)
102012 #1 게난 우리 할망도 건강헤여.(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건강해.)
102012 @ 예, 그만큼 헌 게 어딧과게 건강도 허시고.(예, 그만큼 한 것이 어딥니까 건강도 하시고.)
102012 #1 어.(어.)
102012 @ 경 허니까. 이렇게 나완 게 큰일도 허는 거주마는 자식.(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게 큰일도 하는 것이지마는 자식.)
102012 #1 게난 나 지금도 건강은.(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건강은.)
102012 @ 으.(으.)
102012 #1 이거 이 녹음기 앞이 선 ᄀᆞᆯ을 말이 아니여마는.(이거 이 녹음기 앞에 선 말할 말이 아니다마는.)
102012 @ 아이 엇수다게.(아이 없습니다.)
102012 #1 나 병원에 간. ᄒᆞ루 입원해 본적이 엇엇 지금ᄁᆞ지.(나 병원에 가서. 하루 입원해 본적이 없어 지금까지.)
102012 @ 아.(아.)
102012 #1 영 ᄀᆞᆯ으면은 이거 놈들은 경 ᄀᆞᆯ아 가면 아, 그거 자만헌 소리 거 경 허민 헤, 헤, 헤, 헷.(이렇게 말하면 이거 남들은 그렇게 말해 가면은 아, 그거 자만한 소리 거 그렇게 하면 헤, 헤, 헤, 헷.)
102012 @ 관리를 잘 했다는 거주마씨게.(관리를 잘 했다는 거지요.)
102012 #1 으?(으?)
102012 @ 관리를 잘 헷다는 거주마씨.(관리를 잘 했다는 거지요.)
102012 #1 아니 관리보다도 본레 건강을 헤여. 게난.(아니 관리보다도 본래 건강을 해. 그러니까.)
102012 @ 비결이 뭐꽈?(비결이 뭡니까?)
102012 #1 어?(어?)
102012 @ 비결?(비결?)
102012 #1 지금 당뇨도 없지. 혈압도 엇지.(지금 당뇨도 없지. 혈압도 없지.)

102012 @ 아.(아.)

102012 #1 아, 게난 지금 베부른 건만 문제지.(아, 그러니까 지금 배부른 것만 문제지.)

102012 @ 아.(아.)

102012 #1 몸이 하나도 이상이 엇주게.(몸이 하나도 이상이 없지.)

102012 @ 비결이 뭐꽈?(비결이 뭡니까?)

102012 #1 어?(어?)

102012 @ 건강 비결.(건강 비결.)

102012 #1 비결?(비결?)

102012 @ 예.(예.)

102012 #1 아 비결이야 뭐, 네 뭐 열심히 돌아뎅기곡.(비결, 아 비결이야 뭐, 내 뭐 열심히 돌아다니고.)

102012 @ 응.(응.)

102012 #1 그저. 뭘 허니까 거지. 뭐 그 에초부떠 건강허게 테어난 모냥이라.(그저 뭘 하니까 거지. 뭐 그 애초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모양이야.)

102012 @ 그 건강검진은 그 받지 안읍니까?(그 건강검진은 그 받지 않습니까?)

102012 #1 응.(응.)

102012 @ 건강검진에 받아도 당뇨도 안 나오고.(건강검진에 받아도 당뇨도 안 나오고.)

102012 #1 응.(응.)

102012 @ 혈압도 안 나오고 당뇨도 안 나오고?(혈압도 안 나오고 당뇨도 안 나오고?)

102012 #1 어.(어.)

102012 @ 건 대단헌.(그것은 대단한.)

102012 #1 아 혈압은 벡오십 ᄁᆞ지 올라가뒈. 나가 이 년 벳끼 안뒈서. 혈압 약 먹은 지가.(아 혈압은 백오십까지 올라가되. 내가 이 년 밖에 안됐어. 혈압 약 먹은 지가.)

102012 @ 아.(아.)

102012 #1 거난 벡 오십을 올라가니까. 혈압 약 먹읍센 허는 거라. 뭐 그걸로 헤서 혈압이 높은 건 아니지마는 혈압 약 먹은 것에 뭐 문제가 뒈는 건 ᄒᆞ나도 없으니까.(그러니까 백 오십을 올라가니까. 혈압 약 먹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야. 뭐 그것으로 해서 혈압이 높은 거는 아니지만 혈압 약 먹은 것에 뭐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102012 @ 응.(응.)

102012 #1 먹는 게 낫수다. 낫수다 ᄒᆞ길레 헤, 헤.(먹는 것이 낫습니다. 낫습니다 하기에 헤, 헤.)

102012 @ 응.(응.)

102012 #1 이제 그 혈압 약 흔 알 먹엄서.(이제 그 혈압 약 한 알 먹고 있어.)

102012 @ 으.(으.)

102012 #1 쪼그만헌 거 흔 알.(조그마한 거 한 알.)

102012 @ 아.(아.)

102012 #1 게난 뭐 혈압 약도 뭐 흔 둘 두 둘 먹어도 두둘 치 먹어도 ᄉᆞ천오벡 원어치벳끼 안 먹어.(그러니까 뭐 혈압 약도 뭐 한 달 두 달 먹어도 두 달 치 먹어도 사천오백 원어치밖에 안 먹어.)

102012 @ 아.(아.)

102012 #1 겐디 작년도 저 세마음, 어디니? 세 세.(그런데 작년도 저 새마음, 어디니? 새 새.)

102012 @ 병원?(병원?)

102012 #1 으.(으.)

102012 @ 어디? 한마음마씨?(어디 한마음요?)

102012 #1 아 한마음병원.[65](아 '한마음병원.')

102012 @ 예.(예.)

102012 #1 거기 가서 종합검진 헷더니. 돌아가실 때ᄁᆞ지 큰 걱정 엇이쿠덴 허는 거라.(거기 가서 종합검진 했더니. 돌아가실 때까지 큰 걱정 없겠다고 하는 거야.)

102012 @ 아.(아.)

102012 #1 아 경 허길레 아 게민 뒛다고. 뭐 죽을 때ᄁᆞ지.(아 그렇게 하니까 아 그러면 되었다고. 죽을 때까지.)

102012 @ 아 하.(아 하.)

102012 #1 죽는 다음에야 뭐 허, 허, 허.(죽는 다음에야 뭐 허, 허, 허.)

102012 @ 아이게 완전 부럽수다게.(아이 완전 부럽습니다.)

102012 #1 ᄋᆞ?(ᄋᆞ?)

102012 @ 저도 이제 부모님이.(저도 부모님이.)

102012 #1 으?(으?)

102012 @ 삼춘 연세에 쫌 헤가지고 허긴 헤가지고 허니까는 참 예 많이 부러운 게마씨예.(삼촌 연세에 좀 해가지고 하기는 해가지고 하니까는 참 예 많이 부럽습니다요.)

102012 #1 아이 게난. 지금ᄁᆞ지 나가 뭐. 아, 벵원에.(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뭐. 아, 병원에.)

102012 @ 으.(으.)

102012 #1 거 흔 번은 차탕 뎅기단. ᄒᆞ루 강 잔 왓는디. 차탕 뎅기단 바로 ᄋᆞᄋᆞ 입구에 서라.(거 한 번은 차타서 다니다. 하루 가서 자서 왔는데. 차타서 다니다 바로 요 요 입구에 서야.)

102012 @ 예.(예.)

---

65) '한마음병원'은 제주시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이다.

102012 #1 난 절로 깃장 이레 오는데. 하 절로 돌려오단 그만 나 차를 옆으로 박아불엇서.(난 저기로 곧장 이리로 오는데. 하 저기로 달려오다가 그만 내 차를 옆으로 박아버렸어.)

102012 @ 으.(으.)

102012 #1 아 경 ᄒᆞ니까 나는 족은 길에서 족은 길에 가니까. 나가 이짝으로 쑥 넘어완 박아도 하, 나가 잘못 헷젠 허는 거라게.(아 그렇게 해서 나는 작은 길에서 작은 길에 가니까. 내가 이쪽으로 쑥 넘어와서 박아도 하, 내가 잘못 했다고 하는 거야.)

102012 @ 으.(으.)

102012 #1 이거 뭐 무신 소리냐고 게이까.(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102012 @ 으.(으.)

102012 #1 족은 길에 사름이 항상 지는 거우다 이런 거라.(작은 길에 사람이 항상 지는 겁니다. 이런 거야.)

102012 @ 으, 으.(으, 으.)

102012 #1 하 교차로니까이 아, 경 헨 막 벵원에만 가봅센 ᄒᆞ고, 또 그날 ᄒᆞᆫ 아이도 나가 아는 아인데, 벵원에 가봅센. 허관데 벵원에 간 ᄒᆞ난. 뭐 별 이상 엇수덴 허관데 그자 듯날 와 벳주.(하 교차로니까 아, 그렇게 해서 아주 병원에만 가보시라고 하고, 또 그날 한 아이도 내가 아는 아인데, 병원에 가보시라고. 하기에 병원에 가서 하니까. 뭐 별 이상 없다고 하기에 그저 뒷날 와 버렸지.)

102012 @ 아.(아.)

102012 #1 게난 그떼 그 ᄒᆞᆫ 번 벵원에 간 누워 봣주. 아 뭐 이 동네 의원이사 감기도 걸령 가곡.(그러니까 그때 그 한 번 병원에 가서 누워봤지. 아 뭐 이 동네 의원이야 감기도 결려서 가고.)

102012 @ 맞수다 예, 예.(맞습니다 예, 예.)

102012 #1 에 어디 으 뭐 ᄒᆞ면은 손도.(에 어디 으 뭐 하면 손도.)

102012 @ 손도 상처 나민.(손도 상처 나면.)

102012 #1 손도 다쳥 가곡. 영 허는 거난.(손도 다쳐서 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102012 @ 예, 예.(예, 예.)

102012 #1 그건.(그것은.)

102012 @ 그건 병이예.(그것은 병이요.)

102012 #1 말 홀 필요도 없는 거고.(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102012 @ 병이 없다는 거잖아예. 건강하시다는 거주마씨?게 예.(병이 없다는 거잖아요. 건강하시다는 거지요? 예.)

102012 #1 응.(응.)

102012 @ 게문 자식들은 참 좋으신게마씨.(그러면 자식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102012 #1 응?(응?)

102012 @ 자식들은.(자식들은.)
102012 #1 응 부모생각들은.(응 부모생각은.)
102012 @ 부모가 건강허난에.(부모가 건강하니까.)
102012 #1 부모 때문에 걱정 헐 필요가 엇서.(부모 때문에 걱정 할 필요가 없어.)
102012 @ 예, 예.(예, 예.)
102012 #1 지금ᄁᆞ지는.(지금까지는.)
102012 @ 예.(예.)
102014 #1 그 자식들은 결혼은 어떵 어떵덜 시킵디가? 뚤허고 아들들 헤서.(그 자식들은 결혼은 어떻게 어떻게들 시켰습니까? 딸하고 아들들 해서.)
102014 #1 아 게난 우리는 본래 엇곡.(아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없고.)
102014 @ 응.(응.)
102014 #1 나도 뭐. 기자 지네 허고저 ᄒᆞᆫ데로 난 시켯서. 이 사름허고 결혼 허쿠다 허민 난 시키고. 아들도 경 ᄒᆞ고.(나도 뭐 거저 자기들 하고자 한대로 난 시켰어. 이 사람하고 결혼 하겠습니다 하면 난 시키고. 아들도 그렇게 하고.)
102014 @ 아.(아.)
102014 #1 뚤도 경 ᄒᆞ고 네가 어디 가근에 구헤여근에 어.(딸도 그렇게 하고 내가 어데 가서 구해서 어.)
102014 @ 허지 안 ᄒᆞ고예.(하지 안 하고요.)
102014 #1 뭐 허지 안여고. 자기네 존데로 난 다 시켯주.(뭐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좋은 데로 난 다 시켰지.)
102014 @ 게난 저기 그 시절에 맞게 막 시집 안가키여, 장가 안가키여 헌 거를 막 경 헤도 가라가라 헷던 그런 것도.(그러니까 저기 그 시절에 맞게 아주 시집 안가겠다, 장가 안가겠다 한 것을 아주 그렇게 해도 가라가라 했던 그런 것도.)
102014 #1 아이 게난 그런 것도 엇곡.(아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
102014 @ ᄎᆞ곡ᄎᆞ곡 헤근에.(차곡차곡 해서.)
102014 #1 다 뭐.(다 뭐.)
102014 @ 아.(아.)
102014 #1 아니 차례대로 다 ᄌᆞ근ᄌᆞ근 보네고.(아니 차례대로 다 자근자근 보내고.)
102014 @ 아 풍습이 다르덴 아니면 뭐가 사주가 안 맞덴 헌.(아 풍습이 다르다고 아니면 사주가 안 맞는다고 한.)
102014 #1 아니.(아니.)
102014 @ 그런 결격에 대해서.(그런 결격에 대해서.)
102014 #1 거 뭐 우린 그런 것도 생각 안혀고.(거 뭐 우린 그런 것도 생각 아니하고.)
102014 @ 아.(아.)

102014 #1 이녁 좋덴 허민.(자기 좋다고 하면.)
102014 @ 좋덴 허민예.(좋다고 하면.)
102014 #1 사주고 뭐. 이 하, 하, 하, 하.(사주고 뭐. 이 하, 하, 하, 하.)
102014 @ 하, 하, 하, 하.(하, 하, 하, 하.)
102014 #1 이 거 필요 없이.(이 거 필요 없이.)
102014 @ 예, 아이고예.(예, 아이고요.)
102014 #1 아니 경 허주게 뭐. 지네 좋덴 헌디 뭐.(아니 그렇게 하지 뭐. 자기들 좋다고 해서 하는데 뭐.)
102014 @ 어.(어.)
102014 #1 지네 좋덴 허영 살다가 나빠서 헤어지민 지네 팔자지 무신.(자기들 좋다고 해서 살다가 나빠서 헤어지면 자기들 팔자지 무슨.)
102014 @ 어.(어.)
102014 #1 거 부모가 경 허렌 헌 건 아니난에.(거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102014 @ 예 맞수다. 며느리 ᄒᆞ고 사위는예 놈이 집이서 온.(맞습니다. 며느리 하고 사위는 남의 집에서 온.)
102014 #1 응.(응.)
102014 @ 그거 봤을 거 아니우꽈?(그거 봤을 거 아닙니까?)
102014 #1 겐디 며느리가. 우리 족은 메누린 대전 여자고 큰 메누리는 부산 여자주.(그런데 며느리가. 우리 작은 며느리는 대전 여자고 큰 며느리는 부산 여자지.)
102014 @ 예.(예.)
102014 #1 아 경 헨 허니까. 메누리도 이제 아 지네 허켄 헌 데로 ᄒᆞᆯ 수벳기. 난 원, 아 허고 싶으면 ᄒᆞ라.(아 그렇게 해서 하니까. 며느리도 이제 아 자기들 하겠다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나는 전혀, 아 하고 싶으면 하라.)
102014 @ 아.(아.)
102014 #1 아 너네가 좋아서 허는 거니까.(아 너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102014 @ 아.(아.)
102014 #1 궂이면은 결혼 헐 일이 없지 아녀게.(궂으면 결혼 할 일이 없지 아니하니.)
102014 @ 예에.(예에.)
102014 #1 으 좋아서 허는 일이니까 너네 허고저허건 허라. 그레서 우린 막.(으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너희 하고자하건 하라. 그래서 우린 아주.)
102014 @ 으.(으.)
102014 #1 자기이사에 멧겨부니까.(자기의사에 맡겨버리니까.)
102014 @ 아.(아.)
102014 #1 아 거 잘 게난 나헌티 원망허진 아녀 지금ᄁᆞ지도.(아 거 잘 그러니까 나한테 원망하지는 않아 지금까지도.)

102014 @ 어.(어.)

102014 #1 어 네가 잘못 무신 결혼헷다거나. 뭐 ᄒᆞ거나 제집아이도 경 ᄒᆞ곡.(어 내가 잘못 무슨 결혼했다거나. 뭐 하거나 계집아이도 그렇게 하고.)

102014 @ 아.(아.)

102014 #1 여자덜토.(여자들도.)

102014 @ 여자덜토예? 사위들도 마찬가진게예?(여자들도요? 사위들도 마찬가지군요?)

102014 #1 응, 응.(응, 응.)

102014 @ 사위도.(사위도.)

102014 #1 게난.(그러니까.)

102014 @ 응.(응.)

102014 #1 지금 ᄁᆞ지는 아 우린 다 헷자. 아무 일도 엇주.(지금까지는 아 우린 다 했지만. 아무 일도 없지.)

102014 @ 응.(응.)

102014 #1 으, ᄋᆞ듭 식구가 다.(으, 여덟 식구가 다.)

102014 @ 응.(응.)

102014 #1 헌디. 아 요번에 큰 사위가 그만 나보다 ᄆᆞᆫ저 죽어볏서.(한데. 아 요번에 큰 사위가 그만 나보다 먼저 죽어버렸어.)

102014 @ 아.(아.)

102014 #1 응 아 겐디 거기는 거기도 그 목 깜이여. 무슨 암 걸려가지고 헤노니까. 이건 뭐.(응 아 그런데 거기는 거기도 그 목 암이다. 무슨 암 걸려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뭐.)

102014 @ 응.(응.)

102014 #1 어쩔 수가 업서.(어쩔 수가 없어.)

102014 @ 으음 후두암인가?(으음 후두암인가?)

102014 #1 예, 후두암.(예, 후두암.)

102014 @ 예.(예.)

102014 #1 경 허단. 그건 다 수술헨 나산 뎅기단. 아 또 페암으로 들어간. 그게 전이 된 모양이지 거기.(그렇게 하다. 그건 다 수술해서 나아서 다니다가. 아 또 폐암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전이 된 모양이지 거기.)

102014 @ 음.(음.)

102014 #1 경 헨 ᄒᆞᆫ 그 수술헨. 이상 업씨 ᄒᆞᆫ 오륙 년 살앗는데.(그렇게 해서 한 그 수술해서. 이상 없이 한 오륙 년 살았는데.)

102014 @ 아 전이 되엇구나예.(전이 됐었군요.)

102014 #1 응. 페암으로 돌아가, 죽어부럿데 이 뭐. 팔자가 경 허민 어쩔 수가 업는 거고 그거 다 이녁 ᄑᆞᆯᄌᆞ니까 거.(응. 폐암으로 돌아가, 죽어버리데 이 뭐. 팔자가 그렇게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거 다 이녁 팔자니까 거.)

102014 @ 예 게민 다 주변에덜 저기 살암수과? 아니면 아들들은 육지 살암덴 허멍.(예 그러면 다 주변에서들 저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들은 육지 살고 있다고 해서.)

102014 #1 아들 똘 두 게 육지 살고 여긴 네 게 뻿기 안살아. 똘 네 게 사는데.(아들 딸 두 개 육지 살고 여기는 네 개 밖에 안살아. 딸 네 개 사는데.)

102014 @ 응.(응.)

102014 #1 세화리 ᄒᆞ나 살고.('세화'이 하나 살고.)

102014 @ 응.(응.)

102014 #1 표선이 ᄒᆞ나 살고 제주시에 ᄒᆞ나 살고 제주시에 둘이 살암꾸나. 큰똘ᄁᆞ지 헤영.('표선'이 하나 살고 '제주시'에 하나 살고 '제주시'에 둘이 살고 있구나. 큰 딸까지 해서.)

102016 @ 그 이밖에 삼춘, 이건 삼춘 일생에 대헤서 이얘기 ᄒᆞ곡. 가족에 대해 곧지 안헤수과예? 여기서 더 이렇게 곧고 싶은 거.(이 밖에 삼촌, 이것은 삼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가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요? 여기서 더 말하고 싶은 거.)

102016 #1 에.(에.)

102016 @ 만약에 잇시민예. 삼춘 자랑이든.(만약에 있으면요. 삼촌 자랑이든.)

102016 #1 아니 게메.(아니 그러니까.)

102016 @ 뭐든.(뭐든.)

102016 #1 게메.(그러니까.)

102016 @ 어떤 식으로.(어떤 식으로.)

102016 #1 자랑이나마나.(자랑이나마나.)

102016 @ 힘든 일을 어떵 극복헹 헷저. 뭐 교훈되는 이야기라든가 그런 거 잇이민.(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해서 했다. 뭐 교훈되는 이야기라던가 그런 거 있으면.)

102016 #1 게난 난 항상 그 아이들이 건강ᄒᆞ곡.(그러니까 난 항상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102016 @ 응.(응.)

102016 #1 그자 잘 뒀으면 ᄒᆞ는 그 셍각 벳기 엇이난.(그저 잘 됐으면 하는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102016 @ 응 삼춘네 건강ᄒᆞ고예. 쫌 전에 ᄀᆞᆯ아수게.(응 삼촌네 건강하고요. 좀 전에 말했습니다.)

102016 #1 아 나 건강 허는 건 이제는 아 너미 건강헤서 이거. 아이덜에게 이제 짐이 뒐가봐서 난 제일 겁이나 응.(아 나 건강 하는 건 이제는 아 너무 건강해서. 이거. 아이들에게 이제 짐이 될까봐서 나는 제일 겁이나 응.)

102016 @ 아.(아.)

102016 #1 응 늙어 가민 제기 죽을 뗀 제기 죽어 부러야 아이들이 펜안허지.(응 늙어 가면 빨리 죽을 땐 빨리 죽어 버려야 아이들이 편안하지.)

102016 @ 이제 백세시댄 허는디 삼춘 앞으로 이십 년 후엣 걸 미리 걱정 헴수꽈?(이제 백세시대 하는데 삼촌 앞으로 이십 년 후에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까?)

102016 #1 어? 어.(어? 어.)

102016 @ 허, 허, 허.(허, 허, 허.)

102016 #1 아니 실지여게.(아니 실지야.)

102016 @ 아.(아.)

102016 #1 그 제기 죽어부러야 아이들이 펜안허지. 우리가 오레 살아있으면 아지금도 걱정헌다 말이여. 아 우리 아바지는 어떵 헴신고 우리 어머니는 어떵 헴 신고 헤서.(그 빨리 죽어버려야 아이들이 편안하지. 우리가 오래 살아있으면 아 지금도 걱정한다 말이다. 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

102016 @ 으.(으.)

102016 #1 아 이 ᄉᆞ방이서 다 걱정헤여근에 전화도 자꾸 오곡.(아 이 사방에서 다 걱정해서 전화도 자꾸 오고.)

102016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2016 #1 허는디. 그런 부담을 지기가 나는 미안헤여. 게난 우리는 이제 늙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이녁이. 나도 이추룩 헤여근에 뎅겨질 때는 관게가 없는데, 이제 이렇겔 이것도 못ᄒᆞ곡. 집에나 ᄀᆞ만이 누워근에 뭐 헐 때는 필요가. 인간으로서는 이건 상실 뭔 거 아니라게.(하는데. 그런 부담을 지기가 나는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늙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이녁이. 나도 이처럼 해서 다녀질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집에나 가만히 누워서 뭐 할 때는 필요가. 인간으로서는 이건 상실 된 거 아니야.)

102016 @ 어.(어.)

102016 #1 어. 삶이 어느 정도 활동헐 때 삶이지. 활동을 못헤서 요양원이나 가곡. 영 헐 때는 그건 솖이 아니라.(어. 삶이 어느 정도 활동할 때 삶이지. 활동을 못해서 요양원에나 가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삶이 아니야.)

102016 @ 으.(으.)

102016 #1 그뗀 죽어야 뒈는 거라. 누구든 막론허고. 경 헤야 ᄌᆞ식덜이 펜안 흔 거주.(그땐 죽어야 되는 거야. 누구든 막론하고. 그렇게 해야 자식들이 편안 하는 거지.)

102016 @ 아.(아.)

102016 #1 경 ᄒᆞ지 아니허여?(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102016 @ 건강이 제일예. 자식들 건강허고. 본인도 건강이.(건강이 제일요. 자식들 건강하고. 본인도 건강이.)

102016 #1 응.(응.)

102016 @ 저기 저 건강이 생각허고 몸이 같이 움직여지길 원하는 게 제일예.

(저기 저 건강이 생각하고 몸이 같이 움직여지길 원하는 것이 제일요.)

102016 #1 아니 게난 그러주게.(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102016 @ 으.(으.)

102016 #1 활동허곡 이에기도 허곡. 뭐 홀 떼 사람이지. 치매나 걸리곡 요양원이나 가서 춤, 놈이게 거 춤 도움을 받을 정도가 뒈어 가민. 살 필요가 없는 거라. 사람은.(활동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할 때 사람이지. 치매나 걸리고 요양원에나 가서 참, 남에게 거 참 도움을 받을 정도가 되어 가면.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람은.)

102016 @ 경 헤도. 자식들 ᄆᆞ음은 경 안헙주.(그렇게 해도 자식들 마음은 그렇지 안하지요.)

102016 #1 아이. 게난 자식덜토 이 오레 살민 미와아.(아이.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 오래 살아가면 미워.)

102016 @ 허 어.(허 어.)

102016 #1 아방 어멍. 허, 허.(아버지 어머니. 허, 허.)

102016 @ 아이 건 아니우다게 하, 하.(아니 그건 아닙니다 하, 하.)

102016 #1 아 하 아이.(아 하 아니.)

102016 @ 하, 하, 하, 하. 절대 안헙니다게.(하, 하, 하, 하. 절대 안합니다.)

102016 #1 아니 부모 오레 살민 미와. 겉으론 겉으론 하이, 우리 아바지 오레 살아시민. 우리 어머니 오레 살아시민 겉으론 헤도. 쏙으론 제기 죽어부러시민 원.(아니 부모 오래 살면 미워. 겉으로 겉으로 하이, 우리 아버지 오래 살았으면. 우리 어머니 오래 살았으면 겉으로는 해도. 속으로는 빨리 죽어버렸으면 원.)

102016 @ 아이고 절대 경 안 헙니다 아 경 안 헤마씨게.(아이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102016 #1 안 해?(안 해?)

102016 @ 예 우리도 이제 ᄋᆞ든셋. 이제 ᄋᆞ든넷 될 거.(예 우리도 이제 여든셋. 이제 여든넷 될 거.)

102016 #1 어, 나보단 두 나 우이로구나게.(어, 나보다는 두 살 위로구나.)

102016 @ 예 근데 건강을 잃어, 잃어. 좀 일찍 잃으션예, 경 헤근에 한 번 쓰러지시고 두 번까지 헤나부난예.(예 그런데 건강을 잃어. 잃어 조금 일찍 잃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쓰러지고 두 번까지 해버리니까요.)

102016 #1 아 뇌졸쯩.(아 뇌졸증.)

102016 @ 예, 예, 예 경허난 막 걷는 것, 우리는 항상 걱정되어예. 경허고 집안에 어른이 잇어야 가풍도 유지되곡.(예,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아주 걷는 것, 우리는 항상 걱정돼요. 그리고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가풍도 유지되고.)

102016 #1 어.(어.)

102016 @ 허는 거지예. 삼춘 이제 열두 시 반 쪼끔 넘어시난에. 잠깐 쉬엇다가. 저 식사부터 먼저, 이거.(하는 거지요. 삼촌 이제 열두 시 반 쪼끔 넘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저 식사부터 먼저 이거.)

102016 #1 에이.(에이.)
102016 @ 저 식사부터 먼저 불러근에.(저 식사부터 먼저 불러서.)
102016 #1 이제 뒈서게.(이제 됐어.)
102016 @ 엇수다게 삼춘.(없습니다 삼촌.)
102016 #1 그만 헹 가라게.(그만 해서 가라.)
102016 @ 나 이거 봅서. 이거 어떵. 확 오 분만 잇다근에예. 헤근에 한 시간만 허면은예.(나 이것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확 오 분만 있다가요. 해서 한 시간만 하면요.)
102016 #1 오늘 ᄒᆞ루 ᄒᆞᆫ 건 뭴 거냐?(오늘 하루 한 건 될 거니?)
102016 @ 하, 하, 하, 하. 아이고.(하, 하, 하, 하. 아이고.)
102016 #1 이젠.(이제.)
102016 @ 묻거들랑 튼나는 데로만 ᄀᆞᆯ아줍서.(묻거들랑 떠오르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102016 #1 음.(음.)
102016 @ 이제까지는 삼춘 그 일생에 대해서 얘기헤신디.(이제까지는 삼촌 그 일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 밭일

103001 @ 앞으로는예 농사짓던 일에 대해서.(앞으로는요 농사짓던 일에 대해서.)
103001 #1 에이.(에이.)
103001 @ 이거는 삼춘 전문 아니우꽈예?(이거는 삼촌 전문 아닙니까요?)
103001 #1 아니 그 그 게메 전문이나마나 뭐.(아니 그 그 그러니까 전문이나마나 뭐.)
103001 @ 예.(예.)
103001 #1 기자 헤 온 거난.(거저 해 온 거니까.)
103001 @ 예, 예, 예.(예, 예, 예.)
103001 #1 으.(으.)
103001 @ 그 밭 밭일인디예? 밭일에는예? 어떤 것들이 잇인고마씨? 밭일이엔 허면.(그 밭 밭일인데요? 밭일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밭일이라고 하면.)
103001 #1 밭일이엔 허면은 농사짓기 전에 이제 그 츰. 여기는 검질이 상당히 많주게. 이 이 제주도 땅이. 이 저 화산회토가 뒈어서 그런지. 검질이 검질 자라는 디는.(밭일이라고 하면 농사짓기 전에 이제 그 참. 여기는 잡초가 상당히 많지. 이 이 제주도 땅이. 이 저 화산회토가 되어서 그런지. 김이 김 자라는 데는.)
103001 @ 음.(음.)

103001 #1 춤 이게 도가 트게 존 땅이라.(참 이게 도가 트게 좋은 땅이야.)

103001 @ 음.(음.)

103001 #1 하, 하, 하, 하, 핫.(하, 하, 하, 하, 핫.)

103001 @ 예.(예.)

103001 #1 게난 거 우선 초불 갈앙. 또 검질메곡 두불 갈아야.(그러니까 거 우선 애벌 갈아서. 또 김매고 두벌 갈아야.)

103001 @ 으.(으.)

103001 #1 거 잠데로 거 두불을 갈아야. 이제 농사를 허게 뒈주.(거 쟁기로 거 두벌을 갈아야. 이제 농사를 하게 되지.)

103001 @ 으.(으.)

103001 #1 혼 불만 갈앙은 안 뒈주게 게난.(한 벌만 갈아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103001 @ 으.(으.)

103001 #1 처음 갈곡 두불 갈곡 헤서. 농사철 뒈서. 씨 홀 때 뒈문. 그것도 다 철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거난. 아무 때나 지어도 안 뒈고.(처음 갈고 두벌 갈고 해서. 농사철 되어. 씨 할 때 되면. 그것도 다 철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거니까. 아무 때나 지어도 안 되고.)

103001 @ 으 검질이 제일 큰 문제예?(으 김이 제일 큰 문제요?)

103001 #1 응.(응.)

103001 @ 검질 밭일은 검질메는 거. 또 밭가는 거?(검질 밭일은 김매는 거. 또 밭가는 거?)

103001 #1 응, 게난 농스 붇[66] 홀 때까지 두불을 갈아야 뒈여.(응, 그러니까 농사 북 할 때까지 두벌을 갈아야 돼.)

103001 @ 아.(아.)

103001 #1 혼 번 갈아근에.(한 번 갈아서.)

103001 @ 예.(예.)

103001 #1 그 땅을 자꾸 갈아주어야 땅이 뒈는 거니까게.(그 땅을 자꾸 갈아주어야 땅이 되는 거니까.)

103001 @ 아, 밭 갈 때사 뭐 저기 소, 황소?(아, 밭 갈 때야 뭐 저기 소, 황소?)

103001 #1 응 소로.(응 소로.)

103001 @ 예, 소로예.(예, 소로요.)

103001 #1 소로도 갈고 물로도 갈아나서.(소로도 갈고 말로도 갈았었어.)

103001 @ 아 말로도예. 으 농겡기 헤가지고 뭐엔 헙니까? 농경기엔 헙니까?(아 말로도요. 으 농경기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농경기라고 합니까?)

103001 #1 무시거?(무엇?)

103001 @ 그 아, 잠대 헨 헙니까? 잠대엔?(그 아, 쟁기 하고 합니까? 쟁기라

66) '붇' '굿'은 북의 제주말이다. 뿌리를 감싸는 제힘이나 여기서는 이어서 할 때까지를 말한다.

고?)
103001 #1 잠데.(잠대.)
103001 @ 잠데 잠데 아, 잠데예?(쟁기 쟁기 아, 쟁기요?)
103001 #1 잠데.(잠대.)
103001 @ 잠데예? 예, 예, 예. 밧 허고 이거 허고 이건 농사에 따라 다르주만은 또 그 다음에는 좀 전에 그 듬북 말 곧듯이 거름예?(쟁기요? 예, 예, 예. 밭 하고 이거 하고 이건 농사에 따라 다르지만 또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듬북 말 말하듯이 거름요?)
103001 #1 거름 돗걸름.(거름 돼지거름.)
103001 @ 돗거름예?(돼지거름요?)
103001 #1 으 뒈지통쉬에서 그 깔아주던 그 짚덜.(으 돼지우리에서 그 깔아주던 그 짚들.)
103001 @ 예, 예, 예.(예, 예, 예.)
103001 #1 뭐 막. 조칲도 담곡 보리칲도 담곡 헤서.(뭐 아주. 조짚도 담고 보릿짚도 담고 해서.)
103001 @ 예.(예.)
103001 #1 그거 썩으면은 그걸 이제 ᄒᆞ고 쉐, 쉐막에서.(그거 썩으면 그걸 이제 하고 소, 외양간에서.)
103001 @ 예.(예.)
103001 #1 쉐 그 메는 자리가 그 오줌 싸곡 똥 싸곡 허면은 다 거.(소 그 매는 자리가 그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 다 거.)
103001 @ 예.(예.)
103001 #1 그게 다 거름이난에.(그것이 다 거름이니까.)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그거 다 파 네어근에.(그거 다 파내서.)
103001 @ 예 돗거름.(예 돼지거름.)
103001 #1 거 깔아야주.(거 깔아야지.)
103001 @ 예 거름예?(예 거름요?)
103001 #1 으.(으.)
103001 @ 쉐막허고 이거허곡. 돗거름, 돗거름은 그 일 년에 멧 번 냅니까?(외양간하고 이거하고. 돼지거름, 돼지거름은 그 일 년에 몇 번 냅니까?)
103001 #1 거이 ᄒᆞᆫ 번 낼 거라.(거의 한 번 낼 거야.)
103001 @ 한 번 냉예?(한 번 내어요?)
103001 #1 응.(응.)
103001 @ 한번 냉?(한 번 내어서?)
103001 #1 ᄒᆞᆫ 번 ᄒᆞᆫ 번 네야지. 두 번 네 가민 그게.(한 번 한 번 내야지. 두 번 내 가면 그게.)

103001 @ 음.(음.)

103001 #1 것도 잘 베합이 허, 허. 뒈야.(것도 잘 배합이 허, 허. 돼야.)

103001 @ 예.(예.)

103001 #1 똥이영 오줌이영 잘 서꺼져야 걸름이 뒈는 거난.(똥하고 오줌하고 잘 섞어져야 거름이 되는 거니까.)

103001 @ 예 거름은 또 내어근에 그 옛날에 보면은 통시 옆에 막 쌓아두지 안읍니까? 바로 밭에 가지 안허고예?(예 거름은 또 내어서 그 옛날에 보면 뒷간 옆에 막 쌓아두지 않습니까? 바로 밭에 가지 안하고요?)

103001 #1 ᄆᆞᆯ려.(말려.)

103001 @ 말려근에?(말려서요?)

103001 #1 으 ᄆᆞᆯ리우고 저 어떤 동네에선 보면은 그 거름에 씨를 보리씨를 뿌려가지고.(으 말리고 저 어떤 동네에서는 보면 그 거름에 씨를 보리씨를 뿌려가지고.)

103001 @ 예.(예.)

103001 #1 경 형 그냥 가근에.(그렇게 해서 그냥 가서.)

103001 @ 아.(아.)

103001 #1 그걸 펼치면은.(그걸 펼치면.)

103001 @ 예.(예.)

103001 #1 그게 경 헹 갈면은 그게.(그게 그렇게 해서 갈면 그게.)

103001 @ 예.(예.)

103001 #1 어 씨 흔디 서꺼정 ᄀᆞ찌 가는 수도 잇어.(어 씨 한데 섞어져서 같이 가는 수도 있어.)

103001 @ 예 견디.(예 그런데.)

103001 #1 게난 그 온평리 ᄀᆞᆮ은 디는 그렇게 허더구마는.(그러니까 그 '온평'이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구먼.)

103001 @ 아 온평리는예?(아 '온평'이는요?)

103001 #1 응.(응.)

103001 @ 아, 거름에 씨를.(아, 거름에 씨를.)

103001 #1 으 씨를.(으 씨를.)

103001 @ 서껑.(섞어서.)

103001 #1 으 으.(으 으.)

103001 @ 서꺼다근에 앗아당 갈아?(섞어서 가져다가 갈아?)

103001 #1 응.(응.)

103001 @ 여기는 땅이 다르니깐 그. 그거 그걸 갈아예? 땅이 달라부니까는예?(여기는 땅이 다르니까는 그. 그거 그걸 갈아요? 땅이 달라버리니까요?)

103001 #1 아니 게난 땅이 달른 것보다도 그게 씨가 그렇게 헤야 골고루 가는지 몰라.(아니 그러니까 땅이 다른 것보다도 그게 씨가 그렇게 해야 골고루 가는지

몰라.)

103001 @ 아.(아.)

103001 #1 씨 뿌리는 것도 이제 그 츰 손으로 뿌리당. 이제 뿌리당 보면은. 가는디 안 가는디.(씨 뿌리는 것도 이제 그 참 손으로 뿌리다가. 이제 뿌리다가 보면. 가는데 안 가는데.)

103001 @ 예.(예.)

103001 #1 홀 수도 잇곡.(할 수도 있고.)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겐디 그건 돗거름에 씨를 뿌령 강. ᄒᆞ쏠씩 씨가 다 ᄌᆞ곤ᄌᆞ곤 놓민은 씨가 골로르 갈 거 아니라게.(그런데 그건 돼지거름에 씨를 뿌려서 가서. 조금씩 씨가 다 자근자근 놓으면 씨가 골고루 갈 거 아니야.)

103001 @ 예 응.(예 응.)

103001 #1 막 그런 그 장점이 이실 거라.(아주 그런 장점이 있을 거야.)

103001 @ 응 아, 그런 거를 혹시 방 놓덴 헙니까? (응 아, 그런 거를 혹시 방 놓는다고 합니까?)

103001 #1 응?(응?)

103001 @ 방 논덴?(방 놓는다고?)

103001 #1 어?(어?)

103001 @ 아, 골고루 이렇게 씨가 가게시리 허는 거. 아 검질멜 때로구나. 방 너르게 헌다는 말은.(아, 골고루 이렇게 씨가 가게끔 하는 거. 아 김맬 때로구나. 방 넓게 한다는 말은.)

103001 #1 아, 그거 거 검질멜 때는 ᄒᆞᆫ 사람이 어느 만큼 ᄎᆞ지헤서 메어 가느냐에 따라.(아, 그거 거 김맬 때는 한 사람이 어느 만치 차지해서 매어 가느냐에 따라.)

103001 @ 아.(아.)

103001 #1 헤서 그 방 넙게 ᄒᆞᆫ다. 좁게 ᄒᆞᆫ다ᄒᆞ는.(해서 그 방 넓게 한다. 좁게 한다하는.)

103001 @ 아.(아.)

103001 #1 말이고.(말이고.)

103001 @ 아 그 말은 그 말이로구나예.(아 그 말은 그 말이로군요.)

103001 #1 응.(응.)

103001 @ 예, 예. 거문 씨 뿌리고 그 다음에는.(예, 예. 그러면 씨 뿌리고 그 다음에는.)

103001 #1 씨 뿌린 거름ᄒᆞ고 씨 뿌린, 다음에 갈면은.(씨 뿌린 거름하고 씨 뿌린, 다음에 갈면.)

103001 @ 응.(응.)

103001 #1 보리가 나민 뭴 거주게.(보리가 나면 될 거지.)

103001 @ 갈고예.(갈고요.)

103001 #1 게메 건 겨울철이고 여름철에 조는.(글쎄 건 겨울철이고 여름철에 조는.)

103001 @ 응.(응.)

103001 #1 조 불릴 때는 저거 물로도 불리곡 쉐로도 불리곡. 사람으로도 불리곡.(조 밟을 때는 저거 말로도 밟고 소로도 밟고. 사람으로도 밟고.)

103001 @ 으.(으.)

103001 #1 소위 남테.(소위 남태.)

103001 @ 예.(예.)

103001 #1 이제 거 여러 가지 기구를 헤서 땅이 이 제주 땅은 북삭[67]짐으로 검은 땅이 뒈가지고 북삭짐으로 이게 조가 잔뜩 불려주어야.(이제 거 여러 가지 기구를 해서 땅이 이 제주 땅은 푸석하므로 검은 땅이 되어가지고 푸석하므로 이것이 조가 잔뜩 밟아주어야.)

103001 @ 예.(예.)

103001 #1 뿌리가 든든이.(뿌리가 든든히.)

103001 @ 맞수다.(맞습니다.)

103001 #1 이제 벡혀가지고 조가 여물지.(이제 박혀가지고 조가 여물지.)

103001 @ 으.(으.)

103001 #1 이거 그냥 불령 네불민. 커 가당도 이제 그.(이거 그냥 밟아서 내버리면. 커 가다가도 이제 그.)

103001 @ 넘어져 불곡.(넘어져 버리고.)

103001 #1 응.(응.)

103001 @ 불려나불어? ᄇᆞ름 불민.(불려나버려? 바람 불면.)

103001 #1 응.(응.)

103001 @ 경 헤난 다음에 그 다음 수확을 헴구나예?(그렇게 하고난 다음에 그 다음 수확을 하는군요?)

103001 #1 응.(응.)

103001 @ 그 수확 수확허민은 이제 저기 검질을 메야 검질. 게난.(그 수확 수확하면 이제 저기 김을 매야 김. 그러니까.)

103001 #1 조 불릴 때는 검질 세불을 메어야 뒈여.(조 밟을 때는 김 세벌을 매어야 돼.)

103001 @ 아, 검질예. 검질ᄒᆞ고(아, 김요. 김하고.)

103001 #1 응, 세 번. 세불을 메어야주게.(응, 세 번. 세벌을 매어야지.)

103001 @ 응.(응.)

103001 #1 초불 메곡 두불 메곡 세불 메여야. 조가 검질이.(애벌 매고 두벌 매고 세벌 매어야. 조가 김이.)

---

67) '북삭'은 푸석의 의미다.

103001 @ 응.(응.)

103001 #1 어느 정도 메어불어야. 거 잡초가 엇어야 농사가 뒈지.(어느 정도 매어버려야. 거 잡초가 없어야 농사가 되지.)

103001 @ 응.(응.)

103001 #1 잡초가 복작헤 부리면 거 뭐.(잡초가 복작해 버리면 거 뭐.)

103001 @ 예, 예, 거문 밭 일이엔 허민, 크게 검질메는 거. 밭가는 거. 거름 내는 거.(예, 예, 그러면 밭일이라고 하면, 크게 김매는 거. 밭가는 거. 거름 내는 거.)

103001 #1 어.(어.)

103001 @ 씨 뿌리고.(씨 뿌리고.)

103001 #1 응.(응.)

103001 @ 그 다음에 밭 일이엔 허문 담 넘어져 믈아져도 담을 또 다와야 뒈고.(그 다음에 밭일이라고 하면 담 넘어져 말아져도 담을 또 쌓아야 되고.)

103001 #1 허, 허.(허, 허.)

103001 @ 누구 소 들어와 버리거나 허민.(소가 들어와 버리거나 하면.)

103001 #1 어.(어.)

103001 @ 헤야 뒈민예.(해야 되면요.)

103001 #1 아 게 게.(아 그럼 그럼.)

103001 @ 담 다우는거예?(담 쌓는 거요?)

103001 #1 아 담도 추려야 뒈주게.(아 담도 추려야 되지.)

103001 @ 예 담 추리는 거예?(예 담 추리는 거요?)

103001 #1 응.(응.)

103001 @ 그리고 수확헤 나면은 마차가 들어 들어갓닥 나왓닥 헤도 그거는 또 저기.(그리고 수확해 나면 마차가 들어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그거는 또 저기.)

103001 #1 아 게니까 그.(아 그러니까 그.)

103001 @ 허는 거니까예.(하는 거니까요.)

103001 #1 그 농사를 지면은 이 그 게난 보리 겨울농사허고 가을 저 여름농사허고 틀리주게.(그 농사를 지으며는 이 그 그러니까 보리 겨울농사하고 가을 저 여름농사 하고 다르지.)

103001 @ 예.(예.)

103001 #1 그 형테도.(그 형태도.)

103001 @ 예.(예.)

103001 #1 그 가는 형테도 틀려.(그 가는 형태도 달라.)

103001 @ 예.(예.)

103001 #1 그 여름농사는 이제 그 조나 요런 거를 볼리기 떼문에 이제 그, 알이[68] 땅이 든든허게 그 믈로도 볼리곡.(그 여름농사는 이제 그 조나 요런 거를 밟기 때문에 이제 그, 알곡이 땅이 든든하게 말로도 밟고.)

68) '알'은 알곡을 말하고 있다.

103001 @ 예, 예, 예.(예, 예, 예.)

103001 #1 쉐로도 불리곡. 헤가지고 영 ᄒᆞ며는. 게난 여름 농사를 ᄒᆞ는 디는 비료가 그저 걸름이 필요가 없어.(소로도 밟고. 해가지도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름농사를 하는 데는 비료가 그저 거름이 필요가 없어.)

103001 @ 음 예.(음 예.)

103001 #1 그 그냥 자라니까.(그 그냥 자라니까.)

103001 @ 음 여름은예? 으.(음 여름은요? 으.)

103001 #1 여름농ᄉᆞ 헐 때는.(여름농사 할 때는.)

103001 @ 아 으.(아 으.)

103001 #1 그자 비료나 잘 강 좀 헤 주면은 뒈는데.(그저 비료나 잘 가서 좀 해 주면 되는데.)

103001 @ 응.(응.)

103001 #1 그전에는.(그전에는.)

103001 @ 으.(으.)

103001 #1 필요 업고. 그 거름을 못허는 데는 바령[69]이엔 헌 거 잇어. 바령.(필요 없고. 그 거름을 못하는 데는 '바령'이라고 한 거 있어. '바령.')

103001 @ 예 바령.(예 '바령.')

103001 #1 바령밧.('바령밭.')

103001 @ 바령예. 예.('바령'요. 예.)

103001 #1 바령이엔 헌 게. 밤에 소영 ᄆᆞᆯ 소를 가두와.('바령'이라고 한 것이. 밤에 소하고 말을 가두어.)

103001 @ 예.(예.)

103001 #1 그 농사질 디를. 밧에 담 다근에 나오지 못허게 헤서 ᄒᆞ며는. 거기서 소가 밤 자곡.(그 농사지을 데를. 밭에 담 쌓아서 나오지 못하게 해서 하면. 거기서 소가 밤 자고.)

103001 @ 으.(으.)

103001 #1 먹곡. 이제 ᄒᆞ다가.(먹고. 이제 하다가.)

103001 @ 예.(예.)

103001 #1 이제 경 ᄒᆞ며는 막 거기에 똥도 싸 놓곡 오줌도 싸곡 ᄒᆞ면은 걸름이 뒈는 거라.(이제 그렇게 하면 마구 거기에 똥도 싸 놓고 오줌도 싸고 하면 거름이 되는 거야.)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경 헝 낮인 나강 먹당 밤인 그디 오라근에 가두와 놓왕.(그렇게 해서 낮에는 나가서 먹다가 밤에는 그데 와서 가두어 놓아서.)

103001 @ 예, 예 허곡예?(예, 예 하고요?)

---

69) '바령'은 농사를 쉬면서 마소를 밭 안으로 들여 똥을 싸게 하고, 그 똥을 거름이 되게 하여 땅심을 돋우는 일을 말한다.

103001 #1 응 그레서 거길 또 그걸 걸름으로 ᄒᆞ는 거라.(응 그래서 거기를 또 그걸 거름으로 하는 거야.)

103001 @ 아 모든 밧이 다 바령밧으로 허는 건 아니지 안읍니까예?(아 모든 밭이 다 '바령밭'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103001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01 @ 예.(예.)

103001 #1 걸름 못 허는디.(거름 못 하는데.)

103001 @ 예, 예.(예, 예.)

보리 농사

103002 @ 거문예, 이제부터 이제 이 저기 농사를 짓기 시작허게예. 예, 보리농사는예.(그러면요, 이제부터 이제 이 저기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예, 보리농사는요.)

103002 #1 응.(응.)

103002 @ 저기 농사지으려 짓젠 허문은 준비를 어떵 해 갑니까?(저기 농사지으려 지으려고 하면 준비를 어떻게 해 갑니까?)

103002 #1 보리농ᄉᆞ는 걸름을 잘 헤야 뒈여.(보리농사는 거름을 잘 해야 돼.)

103002 @ 거름예.(거름요.)

103002 #1 거름ᄒᆞ고. 그 밧 갈아서 뭘 허며는. 거름을 밧고랑이라든가 여기 다 ᄀᆞᆯ아 놩.(거름하고. 밭 갈아서 뭘 하면. 거름을 밭고랑이라든가 여기 다 깔아 놓아서.)

103002 @ 예.(예.)

103002 #1 경 헹 잠대로 또 갈앙.(그렇게 해서 쟁기로 또 갈아서.)

103002 @ 예.(예.)

103002 #1 씨 뿌령 잠대로 갈앙. ᄒᆞ면은 뭐 보리농ᄉᆞ가 뒈는 거고.(씨 뿌려서 쟁기로 갈아서. 하면은 뭐 보리농사가 되는 거고.)

103002 @ 아, 씨부터 먼저 뿌려놓고 잠대로 가는구나예?(아, 씨부터 먼저 뿌려놓고 쟁기로 가는군요?)

103002 #1 경 헤야 그.(그렇게 해야 그.)

103002 @ 밋트로.(밑으로.)

103002 #1 잠대로 갈아야 흑이 덮어지난에게.(쟁기로 갈아야 흙이 덮어지니까.)

103002 @ 예 잠대로 갈고 그 다음에 보리밧디 검질메는 거가.(예 쟁기로 갈고 그 다음에 보리밭에 김매는 것이.)

103002 #1 겐디 보리밧디 검질은 겨울이난에이.(그런데 보리밭에 김은 겨울이니까.)

103002 @ 예.(예.)

103002 #1 별로 없는디. 그 봄 나면은.(별로 없는데. 그 봄 나면.)

103002 @ 음.(음.)
103002 #1 기자 쯔끔 메민 뒈여.(거저 조금 매면 돼.)
103002 @ 봄에 조끔 허고예?(봄에 조금하고요?)
103002 #1 응.(응.)
103002 @ 경 헹 오뉴월에.(그렇게 해서 오뉴월에.)
103002 #1 어.(어.)
103002 @ 이제 수확허는데에.(이제 수확하는데.)
103002 #1 경 허난 보리가 커 버리면 검질도 또 나지 못허주게.(그렇게 하니까 보리가 커 버리면 김도 또 나지 못하지.)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1 어.(어.)
103002 @ 여기도 저 보릿고개엔 말 허여나수꽈? 허여났지예?(여기도 저 보릿고개라는 말 했었습니까? 했었지요?)
103002 #1 아 잇엇주게 거.(아 있었지 거.)
103002 @ 이섯고.(있었고.)
103002 #1 거 옌날이야 그 뭐 봄 뒈면은 거 다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거 옛날에야 그 뭐 봄 되면 거 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103002 @ 응 봄에예? 음 보리 선 것도 갖다근에 다 ᄐᆞ다당 먹어나신가마씨?(응 봄에요? 음 보리 설은 것도 가져다가 다 따다가 먹었는가요?)
103002 #1 에, 거 선 거는 거 보리 구워먹젠.(에, 거 설은 거는 거 보리 구워먹으려고.)
103002 @ 아 구워먹젠.(아, 구워먹으려고.)
103002 #1 응.(응.)
103002 @ 예, 예, 예.(예, 예, 예.)
103002 #1 거 거 뭐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거 거 뭐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103002 @ 먹는 게 아니라예. 어.(먹는 것이 아니라요. 어.)
103003 @ 보리밧 거름은 좀 전에 골은 거 돗거름 허고.(보리밭 거름은 좀 전에 말한 거 돼지거름 하고.)
103003 #1 쉐 거름.(소 거름.)
103003 @ 쉐 거름허고 돗허고 쉐 거름 허고.(소 거름하고 돼지하고 소 거름 하고.)
103003 #1 듬북.(듬북.)
103003 @ 듬북 아 여기는.(듬북 아 여기는.)
103003 #1 해조 해조류.(해조 해조류.)
103003 @ 예 듬북예. 바당이 잇이난예?(예 듬북요. 바다가 있으니까요?)
103003 #1 으.(으.)

103003 @ 해조류 헤가지고예. 듬북은 어느 정도 케신고마씨? 바당에 올라오는 거 아니면?(해조류 해가지고요. 듬북은 어느 정도 캤는가요? 바다에 올라오는 거 아니면?)

103003 #1 아이 듬북은이. 놀 이제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놀 불잖아.(아이 듬북은. 바람 이제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바람 불잖아.)

103003 @ 예.(예.)

103003 #1 그러면 모래밧디 올라오는 거.(그러면 모래밭에 올라오는 거.)

103003 @ 예.(예.)

103003 #1 놀 불민 자연이 이 해안가로 올라와.(바람 불면 자연히 이 해안가로 올라와.)

103003 @ 예, 예.(예, 예.)

103003 #1 올라오민 그거 줏엇당. 모엿당. 물류와근에 밧디 가져당. 허는 거주게.(올라오면 그거 주웠다가. 모았다가. 말려서 밭에 가져다가 하는 거지.)

103003 @ 아 예에 그건 풍조엔 허잖아예?(아 예에 그것은 풍조라고 하잖아요?)

103003 #1 응?(응?)

103003 @ 풍조엔예, 풍조 감덴 헙니까.(풍조라고요, 풍조 간다고 합니까.)

103003 #1 응? 풍존지 뭔지 모르주마는.(응? 풍조인지 뭔지 모르지만.)

103003 @ 응.(응.)

103003 #1 게 ᄇᆞ름에.(그럼 바람에.)

103003 @ 불어와근에 으.(불어와서 으.)

103003 #1 이제 그 해안가로 올라오는 거주.(이제 그 해안가로 올라오는 거지.)

103003 @ 응.(응.)

103003 #1 바당 안네 잇던 게.(바다 속에 있던 것이.)

103003 @ 으 거문 듬북은, 돗거름 쉐 거름은 다 이녁 집이서 허는 거고예?(으 그럼 듬북은, 돼지거름 소 거름은 다 이녁 집에서 하는 거고요?)

103003 #1 응.(응.)

103003 @ 가졍오는 거고 듬북은 바당엣 거난. 주인이 누게 따로 잇는 건.(가져서오는 거고 듬북은 바다에 거니까. 주인이 누구 따로 있는 건.)

103003 #1 아 게 이녁이.(아 그럼 이녁이.)

103003 @ 아녀지 아니우꽈?(않지 아닙니까?)

103003 #1 주워지는 데로 가져 올 거난.(주워지는 대로 가져 올 거니까.)

103003 @ 주워지는 데로예?(주워지는 대로요?)

103003 #1 응.(응.)

103003 @ 거문 이거 허젠 허문. 바람이 불어나민. 난리가 나큰게 바당에예.(그럼 이거 하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나면. 난리가 나겠네 바다에요.)

103003 #1 게메 난리 거 ᄒᆞ는 사름이 잇곡. 아니허는 사름이 잇주게.(글쎄 난리 거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하는 사람이 있지.)

103003 @ 아, 경 헷구나예.(아, 그렇게 했군요.)

103003 #1 어.(어.)

103003 @ 아 겐디 이쪽에는 보면 신양리보면. 듬북 헤가지고 농사지어보젠 신양리에 내려왓젠 헤가지고 들은 저 도레[70]가 잇언에 허난.(아 그런데 이쪽에는 보면 '신양'이보면 듬북 해가지고 농사지어보려고 '신양'이에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들은 저 도리가 있어서 하니까.)

103003 #1 아 게메.(아 글쎄.)

103003 @ 예 듬북.(예 듬북.)

103003 #1 신양리 이 앞. 그 요 간두니[71] 지경이나.(글쎄 신양이 이 앞. 그 여기 '간두니' 지경이나.)

103003 @ 으.(으.)

103003 #1 저레가 다 그 듬북을.(저쪽이 다 그 듬북을.)

103003 @ 듬북이.(듬북이.)

103003 #1 ᄀᆞᆯ면은.(깔면.)

103003 @ 예.(예.)

103003 #1 농ᄉᆞ가.(농사가.)

103003 @ 농사가.(농사가.)

103003 #1 잘 뒈는 땅이라.(잘 되는 땅이야.)

103003 @ 아, 그 땅이예?(아, 그 땅이요?)

103003 #1 응, 신양이 그 땅이.(응, '신양'에 그 땅이.)

103003 @ 예.(예.)

103004 @ 보리는 어느 제. 누게가 어떵 갑니까? 어느 제. 보리 갈 때는.(보리는 어느 때. 누가 어떻게 갑니까? 어느 때. 보리 갈 때는.)

103004 #1 보리 갈 때는게. 에, 가을 넘어서 지금 보리 막 갈안. 이제 나근에.(보리 갈 때는. 에, 가을 넘어서 지금 보리 막 갈았어. 이제 나서.)

103004 @ 예.(예.)

103004 #1 지금 홀 때주. 게난 경 헹 오월 달에 그, 장마나 저불민 보리 비여 놩 다 적지곡.(지금 할 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월 달에 그, 장마나 져버리면 보리 베어 놓아서 다 적시고.)

103004 @ 예.(예.)

103004 #1 엿날도.(옛날도.)

103004 @ 예, 장마철.(예, 장마철.)

103004 #1 장마철 그 그떼 허는 거주.(장마철 그 그때 하는 거지.)

103005 @ 씨는 누게가 뿌리곡예?(씨는 누가 뿌리고요?)

103005 #1 아, 씨는게 밧 임제.(아, 씨는 밭 임자.)

---

70) '도레' 도리(道理)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해 나갈 방도(方道)의 듯이나 여기서는 적의 뜻으로 쓰였다.

71) '간둥이'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에 소재한 곳 중에 하나다.

103005 @ 게 밧 임제예.(그럼 밭 임자요.)
103005 #1 그 농수짓는 사름이 뿌리주게.(그 농사짓는 사람이 뿌리지.)
103005 @ 그 남자가.(그 남자가.)
103005 #1 으.(으.)
103005 @ 잘 뿌립니까?(잘 뿌립니까?)
103005 #1 으.(으.)
103005 @ 남자가예?(남자가요?)
103005 #1 으.(으.)
103005 @ 남자 어른이예?(남자 어른이요?)
103005 #1 아 게난, 씨를 못 뿌리는 사름도 잇주게.(아 그러니까, 씨를 못 뿌리는 사람도 있지.)
103005 @ 예, 예.(예, 예.)
103005 #1 못 뿌리문 잘 뿌리는 사름 빌어당도 뿌려.(못 뿌리면 잘 뿌리는 사람도 빌어다가도 뿌려.)
103005 @ 빌어다근에예?(빌어다가요?)
103005 #1 으.(으.)
103005 @ 예 잘 뿌리는 사람예.(예 잘 뿌리는 사람요.)
103005 #1 겐디 다 이녁데로 뿌리주 거 무신.(그런데 다 이녁대로 뿌리지 거 무슨.)
103005 @ 보리도게. 허당 보민게 모드라져 불민.(보리도. 하다가 보면 모아져 버리면.)
103005 #1 어 허.(어 허.)
103005 @ 또 못허곡 허니까는.(또 못하고 하니까는.)
103005 #1 허, 허.(허, 허.)
103005 @ 이거 뿌리는 거가.(이거 뿌리는 것이.)
103005 #1 응.(응.)
103005 @ 예 잘 뿌려사 빌어당 헐 떼도 잇고.(예 잘 뿌려야 빌어다가 할 때도 있고.)
103005 #1 어 허, 허.(어 허, 허.)
103005 @ 대부분 집안에서가예.(대부분 집안에서가요.)
103005 #1 응.(응.)
103006 @ 그 보리 종류예. 보리에도 종류가 막 하지 안읍니까예?(그 보리 종류요. 보리에도 종류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요?)
103005 #1 응.(응.)
103006 @ 게난에 저기 보리 종류가, 뭐 인칙에도 골아수다마는. 어, 보리.(그러니까 저기 보리 종류가, 뭐 일찍도 말했습니다만. 어, 보리.)
103006 #1 아, 게메 보리 일름도.(아, 글쎄 보리 이름도.)

103006 @ 예.(예.)
103006 #1 으라 가지.(여러 가지.)
103006 @ 여러 가진디예.(여러 가진데요.)
103006 #1 잇어낫는데.(있었는데.)
103006 @ 으.(으.)
103006 #1 나도 보리테작 허레도 뎅겨나고 허난에.(나도 보리타작 하러도 다녔고 하니까.)
103006 @ 멕주보리, 멕주보리는 나중에.(맥주보리, 맥주보리는 나중에.)
103006 #1 으, 저, 눌우리,[72] 술우리.[73](으, 저, 늘보리, 쌀보리.)
103006 @ 눌우리예.(늘보리요.)
103006 #1 동보리[74]엔 ᄒᆞ는가?(맥주보리라고 하는가?)
103006 @ 동보리?(맥주보리?)
103006 #1 동보리, 아 그저, 바로 그 방울이 굴근 거.(맥주보리, 아 그저, 바로 그 방울이 굵은 거.)
103006 @ 예, 예.(예, 예.)
103006 #1 딱딱ᄒᆞᆫ 게 잇서. 것ᄀᆞ라 뭐엔사 ᄀᆞᆫ는디.(딱딱한 것이 있어. 그것보고 뭐라고야 말하는데.)
103006 @ 동보리, 술보리.(맥주보리, 쌀보리.)
103006 #1 으.(으.)
103006 @ 두 두 줄이엔 헌 말은 나중에 나온 말이지예?(두 두 줄이라고 한 말은 나중에 나온 말이지요?)
103006 #1 무시거?(무엇?)
103006 @ 두줄보리.[75](두줄보리.)
103006 #1 응?(응?)
103006 @ 두줄보리.(두줄보리.)
103006 #1 두줄보리엔 헌 게.(두줄보리라고 한 것이.)
103006 @ 예, 예.(예, 예.)
103006 #1 저 뭐 맥주맥[76]을 말ᄒᆞ는 거 아니?(저 뭐 맥주보리를 말 하는 거 아니?)
103006 @ 맥주맥예. 두 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맥주보리요. 두 개에 이렇게 나오는 거요.)
103006 #1 응, 응.(응, 응.)
103006 @ 예, 예.(예, 예.)

---

72) '눌우리'는 '늘보리'로 이삭모양이 네모진 보리다.
73) '쏠우리'는 '쌀보리'다.
74) '동보리'는 제보자가 맥주((麥酒)보리라고 하고 아주 여문 보리로 '주넹이보리'라고 말한다.
75) '두줄보리'는 이삭에 낟알이 두 줄로 붙은 보리다.
76) '맥주맥'은 맥주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보리다.

103006 #1 그게 저.(그게 저.)

103006 @ 응 두줄은 맥주맥예? 보리 솔누리는? 경 헤도 솔누리는 경 헤도 ᄒᆞ끔 통통 헌 거 아니우꽈?(응 두줄은 맥주보리요? 보리 쌀보리는? 그렇게 해도 쌀보리는 그렇게 해도 조금 통통 한 거 아닙니까?)

103006 #1 어, 어.(어, 어.)

103006 @ 껍질이 없고예?(껍질이 없고요?)

103006 #1 응.(응.)

103006 @ 좀, 뿔그르릉허고예.(조금 발그스름하고요.)

103006 #1 으 으 응.(으 으 응.)

103006 @ 가운데 줄 ᄒᆞ나 잇곡게.(가운데 줄 하나 있고.)

103006 #1 응.(응.)

103006 @ 통통헌 거예?(통통한 거요?)

103006 #1 응.(응.)

103006 @ 요즘 얘기허는 찰보리[77] 그런 거는 그떼는?(요즘 얘기하는 '찰보리' 그런 거는 그때는?)

103006 #1 찰보리 그런 건 엇엇어.('찰보리' 그런 건 없었어.)

103006 @ 그런 거는예.(그런 거는요.)

103006 #1 그떼는 엇엇주.(그때는 없었지.)

103006 @ 예, 예.(예, 예.)

103006 #1 요세 찰보리는 요세도 그저 도시에서나 경주에선 찰보리 찰보리 허데 경주는.(요새 '찰보리'는 요새도 그저 도시에서나 경주에서는 '찰보리' '찰보리' 하데 경주는.)

103006 @ 예에 그렇구나예.(예예 그렇군요.)

103006 #1 겐디 여기는 찰보리 엇엇고.(그런데 여기는 '찰보리' 없었고.)

103006 @ 솔우리.(쌀보리.)

103006 #1 저 표선 남원데레 가면 보리도 안 뒈곡 조도 안 뒈여.(저 표선 남원으로 가면 보리도 안 되고 조도 안 돼.)

103006 @ 아, 저쪽으로마씨?(아, 저쪽으로요?)

103006 #1 아이.(아이.)

103007 @ 보리밟기는 어떵 헙니까? 붋는 거(보리밟기는 어떻게 합니까? 밟는 거)

103007 #1 보리 붋기는. 거 땅이 겨울이 뒈가지고. 이 저 막 그저 뭐이냐.(보리밟기는. 그 땅이 겨울이 되가지고. 이 저 아주 그저 뭐냐.)

103007 @ 서리.(서리.)

103007 #1 서리가 네령 허민 막 곳을 거 아니라게.(서리가 내려서 하면 마구 곱을 거 아니야.)

---

77) '찰보리'는 요즘 시중에 판매하는 보리상품을 말하고 있다.

103007 @ 예, 예.(예, 예.)

103007 #1 땅이 곳은 때 이걸 붋아 줘베야. 이게 들떠 잇거든 땅이.(땅이 곱을 때 이것을 밟아 줘버려야. 이게 들떠 있거든 땅이.)

103007 @ 예, 예.(예, 예.)

103007 #1 그 이제 추워가지고 들떠 잇는 거를 붋아 주어야.(그 이제 추워가지고 들떠 있는 거를 밟아 주어야.)

103007 @ 응.(응.)

103007 #1 그게 뿌리가 이 흑ᄒᆞ고.(그게 뿌리가 이 흙하고.)

103007 @ 아 예, 예.(아 예, 예.)

103007 #1 이제 잘 접촉이 뒈서 클 게 아니라게.(이제 잘 접촉이 되어서 클 것이 아니야.)

103007 @ 예 보리밟기 헐 때는 츤츤이 저 붋아가사 뒈큰게예.(예 보리밟기 할 때는 찬찬이 저 밟아가야 되겠네요.)

103007 #1 어 붋아 가는데.(어 밟아 가는데.)

103007 @ 예.(예.)

103007 #1 옌날 그 이 저. 초등 학셍덜토 그 놈의 밧. 그 붋으레 뎅겨낫저.(옛날 그 이 저. 초등학생들도 그 남의 밭. 그 밟으러 다녔었어.)

103007 @ 예, 예.(예, 예.)

103007 #1 어, 그거 헷지만은게. 요즘은 그런 게 엇어져부난에 뭐.(어, 그거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져버리니까 뭐.)

103007 @ 가운데.(가운데.)

103007 #1 요셋 아이들은 보리밧 붋으렌 허문. 거 무슨 말이넨 홀 거주마는.(요새 아이들은 보리밭 밟으라고 하면. 거 무슨 말이냐고 할 거지마는.)

103007 @ 옛날엔 밧디 가근에 밟으라 허당 보민 학교 선생네 밭이엔도 막 허곡.(옛날에는 밭에 가서 밟으라 하다가 보면 학교 선생네 밭이라고도 아주 하고.)

103007 #1 어 허, 허.(어 허, 허.)

103007 @ 헤낫젠 헙디다마는 그런 기억도 잇수과?(했었다고 합디다마는 그런 기억도 잇습니까?)

103007 #1 아니 그거는 겨고 그, 여기는. 이레는 뭐 별로 춥지 안 허난. 흔 엇이 안 불라도 뭐 충분이 보리가 뒈여낫주.(아니 그거는 그러고 그. 여기는. 이쪽에는 별로 춥지 안 하니까. 별로 안 밟아도 뭐 충분히 보리가 되었었지.)

103007 @ 아, 예 충분히.(아, 예 충분히.)

103007 #1 어, 막 그 땅이 곳앙 헐 뗀.(어, 아주 그 땅이 곱아서 할 땐.)

103007 @ 으.(으.)

103007 #1 저 북군 더렌 잘 붋아야 뒈주게.(저 북군 쪽에는 잘 밟아야 되지.)

103007 @ 응 맞수다. 잘 곳은 게 저 북군허고는 다르니깐예?(맞습니다. 잘 곱는 것이 저 북군하고는 다르니까요?)

103007 #1 으 응.(으 응.)

103007 @ 그 서리를예? 옛날에는 옛날 말로는 서리엔 헤수과?(그 서리를요? 옛날에는 옛날 말로 서리라고 햇습니까?)

103007 #1 옌날 말.(옛날 말.)

103007 @ 밧 고삿다.(밭 얼었다.)

103007 #1 성에옌 아녀고.(성애라고 아니하고.)

103007 @ 성애엔, 서리 내렷덴도 안허고 밧디.(성애라고. 서리 내렸다고도 안하고 밭에.)

103007 #1 거 무시거?(거 무엇?)

103007 @ 얼음이엔 헤나신가마씨?(얼음이라고 했는가요?)

103007 #1 아니, 거 나도 몰르키여.(아니, 거 나도 모르겠어.)

103007 @ 예에.(예에.)

103007 #1 뭐엔 골아난 건 잇인 거 ᄀᆞ튼디 원.(뭐라고 말했던 건 있는 거 같은데 원.)

103008 @ 보리밧디 검질은예. 몇 번 메는고마씨?(보리밭에 김은요. 몇 번 매는가요?)

103008 #1 아이 보리밧디 검질은 봄 낭.(아이 보리 밭에 김은 봄 나서.)

103008 @ 봄 낭.(봄 나서.)

103008 #1 막 커사 뎅기멍.(막 커야 다니면서.)

103008 @ 응.(응.)

103008 #1 데우리.(귀리.)

103008 @ 데우리예?(귀리요?)

103008 #1 으, 데우리 메 불곡 헤부리면 뒈는 거주 거.(으, 귀리 매 버리고 해버리면 되는 거지 거.)

103008 @ 응.(응.)

103008 #1 겨 겨 게난이 데우리 멜 적에는 그 검질을 봄 낭. 검질 날 때는 이놈으 보리로 데깍[78] 헤불민 밑에서 검질이 안 나와.(겨 겨 그러니까 귀리 맬 적에는 그 김을 봄 나서. 김 날 때는 이놈의 보리로 '데깍' 해버리면 밑에서 김이 안 나와.)

103008 @ 아.(아.)

103008 #1 우에 보리가 무성헤부리면은.(위에 보리가 무성해버리면.)

103008 @ 아, 검질이 올라오질 안 허주예?(아, 김이 올라오지를 안하지요?)

103008 #1 응.(응.)

103008 @ 응.(응.)

103008 #1 데우리는 올라와.(귀리는 올라와.)

103008 @ 데우리는 주짝 올라오민 그거는 그냥.(귀리는 뾰족 올라오면 그거는

78) '데깍' 짜인 물체나 물건이 단단하여 좀체로 허물어지지 않는 모양으로 여기서는 촘촘하다의 뜻이다.

그냥.)

103008 #1 으 그냥.(으 그냥.)

103008 @ 건 메부러야.(건 매버려야.)

103008 #1 메불어야주.(매버려야지.)

103008 @ 메고예, 아 보리밭 검질이엔 헌 거는 그렇게 막 특별나게 막 경.(매고요, 아 보리밭 김이라고 한 거는 그렇게 마구 특별나게 아주 그렇게.)

103008 #1 으응.(으응.)

103008 @ 예.(예.)

103008 #1 응, 보리밧에는 겨울에 허는 농ᄉᆞ니까.(응, 보리밭에는 겨울에 하는 농사니까.)

103008 @ 겨울에, 그 사데[79] 사데헌덴 허면서 사데소리[80] 헌덴 허면서 검질을 멘덴 허는 거는 거문 베랑 여기는 사데소리가 엇이큰게예?(겨울에, 그 '사데' '사데' 한다고 하면서 '사데소리' 한다고 하면서 김을 맨다고 하는 거는 별로 여기는 '사데소리'가 없겠군요?)

103008 #1 아이 사데소리엔 헌 게 그 조팟 검질 메는 걸 말 허는 거라.(아이 김매는 소리라고 한 것이 그 조밭 김매는 걸 말 하는 거야.)

103008 @ 아 조팟만?(아 조밭만?)

103008 #1 어, 조팟은 세불을 메야 뒈. 거 뚬 잘잘잘 나멍.(어, 조밭은 세벌을 매야 돼. 거 땀 잘잘잘 나면서.)

103008 @ 아.(아.)

103008 #1 막 그 더위에.(아주 그 더위에.)

103008 @ 아 사데는 조팟이로구나예. 거는 거문 조팟은 나중에 허곡.(아 '사데'는 조밭이로군요. 거는 그러면 조밭은 나중에 하고.)

103010 @ 저기 저 보리 수확 헐 때는예. 어떵 헙니까? 베는 거, 무끄는 거 또는 가리엔 허는 거?(저기 저 보리 수확 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베는 거, 묶는 거, 또는 가리라고 하는 거?)

103010 #1 아이 게난, 그 그거를 보리를 비면은 이. 베면은.(아이 그러니까, 그 그거를 보리를 베면 이. 베면.)

103010 @ 예.(예.)

103010 #1 거 다 호뮈로 비어사주게. 그 전에는 요세는 뭐 트렉타여 뭐여.(거 다 낫으로 베어야지. 그 전에는 요새는 뭐 트랙터다 뭐다.)

103010 @ 으.(으.)

103010 #1 허난 뭐 ᄒᆞ주만은. 그떼는.(하니까 뭐 하지만. 그때는.)

103010 @ 호미로 비영예.(낫으로 베어서요.)

103010 #1 다 호뮈로 비여근에. 죽 널어놓아.(다 낫으로 베어서 죽 널려놓아.)

---

79) '사데' 김매는 소리를 말한다.

80) '사데소리'는 김매는 소리를 한다는 제주말이다. 김을 맬 때 부르는 노동요를 가리키는 말로 성읍 지역에서 '사데'라고 한다.

103010 @ 예.(예.)

103010 #1 비멍 즈근즈근 놓아.(베며 자근자근 놓아.)

103010 @ 예, 예. 조그조근 허멍.(예, 예. 자근자근 하면서.)

103010 #1 베명.(베면서.)

103010 @ 예, 예.(예, 예.)

103010 #1 경 헤서 물를 거 아냐.(그렇게 해서 말릴 거 아냐.)

103010 @ 예.(예.)

103010 #1 그게 보리찍이 물라야. 이제 묶어야 허거든게.(그게 보릿짚이 말라야. 이제 묶어야 하거든.)

103010 @ 예, 예.(예, 예.)

103010 #1 (전화 벨소리가 울린다.) 여보세요. 어, 전나 으라 번 헷주게. 아 겐디 어디 가 온 거라? 오늘, 오전이 차에 놔부런, 다른 게 아니고 모리 골프데회 갈 때. 그 그저 골프체 허고 공ᄒᆞ곡 앗엉 가는 거. 숫자에 데로. 거 잊어불지 말곡 거 장소가 동홍초등 ᄒᆞ교난에 그 세전가도[81] 잇잖여. 응 세전 그기서 오십 메다 더 강. 이제 우회전 헤여근에 ᄒᆞᆫ 이벡 메다 가면은 동홍초등 ᄒᆞ교엔 헴 신게. 으, 게난 나도 갈 거. 경 ᄒᆞ고 이번은 차비가 엇어. 어, 자 부탁 헐로고. 어.(전화 벨소리가 울린다.) (여보세요. 어, 전화 여러 번 했지. 아 그런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오늘, 오전에 차에 놓아버려서, 다른 것이 아니고 모레 골프대회 갈 때. 그 그저 골프채하고 공하고 가져가는 거. 숫자에 대로. 거 잊어버리지 말고 거 장소가 동홍초등학교니까 그 '세전가도' 있잖아. 응 '세전' 거기에서 오십 미터 더 가서. 이제 우회전해서 한 이백 미터 가면 동홍초등학교라고 하고 있네. 으, 그러니까 나도 갈 거. 그렇게 하고 이번은 차비가 없어. 어, 자 부탁 할게. 어.)

103010 @ 무꺼근에예 말.(묶어서요. 말.)

103010 #1 말려서 무껑.(말려서 묶어서.)

103010 @ 타작?(타작?)

103010 #1 응, 타작을.(응, 타작을.)

103010 @ 응.(응.)

103010 #1 엿날은 그저 머 그 타작허기 전에.(옛날은 그저 뭐 그 타작하기 전에.)

103010 @ 예.(예.)

103010 #1 홀트기로.(홅기로.)

103010 @ 예.(예.)

103010 #1 헹 홀탓주게.(해서 홅었지.)

103010 @ 예.(예.)

103010 #1 홀타서 그 이삭만 모아가지고 타작을 헷주.(홅어서 그 이삭만 모아가지고 타작을 했지.)

---

81) '세전가도' 일본말을 빌어 삼거리 커브 길을 말하고 있다.

103010 @ 아 그거 클[82] 클.(아 그거 틀 틀.)
103010 #1 으, 그 소위 저 홀테게.(으, 그 소위 저 홅기.)
103010 @ 홀테엔예?(홅기라고요?)
103010 #1 으 응.(으 응.)
103010 @ 헌 거예?(한 거요?)
103010 #1 응.(응.)
103010 @ 그 무끌 때는 어느 정도를 헤가지고.(그 묶을 때는 어느 정도를 해가지고.)
103010 #1 아이 거.(아이 거.)
103010 @ 무끄는고마씨?(묶는가요?)
103010 #1 이 정도 헤서 그, 보리를.(이 정도 해서 그, 보리를.)
103010 @ 예.(예.)
103010 #1 이제 그 영 헤근에 영 싹 보리를 오그렁.(이제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보리를 오그리면서.)
103010 @ 예.(예.)
103010 #1 ᄒᆞ면은 그 무꿀 수 잇을 정도로 그거 양은 놓는 거난에.(하면은 그 묶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그거 양은 놓는 거니까.)
103010 @ 아.(아.)
103010 #1 게난 보리찦이 길민은 영 두 게 허민 길민은 많이 놩 무꿀 수도 잇고.(그러니까 보릿짚이 길면 이렇게 두 개 하면 길면 많이 놓아서 묶을 수도 있고.)
103010 @ 아.(아.)
103010 #1 그게 보리찍이 ᄍᆞᆱ으면은 하영 무꾸젱 헤도 그걸 영 께 트령 찔르질 못ᄒᆞ니까.(그게 보릿짚이 짧으면 많이 묶으려고 해도 그것을 이렇게 매께 들어서 찌르지를 못하니까.)
103010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3010 #1 어.(어.)
103010 @ 아 그거 보리찦이엔 헙니까? 보리찍이엔 헙니까?(아 그거 보릿짚이라고 합니까? 보릿짚이라고 합니까?)
103010 #1 보리찦이주게 무신.(보릿짚이지 무슨.)
103010 @ 보리찦? 보리찝.(보릿짚? 보릿짚.)
103010 #1 찦.(짚.)
103010 @ 보리찦예 보리찦으로 무꺼근에예.(보릿짚요 보릿짚으로 묶어서요.)
103010 #1 응.(응.)
103010 @ 그거 허면은 경 헹 보리 타작허는디.(그거 하면 그렇게 해서 보리타작하는데.)
103010 #1 응 아 게난 타작은 그 전에는 요세 이 뭐 거 무슨 기계가 새로 나오

82) '클'은 틀(機械)을 말하는 제주어다.

기 전에 우리 헐 때는.(응 아 그러니까 타작은 그 전에는 요새 이 뭐 무슨 기계가 새로 나오기 전에 우리 할 때는.)

103010 @ 예.(예.)

103010 #1 홀트기로 다 홀타 놩.(홅기로 홅어 놓아서.)

103010 @ 홀트기로 다 홀타 놩.(홅기로 홅어 놓아서.)

103010 #1 그 이삭만.(그 이삭만.)

103010 @ 이삭만.(이삭만.)

103010 #1 응, 그저 보리 거 고구리만.(응, 그저 보리 거 이삭만.)

103010 @ 예, 예 아, 고고리만.(예, 예 아, 이삭만.)

103010 #1 보리 고구리만 모여가지고 이 탈곡기로 타작을 헷주.(보리이삭만 모여 놔서 이 탈곡기로 타작을 했지.)

103010 @ 아, 탈곡기로.(아, 탈곡기로.)

103010 #1 응, 타작 허든지 도께로.(응, 타작을 하던지 도리깨로.)

103010 @ 도께로 도께로.(도리깨로 도리깨로.)

103010 #1 두드리든지. 이제 마당에서 도께로 두드리던지.(두드리던지. 이제 마당에서 도리깨로 두드리던지.)

103010 @ 예.(예.)

103010 #1 게난 타작기 엇일 때는 다 도께로 두드렷주.(그러니까 탈곡기 없을 때는 다 도리깨로 두드렸지.)

103010 @ 도께로 두드려근에예?(도리깨로 두드려서요?)

103010 #1 으.(으.)

103010 @ 이거 도께면은 이 도께예.(이거 도리깨면 이 도리깨요.)

103010 #1 으.(으.)

103010 @ 이거 마께로 허진 안허고예?(이거 방망이로 하지는 안하고요?)

103010 #1 마께로 그걸 어떵 마께로 허여게 허, 허.(방망이로 그걸 어떻게 방망이로 해 허, 허.)

103010 @ 예, 예 도리께로예?(예, 예 도리깨로요?)

103010 #1 응 그 많은 건디.(응 그 많은 건데.)

103010 @ 예, 거문 밧디서 허면은, 무꺼 논 거를 저기.(예, 그러면 밭에서 하면은, 묶어 놓은 거를 저기.)

103010 #1 거 집이, 집이.(거 집에, 집에.)

103010 @ 실러 오든지.(실어 오던지.)

103010 #1 집일 지어 오든지 마차로 실러 오든지.(집에를 지어 오든지 마차로 실어 오든지.)

103010 @ 마차로 실러 오든지 헤야 뒐 거 아니우꽈예?(마차로 실어 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요?)

103010 #1 으, 헤 와서 마당에서.(으, 해 와서 마당에서.)

103010 @ 예 헤 와서 마당에서.(예 해 와서 마당에서.)
103010 #1 마당에서.(마당에서.)
103010 @ 예.(예.)
103010 #1 홀트곡.(홇고.)
103010 @ 예 마당에서예. 으.(예 마당에서요. 으.)
103010 #1 홀트곡. 나중에는 그 저 거시기가 나오니까 그 저 탈곡기가 나오니까. 그 집이 와서 탈곡을 헤주엇지.(홇고. 나중에는 그 저 거시기가 나오니까 그 저 탈곡기가 나오니까. 그 집에 와서 탈곡을 해주었지.)
103010 @ 예.(예.)
103010 #1 그 탈곡기 엇일 땐 다 도께로.(그 탈곡기 없을 때는 다 도리깨로.)
103010 @ 도께로(도리깨로.)
103010 #1 두드렷지게. 마당질헤서.(두드렸지. 마당질해서.)
103010 @ 예 마당질로 헤근에 헤가지고예?(예 마당질해서 해가지고요?)
103010 #1 으.(으.)
103010 @ 그 저기 그 마차에 실으젠 허민 그 단위수가 잇인가마씨?(그 저기 그 마차에 실으려고 하면 그 단위수가 있는가요?)
103010 #1 바리.(바리.)
103010 @ 바리이?(바리?)
103010 #1 게 혼 바리를 서른 단을 잡는 것 ᄀᆞ뜬데.(그럼 한 바리를 서른 단을 잡는 것 같은데.)
103010 @ 예.(예.)
103010 #1 몃 바리 시끄느냐 ᄒᆞ는 거는.(몇 바리 싣느냐 하는 것은.)
103010 @ 예.(예.)
103010 #1 그 쉐이 그 소 마차는 쉐의 힘.(그 소의 그 소 우차는 소의 힘.)
103010 @ 응.(응.)
103010 #1 ᄆᆞᆯ의 힘에 따라서 어.(말의 힘에 따라서 어.)
103010 @ 응.(응.)
103010 #1 무난ᄒᆞ게 집에ᄁᆞ지 끗어갈 수 있는 양을 시꺼야 뒈지.(무난하게 집에까지 끌어갈 수 있는 양을 실어야 되지.)
103010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3010 #1 그 이상을 시끄면 쉐도 무리고 ᄆᆞᆯ도 무리고 힘이.(그 이상을 실으면 소도 무리고 말도 무리고 힘이.)
103010 @ 응.(응.)
103010 #1 떨어지주게.(떨어지지.)
103010 @ 바리로헤근에예. 허면은 아까 저기 보리타작은 헷고예. 훌트고 도리께질도 허고.(바리로해서요. 하면 아까 저기 보리타작은 했고요. 홇고 도리깨질도 하고.)

103012 @ 이 보리 쏠 장만 허는 거 잇지 안우꽈?(이 보리 쌀 장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3012 #1 으.(으.)

103012 @ 보리 쏠 장만허는 거. 아까는 타작허는 거 쏠 이 보리쏠 장만은 어떵? 무엇으로 저기 어떻게 장만 헤신고예?(보리 쌀 장만하는 거. 아까는 타작하는 거. 쌀 이 보리쌀 장만은 어떻게? 무엇으로 저기 어떻게 장만 했는가요?)

103012 #1 게난 그거를.(그러니까 그것을.)

103012 @ 예 연자메도 잇고. 멧돌도 잇고.(예 연자매도 있고. 맷돌도 있고.)

103012 #1 거 물려가지고 겉보리ᄒᆞ고 쏠보리허고 그 두 가지 아니냐게. 겉보리엔 헌건 멕주멕을 겉보리, 겉보리 헷서.(거 말려가지고 겉보리하고 쌀보리하고 그 두 가지 아니야. 겉보리라고 하는 것은 맥주보리를 겉보리, 겉보리 했어.)

103012 @ 예.(예.)

103012 #1 그 영 헷는데. 그 멕주멕은 그 까끄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 워낙.(그 이렇게 했는데. 그 맥주보리는 깎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 워낙.)

103012 @ 예, 예.(예, 예.)

103012 #1 게난 그 솔우리는 그 껍떼기가 우의가 엇언 멘짝허게 벗어진 거주게.(그러니까 그 쌀보리는 그 껍데기가 위가 없어서. 그 매끈하게 벗어진 거지.)

103012 @ 예, 예.(예, 예.)

103012 #1 솔우리엔 헌 건. 경 ᄒᆞ난 그거는 다 그 물방앗간에 가근에.(쌀보리라고 한 건,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다 그 연자매에 가서.)

103012 @ 예, 예.(예, 예.)

103012 #1 그거 물에 컹 강. 이제 골젠 허민 막 멀미헤여.(그거 물에 잠가서 가서. 이제 갈려고 하면 아주 멀미해서.)

103012 @ 예.(예.)

103012 #1 아 나도 막 멀미헤네. 아 거 빙빙 상 돌려고 허민. 졸멍 허, 허.(아 나도 아주 멀미해서. 아 거 빙빙 서서 돌려고 하면, 졸면서 허, 허.)

103012 @ 아.(아.)

103012 #1 허, 허, 그걸 밀렁 돌아야 뒈니까.(허, 허, 그걸 밀려서 돌아야 되니까.)

103012 @ 응.(응.)

103012 #1 막 멀미 헤가지고 나도 혼나서.(막 멀미 해가지고 나도 혼났어.)

103012 @ 아, 물방아는 물로 허는디이?(아 연자매는 말로 하는데?)

103012 #1 아 겐디 물로 홀 수도 잇곡. 그냥 사름으로도 밀렁.(아, 그런데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사람으로도 밀어서.)

103012 @ 아, 사름으로도 밀엉?(아, 사람으로 밀어서?)

103012 #1 응, 사름으로도 건 뭐. 거 둥굴게 뒌 거니까.(응, 사람으로도 건 뭐. 거 둥글게 된 거니까.)

103012 @ 아, 사름으로.(아, 사람으로.)

103012 #1 굴르게 뭰 거니까 밀령.(굴리게 된 거니까 밀려서.)

103012 @ 빙글빙글 돌아야 될 거니까예?(빙글빙글 돌아야 될 거니까요?)

103012 #1 응, 밀민 돌아가.(응, 밀면 돌아가.)

103012 @ 겨문 여기서 이거 보리장만 헐 때. 이거 미는 사람허고, 쓰는 사람허고, 치는 사람허고 사람이 몇 사람이 둘라붙어야 이 거.(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보리장만 할 때. 이거 미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하고, 치는 사람하고 사람이 몇 사람 달라붙어야 이 거.)

103012 #1 아이 게난.(아이 그러니까.)

103012 @ 헤신고예?(했나요?)

103012 #1 그거 밀멍도 이거 빗자루 질 헐 수 잇고.(그거 밀면서도 이거 빗자루질 할 수 있고.)

103012 @ 예.(예.)

103012 #1 게난 그 과정은 나도 잘 모르크라.(그러니까. 그 과정은 나도 잘 모르겠어.)

103012 @ 졍 가는 사람.(지어서 가는 사람.)

103012 #1 으 허, 허.(으 허, 허.)

103012 @ 삼춘은 그냥 밀기만 헷주만은.(삼촌은 그냥 밀기만 했지만.)

103012 #1 으.(으.)

103012 @ 흔 서넛은 서너이.(한 서넛은 서넛.)

103012 #1 그거 헤서.(그거 해서.)

103012 @ 예.(예.)

103012 #1 어떵 헤영.(어떻게 해서.)

103012 @ 응.(응.)

103012 #1 그렇게 헤당. 그거를 또 헤놧당. 그걸 또.(그렇게 하다가. 그거를 또 해놨다가. 그걸 또.)

103012 @ 지엉 응.(지어서 응.)

103012 #1 이 정ᄀᆞ레[83]에서이.(이 '정ᄀᆞ레'에서.)

103012 @ 예.(예.)

103012 #1 이 돌 조그마헌 ᄀᆞ레에서 골아서 그 그걸 벌러네야 또.(이 돌 조그마한 돌에서 갈아서 그 그걸 쪼개내야 또.)

103012 @ 예, 예.(예, 예.)

103012 #1 춤 물방에에서 ᄀᆞ는 건 껍덕 벳끼는 거고.(참 연자매에서 가는 것은 껍데기 벗기는 거고.)

103012 @ 맞수다 응.(맞습니다 응.)

103012 #1 껍덕 벳끼는 거고.(껍데기 벗기는 것이고.)

---

83) '정ᄀᆞ레'는 조금 얄팍하고 가벼운 돌로 만든 맷돌을 말한다.

103012 @ 응.(응.)
103012 #1 그 다음에는 ᄀᆞ는 거는 그 쏠을 이 께는 거.(그 다음에는 가는 것은 쌀을 이 쪼개는 거.)
103012 @ ᄀᆞ레 ᄀᆞ레.(맷돌 맷돌.)
103012 #1 ᄀᆞ레에서.(맷돌에서.)
103012 @ 응 걸 정ᄀᆞ레엔 헙니까?(응 그걸 '정ᄀᆞ레'라고 합니까?)
103012 #1 응, 응.(응, 응.)
103012 @ 아 멧돌로예.(아 맷돌로요.)
103012 #1 응.(응.)
103012 @ 멧돌로 ᄀᆞᆯ앙예.(맷돌로 갈아서요.)
103012 #1 응.(응.)
103012 @ 멧돌 ᄀᆞ는 거는 이거는 보통 어무니가 헤신게예?(맷돌 가는 거는 이거는 보통 어머니가 했네요?)
103012 #1 응.(응.)
103012 @ 어무니가예. 맞수다 어무니가.(어머니가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103012 #1 어.(어.)
103013 @ 저기 보리쏠로는예? 무얼 헤신고예? 보리쏠로는 밥만 헤먹어신가마씨?(저기 보리쌀로는요? 무엇을 했는가요? 보리쌀로는 밥만 해먹었는가요?)
103013 #1 아이 거, 보리쏠 ᄀᆞ루 ᄀᆞᆯ앙 떡도 ᄒᆞ곡 다허주.(아이 거, 보리쌀 가루 갈아서 떡도 하고 다하지.)
103013 @ 밥 허곡 어. 떡허고.(예 밥하고 어. 떡하고.)
103013 #1 응. 그 ᄀᆞ레 ᄀᆞᆯ앙. 그 ᄀᆞ루 네면은 떡ᄒᆞ는 거 아니라게.(응, 그 맷돌 갈아서. 그 가루 나오면 떡 하는 거 아니야.)
103013 @ 예 보리 쏠로예.(예 보리 쌀로요.)
103013 #1 응.(응.)
103013 @ 떡ᄒᆞ곡, 친떡도 허고마씨?(떡하고, 시루떡도 하고요?)
103013 #1 글쎄 친떡ᄁᆞ지는 안 뒈고.(글쎄 시루떡까지는 안 되고.)
103013 @ 보리쏠로는 그냥.(보리쌀로는 그냥.)
103013 #1 응, 응.(응, 응.)
103013 @ 개떡?(개떡?)
103013 #1 응, 응, 응.(응, 응, 응.)
103013 @ 요즘 얘기허는?(요즘 말하는?)
103013 #1 그저 ᄀᆞ루 ᄀᆞᆯ아근에. 다 보리ᄌᆞ베기도 헤먹곡.(그저 가루 갈아서. 다 보리수제비도 해먹고.)
103013 @ 예 ᄌᆞ베기도.(수제비도.)
103013 #1 뭣도 허곡.(뭣도 하고.)
103013 @ ᄌᆞ베기.(수제비.)

103013 #1 으.(으.)

103013 @ 돌레떡[84]도 헤신가마씨?('돌레떡'도 했는가요?)

103013 #1 돌레떡?('돌레떡?')

103013 @ 응.(응.)

103013 #1 돌레떡도 헤연 헤실 테주.('돌레떡'도 하고 했을 테지.)

103013 @ 영장[85]밧디도 만약에 허젠 허면은.('영장밧'에도 만약에 하려고 하면.)

103013 #1 에이.(에이.)

103013 @ 보리쏠로 헤 가실?(보리쌀로 해 갔을?)

103013 #1 그건 ᄆᆞ믈로 헷져게 ᄆᆞ믈.(그건 메밀로 했어 메밀.)

103013 @ ᄆᆞ믈로만?(메밀로만?)

103013 #1 으.(으.)

103013 @ 예 ᄌᆞ베기ᄒᆞ고.(예 수제비하고.)

103013 #1 어, 저 저 영장밧디.(어, 저 저 '영장밧'에.)

103013 @ 미숫ᄀᆞ루ᄒᆞ고.(미숫가루하고.)

103013 #1 돌레떡은.('돌레떡'은.)

103013 @ 응.(응.)

103013 #1 그 다 모믈. 그 저, 다 심방안티 가는 돌레떡도 다 ᄆᆞ믈.(그 다 메밀. 그 저. 다 심방한테 가는 '돌레떡'도 다 메밀.)

103013 @ ᄆᆞ믈허고예?(메밀하고요?)

103013 #1 응.(응.)

103013 @ 예 거문 보리쏠로는 떡을 허는데 친떡은 몰라도 ᄌᆞ베기허고.(예 그러면 보리쌀로는 떡을 하는데 시루떡은 몰라도 다 수제비 하고.)

103013 #1 응.(응.)

103013 @ 미숫ᄀᆞ루허고.(미숫가루하고.)

103013 #1 그 저, 뭐 여러 가지, 거 멘들메 가는 거난 거. 난 멘들 줄 모르는 사람이난.(그 저, 뭐 여러 가지, 거 만듦에 가는 거니까 거. 난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103013 @ 맞수다 하, 하.(맞습니다 하, 하.)

103013 #1 하, 하하, 핫, 아.(하, 하하, 핫, 아.)

103013 @ 아.(아.)

103013 #1 아, ᄀᆞ루 ᄀᆞᆯ아 놓으민 멘들민. 멘드는 데로 뒈는 거난에게.(아, 가루 갈아 놓으면 만들면. 만드는 대로 되는 거니까.)

103014 @ 예.(예.)

103013 #1 보리껴 보리찧. 보리까그라기예. 보리겨, 보리찧 보리까끄라기는 어

84) '돌레떡'은 메밀이나 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이다.

85) '영장'은 영장(靈葬)이다. 이때 '영장밧'은 장지(葬地)를 말하고 장사하여 시체를 묻는 땅이라는 것이다.

떤? 저 헤나면은 그 남은 거는.(보릿겨, 보릿짚. 보리까끄라기요. 보릿겨, 보릿짚 보리까끄라기는 어떤? 저 해나면 그 남은 거는.)

103014 #1 어.(어.)

103014 @ 어떵.(어떻게.)

103014 #1 보리까끄레기가 보리ᄀᆞ스락을 말 허는 거라?(보리까끄라기가 보리까끄라기를 말 하는 거야?)

103014 @ 예, 예.(예, 예.)

103014 #1 보리에 나오는 그 수염 잇주게.(보리에 나오는 그 수염 있지.)

103014 @ 예, 예.(예, 예.)

103014 #1 그게, 그게 몸에 다민은 막 까슬까슬 헌 게.(그게, 그게 몸에 닿으면 막 까슬까슬 한 것이.)

103014 @ 예, 예.(예, 예.)

103014 #1 거 영 곶어.(거 아주 곶어.)

103014 @ 예.(예.)

103014 #1 게난 그거 허카부덴. 보리ᄁᆞ스락 들어 가카부덴 옷도 잘 입곡. 그 더 위에도.(그러니까 그거 할까봐서. 보리까끄라기 들어 갈까봐서 옷도 잘 입고. 그 더 위에도.)

103014 @ 예, 예.(예, 예.)

103014 #1 경 혀근에 마당질도 허곡 허여.(그렇게 해서 마당질도 하고 해.)

103014 @ 마당질도 ᄒᆞ곡.(마당질도 하고.)

103014 #1 그거 ᄒᆞ민 모욕 안 헤불민 뭐.(그거 하면 목욕 안 해버리면 뭐.)

103014 @ 으.(으.)

103014 #1 꺼스러왕. 살지 못허여.(깔끄러워서. 살지 못해.)

103014 @ 이 보리ᄀᆞ슬락은 불 지드는 것벳기 안헤신가마씨?(이 보리까끄라기는 불 지피는 것밖에 안했는가요?)

103014 #1 무시거어?(무엇?)

103014 @ 불 지드는 거.(불 지피는 거.)

103014 #1 ᄀᆞ시락?(까끄라기?)

103014 @ 예 ᄀᆞ시락으로.(예 까끄라기로.)

103014 #1 게메, ᄀᆞ시락 거 뭐 모두아 놧자 거 뭐. 불도 못 솜고. 불 부쩡.(글쎄 까끄라기 거 뭐 모아 놓았자 거 뭐. 불도 못 때고. 불 붙여서.)

103013 @ 아.(아.)

103014 #1 멘 뎃겨부는 거주, 무신.(모두 던져버리는 거지, 무슨.)

103014 @ 불 부쩌근에?(불 붙여서?)

103014 #1 응.(응.)

103014 @ 거문 보리ᄁᆞ시락은 밧디서는 어째든 집에는 가져와신게.(그러면 보리까끄라기는 밭에서는 어쨌든 집에는 가져왔는데.)

103014 #1 으 응.(으 응.)

103014 @ 보리ᄀᆞ스락은예?(보리까끄라기는요?)

103014 #1 아 거, 보리를 다 시꺼 와시난.(아 거, 보리를 다 실어 왔으니까.)

103014 @ 예. 시꺼 와시난 거문 정지에 불 솜는 것벳기 못헷구나예.(예. 실어 왔으니까 그러면 부엌에 불 때는 것밖에 못했군요.)

103014 #1 응.(응.)

103014 @ 그것도 제데로 정지에.(그것도 제대로 부엌에.)

103014 #1 ᄀᆞ시락은 안 솜나게.(까끄라기는 안 땐다.)

103014 @ 아, ᄀᆞ시락은 안 솜아.(아, 까끄라기는 안 때.)

103014 #1 보리찝이나 거 ᄆᆞᆯ류왕 솜아도, 보리찝도 연기 낭 잘 솜지 못헤여게.(보릿짚이나 그것을 말려서 때도, 보릿짚도 연기 나서 잘 때지 못해.)

103014 @ 아, 보리찝도 잘 솜지 못허여.(아, 보릿짚도 잘 때지 못해.)

103014 #1 응, 여 여 연기나 잘 ᄆᆞ르지나 안허민.(응, 여 연기나 잘 마르지 안하면.)

103014 @ 아.(아.)

103014 #1 거 오 월 장마에 쯤 축축헤노민 영 내만.(거 오 월 장마에 쯤 축축해 놓으면 아주 연기만.)

103014 @ 연기만 나고예.(연기만 나고요.)

103014 #1 팡팡허고이.(팡팡하고.)

103014 @ 거문 ᄀᆞ스락 허곡 보리찝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테워 테워부러마씨?(그러면 까끄라기 하고 보릿짚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태워 태워버려요?)

103014 #1 아이, 테우지는 안 헌다게. 거 걸름은 헤도. 그거 다 그거 홀타난 다음에 또 다 무꺼.(아이, 태우지는 안 한다. 거 거름은 해도. 그거 다 전부 훑아난 다음에 또 다 묶어.)

103014 @ 무꺼근에예?(묶어서요?)

103014 #1 응, 무껑. 다 눌엇당.(응, 묶어서. 다 가렸다가.)

103014 @ 응, 응.(응, 응.)

103014 #1 눌엉. 우이 ᄂᆞ람지 씨우곡 헹. 비 안 들게 눌엇당.(가리어. 위에 이엉 씌우고 해서. 비 안 들게 가리었다가.)

103014 @ 쉐막에도 가곡.(외양간에도 가고.)

103014 #1 으, 쉐막에도 ᄁᆞᆯ곡.(으, 외양간에도 깔고.)

103014 @ 아, 아.(아, 아.)

103014 #1 이디도.(여기도.)

103014 @ 돗통시에도 ᄁᆞᆯ곡?(돼지우리에도 깔고?)

103014 #1 응 굴묵에도.(응 굴묵에도.)

103014 @ 아 ᄀᆞ시락은 굴묵예.(아 까끄라기는 굴묵요.)

103014 #1 응.(응.)

103014 @ 거문 보릿겨가 잇지아녀우꽈? 보리 아깐 쏠 헤난 거.(그러면 보릿겨가 있지 않습니까? 보리 아까는 쌀 했던 거.)

103014 #1 겨어?(겨?)

103014 @ 예 이거는 저기 양식?(예 이것은 저기 양식?)

103014 #1 응?(응?)

103014 @ 돼지. 도세기 양식?(돼지. 돼지 양식?)

103014 #1 어.(어.)

103014 @ 어.(어.)

103014 #1 그거.(그거.)

103014 @ 응 도세기 양식 양석예.(응 돼지 양식 양식요.)

103014 #1 보리체.(보릿겨.)

103014 @ 예, 보리체.(예, 보릿겨.)

103014 #1 어.(어.)

103014 @ 보리체 으. 양석으로 허고예. 예.(보릿겨 으. 양식으로 하고요. 예.)

103015 @ 삼춘예. 보리농사 헤난 것 중에 추억이나예 경험예. 재미난 거나 고생시러워난 거나. 아이고 신경질 나난 거나 이시민.(삼촌요. 보리농사 했던 것 중에 추억이나요 경험요. 재미잇던 거나 고생스러웠던 거나. 아이고 신경질 났던 거나 있으면.)

103015 #1 아이.(아이.)

103015 @ 혼 곡지나 굴아줍서.(한 꼭지나 말해주십시오.)

103015 #1 제일 신경질 난 게이. 이 오월 장마에 이 보리 수확을 거이 허게 뒈여게.(제일 신경질 난 것이. 이 오월 장마에 이 보리 수확을 거의 하게 되어.)

103015 @ 예.(예.)

103015 #1 응 거 허당 보면은 그 철이 쫌 앞 뎅기거나 뒷 뎅기거나 보다도 보리가 익엉 빌 때 뒈민 비가 잘 온다 말이여.(응 거 하다가 보면 그 철이 조금 앞 당겨지나 뒤로 당겨지거나 보다도 보리가 익어서 벨 때 되면 비가 잘 온다 말이야.)

103015 @ 예.(예.)

103015 #1 게민 그게 제일 성가신 거주.(그러면 그게 제일 성가신 거지.)

103015 @ 비가 와서예.(비가 와서요.)

103015 #1 응, 아 보리를 적저 노민은 어떵 헐거니? 그거, 다시 물려야 뒈고이. 헤가면은 또 그거. 헤 가면 자꾸 고구린 떨어져불고.(응, 아 보리를 적셔 놓으면 어떻게 할 거니? 그거, 다시 말려야 되고. 해가면 또 그거. 해가면 자꾸 이삭은 떨어져버리고.)

103015 @ 예 아, 애석헤근에예.(예 아, 애석해서요.)

103015 #1 으, 그거.(으, 그거.)

103015 @ 응 맞수다. 참 안타까움이 그거다예.(응 맞습니다. 참 안타까움이 그것이군요.)

조 농사

103016 @ 그러면은예. 이제 조.(그러면요. 이제 조.)

103016 #1 응.(응.)

103016 @ 조 농사지으레 가 보게예. 조 농사도 조도 이거 농사짓젠 허민 준비가 어떵 됩니까?(조 농사지으러 가 봐요. 조 농사도 조도 이거 농사지으려고 하면 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103016 #1 조는 여, 여름농사거든 저거.(조는 여, 여름농사거든 저거.)

103016 @ 응.(응.)

103016 #1 게난 그 여름에니까. 풀이 많이 나. 밧데.(그러니까 그 여름이니까. 풀이 많이 나. 밭에.)

103016 @ 풀예. 밧디예 응.(풀요. 밭에요 응.)

103016 #1 게난 풀 메어둬근에. 거 옌날 요세ᄀᆞ추룩 제초제 잇이민 제초제 확 뿌려불민 좋주만은.(그러니까 풀 매어둬서. 거 옛날 요새처럼 제초제 있으면 제초제 확 뿌려버리면 좋지만.)

103016 @ 음.(음.)

103016 #1 그전에는 제초제가 엇인 때라노니까.(그전에는 제초제가 없는 때라서.)

103016 @ 음.(음.)

103016 #1 그걸 ᄒᆞ든지. 경 아녀면은 밧을 갈아근에 엎어놓으면은 풀이 죽어이.(그걸 하던지. 그렇게 안하면 밭을 갈아서 엎어놓으면 풀이 죽어.)

103016 @ 응.(응.)

103016 #1 경 형. 헷다근에. 다시 ᄒᆞᆫ 번 갈주. 두불.(그렇게 해서. 했다가. 다시 한 번 갈지. 두벌.)

103016 @ 응.(응.)

103017 #1 두불 갈아가지고. 게난 별로 그 조 헐 뗀 걸음이 필요 엇나 여름이니까.(두벌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그 조 할 땐 거름이 필요 없다 여름이니까.)

103017 @ 아.(아.)

103017 #1 여름농ᄉᆞ니까. 조 헐 때는 걸름이 필요가 없어서. 그 조 커 가면은. 요세는 그 비료 헤당 ᄒᆞᆫ 번씩 뿌렁근네 ᄒᆞ는 수가 잇엇주만은. 비료 나오기 시작ᄒᆞ니까.(여름농사니까. 조 할 때는 거름이 필요가 없어서. 그 조 커 가면, 요새는 그 비료 해다가 한 번씩 뿌려서 하는 수가 있었지만. 비료 나오기 시작하니까.)

103017 @ 응, 응.(응, 응.)

103017 #1 거 유한 ᄀᆞ뜬 거.(그 유한 같은 거.)

103017 @ 응.(응.)

103017 #1 이 이런 비료 나온 때 그. 질소질[86] 나온 때.(이 이런 비료 나온 때

86) '질소질' 질소(窒素) 비료를 말하고 있다.

그. ‘질소질’ 나왔을 때.)

103017 @ 응.(응.)

103017 #1 그 멀 헤근에 조가 나민. 그것도 흔 세불 검질멘 다음에.(그 뭘 해서 조가 나면 그것도 한 세벌 김맨 다음에.)

103016 @ 음.(음.)

103017 #1 비료 뿌리는 거어.(비료 뿌리는 거.)

103017 @ 예.(예.)

103017 #1 경 혀근에. 뭐 익으면은. 역시 그것도 비어 놓왕 무껑.(그렇게 해서. 뭐 익으면, 역시 그것도 베어 놓아서 묶어서.)

103016 @ 음.(음.)

103017 #1 조는 홀트지를 못 헤여. 홀테론 이게 안 뿌러져.(조는 홅지를 못해. 홅기론 이것이 안 뿌려져.)

103017 @ 응.(응.)

103017 #1 경 ᄒᆞ니까 호미 세워 놓와근에. 영 ᄌᆞ근ᄌᆞ근 고구리 심엉. 영 짤라.(그렇게 하니까 낫을 세워 놓아서. 이렇게 자근자근 이삭 붙잡아서. 이렇게 자르지.)

103017 @ 예, 예 고구리로예. 예.(예, 예 이삭으로요. 예.)

103017 #1 고구리로 짤라.(이삭으로 자르고.)

103017 @ 예, 예.(예, 예.)

103017 #1 경 짤랑 ᄒᆞ면은. 저거 멩텡이라도 막 담앙 놧땅. 거 도께질을 헤야뒈여. 응.(그렇게 잘라서 하면. 저거 멱둥구미라도 마구 담아서 놨다가. 거 방망이질을 해야 돼. 응.)

103017 @ 예, 예, 멩텡이 응. 조 씨는예.(예, 예 멱둥구미 응. 조 씨는요.)

103017 #1 응.(응.)

103017 @ 조 씨는 그냥 집에 저장헷따근에 뿌리는 거 아니우꽈예?(조 씨는 그냥 집에 저장했다가 뿌리는 거 아닙니까요?)

103017 #1 으 으 응.(으 으 응.)

103017 @ 그거는?(그것은?)

103017 #1 그 작년 수확헤여 홀 때.(그 작년 수확해서 할 때.)

103017 @ 예.(예.)

103017 #1 조 씨는 ᄯᅳ로 보관을 헤여. 이 고구리로 그 존 이 고고리로 헤영. 조는 고구리로 무껑 돌아메영 놧당 허든지.(조 씨는 따로 보관을 해서. 이 이삭으로 그 조는 이 이삭으로 해서. 조는 이삭으로 묶어서 달아매어 놨다가 하던지.)

103017 @ 예, 예.(예, 예.)

103017 #1 그렇지 안혀문 조를 헤가지고 ᄯᅳ로 이제 ᄀᆞᆯ앙 먹어 불민 씨가 안 뒈니까.(그렇지 않으면 조를 해가지고 따로 이제 갈아서 먹어 버리면 씨가 안 되니까.)

103017 @ 예.(예.)

103017 #1 골지 안 헹 잇어야 씨가 뒈거든.(갈지 안 해서 있어야 씨가 되거든.)
103017 @ 예, 예.(예, 예.)
103017 #1 경 ᄒᆞ니까 그.(그렇게 하니까 그.)
103017 @ 그거를 무슨 단지 같은데?(그거를 무슨 단지 같은데?)
103017 #1 응.(응.)
103017 @ 아니면 담앙 놔뒷다근에예.(아니면 담아서 놔두었다가.)
103017 #1 어, 어, 어.(어, 어, 어.)
103017 @ 단지에 헷다근에 허는 거고. 그거는 응.(단지에 했다가 하는 거고. 그것은 응.)
103018 @ 조 씨 가는 방법을 골아줍서. 언제 영.(조 씨 가는 방법을 말해주십시오. 언제 이렇게.)
103018 #1 경 허난.(그렇게 하니까 .)
103018 @ 여름이난에 여름 어느 때쯤인고예.(여름이니까 여름 어느 때쯤인가요.)
103018 #1 유월절주게.(유월절이지.)
103018 @ 유월절예.(유월절요.)
103018 #1 으.(으.)
103018 @ 유월절에.(유월절에.)
103018 #1 유월절 이삼일.(유월절 이삼일.)
103018 @ 이삼일 아.(아, 이삼일 아.)
103018 #1 그 바로 전에 가는 거난.(그 바로 전에 가는 거니까.)
103018 @ 아, 이삼일 전에예?(아, 이삼일 전에요?)
103018 #1 으.(으.)
103018 @ 예.(예.)
103018 #1 전부 유월절 전부엔 허면 저, 가시아방 봐도 또고망으로 절 헌덴 소리 못 들엇구나. 바쁜 때라 이거여 그때는 농사ᄒᆞ젠 여름농ᄉᆞ허젠 ᄒᆞ문. 거 요즘은 유월절허문 별로 뭐 바쁜 거 못 느끼는디. 그때는 조 불리고 뭐 홀 때는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헤연.(전부 유월절 전부라고 하면 저, 처부를 봐도 엉덩이로 절 한다고 하는 소리 못 들었구나. 바쁜 때야 이거야 그때는 농사하려고 여름농사하려고 하면. 거 요즘은 유월절하면 별로 뭐 바쁜 거 못 느끼는데. 그때는 조 밟고 뭐 할 때는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103018 @ 예.(예.)
103018 #1 밧 불리곡 뭐 ᄒᆞ곡.(밭 밟고. 뭐 하고.)
103018 @ 음 유월절 전후에 전에 허고.(음 유월절 전후에 전에 하고.)
103018 #1 으.(으.)
103018 @ 그 가는 거는? 그냥 밭을 그냥.(그 가는 거는? 그냥 밭은 그냥.)
103018 #1 으, 갈아 놓왕.(응, 갈아 놓아서.)

103018 @ 예 갈아근에예.(예 갈아서요.)

103018 #1 갈아놓와근에 이제 그 ᄆᆞ쉬 잇잖아 ᄆᆞ쉬 ᄆᆞᆯ 테.(갈아놓아서 이제 그 마소 있잖아 마소 말 목동.)

103018 @ 예, 예, 예.(예, 예, 예.)

103018 #1 그 테우리[87]가 그 밧 ᄒᆞ나 ᄇᆞᆯ리면은 천 평짜리 ᄒᆞ나 ᄇᆞᆯ리면은 얼마 헤서 그 그.(그 목동이 그 밭 하나 밟으면 천 평짜리 하나 밟으면 얼마해서 그 그.)

103018 @ 으, 싻이.(으, 삯이.)

103018 #1 얼마 받아가지고 그 ᄆᆞᆯ덜 떼를 ᄆᆞᆯ고 온다 말이여.(얼마 받아가지고 그 말들 떼를 몰고 온다 말이야.)

103018 @ 예.(예.)

103018 #1 ᄆᆞᆯ ᄆᆞᆯ앙 초불을 싹 ᄒᆞᆫ 불을 그 갈아 논 거를 그 평메[88] 지와놓고. 그 다음 씨를 뿌리주게.(말 몰아서 애벌을 싹 한 벌 갈아 놓은 것을 그 '평매' 지어 놓고. 그 다음 씨를 뿌리지.)

103018 @ 응.(응.)

103018 #1 응, 씨를 싹싹 뿌려근에, 다시 ᄒᆞᆫ 불 ᄇᆞᆯ령 ᄒᆞ면은 다 뒈는 거라. 게난 웨 ᄇᆞᆯ리느냐. 땅이 이제 북삭[89]지므로 이 걸 땅을 뒈게 만들엉. 강ᄒᆞ게 만들어근에 ᄒᆞ젠. 경 헤야.(응, 씨를 싹싹 뿌려서, 다시 애벌 밟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밟느냐. 땅이 이제 푸석하므로 이것을 땅을 되게 만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서 하려고. 그렇게 해야.)

103018 @ 예.(예.)

103018 #1 조 씨가 잘 서곡.(조 씨가 잘 서고.)

103018 @ 아.(아.)

103018 #1 든든. 씨가 여물어.(단단. 씨가 여물어.)

103018 @ 아.(아.)

103018 #1 여물고 조가 여물게 뒈기 때문에 조가 ᄇᆞᆯ리는 거라.(여물고 조가 여물게 되기 때문에 조를 밟는 거야.)

103018 @ 아, ᄇᆞᆯ리는 거라예? 거문 밧 ᄇᆞᆯ린덴 허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예.(아, 밟는 거예요? 그러면 밭 밟는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군요.)

103018 #1 응.(응.)

103019 @ 응 그 조 씨는 또 집안, 집 사람이 뿌리는 것꽈? ᄆᆞᆯ 테우리가.(응 그 조 씨는 또 집안, 집 사람이 뿌리는 것입니까? 말 목동이.)

103019 #1 아게 뿌림도 허곡. 테우리가 온 떼. 테우리가 잘 뿌리주게.(아 뿌리기도 하고. 목동이 왔을 때. 목동이 잘 뿌리지.)

103019 @ 잘 뿌리지예.(잘 뿌리지요.)

103019 #1 으, 그 테우리 그 소위, 저 그 ᄆᆞᆯ ᄆᆞᆯ앙 온 사름이.(으, 그 목동 그 소

87) '테우리'는 말 떼를 돌보거나 키우는 사람을 말한다.
88) '평메'는 여기에서 흙을 평평하게 만들다 뜻이다.
89) '복삭'은 푸석의 의미로 쓰였다.

위, 저 그 말 몰아서 온 사람이.)

103019 @ 예.(예.)

103019 #1 아메도 남자니까, 삭삭 잘 뿌리주.(아무래도 남자니까, 삭삭 잘 뿌리지.)

103019 @ 예, 예, 예.(예, 예, 예.)

103019 #1 게난 잘 뿌렷느니 안 뿌렷느니 ᄒᆞ는 건 나중에 보문 다 알아지는 거니까. 헤, 헤, 헤, 헤.(그러니까 잘 뿌렸느니 안 뿌렸느니 하는 건 나중에 보면 다 알아지는 것이니까. 헤, 헤, 헤, 헤.)

103019 @ 예, 예.(예, 예.)

103019 #1 씨 난 거 보면은. 아이고 이 밧. 춤 씨 잘 뿌렷저. 영 형.(씨 난 거 보면. 아이고 이 밭. 참 씨 잘 뿌렸다. 이렇게 해서.)

103018 @ 아.(아.)

103019 #1 아 그 밧 보면서 다.(아 그 밭 보면서 다.)

103019 @ 예 판단을예.(예 판단을요.)

103019 #1 이에기 허거든게.(이야기 하거든.)

103019 @ 예.(예.)

103019 #1 아이고 이건 다 씨 엇언. 저 딘 간. 떨어벼시 허멍.(아이고 이건 다 씨 없어서. 저 데는 가서. 떨어버렸어 하면서.)

103019 @ 아 조 씨 이, 잘 뿌리는 사름은 정씨[90]엔도 헙니까? 한씨[91]엔도 헙니까?(아 조 씨 이, 잘 뿌리는 사람은 정씨라고도 합니까? 한씨라고도 합니까?)

103019 #1 아 아니 게난.(아 아니 그러니까.)

103019 @ 잘 뿌리는 사람을.(잘 뿌리는 사람을.)

103019 #1 그 정씨로 뿌리느냐.(그 정씨로 뿌리느냐.)

103019 @ 예.(예.)

103019 #1 춤 좃게 뿌리느냐.(참 잦게 뿌리느냐.)

103019 @ 아.(아.)

103019 #1 으응 이거라. 정씨, 뿌리는 사름이 정씨가 아니라 이제 그 춤 별로 간격이.(으응 이거야. 정씨, 뿌리는 사람이 정씨가 아니라 이제 그 참 별로 간격이.)

103019 @ 아.(아.)

103019 #1 이제 춤 죽 고르게 잘 뿌리느냐.(이제 참 죽 고르게 잘 뿌리느냐.)

103019 @ 아아 게난.(아아 그러니까.)

103019 #1 이제 으, 좀 좃게 으. 검질메기 어렵지만은 춤 좃게 뿌리느냐.(이제 으, 좀 잦게 으. 김매기 어렵지마는 참 잦게 뿌리느냐.)

103019 @ 으, 으.(으, 으.)

103019 #1 이거주.(이거지.)

---

90) '정씨'는 제주도 영등굿 요왕맞이굿에서 씨뿌림제차에서 정씨라고 하면서 뿌린다.
91) '한씨'는 제주도 영등굿 요왕맞이굿에서 씨뿌림제차에서 한씨라고 하면서 뿌린다.

103019 @ 으.(으.)
103019 #1 정씨로 뿌리느냐.(정씨로 뿌리느냐.)
103019 @ 예.(예.)
103019 #1 줏게 뿌리느냐.(잦게 뿌리느냐.)
103019 @ 정씨로 뿌리느냐.(정씨로 뿌리느냐.)
103019 #1 으, 으.(으, 으.)
103019 @ 줏게 뿌리느냐.(잦게 뿌리느냐.)
103019 #1 으.(으.)
103019 @ 아, 우린 정씨엔 헌 게 따로 잇인 건지?(아, 우리는 정씨라고 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인지?)
103019 #1 정씨가 씨를 뿌려?(정씨가 씨를 뿌려?)
103019 @ 하, 하, 하, 하.(하, 하, 하, 하.)
103019 #1 헤, 헤, 헤, 헤 으.(헤, 헤, 헤, 헤 으.)
103019 @ 예.(예.)
103019 #1 그건 그, 정씨로 뿌리느냐 ᄒᆞ는 게. 그 츰 소위 모종, 그 묘를.(그건 그, 정씨로 뿌리느냐 하는 것이. 그 참 소위 모종, 모를.)
103019 @ 응.(응.)
103019 #1 속음, 얼마 속끄질 안혀게.(솎음, 얼마 솎지를 않게.)
103019 @ 예, 예.(예, 예.)
103019 #1 아주 정식으로 이제 딱딱 간격이.(아주 정식으로 이제 딱딱 간격이.)
103019 @ 예, 예.(예, 예.)
103019 #1 뒈여 잇게 헤서 그 뿌리는 거. 것 잘 뿌리는 거주게.(되어 있게 해서 그 뿌리는 거. 것 잘 뿌리는 거지.)
103019 @ 예, 예 맞수다.(예, 예 맞습니다.)
103019 #1 게난.(그러니까.)
103019 @ 예.(예.)
103019 #1 좀 잘못 뿌리민 이거 실수로 허카부덴. 줏게 좀 뿌려불민.(좀 잘못 뿌리면 이거 실수로 할까봐서. 잦게 좀 뿌려버리면.)
103019 @ 어 검질메기가.(어 김매기가.)
103019 #1 검질메기가 궂어. 그 씨 속으젠 허민.(김매기가 궂어. 그 씨 솎으려고 하면.)
103019 @ 예. 속아근에 또 옮겨.(예. 솎아서 또 옮겨.)
103019 #1 에이.(에이.)
103019 @ 옮겨 심어야뒈곡.(옮겨 심어야 되고.)
103019 #1 아니 옴겨 심엉은 옴겨 심엉은 안 뒈여.(아니 옮겨 심어서는 옮겨 심어서는 안 되어.)
103019 @ 아.(아.)

103019 #1 저거 여름이라노니까. 거 메민.(저거 여름이라서. 거 매면.)
103019 @ 걸로 끗이고예?(걸로 끝이고요?)
103019 #1 그걸로 끗이주 뭐.(그걸로 끝이지 뭐.)
103019 @ 응 기구나예.(응 그렇군요.)
103020 @ 저기 조 조, 그 밟을 때는예? 조밭예.(저기 조조, 그 밟을 때는요? 조밭요.)
103020 #1 조 붋지 안 현다게.(조 밟지 안 한다.)
103020 @ 조밭은 붋지 안 허여마씨?(조밭은 밟지 안 해요?)
103020 #1 핫 조밧은 붋지 안 현다게.(핫 조밭은 밟지 안 한다.)
103020 @ 아 붋지 않아?(아 밟지 않아?)
103020 #1 거 불려부는 거주 거.(거 밟아버리는 거지 거.)
103020 @ 아.(아.)
103020 #1 ᄆᆞ쉬로 헹 거 헹 강ᄒᆞ게.(마소로 해서 거 해서 강하게.)
103020 @ ᄆᆞ쉬로 불리는 거?(마소로 밟는 거?)
103020 #1 응.(응.)
103020 @ 저기.(저기.)
103020 #1 으.(으.)
103020 @ 밭 갈 때 불리는 것일 뿐이고예.(밭 갈 때 밟는 것일 뿐이고요.)
103020 #1 으.(으.)
103021 @ 조밭 김매는 거?(조 밭 김매는 거?)
103021 #1 게난.(그러니까.)
103021 @ 이거가?(이것이?)
103021 #1 김메는 거는 거.(김매는 거는 거.)
103021 @ 응.(응.)
103021 #1 저거 헤서 ᄒᆞᆫ 보름만 뒈면은 초불 들어앉안 저 메기 시작 헐 거라.(저거 해서 한 보름만 되면 애벌 들어앉아서 저 매기 시작 할 거야.)
103021 @ 으 조밭.(으 조밭.)
103021 #1 나도 그건 잘 몰르키여마는.(나도 그건 잘 모르겠다만.)
103021 @ 응.(응.)
103021 #1 어 조 불령 ᄒᆞᆫ 낭 ᄒᆞᆫ 보름만 뒈여 가면은 죽 게민 메기 시작허여.(어 조 밟아서 한 나서 한 보름만 되어 가면 죽 그러면 매기 시작하지.)
103021 @ 어 초불.(어 애벌.)
103021 #1 경 헹 초불 다 메여민.(그렇게 해서 애벌 다 매면.)
103021 @ 예.(예.)
103021 #1 그 다음 ᄒᆞᆫ 일주일이나 ᄒᆞᆫ 열흘 잇당 또 두불 메주.(그 다음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있다가 또 두벌 매지.)
103021 @ 응.(응.)

103021 게난 세불끄지 메불민 조가 막 세불 메어 가민 막 조가 막 크주게.(그러니까 세벌까지 매어버리면 조가 아주 세벌 매어가면 아주 조가 아주 크지.)
103021 @ 예.(예.)
103021 #1 커 가민 조 커가도 또 그 밋트로.(커 가면 조 커가도 또 밑으로.)
103021 @ 또 밑으로.(또 밑으로.)
103021 #1 검질이 나오질 못 허주.(김이 나오지를 못하지.)
103021 @ 아, 크니까예?(아, 크니까요?)
103021 #1 으, 농사 뒌. 그 주 종목이 커 불민 그 밑에서 나는 잡초는.(으, 농사 된. 그 주 종목이 커 버리면 그 밑에서 나는 잡초는.)
103021 @ 응.(응.)
103021 #1 그늘져벼도 안 나곡게.(그늘져버려도 안 나고.)
103021 @ 예, 게니까 초불허고 두불까지는 검질이 나는디예?(예, 그러니까 애벌하고 두벌까지는 김이 나는데요?)
103021 #1 응.(응.)
103021 @ 두불까지는.(두벌까지는.)
103021 #1 게난 세불에는.(그러니까 세벌에는.)
103021 @ 검질이 나오지만 세불은.(김이 나오지만 세벌은.)
103021 #1 주로 씨속끔을 주로 허주.(주로 씨솎음을 주로 하지.)
103021 @ 아, 씨속끔예?(아, 씨솎음요?)
103021 #1 응.(응.)
103021 @ 예.(예.)
103021 #1 세불 멜 때는.(세벌 맬 때는.)
103021 @ 씨속끔예?(씨솎음요?)
103021 #1 응.(응.)
103021 @ 세불 허면은예.(세벌 하면은요.)
103021 #1 그 그때는 막 알 높아근에.(그 그때는 아주 아래가 높아서.)
103021 @ 음.(음.)
103021 #1 아이덜토 못 메곡.(아이들도 못 매고.)
103021 @ 아, 커부니까예.(아, 커버리니까)
103021 #1 응.(응.)
103023 @ 예, 그 수확은예?(예, 그 수확은요?)
103023 #1 응?(응?)
103023 @ 수확 할 떼, 수확할 떼, 그 저 베고 묶는 거는? 또 이거는 보리허고는 또 다르니깐예.(수확 할 때, 수확 할 때, 그 저 베고 묶는 거는? 또 이거는 보리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103023 #1 아이, 것도 마찬가지라.(아이, 그것도 마찬가지야.)
103023 @ 조는 그냥 우에 고구리만 홀트는 거니까예.(조는 그냥 위에 이삭만

홅는 거니까요.)

103023 #1 아니, 밑에서부터 다 베여. 거 조찦도.(아니, 아래부터 다 베어. 거 조짚도.)

103023 @ 아.(아.)

103023 #1 써야 뒈니까.(써야 되니까.)

103023 @ 조찦도 써야 뒈니까. 밑으로예. 호미로예?(조짚도 써야 되니까. 밑으로요. 낫으로요?)

103023 #1 으.(으.)

103023 @ 응 호미로 헤가지고. 호미로 눅졌다근에 그걸 묶어야 될 거 아닛꽈?(낫으로 해가지고. 낫으로 눕혔다가 그것을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3023 #1 어느 정도 물르믄 무꺼.(어느 정도로 마르면 묶어.)

103023 @ 예 그 조 묶는 거는 또.(예 그 조 묶는 거는 또.)

103023 #1 조 조 무끄는 것도.(조 조 묶는 것도.)

103023 @ 조찦으로?(조짚으로?)

103023 #1 어, 그 조찦으로 그 조 고구리 잇은 걸로 영 오그려다놩.(어, 그 조짚 그 조 이삭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그려다놔서.)

103023 @ 아.(아.)

103023 #1 무껑.(묶어서.)

103023 @ 고구리로.(이삭으로.)

103023 #1 께헤근에.(매끼해서.)

103023 @ 예.(예.)

103023 #1 찔렁.(찔러서.)

103023 @ 아.(아.)

103023 #1 거 여기 이디서 무끄는 사람덜은 잘 무끄메. 여자덜토 잘 무꺼.(거 여기 여기서 묶는 사람들은 잘 묶는다. 여자들도 잘 묶어.)

103023 @ 예 묶으는거예. 게문 이거 한 바리에는 이거는 혼 바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고예?(예 묶는 거요. 그러면 이거 한 바리에는 이거는 한 바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103023 #1 그것도 기자.(그것도 거저.)

103023 @ 혼 서른 묶음?(한 서른 묶음?)

103023 #1 응.(응.)

103023 @ 서른 개?(서른 개?)

103023 #1 으 거이 혼 바리를.(으 거의 한 바리를.)

103023 @ 서른 개.(서른 개.)

103023 #1 서른 단으로 허주.(서른 단으로 하지.)

103023 @ 서른 단?(서른 단?)

103023 #1 꼴도 서른 단.(꼴도 서른 단.)

103023 @ 아, 보리도 서른 단예. 보리나 조나 무게는 다르진. 바리는 무게로 허는 다르진 않겠다예?(아, 보리도 서른 단요. 보리나 조나 무게는 다르진. 바리는 무게로 하는 다르지는 않겠군요?)

103023 #1 응, 게난 저거 흔 바리엔 흔 게 뭐이냐 ᄒᆞ면 쉐. 소 ᄒᆞ나에 시끄는 양이라.(응, 그러니까 저거 한 바리라고 한 것이 뭣이냐 하면 소. 소 하나에 싣는 양이야.)

103023 @ 예, 예. 소 하나에 싣는 양예.(예, 예. 소 하나에 싣는 양요.)

103023 #1 으 으 응 흔 바리엔 흔 게.(으 으 응 한 바리라고 한 것이.)

103023 @ 응 구르마[92]에. 예 구르마허면 구르마에(응 마차에. 예 마차하면 마차에.)

103023 #1 아 아이, 게난.(아 아이, 그러니까.)

103023 @ 예.(예.)

103023 #1 흔 바리 단위가 소 흔 ᄆᆞ리에 시끄는 양이 흔 바리라.(한 바리 단위가 소 한 마리에 싣는 양이 한 바리야.)

103023 @ 응.(응.)

103023 #1 몰라 그것이 거짓말사 헤쳠신지 모르주만은.(몰라 그것이 거짓말이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103023 @ 아니 거 맞는 말마씨. 예, 예.((아니 거 맞는 말요. 예, 예.)

103023 #1 헤, 헤, 헤.(헤, 헤, 헤.)

103023 @ 바리예. 경 ᄒᆞ고.(바리요. 그렇게 하고.)

103024 @ 저기 타작예.(저기 타작요.)

103024 #1 응.(응.)

103024 @ 타작은 저 어떵 헙니까? 처음에는 아까 호미로 이삭을 조 고고리를 베고.(저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아까 호미로 이삭을 조 이삭을 베고.)

103024 #1 으.(으.)

103024 @ 고고리.(이삭.)

103024 #1 거 조 코고리를 마당에 놓아근에. 그 저 도께질을 헤야주게. 이야홍아[93] 허멍.(거 조 이삭을 마당에 놓고서. 그 저 도리깨질를 해야지. '이야홍아' 하면서.)

103024 @ 아, 고고리를 베어난 후에예?(아, 이삭을 베어난 후에요?)

103024 #1 응 아이, 그 고고리를 짤랑.(응 아이, 그 이삭을 잘라서.)

103024 @ 짤라난 후에.(잘라난 후에.)

103024 #1 고고리만 마당에 놔근에 두드령. 그 쏠을 빼넨다 말이다.(이삭만 마당에 놓아서 두드려서. 그 쌀을 빼낸다 말이야.)

103024 @ 예 이야홍으로예.(예 '이야홍'으로요.)

---

92) '구르마'는 고무바퀴가 달린 마차를 말한다.

93) '이야홍아'는 타작할 때 부르는 노동요로 제주도 민요를 말하고 있다.

103024 #1 조를 조를 뻬네엉.(조를 조를 빼내서.)

103024 @ 응 이거 헐 때는 타작, 도리께로 허는 것꽈?(응 이것을 할 때는 타작, 도리깨로 하는 것입니까?)

103024 #1 응.(응.)

103024 @ 아, 도리깨로예. 덩드렁마께[94]는 조는 덩드렁마께 허지 안읍니까?(아, 도리깨로요. '덩드렁마께'는 조는 '덩드렁마께' 하지 않습니까?)

103024 #1 응?(응?)

103024 @ 덩드렁마께.(던드렁방망이.)

103024 #1 던드렁?(던드렁?)

103024 @ 예.(예.)

103024 #1 던드렁마께엔 골아. 던드렁 덩드렁마께엔 흔 게.('덩드렁마께'라고 말해. 던드렁 '덩드렁마께'라고 한 것이.)

103024 @ 예.(예.)

103024 #1 던드렁은 크 그 저 바다에 돌.(던드렁은 큰 그 저 바다에 돌.)

103024 @ 예.(예.)

103024 #1 그게 던드렁이고,(그것이 던드렁이고,)

103024 @ 예.(예.)

103024 #1 마께는 그 우이 그 나무로 멘든 그 마껜데. 그걸로 아녕. 도께로 거이 허주.(방망이는 그 위 그 나무로 만든 방망인데. 그걸로 안하고. 도리깨로 거의 하지.)

103024 @ 도께로?(도리깨?)

103024 #1 그거 그걸로 허젠ᄒᆞ문 그 멧 날 멧흘. 조도 하영 헤불민.(그거 그것으로 하려고하면 그 몇 날 며칠. 조도 많이 해버리면.)

103024 @ 아.(아.)

103024 #1 몃 섬씩 헤부르민게.(몇 섬씩 해버리면.)

103024 @ 응 거문 이 던드렁마께는 저 나중에 막 헤난 다음에. 그 안 빠진 게 이시민 그걸로 했구나예?(응 그러면 이 덩드렁방망이는 저 나중에 마구 해난 다음에. 그 안 빠진 것이 있으면 그걸로 했군요?)

103024 #1 응.(응.)

103024 @ 나중에나예?(나중에나요?)

103024 #1 응.(응.)

103024 @ 건, 주된 거는 도리께로 허고.(건, 주된 거는 도리깨로 하고.)

103024 #1 응.(응.)

103024 @ 예.(예.)

103024 #1 응.(응.)

103024 @ 예 도리께로 허고예.(도리깨로 하고요.)

94) '덩드렁마께'은 '덩드렁', '던드렁' 위에서 짚을 두드리는데 두드리는 방망이를 말한다.

103024 #1 그거 ᄆᆞᆯ르지 안 혀민 잘 떨어지지 안허주게. ᄆᆞᆯ르민 폭삭폭삭 떨어져.(그거 마르지 안 하면 잘 떨어지지 안하지. 마르면 파삭파삭 떨어져.)

103024 @ 아, 잘 ᄆᆞᆯ령예.(아. 잘 말려서요.)

103024 #1 응.(응.)

103025 @ 좁쏠 좁쏠 좁쏠장만은 어떵?(좁쌀 좁쌀 좁쌀 장만은 어떻게?)

103025 #1 게메, 좁쏠 장만은 것도 그 저 거시기에서. 저거 거 엿날도 정미소가 ᄒᆞ낙씩 잇긴 잇엇서.(그러니까, 좁쌀 장만은 것도 그 저 거시기에서. 저거 거 옛날도 정미소가 하나씩 있기는 있었어.)

103024 @ 예.(예.)

103025 #1 우리 ᄒᆞᆯ 때도. 거 ○○이 아버지가.(우리 할 때도. 그 ○○이 아버지가.)

103025 @ 예, 예.(예, 예.)

103025 #1 정미소 헤낫주.(정미소 했었지.)

103025 @ 예, 예.(예, 예.)

103025 #1 거 엿날 거.(거 옛날 거.)

103025 @ 예, 예.(예, 예.)

103025 #1 고성 처음.('고성' 처음.)

103025 @ 예, 예, 예, 예, 기겟빵에 엣날에.(예, 예, 예, 예, 정미소에 옛날에.)

103025 #1 으.(으.)

103025 @ 게난 그거허기 전에는 경 헤도 집안에서 다 헤실 거 아니우꽈예?(그러니까 그것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도 집안에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요?)

103025 #1 응, 다 ᄀᆞ레로 ᄀᆞᆯ안. ᄀᆞ레로 ᄀᆞᆯ곡. 그 ᄆᆞᆯᄀᆞ레서.(응, 다 맷돌로 갈았어. 맷돌로 갈고. 그 연자매에서.)

103025 @ 조도예.(조도요.)

103025 #1 으.(으.)

103025 @ 예.(예.)

103025 #1 경.(그렇게.)

103025 @ 물 ᄒᆞ꼼씩 뿌리멍.(물 조금씩 뿌리면서.)

103025 #1 어떵사 헤신디. 그건 나도 몰르곡.(어떻게야 했는지. 그건 나도 모르고.)

103025 @ 예.(예.)

103025 #1 어 허, 허, 헛.(어 허, 허, 헛.)

103025 @ 하, 하핫, 예.(하, 하핫, 예.)

103025 #1 아 걸랑 넬 저냑이랑 우리 할망신디 들으곡.(아 그것이랑 내일 저녁에는 우리 할머니한테 듣고.)

103026 @ 예, 예. 저기 좁쌀로는 저 무엇을 뭘 만들어신고예? 좁쌀로.(예, 예 저기 좁쌀로는 저 무엇을 뭘 만들었는가요? 좁쌀로.)

103026 #1 밥 헤 먹고게.(밥 해 먹고.)
103026 @ 예.(예.)
103026 #1 이 조팝이 좋기가.(이 조밥이 좋기가.)
103026 @ 음, 조팝예.(음, 조밥요.)
103026 #1 거 조팝에 감저쯤 놩. 거 헤 놓민. 폭삭폭삭 츰.(거 조밥에 고구마쯤 넣어. 거 해 놓으면. 폭삭폭삭 참.)
103026 @ 예.(예.)
103026 #1 맛잇주게 헤, 헤, 헤, 헤.(맛있지 헤, 헤, 헤, 헤.)
103026 @ 떡 허고예. 오메기[95]떡.(떡 하고요. '오메기' 떡.)
103026 #1 응, 오메기 떡.(응, '오메기' 떡.)
103026 @ 예.(예.)
103026 #1 아, 좁쏠론 뭔 못헐 거 없어. 거 ᄀᆞ루 ᄀᆞᆯ민.(아, 좁쌀론 뭔 못할 거 없어. 거 가루 갈면.)
103026 @ 예, 감주허곡예.(예, 감주하고요.)
103026 #1 응.(응.)
103026 @ 좁쏠로 해야 청주허곡.(좁쌀로 해야 청주하고.)
103026 #1 으.(으.)
103026 @ 감주 만들고 또 집에서 또 술도 만들고.(감주 만들고 또 집에서 또 술도 만들고.)
103026 #1 아 뭐.(아 뭐.)
103026 @ 또 고소리도 집에서 내려나신가마씨? 아니면 술만.(또 소줏고리도 집에서 내렸는가요? 아니면 술만.)
103026 #1 우리 할망 헤나실 거라.(우리 할머니 했었을 거야.)
103026 @ 아 예. 그거는 또 이제 들어보고예.(아 예. 그거는 또 이제 들어보고요.)
103027 @ 조찧은 어떵 활용?(조짛은 어떻게 활용?)
103027 #1 아, 조찧도 마당에도 ᄀᆞᆯ고.(아, 조짛도 마당에 깔고.)
103027 @ 예.(예.)
103027 #1 저 거시기 변소에도 놓곡.(저 거시기 변소에도 넣고.)
103027 @ 예, 예.(예, 예.)
103027 #1 또 쉐도 주곡.(또 소도 주고.)
103027 @ 예.(예.)
103027 #1 쉐막에도 ᄀᆞᆯ곡.(외양간에도 깔고.)
103027 @ ᄀᆞᆯ곡.(깔고.)
103027 #1 거 뭐 다양허게 썻주.(거 뭐 다양하게 썼지.)

95)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다.

103027 @ 예.(예.)

103027 #1 조칩.(조짚.)

103027 @ 결국에는 조찦은 저기 불 솜으게 허는 거보다도.(결국에는 조짚은 저기 불 때게 하는 거보다도.)

103027 #1 어, 불 솜우는 건 불 불도. 거 저 이 마당에 끌앗당 거이.(응, 불 때는 건 불 불도. 거 저 이 마당에 깔았다가 거의.)

103027 @ 예. 이 불도 솜고.(예. 이 불도 때고.)

103027 #1 마당에 끌앗다근에 들여당.(마당에 깔았다가 들여다가.)

103027 @ 불 솜고예.(불 때고요.)

103027 #1 불 솜앗주게.(불 때었지.)

103027 @ 막 밍근 거.(마구 망가진 거.)

103027 #1 응, 게난 그 옌날은 그 마당에 전부다 흑 땅이라노니까.(응, 그러니까 그 옛날은 그 마당에 전부다 흙 땅이라서.)

103027 @ 예, 예.(예, 예.)

103027 #1 그거 안 끌민 먼지 나고 뭘 헤서 다 조찦으로 혜영.(그거 안 깔면 먼지 나고 뭘 해서 다 조짚으로 해서.)

103027 @ 응, 응.(응, 응.)

103027 #1 그 끌앗주게.(그 깔았지.)

103027 @ 게난 거문 농사는 조 농사는 다뒈고 이제 장만도 다 헤시난에.(그러니까 그러면 농사는 조 농사는 다되고 이제 장만도 다 했으니까.)

103028 @ 여기에 또 이제 그 삼춘님이 경험, 추억이나예. 조로 혜근에 헌 거는. 제일 좋은 게 저 조팝 먹는 거?(여기에서 또 이제 그 삼촌님이 경험, 추억이나요. 조로해서 한 거는. 제일 좋은 것이 저 조밥 먹는 거?)

103028 #1 응, 조팝 먹는 게 좋앗주.(응, 조밥 먹는 것이 좋았지.)

103028 @ 예, 조팝 먹는 거예.(예, 조밥 먹는 거요.)

103028 #1 응.(응.)

103028 @ 저기.(저기.)

103028 #1 그 당시는 우리 쏠밥, 게난 우리집이도 제사를 츰 열 여남은 번 이상 종손집이라 부니까. 아 그떼는이 우리 에, 고조끄지는 지제를 허게 뒈어지 안헤샤게?(그 당시는 우리 쌀밥. 그러니까 우리집에도 제사를 참 열 여남은 번 이상 종손집이라 버리니까. 아 그때는 우리 에, 고조까지는 지제를 하게 되지 안했니?)

103028 @ 예, 예.(예, 예.)

103028 #1 고조 이상은.(고조 이상은.)

103028 @ 예, 예.(예, 예.)

103028 #1 겐디 증조할망이 살아불면은.(그런데 증조할머니가 살아버리면.)

103028 @ 웃데까지를.(윗대까지를.)

103028 #1 고 고조 웃데를 지제[96]를 못헤여.(고 고조 윗대를 지제를 못해.)

103028 @ 아.(아.)

103028 #1 경 허니까 이 제사가 막 늘어나낫주.(그렇게 하니까 이 제사가 아주 늘어났지.)

103028 @ 예.(예.)

103028 #1 경 허난 춤 식게[97] 때나 올케 곤밥.(그렇게 하니까 참 제사 때나 올케 흰밥.)

103028 @ 아.(아.)

103028 #1 맛볼 정도니까게.(맛볼 정도니까.)

103028 @ 응, 곤밥 먹지 못허곡 조팝예. 맞수다.(응, 흰밥 먹지 못하고 조밥요. 맞습니다.)

103028 #1 이 조팝도 흐린 조팝헤서 올케 허문 맛잇서 저거.(조밥도 흐린 조밥해서 올케 하면 맛있어 저거.)

103028 @ 흐린 좁팝예.(메조 밥요.)

103028 #1 예.(예.)

103028 @ 착착 흘트고.(착착 흩고.)

103028 #1 으.(으.)

103028 #1 좁쏠로 흐린조로 죽도 쒜 먹지 안읍니까?(좁쌀로 메조로 죽도 쑤어 먹지 않습니까?)

103028 #1 아 죽도 쒕 먹주게.(죽도 쑤어 먹지.)

103028 @ 죽 쒜근에예. 응 죽 쑤고, 이 감기나 ᄒᆞ끔 아파근에 잘 헐 때 모믈죽보다 많이 먹읍니까? 조죽으로 먹을 거.(죽 쑤어서요. 응 죽 쑤고, 이 감기나 조금 아파서 잘 할 때 메밀죽보다 많이 먹습니까? 조죽으로 먹을 거.)

103028 #1 아니 아니 그건 이 저 페마농 잇지 아녀냐.(아니 아니 그건 이 저 쪽파 있지 아니하니.)

103028 @ 예.(예.)

103028 #1 이 저 것ᄀᆞ라 무슨 쪽파.(이 저 그것보고 무슨 쪽파.)

103028 @ 예, 예 페마농예.(예, 예 쪽파요.)

103028 #1 그거 헤여근에 그것에 헤영 ᄀᆞ찌 쒱 먹어낫저.(그거 해서 그것에 해서 같이 쑤어서 먹었었지.)

103028 @ ᄆᆞ믈로? 좁쏠?(메밀로? 좁쌀.)

103028 #1 ᄆᆞ믈 축.(메밀 죽.)

103028 @ 아, 그건 모믈로예.(아, 그건 메밀로요.)

103028 #1 응.(응.)

103028 @ 예.(예.)

103028 #1 ᄆᆞ믈 죽이라고 그거 춤.(메밀 죽이라고 그거 참.)

---

96) '지제' 지제(止祭)는 제사를 그만둔다는 의미다.

97) '식게'는 기제사(忌祭祀), 조상(祖上)이 죽은 날에 제사(祭祀)를 지내고 제관(祭官)들이 제물을 음복하는 일이다.

103028 @ 예, 맞수다. 게 열 푹 나곡예.(예, 맞습니다. 그럼 열 푹 나고요.)
103028 #1 응.(응.)

콩 농사

103029 @ 그 다음 콩 농사 지어보게예.(그 다음 콩 농사 지어보게요.)
103029 #1 응?(응?)
103029 @ 콩.(콩.)
103029 #1 응.(응.)
103029 @ 예 콩, 농사예. 저기 콩 농사도 갈젠 허문 준비를 해야 뒈지 안헙니까예?(예 콩 농사요. 저기 콩 농사도 갈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안합니까요?)
103029 #1 응.(응.)
103029 @ 콩 씨부터 시작헤여근에예.(콩 씨부터 시작해서요.)
103029 #1 응.(응.)
103029 @ 저 장만 헌 거.(저 장만 하는 거.)
103029 #1 콩 씨사 뭐.(콩 씨야. 뭐.)
103029 @ 저 장만 헹 놔둔 거.(저 장만해서 놔둔 거.)
103029 #1 작년에 그 헤난 씨를.(작년에 그 했던 씨를.)
103029 @ 응.(응.)
103029 #1 자기가 갈아난 종 뭐, 다른디 간 사논 거 업씨 그자.(자기가 갈았던 종 뭐, 다른데 가서 사 놓은 거 없이 그저.)
103029 @ 응.(응.)
103029 #1 그자 이녁 지어난 것에서 씨를 넹경 놔두는 거주게.(그저 자기 지었던 것에서 씨를 남겨서 놔두는 거지.)
103029 @ 예.(예.)
103029 #1 보관헷다가.(보관했다가.)
103029 @ 예, 예.(예, 예.)
103029 #1 그때는 경 안 형 허면은 어디 강 좀 사당 흠이 놈 씨 허당 남은 거.(그때는 그렇게 안 해서 하면 어디 가서 좀 사다가 함이 남의 씨 하다가 남은 거.)
103029 @ 예.(예.)
103029 #1 씨는 문저 절대 놈 아니 주어. 어 이녁이 갈아낭 다음에 놈을 주도 주지.(씨는 먼저 절대 남 아니 줘. 어 이녁이 갈아나서 다음에 남을 주지.)
103029 @ 응.(응.)
103029 #1 으, 씨는 그렇게 헤서ᄒᆞ면은 놈 갈아나면은 이제 강 쪼끔 사다가 홀 쑤도 잇고.(으, 씨는 그렇게 해서하면은 남 갈아나면 이제 가서 조금 사다가 할 수도 있고.)
103029 @ 응.(응.)
103030 #1 게 데부분은 지가 그 작년에 진 것을 놧다가 ᄒᆞ주. 겐디 콩이 갈기가

제일 수월헤여.(그럼 대부분은 자기가 그 작년에 지은 것을 놨다가 하지. 그런데 콩이 갈기가 제일 수월해.)

103029 @ 응.(응.)

103030 #1 콩 씨 뿌령 갈아불민 뒈니까.(콩 씨 뿌려서 갈아버리면 되니까.)

103029 @ 어.(어.)

103030 #1 것도 걸름도 필요 업고.(것도 거름도 필요 없고.)

103030 @ 예.(예.)

103030 #1 것도 여름에 흔 팔월 달에 쯤 갈 거라. 몰라 요세는 콩 가는 것도 막 시기도 이제 새로워저 가지고.(것도 여름에 한 팔 월 달에 쯤 갈 거야. 몰라 요새는 콩 가는 것도 아주 시기도 이제 새로워져 가지고.)

103030 @ 음.(음.)

103030 #1 저 으 조 불려근에 잇당 가는 거난에, 쪼끔 늦게 갈주게.(저 으 조 밟아서 이따가 가는 거니까. 조금 늦게 갈지.)

103030 @ 응.(응.)

103030 #1 경 ᄒᆞ면은.(그렇게 하면은.)

103030 @ 어 쪼끔 늦게.(어 조금 늦게.)

103030 #1 콩도 이제 이파리가 막 커부리면은 알에 검질 안 메도 그자 뎅기멍 그 우에 주짝주짝 헌 거나 메어 불민.(콩도 이제 이파리가 아주 커버리면 아래 김도 안 매도 그저 다니면서 그 위에 주뼛주뼛 한 거나 매어 버리면.)

103030 @ 응.(응.)

103030 #1 그자 검질도 하영 안 메도 뒈고.(그저 김도 많이 안 매어도 되고.)

103030 @ 응 예.(응 예.)

103030 #1 게민 경 팔월 달에 콩, 올아근에 꺼껑.(그러면 그렇게 팔월 달에 콩, 열어서 꺾어서.)

103030 @ 응.(응.)

103030 #1 콩은 꺼끈뎅 허여 또.(콩은 꺾는다고 해 또.)

103030 @ 예, 예.(예, 예.)

103030 #1 그 호미로 비어도 꺼끈덴 허주이.(그 낫으로 베도 꺾는다고 하지.)

103031 @ 콩밭 거름 잇잖으꽈예?(콩밭 거름 있잖습니까요?)

103031 #1 거름 안 헌다게.(거름 안 한다.)

103031 @ 거름 안 허영예.(거름 안해서요.)

103031 #1 요세는 그 콩밧. 콩에 주는 비료가 나왓서.(요새는 그 콩밭. 콩에 주는 비료가 나왔어.)

103031 @ 응, 비료.(응, 비료.)

103031 #1 그게 소위 인산은 하고 그저 질소는 적은 거.(그것이 소위 인산은 많고 그저 질소는 적은 거.)

103031 @ 예, 질소는 적은 거예.(예, 질소는 적은 거요.)

103032 @ 콩 씨 뿌리는 거는예?(콩 씨 뿌리는 거는요?)

103032 #1 콩 씨도 아무나 뿌리는 거주 무신.(콩 씨도 아무나 뿌리는 거지 무슨.)

103032 @ 아무나예? 경 헤도 딱 그 밭이 천 평이다 라고하면은.(아무나요? 그래도 딱 그 밭이 천 평이다 라고하면.)

103032 #1 아, 게난 그 밧디 계속 자기가 농ᄉᆞ를 지니까.(아, 그러니까 그 밭에 계속 자기가 농사를 지으니까.)

103032 @ 가늠을 허지예?(가늠을 하지요?)

103032 #1 응, 딱 이디는 혼말 지기여.(응, 딱 여기는 한말 지기다.)

103032 @ 예.(예.)

103032 #1 두 말 지기여 ᄒᆞ는게.(두 말 지기다 하는.)

103032 @ 응.(응.)

103032 #1 그 다 그 경험에 의한 그 씨 양을 말허는 거라.(그 다 그 경험에 의한 그 씨 양을 말하는 거야.)

103032 @ 예.(예.)

103032 #1 혼 마지기여. 두 마지기여 ᄒᆞ는 게.(한 마지기다 두 마지기다 하는 것이.)

103032 @ 응 게난.(응 그러니까.)

103032 #1 것도 그 농사 종류에 따라서 그 마지기가 틀리주마는.(그것도 그 농사 종류에 따라서 그 마지기가 다르지만.)

103034 @ 예 처음에 콩 밭은 몃 저기 몃 불까지 검질을 메신고예? 두불? 이것도예?(예 처음에 콩 밭은 저기 몇 저기 몇 벌까지 김을 매었는가요. 두벌 이것도요?)

103034 #1 두불 안 멘다게. 콩은 갈앙 처음에 갈 적에만 잘 메불민 콩은 빨리 크는 거니깐. 나서 콩잎이 팍팍 퍼져버리면은.(두벌 안 맨다. 콩은 갈아서 처음에 갈 적에만 잘 매버리면 콩은 빨리 커버리는 거니까는. 나서 콩잎이 팍팍 퍼져버리면.)

103034 @ 아 예, 예.(아 예, 예.)

103034 #1 검질 벨로 안 메여.(김은 별로 안 매.)

103034 @ 예, 예. 퍼지면은예. 예 검질이 맞수다. 콩밭에 검질들이예 잘 아니 나긴 허주만은 경 헤도 콩밭에 나는 검질이 이서예.(예, 예. 퍼지면요. 예 김이 맞습니다. 콩밭에 김이요 잘 안 나기는 하지마는 그렇게 해도 콩밭에 나는 김이 있어요.)

103034 #1 응.(응.)

103034 @ 콩밭 검질예. 어떤 검질인고예?(콩밭 김요. 어떤 김인가요?)

103034 #1 콩밧디 나는 검질.(콩밭에 나는 김.)

103034 @ 요즘 강아지풀이렌.(요즘 강아지풀이라고.)

103034 #1 응?(응?)

103034 @ 쒜비늠?(쇠비름?)

103034 #1 거기에 그, 그전에 그 유체 갈아나면은 유체ᄂᆞ물이 거 쫌 잘 나주만은. 거 유체나 안 갈아 난 딘 별로 그 잇당. 그 데우리 ᄀᆞ뜬.(거기에 그, 그전에 그 유채 갈아나면 유채나물이 거 좀 잘 나지마는. 거 유채나 안 갈아 난데는 별로 그 이따가. 그 귀리 같은.)

103034 @ 아, 데우리.(아, 귀리.)

103034 #1 것도 쪼끔 날 수도 잇고.(것도 조금 날 수도 있고.)

103034 @ 아, 데우리예.(아, 귀리요.)

103034 #1 뭐 나 거 몰르키여.(뭐 나 거 모르겠다.)

103034 @ 예, 데우리예. 으 콩밧디 그 검질 매질 아녀.(예, 귀리요. 으 콩밭에 그 김 그렇게 매지를 아니해.)

103034 #1 응, 콩잎로 딱 덮어져불민.(응, 콩잎으로 딱 덮어져버리면.)

103034 @ 그늘지니까 이거 살젠 허민, 으 아까는 데우리 데우린지 이건 확실치 않은 거예?(그늘지니까 이거 살려고 하면, 으 아까는 귀리 귀리인지 이건 확실하지 않는 거요?)

103035 @ 수확은 어떵 헙니까? 콩은 아까 꺾은덴 했잖아예?(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콩은 꺾는다고 했지요?)

103035 #1 으.(으.)

103035 @ 꺽고.(꺾고.)

103035 #1 꺽고.(꺾고.)

103035 @ 예 다 무껑.(예 다 묶어서.)

103035 #1 게민 다 무껑.(그러면 다 묶어서.)

103035 @ 예.(예.)

103035 #1 것도 도께로 두드렷주. 것도.(것도 도리깨로 두드렸지. 것도.)

103035 @ 도께.(도리깨.)

103035 #1 그전에.(그전에.)

103035 @ 예.(예.)

103035 #1 요센 타작기 잇이난에. 팡팡 헤불민 뭄엄주마는.(요새는 탈곡기 있으니까. 팡팡 해버리면 되고 있지만.)

103035 @ 아.(아.)

103035 #1 옌날에사 다 도리께질 헷주.(옛날에야 다 도리깨질 했지.)

103035 @ 도리께예. 도리께.(도리깨요. 도리깨.)

103035 #1 마당에.(마당에.)

103035 @ 그 콩 묶는 거는 이떼는 콩으로는 무끄질 못 허난에.(그 콩 묶는 거는 이때는 콩으로 묶지를 못하니까.)

103035 #1 응.(응.)

103035 @ 그거는 새 비여당?(그거는 띠 베어다가?)

103035 #1 응, 그건 께를 새로 멘들아 와야 뒈여.(응, 그건 매끼를 새로 만들어 와야 돼.)

103035 @ 께?(매끼?)

103035 #1 응, 거 무끄는 것ᄀᆞ라.(응. 것 묶는 것보고.)

103035 @ 무끄는 것.(묶는 것.)

103035 #1 께엥 허주.(매끼라고 하지.)

103035 @ 예, 예, 예.(예, 예, 예.)

103035 #1 게난 셀 비어 오든지.(그러니까 띠를 베어 오든지.)

103035 @ 예.(예.)

103035 #1 뭐.(뭐.)

103035 @ 새로 허든지.(띠로 하든지.)

103035 #1 어.(어.)

103035 @ 아니면 보리찝을 놔두었다가 그거 ᄒᆞ나 가져가.(아니면 보릿짚을 놔두었다가. 그거 하나 가져가.)

103035 #1 아 아니 보리찝으로 못 무끈다게. 보리짚으로 께 못 네여.(아 아니 보릿짚으로 못 묶는다. 보릿짚으로 매끼 못 내.)

103035 @ 아.(아.)

103035 #1응, 삭아비어.(응, 삭아버려.)

103035 @ 아 거문 새로 허키여예.(아 그러면 띠로 하겠네요.)

103035 #1 응.(응.)

103035 @ 새예. 이것 이것도 이제 한 바리는 어느 정도, 바리는 이것도 서른 묶음.(띠요. 이것 이것도 이제 한 바리는 어느 정도, 바리는 이것도 서른 묶음.)

103035 #1 응.(응.)

103035 @ 이건 더 가키여예.(이것은 더 가겠네요.)

103035 #1 아니 콩은.(아니 콩은.)

103035 @ 예. 엄청.(예. 엄청.)

103035 #1 막 저 새 헤당 허민. 께가, 막 질 거 아냐게?(마구 저 띠 해다가 하면, 매끼가, 아주 길 거 아냐?)

103035 @ 예, 예.(예, 예.)

103035 #1 게민은 막 이 흔 쪽은 이짝으로 놓곡. 영 거꿀로 놓으멍 영 헤근에.(그러면 아주 이 한 쪽은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서 이렇게 해서.)

103035 @ 아.(아.)

103035 #1 크게 무끈다 이거.(크게 묶는다 이거.)

103035 @ 아, 무끄기가 크게예. 으 양쪽으로예.(아, 묶기가 크게요. 으 양쪽으로요.)

103035 #1 응.(응.)

103035 @ 저기 하나는 요기.(저기 하나는 여기.)

103035 #1 응.(응.)

103035 @ 요기는 대면은 이쪽에 대면은 대가 이쪽에다 놓게시리.(요기는 대면은 이쪽에 대면은 대가 이쪽에다 놓게끔.)

103035 #1 응.(응.)

103035 @ 이렇게 가와리가와리[98] 허멍예.(이렇게 '가와리가와리' 하면서요.)

103035 #1 응 영.(응 이렇게.)

103035 @ 예.(예.)

103035 #1 놓아근에.(놓아서.)

103035 @ 예, 예 그렇게 놓아근에 헹.(예예 그렇게 놓아서 해서.)

103035 #1 경 헹 똥그랑 허게 크게 무끄주.(그렇게 해서 둥글락 하게 크게 묶지.)

103035 @ 예.(예.)

103035 #1 응.(응.)

103035 @ 경 허면은 콩은 뭐 마차에 뭐 막 높이까지 그 실을 정도면은.(그렇게 하면 콩은 뭐 마차에 뭐 아주 높이까지 그 실을 정도면.)

103035 #1 아 게메 경 ᄒᆞ면은.(아 글쎄 그렇게 하면은.)

103035 @ 서른 무, 묶음 서른 개로는 안허키여예. 그런 거는.(서른 무, 묶음 서른 개로는 안하겠네요. 그런 거는.)

103035 #1 그거는 거 마차에 실은 거는 것도 마차 허는 사람이 지가 다 알아서.(그거는 거 마차에 싣는 거는 것도 마차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 알아서.)

103036 @ 예.(예.)

103035 #1 맞게 시꺼가주.(맞게 실어가지.)

103035 @ 마차예. 소가 실을 정도로예.(우차요. 소가 실을 정도로요.)

103036 @ 콩으로는 저기 머 무어를 해신고예. 콩 메주 담기.(콩으로는 저기 뭐 무얼 했는가요. 콩 메주 담기.)

103036 #1 메주,(메주.)

103036 @ 예.(예.)

103036 #1 콩ᄂᆞ물.(콩나물.)

103036 @ 예. 콩ᄂᆞ물이엔 헙니까? 콩지름이엔 헙니까? 콩ᄂᆞ물.(예. 콩나물이라고 합니까? '콩지름'이라고 합니까? 콩나물.)

103036 #1 콩지름, 콩지름 옌날엔 콩지름 콩지름 헷주.(콩나물 콩나물 옛날에는 '콩지름' '콩지름' 했지.)

103036 @ 콩지름예.(콩나물요.)

103036 #1 응.(응.)

103036 @ 콩주름? 콩지름.(콩나물? 콩나물.)

---

98) '가와리가와리' 일본말 가오리가오리(かわりかわり)인데 여기서는 돌아가면서 빌려서의 뜻이다.

103036 #1 지름, 콩지름(기름, 콩나물.)
103036 @ 콩지름.(콩나물.)
103036 #1 콩지름 논넨 헷주게.(콩나물 놓는다 했지.)
103036 @ 예.(예.)
103036 #1 아 그 옌날 말론.(아 그 옛날 말로는.)
103036 @ 예, 예, 예.(예, 예, 예.)
103036 #1 지금이야 콩ᄂᆞ물이지만은.(지금이야 콩나물이지만.)
103036 @ 옛날 말로 헤사 뒈는 거난예.(옛날 말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103036 #1 어.(어.)
103036 @ 음, 메주, 그리고 둠비도 헤신가마씨?(음, 메주, 그리고 두부도 했는가요?)
103036 #1 두부도 헷주게.(두부도 했지.)
103036 @ 둠부? 둠비.(두부? 두부.)
103036 #1 응.(응.)
103036 @ 옛날 말로는 둠비?(옛날 말로는 두부?)
103036 #1 게 둠비.(그럼 두부.)
103036 @ 둠비. 또 저기 콩ᄁᆞ루헤근에 어, 겨울에 콩국 허듯이예. 콩ᄁᆞ루.(두부. 또 저기 콩가루해서 어, 겨울에 콩국 하는 듯이요. 콩가루.)
103036 #1 아, 콩국수도 헤먹곡게.(아, 콩국수도 해먹고.)
103036 @ 콩국수 집이서 먹어나수꽈?(콩국수 집에서 먹었었습니까?)
103036 #1 나?(나?)
103036 @ 예.(예.)
103036 #1 몰라.(몰라.)
103036 @ 옛날에는.(옛날에는.)
103036 #1 헤 옛날에는 몰라. 어떵사 헤신디.(헤 옛날에는 몰라. 어떻게야 했는지.)
103036 @ 저기 콩 콩.(저기 콩 콩.)
103036 #1 옌날 문 문 먹어실 거여 나도.(옛날 전부 전부 먹었을 거야 나도.)
103036 @ 콩 콩.(콩 콩.)
103036 #1 나 나?(나 나?)
103036 @ 콩국수 말고 콩국은 먹었주. 하영 먹엇주예? 콩국 겨울에.(콩국수 말고 콩국은 먹었지. 많이 먹었지요? 콩국 겨울에.)
103036 #1 아 게난 콩죽은 그 풋죽이주게. 콩죽이 아니고. 겐디 저게 그 메주허곡, 콩ᄂᆞ물 허곡. 두부허곡. 그 이상은 나도 쓴 거를 몰라 뭣사 헤신디.(아 그러니까 콩죽은 그 팥죽이지. 콩국이 아니고. 그런데 저것이 그 메주하고, 콩나물 하고, 두부하고. 그 이상은 나도 쓴 것을 몰라 무엇이야 했는지.)
103036 @ 아, 삼춘 겨울에 콩ᄁᆞ루 놔근에 저기 국.(아, 삼촌 겨울에 콩가루 넣

어서 저기 국.)

103036 #1 어, 국에 콩ᄁᆞ루 놔근에 먹음도 헷주.(어, 국에 콩가루 넣어서 먹기도 했지.)

103036 @ 예, 국에 콩ᄁᆞ루 놔근에.(예, 국에 콩가루 넣어서.)

103036 #1 어.(어.)

103036 @ 예, 콩국예.(예, 콩국요.)

103036 #1 응.(응.)

103036 @ 경 허고, 저기 콩도 복깡 먹어나지 안헤수과게?(그렇게 하고. 저기 콩도 볶아서 먹었었지 안했습니까?)

103036 #1 아, 게 콩 복깡 먹주.(아, 그럼 콩 볶아서 먹지.)

103036 @ 예 콩 보끄기예.(예 콩 볶기요.)

103036 #1 응.(응.)

103036 @ 콩 볶음도 허고 콩도 반찬 만들어근에. 어머니가 헤서 장물에 담가근에.(콩 볶음도 하고 콩도 반찬 만들어서. 어머니가 해서 간장에 담가서.)

103036 #1 어.(어.)

103036 @ 장물예?(간장요?)

103036 #1 으.(으)

103036 @ 콩 보끈 거.(콩 볶은 거.)

103036 #1 으, 경 헌 거, 정 흔 거 난 뭐. 하영 얻어먹지 못헤부난. 헤, 헤, 헤, 헷.(으, 그렇게 한 거, 저렇게 한 거 나는 뭐. 많이 얻어먹지 못해버리니까. 헤, 헤, 헤, 헷.)

103036 @ 예.(예.)

103037 @ 콩찝은 어떵 나중에 써신고마씨?(콩짚은 어떻게 나중에 썼는가요?)

103037 #1 아이, 콩찝은 쉐도 잘 먹고.(아이, 콩짚은 소도 잘 먹고.)

103037 @ 예.(예.)

103037 #1 거 쪼끔헤근에 추지민은 비도 ᄒᆞ쏠 맞곡 ᄒᆞ면은 소도 잘 먹고 불 때기도 좋고 콩찝은 엇엉 못써.(거 조금해서 추지면 비도 조끔 맞고 하면은 소도 잘 먹고 불 때기도 좋고 콩짚은 없어서 못써.)

103037 @ 예, 불때기예, 으 예 이거 삼춘 이거 좀 드십서.(예, 불 때기요, 으 예 이거 삼촌 이거 좀 드십시오.)

103037 #1 아, 이거 이거. 아, 저 디 커피 먹컨 먹어.(내, 이거 이거. 아, 저 데 커피 먹으려면 먹어.)

103037 @ 나는 커피 아니.(나는 커피 아니.)

103037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37 @ 삼춘 커피 아니, 이 이거가 물이 ᄒᆞ끔 잇서야 저 추져야 뒈큰게예. 그 쉐 멕일 때는예.(삼촌 커피 아니, 이 이것이 물이 조금 있어야 저 추져야 되겠네요. 그 소 먹일 때는요.)

103037 #1 으.(으.)

103037 @ 쫌 추져근에 비 ᄒᆞ끔 맞췽예 아, 비 맞청.(좀 추져서 비 조금 맞아서요 아, 비 맞아서.)

103037 #1 지금도 콩찧은 막. 이 탈곡헤나민 막.(지금도 콩짛은 아주. 이 탈곡해나면 아주.)

103037 @ 엇어근에예.(없어서요.)

103037 #1 어, 그거 가져가젠 막 허여.(어 그거 가져가려고 아주 해.)

103037 @ 소 먹으면은게 좋아서예?(소 먹으면 좋아서요?)

103037 #1 으.(으.)

103037 @ 좋아서.(좋아서.)

103038 @ 다음 삼십팔. 이제 이 콩 농사는 다 지어신디 삼춘, 콩 농사 헤 난 다음에 어떤 추억이나, 뭐 생각나는 거.(다음 삼십팔. 이제 이 콩 농사는 다 지었는데 삼촌, 콩 농사 해 난 다음에 어떤 추억이나, 뭐 생각나는 거.)

103038 #1 음.(음.)

103038 @ 가장 콩 농사 다음에 가장 생각나는 거.(가장 콩 농사 다음에 가장 생각나는 것.)

103038 #1 아 그것도 비 와불민 망치는 거라.(아 그것도 비 와버리면 망치는 거야.)

103038 @ 비 와불민 망처.(비 와버리면 망쳐.)

103038 #1 응, 비어놔근에.(응 비어놔서.)

103038 @ 어.(어.)

103038 #1 어 거두어들이지 못허기 전이 비나 와부리면은.(어 거두어들이지 못하기 전에 비나 와버리면.)

103038 @ 으 망쳐근에예.(으 망쳐서요.)

103038 #1 사름 정신을 못 찰려.(사람 정신을 못 차려.)

103038 @ 예, 망쳐서 이게 제일예, 콩 타작헤근에 콩 자루 이만큼 든든허지 안읍니까?(예, 망쳐서 이게 제일요, 콩 타작해서 콩 자루 이만큼 든든하지 않습니까?)

103038 #1 응.(응.)

103038 @ 쏠허고는 쫌 달라근에. 콩 포대기 막 이렇게 저기 옮겨 옮길 때 기분이 막 좋지 안읍니까?(쌀하고는 조금 달라서. 콩 자루 아주 이렇게 저기 옮겨 옮길 때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까?)

103038 #1 헤, 헤.(헤, 헤.)

103038 @ 하, 하, 하, 하.(하, 하, 하, 하.)

103038 #1 아, 수확 떼니까 기분이야 좋주게.(아, 수확 때니까 기분이야 좋지.)

103038 @ 예.(예.)

103038 #1 수확이 기쁨.(수확의 기쁨.)

103038 @ 콩은 몽실몽실헹 헤근에예.(예. 콩은 몽실몽실해서 해서요.)

103038 #1 거 수확이 기쁨이주.(거 수확의 기쁨이지.)
103038 @ 예 기쁨예.(예 기쁨요.)
103038 #1 그거 춤 거 에쓰게 헤놩.(그거 참 거 애쓰게 해놓아서.)
103038 @ 예.(예.)
103038 #1 콩이 얼마나게. 그거 딱 잘리에 담아 놓으면은.(콩이 얼마나. 그거 딱 자루에 담아 넣으면.)
103038 @ 예, 몽실몽실허고, 누뜸도 좋곡예.(예. 몽실몽실하고, 누르기도 좋고요.)
103038 #1 헤, 헤.(헤, 헤.)
103038 @ 콩은 경 허는 거 닮아.(콩은 그렇게 하는 거 같아.)
103038 #1 응.(응.)
103038 @ 거난 이제는예, 막 저기 쪼끔예 확확 넘어가는 거예.(그러니까 이제는요, 아주 저기 조금요 확확 넘어가는 거요.)

밭벼 농사

103039 @ 삼춘 밭농사예? 밭벼예?(삼촌 밭농사요? 밭벼요?)
103039 #1 응.(응.)
103039 @ 밭벼렌 허지 안읍니까?(밭벼라고 하지 않습니까?)
103039 #1 산듸.(밭벼.)
103039 @ 산듸, 예 산듸, 옛날에는 제주도는게 논 논밭이 엇어노니까.(밭벼, 예 밭벼, 옛날에는 제주도는 논 논밭이 없어서.)
103039 #1 응.(응.)
103039 @ 다 산듸 아니우꽈예?(다 밭벼 아닙니까요?)
103039 #1 응, 응, 응.(응, 응, 응.)
103039 @ 산듸는 갈아도 수확도 베랑 하지도 안허고예?(밭벼는 갈아도 수확이 별로 많지도 안하고요?)
103039 #1 아이. 나중에 종자가 좀 틀린 것들 나와서 잘 뒈낫서.(아이. 나중에 종자가 좀 다른 것들 나와서 잘 되었어.)
103039 @ 아.(아.)
103039 #1 그것도.(그것도.)
103039 @ 예.(예.)
103039 #1 밧벼도 잘 뒈낫는데. 거 쏠이 아명헤도 산듸쏠이.(밭벼도 잘 되었는데. 거 쌀이 아무래도 밭벼쌀이.)
103039 @ 꺼실락꺼실락.(까슬까슬.)
103039 #1 이 벼보단 못허주게.(이 벼보다는 못하지.)
103039 @ 예, 예.(예, 예.)
103039 #1 거 사락사락허곡 어디 그 춤 밥맛이 엇주.(거 사락사락해서 어디 그

참 밥맛이 없지.)

103039 @ 예, 그렇구나예. 이게 산듸 농사허젠 허민 준비가.(예, 그렇군요. 이게 밭벼 농사하려고 하면 준비가.)

103039 #1 산듸농ᄉᆞ도 역시. 것도 여름농ᄉᆞ라노니까.(밭벼농사도 역시. 것도 여름농사라서.)

103039 @ 아.(아.)

103039 #1 거 처음에 막 검질 업세곡 두 번 것도 두 번쯤 갈아가지고 헹. 것도 세불 검질 메야뒈여.(거 처음에 아주 김을 없애고 두 번 것도 두 번쯤 갈아가지고 해서. 것도 세벌 김을 매야 되어.)

103039 @ 아.(아.)

103039 #1 이 조 ᄇᆞᆯ리는 거나 거이 비슷허게 헤영 수확헤여.(이 조 밟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해서 수확해.)

103039 @ 아, 세 번 검질예.(아, 세 번 김요.)

103040 @ 이것도 여름 농사난에 한 팔월?(이것도 여름 농사니까 한 팔월?)

103040 #1 응.(응.)

103040 @ 팔월예. 이것도 뭐 저기 준비는 뭐 씨 준비허고.(팔월요. 이것도 뭐 저기 준비는 뭐 씨 준비하고.)

103040 #1 응.(응.)

103040 @ 뭐 밧가는 거 쉐예?(뭐 밭가는 거 소요?)

103040 #1 응.(응.)

103040 @ 밧갈쉐 허곡 경 허큰게마씨예?(황소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103040 #1 응.(응.)

103040 @ 허기 전에는.(하기 전에는.)

103040 #1 어.(어.)

103040 @ 검질을 없에고.(김을 없애고.)

103040 #1 걸름 걸름도 별로(거름 거름도 별로,)

103040 @ 걸름도 별로 엇고예.(거름도 별로 없고요.)

103040 #1 업고.(없고.)

103040 @ 여름이라노니까예.(여름이라서요.)

103040 #1 겨울 농ᄉᆞ헤난 디면은 뒈니까. 겨울에 걸름 헤, 헤나난. 기자.(겨울 농사했던 곳이면 되니까. 겨울에 거름 해, 했으니까. 거저)

103040 @ 응.(응.)

103040 #1 연달아 허는 거난.(연달아 하는 거니까.)

103040 @ 예 거름. 넣으니까는예, 놓아서 거름. 그 팔월 그냥 대중엇이 팔월에 가는가마씨?(예 거름. 넣으니까요. 넣어서 거름. 그 팔월 그냥 대중없이 팔월에 가는가요?)

103040 #1 팔월, 팔월엔 검질멜 걸. 칠월 달에 갈 거라.(팔월, 팔월에는 김맬 걸.

칠월 달에 갈 거야.)

103040 @ 아 칠월? 칠월에.(아 칠월에? 칠월에.)

103040 #1 으, 팔월 달에 검질메곡. 헤영.(으, 팔월 달에 김매고. 해서.)

103040 @ 응.(응.)

103040 #1 뭐 가을에 것도 수확ᄒᆞ는 거난.(뭐 가을에 것도 수확하는 거니까.)

103040 @ 응.(응.)

103041 #1 산듸도 가을에 수확 허주게. 게난 그 산듸는 본래 여기도 좋은 땅엔 안 갈아. 저 우르 간 갈주.(밭벼도 가을에 수확하지. 그러니까 그 밭벼는 본래 여기도 좋은 땅에는 안 갈아. 저 위로 가서 갈지.)

103041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3041 #1 게난 우르 간 가난. 가난 척박헌 땅이고 헤노니까. 그거를 걸름이라도 잘헤여근에. 좀 공 들이면은.(그러니까 위로 가서 가니까. 가니까 척박한 땅이고 해서. 그거를 거름이라도 잘해서. 좀 공 들이면.)

103041 @ 잘 나올 건디.(잘 나올 건데.)

103041 #1 잘 뒐 건디. 이거 뒈민 뒈고 말민 말라 허는 식으로. 거 웃드르[99] 간 갈아 불민.(잘 될 건데. 이거 되면 되고 말면 말라 하는 식으로. 거 '웃드르' 가서 갈아 버리면.)

103041 @ 응.(응.)

103041 #1 좀 수확이 저조ᄒᆞ고.(좀 수확이 저조하고.)

103041 @ 응.(응.)

103041 #1 뭐 그렇다고 헤서 무신 수확이 안 뒈는 거는 아니난에.(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수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103041 @ 예, 웃드르 가근에 허니까네예.(예, '웃드르' 가서 하니까요.)

103041 #1 응.(응.)

103042 @ 씨 뿌리기도, 음 밭 씨 뿌림도 어떵.(씨 뿌리기도, 음 밭 씨 뿌리는 것도 어떻게.)

103042 #1 아, 밧 임제가 게 강 싹싹 삐영게.(아, 밭 임자가 게 가서 싹싹 뿌려서.)

103042 @ 예 임제가예. 임제가 그냥 싹싹 뿌령.(아, 임자가요. 임자가 그냥 싹싹 뿌려서.)

103042 #1 아, 거 다 뿌려 가면은 다 손에서 맞추왕 뿌려져 가는 거주게. 거 흔 두 헤 농ᄉᆞ허는 것도 아니고. 헤, 헤, 헤.(아, 거 다 뿌려 가면 다 손에서 맞추어서 뿌려져 가는 거지. 거 한 두 해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 헤, 헤, 헤.)

103043 @ 예, 세 번은.(예, 세 번은.)

103043 #1 팔월 달에 검질 메고 가을에 것도 수확 허는 거난.(팔월 달에 김매고 가을에 것도 수확하는 거니까,)

---

99) '웃드르'는 위에 있는 들 들판의 뜻으로 한라산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들이다.

103044 @ 그 검질은 어떤 것들이 어떤 검질이 잇어신고예. 검질예.(그 김은 어떤 것들이 어떤 김이 있었는가요. 김요.)

103044 #1 거 주로 제완지 ᄀᆞ뜬 거. 거 주로 제완지가.(거 주로 바랭이 같은 거. 거 주로 바랭이가.)

103044 @ 저 산듸에는 제완지마씨?(저 밭벼에는 바랭이요?)

103044 #1 으, 거 웃드르니까. 제완지가 하영 나지게.(으, 거 '웃드르'니까. 바랭이가 많이 나지.)

103044 @ 제완지허고 또?(바랭이하고 또?)

103044 #1 응, 무신 풀이름을 알아지크라. 아, 제완지가 주로.(응, 무슨 풀이름을 알아지겠어. 아, 바랭이가 주로.)

103044 @ 예, 제완지 주로예.(예, 바랭이가 주로요.)

103045 @ 수확은 어떵 헙니까? 수확은.(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수확은.)

103045 #1 수확?(수확?)

103045 @ 비는 거.(베는 거.)

103045 #1 역시 뭐 조 비는 거나.(역시 뭐 조 베는 거나.)

103045 @ 보리 비는 거나게.(보리 베는 거나.)

103045 #1 보리 비는 거나 거이.(수확, 보리 베는 거나 거의.)

103045 @ 허고 또 저기, 도리께 이것도 도리께.(하고 또 저기, 도리깨 이것도 도리깨.)

103045 #1 으, 산딘 그냥 찝 차 놩 두드린다.(으, 밭벼는 그냥 짚 채로 놓아서 두드린다.)

103045 @ 아, 찝 차.(아, 짚 채.)

103045 #1 으, 홀트지도 안 형. 그자 찝 차 놩 막 푹ᄉᆞᆨ푹ᄉᆞᆨ 두드리멍.(으, 홅지도 안 해서. 그저 짚 채 놓아서 마구 푹석푹석 두드리면서.)

103045 @ 아. 두드리멍 찝 체. 이것도 이거 헹 와으네. 저기 이 한 바리 헤가지고 시껑 와근에 마당에서 허는 거 아니우꽈예.(아. 두드리면서 짚 채. 이것도 이거 해서 와서. 저기 이 한 바리 해가지고 실어서 와서 마당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요.)

103045 #1 응.(응.)

103045 @ 타작은예. 이거 묶으는 거는 또 산듸는 산듸로 그냥 무끄큰게예.(타작은요. 이거 묶는 거는 또 밭벼는 밭벼로 그냥 묶겠네요.)

103045 #1 응, 산듸 산듸로 무끄는 거.(응, 밭벼 밭벼로 묶는 거.)

103045 @ 묶기예? 한 바리로 해가지고.(묶기요? 한 바리로 해가지고.)

103045 #1 응.(응.)

103045 @ 그거 헐 때 밑에 저 멍석이나 뭐 깝니까? 아니면 그냥 헙니까?(그거 할 때 밑에 저 멍석이나 뭐 깝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103045 #1 그냥 그 마당 잘 씰어뒁.(그냥 그 마당 잘 쓸어두어서.)

103045 @ 잘 씰어뒁.(잘 쓸어두어서.)

103045 #1 응.(응.)
103045 @ 그대로 그 위에 놩으네.(그대로 그 위에 놓아서.)
103045 #1 응.(응.)
103045 @ 멍석 같은 거 안 깔앙.(멍석 같은 거 안 깔아서.)
103045 #1 응, 멍석은 옆에 깔아. 그 뛰어난 거 씰젠.(응, 멍석은 옆에 깔아. 그 튀어난 거 쓸려고.)
103045 @ 거 튀는 거 튄 거.(거 튀는 거 튄 거.)
103045 #1 응, 그 옆에꺼지 다 헤부리면 그디 다 정리를 못허니까. 그 그 두드리는 디만은 쪼금 단단허주게.(응, 그 옆에까지 다 해버리면 그데 다 정리를 못하니까. 그 그 두드리는 데만 조금 단단하지.)
103045 @ 게난 다 빗자루까지 쓸어으넹에 마당 탄탄허게 헤영.(그러니까 다 빗자루까지 쓸어서 마당 탄탄하게 해서.)
103045 #1 응.(응.)
103045 @ 옆에는 멍석 좀 깔고.(옆에는 멍석 좀 깔고.)
103045 #1 옆에 돌아가멍은 멍석 다 꿀아.(옆에 돌아가면서는 멍석 다 깔아.)
103046 @ 산듸로는 무얼 허는고예?(밭벼로는 무얼 하는가요?)
103046 #1 아, 밥 헤먹고.(아, 밥 해먹고.)
103046 @ 메 쌀예.(메 쌀요.)
103046 #1 으.(으.)
103046 @ 메 쌀, 메 밥.(메 쌀, 메 밥.)
103046 #1 으.(으.)
103046 @ 또.(또.)
103046 #1 아, 떡도 헤먹곡. ᄀᆞ루 ᄀᆞᆯ민,(아, 떡도 해먹고. 가루 갈면,)
103046 @ ᄀᆞ루 ᄀᆞᆯ민, 떡도 ᄒᆞ곡.(가루 갈면, 떡도 하고.)
103046 #1 떡도 ᄒᆞ곡.(떡도 하고.)
103046 @ 대부분 제사로? 먼저.(대부분 제사로? 먼저.)
103046 #1 응.(응.)
103046 @ 예 제사 먼저.(예 제사 먼저.)
103046 #1 응.(응.)
103046 @ 이걸로 산듸쏠을 흰쏠에 백미렌 헤신가마씨?(이걸로 밭벼쌀을 흰쌀에 백미라고 했는가요?)
103046 #1 곤쏠.(흰쌀.)
103046 @ 곤쏠.(흰쌀.)
103046 #1 곤밥.(흰밥.)
103046 @ 이게 희난예. 곤쏠ᄒᆞ고는 다르니까. 곤쏠 곤밥.(이게 희니까요. 흰쌀하고는 다르니까. 흰쌀 흰밥.)
103047 @ 이 찧은 산듸찧은예. 이 볏찧은예.(이 짛은 밭볏짛은요. 이 볏짛은요.)

103047 #1 것도 거 게난 찔이 그, 전부가 다 그 소요 뒈여. 아 쉐도 주곡.(것도 거 그러니까 짚이 그, 전부가 다 소요 돼. 아 소도 주고.)

103047 @ 쉐예.(소요.)

103047 #1 통시에도 끌곡.(뒷간에도 깔고.)

103047 @ 멕 안 짜수과?(멱서리 안 짰습니까?)

103047 #1 아 그, 멕도 줄앗주게. 산듸찔헤여근에 멍석도 줄곡.(아, 그 멱서리도 결었지. 밭볏짚해서 멍석도 겯고.)

103047 @ 산듸찔헤여근에 멍석도 줄고.(밭볏짚해서 멍석도 겯고.)

103047 #1 어.(어.)

103047 @ 멩텡이 멩텡이.(망태기 망태기.)

103047 #1 멩텡이도 줄곡. 방석도 줄곡.(망태기도 겯고 방석도 겯고.)

103047 @ 방석예, 또.(방석요. 또.)

103047 #1 멍석.(멍석.)

103047 @ 신 신.(신 신.)

103047 #1 어 초신도 삼고.(어 짚신도 삼고.)

103047 @ 예 초신도 삼고예. 그 ᄀᆞ레 ᄀᆞᆯ 때 똥골랑 헌 거 무시거렌 헙니까?(예 짚신도 삼고요. 그 맷돌 갈 때 동그랗게 한 거 무엇이라고 합니까?)

103047 #1 어디? ᄀᆞ레 바닥에 ᄁᆞ는 거?(어디? 맷돌 바닥에 까는 거?)

103047 @ 예.(예.)

103047 #1 것도.(것도.)

103047 @ 멍석.(멍석.)

103047 #1 멍석 ᄀᆞ뜬 건디, 그건 명칭은 ᄯᅳ로 잇어 그거.(멍석 같은 건데, 그건 명칭은 따로 있어 그거.)

103047 @ 거 잇지예?(거 있지요?)

103047 #1 으, ᄀᆞ레 밑에 ᄀᆞᆯ아근에.(으, 맷돌 밑에 깔아서.)

103047 @ 똥그랑 헌 거.(동그랗게 한 거.)

103047 #1 똥글락헤근에 그 ᄀᆞ레 ᄀᆞᆯ아진 거 다 떨어지게 ᄒᆞ는디.(동그랗게 해서 그 맷돌 갈아진 거 다 떨어지게 하는데.)

103047 @ 예, 예. 거, 넬랑 예펜[100] 삼춘헌티 한번 들어보고. 그 똥글랑 흔 것이 뭔지 모르겠네. 멍석은 늬게만찍 헌 게 멍석이고.(예, 예. 거, 내일랑 '여편' 삼촌한테 한번 들어보고. 그 동그랗게 한 것이 뭔지 모르겠네. 멍석은 네모방정 한 것이 멍석이고.)

103047 #1 응.(응.)

103047 @ 그 ᄀᆞ레이. 뚱근 거 이서예? 그 돌 ᄀᆞ레 ᄀᆞᆯ 때 똥글랑 헌 거 있는데 그게 이름이 잇서.(그 맷돌이. 둥근 거 있어요? 그 돌 맷돌 갈 때 동그랗게 한 거 있는데 그게 이름이 있어.)

---

100) '예펜' '예청' '여편(女便)' 나이든 여자를 가리키는 제주말이다.

103047 #1 응.(응.)

103047 @ 조도 보면은 그기 놔근에 도리* 뭘로 덩드렁마께로 이렇게 부수기도 허고. 그런데도 잇고.(조도 보면 거기 넣어서 도리* 뭘로 던드렁방망이 이렇게 부수기도 하고. 그런데도 있고.)

103048 @ 저기 밭벼농사에 이것도 마찬가지. 산듸 심어난에 경험이나 추억이나 좋은 거 이시민.(저기 밭벼농사에 이것도 마찬가지. 밭벼 심어나서 경험이나 추억이나 좋은 거 있으면.)

103048 #1 어이고 추억이 엇어. 얼마 허지도 안 헤나부난 그거.(아이고 추억이 없어. 얼마 하지도 안 했어버리니까 그거.)

103048 @ 이거 얼마 허지 안 헤나난예.(이것 얼마 하지 안 했었으니까요.)

103048 #1 응.(응.)

고구마 농사

103049 @ 그 다음 감저 우리는 감저엔 헷잖아예.(그 다음 고구마 우리는 고구마라고 했잖아요.)

103049 #1 응.(응.)

103049 @ 감저농사예. 저기 준비를 어떵 헙니까?(고구마농사요. 저기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103049 #1 아, 그거는 전헤에 그 감저를 케면은. 그 고구마 저장ᄒᆞ는 게. 좀 쉽질 아녀.(아, 그것은 전해에 그 고구마를 캐면. 그 고구마 저장하는 것이. 좀 쉽질 않아.)

103049 @ 감저 아니 감저예.(고구마 아니 고구마예.)

103049 #1 응, 저장허는 게, 웨 그런고 허니까. 흑구덩이를 이, ᄒᆞᆫ 이 메다파야 뭴 거라.(응, 저장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흙구덩이를 이, 한 이 미터파야 될 거야.)

103049 @ 아.(아.)

103049 #1 파서 그 구뎅이에게 온도를 맞추기 위헤서 그 구뎅이를 땅을 파서 그 감저를 저장ᄒᆞ는 거주게.(파서 그 구덩이에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구덩이를 땅을 파서 그 고구마를 저장하는 거지.)

103049 @ 예, 예.(예, 예.)

103049 #1 저장헹. 옆에 찢 다 ᄀᆞᆯ고 뭘 헤가지고 감저. 춤 상처 안 난 걸로 헹. ᄌᆞ근ᄌᆞ근 놓아근에 그거를. 전헤에 게서. 겨울을 넹겨 그듸서게.(저장해서 옆에 짚 다 깔고 뭘 해가지고 고구마. 참 상처 안 난 걸로 해서. 자근자근 넣어서 그거를. 전해에 그래서. 겨울을 넘겨 그곳에서.)

103049 @ 예.(예.)

103049 #1 게 봄 뒈면은 그 감저를 가져가지고 종자를 이 감저 순 나오게, 순을 놓아 가지고 그걸 케여야.(그래서 봄 되면 그 고구마를 가져가지고 종자를 이 고구

마 순 나오게, 순을 놓아 가지고 그걸 캐야.)

103049 @ 예.(예.)

103049 #1 밧에 가서 심을 수 잇단 말이여.(밭에 가서 심을 수 있단 말이다.)

103049 @ 예.(예.)

103050 #1 경 ᄒᆞ난. 그거 봄에 그 모종. 묘종이주게. 감저 묘종을 놓아가지고. 춤 그거 뚯뚯이 뭐.(그렇게 하니까. 그거 봄에 그 모종. 모종이지. 고구마 모종을 놓아가지고. 참 그거 따뜻이 뭐.)

103050 @ 감저 줄을, 감저 줄을 헤당.(고구마 기는줄기를, 고구마 기는줄기를 해다가.)

103050 #1 응.(응.)

103050 @ 심엉.(심어서.)

103050 #1 아 저 그 줄을 키우기 위헤서.(아 저 그 줄을 키우기 위해서.)

103050 @ 묘종을 심엉.(모종을 심어서.)

103050 #1 응, 감저를 걸름 잘 허여근에. 그 ᄌᆞ근ᄌᆞ근 놓앙 허면은. 감저 순이 나서 클 거 아니라게.(응, 고구마를 거름 잘 해서. 그 자근자근 놓아서 하면. 고구마 순이 나서 클 거 아니야.)

103050 @ 예.(예.)

103050 #1 경 ᄒᆞ민 그걸 쫄라당 밧에 밧 갈아근에 그.(그렇게 하면. 그걸 잘라다가 밭에 밭 갈아서 그.)

103050 @ 허잖아예.(하잖아요.)

103050 #1 밧이렁에.(밭이랑에.)

103050 @ 예.(예.)

103050 #1 헹 심어 놓으면 감자가 들 거주. 거기에.(해서 심어 놓으면 고구마가 들 거지. 거기에.)

103050 @ 예 그 묘종 저기 묘종을 허젠 처음에 순 저기 나젠 허면은 그 심는 거를 무신 거엔 헙니까? 그냥 감저순 놧저 헙니까?(예 그 모종 저기 모종을 하려고 처음에 순 저기 나려고 하면 그 심는 것을 무슨 거라고 합니까? 그냥 고구마 순 놨다 합니까?)

103050 #1 아, 묘종.(아, 모종.)

103050 @ 묘종 놧저 헙니까?(모종 놨다 합니까?)

103050 #1 으, 감저 묘종밧이주게. 그게.(응, 고구마 모종밭이지. 그게.)

103050 @ 감저 묘종밧이엔 헤수과?(고구마 모종밭이라고 했습니까?)

103050 #1 으.(으.)

103050 @ 그 옛날도 묘종밧이엔 헤나수과?(그 옛날도 묘종밭이라고 했었습니까?)

103050 #1 으, 감저 키우기 위ᄒᆞᆫ 거주게.(으, 고구마 순을 키우기 위한 거지.)

103050 @ 게난예. 묘종밧예. 거문 그.(그러니까요. 모종밭요. 그러면 그.)

103050 #1 게난 그 감저묘종이 잘 뒈야 감저가 많이 갈곡.(그러니까 그 고구마 모종이 잘 되어야 고구마가 많이 갈고.)

103050 @ 예.(예.)

103050 #1 그 묘종에 따라서.(그 모종에 따라서.)

103050 @ 예 허는 거난.(예 하는 것이니까.)

103050 #1 농ᄉᆞ를 홀 수 잇는 거니까.(농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103050 @ 게난 감저 순은 지럭시가 어느 정도 정도 저기까지 키와기네 그걸 잘라다근에.(그러니까 고구마 순은 길이가 어느 정도 정도 저기까지 키워서 그것을 잘라다가.)

103050 #1 아 게난.(아 그러니까.)

103050 @ 헤시코마씨?(했을까요?)

103050 #1 아 그건 일찍 놔서 뭘 허면은 그것도 유월절 경에 놓는 거니까.(아 그건 일찍 놔서 뭘 하면은 그것도 유월절 경에 놓는 거니까.)

103050 @ 아, 예예.(아, 예예.)

103050 #1 묘를 심는 거니까.(모를 심는 거니까.)

103050 @ 예.(예.)

103050 #1 이제 그, 키우당 보면 막 ᄒᆞᆫ 발도 키울 수 잇서. 게민 이거.(이제 그, 키우다 보면 마구 한 발도 키울 수 있어. 그러면 이거.)

103050 @ 잘라야 되잖아예?(잘라야 되잖아요?)

103050 #1 이거 이거 잘르면서 다 놔.(이거 이거 자르면서 다 놔.)

103050 @ 예.(예.)

103050 #1 크민 클수록 많이 놓주게.(크면 클수록 많이 놓지.)

103050 @ 아, 예, 예.(아, 예, 예.)

103050 #1 어, 그 묘종이 길면 길수록 다 ᄍᆞ끔씩 쫄르면서.(어, 그 모종이 길면 길수록 다 조금씩 자르면서.)

103050 @ 짜르니까는예.(자르니까는요.)

103050 #1 밧에 심으면은 경 줄게, 쫄랑 심어야 감저가 많이 들주게.(밭에 심으면 그렇게 잘게, 잘라서 심어야 고구마가 많이 들지.)

103050 @ 아, 줄게, 쫄라사.(아, 잘게 잘라야.)

103050 #1 응.(응.)

103050 @ 줄게면은 ᄒᆞᆫ 삼십 센치마씨? 아니면.(잘게면 한 삼십 센티요? 아니면.)

103050 #1 으응 삼십 쎈치 안 짤라도 ᄒᆞᆫ 십오 센치 쫄라도.(으응 삼십 센치 안 잘라도 한 십오 센티 잘라도.)

103050 @ 아.(아.)

103050 #1 그영 ᄒᆞ면은.(그렇게 하면은.)

103050 @ 아, 십오 센치마씨?(아, 십오 센티요?)

103050 #1 으, 그 흔 굽들이[101]에 그거. 흔 굽에서벳기 감저가 안 들어.(으, 그 한 '굽들이'에 그것, 한 '굽'에서밖에 고구마가 안 들어.)

103050 @ 아, 거문(아, 그러면.)

103050 #1 요 요만이 쫄르메. 요기서.(요 요만큼 자른다. 여기서.)

103050 @ 아.(아.)

103050 #1 처음 처음.(처음 처음.)

103050 @ 처음에서예.(처음에서요.)

103050 #1 으.(으.)

103050 @ 게문 심을 떼는 이거 이 순허고. 이 순 사이에는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근에 심어신고예?(그러면 심을 때는 이거 이 순하고. 이 순 사이에는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서 심었는가요?)

103050 #1 즈근즈근 심어서.(자근자근 심었어.)

103050 @ 그냥 즈근즈근? 예.(그냥 자근자근? 예.)

103050 #1 응.(응.)

103050 @ 아 즈근즈근예.(아 자근자근요.)

103050 #1 응.(응.)

103051 @ 경허고, 감저 헐 떼는 이거도 이것 저기 거름이 이서야 뒐 거 아니우꽈예.(그렇게 하고, 고구마 할 때는 이거도 이것 저기 거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요.)

103051 #1 감저 홀 때도 여름 농스난 거름은 아니헤여게.(고구마 할 때도 여름 농사니까 거름은 아니해서.)

103051 @ 예 거름 안헤여예.(예 거름 안 해서요.)

103051 #1 응.(응.)

103051 @ 거름 없고예.(거름 없고요.)

103051 #1 그 옌날에는 거름 엇이 헤서.(그 옛날에는 거름 없이 했어.)

103051 @ 예.(예.)

103051 #1 건 기자 잘만 갈앙. 땅 그 북삭[102]지게만 잘 갈앙 헤여근에. 삭삭 찔렁 놔두면은.(그건 거저 잘만 갈아서. 땅 푸석하게만 잘 갈아서 해서. 삭삭 찔러서 놓아두면.)

103051 @ 예.(예.)

103051 #1 감전 잘 들어.(고구마는 잘 들어.)

103051 @ 예.(예.)

103051 #1 이 근방 감저 잘 들주게.(이 근방 고구마 잘 들지.)

103051 @ 그 아, 거름 엇이도 이 근방에는예.(그 아, 거름 없이도 이 근방에요.)

103051 #1 예.(예.)

---

101) '굽들이' 심어진 나무나 세워진 기둥 따위의 밑동 뿌리까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고구마 줄기를 심어 넣을 수 있는데 까지를 말하고 있다.

102) '복삭'은 푸석의 의미로 쓰였다.

103051 @ 이 근처는.(이 근처는.)
103051 #1 응.(응.)
103051 @ 저, 솥 강알에 저 무스것꽈?(저 솥 밑에 저 무슨 것입니까?)
103051 #1 불치?(재?)
103051 @ 불치 안 헤나수과?(재 안 했습니까?)
103051 #1 아 그 불치를 다 어떵. 그 천 평 밧에. 만약에 천 평 밧에 그 불치를 얼말 헤당 그걸 다 뿌릴 말이라.(아 그 재를 다 어떻게. 그 천 평 밭에. 만약에 천 평 밭에 그 재를 얼마를 해다가 그것을 다 뿌릴 말이야.)
103051 @ 응.(응.)
103051 #1 게 불치가 그 석훼 거시기로 상당이 좋은 거름인디.(그럼 그 재가 그 석회 거시기로 상당히 좋은 거름인데.)
103051 @ 아 불치 안 뿌려낫구나.(아 재는 안 뿌렸었구나.)
103051 #1 게난 이 나무 싱글 때는 이 불치를 쪼끔씩 놩 싱그면 나무 싱글 땐 춤 좋아.(그러니까 이 나무 심을 때는 이 재를 조금씩 놓아서 심으면 나무 심을 땐 참 좋아.)
103051 @ 응.(응.)
103051 #1 뿌리 발육이 상당이 잘 뒈여.(뿌리 발육이 상당이 잘 돼.)
103051 @ 예, 예 아, 그렇구나예. 조금 쉬고.(예, 예 아, 그렇군요. 조금 쉬고.)
103052 @ 고구마, 저기 그 싱글 때는 그 ᄌᆞ근ᄌᆞ근 허는디. 이거 다시 이렇게 꾼꾼 눌르거나 붋거나 경 안헙니까?(고구마, 저기 그 심을 때는 그 자근자근 하는데. 이거 다시 이렇게 꼭꼭 누르거나 밟거나 그렇게 안합니까?)
103052 #1 아니.(아니.)
103052 @ 경 아녀?(그렇게 아니해?)
103052 #1 거 그냥 심엉 네불어.(거 그냥 심어서 내버려.)
103052 @ 그냥 톡 놔근에 흑만 덮어 불엉마씨?(그냥 톡 놓아서 흙만 덮어 버려요?)
103052 #1 응.(응.)
103052 @ 톡 놓고 흑 덮으곡.(톡 놓고 흙 덮고.)
103052 #1 아니 영 긋어 쪼끔게. 흑 흑이 북삭지니까.(아니 이렇게 그어 조금. 흙 흙이 폭삭하니까.)
103052 @ 예.(예.)
103052 #1 손으로 삭 긋으민 그 홈이 파지잖아게.(손으로 삭 그으면 그 홈이 파지잖아.)
103052 @ 예, 예.(예예.)
103052 #1 게민 그레 순 놓와근에.(그럼 거기에 순을 놓아서.)
103052 @ 아, 손으로?(아, 손으로?)
103052 #1 응.(응.)

103052 @ 고랑이 이렇게 뒈니까 밧 고랑 제일 위에.(고랑이 이렇게 되니까 밭 고랑 제일 위에.)

103052 #1 응 이렁에.(응 이랑에.)

103052 @ 응.(응.)

103052 #1 흑 덮어부리민 뒈는 거주.(흑 덮어 버리민 되는 거지.)

103052 @ 꼰꼰 눌르지 안하고예.(꼭꼭 누르지 않고요.)

103052 #1 아이 그냥 혹 헤버리민 경 헤도 다 살아나.(아이 흙 해 버리면 그렇게 해도 다 살아나.)

103052 @ 응 어느 지경에는 눌러야 뭰덴.(응 어느 지경에는 눌러야 된다고.)

103052 #1 아이 혹 싹 씨와불민 다 살아나.(아이 흙 싹 씌워버리면 다 살아나.)

103053 @ 응 김메기는 고구마 밭디 김 검질은?(응 김매기는 고구마 밭에 김 김은?)

103053 #1 어, 거 혼 번쯤 메여.(어, 거 한 번쯤은 매어.)

103053 @ 아, 혼 번 혼 번쯤.(아, 한 번 한 번쯤.)

103053 #1 혼 번쯤 그 고랑에 가근에 거 영 나오는 거 메여부리민 그것도 역시 또 감젓 쭐 번성헤여 불민.(한 번쯤 그 고랑에 가서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매어버리면 그것도 역시 또 고구마 기는줄기 번성해 버리면.)

103053 @ 예.(예.)

103053 #1 다른 검질이.(다른 김이.)

103053 @ 으. 그 경 혀곡 검질은 아까 어떤 거 정도? 검질은 어떵 종류 같은 거 잇수과?(으. 그 그렇게 하고 김은 아까 어떤 거 정도? 김은 어떤 종류 같은 거 있습니까?)

103053 #1 아이 게메, 종뉴를 나 검질 종류를 몰라게.(아이 그러니까, 종류를 나 김 종류를 몰라.)

103053 @ 것도 들어보게예. 여청 삼촌한티예.(그것도 들어봐요. '여편' 삼촌한테요.)

103053 #1 응.(응.)

103053 @ 거기는 쒜비늠 ᄀᆞ뜬 것도 잇어나시냐고.(거기는 쇠비름 같은 것도 있었냐고.)

103053 #1 거 쒜비늠도. 이 뭐 아니 간 떼. 뭐 갈아불민 안 나.(거 쇠비름도. 이 뭐 아니 갈 때. 뭐 갈아버리면 안 나.)

103053 @ 으.(으.)

103053 #1 으 안 갈앙 빈 밧으로 이실 떼. 에, 혼 오유월 때 이거 낭. ᄒᆞ는 거주. 그 농ᄉᆞ진디 쒜비늠 나는 건 난 별로 안 봐서.(으 안 갈아서 빈 밭으로 있을 때. 에, 한 오뉴월 때 이거 나서 하는 거지. 그 농사지은데 쇠비름 나는 건 난 별로 안 봤어.)

103053 @ 아 깃꽈? 응.(아 그렇습니까? 응.)

103055 @ 고구마 수확은예. 저기 어떵 헙니까? 맨 처음에 감저 감저 쭐 걷어근에.(고구마 수확은요. 저기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고구마 고구마 기는줄기 걷어서.)

103055 #1 감젓 쭐 걷엉.(고구마 기는줄기 걷어서.)

103053 @ 응.(응.)

103055 #1 그 다음은 뭐 판이로 앚아근에 파가민 뒐 거주 뭐.(그 다음은 뭐 판으로 앉아서 파가면 될 거지 뭐.)

103055 @ 파는 거는 저기 골겡이로예?(파는 거는 저기 호미로?)

103055 #1 응.(응.)

103055 @ 골겡이로 파고, 또 모당 놔두면은 그거를.(호미로 파고, 또 모여두면 그거를.)

103055 #1 경 헹 파멍 모두왕 놧당. 그거 용도에 따라서 전분공장에 보네젠 허민.(그렇게 해서 파면서 모아놓아서 놨다가. 그거 용도에 따라서 전분공장에 보내려고 하면.)

103053 @ 응.(응.)

103055 #1 전분공장 마다리.(전분공장 마대.)

103055 @ 아 마다리.(아 마대.)

103055 #1 그 헤다근에 담아근에.(그 해다가 담아서.)

103055 @ 담고, 경 허곡 경 안허면은.(담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하면.)

103055 #1.(이.)

103055 @ 절간 절간.(절간고구마 절간고구마.)

103055 #1 응.(응.)

103055 @ 헤가지고?(해가지고?)

103055 #1 것도 뭐 그릇에 담앙 시껑.(그것도 뭐 그릇에 담아서 실어서.)

103055 @ 예.(예.)

103055 #1 촐왓디나 잔디밧디나.(꼴밭에나 잔디밭에나.)

103053 @ 으.(으.)

103055 #1 테역밧.(잔디밭.)

1103055 @ 예, 예.(예, 예.)

103055 #1 오름 ᄀᆞ뜬디. 이제 그 촐밧 주로 이용헷주.(오름 같은데. 이제 그 꼴밭 주로 이용했지.)

103053 @ 으.(으.)

103055 #1 그 디 가근에 절간기계로 썰엉 널엇당 들이면 뒈는 거주.(그 데 가서 절간기계로 썰어 널었다가 들이면 되는 거지.)

103055 @ 예, 예.(예, 예.)

103056 @ 저기 고구마는 고구마 보관하는 거예?(저기 고구마는 고구마 보관하는 거요?)

103056 #1 응.(응.)
103056 @ 아까는 씨는 경 헷주만은 그냥 일반 고구마.(아까는 씨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냥 일반 고구마.)
103056 #1 일반 고구마.(일반 고구마.)
103056 @ 것도 마찬가지.(것도 마찬가지.)
103056 #1 고구마 게난 그게.(고구마 그러니까 그게.)
103056 @ 구뎅이 파근에.(구덩이 파서.)
103056 #1 으, 그 겨울에 먹는 것도 다 구뎅이 팡.(으, 그 겨울에 먹는 것도 다 구덩이 파서.)
103056 @ 으.(으.)
103056 #1 헤엿당. 빠다근에 청 먹고 허엿주게.(했다가. 빼어다가 쪄서 먹고 했지.)
103056 @ 예 구뎅이예.(예 구덩이요.)
103056 #1 거 온도 때문에.(그것 온도 때문에.)
103056 @ 예.(예.)
103056 #1 다 썩어불어근에 그.(다 썩어버려서 그.)
103056 @ 맞수다예.(맞습니다요.)
103056 #1 뭘 못 헤여.(뭘 못해.)
103056 @ 거문 한 이미터쯤은 파고.(그러면 한 이미터쯤은 파고.)
103056 #1 으.(으.)
103056 @ 게도 우에 올리는 건 잇지 안우꽈?(그래도 위에 올리는 건 있지 않습니까?)
103056 #1 으.(으.)
103056 @ 우에 올리는 것도?(위에 올리는 것도?)
103056 #1 헤여근에 노람지 덮엉.(해서 그것도 낟가리 덮어서.)
103056 @ 으.(으.)
103056 #1 죽.(죽.)
103056 @ 예.(예.)
103056 #1 물 잘 발게[103] 헤영.(물 잘 '발게' 해서.)
103056 @ 예.(예.)
103056 #1 노람지 더꺼어근에 물 다 바깟드레.(낟가리 덮어서 물 다 바깥으로.)
103056 @ 예, 노람지?(예, 낟가리?)
103056 #1 안드로 물들민은.(안쪽으로 물들면.)
103056 @ 안뒈니깐예.(안되니까요.)
103056 #1 다 썩어불주.(전부 썩어버리지.)
103056 @ 예.(예.)

103) '발'은 '발다'에서 나온 말로 여기서는 물이 발아 내린다는 의미다.

103056 #1 게난.(그러니까.)

103056 @ 예 감저씨 보관은예. 집안에 놔나지 안협디가?(예 고구마씨 보관은요. 집안에 놓았었지 않았습니까?)

103056 #1 씨 보관.(씨 보관.)

103056 @ 그냥.(그냥.)

103056 #1 집안에 놓민 그게 그냥 이서게?(집안에 놓으면 그게 그냥 있어?)

103056 @ 응.(응.)

103056 #1 다 썩어불주. 게난 그거 다 구뎅이 쏘곱에서.(다 썩어버리지. 그러니까 그것 다 구덩이 속에서.)

103056 @ 구뎅이 쏙에서예.(구덩이 속에서요.)

103056 #1 키웡.(키워서.)

103056 @ 예.(예.)

103056 #1 몰라 육지 ᄀᆞ뜬딘 어떵 ᄒᆞ는지 모르주마는.(몰라 육지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103056 @ 예, 예.(예, 예.)

103056 #1 여기에서는 뭐 집 안네ᄁᆞ지 감저 안 들여놓난.(여기에서는 뭐 집 안에까지 고구마 안 들여놓으니까.)

103057 @ 응, 고구마는 고구마로는 이제 절간고구마허고. 씨고구마 허고. 저 먹고.(응, 고구마는 고구마로는 이제 절간고구마하고. 씨고구마하고. 저 먹고.)

103057 #1 으.(으.)

103057 @ 저 먹고 또 저기 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에.(저 먹고 또 저기 가루 갈아다가.)

103057 #1 으.(으.)

103057 @ 아 절간고구마 뺏데기.(아 절간고구마 절간고구마.)

103057 #1 응, 뺏데기 ᄀᆞᆯ아다근에. 그 떡도 헤먹고.(응, 절간고구마 갈아다가. 그 떡도 해먹고.)

103057 @ 예.(예.)

103057 #1 뭐 ᄒᆞ고 게이까 그전에 여기 이 감저 많이 갈 때는 거이. 어느 동네 절간 저 거시기 전분공장[104] 엇인 동네가 엇엇주게.(뭐 하고 그러니까 그전에 여기 고구마 많이 갈 때는 거의. 어느 동네 절간 저 거시기 전분공장 없는 동네가 없었지.)

103057 @ 예, 예.(예, 예.)

103057 #1 응, 고성도 잇섯고 신양도 잇엇고.(응, '고성'도 있었고 '신양'도 있었고.)

103057 @ 예.(예.)

103057 #1 저 온평. 어, 어느 부락 엇인 디가 없엇어. 경 ᄒᆞ니까 거 다 전분공장에 가서, 전분 만드는데 사용헷으니까 그 감저가 다 처리가 뒛주.(저 '온평'. 어, 어

104) '전분공장'는 전분(澱粉)을 만드는 공장이다.

느 마을 없는 데가 없었어. 그렇게 하니까 거 다 공장에 가서, 전분 만드는데 사용했으니까 그 고구마 처리가 됐지.)

103057 @ 맞수다 허, 허, 허.(맞습니다 허, 허, 허.)

103057 #1 그거 절간만 허젠 헤도 처리허지 못 헤여.(그거 절간만 하려고 해도 처리하지 못해.)

103057 @ 예.(예.)

103057 #1 거 몰리지 못헤영.(그것 말리지 못해서.)

103058 @ 응 고구마 쭐은예?(응 고구마 기는줄기는요?)

103058 #1 응.(응.)

103058 @ 고구마 쭐는.(고구마 기는줄기는.)

103058 #1 저 쉐 쉐.(저 소 소.)

103058 @ 쉐 먹는 거예?(소 먹는 거요?)

103058 #1 응 쉐 사료가 일등.(응 소 사료가 일등.)

103058 @ 예 쉐 먹이예. 이거를 이것도 다 가져왕. 눌 눌어근에예.(예 소 먹이요, 이것을 이것도 다 가져와서. 가리 가리해서요.)

103058 #1 응.(응.)

103058 @ 눌, 눌에 눌엇다가. 이거 똥그락똥그락허게 묶어근에. 그 눌엇다근에 ᄒᆞ나씩.(가리, 가리에 가리었다가. 이거 동글동글하게 묶어서. 그 가리었다가 하나씩.)

103058 #1 응.(응.)

103058 @ 흔 단씩 똑똑 빼면서예.(한 단씩 똑똑 빼면서요.)

103058 #1 응.(응.)

103058 @ 고구마 줄거리 저 ᄉᆞᆲ앙 먹어 본 기억은 엇수과?(고구마 줄거리 저 삶아 먹어 보았던 기억은 없습니까?)

103058 #1 아 그, 고구마 순게.(아 그, 고구마 순.)

103058 @ 순예.(순요.)

103058 #1 으. 영 나온 거 헤영 그 껍덕 벳겨둬근에.(으. 이렇게 나온 거 해서 그 껍데기 벗겨두고서.)

103058 @ 뭰장에예.(된장에요.)

103058 #1 다.(다.)

103058 @ ᄉᆞᆲ아근에 뭰장예.(삶아서 된장에요.)

103058 #1 응. 거 먹으민 다 좋은 건디덜.(응. 그것 먹으면 다 좋은 것인데들.)

103058 @ 그 옛날에는.(그 옛날에는.)

103058 #1 그거 홈이 어려와. 허, 허.(그것 하는 것이 어려워. 허, 허.)

103058 @ 어려와 하, 하. 예 맞수다.(어려워 하, 하. 예 맞습니다.)

103059 @ 이것도 고구마 농사에 대한예 그 저 기억 같은 거 경험. 아까 뺏데기.(이것도 고구마 농사에 대한 그 저 기억 같은 거 경험. 아까 절간고구마.)

103059 #1 게 나도 절간은 헤봣는디.(그럼 나도 절간은 해봤는데.)
103058 @ 예.(예.)
103059 #1 거 춤 이 비와가민 난리라.(거 참 이 비와가면 난리야.)
103058 @ 절간예.(절간요.)
103059 #1 거 거게 날씨가 이 농ᄉᆞ엔 헌 건 하늘이 안 도와줭은 좀 체로 이 ᄒᆞ기가 힘든 거주게.(거 거게 날씨가 이 농사라고 한 건 하늘이 안 도와주면 좀 체로 이 하기가 힘든 거지.)
103058 @ 음.(음.)
103059 #1 이거 아무리 잘 뒛자. 거 뭐 ᄒᆞᆫ 번 비오랑 망쳐불민은 모든 게 파산이라. 일 년 네네 고셍 허당도.(이거 아무리 잘 됐다. 거 뭐 한 번 비와서 망쳐버리면 모든 것이 파산이야. 일 년 내내 고생 하다가도.)
103059 @ 응, 비와낭예. 밤이 막 비 맞으면서 그거 들이레 가낫지예.(응, 비 와서요. 밤에 아주 비 맞으면서 그거 들이러 갔었지요?)
103059 #1 그거 가주게 그거.(그거 가지 그거.)
103059 @ 예.(예.)
103059 #1 헤 논 다음에는 뭐 비 왐직 ᄒᆞ면은 ᄃᆞᆫ곡.(해 놓은 다음에는 뭐 비 올 것 같다 하면은 뛰고.)
103059 @ 아무튼 일주일 동안은예.(아무튼 일주일 동안은요.)
103059 #1 에.(에.)
103059 @ 일주일 동안 헤난 다음에.(일주일 동안 하고난 다음에.)

기타 농사

103060 @ 그 다음에는 다른 농산데예. 수박, 농사 저기 헤납디가?(그 다음에는 다른 농산데요. 수박, 농사 저기 했었습니까?)
103060 #1 에이, 그런 거 안 헤봐서.(에이, 그런 거 안 해봤어.)
103060 @ 수박 안허고. 참외 농사. 참외.(수박 안하고. 참외 농사. 참외.)
103061 #1 에이.(에이.)
103061 @ 경 헤도 집에서 먹을 거 수박 ᄒᆞ끔씩.(그렇게 해도 집에서 먹을 거 수박 조금씩.)
103061 #1 아이 그것사 ᄒᆞ주게 거 우잣에.(아이 그것이야 하지. 거 텃밭에.)
103061 @ 예.(예.)
103061 #1 우연네 그런 거 ᄒᆞ주만은.(텃밭에 그런 거 하지만은.)
103061 @ 우연이엔 헙니까? 우연?(텃밭이라고 합니까? 텃밭?)
103061 #1 으.(으.)
103061 @ 아, 우연이예.(아. 텃밭요.)
103061 #1 응.(응.)
103061 @ 예.(예.)

103061 #1 우영에, 그 집 주위에.(텃밭에, 그 집 주위에.)

103061 @ 으.(으.)

103061 #1 땅을 말허는 거라.(땅을 말하는 거야.)

103061 @ 예, 예, 그걸 우연이엔 헙니까? 우영이옝?(예, 예, 그것을 텃밭이라고 합니까? 텃밭이라고?)

103061 #1 우영.(텃밭.)

103061 @ 응, 우영? 응. 우영 우영이서예 저기 수박ᄒᆞ고 참외도 ᄒᆞ끔씩허고.(응, 터앝? 응. 터앝 터앝에서요 저기 수박하고 참외도 조금씩하고.)

103061 #1 으, 아, 이제는 다 미깡[105]낭 심어부난 ᄒᆞ는 거 엇어.(으, 아, 이제는 다 밀감나무 심어버리니까 하는 거 없어.)

103062 @ 옛날에 고추는 어떵 심어수과? 고추 김치.(옛날에는 고추는 어떻게 심었습니까? 고추 김치.)

103062 #1 고추도 마찬가지로 아, 고추도 씨로 헷주게.(고추도 마찬가지로 아, 고추도 씨로 했지.)

103062 @ 예.(예.)

103062 #1 씨로 모종 놩.(씨로 모종 놓아서.)

103062 @ 예.(예.)

103062 #1 ᄍᆞ끔ᄒᆞ게 모종 놧다근에 그거 ᄒᆞ나씩 헹 심엇는디, 요세는 다.(조그맣게 모종 놓았다가 그거 하나씩 해서 심었는데, 요새는 다.)

103062 @ 응.(응.)

103062 #1 모종 사당 다 심어부난.(모종 사다가 다 심어버리니까.)

103062 @ 예, 그때도 이제 저 고추는 경 헤도 김치 허젠 허면은 고춧ᄀᆞ루 쓰젠 허민 경 헤도 ᄒᆞ끔 심어사 될 거 아니우꽈예?(예, 그때도 이제 저 고추는 그렇게 해도 김치 하려고 하면은 고춧가루 쓰려고 하면 그렇게 해도 조금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요?)

103062 #1 응. ᄒᆞ쏠 심엇는디.(응, 조금 심었는데.)

103062 @ ᄒᆞ쏠 심어.(조금 심어.)

103062 #1 고치가 제주도에 고치가 그렇게 안뒈나서.(고추가 제주도에 고추가 그렇게 안 됐었어.)

103062 @ 예, 예.(예, 예.)

103062 #1 아니 요즘은 막 그 ᄆᆞᆯ린 데가 상당이 어려워 가지고.(아니 요즘은 막 그 말리는 데가 상당이 어려워 가지고.)

103062 @ 응.(응.)

103062 #1 아, 여기는 놔두면은 허옇게.(아, 여기는 놓아 두면은 하얗게.)

103062 @ 예, 예.(예, 예.)

103062 #1 그냥 고치가 뒈부리곡 뭐ᄒᆞ곡 뭐 빨갛게.(그냥 고추가 되어버리고 뭐

105) '미깡'은 일본말 미깡(みかん)을 우리말 밀감(蜜柑)으로 발음했다.

하고 뭐 빨갛게.)

103062 @ 예 색깔이 안나.(예 색깔이 안나.)

103062 #1 잘.(잘.)

103062 @ 허질.(하지를.)

103062 #1 몰리질 안 헤여.(말리지지를 안 해.)

103062 @ 예 거는 옛날에도 경허지 안헤수가예?(예 거는 옛날에도 그렇게 하지 안했습니까요?)

103062 #1 응, 겐디 요즘에는 뭐 비니루[106]하우스에 허고들 막 잘 몰리는 모양이데.(응, 그런데 요즘에는 뭐 비닐하우스에 하고들 아주 잘 말리는 모양이던데.)

103062 @ 예 요즘은예. 으 경 헤도 김치허젠 허면은. 빨간 색깔은 나사 될 거난에.(예 요즘은요. 으 그렇게 해도 김치하려고 하면. 빨간 색깔은 나야 될 것이니까.)

103062 #1 허, 허.(허, 허.)

103062 @ ᄒᆞ끔 색깔 날 때.(조금 색깔 날 때.)

103062 #1 아, 게난 아 그 고춧ᄀᆞ루 사당 헴주게. 거 다.(아, 그러니까 아 그 고춧가루 사다가 하고 있지. 거 다.)

103062 @ 아 그 옛날 어머니네 헐 때도.(아 그 옛날 어머니네 할 때도.)

103062 #1 어머니네 헐 때도 뭐 사. 그때도 고춧ᄀᆞ루 장시도 잇어나실 테주게.(어머니네 할 때도 뭐 사. 그때도 고춧가루 장사도 있어났을 테지.)

103062 @ 고춧ᄀᆞ루예 ᄒᆞ끔예.(고춧가루요 조금요.)

103062 #1 응.(응.)

103062 @ 색깔 날 정도로예.(색이 날 정도로요.)

103062 #1 ᄒᆞ끔.(조금.)

103062 @ 우리는 고춧ᄀᆞ루도 거이 엇이 그냥 그 소금에만 절여지는 거ᄀᆞ추록 헤근에 먹어낫덴도 허긴 헙디다마는.(우리는 고추 가루도 거의 없이 그냥 그 소금에만 절여지는 것처럼 해서 먹어났다고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03062 #1 게메.(그러니까.)

103062 @ 고추. 배추.(고추. 배추.)

103063 @ 배추는 이것도 하영 안허고 그냥 저 우연이 헤가지고?(배추는 이것도 많이 안하고 그냥 저 텃밭에 해가지고?)

103063 #1 응.(응.)

103063 @ 예, 우영에 헤가지고예. 이거 ᄂᆞ물로 먹는 거예?(예, 텃밭에 해가지고요. 이거 나물로 먹는 것이요?)

103063 #1 응.(응.)

103064 @ 무수는?(무는?)

103064 #1 아, 무수도 마찬가지로 그자.(아, 무도 마찬가지로 그저.)

103064 @ 어.(어.)

106) '비니루'는 비닐(vinyl)이다.

103064 #1 집에 ᄒᆞ쏠 심엉 ᄉᆞᆼ키.(집에서 조금 심어서 푸성귀.)
103064 @ 예 배추.(예 배추.)
103064 #1 다 ᄉᆞᆼ키로 먹젠.(다 푸성귀로 먹으려고.)
103064 @ ᄉᆞᆼ키로 먹젠예.(푸성귀로 먹으려고요.)
103064 #1 ᄑᆞ는 게 아니고.(파는 것이 아니고.)
103064 @ 예.(예.)
103065 @ 여기 실지로 지슬. 감자, 지슬, 지슬농사도 이것도 여름에 이것도 쏠망 먹젠 허민.(여기 실지로 감자. 감자, 감자농사도 이것도 여름에 이것도 삶아 먹으려고 하면.)
103065 #1 으 응.(으 응.)
103065 @ 하영 심어야 될 건디.(많이 심어야 될 건데.)
103065 #1 경은.(그렇게는)
103065 @ 농사정도로.(농사정도로.)
103065 #1 우리 안 헤봐서.(우리 안 해봤어.)
103065 @ 그냥 먹을 거로?(그냥 먹을 거로?)
103065 #1 응.(응.)
103065 @ 예 ᄊᆞᆲ앙 먹을 거 정도로 간식 정도로예.(삶아서 먹을 거 정도로 간식 정도로요.)
103065 #1 응.(응.)
103066 @ 삼춘, 피 농사는 어떵 헙니까?(삼춘, 피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6 #1 피 농ᄉᆞ 안 헤봣서.(피 농사 안 해봤어.)
103066 @ 여기는 피허고 상관엇인 디난에예.(여기는 피하고 상관없는 데니까요)
103066 #1 저 웃드르라야 피를 허는데.(저 '웃드르'라야 피를 하는데.)
103066 @ 예.(예.)
103066 #1 저 수산 이리 ᄀᆞ뜬디. 수산ᄀᆞ뜬 디는.(저 '수산' 이이 같은데. '수산' 같은 데는.)
103066 @ 응.(응.)
103066 #1 이게 아주 그 궂인 땅에도 뒈는 게 피라.(이것이 아주 궂은 땅에도 되는 것이 피야.)
103066 @ 예.(예.)
103066 #1 응, 게난 나가 엿날 ᄎᆞᆷ 교레 리를. ᄎᆞᆷ 엿날 그 제주시 황세왓[107] 글루 헤연. 그 도리[108]를 춧안 올라간.(응, 그러니까 내가 옛날 참 '교래' 이를. 참 옛날 제주시 '황세왓' 거기로 해서. 그 '교래'를 찾아서 올라갔어.)
103066 @ 아, 도리면은.(아, '교래'면.)
103066 #1 아 이거, 사름. 그떼 봄에 간 떼 안게로 ᄀᆞᆷᄀᆞᆷᄒᆞ여. 어디가 어딘지 몰

107) '항세왓'은 제주시 화북2동의 한 자연마을을 말한다.
108) '도리'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마을의 옛 명칭을 말한다.

라. 아, 사름은 촞아 간. 뭐 일 잇언 가낫는디. 아, 거긴 가니까. 강넹이ᄒᆞ고 감저빼기 안뒌덴 허데.(아 이거, 사람. 그때 봄에 갔었을 때 안개로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 아, 사람은 찾아 가서. 무슨 일 있어서 갔었는데, 아, 거기는 가니까. 강냉이하고 고구마밖에 안된다고 하데.)

103066 @ 아.(아.)

103066 #1 그 당시 교레.(그 당시 '교래.')

103066 @ 응.(응.)

103066 #1 강넹이ᄒᆞ고 감자. 경 헨 아이고 그 주인. 소님 간 걸로 막. 춤. 갈 거엔도 헷고 연락도 헹 갓주만은. 상당이 부담뒈곡.(강냉이하고 고구마. 그렇게 해서 아이고 그 주인. 손님 간 것으로 막. 참. 갈 거라고도 했고 연락도 해서 갔지만. 상당이 부담되고.)

103066 @ 음.(음.)

103066 #1 ᄒᆞ룻ᄌᆞ냑 제우 잔. 둘아나 벳주.(하룻저녁 겨우 자서. 달아나 버렸지.)

103066 @ 아, 게문 거기 형편이 막 어려웟단 말이지예?(아, 그러면 거기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는 말이지요?)

103066 #1 으, 그 옌날게 ᄉᆞ삼사건 떼난 ᄉᆞ삼사건 곧 지난 떼난게.(으, 옛날게 '사삼사건' 때니까 '사삼사건' 곧 지난 때니까.)

103066 @ 예, ᄃᆞ리엔 허민. 저 교래리.(예, '교래'이라고 하면 저. '교래'이.)

103066 #1 교레리.('교래'이.)

103066 @ 경 헷구나예.(그렇게 했군요.)

103067 @ 경 헤도 여기도 ᄆᆞ믈도 안 헤신게예?(그래도 여기에서 메밀도 안했군요?)

103067 #1 ᄆᆞ믈?(메밀?)

103067 @ 예.(예.)

103067 #1 ᄆᆞ믈도 우리도 안 헤봐서.(메밀도 우리도 안 해봤어.)

103067 @ 안 헤봔예. 경 헤도 당에 가젠 허문 ᄆᆞ믈ᄏᆞ루가 잇어야 갈 거니까는 거문 바꿩 먹어신가마씸?(안 해봤어요. 그렇게 해도 당에 가려고 하면 메밀가루가 있어야 갈 거니까는 그러면 바꿔서 먹었는가요?)

103067 #1 아이 사단.(아이 사다가.)

103067 @ 저 우에 ᄒᆞ곡.(저 위에 하고.)

103067 #1 아, 송당[109]사름덜 많이 허잖여게.(아, '송당'사람들 많이 하잖아.)

103067 @ 예 많이 허면은.(예 많이 하면.)

103067 #1 허, 허, 허.(허, 허, 허.)

103067 @ 바꿔근에?(바꿔서?)

103067 #1 어 사다근네 헷주.(사다가 했지.)

109) '송당'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마을을 말한다.

103067 @ 예, 사다근에에.(예, 사다가.)
103067 #1 으.(으.)
103067 @ 사다가.(사다가.)
103067 #1 으.(으.)
103067 @ 살 때는 여기 보리허고 송 저기, ᄆᆞ물허고 바꿔신가마씨? 아니면 돈으로?(살 때는 여기 보리하고 송 저기, 메밀하고 바꿨는가요? 아니면 돈으로?)
103067 #1 게메 그거ᄁᆞ지는 몰르고.(글쎄 그거까지는 모르고.)
103067 @ 응.(응.)
103067 #1 거 할망덜 ᄒᆞ는 거난 건.(거 할머니들 하는 거니까 건.)
103067 @ 예, 예.(예, 예.)
103068 @ 담배농사도 알아지쿠과?(담배농사도 알아지겠습니까?)
103068 #1 아, 우리 하르버지 잇을 적에 담베농ᄉᆞ를 헤낫서.(아, 우리 할아버지 있을 적에 담배농사 했었어.)
103068 @ 아.(아.)
103068 #1 담베농ᄉᆞ를 헷는데. 아, 여기에서 담베농ᄉᆞ허면 담베 바찌레를 저 세화리[110] 갓다고.(담배농사를 했는데. 아, 여기에서 담배농사하면 담배 바치러 저 '세화'이 갔다고.)
103068 @ 아, 바찌레예?(아, 바치러요?)
103068 #1 응, 세화리 그 당시에는.(응, '세화'이 그 당시에는.)
103068 @ 응 구좌 세화리 아니면은 저.(응 구좌 '세화'이 아니면 저.)
103068 #1 아, 구좌세화.(아, '구좌세화.')
103068 @ 응.(응.)
103068 #1 겐디 그게 그저 우리 하르버지도 담베를 좋아ᄒᆞ니까. 자기 담베. 그때는 살 순은 엇고 ᄒᆞ니까. 그게 아니면 피울 길이 없으니까 그자.(그런데 그게 그저 우리 할아버지도 담배를 좋아하니까. 자기 담배. 그때는 살 수는 없고 하니까. 그게 아니면 피울 길이 없으니까 그저.)
103068 @ 아.(아.)
103068 #1 우리 하르버지 그거 피우젠 아마 헤영 신청은 헤여근에. 얼마 허켄 헹.(우리 할아버지 그거 피우려고 아마 해서 신청을 해서. 얼마 하겠다고 해서.)
103068 @ 아.(아.)
103068 #1 헤여근에 그거 ᄐᆞ당 ᄆᆞᆯ류왕 앗엉 강, 풀곡.(해서 그거 따서 말려서 가지고 가서, 팔고.)
103068 @ 아, 이거는 농사지으민 다 바쩌난 거로구나예?(아, 이것은 농사지으면 다 바쳐난 거로군요?)
103068 #1 응.(응.)
103068 @ 옛날에예.(옛날에요.)

110) '세화'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마을을 말한다.

103068 #1 아이 거 뭐, 그것도 전메청에서.(아이 거 뭐, 그것도 전매청에서.)
103068 @ 전매청예, 예.(전매청요 예.)
103068 #1 소관으로 거 다 ᄒᆞ는 거난에게.(소관으로 거 다 하는 거니까.)
103068 @ 어 예, 경 헷구나예.(어 예, 그렇게 했군요.)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응, 저 삼춘 소. 소 허곡. 말 허곡.(응, 저 삼촌 소. 소하고. 말하고.)
104001 #1 에.(에.)
104001 @ 쫌 경 헤도 알아질 거 아니우꽈예?(좀 그렇게 해도 알아질 거 아닙니까요?)
104001 #1 소허고.(소하고.)
104001 @ 예.(예.)
104001 #1 ᄆᆞᆯ허고?(말하고?)
104001 @ 소 소 기르는 것에 대해서.(소 소 기르는 것에 대해서.)
104001 #1 에이, 나 거 우리하르버지 좀 기룰 때. 나가 그냥 어릴 때 그자 뭐만 헤난 거난 몰라.(에이, 나 거 우리할아버지 좀 기를 때. 내가 그냥 어릴 때 그저 뭐만 했던 거니까 몰라.)
104001 @ 으, 먹 먹이만 갓다. 쉐촐만 줘납디가?(으, 먹 먹이만 가져다. 소꼴만 줬었습니까?)
104001 #1 쉐촐 주고 쉐 ᄀᆞ꾸레 가오고.(소꼴 주고 소 가꾸러 갔다 오고.)
104001 @ 아, ᄀᆞ꾸레에.(아, 소 가꾸러.)
104001 #1 어.(어.)
104001 @ 아, 여기서 쉐 ᄀᆞ꾸레는 어느 디ᄁᆞ지 갑니까?(아, 여기서 소 가꾸러는 어느 데까지 갑니까?)
104001 #1 아 이 그저, 이, 우리 그저.(아 이 그저, 이, 우리 그저.)
104001 @ 대수산봉?('대수산봉?')
104001 #1 이이 수산봉[111]이 그 옛날에. 그 전에는.(이이 '수산봉'이 그 옛날에. 그 전에는.)
104001 @ 예.(예.)
104001 #1 저기가 바로 민둥산이라. 잔디.(저기가 바로 벌거숭이산이야. 잔디.)
104001 @ 예.(예.)
104001 #1 잔디 산 아주 께끗헷주게.(잔디 산 아주 깨끗했지.)

111) '수산봉'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오름 중 하나다.

104001 @ 예.(예.)

104001 #1 아 겐디 그만 나무가 나기 시작현. 나무가 싱그고 뭐 헤부니까.(아 그런데 그만 나무가 나기 시작해서. 나무가 심고 뭐 해버리니까.)

104001 @ 아.(아.)

104001 #1 순 이젠 원. 아, 그게 잔디로 곱게 가꾸왓스면은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떼는 이 저 여기 기르는 우마들이 다 거기 가서 먹엇주게.(순 이제는 전혀. 아, 그게 잔디로 곱게 가꾸었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때는 이 저 여기 기르는 우마들이 다 거기 가서 먹었지.)

104001 @ 음, 예, 예.(음, 예, 예.)

104001 #1 으, 소덜 먹이고 뭐ᄒᆞ고 허니까. 나무가 어섯는데 이제는 나무 다 잇어부니까.(으, 소들 먹이고 뭐하고 하니까. 나무가 없었는데 이제는 나무 다 있어버리니까.)

104001 @ 으, 거기는 큰물메렌 헷지예.(으, 거기는 '대수산봉'이라고 했지요.)

104001 #1 응.(응.)

104001 @ 큰물뫼에 쉐 멕이레 가는 거 허고. 소 파는 거 그런 거는 모르고예?('대수산봉'에 소 먹이러 가는 거 하고. 소 파는 거 그런 거는 모르고요?)

104001 #1 아, 소 팔고 ᄒᆞ는 건 거는.(아, 소 팔고 하는 건 거는.)

104001 @ 소 팔고.(소 팔고.)

104001 #1 서로가 팔고 사고ᄒᆞ고 이렇게 무신.(서로가 팔고 사고하고 이렇게 무슨.)

104001 @ 으, 팔고 사고(으, 팔고 사고.)

104001 #1 응.(응.)

104001 @ 집에서도 소도 저 새끼도 봐나나신가마씨?(집에서도 소도 저 새끼도 보았었는가요?)

104001 #1 나 나실테주. 소 질르민 새끼사 나주게 무신.(나 낳을테지. 소 길으면 새끼야 낳지 무슨.)

104001 @ 암소 헤가지고예. 내일 저녁에 허민 저기 두 시까지만 허게예.(암소 해가지고요. 내일 저녁에 하면 두 시까지만 하게요.)

104001 #1 응.(응.)

104001 @ 그만 허고 삼춘 집이서 삼춘부터 먼저 말씀 들어난 다음에예.(그만하고 삼촌 집에서 삼촌부터 먼저 말씀 들어난 다음에요.)

104001 #1 응.(응.)

104001 @ 예,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저기 허는데 오늘은예, 그 들일에 대한예, 들일에 대해서 저기 허는디 소우다예. 소, 쉐 쉐.(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저기 하는데 오늘은요, 그 들일에 대한요, 들일에 대해서 저기 하는데 소입니다. 소, 소 소.)

104001 #1 으 으.(으 으.)

104001 @ 예, 게난 제줏말 허는 거는 제주도 말로 곧고, 제주도 말로 질문허고

몰르민. 나도 그거 그 나가 제줏 말을 모르니까. 삼춘이 저기 ᄀᆞ립갈라근에.[112] 것도 고쳐주곡예. 헤줍서예.(예, 그러니까 제주 말 하는 것은 제주도 말로 말하고, 제주도 말로 질문하고 모르면. 나도 그거 그 내가 제주 말을 모르니까. 삼촌이 저기 말하기를 구분지어서. 그것도 고쳐주고요. 해주십시오.)

104001 @ 소는 기를 떼 어떵 기릅니까? 소는.(소는 기를 때 어떻게 기릅니까? 소는.)

104001 #1 어떵 길롸. 그거라 뭐, 쉐 송아지 나면은. 그 쉐막에서 기르고. 아, 게난 겨울철에는 쉐막에서 기르곡.(어떻게 길러. 그거야 뭐, 소 송아지 나면. 그 외양간에서 기르고. 아,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외양간에서 기르고.)

104001 @ 으.(으.)

104001 #1 이제 춤 봄 뒈가면은 드르에 가근에 노왕. 쉐ᄀᆞ끄레 뎅기멍. 그 춤 촐밧디나. 드르에 가근에 그 촐 멕이면서 기르고.(이제 참 봄 되 가면은 들에 가서 놓아서. 소 가꾸러 다니면서. 그 참 꼴밭에나. 들에 가서 그 꼴 먹이면서 기르고.)

104001 @ 예.(예.)

104001 #1 뭐 경 ᄒᆞ는 거주.(뭐 그렇게 하는 거지.)

104001 @ 예 그 겨울에는 쉐막이고 저 여름에는 드르에 올라가기네예?(예 그 겨울에는 외양간이고 저 여름에는 들에 올라가서요?)

104001 #1 응.(응.)

104001 @ 드르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올릴 떼는 마을끼리 헤근에 올립니까. 아니면은 소허는 저 쉐테우리한티 멧경 헙니까?(들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도 보면, 그 올릴 때는 마을끼리 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소하는 저 목동한테 맡겨서 헙니까?)

104001 #1 아니 게난, 옌날에는 요즘은 뭐 목장이 잇엉. 목장에 올려근에 뭐 여름철에 얼마 돈 받아근에. 영 허주만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엇으니까. 이 동네에서 이 동네.(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뭐 목장이 있어서. 목장에 올려서 뭐 여름철에 얼마 돈 받아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 동네에서 이 동네.)

104001 @ 예.(예.)

104001 #1 그 부락에도 쉐 테[113]가 ᄋᆞ라 곤데가 잇엇주게이.(그 마을에도 소 '테'가 여러 군데가 있었지.)

104001 @ 예, 예.(예, 예.)

104001 #1 웃동네 테.(윗동네 '테.')

104001 @ 예.(예.)

104001 #1 이 알동네 테.(이 아랫동네 '테.')

104001 @ 예.(예.)

---

112) 'ᄀᆞ립갈라근에' 구분지어서 분간해서의 뜻으로 쓰였다.

113) '테'는 '케'를 일컫고 지경(地境)을 말한다.

104001 #1 이 중동네 테 헤가지고 잇는데 그 테에서. 소위 한 사람씩, 하룻씩 지정헤영 ᄀᆞ꾸렐 뎅기주.(이 중동네 '테' 해가지고 잇는데 그 '테'에서. 소위 한 사람씩, 하루씩 지정해서 가꾸러 다니지.)

104001 @ 예, 테에서예?(예, '테'에서요?)

104001 #1 으.(으.)

104001 @ 예, 예.(예, 예.)

104001 #1 게면은 돌아가면서 그것도 뭐 혼자만 ᄀᆞ꾸는 거 아니라.(그러면 돌아가면서 그것도 뭐 혼자만 가꾸는 거 아니라.)

104001 @ 예.(예.)

104001 #1 ᄒᆞ루는 이 집이서 ᄀᆞ꾸민 ᄒᆞ루는 또 ᄒᆞᆫ 집이서 ᄀᆞ꾸고.(하루는 이 집에서 가꾸면 하루는 또 한 집에서 가꾸고.)

104001 @ 으 으 으.(으 으 으.)

104001 #1 그 듯날은 또 딴 집이서 ᄀᆞ꾸곡 ᄒᆞ면서. 그 돌아가면서.(그 뒷날은 또 딴 집에서 가꾸고 하면서. 그 돌아가면서.)

104001 @ 돌아가멍예.(돌아가면서요.)

104001 #1 ᄀᆞ꾸레 거. 쉐 멕여근에 ᄌᆞ냑인 들어오민 집에.(가꾸러 거. 소 먹여서 저녁이면 들어오면 집에.)

104001 @ 이녁 집에 들어가고예.(이녁 집에 들어가고요.)

104001 #1 또 메엇당 또 듯날 아칙은 또 보네곡. 경 ᄒᆞ는 거주게.(또 매었다가 또 다음날 아침은 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104001 @ 예, 거문 그거는 한 몇 월 달부터 시작허영 몇 월 달까지. 달수로는.(예, 그러면 그것은 한 몇 월 달부터 시작해서 몇 월 달까지. 달수로는.)

104001 #1 그거 봄 나면은 봄 낭 따뜻헤지고. 그저 드르에 풀이 나가면은.(그것 봄 나면은 봄 나서 따뜻해지고. 그저 들에 풀이 나가면.)

104001 @ 시작허고예.(시작하고요.)

104001 #1 풀이 나야 먹으레 갈 거니까.(풀이 나야 먹으러 갈 거니까.)

104001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1 #1 풀이 나 가고, 겨울에 벡중 뒈면은 아마 다 집으로 들어올 거라.(풀이 나 가고, 겨울에 백중 되면 아마 다 집으로 들어올 거야.)

104001 @ 벡중되민예.(백중되면요.)

104001 #1 응.(응.)

104001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1 #1 벡중ᄁᆞ지 벡중 더 ᄒᆞ긴 헐 거라.(백중까지 백중 더 하기는 할 거야.)

104001 @ 벡중ᄁᆞ지예.(백중까지요.)

104001 #1 응.(응.)

104001 @ 그 그 벡중 때는 벡중코ᄉᆞ[114]도 헤나신가마씸?(그 그 백중 때는 '백

114) '백중ᄏᆞᄉᆞ'는 백중고사다. 소나 말을 기르는 농가에서 음력 칠월 보름에 지내는 고사로 백중제,

중고사'도 했는가요?)

104001 #1 아, 다 허주. 건 테우리 별로, 그 테별로 헤서.(아, 다 하지. 건 목동 별로, 그 '테'별로 해서.)

104001 @ 테별로.('테'별로.)

104001 #1 장소 정헤여근에. 다 떡ᄒᆞ곡. 술 가지곡.(장소 정해서. 다 떡하고. 술 가지고.)

104001 @ 술ᄒᆞ곡.(술하고.)

104001 #1 메 ᄒᆞ곡덜 헤영 강.(메 하고들 해서 가서.)

104001 @ 예, 예.(예, 예.)

104001 #1 그거 다 저 벡중제를 지넷주.(그거 다 저 백중제를 지냈지.)

104001 @ 백중제를 지넨예?(백중제를 지내서요?)

104001 #1 으, 그게 그 소를 위헤서.(으, 그게 그 소를 위해서.)

104001 @ 예, 예.(예, 예.)

104001 #1 가축을 위헤서.(가축을 위해서.)

104001 @ 응.(응.)

104001 #1 거 가축 잇인 사름은 다 가.(거 가축 있는 사람은 다 가.)

104001 @ 으.(으.)

104001 #1 가축 엇인 사름은 안 가고.(가축 없는 사름은 안 가고.)

104001 @ 안허고예? 가축 잇인 사름은예.(안하고요? 가축 있는 사람은요.)

104001 #1 응.(응.)

104001 @ 그 저, 음식 장만은 어떵?(그 저, 음식 장만은 어떻게?)

104001 #1 음식 장만은 집이서 다 헹 가는 거주게.(음식 장만은 집에서 다 해서 가는 거지.)

104001 @ 집이서 쪼끔씩 헤근에예.(집에서 조금씩 해서요.)

104001 #1 집집마다.(집집마다.)

104001 @ 집집마다예.(집집마다요.)

104001 #1 그 고령착[115]에 헤근에.(그 '고령착'에 해서.)

104001 @ 예.(예.)

104001 #2 집집마다 허는디. 영 돌레떡을 형. 앗엉 가주게. 상웨떡[116]을 허든지.(집집마다 하는데. 이렇게 '돌레떡'을 해서. 가지고 가지. '상웨떡'을 하든지.)

104001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1 #2 조오멕[117]일 허든지 원헤근에.('조오멕'이를 하든지 원해서.)

'테우ᄒᆞᄉᆞ'라고도 한다.

115) '고령착'은 대오리나 차풀의 줄기로 엮어서, 채롱보다 통이 아주 얇고 작게 만든 그릇인데 뚜껑이나 하나만을 말한다.

116) '상웨떡'은 밀가루를 누룩이나 막걸리 따위로 반죽하여 부풀려 꿀팥으로 만든 소를 넣고 빚어 시루에 찐 떡을 말한다.

117) '조오멕이'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104001 @ 예, 예 맞수다.(예, 예 맞수다.)

104001 #2 응.(응.)

104001 @ 예, 예 거면은 그기 제 지낼 때는 무슨 순서 같은 거 잇어신가마씨?(예, 예 그러면 거기 제 지낼 때는 무슨 순서 같은 거 있었는가요?)

104001 #1 아이 그, 순서멍 말멍 거시기 헤서 다 ᄀᆞ찌 절허곡.(아이 그, 순서며 말며 거시기 해서 다 함께 절하고.)

104001 @ 예.(예.)

104001 #1 뭐 허곡 헤근에. 거 나중에 다 케 뿌령.[118](뭐 하고 해서. 거 나중에 다 '케우려 뿌려서.')

104001 @ 으 응.(으 응.)

104001 #1 경 허민 뒈는 거주. 무신 크게 그.(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크게 그.)

104001 @ 예 경.(예 그렇게.)

104001 #1 형식이 잇엇던 건 아니라.(형식이 있었던 건 아니야.)

104001 @ 예.(요.)

104001 #1 아 그 옌날 하르방덜은 형식상으로 헷주만은 우리는 그 형식을 츳진 못헤서.(아 그 옛날 할아버지들은 형식상으로 했지만은 우리는 그 형식을 찾지는 못했어.)

104001 @ 아, 하르방덜은 형식이 잇엇거나.(아, 할아버지들은 형식이 있었거나.)

104001 #1 잇엇을런지 모르주게.(있었을지 모르지.)

104001 @ 아 그거는예.(아 그거는요.)

104001 #1 응, 응.(응, 응.)

104001 @ 예.(예.)

104001 #1 우리가 가면은 그냥 그 차반지데로 다 가져간 거 네 놔근에. 그 드르판에 딱 아레 자리 ᄀᆞᆯ아근에 다헤여근에.(우리가 가면은 그냥 그 채롱대로 다 가져간 거 내 놓아서. 그 들판에 딱 아래 자리 깔아서 다해서.)

104001 @ 예.(예.)

104001 #1 진설헌 다음에 거기서 절헤근에.(진설한 다음에 거기서 절해서.)

104001 @ 절헤영예.(절해서요.)

104001 #1 응.(응.)

104001 @ 절은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절은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104001 #1 아, 방향이야.(아, 방향이야.)

104001 @ 할라산 방향으로?(한라산 방향으로?)

104001 #1 그 젤 여기서도 우의를. 북 북향을 우의로 보거든.(그 젤 여기서도 위를. 북 북향을 위로 보거든.)

104001 @ 아, 예.(아, 예.)

---

118) '케 뿌령' '케우려'와 뿌려서다. 모여 있는 물체를 헤집어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다의 뜻이다.

104001 #1 게난 그 다 북, 옌날 뭐 제 지네는 디도 북향베ᄒᆞ곡.(그러니까 그 다 북, 옛날 뭐 제 지네는 데도 북향배하고.)

104001 @ 예.(예.)

104001 #1 뭐 허난.(뭐 하니까.)

104001 @ 그추룩 헹예.(그처럼 해서요.)

104001 #1 다 북향으로 헤서.(다 북향으로 해서.)

104001 @ 거문 절은 그냥 보통 한 세 번 정도 헤실거라예.(그러면 절은 그냥 보통 한 세 번 정도 했겠군요.)

104001 #1 응, 응, 그 기자 응.(응, 응, 그 거저 응.)

104001 @ 삼춘.(삼촌.)

104001 #1 것도 구신한티 허는 거난에게.(것도 귀신한테 하는 거니까.).

104001 @ 맞수다예. 장소 장소는?(맞습니다. 장소 장소는?)

104001 #1 장소는.(장소는.)

104001 @ 장소는 그 테우리 그 저 ᄆᆞᆯ 아니.(장소는 그 목동 그 저 말 아니.)

104001 #1 저 쉐 그.(저 소 그.)

104001 @ 쉐?(소?)

104001 #1 으.(으.)

104001 @ 쉐 풀 멕이는?(소 풀 먹이는?)

104001 #1 그 떼, 그 테[119] 테.(그 '테', '테' '테.')

104001 @ 예 테.(예 '테.')

104001 #1 뭐엔 뭐엔 ᄀᆞ르면은.(뭐라고 뭐라고 말하면.)

104001 #2 아니, 집집마다 쉐 다 네놩. 아칙이 ᄆᆞᆯ앙 가는 그 그.(아니, 집집마다 소 다 내 놓아서. 아침에 몰아서 가는 그.)

104001 @ 그 장소?(그 장소?)

104001 #2 도나렛[120] 싸람만.(이웃 사람만.)

104001 #1 으.(으.)

104001 #2 그 ᄒᆞᆫ 자리에 모영으넹이.(그 한 자리에 모여서.)

104001 @ 예, 예.(예, 예.)

104001 #2 그 제 지네곡.(그 제 지네고.)

104001 #1 으 음.(으 음.)

104001 #2 또 딴 디는 딴 디 모영으넹에.(또 딴 데는 딴 데 모여서.)

104001 @ 예 딴 디 모영예.(예 딴 데 모여서요.)

104001 #1 응.(응.)

104001 @ 예.(예.)

104001 #2 경 헤곡. 따시로 저 뭐 잇잖우꽈? 넥인 ᄒᆞ는 거.(그렇게 하고. 다시로

119) '테'는 여기서 '케'를 일컫고 지경(地境)을 말한다.

120) '도나렛'은 일본말 도나리(となり)로 근처(隣) 서로 인접해 있는 집 또는 주위를 하는 말로 이웃집 이나 이웃사이를 말하고 있다.

저 뭐 있잖습니까? 낙인 하는 거.)
104001 #1 것ᄀᆞ라.(것보고.)
104001 #2 그거 그.(그거 그.)
104001 #1 뭐엔 곧느니?(뭐라고 말하니?)
104001 #2 것ᄀᆞ라 저 쉐 넥인 ᄒᆞ는 거.(그것보고 저 소 낙인 하는 거.)
104001 @ 낙인 낙인.(낙인 낙인.)
104001 #2 예 낙인 예, 예.(예 낙인 예, 예.)
104001 @ 예.(예.)
104001 #2 그거 ᄒᆞ는 거 허곡. 경 허 옌날은 거 헤낫주.(그거 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하고 옛날은 그것 했었지.)
104001 @ 예.(예.)
104001 #2 무신 쉐 영 헤영.(무슨 소 이렇게 해서.)
104001 #1 거 숭커는 불도 불르곡.(거 수컷은 불도 발리고.)
104001 @ 예, 예 진드기도.(예, 예 진드기도.)
104001 #1 으 응.(으 응.)
104001 #2 귀 끈어근엥이 귀 끈어 이디 그 무신 거 박음도 허곡.(귀 끊어서 귀 끊어 여기 그 무슨 거 박기도 하고.)
104001 @ 박음도 허고예.(박기도 하고요.)
104001 #2 어.(어.)
104001 @ 삼춘네 낙인 집안에서 허는 소는 낙인은 저기 어떵 방법으로 헤신고마씨?(삼촌네 낙인 집안에서 하는 소는 낙인은 저기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요?)
104001 #1 아 낙인 그거 쒜에.(아 낙인 그거 쇠에.)
104001 @ 예.(예.)
104001 #1 불 달과근에 팍 찔러근에 그.(불 달궈서 팍 찔러서 그.)
104001 @ 예, 예.(예, 예.)
104001 #1 털 테왕 허는 거주게.(털 태워서 하는 거지.)
104001 @ 것도 표시 자기 집안에.(것도 표시 자기 집안에.)
104001 #1 아.(아.)
104001 @ 표시 잇어실 거라예.(표시 있었을 거예요.)
104001 #1 아, 표시덜이 잇엇서.(아, 표시들이 있었어.)
104001 @ 예.(예.)
104001 #1 잇엇도 나 그건 몰르키여게.(있어도 나 그건 모르겠어.)
104001 @ 예에.(예에.)
104001 #2 허, 허.(허, 허.)
104001 @ 예에, 삼춘네 거는예.(예에 삼촌네 거는요.)
104001 #1 응.(응.)
104001 @ 거난 그 그 그 테에서 꼭 끄뜬 낙인을 찍어신가마씨? 아니면 ᄒᆞ는 집

안마다.(그러니까 그 그 그, '테'에서 꼭 같은 낙인을 찍었는가요? 아니면 하는 집안마다.)

104001 #2 아니 다 틀려. 다 틀려.(아니 다 달라. 다 달라.)

104001 #1 응, 응, 응.(응, 응응.)

104001 @ 다 집 마다예.(다 집 마다요.)

104001 #2 응, 응.(응, 응.)

104001 @ 예 그거는 나중에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는. 나중에 ᄒᆞ고.(예 그거는 나중에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는. 나중에 하고.)

104001 #2 응 나중에 ᄒᆞ고.(응 나중에 하고.)

104001 @ 나중에 ᄒᆞ고.(나중에 하고.)

104002 @ 삼춘!(삼촌!)

104002 #1 응?(응?)

104002 @ 쉐예. 종류를 이름 말 ᄀᆞᆯ아줍서. 무슨 가라말이여 무신 적.(소요. 종류를 이름 말 말해주십시오. 무슨 가라말이여 무슨 적.)

104002 #1 아 건 ᄆᆞᆯ이고.(아 건 말이고.)

104002 @ 아.(아.)

104002 #1 쉐도 뭐 황소, 어룩소 무슨.(소도 뭐 황소, 얼룩소 무슨.)

104002 @ 얼룩.(얼룩.)

104002 #2 쑥소.('식소.')

104002 @ 응, 쑥소?(응, 식소?)

104002 #1 응, 얼룩소, 식소.[121](응, 얼룩소, '식소.')

104002 @ 아, 식소?(아, '식소?')

104002 #2 응.(응.)

104002 #1 또 무신 소 잇어?(또 무슨 소 있어?)

104002 #2 얼록소 허곡게. 식소허곡. 까만 거벳기 더 잇어?(얼룩소 하고. '식소' 하고. 까만 것밖에 더 있어?)

104002 #1 응.(응.)

104002 @ 응.(응.)

104002 #2 세 가지.(세 가지.)

104002 @ 뭐 황소, 얼룩소, 식소.((뭐 황소, 얼룩소, '식소.')

104002 #2 응.(응.)

104002 @ 까만소는 아니고?(까만 소는 아니고?)

104002 #1 응.(응.)

104002 #2 까만 것도 잇주. 무사?(까만 것도 있지. 왜?)

104002 @ 으 까만소? 으.(으 까만소? 으.)

104002 #1 검은 쉐엔 검은 쉐엥 허여게.(검은 소라고 검은 소라고 했어.)

121) '식소'는 털빛이 흑황백색(黑黃白色)으로 얼럭덜럭한 소를 말한다.

104002 @ 검은 쉐예?(검은 소요?)
104002 #2 응.(응.)
104002 @ 검은 쉐.(검은 소.)
104002 #1 것 ᄁᆞ만.(것 까만.)
104002 @ 식소엔 헌 게?('식소'라고 한 게?)
104002 #1 그게 다 털로 털로써 구별ᄒᆞ는 거난에이.(그것이 다 털로 털로서 구별하는 거니까.)
104002 #2 식소엔 헌 건.('식소'라고 한 건.)
104002 @ 예.(예.)
104002 #2 그 검은 털도 잇곡.(그 검은 털도 있고.)
104002 #1 노란 털도 잇고.(노란 털도 있고.)
104002 #2 노란 털도 잇곡, 그추룩 헌 게.(노란 털도 있고, 그처럼 한 것이.)
104002 #1 그 얼룩얼룩헌 게.(그 얼룩얼룩한 것이.)
104002 @ 아.(아.)
104002 #2 얼룩얼룩헌 거 ᄀᆞᆯ아 쑥소.(얼룩얼룩한 거 말해 '식소.')
104002 @ 아.(아.)
104002 #1 그 식쉐가 고기가 젤 맛잇주게.(그 '식소'가 고기가 제일 맛있지.)
104002 @ 아 맛잇는 거예? 어.(아 맛있는 것이요? 어.)
104002 #1 그게 지금도 씩소만 잇으면.(그것이 지금도 '식소'만 있으면.)
104002 @ 어.(어.)
104002 #1 그거 맛이 췌고로 좋아.(그거 맛이 최고로 좋아.)
104002 @ 아.(아.)
104002 #1 부드럽고.(부드럽고.)
104002 @ 그 종류가 틀립니까?(그 종류가 다릅니까?)
104002 #1 으 응.(으 응.)
104002 @ 종류가 틀린 쉐 아니우꽈?(종류가 다른 소 아닙니까?)
104002 #1 응, 게난 지금도 거이가 검은 소가 맛잇덴 허지 아녀게.(응,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가 검은 소가 맛있다고 하지 아니하니.)
104002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2 #1 으 음.(으 음.)
104002 @ 그 거문. 암소는 무신 그냥 암쉐엥 암소엔 헙니까?(그 그러면. 암소는 무슨 그냥 암소라고 암소라고 합니까?)
104002 #2 암쉐엔 허주.(암소라고 하지.)
104002 @ 암소엔 허고.(암소라고 하고.)
104002 #2 무시거엔.(무엇이라고.)
104002 @ 숫소는 그냥 수소엔 허고.(수소는 그냥 수소라고 하고.)
104002 #2 숙쉐엔 ᄒᆞ고 그듸 또 거 이 저.(수소라고 하고 그데 또 거 이 저.)

104002 #1 부렝이.(수소.)
104002 #2 부렝이.(수소.)
104002 @ 부렝이.(수소.)
104002 #2 으.(으.)
104002 @ 거 ᄒᆞ곡.(거 하고.)
104002 #2 부렝이.(수소.)
104002 #1 숫소는 부렝이.(수소는 '부렝이.')
104002 @ 예, 부렝이.(예, 수소.)
104002 #1 암쉐는 뭐렌 허느니?(암소는 뭐라고 하니?)
104002 #2 암쉐엔 허주. 뭐시엔 ᄀᆞᆯ을 수가 잇어.(암소라고 하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
104002 #1 아니 아니. 아이 거 나이별로 다 틀린디. 거 우리 이젠.(아니 아니. 아이 거 나이별로 다 다른데. 거 우리 이젠.)
104002 @ 아 나이별로도 잇구나예.(아 나이별로도 있군요.)
104002 #1 응.(응.)
104002 @ 나이별예.(나이별요.)
104002 #1 음, 사릅 나릅 그 나이가아.(음, 세 살 네 살 그 나이가.)
104002 @ 사릅?(사릅?)
104002 #1 세 살 나민 사릅이엔 ᄒᆞ곡.(세 살 나면 '사릅'이라고 하고.)
104002 @ 아.(아.)
104002 #1 네 살 뒈민 나릅이엔 ᄒᆞ곡.(네 살 되면 '나릅'이라고 하고.)
104002 @ 사릅?(세 살?)
104002 #1 음.(음.)
104002 @ 네 살이면 나릅예.(네 살이면 '나릅'요.)
104002 #1 그 거시긴 나민 금승.[122](그 거시기는 낳으면 '금승.')
104002 @ 금승? 새끼는 금승은.('금승'? 새끼는 '금승.')
104002 #2 곧 나민인.(곧 낳으면.)
104002 #1 으 으.(으 으.)
104002 @ 금승.('금승.')
104002 #1 곧 난 것 ᄀᆞᆯ안.(곧 난 것 말해서.)
104002 @ 예.(예.)
104002 #1 응, 곧 나민 금승, 다간[123].(응, 곧 나면 '금승', '다간.')
104002 @ 다간?(다간?)
104002 #1 두 술이민 다간.(두 살이면 '다간.')
104002 @ 두 설.(두 살.)

122) '금승' 하릅, 마소의 한 살이다.
123) '다간'은 소의 나이 두 살을 이르는 말이다

104002 #1 으 으.(으 으.)

104002 @ 아, 아.(아, 아.)

104002 #1 경 헹. 사릅 나릅 헤여근에. 세 살 네 살.(그렇게 해서. '사릅' '나릅' 해서. 세 살 네 살.)

104002 @ 예 나릅예.(예 네 살요.)

104002 #1 영 헤여가는 거주.(이렇게 해가는 거지.)

104002 @ 예, 경 헷구나예.(예, 그렇게 했군요.)

104003 @ 그, 거 소 소를 이용허는 거예. 소를 이용헤서 농사일을 돕지 안읍니까?(그, 그것 소 소를 이용하는 것이요. 소를 이용해서 농사일을 돕지 않습니까?)

104003 #1 응.(응.)

104003 #2 아, 밧가는 거?(아, 밭가는 거?)

104003 @ 밧가는 거 또.(밭가는 거 또.)

104003 #1 밧가는 거 웨에 뭐.(밭가는 거 외에 뭐.)

104003 @ 밧가는 거.(밭가는 거.)

104003 #2 밧가는 것도 허곡, 그 ᄆᆞᆯ구르마.[124](밭가는 것도 하고, 그 마차.)

104003 @ 구르마허고.(마차하고.)

104003 #2 저 구르마도 허곡.(저 마차도 하고.)

104003 @ 구르마허곡 ᄆᆞᆯ구르마허고.(마차하고. 마차하고.)

104003 #2 으 남, 저 무시거게 조 ᄇᆞᆯ리젠 허민.(으 남, 저 무엇 조 밟으려고 하면.)

104003 @ 남테[125]허고.(남태하고.)

104003 #2 남테도 허여근에 쉐에 잇거근에 ᄇᆞᆯ림도 허곡.(남태도 해서 소에 이끌어서 밟기도 하고.)

104003 @ 예.(예.)

104003 #2 경 허고.(그렇게 하고.)

104003 @ 남테허고.(남태하고.)

104003 #2 예에 그 거.(예에 그 거.)

104003 #1 게난게 고기 이용허곡.(그러니까 고기 이용허곡.)

104003 @ 예 고기허고.(예 고기하고.)

104003 #1 으.(으.)

104003 @ 소젖은 안 먹어나신가마씨?(소젖은 안 먹었는가요?)

104003 #2 무사 안 먹어게 젖 멕여사주. 새끼 나민 먹어.(왜 안 먹어 젖 먹여야지. 새끼 나면 먹어.)

104003 @ 아니 아니, 사람이 이용 헌 거.(아니 아니, 사람이 이용 한 거.)

104003 #1 아이 우린 안 먹어봐서.(아니 우리는 안 먹어봤어.)

---

124) 'ᄆᆞᆯ구르마'는 마차를 말한다. 말이 이끌게 바퀴를 단 수레다.

125)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 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밭을 눌려 다지는 농기구를 말한다.

104003 @ 아, 소젖은예. 안허고예.(아, 소젖은요. 안하고요.)

104003 #1 소젖 헷자게. 새끼 멕이이가 바쁜디.(소젖 해야. 새끼 먹이이가 바쁜데.)

104003 @ 새끼 멕이기 사람이 먹을.(새끼 먹이기 사람이 먹을.)

104003 #1 그걸 사람이 먹어 불민 새끼가 컬 져.(그걸 사람이 먹어 버리면 새끼가 커져.)

104004 @ 예 그 소를 길들이는 거 잇지 안우꽈? 어떵 허면은 밭 갈젠 허면, 잘 길을 들여야 되난.(예 그 소를 길들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밭 갈려고 하면 잘 길을 들여야 되니까.)

104004 #1 어.(어.)

104004 @ 건 어떻게 길을 들입니까?(건 어떻게 길을 들입니까?)

104004 #1 그거 저 소를 밧 갈젱 허면은. 그 오랑 씌와근에.(그거 저 소를 밭 갈려고 하면은. 그 뱃대끈을 씌워서.)

104004 @ 예.(예.)

104004 #1 어, 그 쉐 이 등어리나 이 줄, 헤가지고 뒤에서 큰 돌을 메 달든지.(어, 그 소 이 등이나 이 줄, 해가지고 뒤에서 큰 돌을 매 달든지.)

104004 @ 예.(예.)

104004 #1 그 뭐 으라 가지 그 무거운 거를 메 달아서 끌고 다니는 거라.(그 뭐 여러 가지 그 무거운 것을 매 달아서 끌고 다니는 거야.)

104004 @ 예 훌련 시켱.(예 훈련 시켜서.)

104004 #1 응.(응.)

104004 @ 훌련 시키는거예.(훈련시키는 거요.)

104004 #1 훌련시키젠. 그렇게 헤서 그 밧가는 거를 베우주게. 그 소위 말을 들게 ᄒᆞ젠 허민 못 견뎌야 사람 말을 듣게 뒌 거라. 이 모든 게 힘들면은.(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그 밭가는 것을 배우지. 그 소위 말을 듣게 하려고 하면 못 견뎌야 사람 말을 듣게 된 거야. 이 모든 게 힘들면.)

104004 @ 응.(응.)

104004 #1 사람안티 굴복을 ᄒᆞ게 뒌 거주.(사람한테 굴복을 하게 된 거지.)

104004 @ 응.(응.)

104004 #1 헤, 헤, 경 ᄒᆞ니까 그거 막 힘들게 헤서 막 끌고 다니고. 막 때리면서 다울리곡. 영 ᄒᆞ면서 그 길을 들이는 거주.(헤, 헤, 그렇게 하니까 그거 아주 힘들게 해서 마구 끌고 다니고. 매우 때리면서 쫓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길을 들이는 거지.)

104004 @ 예.(예.)

104004 #1 경 ᄒᆞ면은 경 ᄒᆞ면서 그, 이제 “이러,” 허민 가곡, “와,” 허민 서곡.(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이러,” 하면 가고, “와,” 하면 서고.)

104004 @ 예 “이러”는 가고예.(예 “이러”는 가고요.)

104004 #1 응.(응.)

104004 @ “와,” 허면은예.(“와,” 하면은요.)
104004 #1 서고.(서고.)
104004 @ 예예 서고예. 그 삼춘예. 몇 살 때부터 헤신고마씨?(예예 서고요. 그 삼촌요. 몇 살 때부터 했는가요?)
104004 #1 무시걸?(무엇을?)
104004 @ 소 길들이기마씀.(소 길들이기요.)
104004 #1 아 쉐는 다간만. 아.(아 소는 두 살만. 아.)
104004 @ 다간 되면은 시작.(두 살 되면 시작.)
104004 #1 두 술 뒈민은. 두 술만 뒈민 밧 가는 거 베우지 아녀게.(두 살 되면. 두 살만 되면 밭가는 것 배우지 않니.)
104004 @ 아, 밭가는 거 배우고예?(아, 밭가는 거 배우고요?)
104004 #1 그건 나 잘 모르크라.(그건 나 잘 모르겠어.)
104004 #2 부렝이 낭. 아메도게 다간 뒈 가민 클거난에. 그때 뒈민 ᄀᆞ르칠 거라게.(수소 낳아. 아마도 두 살 되어 가면 클 거니까. 그때 되면 가르칠 거야.)
104004 #1 응, ᄀᆞ르쳥.(응, 가르쳐서.)
104004 @ 그 ᄀᆞ르칠 때는 이녁 밭디 강 헙니까? 아니면.(그 가르칠 때는 이녁 밭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104004 #2 아니 밧디서 아니곡. 그거는 길에.(아니 밭에서 아니고. 그거는 길에.)
104004 #1 저 모래밧. 바닷가에 가서 모래밧 ᄀᆞ뜬디 가근에 막.(저 모래밭. 바닷가에 가서 모래밭 같은데 가서 아주.)
104004 #2 그런디도 허곡. 잔디밧디 강. 요세 ᄀᆞ뜨면 잔디밧이엔 허주마는 옌날에사.(그런데도 하고. 잔디밭에 가서. 요새 같으면 잔디밭이라고 하지만 옛날에야.)
104004 @ 예 테역밧예.(예 잔디밭요.)
104004 #2 테역밧디서 그 거 끄스곡.(잔디밭에서 그 거 끌고.)
104004 @ 예, 예 테역밧예.(예, 예 잔디밭요.)
104004 #2 예 경 허는 거.(예 그렇게 하는 거.)
104004 @ 예 요셋 말 말곡.(예 요샌 말 말고.)
104004 #2 하, 하하, 핫.(하, 하하, 핫.)
104004 @ 옛날 말로만 다 골아줍서. 옛날 말을 영 허멍 옛날 말을 우리가 골라잡을 거난에예.(옛날 말로만 다 말해주십시오. 옛날 말을 이렇게 하면서 옛날 말을 우리가 골라잡을 것이니까요.)
104004 #2 게메, 게난 터럭 잇인 그게.(그러니까, 그러니까 털 있는 그게.)
104004 @ 터럭 잇인 잔디.(털 있는 잔디.)
104004 #2 잔디가 아니고게.(잔디가 아니고.)
104005 @ 예, 예. 아까 나이에 대해서예. 골아저신디 다섯 살짜리는 생각이 안 남수과?(예, 예. 아까 나이에 대해서요. 말해졌는데 다섯 살짜리는 생각이 안 납니

까?)

104005 #1 응.(응.)

104005 @ 다섯 살.(다섯 살.)

104005 #1 다숫 썰은 다숫 설이라.(다섯 살은 다섯 살이야.)

104005 @ 다섯 살?(다섯 살?)

104005 #1 네 술ᄁᆞ지 세 술 사릅 나릅 다숫 썰 으숫썰 헤 가주게 웃터레.(네 살까지 세 살 네 살 '나릅' 다섯 살 여섯 살 해 가지 위쪽으로.)

104005 @ 아, 사릅? 나릅?(아, 세 살? 네 살?)

104005 #2 사릅, 나릅.(세 살, 네 살.)

104005 #1 응.(응.)

104005 @ 사릅, 나릅예, 릅, 사릅 헹예. 한 번만 더.(네 살, 다섯 살요, 릅 해가지고요. 한 번만 더.)

104005 #2 사릅, 나릅 허여근에.(네 살, 다섯 살 해서.)

104005 @ 사름 사릅, 나릅예.(네 살 네 살 다섯 살요.)

104005 #2 거.(거.)

104005 @ 사릅, 나릅예.(네 살 다섯 살요.)

104006 @ 으 쟁기에 대해서 쟁기예. 그 부분마다 명칭을 ᄀᆞᆯ아줍서?(으 쟁기에 대해서 쟁기요. 그 부분마다 명칭을 말해주십시오?)

104006 #2 무시거?(무엇?)

104006 #1 쟁기.(쟁기.)

104006 @ 쟁기, 잠대.(쟁기, 쟁기.)

104006 #1 양중머리[126] 저.(양지머리 저.)

104006 @ 양중머리마씸?(양지머리요?)

104006 #1 응.(응.)

104006 #2 으.(으.)

104006 #1 이 그 양중머리엔 헌 건 소위 핸들이라. 거 허, 허. 이 양쪽에서 손잡앙 헤는 거.(이 그 양지머리라고 한 건 소위 핸들이야. 거 허, 허. 이 양쪽에서 손잡아서 하는 거.)

104006 @ 아 예.(아 예.)

104006 #1 경 ᄒᆞ곡. 그 우읫 것ᄀᆞ란. 뭐엔 헤여.(그렇게 하고. 그 위에 것보고는. 뭐라고 해.)

104006 #2 버섭, 아레 부찌는 건.(보습, 아래 붙이는 건.)

104006 #1 아 게메 버섭ᄒᆞ고.(아 그러니까 보습하고,)

104006 #2 잠대에 부쩡 밧가는 건 버섭 그.(쟁기에 붙여서 밭가는 것은 보습 그.)

104006 #1 버섭허고 벳허고.(보습하고 볏하고.)

126) '양중머리'는 쟁기술의 우두머리 끝에 질러 박힌 가로나무를 말한다.

104006 #2 베ᄒᆞ곡게.(볏하고.)
104006 @ 응.(응.)
104006 #2 벳ᄒᆞ곡게.(볏하고.)
104006 #1 으 ᄒᆞ는디 그 나무를.(으 하는데 그 나무를.)
104006 @ 길게.(길게.)
104006 #2 그게 양중머리가 그거 그것에 붓진 거주게. 영 줄 ᄒᆞ게시리 헌 거ᄒᆞ고. 그거 ᄒᆞ곡.(그것이 양지머리가 그거 그것에 붙인 거지. 이렇게 줄 하게끔 한거하고. 그거 하고.)
104006 #1 게메 그것도 이름이 잇서.(그러니까 그것도 이름이 있어.)
104006 #2 것도 잇어?(것도 있어?)
104006 #1 거 허, 허.(거 허, 허.)
104006 @ 응.(응.)
104006 #1 그 주욱허게. 양중머리 부쩡 앞으로.(그 쭉 하게. 양지머리 붙여서 앞으로.)
104006 #2 응, 것도.(응, 그것도.)
104006 #1 쉐 끗는 그디 영 고리헤근에.(소 끄는 그데 이렇게 고리해서.)
104006 #2 그것이.(그것이.)
104006 #1 쉐 뭐 돌아메는 그것도. 에 이름도 잇곡, 아래 이 영 비슷 돌아 가근에 벳붓저으네. 보섭 붓지곡 헤근에. ᄒᆞ는 것도 이름이 잇어. 이름 잇어도 나 이젠 몰르키여.(소 뭐 달아매는 그것도. 에 이름도 있고, 아래 이 이렇게 비슷 돌아가서 볏 붙여서. 보습 붙이고 해서. 하는 것도 이름이 있어. 이름 있어도 나 이제는 모르겠어.)
104006 @ 잊어부런? 양쪽에 잇어.(잊어버리고? 양쪽에 있어.)
104006 #2 나도 몰르키여.(나도 모르겠어.)
104006 #1 거시기 갈 갈기석 아니 무신?(거시기 긴 고삐 아니 무슨?)
104006 #2 가리석.[127](긴 고삐.)
104006 @ 가린석.(긴 고삐.)
104006 #1 가리석, 가리석.(긴 고삐, 긴 고삐.)
104006 @ 예 가린석.(예 긴 고삐.)
104006 #1 양쪽에 그 줄 헤근에. 이레 띵기곡 이레 띵기곡. 허영.(양쪽에 그 줄 해서.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고. 해서.)
104006 @ 응.(응.)
104006 #1 그 바로 가게 ᄒᆞ는 것ᄀᆞ라 가리석이라고 헤서.(그 바로 가게 하는 것 보고 긴 고삐라고 했어.)
104006 @ 음, 가리석이라고 해서.(음, 긴 고삐라고 해서.)
104006 #1 양쪽에 메어가지고 걸.(양쪽에 매어가지고 그 것을.)

127) '가리석'은 밭을 갈 적에 왼편으로 쇠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를 말한다.

104006 @ 부림페[128]엔 헌 것도 이수과? 부름페.(고삐라고 한 것도 있습니까? 고삐.)

104006 #2 응. 부리페?(응. 고삐?)

104006 @ 예. 부림페.(예. 고삐.)

104006 #2 부리페가 아니고 가리석. 그 곳사 무시거 곳사.(고삐가 아니고 긴 고삐. 그 아까 무엇 아까.)

104006 @ 가리석?(긴 고삐?)

104006 #1 가리석 그걸로.(긴 고삐 그걸로.)

104006 @ 아.(아.)

104006 #1 그 말이 그 말일 거우다.(그 말이 그 말일 겁니다.)

104006 @ 그 말이 그 말예. 양중머리 벳 보습, 보섭?(그 말이 그 말요. 양지머리 볏 보습, 보습?)

104006 #2 예.(예.)

104006 @ 쉐 뒤에 엉키는 거 무시거엔 헙니까?(소 뒤에 엉키는 거 무엇이라고 합니까?)

104006 #1 어디?(어디?)

104006 @ 쉐 뒤에 엉키는 거.(소 뒤에 엉키는 거.)

104006 #1 어 그건 저 멍에.(어 그건 저 멍에.)

104006 @ 멍에. 경 허곡. 이기 쉐 이기 영 ᄒᆞ는 거.(멍에. 그렇게 하고. 여기 소 여기 이렇게 하는 거.)

104006 #1 어, 그거는.(어, 그거는.)

104006 #2 망울.(부리망.)

104006 #1 망울 망울.(부리망 부리망.)

104006 @ 망울.(부리망.)

104006 #1 그 그저 뭐 못 먹게.(그 그저 뭐 못 먹게.)

104006 @ 예 입에 하는 거예.(예 입에 하는 거요.)

104006 #2 예 망울.(예 부리망.)

104006 @ 망울. 예, 또 더 엇인가마씨?(부리망. 예, 또 더 없는가요?)

104006 #1 아이고.(아이고.)

104006 @ 이서도예.(있어도요.)

104006 #1 이 이 잇음이사.(이 이 있음이야.)

104006 #2 건 다 이저벤.(그것은 다 잊어버려서.)

104006 #1 천지로 다 잇을 거주마는게.(천지로 다 있을 거지마는.)

104006 @ 예, 예.(예, 예.)

104006 #1 그걸.(그걸.)

104006 @ 옛날엔.(옛날엔.)

---

128) '부림페'는 밭을 갈 적에 오른편으로 쇠머리에 씌워진 고삐를 말한다.

104006 #1 생각인 나크라.(생각은 나겠어.)

104006 @ 집집마다 그거 다 헤서 그 저기 저런예.(집집마다 그것 다 해서 그 저기 저런요.)

104006 #2 예 밧거리예.(예 바깥채요.)

104006 @ 그런 밧거리에 딱 메영 놔둬서.(그런 바깥채에 딱 매어서 놔둬서.)

104006 #2 그 밧거리에 헤영 이런 거시기 허영.(그 바깥채에 해서 이런 거시기 해서.)

104006 #1 응.(응.)

104006 @ 예, 예.(예, 예.)

104006 #2 둘아 메엇당. 허여낫주만은 이제 그거 헤어나건디가 멧 년이라게.(달아매었다가. 했었지만 이제 그것 했던 때가 이거 몇 년이야.)

104006 @ 예, 예.(예, 예.)

104006 #1 허, 허, 허, 허. 혼 사십 년도 넘은디. 그걸.(허, 허, 허, 허. 한 사십 년도 넘는데. 그거를.)

104006 @ 예, 예.(예, 예.)

104007 @ 길마, 길마가 그 가린석인가마씨? 길마?(안장, 안장이 그 긴 고삐인가요? 안장?)

104007 #2 기마?(안장?)

104007 @ 길마 길마.(안장 안장.)

104007 #2 길 기마가 무시거?(안 안장이 무엇?)

104007 @ 길마. 질마(안장 안장.)

104007 #1 질메.(안장.)

104007 @ 질메 아.(안장 아.)

104007 #2 어.(어.)

104007 #1 그 질메엔 헌 거는. 쉐 등에 그 나무로 헤서 만들어서.(그 안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 등에 그 나무로 해서 만들어서.)

104007 @ 예, 예.(예, 예.)

104007 #1 이제 딱 위에 씌와 낭. 그기에 짐을 실르는 거라. 게서 질.[129](이제 딱 위에 씌워 놓아서. 거기에 짐을 싣는 거야. 그래서 질.)

104007 @ 질.(질.)

104007 #1 진다고 헤서 질메.(진다고 해서 안장.)

104007 @ 아, 질메에 아.(아, 안장 아.)

104007 #1 등어리에 그저 나무로 영.(등에 그저 나무에 이렇게.)

104007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7 #1 멩글아근에. 등어리에 맞게 만들엉. 일로 가린석 메곡.(만들어서. 등에 맞게 만들어서. 이쪽에 긴 고삐 매고.)

---

129) '질' 지다로 물건을 짊어서 등에 얹는 뜻이다.

104007 @ 예.(예.)
104007 #1 그 베로 헤근엥에 딱 메엉. 거기에 짐을 시끄는 거라.(그 참바로 해서 딱 매어서. 거기에 짐을 싣는 거야.)
104007 @ 예.(예.)
104007 #1 게난 질메.(그러니까 안장.)
104007 #2 게난 뒤에 시끄주게 질메.(그러니까 뒤에 실지 안장.)
104007 @ 응, 질메예. 경 허곡.(응, 안장요. 그렇게 하고.)
104008 @ 그 다음에 멍에. 멍에가 아깟 ᄀᆞᆯ아.(그 다음에 멍에. 멍에가 아까 말해.)
104008 #1 이 목에.(이 목에.)
104008 @ 예, 예, 그 거.(예, 예, 그 거.)
104008 #1 응, 목에 소목에 헤서 그기서 이제 줄 연결 헹.(응, 목에 소목에 해서 거기서 이제 줄 연결해서.)
104008 @ 예, 연결헹 줄예.(예, 연결해서 줄요.)
104008 #1 이레 ᄯᆡᆼ기곡 저레 ᄯᆡᆼ기곡.(이쪽으로 당기고 저쪽으로 당기고.)
104008 @ 줄 연결 헤가지고예. 허는 거고예.(줄 연결 해가지고요. 하는 거고요.)
104009 @ 목장이 아까?(목장이 아까?)
104009 #1 응.(응.)
104009 @ 잇어신디이. 관리는 어떵 헤신고마씨? 그거는 주장은 누게고?(있었는데. 관리는 어떻게 했는가요? 그거는 주장은 누군가?)
104009 #1 아 게난, 목장은 옌날 동넷목장이 잇엇고. 부락목장이 잇엇고,(아 그러니까, 목장은 옛날 동네의 목장이 있었고. 마을목장이 있었고,)
104009 @ 예.(예.)
104009 #1 그 집안목장이 잇엇는데. 그건 거기에 헤당 뒌 사람끼리 관리 허는 거지.(그 집안목장이 있었는데. 그건 거기에 해당 된 사람끼리 관리하는 거지.)
104009 @ 예.(예.)
104009 #1 그 딴 사람은 강 붙엉.(그 다른 사람들은 가서 붙어서.)
104009 @ 붙어 보지 못허고예.(붙어 보지 못하고요.)
104009 #1 응.(응.)
104009 @ 예.(예.)
104009 #1 응, 딴 사름 가면게. 소 ᄒᆞ나라도 오면은 소 먹을 게 적어지는디. 걸 먹으렌 ᄒᆞ질 안 허주게 먹으렌엔.(응. 다른 사람 가면. 소 하나라도 오면 소 먹을 것이 적어지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지를 않지 먹으라고.)
104009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9 #1 경 ᄒᆞ니까 그건 그 동넷 목장이나 어디나 허민 그 목장조합에 다 옌날도 들언. 그 조합 형테로 헤서 그기를.(그렇게 하니까 그건 그 동네목장이나 어디나 하면 그 목장조합에 다 옛날도 들어서. 그 조합 형태로 해서 거기를.)

104009 @ 운영을.(운영을.)
104009 #1 관리운영을 헤여 흔 거난에.(관리운영을 해서 한 거니까.)
104009 @ 응, 거난 관리운영을 허젠 허민. 거기도 서기도 서기보는 사람도 잇곡.(응, 그러니까 관리운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도 서기도 서기 보는 사람도 있고.)
104009 #1 에이고 서기도.(아이고 서기도.)
104009 @ 누게 대표 보는 사람도 잇곡.(누구 대표 보는 사람도 있고.)
104009 #1 허, 허.(허, 허.)
104009 @ 서로.(서로.)
104009 #1 게메 서로.(글쎄 서로.)
104009 @ 분쟁이 나면은.(서로 분쟁이 나면.)
104009 #1 음.(음.)
104009 @ 그걸 조정ᄒᆞ는 사람도 잇곡.(그걸 조정하는 사람도 있고.)
104009 #1 게난 서로 이제 이거 풀이 이젠 다 먹어시난. 이제 이제 다른디 ᄒᆞ다근에 얼마 후에라근에 다시 가져오저. 그레 쉐 이제 ᄀᆞ꾸라. 뭐ᄒᆞ라 헤서.(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거 풀이 이젠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이제 다른데 하다가 얼마 후에는 다시 가져왔다. 그쪽으로 소 이제 가꾸라. 뭐하라 해서.)
104009 @ 응.(응.)
104009 #1 그건만 ᄒᆞ는 거지. 목장에 그 아, 쉐목장이엔 흔 건 쉐가 그 풀 먹이젠 목장이거든. 경 ᄒᆞ난게.(그건만 하는 거지. 목장에 그 아, 소목장이라고 한 것은 소가 그 풀 먹이려고 목장이거든. 그렇게 하니까.)
104009 @ 응.(응.)
104009 #1 풀이 없으면 자꾸 오랑 ᄒᆞ민 그게 다 파불곡.(풀이 없으면 자꾸 와서 하민 그게 다 파버리고.)
104009 @ 예.(예.)
104009 #1 고갈뒈민 안 뒈니까.(고갈되면 안 되니까.)
104009 @ 예.(예.)
104009 #1 이런 거 관리ᄒᆞ는 거주 무신.(이런 거 관리하는 거지 무슨.)
104009 @ 그런 거 ᄒᆞ는 거예.(그런 거 하는 거요.)
104009 #1 응.(응.)
104009 @ 게 대표렌 ᄒᆞ는 것도.(그럼 대표라고 하는 것도.)
104009 #1 게난 모르주. 그건 뭐 그 접에서.(그러니까 모르지. 그건 뭐 그 계에서.)
104009 @ 아, 접 허게 되면은 접에 그 계약허는 문세 같은 것도 잇어신가마씨?(아, 계 하게 되면 계에 그 계약하는 문서 같은 것도 있었는가요?)
104009 #1 아, 것사 처음 헐 떼 살 때라든가. 뭐 홀 떼 다 그 밧.(아, 것이야 처음 할 때 살 때라든가. 뭐 할 때 다 그 밭.)
104009 @ 밧을.(밭을.)

104009 #1 그 춤 목장 질 사젠 ᄒᆞ면은.(그 참 목장 지를 사려고 하면.)
104009 @ 응.(응.)
104009 #1 그것도 잇어일 거고 뭐 ᄒᆞ주마는.(그것도 있었을 거고 뭐 하지마는.)
104009 @ 예 그거는.(예 그거는.)
104009 #1 우리 그런 것ᄁᆞ지는 몰라.(우리 그런 것까지는 몰라.)
104009 @ 밧 사난 문서주만은. 운영허젠 허민.(밭 샀던 문서지만. 운영하려고 하면.)
104009 #1 응.(응.)
104009 @ 운영허젠 허민 경 헤도 말발이 쎈 사람허곡게. 어느 집엔 소만 앚어오면 어느 집이 소만 하영 멕이곡 허젠 허면은.(운영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말발이 센 사람하고. 어느 집엔 소만 가져오면 어느 집에 소만 많이 먹이고 하려고 하면.)
104009 #1 아.(아.)
104009 @ 그런 거.(그런 거.)
104009 #1 게난 그런 거를 공정이 ᄒᆞ기 위헤서 서로 조합허여근에.(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정히 하기 위해서 서로 조합해서.)
104009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9 #1 서로 의논허멍 ᄒᆞ는 거주.(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거지.)
104009 @ 예.(예.)
104009 #1 그걸 똑 누게 올케 말빨 쎈 사람만 멕이곡. 뭐허곡. ᄒᆞ면은게 그게 조합이 뒈여게.(그걸 똑 누가 올케 말발 센 사람만 먹이고. 뭐하고. 하면 그것이 조합이 되니.)
104009 @ 예.(예.)
104009 #1 안뒈주.(안 되지.)
104009 @ 예, 예.(예, 예.)
104009 #1 게난 옌날은 이 협동이 상당이.(그러니까 옛날은 이 협동이 상당히.)
104009 @ 응.(응.)
104009 #1 여깃 사름들이 잘 뒈엇주게 그 뭐.(여기의 사람들이 잘 되었지 그 뭐.)
104009 @ 예, 거난 그것도 이제 무슨 방법이 경 헤도. ᄋᆞ라 사람이 잇어 가면은 규칙도 만들고 헤실 거난. 그런 거가 잇인가? 해서.(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무슨 방법이 그렇게 해도. 여러 사람이 있어 가면 규칙도 만들고 했을 거니까.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104009 #1 규칙도 만들어지고 헤서 어떵 허기로 거 약속들은 다.(규칙도 만들어지고 했어 어떻게 한다고 거 약속들은 다.)
104009 @ 헤기네예?(해서요?)
104009 #1 춤 문서화가 안 뒈도 그레도.(참 문서화가 안 되도 그래도.)

104009 @ 음 음.(음 음.)
104009 #1 말로라도 다 서로가.(말로라도 다 서로가.)
104009 @ 예, 예.(예, 예.)
104009 #1 이제 그 약속헤서 모든 것을.(이제 그 약속해서 모든 것을.)
104009 @ 예 규칙해가지고예.(예 규칙해가지고요.)
104009 #1 으 으, 헷을 걸로 보주.(으 으, 했을 걸로 보지.)
104009 @ 예 그것도 다 이실 거우다 뭐.(예 그것도 다 있을 겁니다 뭐.)
104009 #1 나 팔십 세 헷자. 팔십 년도 엇그제라.(나 팔십 세 했어도. 팔십 년도 엊그제야.)
104009 @ 예.(예.)
104009 #1 허, 허, 허, 허, 허.(허, 허, 허, 허, 허.)
104010 @ 소 마지막으로 기루멍예. 추억이나 경험 같은 거예. 영 지금에 찬찬이 허면은.(소 마지막으로 기르면서요. 추억이나 경험 같은 거요. 이렇게 지금에 찬찬이하면.)
104010 #1 아 겐디 그.(아 그런데 그.)
104010 @ 영 튼네지는 것들 골아줍서.(이렇게 떠올려지는 것들 말해주십시오.)
104010 #1 우리 거 두린 나 거 두린 떼벳기.(우리 거 어린 나 거 어린 때밖에.)
104009 @ 예.(예.)
104010 #1 쉐 ᄀᆞ꾸렐 안 뎅겨봣주.(소 가꾸러를 안 다녀보았었지.)
104009 @ 맞수다예.(맛습니다요.)
104010 #1 으.(으.)
104009 @ 게난.(그러니까.)
104010 #1 어릴 적에 쉐 ᄀᆞ꾸레 가민.(어릴 적에 소 가꾸러 가면.)
104009 @ 놀레가고.(놀러가고.)
104010 #1 아, 놈이 감저 파당 구웡 먹는 거어.(아, 남의 고구마 파다가 구워서 먹는 거.)
104009 @ 예.(예.)
104010 #1 어, 아 이제 춤 소가 어디서 놀다보면은 도망강. 춪지 못헤근에 그 에쓰는 거.(어, 아 이제 참 소가 어디서 놀다보면 도망가서. 찾지 못해서 그 애쓰는 거.)
104009 @ 아.(아.)
104010 #1 아, 이런 경우도 잇엇주게.(아, 이런 경우도 있었지.)
104010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4010 #1 음.(음.)
104010 @ 그 소 만약에 잃어버련. 잃러불언에. 막 춪이레 뎅겨난 그런 것도 이수과?(예, 그 소 만약에 잃어버려서. 잃어버려서. 막 찾으러 다녔던 그런 것도 있습니까?)

104010 #1 아 잇주게 걸.(아 있었지 그걸.)

104010 @ 경 허면은.(그렇게 하면.)

104010 #1 건 이제.(건 이제.)

104010 @ 금방 촞아져신가마씀?(금방 찾아졌는가요?)

104010 #1 쉐 ᄀᆞ꾸레 가면 ᄒᆞᆫ 집이 ᄒᆞᆫ 사름 가거든. ᄒᆞᆫ ᄒᆞᆫ 열뎃 집, ᄒᆞᆫ 스무집 이렇게 그 떼[130]가 그 구성이 뒈면은.(이제 소 가꾸러 가면 한 집이 한 사람 가거든. 한 한 열댓 집, 한 스물 집 이렇게 그 '테'가 그 구성이 되면.)

104010 @ 응.(응.)

104010 #1 옌날은 메 집이 쉐 ᄒᆞᆫ ᄆᆞ리씩이라도 다 키왓거든.(옛날은 매 집에 소 한 마리씩이라도 다 키웠거든.)

104010 @ 예.(예.)

104010 #1 요즘은. 키우는 딘 키우고 안 키우는 사람은 안 키우고. ᄒᆞ주만은.(요즘은 키우는 데는 키우고 안 키우는 사람은 안 키우고. 하지만.)

104010 @ 응.(응.)

104010 #1 엿날은 원 ᄒᆞᆯ 게 없으니까. 그 소라도 키와야 그거 새끼라도 낭 풀아오면 돈이 그것에서벳기 나올게 업서.(옛날은 전혀 할 것이 없으니까. 그 소라도 키워야 그거 새끼라도 낳아서 팔아오면 돈이 그것에서밖에 나올 것이 없어.)

104010 @ 예.(예.)

104010 #1 응 옌날은.(응 옛날은.)

104010 #2 아, 경 ᄒᆞ곡게. 농ᄉᆞ짓젠 허민 쉐 ᄒᆞᆫ ᄆᆞ리썩은 잇어사.(아, 그렇게 하고. 농사지으려고 하면 한 마리씩은 있어야.)

104010 @ 예 밧을.(예 밭을.)

104010 #2 밧을 갈 거난.(밭을 갈 거니까.)

104010 @ 갈 거난예. 예.(갈 거니까요. 예.)

104010 #2 예, 밧을 갈아사 ᄒᆞᆯ 거난게.(예, 밭을 갈아야 할 거니까.)

104010 @ 게난 대중 집에는 소는 멧 마리 정도는 잇어신고예?(그러니까 대중 집에는 소는 몇 마리 정도는 있었는가요?)

104010 #1 아, 게난 그게 쉐.(아, 그러니까 그게 소.)

104010 @ 쉐막에.(외양간에.)

104010 #1 어멍 할망 어멍 손지 이 정도 잇어 가 가면은 나중에 커 가민.(어머니 할머니 어머니 손주 이 정도 있어 가 가면은 나중에 커 가면.)

104010 #2 에민 풀아가곡.(어미는 팔아가고.)

104010 @ 에민 풀곡.(어미는 팔고.)

104010 #1 에미는 풀아가곡. 또.(어미는 팔아가고. 또.)

104010 @ 손지가.(손주가.)

104010 #1 새끼 나곡.(새끼 낳고.)

130) '떼'는 '테'와 '케'를 일컫고 지경(地境)을 뜻하고 있다.

104010 @ 으.(으.)
104010 #2 새낀 키와가곡.(새끼는 키워가고.)
104010 @ 새끼가 어멍이 뒈곡.(새끼가 어머니가 되고.)
104010 #1 응 ᄒᆞ면서 이제 그 순 순환이 뒈는 거주.(응 하면서 이제 그 순 순환이 되는 거지.)
104010 @ 예, 예 한 보통 두세 마리. 두세 마리.(예, 예 한 보통 두세 마리. 두세 마리.)
104010 #1 응.(응.)
104010 @ 두 마리 어떤 때는 ᄒᆞᆫ 마리 허다가.(두 마리 어떤 때는 한 마리 하다가.)
104010 #2 예, 예.(예, 예.)
104010 @ 또 새끼 나면은 허곡.(또 새끼 낳으면 하고.)
104010 #2 예.(예.)
104010 @ 예.(예.)
104010 #2 초담에는게. ᄒᆞᆫ ᄆᆞ리 상. ᄋᆞ라 ᄆᆞ리 홈치 살 수가 엇이난게.(처음에는. 한 마리 사서. 여러 마리 한꺼번에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104010 @ 응.(응.)
104010 #2 촌에서.(촌에서.)
104010 @ 예.(예.)
104010 #2 경 ᄒᆞ난. ᄒᆞᆫ ᄆᆞ리 상. 새끼, 암쉐를 하영 삿주. 그떼.(그러니까. 한 마리 사서. 새끼, 암소를 많이 샀지. 그때.)
104010 @ 예.(예.)
104010 #2 게민 암쉐 상. 새끼 이제 가지민 그거 나민. 이제 그거 이제 또 에민 부리당 보민 늙을 거 아니.(그러면 암소 사서. 새끼 이제 가지면 그거 나면. 이제 그거 이제 또 어미는 부리다가보면 늙을 거 아니.)
104010 @ 응.(응.)
104010 #2 늙으민 이제 그 난 것도 베와근엥에 그걸로 부리곡 그 에민 풀아불고.(늙으면 이제 그 난 것도 배워서 그걸로 부리고 그 어미는 팔아버리고.)
104010 @ 풀아불곡예.(팔아버리고요.)
104010 #2 풀아비영 또 새끼에 또 새끼 나가 가민.(팔아버려서 또 새끼에 또 새끼 낳아 가면.)
104010 @ 응.(응.)
104010 #2 또 그것도 늙어 가민 풀아불곡.(또 그것도 늙어 가면 팔아버리고.)
104010 #1 거 거 것.(거 거 것.)
104010 @ 맞수다.(맞습니다.)
104010 #1 거 허, 헛.(거 허, 헛.)
104010 #2 경 헤 가멍 헷주게.(그렇게 해가면서 했지.)

104010 @ 어.(어.)
104010 #2 쉐 흔 ᄆᆞ리 풀아근엥이 어스렁헌 밧은 ᄒᆞ나썩 삼도 헤나곡.(소 한 마리 팔아서 어수룩한 밭은 하나씩 사기도 했었고.)
104010 @ 맞수다.(맞습니다.)
104010 #2 옌날은게.(옛날은.)
104010 @ 예 밧예. 예.(예 밭요. 예.)
104010 #2 예.(예.)
104010 @ 그, 소는 팔 떼는 돈으로 헤신가마씨. 아니면 밧허고 바꽈신가마씨?(그, 소는 팔 때는 돈으로 했는가요. 아니면 밭하고 바꿨는가요?)
104010 #2 돈으로 헷주게.(돈으로 했지.)
104010 #1 돈 돈으로 뭐 우리.(돈 돈으로 뭐 우리.)
104010 @ 하르버지.(할아버지.)
104010 #1 두린 떼도 다 돈으로 헷서.(어린 때도 전부 돈으로 했어.)
104010 @ 돈으로예?(돈으로요?)
104010 #1 응.(응.)
104010 @ 예.(예.)
104010 #1 일제시대도 돈이 화페가.(일제강점기도 돈이 화폐가.)
104010 @ 화폐가 이시난예?(화폐가 있으니까요?)
104010 #1 응.(응.)
104010 @ 예.(예.)
104010 #1 통용 뒈시난.(통용 되었으니까.)
104010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말 기르기

104011 @ 게문예. 이제는 말예. 말예.(그러면요. 이제는 말요. 말요.)
104011 # 응.(응.)
104011 @ 삼춘 말 타 봅디가?(삼촌 말 타 보셨습니까?)
104011 #1 말 안 타봣저.(말 안 타봤어.)
104011 @ 안 타봅디가? 하, 하, 하, 하.(안 타보셨습니까? 하, 하, 하, 하.)
104011 #1 허, 허, 허, 허.(허, 허, 허, 허.)
104011 #2 헤, 헤, 헤, 헤.(헤, 헤, 헤, 헤.)
104011 @ 말은 또 어떵 길르코마씨?(말은 또 어떻게 기를까요?)
104011 #1 말은 이, 소ᄒᆞ고는 틀리주게.(말은 이, 소하고는 다르지.)
104011 @ 예.(예.)
104011 #1 말은 거이 들에서 커.(말은 거의 들에서 커.)
104011 @ 예.(예.)
104011 #1 들에서. 경 허면은 그 말은 집에 들어오랑. 이 저 우, 쉐막에서나 키

우는 게 아니라.(들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은 집에 들어와서. 이 저 우, 외양간에서나 키우는 것이 아니라.)

104011 @ 예.(예.)

104011 #1 말은 거이 들에 메. 겨울에도 들에 메곡.(말은 거의 들에 매. 겨울에도 들에 매고.)

104011 @ 응.(응.)

104011 #1 그 츰 봄, 가을 헐 것 없이 들에서 메웡 키우주게.(그 참 봄, 가을 할 것 없이 들에서 매어서 키우지.)

104011 @ 예.(예.)

104011 #1 경 ᄒᆞ면은 뭐 말도 키우는 데는 저것도 도망가곡. 어딜 가근에 몹쓸 짓만 아니 ᄒᆞ면은 키우는 디는 괜찬여주만은. 거 ᄒᆞ당 ᄂᆞᆷ이 곡석 ᄀᆞ뜬 거 밧디서 다 먹어불민.(그렇게 하면은 뭐 말도 키우는 데는 저것도 도망가고. 어디를 가서 몹쓸 짓만 아니 하면은 키우는 데는 괜찮지만. 거 하다가 남의 곡식 같은 거 밭에서 다 먹어버리면.)

104011 @ 예, 예.(예, 예.)

104011 #1 이거 변상도 헤야 뒈고.(이거 변상도 해야 되고.)

104011 @ 아.(아.)

104011 #1 잘못 뒈민 허주.(잘못 되면 하지.)

104011 @ 예 ᄂᆞᆷ이 곡석예.(예 남의 곡식요.)

104011 #1 으 경 ᄒᆞ니까. 뭐 키우기는 좀 수월헤여.(으 그렇게 하니까. 뭐 키우기는 좀 수월해.)

104011 @ 아, ᄆᆞᆯ 키우기는예.(아, 말 키우기는요.)

104011 #1 으.(으.)

104011 @ 예 집에 와서 막 그.(예 집에 와서 아주 그.)

104011 #1 으.(으.)

104011 @ 멕이거나 안 헤. 들에 놔두난예.(먹이거나 안 해. 들에 놓아두니까요.)

104011 #1 으, 그자 들에서 들에서 그 줄레.(으, 그저 들에서 들에서 그 줄에.)

104011 @ 줄, 맞수다예.(줄, 맞습니다.)

104011 #1 으 헤여가지고 메엉 놔두민 그자 그 디서.(으, 해가지고 매어서 놔두면 그저 그 데서.)

104011 #2 줄레 헹, 말툭헹 박앙근에게.(줄에 해서, 말뚝해서 박아서.)

104011 @ 예, 예.(예, 예.)

104011 #2 경 허민.(그렇게 하면.)

104011 #1 그 디서 빙빙 돌아뎅기멍 먹고.(그 데서 빙빙 돌아다니면서 먹고.)

104011 #2 돌아뎅기멍 먹곡. 잘못 박으민 빠졍 ᄃᆞᆯ아남도 허곡게.(돌아다니면서 먹고. 잘못 박으면 빠져서 달아나기도 하고.)

104011 @ 예, 예 그 거예.(예, 예 그 거요.)

104011 #1 경 헤서 그거 ᄒᆞ룻주냑 먹으민. 또 딴 디로 이동헹 박아 놓민.(그렇게 해서 그거 하룻저녁 먹으면. 또 딴 데로 이동해서 박아 놓으면.)

104011 @ 예, 예.(예, 예.)

104011 #1 또 그 주위를.(또 그 주위를.)

104011 @ 으, 그거를, 거문 또 말은 또 이녁 주인이 가근에 그거를 다른디 강 허곡 헤수과?(으, 그거를, 그러면 또 말은 또 이녁 주인이 가서 그거를 다른데 가서 하고 했습니까?)

104011 #2 응 게.(응 그렇지.)

104011 @ 아니면 그 저기 테우리흔티 멧겻수과?(아니면 그 저기 목동한테 맡겼습니까?)

104011 #2 아니 아니 그건.(아니 아니 그건.)

104011 #1 아니 건 개인적으로.(아니 건 개인적으로.)

104011 @ 개인적으로예.(개인적으로요.)

104011 #1 으.(으.)

104011 @ 집안에서는 저기 ᄆᆞᆯ은 멧? 다 잇인.(집안에서는 저기 말은 몇? 다 있는.)

104011 #1 그뗴는.(그때는.)

104011 @ 예.(예.)

104011 #1 ᄆᆞᆯ은 얼마 안 키왓저게.(말은 얼마 안 키웠어.)

104011 @ 말은 얼마 안 키완예?(말은 얼마 안 키웠어요?)

104011 #1 마차를 허거나.(마차를 하거나.)

104011 @ 예, 그 마차?(예, 그 마차?)

104011 #1 응, 마차.(응, 마차.)

104011 #2 구르마아.(마차.)

104011 @ 예.(예.)

104011 #2 구르마.(마차.)

104011 #1 그 구르마 허는 디는 ᄆᆞᆯ이 이제 끗는 게. 쉐 끗는 것보다도 동작도 ᄲᆞᆯ르곡.(그 마차 하는 데는 말이 이제 끄는 것이. 소 끄는 것보다도 동작도 빠르고.)

104011 @ 아.(아.)

104011 #2 쎔도 허곡.(세기도 하고.)

104011 @ 쎔도 허고예.(세기도 하고요.)

104011 #1 으, 잘도 끌기고 ᄒᆞ니까. 상당이.(으, 잘도 끌기고 하니까. 상당히.)

104011 @ 으.(으.)

104011 #1 효과적이주게. 경 ᄒᆞ난 그거 헐랴고 허면은 ᄆᆞᆯ도 힘쎄곡 좋은 ᄆᆞᆯ을 선호헷주.(효과적이지. 그렇게 하니까 그거 하려고하면 말도 힘세고 좋은 말을 선호했지.)

104011 @ 예.(예.)

104011 #1 뭐 지금도 ᄆᆞᆯ 좋아야 ᄒᆞ주만은 좋아야. 이런 마차 ᄀᆞ뜬 것도 허주만은.(뭐 지금도 말 좋아야 하지만 좋아야. 이런 마차 같은 것도 하지마는.)

104011 @ 으.(으.)

104011 #1 게난 좋은 ᄆᆞᆯ 헤젠 ᄒᆞ문.(그러니까 좋은 말 하려고 하면.)

104011 @ 예, 그 마차 헤가지고 뭐 소도 구르마 잇주마는 말도 구르마 헤가지고허고.(예, 그 마차 해가지고 뭐 소도 우차 있지마는 말도 마차 해가지고하고.)

104011 #2 아니 소 보단 ᄆᆞᆯ이.(아니 소보다는 말이.)

104011 #1 마차.(마차.)

104011 #2 구르마를 하영 헷주게.(마차를 많이 했지.)

104011 @ 구르마를 하영 헤영?(마차를 많이 해서?)

104011 #1 응.(응.)

104011 #2 응, ᄆᆞᆯ 엇인 사름 소로 이녁. 그자.(응, 말 없는 사람 소로 이녁. 그저.)

104011 #1 응.(응.)

104011 #2 농ᄉᆞ짓는 거 ᄒᆞ끔썩 시꺼 오고.(농사짓는 거 조끔씩 실어 오고.)

104011 #1 응, 그거 소는 ᄒᆞ끔 느리주게 느려.(응, 그거 소는 조금 느리지 느려.)

104011 @ 예.(예.)

104011 #2 ᄒᆞ끔썩 시꺼오곡.(조금씩 실어오고.)

104011 #1 소 마차는 느리고.(소 우차는 느리고.)

104011 @ 말은 빨르고.(말은 빠르고.)

104011 #1 ᄆᆞᆯ은 빨르게.(말은 빠르게.)

104011 @ 으.(으.)

104011 #1 싹싹 이제 그 츰 이동ᄒᆞ는데도. 빨르고 영 ᄒᆞ니까. ᄆᆞᆯ을 많이 헤서 마차라고 게난.(싹싹 이제 그 참 이동하는데도. 빠르고 이렇게 하니까. 말을 많이 해서 마차라고 그러니까.)

104011 @ 예.(예.)

104011 #1 이제 ᄆᆞᆯ을 많이 이용헷주 구르마엔.(이제 말을 많이 이용했지 마차라고.)

104011 #2 요세 마차주. 옌날에 구르마주게.(요새 마차지. 옛날에 '구르마'지.)

104011 @ 예.(예.)

104011 #2 응, ᄆᆞᆯ구르마.(응, 마차.)

104011 @ ᄆᆞᆯ구르마예?(마차요?)

104011 #2 응, ᄆᆞᆯ꾸르마. 쉐구르마헤영. ᄆᆞᆯ ᄆᆞᆯ구르마.(응, 마차. 우차해서. 말 마차.)

104011 #1 게난 ᄆᆞᆯ덜 뭐 익숙히 사람ᄒᆞ고 츰 훈련헤 놓으면은.(그러니까 말들 뭐 익숙히 사람하고 참 훈련해 놓으면.)

104011 @ 으 것도 훈련시킬 때 저기 소ᄀᆞ추룩?(으 것도 훈련시킬 때 저기 소처럼?)

104011 #1 글쎄 그것도 뭐 춤.(글쎄 그것도 뭐 참.)

104011 @ 아.(아.)

104011 #1 그 완력으로 헤근에 그.(그 완력으로 해서 그.)

104011 @ 으.(으.)

104011 #1 훈련을 시켯주. 훈련을 시켯는디.(훈련을 시켰지. 훈련을 시켰는데.)

104011 @ 으.(으.)

104011 #1 소 말이 훈련 잘 뒈면은 어떤 밤이 그 주인이 암만 술 먹어도 탁 드러누우민. 집이ᄁᆞ지 꼭 데려와.(소 말이 훈련 잘 되면 어떤 밤이 그 주인이 아무리 술 먹어도 탁 드러누우면. 집에까지 꼭 데려와.)

104011 @ 어.(어.)

104011 #1 마차가 말이.(마차가 말이.)

104011 @ 어, 예, 예.(어, 예, 예.)

104011 #2 구르마 탕. 술을 망창 먹엉. 정신이 엇서도 그 ᄆᆞᆯ 이신 구르마 웃터레 그 주인이 탁 탕 그 녹대만 탁 걸치면 그 ᄆᆞᆯ이 집안에ᄁᆞ장.(마차 타서. 술을 망창 먹어서. 정신이 없어도 그 말 있는 마차 위로 그 주인이 탁 타서 그 고삐만 탁 걸치면 그 말이 집안에까지.)

104011 @ 알아근에.(알아서.)

104011 #2 그 구르마 끗은 양 집이 들어와.(그 마차 끈 채 집에 들어와.)

104011 @ 집에 들어와근에예.(집에 들어와서요.)

104011 #2 으 경 허면 춤 안네서.(으, 그렇게 하면 참 안에서.)

104011 #1 그 정도로.(그 정도로.)

104011 @ 예 집안에서.(예 집안에서.)

104011 #2 경 ᄆᆞᆯ이 영리 흔 ᄆᆞᆯ은 경 ᄒᆞ는디.(그렇게 말이 영리 한 말은 그렇게 하는데.)

104011 @ 예.(예.)

104011 #2 경 아니흔 ᄆᆞᆯ은 뭐 타나 마나.(그렇게 안한 말은 뭐 타거나 말거나.)

104011 @ 어, 예예.(어, 예예.)

104011 #2 그자 가나마나 헹 설러 비엉.(그저 가든지 말든지 해서 그만둬 버려서.)

104012 @ 그 말 종류에 대해서 ᄀᆞᆯ아줍서. 뭐 아까 저기 무슨 말, 무슨 말.(그 말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뭐 아까 저기 무슨 말, 무슨 말.)

104012 #1 아, ᄆᆞᆯ 종류는 알아져어. 가라ᄆᆞᆯ.(아, 말 종류는 알아지니. 가라말.)

104012 @ 가라ᄆᆞᆯ.(가라말.)

104012 #1 아, 그건 다 요즘도 그저 다 ᄆᆞᆯ에 데해서. 그 ᄆᆞᆯ 종류들 ᄒᆞ는디. 그거 이상 나도 몰라.(아, 그건 다 요즘도 그저 다 말에 대해서. 그 말 종류들 하는데. 그

거 이상 나도 몰라.)

104012 @ 예게. 알아지는 것만.(예. 알아지는 것만.)

104012 #1 으.(으.)

104012 @ 게난 가라ᄆᆞᆯ 가라ᄆᆞᆯ?(그러니까 가라말 가라말?)

104012 #1 가라ᄆᆞᆯ이라든가. 무슨.(가라말이라든가. 무슨.)

104012 @ 그 당시 어떤 말이 썸신가 허고 보통 이야기 허는 데로.(그 당시 어떤 말을 썼는가 하고 보통 이야기 하는 대로.)

104012 #2 요세 가라ᄆᆞᆯ이여 무신, 정충메여 무신.(요새 가라말이다 무슨, 총이말이다 무슨.)

104012 @ 정충메.(총이말.)

104012 #2 으.(으.)

104012 @ 정충메.(총이말.)

104012 #2 또, 우렁메[131]여.(또 '우렁메'다.)

104012 @ 예, 우렁메.(예, '우렁메.')

104012 #2 응, 우렁메여 뭐 ᄆᆞᆯ 수가.(응, '우렁메'다 뭐 말 수가.)

104012 @ 예 우렁메.(예 '우렁메.')

104012 #2 막 ᄋᆞ러 가지라도.(막 여러 가지라도.)

104012 @ 예.(예.)

104012 #2 이젠 잊어변.(이젠 잊어버려서.)

104012 @ 우렁메.('우렁메.')

104012 #2 응, 우렁메여 무슨 거 그런 것도 곧곡 허난에 알아지크라. 거 하도 잊어베연. 거 옌날에 헤난 거난게.('우렁메'다 무슨 거 그런 것도 말하고 하니까 알아지겠어. 거 많이 잊어버려서. 거 옛날에 했던 거니까.)

104012 @ 가라ᄆᆞᆯ, 정충메 우렁메.(가라말, 청총마, '우렁메.')

104012 #2 예.(예.)

104012 #1 게난 다른 사름도 다 잘 ᄀᆞᆯ으메.(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잘 말해.)

104012 #2 데게헹. 가민 따른 어른덜은 다 알앙 잘 ᄀᆞ를 거우다게. 경헌디 우린 그런 거 경 하영 헤보질 아녀.(대개해서. 가면 따른 어른들은 다 알아서 잘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거 그렇게 많이 해보지를 아니해서.)

104012 #1 우리가 하영.(우리가 많이.)

104012 @ 아 맞수다.(아 맞습니다.)

104012 #1 우리가 ᄆᆞᆯ을 많이 길롸보질 안혀니까.(우리가 말을 많이 길러보지를 안하니까.)

104012 @ 예. 그냥 보통.(예. 그냥 보통.)

104012 #2 으 경 ᄒᆞ난, 그자 그거 벳긴 그 이상은 원.(응 그러니까, 그저 그거 밖에는 그 이상은. 전혀)

---

131) '우렁메'는 얼룩소의 수소를 말한다고 한다.

104012 @ 예게. 물 나이 흔 살이면 무시거엔 ᄒᆞ고 아까 쉐처럼.(예게, 말 나이 한 살이면 무엇이라고 하고 아까 소처럼.)

104012 #1 응 그거 쉐하고 틀리주.(응, 그거 소하고 다르지.)

104012 @ 예.(예.)

104012 #1 몰라 거.(몰라 거.)

104012 #2 이수? 삼수 ᄒᆞ는가? 그거 원.(이듭? '삼수' 하는가? 그거 전혀.)

104012 @ 이수 어.(이듭 어.)

104012 #1 게메 그 저 물도 저 쉐ᄒᆞ고는 좀 틀릴 거라.(그러니까 말도 소하고는 좀 다를 거야.)

104012 #2 틀려.(달라.)

104012 #1 나이 세는 게.(나이 세는 것이.)

104012 #2 응.(응.)

104012 @ 나이 세는 게예.(나이 세는 것이요.)

104012 #2 이수 무신 아이고 그 저 옌날에 ᄒᆞ쏠 무시거넨 ᄀᆞᆯ아낫저마는 거 잊어병(이듭 무슨 아이고 그 저 옛날에 조금 무엇이라고 말했었지만 그것 잊어버려서.)

104012 @ 이수? 일수?(이듭? 일수?)

104012 #2 응, 아이고 거 모르쿠다 거.(응, 아이고 거 모르겠습니다 거.)

104012 @ 예.(예.)

104013 @ 삼춘네도 경 헤도 말은 집에 잇어실 거 아니우꽈예?(삼촌네도 그렇게 해도 말은 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요?)

104013 #2 아니. 우리 아니 키와봐서.(아니. 우리 아니 키워봤어.)

104013 @ 엇어수과? 안 키워봔?(없었습니까? 안 키워봔?)

104013 #1 아, 우린 물 아니 키와봐서.(아, 우린 말 안 키워봤어.)

104013 @ 예, 예.(예, 예.)

104013 @ 안 키왓주마는, 경 헤도 놈이 물을 보거나 이렇게 한번.(안 키웠지만, 그렇게 해도 남의 말을 보거나 이렇게 한번.)

104013 #1 아게, 놈이 물을 보고 놈이 물마차 빌어다근에.(아, 남의 말을 보고 남의 마차 빌어다가.)

104013 @ 예 마차 빌어다근에예.(예 마차 빌어다가요.)

104013 #1 그걸로 일을.(그걸로 일을.)

104013 #2 구르마 짐을 보리나게.(마차 짐을 보리나.)

104013 #1 뭐 시꺼 올 땐.(뭐 실어 올 땐.)

104013 #2 조나 헤정. 비여 놓민 뭐 시꺼 오젠 허민. 물구르말 빌어사 시꺼 올 거니까게.(조나 해져서. 베어 놓으면 뭐 싣고 오려고 하면. 마차를 빌어야 싣고 올 거니까.)

104013 @ 예, 예.(예, 예.)

104013 #2 경 허난 구르마 그거 ᄆᆞᆯ구르마 ᄒᆞ는 걸 이용허영 요세 차 이용허듯이게.(그렇게 하니까 마차 그거 마차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요새 차 이용하듯이.)

104013 @ 예, 예.(예, 예.)

104013 #2 그거 엇이민 못 허난게.(그거 없으면 못 하니까.)

104013 #1 구르만 운반수단이난게.(마차는 운반수단이니까.)

104013 @ 운반수단도 허고 밧 붋을 땐.(운반수단도 하고 밭 밟을 땐.)

104013 #2 밧 붋을 뗀 게메. 돈 하근엥이 이제 뭐 ᄒᆞᆫ 사름은 그 ᄆᆞᆯ 테우리 빌엉.(밭 밟을 땐 그러니까. 돈 많아서 이제 뭐 한 사람은 그 말 목동 빌어서.)

104013 @ 예.(예.)

104013 #2 ᄆᆞᆯ 테우리 빌어근에. 밧을 ᄇᆞᆯ렷주마는.(말 목동 빌어서. 밭을 밟았지마는.)

104013 @ 예.(예.)

104013 #2 경 안 형 돈도 업곡 이제 기력이 엇인 사름은 남테허영.(그렇게 안 해서 돈도 없고 이제 기력이 없는 사람은 남태해서.)

104013 @ 남테헤영예.(남태해서요.)

104013 #2 둘이가 영 끗엉.(둘이가 이렇게 끌어서.)

104013 @ 예.(예.)

104013 #2 끗어근엥이 밧 ᄇᆞᆯ령 조 조 갈 떼 경 헨허고.(끌어가지고 밭 밟아서 조 조 갈 때 그렇게 해서하고.)

104013 @ 예예, 조 갈 떼예.(예예, 조 갈 때요.)

104013 #2 예.(예.)

104013 @ 어저께 삼춘 잘 ᄀᆞᆯ아 주십디다.(어저께 삼촌 잘 말해 주십디다.)

104013 #1 거 다 ᄀᆞᆯ은 말인디.(거 다 말한 말인데.)

104013 @ 맞수다. 예예.(맞습니다. 예예.)

104013 #2 게메 게난게.(그러니 그러니까.)

104013 @ 남테 헤근에예.(남태해서요.)

104013 #2 남테 헹 조 ᄇᆞᆯ리는 거.(남태해서 조 밟는 거.)

104013 @ 테우리들은 경 헤도 저기 ᄆᆞᆯ이 하신게마씨.(목동들은 그렇게 해도 저기 말이 많군요.)

104013 #1 ᄋᆞ.(ᄋᆞ.)

104013 @ 경 허난 하근에 싹 가근에 그 말 둘러기네예.(그렇게 하니까 많아서 싹 가서 그 말 돌려서요.)

104013 #2 어.(어.)

104013 #1 어 그것이 ᄆᆞᆯ 떼가 헤가민 그게 이 ᄒᆞ루에, 어마 일 년에 숫자가 상당이 불어나.(어 그것이 말 떼가 해가면 그게 이 하루에, 어마 일 년에 숫자가 상당이 불어나.)

104013 @ 예.(예.)

104013 #2 아니게. 말 뎃 개만 질롸 가 가민. 말 혼 ᄆᆞ리에 저 ᄒᆞ나썩, 일 년에 ᄒᆞ나썩은 나면은. 그거 잠깐 혼 삼 년 세에게 여남은 ᄆᆞ리가 넘을 거 아니?(아니. 말 댓 개만 길러 가 가면. 말 한 마리에 저 하나씩, 일 년에 하나씩은 낳으면. 그거 잠깐 한 삼 년 사이에게 여남은 마리가 넘을 거 아냐?)

104013 @ 예.(예.)

104013 #2 경 허면 그치룩 헹 돈 잇인 사름은 말 테우리헤여근엥에. 밧 볼리레 뎅기민. 돈도 벌곡게.(그렇게 하면 그처럼 해서 돈 있는 사람은 말 목동해서. 밭 밟으러 다니면. 돈도 벌고.)

104013 @ 예.(예.)

104013 #2 잘도 그 옌날엔.(잘도 그 옛날에는.)

104013 @ 맞수다.(맞습니다.)

104013 #2 옌날은 맛좋은 것이 어디 시우꽈?(옛날은 맛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4013 @ 아이고.(아이고.)

104013 #2 고사리 솖앙 ᄆᆞ믈ᄀᆞ루나 놓곡 게랄 틔우민 그거 맛존 국으로 헹 먹곡 헷주.(고사리 삶아서 메밀가루나 넣고 달걀 띄우면 그거 맛좋은 국으로 해서 먹고 했지.)

104013 @ 예.(예.)

104013 #2 어디 무시것이 잇어수꽈?(어디 무엇이 있었습니까?)

104013 @ 으.(으.)

104013 #2 도세기도 질루당. 올케 추렴[132]이나 허민 ᄒᆞ쏠 갈라당 먹어지곡. 경 안허민 도세기 궤기 꼴을 봐수꽈게?(돼지도 기르다가. 올케 추렴이나 하면 조금 갈라다가 먹어지고. 그렇게 안하면 돼지고기 꼴을 봤습니까?)

104013 @ 맞수다예.(맞습니다요.)

104013 #2 요센 지름 안 먹키여. 가죽 안 먹히엔 헤도.(요새는 기름 안 먹겠다. 가죽 안 먹겠다고 해도.)

104013 #1 헷.(헷.)

104013 #2 그런 게 엇언 못 먹엇주.(그런 것이 없어서 못 먹었지.)

104013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4014 @ 쉐허고 말 나이. 혼 살이민 무시거 허고 아까 쉐처럼.(소하고 말 나이. 한 살이면 무엇 하고 아까 소처럼.)

104014 #1 아, 그 거 쉐ᄒᆞ고 틀리지.(아, 그 거 소하고 다르지.)

104014 #2 이수 삼수 ᄒᆞ는가 그 거 원.(이듭 삼수 하는가 그 거 원.)

104014 #1 게메 그거 말도 쉐 허고는 좀 틀릴거라. 나이 세는 게.(글쎄 그 거 말도 소 하고는 좀 다를 거야. 나이 세는 것이.)

---

132) '추렴'은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을 말한다. 명절 때나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돼지를 잡아 알맞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104014 #2 이수, 뭐 옌날엔 무시거엔 걸아낫주마는 잊어병.(이듭, 뭐 옛날에는 무엇이라고 말했었지만 잊어버려서.)

104014 @ 이수? 일수?(이듭? 금승?)

104014 #2 에이 그 그 거 몰르쿠다. 그거.(에이 그 그 거 모르겠습니다. 그거.)

104014 @ 됌수다.(됐습니다.)

먹이

104016 @ 쉐허고 말 멕이는 거예. 먹이는예?(소허고 말 먹이는 거요. 먹이는요?)

104016 #2 먹이는 촐 다 멕엿주.(먹이는 꼴 다 먹였지.)

104016 @ 촐예.(꼴요.)

104016 #2 촐 비여당, 눌엇당 허고.(꼴 베어다가, 가리었다 하고.)

104016 @ 그 다음에는 그거가 제일.(그 다음에는 그것이 제일.)

104016 #2 아니 게난에 그거는 팔 월 나민 촐 비영으넹에 눌엇당. 이 겨울에.(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팔월 나면 꼴 베어서 가리었다가. 이 겨울에.)

104016 #1 겨울에 겨울에.(겨울에 겨울에.)

104016 @ 예.(예.)

104016 #2 겨울에 촐 이제 헤영 멕이곡 그 나머진 이제 드르에 메여근엥이.(겨울에 꼴 이제 해서 먹이고 그 나머진 이제 들에 매어서.)

104016 @ 으.(으.)

104016 #1 뭘로.(뭘로.)

104016 #2 그거 풀 튿어 먹으렌.(그것 풀 뜯어 먹으라고.)

104016 @ 예, 허곡.(예, 하고.)

104016 #2 예.(예.)

104016 @ 그 말은 촐을 하영 먹습니까. 말은?(그 말은 꼴을 많이 먹습니까. 말은?)

104016 #2 아, 그 저 거시기 촐 헤 온 건 소.(아, 그 저 거시기 꼴 해 온 건 소.)

104016 @ 소?(소?)

104016 #2 예, 소 헹 저슬에 막에 메난에게.(예, 소 해서 겨울에 외양간에 매니까.)

104016 @ 예.(예.)

104016 #2 그걸 줘사 먹엉 살아날 거난게.(그걸 줘야 먹어서 살아날 거니까.)

104016 @ 예, 예 소. 그러면은 소는 촐허고, 또 콩 같은 거 고구마순은?(예, 예 소. 그러면 소는 꼴하고, 또 콩 같은 거 고구마순은?)

104016 #2 고구마 줄도 멕여사주게.(고구마 줄기도 먹여야지.)

104016 @ 소 소예?(소 소요?)

104016 #2 예.(예.)
104016 @ 고구마.(고구마.)
104016 #2 물도 고구마 줄 드르에 잇어도.(말도 고구마 줄기 들에 있어도.)
104016 @ 예.(예.)
104016 #2 고구마 줄 앗다당. 그 멘더레 하영 장만 헤 논 사름은 앗아당 앞더레 갓다 놈도 헤수다.(고구마 줄기 가져다가. 그 맨데 많이 장만해 놓은 사람은 가져다가 앞에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104016 @ 예, 예.(예, 예.)
104016 #2 물 멘 더레.(말 맨 쪽에.)
104016 @ 물 멘디예.(말 맨데요.)
104016 #2 예.(예.)
104016 @ 콩은예 물은 안 먹읍니까?(콩은요 말은 안 먹습니까?)
104016 #2 아이고 무사 안 먹을 말이라게.(아이고 왜 안 먹을 말이야.)
104016 @ 콩도?(콩도?)
104016 #1 콩찝 췌고로 좋은 거주.(콩짚 최고로 좋은 거지.)
104016 @ 예, 예.(예, 예.)
104016 #2 콩찝.(콩짚.)
104016 @ 보리찝도.(보릿짚도.)
104016 #1 보리찝은 안 먹어.(보릿짚은 안 먹어.)
104016 #2 보리찝은 안 먹어.(보릿짚은 안 먹어.)
104016 @ 보리찝은 안 먹어예.(보릿짚은 안 먹어요.)
104016 #2 조칩.(조짚.)
104016 @ 조칩?(조짚?)
104016 #1 응.(응.)
104016 #2 응.(응.)
104016 @ 아, 조찝 먹고예? 옛날에 그 저기 옥수수?(아, 조짚 먹고요? 옛날에 저기 옥수수?)
104016 #2 예.(예.)
104016 @ 옥수수도 경 헤도 농사.(옥수수도 그렇게 해도 농사.)
104016 #2 그 옥수수찝도.(그 수수대도.)
104016 #1 강넹이.(강냉이.)
104016 @ 강넹이예.(강냉이요.)
104016 #2 으 그 강넹이 찝도 쉐 먹읍니다.(으 그 수수대도 소 먹습니다.)
104016 @ 쉐 먹고예.(소 먹고요.)
104016 #2 예.(예.)
104016 @ 쉐허고 또 쉐 헐 때는 죽 쒕도 줘 나수과?(소하고 또 소 할 때는 죽 쑤어도 주었습니까?)

104016 #2 무스거?(무엇?)

104016 @ 쉐 쉐, 쉐 막 쭐거나 헤가민 죽도 쒀근에 쉐 멕여나수과?(소 소, 소 막 줄거나 해가면 죽도 쑤어서 소 먹였었습니까?)

104016 #2 아니 구르마허곡 이녁 밧 갈곡 헤여근엥이. 밧갈쉐[133]엔 그 일 허젱 허민.(아니 우차하고 이녁 밭 갈고 해서. 황소라고 그 일 하려고하면.)

104016 @ 예.(예.)

104016 #2 저 조 졸렝이나, 콩 쫄렝이나 보리 쫄렝이나.(저 조 죽정이나, 콩 죽정이나 보리 죽정이나.)

104016 @ 예.(예.)

104016 #2 그거 헹 모두와 놧당.(그거 해서 모아두었다가.)

104016 @ 예.(예.)

104016 #2 그거 이제 솖앙.(그것 이제 삶아서.)

104016 @ 예.(예.)

104016 #2 솖아근에 이제 그 밧 갈레 가젱 허민.(삶아서 이제 그 밭 갈러 가려고 하면.)

104016 @ 아.(아.)

104016 #2 그거 흔 흔 두어 박세기.(그것 한 한 두어 바가지.)

104016 #1 보양식이주게.(보양식이지.)

104016 @ 예, 예.(예, 예.)

104016 #2 경 헹 멕여.(그렇게 해서 먹여.)

104016 #1 지금 육지 싸움소도 다 경 헹 주멍.(지금 육지 싸움소도 다 그렇게 해서 주면서.)

104016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4016 #2 응.(응.)

104016 @ 아 그추룩예.(아 그처럼요.)

104016 #1 투구허는 쉐덜토 다 경 헹 주는 건디.(투우하는 소들도 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건데.)

104016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4016 #1 그거 일 시키젠 허민 잘 멕여야.(그거 일 시키려고 하면 잘 먹여야.)

104017 @ 꼴은? 촐이엔, 촐도 꼴이엔 헙니까 고구마순도 꼴이엔 헙니까?(꼴은? '촐'이라고, '촐'도 꼴이라고 합니까 고구마순도 기는줄기라고 합니까?)

104017 #2 아니 고구마 쭐은 감저 꿀.(아니 고구마 기는줄기는 고구마 기는줄기.)

104017 #2 응.(응.)

104017 #1 꿀 꼴이 아니고 꿀.[134](기는줄기 꼴이 아니고 기는줄기.)

---

133) '밧갈쉐'는 밭을 가는데 부리는 소로 황소를 말 한다.

134) '꿀'은 기는줄기를 말한다.

104017 @ 꿀 꿀.(기는줄기 기는줄기.)
104017 #2 응 감저꿀.(응 고구마 기는줄기.)
104017 @ 꿀 감저꿀.(기는줄기 고구마 기는줄기.)
104017 #2 응.(응.)
104017 @ 예 꿀.(예 기는줄기.)
104017 #1 으.(으.)
104017 @ 꿀 이거는 감저 꿀은, 어. 감저 꿀은 감저 꿀은 감저 수확헤난 다음에.(기는줄기 이거는 고구마 기는줄기는, 어. 고구마 기는줄기는. 고구마 기는줄기는 고구마 수확하고 난 다음에.)
104017 #1 으.(으.)
104017 #2 응.(응.)
104017 @ 다 모당 허는 거고예. 이딘 다 꼴이엔 나왓저이.(다 모여다가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다 꼴이라고 나왔다.)
104018 @ 꼴 촐.(꼴 꼴.)
104017 #2 예.(예.)
104018 @ 촐 촐은 언제 벱니까?(꼴은 언제 벱니까?)
104018 #1 팔월 들에.(팔월 달에.)
104018 #2 촐?(꼴?)
104018 @ 예.(예.)
104018 #1 팔 월 추석 넘으민 강 베주.(팔월 추석 넘으면 가서 베지.)
104018 @ 예.(예.)
104018 #1 경 헹 팔 월 추석 넘엉 베는 이유가 그때는 날이 좀 좋주게.(그렇게 해서 팔월 추석 넘어서 베는 이유가 그때는 날이 좀 좋지.)
104018 @ 예.(예.)
104018 #1 어, 비가 아니 와서이.(어, 비가 아니 왔어.)
104018 @ 예, 예.(예, 예.)
104018 #1 저거 비 오면은 촐도 비어놩. 비와불민 부는 거라.(저거 비오면 꼴도 베어 놓아서. 비와 버리면 버리는 거야.)
104018 @ 버려버려예.(버려버려요.)
104018 #1 뭐 버리지는 않주만은.(뭐 버리지는 않지만.)
104018 #2 쉐가 잘 안 먹어.(소가 잘 안 먹어.)
104018 #1 소가 잘 안 먹어.(소가 잘 안 먹어.)
104018 @ 예.(예.)
104018 #1 비 맞은 거는.(비 맞은 것은.)
104018 @ 응.(응.)
104018 #2 경 허난, 팔 월 멩질 넘엉 허는 사름. 앞 뗑경 허는 사름. 영 허는디 날쎄에 따라근엥이 이제 팔 월 추석 넘엉 빌 떼도 잇곡.(그러니까, 팔 월 명절 넘어

서 하는 사람. 앞 당겨서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날씨에 따라서 이제 팔 월 추석 넘어서 벨 때도 있고.)

104018 @ 으.(으.)

104018 #2 또 날쎄가 좋아근엥 하늬보름이 살랑살랑 불면 이제 그전에라도 촐 비는 사람도 잇곡.(또 날씨가 좋아서 하늬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이제 그전에라도 촐 베는 사람도 있고.)

104018 @ 으 으.(으 으.)

104018 #2 경 허난에 그건 날쎄에 따라근엥에 헤낫주.(그러니까 그건 날씨에 따라서 했었지.)

104018 @ 예, 예.(예, 예.)

104018 #1 주로 팔 월 추석이 넘어야 하늬보름을 불주게.(주로 팔월 추석이 넘어야 하늬바람을 불지.)

104018 @ 예 에.(예 에.)

104018 #1 그전에는.(그전에는.)

104018 @ 하늬보름예.(하늬바람요.)

104018 #2 살랑살랑 불주게 그뗀게.(살랑살랑 불지 그땐.)

104018 @ 이 꼴 이 촐을 벨 때는 낫으로 비엄신가마씨.(이 꼴 이 꼴을 벨 때는 낫으로 베었는가요.)

104018 #2 낫[135]으로 비엇주.(낫으로 베었지.)

104018 @ 호미로 비여신가마씨?(낫으로 베었는가요?)

104018 #1 낫으로.(낫으로.)

104018 #2 낫.(낫.)

104018 @ 낫으로?(낫으로?)

104018 #1 낫 긴 거.(낫 긴 거.)

104018 @ 긴 거예 긴 낫.(긴 거요 긴 낫.)

104018 #1 긴 거 헤서.(긴 것 해서.)

104018 @ 서 서근에 빕니까?(서 서서 벱니까?)

104018 #1 응.(응.)

104018 @ 게민 허리에 영 무꺼근에.(그러면 허리에 이렇게 묶어서.)

104018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18 #1 아니 아니 영 잡아근에.(아니 아니 이렇게 잡아서.)

104018 @ 예.(예.)

104018 #1 훈둘렁 싹 싹.(휘둘러서 싹 싹.)

104018 @ 서근에 훈둘렁예.(서서 휘돌리면서요.)

104018 #1 응, 게난 낫을 잘 골아야 뒈여 저 거.(응, 그러니까 낫을 잘 갈아야 돼 저 거.)

---

135) '낫'은 꼴 같은 것을 베는 자루가 긴 연장이다.

104018 @ 예 낫 잘 골아야.(예 낫 잘 갈아야.)
104018 #1 놀이 놀 싸야 그게 잘 비어지주.(날이 날 세어야 그게 잘 베어지지.)
104018 @ 호미 크기허고 낫 크기허고는 틀리큰게예.(낫 크기하고 낫 크기하고 다르겠네요.)
104018 #2 으 으.(으 으.)
104018 #1 하, 이.(하, 이.)
104018 @ 크기가.(크기가.)
104018 #2 아니 호미 ᄒᆞ미보단 두 곱이나 질주게.(아니 낫 낫보다는 두 곱이나 길지.)
104018 #1 두 곱.(두 곱.)
104018 #2 영 ᄀᆞᆺ작 허게 영.(이렇게 곧게 이렇게.)
104018 @ 예.(예.)
104018 #1 날만도 이렇게 길고.(날만이라도 이렇게 길고.)
104018 #2 으.(으.)
104018 @ 예.(예.)
104018 #1 이 자루가 우리 키 못ᄒᆞᆯ 만큼 헤야. 그거 잡아근에 훈둘루주.(이 자루가 우리 키 못할 만큼 해야. 그거 잡아서 휘두르지.)
104018 @ 아.(아.)
104018 #1 게난 그것이 에 남군 쪽에서는 그 낫으로 벌초도 다 낫으로 헷는디이. 햇는디 저 북군들엔 그걸 못허여.(그러니까 그것이 에 남군 쪽에서는 그 낫으로 벌초도 다 낫으로 했는데. 했는데 저 북군들에는 그걸 못해.)
104018 @ 으.(으.)
104018 #2 호미로 허여.(낫으로 해.)
104018 #1 저 북군들엔 호미로만 그자.(저 북군들에는 낫으로만 그저.)
104018 @ 예.(예.)
104018 #1 비여.(베어.)
104018 @ 벌초 헐 때예.(벌초 할 때요.)
104018 #1 응.(응.)
104018 @ 예, 이것도 ᄒᆞᆫ 바리 허젠 허민 바리로 무끄지 안헙니까?(예, 이것도 한 바리 하려고하면 바리로 묶지 안합니까?)
104018 #1 응, ᄒᆞᆫ 바리가 서른 단.(응, 한 바리가 서른 단.)
104018 @ 예 서른 단예. 서른 단 허고예. 이거 무끌 때는 무끄는 거는 그냥 그촐로 무끄고예.(예 서른 단요. 서른 단 하고요. 이것 묶을 때는 묶는 거는 그냥 그끌로 묶고요.)
104018 #1 응.(응.)
104018 @ 꼴로 허고.(꼴로 하고.)
104018 #2 손으로 께 네왕 무껏주게.(손으로 매끼 내어서 묶었지.)

104018 @ 예 손으로 해가지고예. 이거 헐 때는 묶으는 사람, 낫으로 비는 사람 헤기네, 여럿이 잇어야 뒈크라예.(예 손으로 해가지고요. 이거 할 때는 묶는 사람, 낫으로 베는 사람 해가지고, 여럿이 있어야겠네요.)

104018 #1 아니 게난.(아니 그러니까.)

104018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18 #1 아니. 그걸 비어 놓으면 저 ᄆᆞᆯ라야 무끄는 거주.(아니, 그것을. 베어 놓으면 저 말라야 묶는 것이지.)

104018 @ 아, 예, 예, 말라야예.(아, 예, 예, 말라야요예.)

104018 #1 거 그냥 무꺼당 뎀여불민 다 썩어비영 안 뒈니까. 거 ᄆᆞᆯ려야 눌어놔도 거기로.(거 그냥 묶어다가 쟁여버리면 다 썩어버려서 안 되니까. 거 말라야 가려놔도 거기로.)

104018 #2 파랑케 ᄆᆞᆯ령 잘 비민. 촐이 무껑 눌어 놔둬. 파랑 헌 냥 잇주게.(파랗게 말려서 잘 베면. 꼴이 묶어 가려 놓아도. 파랗게 한 채 있지.)

104018 @ 파랑 헌 양예.(파랗게 한 채요.)

104018 #2 예.(예.)

104018 @ 색깔이예.(색깔이요.)

104018 #2 응 색깔이, 경 허난에.(응, 색깔이, 그렇게 하니까.)

104018 @ 예.(예.)

104018 #2 이제 비 맞이곡 무시거 헌 건 바라불민.(이제 비 맞고 무엇 한 건 바래 버리면.)

104018 #1 쉐도 안 먹고.(소도 안 먹고.)

104018 #2 쉐도 안 먹곡.(소도 안 먹고.)

104018 @ 예.(예.)

104018 #2 게난 검질로 불 솜을 떼난 그런 건 빠다근엥에 검질 불 솜곡.(그러니까 김으로 불 땔 때니까 그런 건 빼다가 김 불 때고.)

104018 @ 불 솜곡예.(불 때고요.)

104019 @ 그 저기 운반허젠 허민, 아까 바리씩 만들어근에 묶어 놔근에 눌었다근에.(그 저기 운반하려고 하면, 아까 바리씩 만들어서 묶어 놓아서 가리었다가.)

104018 #2 응.(응.)

104019 @ 운반허젠 허민 홈치 마차로.(운반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마차로.)

104019 #1 응.(응.)

104019 @ 오게 됩니까?(오게 됩니까?)

104019 #1 응.(응.)

104019 @ 마차 빌어당 ᄆᆞᆯ 마차?(마차 빌어다가 마차?)

104019 #1 ᄆᆞᆯ.(말.)

104019 @ ᄆᆞᆯ마차 허든 쉐.(마차 하던 소.)

104019 #2 응 쉐구르마로.(응 우차로.)

104019 @ 구르마로예. 구르마로도 이거 허고 ᄆᆞᆯ 엇이민.(마차로요. 마차로도 이거 하고 말 없으면.)

104019 #2 응 쉐로도.(응 소로도.)

104019 @ 응, 쉐로도허고예.(응, 소로도 하고요.)

104019 #1 응, 쉐로도 ᄒᆞ는디 쉐로 저거, 촐은 이 무끄민 준준허주게.(응, 소로도 하는데 소로 저거, 꼴은 이 묶으면 자잘하지.)

104019 @ 아.(아.)

104019 #1 준준헤노니까 저거 쉐에 짐 짜기가 힘들어.(자잘하니까 저것 소에 짐 짜기가 힘들어.)

104019 @ 아.(아.)

104019 #1 그것ᄀᆞ라 아까 뭐렌 헤시니?(그것보고 아까 뭐라고 했니?)

104019 @ 바리 바리.(바리 바리.)

104019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19 #2 무시거?(무엇?)

104019 #1 쉐 등어리에 헤근에 짐 시끄는 거.(소 등에 해서 짐 싣는 거.)

104019 @ 질메.(안장.)

104019 #1 질메, 질메 응.(안장 안장 응.)

104019 @ 예.(예.)

104019 #1 그 질메에 그거 베 헤가지고 ᄒᆞ나씩 꼭꼭헤근에 그거 짐 엮어근에 집ᄁᆞ지 ᄒᆞ나도 안 빠졍 오젠 엮으젠 ᄒᆞ면은 그게 소소히 힘든 게 아니라. 그 기술자 아니민 ᄒᆞ지 못헤여.(그 안장에 그거 참바 해가지고 하나씩 꼭꼭해서 그거 짐 엮어서 집까지 하나도 안 빠져서 오려고 엮으려고 하면 그게 소소히 힘든 게 아니라. 그 기술자 아니면 하지 못해.)

104019 @ 아.(아.)

104019 #1 하, 하, 하, 하.(하, 하, 하, 하, 하.)

104019 #2 경 헹 기술자가 잘 짜근엥이 헤여도.(그렇게 해서 기술자가 잘 짜서 해도.)

104019 #1 ᄋᆞ.(ᄋᆞ.)

104019 #2 오당 보민 ᄒᆞᆫ 짝드레 짐이 자우라져 가민. 그거 ᄃᆞᆯ아정 그 쉐 ᄆᆞᆯ앙 오는 사람이 ᄃᆞᆯ아정. 돌멩이라도 하나 헤당. 그레 탁 꼽아사.(오다가 보면 한 편으로 짐이 기울어져 가면. 그거 매달려서 소 몰아서 오는 사람이 매달려서. 돌멩이라도 하나 해다가. 거기에 탁 꽂아야.)

104019 @ 무게가예.(무게가요.)

104019 #2 그것이 무게가 발롸근에 집이ᄁᆞ장 오주. 경 안 헤근에 떨어져불민.(그것이 무게가 바르게 되어서 집에까지 오지. 그렇게 안 해서 떨어져버리면.)

104019 @ 털어져불민.(떨어져버리면.)

104019 #1 오당 떨어져 불민.(오다가 떨어져 버리면.)

104019 #2 쉐가 늬 발로 튀민 거 믈앙 오단 사름 울곡 헤여.(소가 네 발로 튀면 거 몰아서 오던 사람 울고 해.)
104019 @ 아.(아.)
104019 #2 그 쉐 버처근에.(그 소 부처서.)
104019 @ 버쳐으네예.(부쳐서요.)
104019 #2 에.(에.)
104019 @ 게난.(그러니까.)
104019 #1 게난 그 시껏던 거 떨어져 가면 쉐도 놀레는 거주.(그러니까 그 실었던 거 떨어져 가면 소도 놀라는 거지.)
104019 @ 거문 양쪽에 흔 바리씩 저기 헙니까?(그러면 양쪽에 한 바리씩 저기 합니까?)
104019 #1 아 아니, 흔 바리엔 헌 건 쉐 ᄒᆞ나에 실을 수 잇는 게 흔 바리거든.(아 아니, 한 바리라고 한 건 소 하나에 실을 수 있는 것이 한 바리거든.)
104019 @ 흔 바리난예, 경 허난 열다섯 게.(한 바리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열다섯 개.)
104019 #2 으.(으.)
104019 #1 응.(응.)
104019 @ 반 뭇씩 반 뭇씩 헤가지고예.(반 뭇씩 반 뭇씩 해가지고요.)
104019 #2 으.(으.)
104019 @ 엮어 가지고예 떨어지지 않게.(엮어 가지고요 떨어지지 않게.)
104020 @ 여물, 여물은 여물을 마련허는 거, 여물은 소나 말이나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인디예.(여물, 여물은 여물을 마련하는 거, 여물은 소나 말이나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인데요.)
104020 #1 으.(으.)
104020 #2 예.(예.)
104020 #1 거 여물 헌덴 허는 거 아까 그저 일 허레 가젠 허문.(거 여물 한다고 하는 거 아까 그저 일 하러 가려고 하면.)
104020 #2 쉐 쑤엉 멕이젠.(소 쑤어서 먹이려고.)
104020 #1 그 끌영 주곡 ᄒᆞ는 걸 여물 흔덴 허주게.(그 끓여서 주고 하는 것을 여물 한다고 하지.)
104020 @ 아 여물 흔덴예.(아 여물 한다고요.)
104020 #1 응.(응.)
104020 @ 아.(아.)
104020 #1 그 끌영 주는 걸 여물 헤가지고.(응, 그 끓여서 주는 것을 여물 해가지고.)
104020 @ 예.(예.)
104020 #1 쉐 힘을 돋군다고 헤서. 그걸 여물 흔다.(소 힘을 돋운다고 해서. 그

것을 여물 한다.)

104020 @ 예.(예.)

104020 #1 잘 멕인다.(잘 먹인다.)

104020 @ 잘 멕인다. 여물 흔다. 여물 흔다.(잘 먹인다. 여물 한다. 여물 한다.)

104020 #1 응.(응.)

104020 @ 그 고구마 같은 것도 감저 같은 것도 막 주지 안읍니까?(그 고구마 같은 것도 고구마 같은 것도 잘 주지 않습니까?)

104020 #2 아이고 게 솖앙 멕이주게.(아이고 게 삶아서 먹이지.)

104020 @ 솖아으네예.(삶아서요.)

104020 #2 셍차 줭은, 물은 셍 차 줘도 이 사름ᄀᆞ찌 딱딱 벌르멍 씹엉 먹으난, 목을 안 걸고.(생채 주면, 말은 생 채 줘도 이 사람처럼 딱딱 쪼개면서 씹어서 먹으니까, 목을 안 걸리고.)

104020 @ 응.(응.)

104020 #2 쉐는 삭삭 할르멍. 그자 들여몰려는 떡분에 경 헷당. 도[136] 바트멍 거 세기는 거라부난. 경 ᄒᆞ난 쉐는 셍차 줭은 목 걸리는 떡분에 감저 셍찰 안 주주.(소는 삭삭 핥으면서. 그저 들이밀려는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도' 뱉으면서 거 되새기는 거라 버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소는 생채 주면은 목 걸리는 때문에 고구마 생 채로 안 주지.)

104020 @ 솖앙예.(삶아서요.)

104020 #2 솖앙.(삶아서.)

104020 @ 감저를 솖앙예.(고구마를 삶아서요.)

104020 #2 응.(응.)

104020 @ 무수 ᄀᆞ뜬 거도 옌날 잇이민 ᄂᆞ물도 막 주고.(무 같은 것도 옛날 있으면 나물도 마구 주고.)

104020 #2 이 ᄂᆞ물도 주곡헤도. 무수 ᄀᆞ뜬 것도 손 안줘 물은 헤도.(이 나물도 주고해도. 무 같은 것도 소는 안줘 말은 해도.)

104020 @ 아, 무수도 안주고.(아, 무도 안주고.)

104020 #2 지금도 쉔 그런 건 안줘.(지금도 소는 그런 건 안줘.)

104020 @ 예.(예.)

104020 #2 물은 이제 거시기 이제 무수 ᄀᆞ뜬 거도 줌실 거우다.(말은 이제 거시기 이제 무 같은 것도 주고 있을 겁니다.)

104020 @ 예에 아.(예에 아.)

104020 #1 쉐는 고구마 ᄀᆞ뜬 것도 먹질 못허여.(소는 고구마 같은 것도 먹질 못해.)

104020 #2 그 늿발이 엇언 그자.(그 이빨이 없어서 그저.)

104020 #1 응.(응.)

136) '도'는 입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소의 입을 말한다.

104020 #2 슥슥 담앗다근엥이 이제 따시 그 세기멍.(슥슥 담았다가 이제 다시 그 되새기면서.)

104020 #1 으.(으.)

104020 #2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난.(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니까.)

104020 @ 응.(응.)

104020 #2 그난 쉐는양. 그 영 뚜거운 거는 못 안줘.(그러니까 소는요. 그 이렇게 뜨거운 거는 못 안줘.)

104020 @ 응 경 헷구나예.(응 그렇게 했군요.)

104020 #2 응.(응.)

104021 @ 그 저기 소에 꼴 벳던 거, 촐 벳던 거예. 저기 ᄒᆞ끔은 어릴 적에 베나지 안협디가?(그 저기 소에 꼴 베었던 거, 꼴 베었던 거요. 저기 조금 어릴 적에 베었었지 안했습니까?)

104021 #1 아 촐 비레 뎅겻주게.(아 꼴 베러 다녔지.)

104021 #2 촐 비는 거어?(꼴 베는 거?)

104021 @ 예, 그거에 대한 거 한 번 ᄀᆞᆯ아줍서.(예, 그것에 대한 거 한 번 말해 주십시오.)

104021 #2 촐 비는 거. 무시거 ᄀᆞᆯ을 거라.(꼴 베는 거. 무엇 말할 거야.)

104021 #1 하, 하, 하, 하. 그거 촐 비는 거주.(하, 하, 하, 하. 그러니까 그거 꼴 베는 거지.)

104021 @ 추석 끝나근에예. 추석 지나근에.(추석 끝나서요. 추석 지나서.)

104021 #1 게난 그거 촐을 비젠 허문 동네 사람들 그거 ᄒᆞᆫ 밧디[137] 가젠 허문, 그 촐밧은 여기서 거이가 먼디주게.(그러니까 그거 꼴을 베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 그거 한 곳에 가려고하면, 그 꼴밭은 여기서 거의가 먼데지.)

104021 @ 예.(예.)

104021 #1 중산간에 그 촐밧을 허는 때문에.('중산간'에 그 꼴밭을 하는 때문에.)

1040210 @ 응.(응.)

104021 #1 ᄒᆞᆫ 서너 명씩 헤서 가거든. 가서 그거 춤 낫을 다 들고 들어사면은 쭐쭐이 상 허면은, 이거 춤 늦게 가도 안 뒈고 뿔리 가도 안 뒈고.(한 서너 명씩 해서 가거든. 가서 그거 참 낫을 다 들고 들어서면 줄줄이 서서 하면, 이거 참 늦게 가도 안 되고 빨리 가도 안 되고.)

104021 @ 마처근에예.(맞추어서요.)

104021 #1 응 서로 맞촤서 간격 잡아근에 삭삭 비여 간다 말이여.(응 서로 맞춰서 간격 잡아서 삭삭 베여 간다 말이다.)

104021 @ 예.(예.)

104021 #1 경 헹 ᄒᆞ면은 에, 아침에 마, 동 뜨면은 가주게.(그렇게 해서 하면은

137) '밧디'는 제주어 표기로는 밭에 지만 여기에서는 한 곳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에, 아침에 뭐, 동트면 가지.)

1040210 @ 응.(응.)

104021 #1 일찍 가서. 낫 ᄀᆞᆯ고 이제 낫을 잘 ᄀᆞᆯ아야 뒈어.(일찍 가서. 낫 갈고 이제 낫을 잘 갈아야 돼.)

104021 @ 응.(응.)

104021 #1 으 ᄒᆞ당 ᄒᆞᆫ번 이쪽에서 저짝ᄁᆞ지. ᄁᆞᆺᄁᆞ지 비여가민 그다음은 낫을 ᄀᆞᆯ아야 뒈.(으 하다가 한번 이쪽에서 저쪽까지. 끝까지 베어가면 그다음은 낫을 갈아야 돼.)

104021 @ 아.(아.)

104021 #1 으 으 다시 ᄀᆞᆯ아서 또 비곡.(으 으 다시 갈아서 또 베고.)

104021 @ 아.(아.)

104021 #1 그레서 ᄒᆞ면은 ᄒᆞ루 뭐 ᄒᆞᆫ사람이 에, 오십 바리 비엿느니.(그래서 하면은 하루 뭐 한사람이 에, 오십 바리 베었느니.)

104021 @ 예.(예.)

104021 #1 뭐 ᄉᆞᆷ십 바리 비엿느니. 영 ᄒᆞ주.(뭐 삼십 바리 베었느니. 이렇게 하지.)

104021 #2 오십 바리 못비여.(오십 바리 못 베.)

104021 #1 게난 거이가 ᄒᆞᆫ ᄉᆞᆷ십 바리.(그러니까 거의가 한 삼십 바리.)

104021 @ 삼십 바리예.(삼십 바리요.)

104021 #1 응 ᄉᆞᆷ십 바리. 응 서른 바리는 다, 거이 빌 거라.(응 삼십 바리. 서른 바리는 다, 거의 벨 거야.)

104021 @ 응 거문 낫허고 물이영 다, 가져가사 뒈큰게예.(그러면 낫하고 물하고 다, 가져가야 되겠네요.)

104021 #1 아 점심이영 다 가정 강.(아 점심하고 다 가지고 가서.)

104021 #2 점심이영 다 앗앙 가사주.(점심하고 다 가지고 가야지.)

104021 #1 ᄋᆞ.(ᄋᆞ.)

104021 @ 점심이영 물이영 펭에 담앙.(점심하고 물하고 병에 담아서.)

104021 #2 경 허민 세벡이게. 셋날 들어가 가민 여자들은 일어낭. 아침 밥 헤영 그 어른덜 아침 조반 안네영.(그렇게 하면 새벽에. 새날 들어가 가면 여자들은 일어나서. 아침 밥 해서 그 어른들 아침 조반 드려서.)

104021 @ 예.(예.)

104021 #2 먹곡. 점심헤여근에 촐령 이제 지왕 보네젠 허민 그 정심을 다 헤여사 헐 거난. 다 헤여근넹에 이제 물 질어 놓고. 차반지에 밥 퍼 놓곡. 엿날에 이제 무신 반찬이 잇어수꽈. 자리나 소곰 헷당.(먹고. 점심해서 차려서 이제 지워서 보내려고 하면 그 점심을 다 해야 할 거니까. 다 해서 이제 물 길어 놓고. 차반지에 밥 퍼 넣고. 옛날에 이제 무슨 반찬이 있었습니까. 자리나 소금 했다가.)

104021 #1 허, 허.(허, 허.)

104021 #2 건져 놓곡.(건져 놓고.)
104021 @ 예.(예.)
104021 #2 잘 허민 이제 갈치헤여근에.(잘 하면 이제 갈치해서.)
104021 #1 ᄋᆞ.(ᄋᆞ.)
104021 #2 헤영 앗앙 강. 그디 가근엥이.(해서 가져서 가서. 그데 가서.)
104021 #1 고사리.(고사리.)
104021 #2 고사리 비영 그거 불 솜앙 구웡.(고사리 베여서 그거 불 때서 구워서.)
104021 @ 아, 고사리.(아, 고사리.)
104021 #2 그 밧듸서.(그 밭에서.)
104021 @ 어.(어.)
104021 #2 구워근에 푸-허게 불어불민.(구워서 푸-하게 불어버리면.)
104021 #1 헤, 헤.(헤, 헤.)
104021 #2 불껑 놀아나민 그거 다 검질깔렝이로나 무시거 하신 무신 어디 서수꽈? 엿날에.(불티 날아가면 그거 다 김꼬랑이로나 무엇 젓가락은 무슨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104021 @ 예.(예.)
104021 #2 춤 저붐이 어디 서수꽈?(참 젓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104021 @ 예.(예.)
104021 #2 저붐이 엇이난 그듸 막데기라도 무시거 헤영 톡톡 ᄒᆞ게시리 영영 털멍 앗어네영. 그거헤영 그것에 뒌장 ᄂᆞ물이나 솖앙 뒌장 앗앙가민 그 물 비와 놓고 뒌장 사발덜에 놓곡 그 ᄂᆞ물헤영 놓곡 국 헤영.(젓가락이 없으니까 거기 막대기라도 무엇 해서 톡톡 하게끔 이렇게 이렇게 털면서 가져내어서. 그거해서 그것에 된장 나물이나 삶아서 된장 가지고가면 그 물 비워 넣고 된장 사발에 넣고 그 나물해서 넣고 국 해서.)
104021 @ 응.(응.)
104021 #2 그 자리 군거나 경 아니민 갈치 군거나 헤영. ᄒᆞ나 앗아근넹에 손으로 심엉.(그 자리 군거나 그렇지 않으면 갈치 군거나 해서. 하나 가져가서 손으로 집어서.)
104021 #1 자리젓도 앗앙 강 자리젓엘 먹으나.(자리젓도 가지고 가서 자리젓에를 먹으나.)
104021 #2 경 아니민 자리젓 앗앙 강. 자리젓엘 먹으나(그렇게 안하면 자리젓 가지고 가서. 자리젓에를 먹으나.)
104021 @ 예.(예.)
104021 #2 경 헤네 촐 빌고.(그렇게 해서 꼴 베고.)
104021 #1 경 점심 먹엉.(그렇게 점심 먹어서.)
104021 @ 예.(예.)

104021 #1 경 헤영. 요세, 요세ᄀᆞ추룩 간식이 어디 잇어서.(그렇게 해서. 요새, 요새처럼 간식이 어디 있었어.)

104021 @ 하, 하, 하, 하.(하, 하, 하, 하.)

104021 #1 헤, 헤, 헤, 헤.(헤, 헤, 헤, 헤.)

104021 @ 맞수다. 아이고. 게문 이거는.(맞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것은.)

104021 #2 게난 촐 빌 땐 밥은 두 번 먹엇주게. 아칙 세벡이 먹엉 가민 낫 흔번 ᄀᆞᆯ앙 허민 그 낫 ᄀᆞᆯ아나민.(그러니까 꼴 벨 땐 밥은 두 번 먹었지. 아침 새벽에 먹어서 가면 낫 한번 갈아서 하면 그 낫 갈아나면.)

104021 @ 으 낫 한번 ᄀᆞᆯ아나민.(으 낫 한번 갈아나면.)

104021 #2 이제 베고플 거 아니우꽈? 엿날에 무신 촐진 걸 먹어수꽈?(이제 배고플 거 아닙니까? 옛날에 무슨 찰진 걸 먹었습니까?)

104021 #1 그거 그.(그거 그.)

104021 #2 보리밥 조팝 먹는 거.(보리밥 조밥 먹는 거.)

104021 #1 거 낫질 홈이 상당이 고된 거라.(거 낫질하기가 상당이 고된 거야.)

104021 @ 아.(아.)

104021 #2 게난 그거 낫 흔번 ᄀᆞᆯ아나민. 밥 먹엉.(그러니까 그거 낫 한번 갈아나면. 밥 먹어서.)

104021 @ 예.(예.)

104021 #2 이제 또 아멩 헤도 해 영 베령. 시겐 어디 서서.(이제 또 아무리 해도 해 이렇게 보아서. 시계는 어디 있었어.)

104021 #1 어 허, 허, 허.(어 허, 허, 허.)

104021 #2 해 영 베령. 해가 저만이 갓저. 우리 밥덜 흔직 먹엉 허게. 영 허민 밥헤근엥이덜.(해 이렇게 봐서. 해가 저만큼 갔다. 우리 밥을 한 술 먹어서 하자. 이렇게 하면 밥해서들.)

104021 @ 어.(어.)

104021 #2 점심 네놩 그거.(점심 내놓아서 그거.)

104021 @ 먹고.(먹곡.)

104021 #2 남ᄌᆞ들끼리 그거 헤영 먹곡.(남자들끼리 그거 해서 먹고.)

104021 @ 예.(예.)

104021 #2 경 허멍 산 때는 건강덜을 헤신디 요즘은 하도 잘 먹어 노난. 이디 아프다 저디 아프다.(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때는 건강들을 했는데 요즘은 하도 잘 먹어 놓으니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104021 #1 에 헤, 헤, 헤.(에 헤, 헤, 헤.)

104021 @ 맞수다. 촐 헐 때는 남자 어른들만 가신게예.(맞습니다. 꼴 할 때는 남자 어른들만 갔었네요.)

104021 #2 촐 빌 땐 남ᄌᆞ어른들만 가곡.(꼴 벨 땐 남자어른들만 가고.)

104021 @ 응.(응.)

104021 #1 무끌 때.(묶을 때.)

104021 #2 놈ᄌᆞ 엇엉 홀어멍은 또 그거 베와근엥이.(남자 없어서 홀어미는 또 그거 배워서.)

104021 @ 응.(응.)

104021 #2 홀어멍은 홀어멍양으로 비는디도 잇엇읍주게.(홀어미는 홀어미대로 베는데도 있었습지요.)

104021 @ 응.(응.)

104021 #1 사람 못 빌민 이녁데로 빌주.(사람 못 빌면 이녁대로 베지.)

104021 @ 이녁대로.(이녁대로.)

104021 #1 여ᄌᆞ도 낫질을 헷주.(여자도 낫질을 했지.)

104021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4021 #2 남ᄌᆞ가 엇이난 그걸 베와사. 한참 허젱 허문 나 것부터 문저 ᄒᆞ젱 허주. 놈이 거 문저 갑네까?(남자가 없으니까 그것을 배워야. 한참 하려고 하면 내 것부터 먼저 하려고하지. 남의 거 먼저 갑니까?)

104021 @ 예.(예.)

104021 #2 경 허니 이젠 이제 저 허난 그 남ᄌᆞ덜 잇인디 강 그거 ᄀᆞ찌 강. 나가 이 낫질 허는 걸 베우쿠덴 허영 베왕. 경 헹 못 빌민 이녁만 멧 칠이라도.(그러니 이제는 저 하니까 그 남자들 있는데 가서 그거 같이 가서. 내가 이 낫질 하는 것을 배우겠다고 해서 배워서. 그렇게 해서 못 빌면 이녁만 며칠이라도.)

104021 @ 비어사.(베어야.)

104021 #2 비여근엥에 헤사.(베어서 해야.)

104021 @ 예.(예.)

104021 #2 짇음도 허고 쉐도 ᄒᆞᆫ ᄆᆞ리 잇이민.(때기도 하고 소도 한 마리 있으면.)

104021 @ 맞수다게.(맞습니다.)

104021 #2 쉐도 멕이고.(소도 먹이고.)

104021 @ 맞수다. 맞수다예. 그 이제 쉐ᄒᆞ고 ᄆᆞᆯ 먹이는 다 되고.(맞습니다. 맞습니다요. 그 이제 소하고 말 먹이는 다 되고.)

땔감

104022 @ 지들커 잇지예. 땔ᄀᆞᆷ예. 지들커.(땔감 있지요. 땔감요. 땔감.)

104022 #1 응.(응.)

104022 #2 맞주.(맞지.)

104022 @ 땔ᄀᆞᆷ 종류에 대해서 땔감에 대해서 지들커.(땔감 종류에 대해서 땔감에 대해서 장작.)

104022 #1 아 게난 옌날은 이 드르에 가면은 삭다리엔 헌 게 잇주. 소나무 죽은 것덜이. 가지 죽은 것덜.(아 그러니까 옛날은 들에 가면은 삭정이라고 한 것이 있

지. 소나무 죽은 것들이. 가지 죽은 것들.)
104022 @ 예.(예.)
104022 #1 이런 것덜 이제 줏어오곡 그.(이런 것들 이제 주워오고 그.)
104022 #2 솔닙 거두고.(솔잎 걷고.)
104022 #1 솔닙.(솔잎.)
104022 @ 예.(예.)
104022 #1 솔닙도 이 글겡이헤영.(솔잎도 이 글경이해서.)
104022 @ 예.(예.)
104022 #1 걷어오곡 헷는데 일제시대나 어디나 그 소나무밧디 솔닙을 걷어 불민 이제 거름이.(걷어오고 했는데 일제강점기나 어디나 그 소나무밭에 솔잎을 걷어 버리면 이제 거름이.)
104022 @ 안뒌다고.(안 된다고.)
104022 #1 안 뒌다고 헤서 솔닙을 못 걷게 헤서.(안 된다고 해서 솔잎을 못 걷게 해서.)
104022 @ 어.(어.)
104022 #1 게도 다 솔닙 걷어단 ᄒᆞ고.(그래도 다 솔잎 걷어다가 하고.)
104022 @ 응.(응.)
104022 #1 여기서 조칲이나.(여기서 조짚이나.)
104022 @ 어.(어.)
104022 #1 뭐 뗄ᄀᆞᆷ은 이저 농산물 ᄒᆞᆫ. 요거 부산물로도 쓰고.(뭐 땔감은 이 저 농산물 한. 요거 부산물로도 쓰고.)
104022 @ 예.(예.)
104022 #1 경 안허민 장작 나무 짤라서 장작ᄒᆞ곡 뭐ᄒᆞ곡 헤근에.(그렇게 안하면 장작 나무 잘라서 장작하고 뭐하고 해서.)
104022 @ 어.(어.)
104022 #1 뭐 씀벳기 거 다른 거는 엇주게.(뭐 쓰기밖에 거 다른 것은 없지.)
104022 @ 장작이면은 어디 고지에 가근에 헹 옵니까?(장작이면은 어디 숲에 가서 해서 옵니까?)
104022 #2 아 나무 비여근에.(아 나무 베어서.)
104022 @ 예.(예.)
104022 #1 나무.(나무.)
104022 #2 남 비여근에 껜 것ᄀᆞ라 장작.(나무 베어서 깬 것보고 장작.)
104022 #1 자기 밧 옆이라도 나무들이 잇주게.(자기 밭 옆이라도 나무들이 있지.)
104022 @ 아, 이녁 밭 이녁 밭.(아, 이녁 밭 이녁 밭.)
104022 #2 경 ᄒᆞ민게.(그렇게 하면.)
104022 #1 잇던가.(있던가.)

104022 #2 그거 헤당.(그거 해다가.)

104022 #1 저 오름 ᄀᆞ뜬디 가면은 또 죽은 나무도 잇이민 ᄒᆞ나씩 봉가오곡.(저 오름 같은데 가면은 또 죽은 나무도 있으면 하나씩 주워오고.)

104022 @ 죽은 낭예.(죽은 나무요.)

104022 #1 ᄋᆞ.(ᄋᆞ.)

104022 @ 게난 지들커는 삼춘이 많이 헙디가? 아니면 여청[138] 삼춘이 하영 헙디가?(그러니까 땔감은 삼촌이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여편' 삼촌이 많이 했습니까?)

104022 #2 들어 봅서. 누게가 하영 헤시니?(들어 보십시오. 누가 많이 했는가?)

104022 #1 헤, 헤, 헤, 헤.(헤, 헤, 헤, 헤.)

104022 @ 하, 하, 하, 하.(하, 하, 하, 하.)

104022 #1 솔닙 걷으레 잘 뎅겨시난.(솔잎 걷으러 잘 다녔으니까.)

104022 @ 솔닙 걷으렌 여청 삼촌이허고.(솔잎 걷기에는 '여편' 삼촌이하고.)

104022 #2 응.(응.)

104022 @ 낭 허레 뎅긴 거는?(나무 하러 다닌 거는?)

104022 #1 아니 난 낭허레도 아니 뎅겨 봐서.(아니 난 나무하기도 안 다녀 봤어.)

104022 #2 낭허레 뎅기고 하간 거 헤시민 이 모냥으로 안 살 건디. 낭 허레도 안 뎅기곡.(나무하러 다니고 많은 거 했으면 이 모양으로 안 살 건데. 나무 하러 안 다니고.)

104022 #1 헤, 헤, 헷.(헤, 헤, 헷.)

104022 #2 할망만 헤연 허렌 ᄒᆞ난 요 모냥으로 살아가는 건디.(할머니만 해서 하라고 하니까 요 모양으로 살아가는 건데.)

104022 @ 어.(어.)

104022 #2 세벡이 저슬 틀엉 ᄀᆞ슬 다헤영.(새벽이 겨울 들어서 가을 다해서.)

104022 @ 예.(예.)

104022 #2 ᄀᆞ슬 다 헤 들여근엥이 이제 동지섯ᄃᆞᆯ 낭 이거 춤. 동짓ᄃᆞᆯ이 낭 이제 넬 모리 섯ᄃᆞᆯ 됨주마는, 허민 옌날에 일이 잇어수꽈?(가을 다 해 들여서 이제 동지 섣달 나서. 이거 참 동짓달이 나서 낼 모레 섣달 되고 있지만, 나서하면 옛날에 일이 있었습니까?)

104022 @ 예.(예.)

104022 #2 일이 엇어시난. 이제 감저ᄁᆞ장 다 파당 묻어불민. 그루후젠 뗄ᄀᆞᆷ 헤올 거를 걱정을 ᄒᆞᆯ 게주.(일이 없으니까. 이제 고구마까지 다 파다가 묻어버리면. 그 후에는 땔감 해올 것을 걱정을 할 게지.)

104022 @ 예.(예.)

104022 #2 이 저슬에영. 여름나민 마에영 지들커.(이 겨울하고. 여름나면 장마하

138) '예펜' '예청' '여편(女便)'은 여자 어른을 높이는 제주말이다.

고 멜감.)

104022 @ 예.(예.)

104022 #2 경 허민 오름에 글겡이 앗앙 강. 솔닙 거두곡.(그렇게 하면 오름에 글경이 가지고가서. 솔잎 걷고.)

104022 @ 으.(으.)

104022 #2 그 알러레 삭은 남 잇이민 바테여근넹에ᄒᆞ곡 그 우터레 삭은 낭 잇이민 거껑 오곡 경 헤영. 삭은 낭은 에껴근넹이.(그 아래 삭은 나무 있으면 받쳐서 하고 그 위쪽에 삭은 나무 있으면 꺾어서 오고 그렇게 해서. 삭은 나무는 아껴서.)

104022 @ 으.(으.)

104022 #2 이제 헤먹을 일 헐 때나.(이제 해먹을 일 할 때나.)

104022 @ 으.(으.)

104022 #2 젠기[139] 지질일 때도 그걸로 허곡.(빙떡 지질 때도 그걸로 하고.)

104022 @ 아 전기 헐 때에?(아 빙떡 할 때에?)

104022 #2 예 그걸로 그 삭은 나무헤영 연기 안 나곡, 먼지 안 나게 헤영.(예 그것으로 삭은 나무해서 연기 안 나고, 먼지 안 나게 해서.)

104022 @ 으.(으.)

104022 #2 그걸로 허곡 경 헤근에 ᄒᆞ곡. 죽은 춤 하르방 ᄀᆞᆯ아 마딴이. 죽은 남 그 솔닙 걷당 봐점시민. 그뗀 톱 아니 앗앙 갈 때난 못 헹 왓당. 둣날은 그 디 강 그거 강 짤랑.(그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죽은 참 할아버지 말해 마땅히. 죽은 나무 솔잎 걷다가 보아지면. 그땐 톱 아니 가지고 갈 때니까 못해서 왔다가. 뒷날은 그 데 가서 그거 잘라서.)

104022 @ 응, 응.(응, 응.)

104022 #2 그거 헤영 헤오곡.(그거 해서 해오고.)

104022 @ 예.(예.)

104022 #2 경 헨 뗏주게.(그렇게 해서 땠지.)

104022 @ 맞수다.(맞습니다.)

104022 #2 경 ᄒᆞ곡.(그렇게 하고.)

104022 @ 으.(으.)

104022 #2 조칩 조 불령 그 조칩을 헤민 조칩 우린 소가 질루단 아방도 못허곡 누게 나만이난 못허난. 솔 안 질루난, 그 조칩헤여근넹이 짓젠 허민, 쉐 잇인 사름덜 저 비 맞인 촐에 바꽈도렌 허민. 그것도 바꽈도 네영 지드곡.(조짚 조 밟아서 그 조짚은 하면 조짚 우린 소를 기르다가 아버지도 못하고 누구 내만이라 못하니까. 소를 안 기르니까, 그 조짚해서 때려고 하면, 소 있는 사람들 저 비 맞은 꼴에 바꿔 달라고 하면. 그것도 바꿔내어서 때고.)

104022 @ 아.(아.)

---

139) '젠기'는 빙떡이다. 고운 메밀가루 반죽을 기름을 두른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얇게 펴 놓고 가운데에 양념한 무채 소를 넣고 말아서 지진 떡. 양념장을 찍어 먹는다.

104022 #2 또 그거 안네영 밧도 ᄒᆞ루 갈아 줍센 허곡.(또 그거 드려서 밭도 하루 갈아주십사고 하고.)

104022 @ 예.(예.)

104022 #2 경 허멍 헤영 떼낌도 헷주.(그렇게 하면서 해서 땔감도 했지.)

104022 @ 떼낌예.(땔감요.)

104022 #2 솔똥 줏어당 굴묵[140] 살르고,(솔방울 주워서 '굴묵' 때고.)

104022 @ 솔똥?(솔방울?)

104022 #1 게난 그 떼는 뗄낌이 상당이 어려왓서.(그러니까 그 때는 땔감이 상당이 어려웠어.)

104022 @ 예.(예.)

104022 #1 그 드르에 가도 들이 다 이 저 다 민둥산이 엇주. 요즘ᄀᆞ추룩 거 산림이 우거지지도 안 헷주게.(그 들에 가도 들이 다 이 저 다 민둥산이었지. 요즘처럼 거 산림이 우거지지도 안 했지.)

104022 @ 어.(어.)

104022 #1 그 떼에는.(그 때에는.)

104022 #2 게고저고 헤당 떼어노니까게.(그러고저러고 해다가 때었으니까.)

104022 @ 예.(예.)

104022 #1 다 누굴 막론허고.(다 누굴 막론하고.)

104022 @ 아.(아.)

104022 #1 다 뗄낌허레 다 다녀노니까.(다 땔감 하러 다녔으니까.)

104022 @ 아 그.(아 그.)

104022 #1 저 우도에서는 나오라근에 ᄒᆞᆫ 열흘씩 보름씩 이것저것 다 모도왕. 다 무껏당.(저 우도에서는 나와서 한 열흘씩 보름씩 이것저것 다 모여 두어서. 다 묶었다가.)

104022 @ 으.(으.)

104022 #1 베에 시꺼가고 헷주게.(배에 싣고 가고 했지.)

104023 @ 소 소똥허고 말똥도예. 네불지 안 허영 다 줏엉오지 안헤수과?(소똥하고 말똥도요. 내버리지 않아서 다 주워오지 않았습니까?)

104023 #2 솔똥도 줏어당 굴묵 살르곡.(솔방울도 주워가지고 '굴묵' 때고.)

104022 @ 예.(예.)

104023 #2 또 영 화덕헤여근엥이 불살랑. 그 솔똥으로 불도 살라근엥에 춤도 허곡.(또 이렇게 화덕해서 불 때서. 그 솔방울로 불도 때서 쬐기도 하고.)

104022 @ 아 화덕?(아 화덕?)

104023 #2 굴묵도 살르곡.('굴묵'도 때고.)

104022 @ 예.(예.)

104023 #2 또 쉐똥도 줏어당 ᄆᆞᆯ유왕 허곡. 걸름도 허곡.(또 소똥도 주워가지고

140)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다.

또 말려서 하고. 거름도 하고.)

104023 @ 예 굴묵허고예.(예 '굴묵'하고요.)

104023 #2 으.(으.)

104023 @ 걸름도 허고예. 일허다근엥에 이거 봐지면은 그레 저기 이거를 소똥을 가정 오젠 허민 흘칠 때도 잇일 거난. 흘칠, 잘 안 ᄆᆞ른 거예. ᄆᆞᆯ똥도예 거문 그걸 언주와사 뭘 건디 언주왕 어디에 담앙 와신고예?(거름도 하고요. 일하다가 이거 봐지면 그쪽 저기 이것을 소똥을 가져서 오려고 하면 흘릴 때도 있을 거니까. 흘일, 잘 안 마른 거요. 말똥도요 그러면 그것을 그러모아야 될 것인데 그러모아서 어디에 담아서 왔는가요?)

104023 #2 멩텡이에 담앙 왓주.(멱둥구미에 담아서 왔지.)

104023 @ 멩텡이에예.(멱둥구미에요.)

104023 #2 멩텡이도 허곡. 엿날에 데구덕ᄒᆞ곡.(멱둥구미도 하고. 옛날에 대바구니하고.)

104023 @ 대구덕.(대바구니.)

104023 #2 ᄋᆞ.(ᄋᆞ.)

104023 @ ᄀᆞᆯ체ᄒᆞ곡.(삼태기하고.)

104023 #2 ᄋᆞ.(ᄋᆞ.)

104024 @ 또 ᄀᆞᆯ체ᄒᆞ곡. 아까 솔가리는 솔 저기 솔닙예. 솔잎은 어느 정도헤근에 둥둥 말아근에 지엉 와나신고예.(또 삼태기하고. 아까 솔가리는 솔 저기 솔잎요. 솔잎은 어느 정도해서 둥둥 말아서 지어서 왔는가요.)

104024 #2 아이고게.(아이고.)

104024 @ 걸어지는 데로?(걸어지는 데로?)

104024 #2 그거 잘도 하영 ᄆᆞᆯ앙허주.(그거 잘도 많이 말아서하지.)

104024 #1 상당히 무겁게 그.(상당히 무겁게 그.)

104024 #2 발로 이제 ᄒᆞᆫ 짝에 두 발씩 헌거를 헤영. 세 게에 놓왕.(발로 이제 한 짝에 두 발씩 한 것을 해서. 세 개에 놓아서.)

104024 @ 예.(예.)

104024 #2 영 세 개에 놓아근에 아레 이제 그 썩은 춤 삭다리 꺼껑.(이렇게 세 개에 놓아서 아래 이제 그 썩은 참 삭정이 꺾어서.)

104024 @ 응.(응.)

104024 #2 양편으로 놩 솔닙 탁탁 걷어근에 탁탁 보달[141]청. 그레 탁탁 놩 ᄌᆞ근ᄌᆞ근 ᄇᆞᆯ르멍 헤영 그것에 그 노끗에 발로 차멍. 그걸 무끄게시리 헹 지민.(양편으로 놓아서 솔잎 탁탁 걷어서 탁탁 '보달'쳐서. 거기에 탁탁 놓아서 자근자근 밟으며 해서 그것에 그 노끈에 발로 차며. 그것을 묶게끔 해서 지면.)

104024 @ 응.(응.)

141) '보달'은 솔가리 뭉치 따위를 몇 개의 기다란 매끼로 단단하게 동여 묶어 등짐 하나로 되게 꾸려 놓은 묶음을 말한다.

104024 #2 일어나지 못헹. 어떤 뗀 고게 우의로 그거 넘어나곡.(일어나지 못해서. 어떤 땐 고개 위로 그거 넘어가고.)
104024 @ 아.(아.)
104024 #1 허 헛.(허 헛.)
104024 @ 예.(예.)
104024 #2 경 헤근에 지엉 왕 그거.(그렇게 해서 지어서 와서 그거.)
104024 @ 지엉 와근에예.(지어서 와서요.)
104024 #1 게 게난 그거 보달 참을이. 보달 소위 무끄는 거.(그럼 그러니까 그것 '보달' 참을. '보달' 소위 묶는 거.)
104024 @ 예.(예.)
104024 #1 동그랗게 헤여근에 무끄는 게 기술이라.(동그랗게 해서 묶는 것이 기술이야.)
104024 #2 보달.('보달.')
104024 @ 아 보달?(아 '보달?')
104024 #2 응.(응.)
104024 #1 응.(응.)
104024 @ 그걸 보달이엔 헙니까?(그걸 '보달'이라고 합니까?)
104024 #2 응.(응.)
104024 @ 거문 그거는 무시걸로 무꺼신고마씨?(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묶었는가요?)
104024 #1 아 거 줄도.(아 거 줄도.)
104024 @ 칡?(칡?)
104024 #1 ᄀᆞ찌 허곡.(같이 하고.)
104024 #2 줄로게(줄로.)
104024 #1 그 썩은 낭까지.(그 썩은 나뭇가지.)
104024 #2 그듸.(거기.)
104024 #1 영 놩.(이렇게 놓아서.)
104024 #2 저 거시기게 이제 이디서 노 앗앙 가는, 꼬아놧당 앗앙감도 허곡.(저 거시기 이제 여기서 노 가지고 가는, 꼬아놓았다가 가져가기도 하고.)
104024 @ 예.(예.)
104024 #2 그듸 가민 끅.(그데 가면 칡.)
104024 @ 끅예.(칡예.)
104024 #2 응 끅 벋은 거.(응 칡 벋은 거.)
104024 #1 칙.(칡.)
104024 #2 끅 벋은 거.(칡 벋은 거.)
104024 @ 예.(예.)
104024 #2 끅 벋은 거.(칡 벋은 거.)

104024 #1 짤라.(잘라.)

104024 #2 아레 부떠시민 호믜로 그 아레 부뜬 거 툭툭 떨멍 그 우로 박박 잡아뎅겨불민.(아래 붙었으면 낫으로 그 아래 붙은 거 톡톡 떨구며 그 위로 팍팍 잡아당겨버리면.)

104024 @ 예, 예.(예, 예.)

104024 #2 끄차저불민 안 뒐 거난.(끊어져버리면 안 될 거니까.)

104024 @ 예, 예.(예, 예.)

104024 #2 그거 헤영근넹에도 허곡.(그거 해서도 하고.)

104024 @ 예.(예.)

104024 #2 베 앗앙 강. 경도 허곡.(참바 가져서 가서. 그렇게도 하고.)

104024 @ 베도 허고예.(참바도 하고요.)

104024 #2 으 경 헤근엥이.(으 그렇게 해서.)

104025 @ 으 나무허는 거예? 아까예 삭다리엔 헤신디예.(으 나무하는 거요? 아까요 삭정이라고 했는데요.)

104025 #2 응.(응.)

104025 @ 삭다리 죽은 낭예?(삭정이 죽은 나무요?)

104025 #1 응.(응.)

104025 @ 가지.(가지.)

104025 #2 삭다리 꺼끄는 거. 그 나무 산 나무 잇인디서이, 웃섭이 무성허민 아렛 거는 죽주게. 죽으민 그걸 삭다리. 그것ᄀᆞ라 삭다리헹 헨.(삭정이 꺾는 거. 나무 산 나무 있는데서, 위에 잎이 무성하면 아래 거는 죽지게. 죽으면 그것을 삭정이. 그것보고 삭정이해서 했어.)

104025 @ 응 삭다리.(응 삭정이.)

104025 #2 꺼꺼당 지드는 거.(꺾어다가 지피는 거.)

104025 @ 예 삭다리예.(예 삭정이요.)

104025 #2 응.(응.)

104025 @ 그거 헤가지고 허는 거고 저기 장작이엔 헌 거는 죽은 낭. 큰 거예 넘어지고 헤가지고.(그거 해가지고 하는 거고 저기 장작이라고 한 거는 죽은 나무. 큰 거요 넘어지고 해가지고.)

104025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25 #1 아니 산남도.(아니 생나무도.)

104025 #2 산남에, 산남에 잇인 거 꺼끈 것ᄀᆞ라 삭다리.(생나무에, 생나무에 있는 거 꺾은 것보고 삭정이.)

104025 @ 응 삭다리엔 허고.(응 삭정이라고 하고.)

104025 #2 응.(응.)

104025 #1 장작은 나무 밋통으로 비여근에 도막 쫄랑. 도끼로 벌러넨 게 장작이주게.(장작은 나무 밑동으로 베어서 토막 잘라서. 도끼로 벌려낸 것이 장작이지.)

104025 @ 예 그 장작도 헤실 거 아니우꽈? 경 헤도.(예 그 장작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104025 #2 으 장작도.(으 장작도.)
104025 @ 장작이 잇어사예.(장작이 있어야.)
104025 #1 응.(응.)
104025 #2 장작도 헷주게.(장작도 했지.)
104025 @ 장작도 헤근네예.(장작도 해서요.)
104025 #2 응.(응.)
104025 @ 장작은 헹 올 때는 어느 정도헹 와나신고마씨?(장작은 해서 올 때는 어느 정도해서 왔는가요?)
104025 #1 아 게난.(아 그러니까.)
104025 #2 장작은 뭐.(장작은 뭐.)
104025 #1 뭐 뒈는데로 헹 오주. 거 무신.(뭐 되는대로 해서 오지. 거 무슨.)
104025 #2 이녁 이녁.(이녁 이녁.)
104025 #1 잇인 거 네불지도 아녀고.(있는 거 내버리지도 아니하고.)
104025 #2 짐에 맞게 헹 오주.(짐에 맞게 해서 오지.)
104025 #1 헷.(헷.)
104025 #2 이녁 정 올 수 잇게.(이녁 지어서 올 수 있게.)
104025 @ 아.(아.)
104025 #2 이녁 짐에 맞게.(이녁 짐에 맞게.)
104025 @ 예. 여기서.(예. 여기서.)
104025 #2 아멩 하도 지엉 오지 못 허면.(아무리 많아도 지어서 오지 못하면.)
104025 @ 맞수다게.(맞습니다.)
104025 #2 안 뒐 거난게.(안 될 거니까.)
104025 @ 게난 여기서는 어디 어느 지경이 제일 하꽈? 아니면 이녁 밭 옆에?(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 어느 지경이 제일 많습니까? 아니면 이녁 밭 옆에?)
104025 #1 밧 옆에도 허곡.(밭 옆에도 하고.)
104025 @ 밭 옆에도 ᄒᆞ고 곶 곶?(밭 옆에도 하고 숲 숲?)
104025 #1 으 저 오름에 헤 갓주게.(으 저 오름에 많이 갔지.)
104025 @ 오름에예.(오름에요.)
104025 #2 고성 오름.('고성' 오름.)
104025 @ 고성 오름에예.('고성' 오름에요.)
104025 #2 허 헛.(허 헛.)
104025 @ 이 고성 오름은 물믹[142] 아니우꽈예?(이 '고성' 오름은 수산봉 아닙니까요?)
104025 #1 응.(응.)

142) '물믹'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이에 소재한 수산봉을 말한다.

104025 @ 예 물메ᄒᆞ곡.(예 '수산봉'하고.)

104026 @ 숮을 구워사 적도 헐 거 아니우꽈? 아니면 집에 집안에 화리도 놓코예.(숮을 구워야 적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집에 집안에 화로도 놓고요.)

104026 #1 으.(으.)

104026 @ 숮 구우는 거는 어떵 헤나수과? 그냥 저기 정지에 거, 정지에 헤나수과?(숮 구우는 거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냥 저기 부엌에 거, 부엌에 했었습니까?)

104026 #1 아니.(아니.)

104026 @ 아니면은.(아니면.)

104026 #2 아니.(아니.)

104026 @ 집집마다 다.(집집마다 다.)

104026 #2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04026 @ 숮을 구어신가마씨?.(숮을 구웠는가요?)

104026 #1 그거 숮을 굽젠 허면은 그 고망낭이라고 헤서. 그 길가에 그 쪼끔씩이.(그것 숮을 구우려고 하면은 그 구멍나무라고 해서. 그 길가에 그 조금씩.)

104026 @ 예.(예.)

104026 #1 그 나무 잘 못 크는 거지 담 돌 트멍에 나는 것덜이.(그 나무 잘 못 크는 거지 담 돌 틈에 나는 것들이.)

104026 @ 예.(예.)

104026 #1 그 고망낭이엔 ᄒᆞ주게. 그거 길가에 거 영 크지도 못허곡.(그 구멍나무라고 하지. 그것 길가에 거 이렇게 크지도 못하고.)

104026 @ 예.(예.)

104026 #1 돌 트멍에.(돌 틈에.)

104026 @ 트멍에.(틈에.)

104026 #1 잇는 것덜을 ᄒᆞ나 ᄒᆞ나 가서 다 봉구주게. 그걸 톱으로 다 쫄르곡.(있는 것들을 하나 하나 가서 다 줍지. 그걸 톱으로 다 자르고.)

104026 @ 예.(예.)

104026 #1 뭐헤근에. 조그만씩 쫄랑. 그거 숮. 빈 밧듸.(뭐해서. 조금씩 잘라서. 그거 숮. 빈 밭에.)

104026 @ 예.(예.)

104026 #1 헤서 ᄒᆞ룻ᄌᆞ냑 불부찌민 ᄒᆞ룻저냑 넘으민.(해서 하룻저녁 불붙이면 하룻저녁 넘으면.)

104026 #2 구뎅이 팡, 그거 숮 뭇젠 허민.(구덩이 파서, 그거 숮 묻으려고 하면.)

104026 @ 예.(예.)

104026 #2 구뎅이를 파근에 그 ᄌᆞᆫᄌᆞ ᄌᆞᆫᄌᆞ허게 나무 그거 고망낭 헤여다 논걸. ᄌᆞ근ᄌᆞ근 허게시리 춤 그듸 춤 저 텔레비ᄀᆞ찌 숮 묻는 거식으로 남을 ᄌᆞ근ᄌᆞ근 놩 싸 놩.(구덩이를 파서 그 자잘 자잘하게 나무 그거 구멍나무 해다 놓은 것을. 자근

자근 하게끔 참 그데 참 저 텔레비전 같이 숯 묻는 거식으로 나무를 자근자근 놓아서 쌓아 놓아서.)

104026 #1 세와 낭.(세워 놓아.)

104026 @ 응.(응.)

104026 #2 싸놩 그레 불 부쩡 흑 덮엉.(싸놓아 거기에 불 붙여서 흙 덮어서.)

104026 @ 예.(예.)

104026 #2 흑 덮어근엥이 불 부쩡으네. 흑 덮엉 놔두민 그게 안네서 다 슴앙 까지민. 그거 식으민. 그거 헷상 보민 숯 뒈민. 그거 숯 파다근넹에. 헷주게.(흑 덮어서 불붙여서. 흑 덮어서 놓아두면 그게 안에서 다 때서 까지면. 그거 식으면. 그거 헤치고 보면 숯 되면. 그거 숯 파다가. 했지.)

104026 @ 게난 집집마다 이녁 거는 이녁이 헤신가마씨?(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녁 것은 이녁이 했는가요?)

104026 #2 이녁 거 허는 사름도 잇고 사당 허는 사람도 잇고 동네허민 주웡 험도 허곡.(이녁 거 하는 사름도 있고 사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동네하면 주워서하기도 하고.)

104026 @ 주웡험도 허곡예.(주워서하기도 하고요.)

104026 #2 응.(응.)

104026 #1 ᄀᆞ찌 동아리 헹 홈도 허곡.(같이 동아리 해서하기도 하고.)

104026 @ 어, 집마다.(집마다.)

104026 #1 나무를 헤 와야 뒈니까. 혼자만 나무ᄒᆞ기가 힘들주게. 게면은.(나무를 해 와야 되니까. 혼자만 나무하기가 힘들지. 그러면.)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1 ᄀᆞ찌 벗헤서 가서 협동으로 나무.(함께 벗해서 가서 협동으로 나무.)

104026 @ 예 게도 이거는 곡식처럼 꼭 필요헌 거가 아니난에 이거 먹어사 될 거 아니난 경 헤도.(예 그래도 이것은 곡식처럼 꼭 필요한 거가 아니니까 이거 먹어야 될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104026 #2 으.(으.)

104026 @ 일정을 정헤실 거 아니우꽈예?(일정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요?)

104026 #1 ᄋᆞ.(ᄋᆞ.)

104026 #2 응, 응.(응, 응.)

104026 @ 언제 허자 헤가지고. 몇 집이서.(언제 하자 해가지고. 몇 집에서.)

104026 #1 겨울에 겨울에.(겨울에 겨울에.)

104026 @ 겨울에예. 으.(겨울에요. 으.)

104026 #1 겨울에 조 다 헤불면 밧이. 빈 밧이 많주.(겨울에 조 다 해버리면 밭이. 빈 밭이 많지.)

104026 @ 예, 예 빈 밧이예.(예, 예 빈 밭이요.)

104026 #1 조 비여불민.(조 베어버리면 밭이.)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1 가을에 게문 그 빈 밧디 가. 그 구둥이 파근에.(가을에 그러면 그 빈 밭에 가. 그 구덩이 파서.)
104026 @ 어.(어.)
104026 #1 그거 숯 묻어나도 뭐 주인 봐도 뭐엔 안 허여.(그거 숯 묻었어도 뭐 주인 봐도 뭐라고 안 해.)
104026 @ 아 놈이 밭이라도예.(아 남의 밭이라도요.)
104026 #1 놈이 밧듸라도.(남의 밭에라도.)
104026 @ 겐디 이건 재미져시키여예? 이거 헐 떼예.(그런데 이건 재미있었겠네요? 이거 할 때요.)
104026 #1 제밋주 막.(재밌지 아주.)
104026 @ 감저도 구엉 먹으멍.(고구마도 구워 먹으면서.)
104026 #1 콧구멍도 시커멍. 허 헛.(콧구멍도 새카맣고. 허 헛.)
104026 #2 허, 허, 헛.(허, 허, 헛.)
104026 @ 하, 하핫.(하, 하핫.)
104026 #1 헤, 헤헷. 입도 시커멍.(헤, 헤헷. 입도 새카맣게.)
104026 @ 예. 경 헤난 다음에 마다리에 담아근에. 집에 가져왓다근에.(예. 그렇게 하고난 다음에 마대에 담아서. 집에 가져왔다가.)
104026 #1 응.(응.)
104026 @ 큰일 헐 떼 쓰곡.(큰일 할 때 쓰고.)
104026 #2 마다리가 어디 서게 가멩이.(마대가 어디 있니 가마니.)
104026 @ 가멩이에예?(가마니에요?)
104026 #2 응.(응.)
104026 @ 예 가멩이.(예 가마니.)
104026 #2 그 떼 마다리가 어디 서게.(그 때 마대가 어디 있니.)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2 가멩이주게.(가마니지.)
104026 @ 예 경 헤도 숯 구웡 오민 이것도 큰 하나의 그 막 준비가 돈돈허게 된 건게예.(예 그렇게 해도 숯 구워서 오면 이것도 큰 하나의 그 아주 준비가 단단하게 된 것이네요.)
104026 #2 응.(응.)
104026 @ 그거가.(그것이.)
104026 #1 하 숯만 잇이민 적홈이 오죽 좋아게.(하 숯만 있으면 적하기가 오죽 좋아.)
104026 @ 예.(예.)
104026 #1 넴, 저 연기 안 나곡.(냄, 저 연기 안 나고.)
104026 @ 예, 예. 으 아이고 남자 어른들도 되게 하영 헤신게마씨. 숯도 허젠허

난 놀기만 헌 건 아니고.(예, 예. 으 아이고 남자 어른들도 되게 많이 했네요. 숯도 하려고하니까 놀기만 한 건 아니고.)

104026 #1 에이고 그까짓 거 ᄒᆞ는 건.(에이고 그까짓 거 하는 건.)

104026 #2 허, 허 헛.(허, 허 헛.)

104026 @ 하, 하핫.(하, 하핫.)

104026 #1 거 ᄒᆞ는 걸로 생각도 안 헤서 이 할망덜.(거 하는 것으로 생각도 안 해서 이 할머니들.)

104026 @ 아, 이것도 남자어른덜 헌 거난예. 예.(아, 이것도 남자어른들 한 것이니까요. 예.)

104027 @ 게난 뗄ᄀᆞᆷ 준비허면서 그 경험 같은 거. 장작 뭐 솔닙이나.(그러니까 장작 준비하면서 그 경험 같은 거. 장작 뭐 솔잎이나.)

104027 #1 아이고 경험이야.(아이고 경험이야.)

104027 @ ᄒᆞ끔 ᄒᆞᆫ 마디씩.(조금 한 마디씩.)

104027 #1 다 힘. 다 힘들엇주게 그거, 그렇다고 헤서 뭐 이녁 밧디만 뗄 거 그 나무가 잇는 것도 아니고. 거 츰 어떨 때는 ᄂᆞᆷ이 밧듸 거라도 ᄒᆞ나씩 줏어 와야 ᄒᆞ거든.(다 힘. 다 힘들었지 그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녁 밭에만 땔 거 그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 참 어떤 때는 남의 밭에 거라도 하나씩 주워 와야 하거든.)

104027 @ 예, 예.(예, 예.)

104027 #1 경 ᄒᆞ난에 뭐 그거 큰 이제 그 뭐 범법자가 뒈는 건 아니주만은 그거 나무 ᄒᆞ나 헤왓다고 헤서.(그렇게 하니까 뭐 그거 큰 이제 그 뭐 범법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 나무 하나 해왔다고 해서.)

104027 #2 아 경 헤도.(아 그렇게 해도.)

104027 #1 ᄒᆞ주마는 주인이.(하지만 주인이.)

104027 #2 엿날에 그 돌레 뎅기고 홀 뗀, 나무 ᄒᆞ나 끈어도게 ᄉᆞ뭇 으.(옛날에 그 돌아다니고 할 땐, 나무 하나 끊어도 사뭇 으.)

104027 #1 아 거 일제시대 그.(아 그래서 일제강점기 그.)

104027 #2 예.(예.)

104027 #1 산감[143]이엔 헤여네.(산감이라고 해서.)

104027 @ 응 산감예.(응 산감요.)

104027 #1 산감이라고 헤서 나무 이제 쫄라오는 거나 이거 ᄒᆞ면은 막 벌금ᄒᆞ곡 막 경찰관들이 막.(산감이라고 해서 산감이라고 해서 나무 이제 잘라오는 거나 이것 하면은 막 벌금하고 마구 경찰관들이 아주.)

104027 @ 응.(응.)

104027 #1 산감이영 돌아뎅기고 헷주게. 못허게.(산감하고 돌아다니고 했지. 못하게.)

104027 @ 예, 예.(예, 예.)

143) '산감' 산감(山監)은 산감독(山監督)이다.

104027 #1 못ᄒᆞ게.(못하게.)
104027 #2 나무 끈지 못허게.(나무 끊지 못하게.)
104027 @ 맞수다.(맞습니다.)
104027 #2 경 헤낫주게.(그렇게 했지.)
104027 @ 으 으.(으 으.)
104027 #1 경 헤도 게 뭐.(그렇게 해도 게 뭐.)
104027 #2 경 헤도. 이 밤광 저 밤세 강. 헹 와사 이녁이 살젠 허문 ᄒᆞᆯ 수가 엇인 거.(그렇게 해도. 이 밤과 저 밤사이 가서. 하서 와야 자기가 살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
104027 @ 맞수다.(맞습니다.)
104027 #1 허.(허.)
104027 @ 으 으.(으 으.)
104027 #2 경ᄒᆞ난 몰르로 허당 보밈 들림도 ᄒᆞ곡게.(그렇게 하니까 모르게 하다가 보면 들키기도 하고.)
104027 @ 맞수다. 들림도 허고예?(맞습니다. 들키기도 하고요?)
104027 #2 예.(예.)
104027 @ 들려근에 벌금도 내곡 헌 사름 봐 납디가?(들켜서 벌금도 내고 한 사람 봤었습니까?)
104027 #2 아니게 아명헤도 경 허는 사름도 잇엇주만은 우린 경은 헤보진.(아니게 아무리해도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우린 그렇게는 해보지는.)
104027 #1 헤, 헤.(헤, 헤.)
104027 #2 안헤신디.(안했었고.)
104027 @ 헤 보진 안허고예? 예.(해 보지는 안하고요? 예.)
104027 #1 그자락 경.(그다지 그렇게.)
104027 @ 허, 허.(허, 허.)
104027 #1 허, 허, 허, 허 헤, 헤.(허, 허, 허, 허 헤, 헤.)
104027 @ 응.(응.)
104027 #1 음.(음.)

사냥

104028 @ 응, 이젠 삼춘 사냥 해저 해났지예?(응, 이젠 삼촌 사냥 했어 했었지요?)
104028 #1 응. 사냥허레 가왓저 우리.(응. 사냥하러 가왔다. 우리.)
104028 @ 응.(응.)
104028 #2 허, 허.(허, 허.)
104028 #1 똑 ᄒᆞ루 ᄒᆞ루.(딱 하루 하루.)
104028 @ 허, 허.(허, 허.)

104028 #1 가 왓서.(가 왔어.)

104028 @ ᄒᆞ루마씨? 이거 사냥 헐 때는 무시거를 잡아신고예. 꿩?(하루요? 이것 사냥 할 때는 무엇을 잡았는가요. 꿩?)

104028 #1 꿩 꿩.(꿩 꿩.)

104028 @ 아, 꿩.(아, 꿩.)

104028 #1 꿩 잡으레 가 왓는데. 이게 고성[144] 수산[145] 이 데데적으로 홀 때는. 고성 수산 사름덜 다 동원을 허주게. 막 웍 웍 막 웨멍헤근에.(꿩 잡으러 가 왔는데. 이게 '고성' '수산' 이 대대적으로 할 때는. '고성' '수산' 사람들 다 동원을 하지. 아주 왁 왁 아주 외면서.)

104028 @ 아.(아.)

104028 #1 다 나오렌 헤영 ᄒᆞ멍은.(다 나오라고 해서 하면은.)

104028 @ 아.(아.)

104028 #1 여기서 실찌 저 다랑쉬[146]니 어디니 그 막 멀게 망을 우릴 보고, 너는 어디 가 어디 가 허영 막 명[147]이 이건 뭐 군데 명령보단도 더 엄헤여.(여기서 실제 저 '다랑쉬'니 어디니 그 아주 멀게 망을 우리를 보고, 너는 어디 가 어디 가 해서 마구 명이 이것은 군대 명령보다도 더 엄해.)

104028 @ 응.(응.)

104028 #1 그레서 그 좋은 개 가진 사름은 소위 꿩 다울리는 이 사름덜은, 춤 꿩 다울리곡. 꿩 강 앚으면은 어디 안잣저 허면 강 물게 허곡. 영 헤근에 ᄒᆞ는 건데.(그래서 그 좋은 개 가진 사람은 소위 꿩 쫓는 이 사람들은, 참 꿩 쫓고. 꿩 가서 앉으면 어디 앉았다 하면 가서 물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104028 @ 으 으.(으 으.)

104028 #1 아 우리는 어릴 적에 갓다가 망을 보레 갓다가 꿩이 어디 간질 알 수가 잇서.(아 우리는 어릴 적에 갔다가 망을 보러 갔다가 꿩이 어디 간 줄을 알 수가 있어.)

104028 #1@ 허 헛.(허 헛.)

104028 @ 으.(으.)

104028 #1 게민 욕만 처듣고.(그러면 욕만 쳐듣고.)

104028 @ 하, 하, 하, 하.(하, 하, 하, 하.)

104028 #1 게민 그거를 이제 꿩 헹 허면은 사냥을 허면은 꿩을 막 많이 잡아. 겐디 사람이 많이 가니까.(그러면 그것을 꿩 해서 하면은 사냥을 하면은 꿩을 많이 잡아. 그런데 사람이 많이 가니까.)

104028 @ 으.(으.)

104028 #1 이 어린 아이들안테 그게 ᄎᆞ레에.(이 어린 아이들한테 그게 차례에.)

---

144) '고성'은 서귀포시 성산읍 행정마을 중 고성마을을 말한다.
145) '수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행정마을 중 수산마을을 말한다.
146) '다랑쉬'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에 소재한 오름(고도 382.4m)을 말한다.
147) '명' 명(命) 명령(命令)이다.

104028 @ 어.(어.)

104028 #1 분배 뒈는 게 상당이 어려와.(분배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104028 @ 어.(어.)

104028 #1 게난 각[148]으로 뭐 꿩도 이제 그 각으로 다 찢엉.(그러니까 각으로 뭐 꿩도 이제 그 각으로 다 찢어서.)

104028 @ 어.(어.)

104028 #1 경 ᄒᆞ나씩 그 테우[149]곡 허주게.(그렇게 하나씩 그 태우고 하지.)

104028 @ 아.(아.)

104028 #1 겐디 우린 갓자 무시거 얻어먹지도 못 허곡.(그런데 우린 갔어도 무엇 얻어먹지도 못 하고.)

104028 @ 어릴 때.(어릴 때.)

104028 #1 그냥 와낫주.(그냥 왔었지.)

104028 @ 어릴 때난예.(어릴 때니까요.)

104028 #1 게난 그 후부터 ᄒᆞᆫ 번 강 경 허난 다시 안 가벼서.(그러니까 그 후부터 한 번 가서 그렇게 하니까 다시 안 가버렸어.)

104028 @ 게난 동원헤근에예.(그러니까 동원해서요.)

104028 #1 응.(응.)

104028 @ 꿩 헌덴 허면은 누가 신호를 동네에서 먼저 보내기네 경 허문 모여들엉덜.(꿩 한다고 하면은 누가 신호를 동네에서 먼저 보내어서 그렇게 하면 모여들어서들.)

104028 #1 아, 게난. 페장[150]이 잇주게. 페장.(아, 그러니까. 패장이 있지. 패장.)

104028 @ 아.(아.)

104028 #1 고성 페장. 이제 수산 페장, 헤가지고.(고성 패장. 이제 수산 패장, 해가지고.)

104028 @ 아 페장이엔 헌 게 있구나예.(아 패장이라고 한 게 있군요.)

104028 #1 응, 그 ᄉᆞ농 페장.(응, 그 사냥 패장.)

104028 @ 으 응.(으 응.)

104028 #1 ᄉᆞ농 페장이 잇서 가지고 헤서. 이제 그 서로 합의 헤가지고 수산이나 영 헹. 고성만 갈 수도 잇어. 이 동네 싸름만 헤영 가는 수도 잇지마는. 게민 규모가 즉으민 꿩을 얼마 못 잡아.(사냥 패장이 있어 가지고 해서. 이제 그 서로 합의 해가지고 '수산'이나 이렇게 해서. '고성'만 갈 수도 있어. 이 동네 사람만해서 가는 수가 있지마는. 그러면 규모가 작으면 꿩을 얼마 못 잡아.)

104028 @ 응.(응.)

104028 #1 게민 이 규묘를 크게 헤가지고 ᄒᆞ며는 하여튼 그 저짝 다랑쉬로 저 거시기로 어딜로 안 뎅기는 디가 업서.(그러면 이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하면은 하

148) '각'은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나눌 때, 전체를 몇 등분한 것 가운데 한 부분을 말한다.
149) '테우'는 태워 주다로 재물(財物) 따위를 나눠 주는 것을 말한다.
150) '페장'은 꿩 사냥 때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여튼 그 저쪽 '다랑쉬'로 저 거시기로 어디로 안 다니는 데가 없어.)

104028 @ 응.(응.)

104028 #1 경 헹 ᄒᆞ면은 뭐 꿩덜 잡앙 헷주만은 그게 그 때 끗나니까. 이젠 이런 ᄉᆞ농도 ᄒᆞ질 안 혀 이제는.(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꿩들 잡아서 했지만은 그게 그 때 끝나니까. 이젠 이런 사냥도 하지를 안 해 이제는.)

104028 @ 예, 예 그 때가. 아.(예, 예 그 때가. 아.)

104028 #1 에.(에.)

104028 @ 게문 누게 지시에 따라가지고 페장이엔 헌디가 대장 잡아 가지고예? 어.(그러면 누구 지시에 따라가지고 패장이엔 한데가 대장 잡아 가지고요? 어.)

104028 #1 응, 데장이 명령에.(응, 대장의 명령에.)

104028 @ 예, 예.(예, 예.)

104028 #1 복종헤야 뒈여. 거기 ᄉᆞ농 나가면은.(복종해야 돼. 거기 사냥 나가면.)

104028 @ 예, 거문 들어 본데로 들어 본 도리[151]로예. 사냥은 어떤 것ᄁᆞ지 사냥이엔 헙니까? 잡앙 오는 거.(예, 그러면 들어 본대로 들어 본 도리로요. 사냥은 어떤 것까지 사냥이라고 합니까? 잡아서 오는 거.)

104028 #1 아.(아.)

104028 @ 꿩 사냥허민(꿩 사냥하면.)

104028 #1 꿩 ᄉᆞ농이엔 허민 꿩 잡으레 가는 거주게.(꿩 사냥이라고 하면 꿩 잡으러 가는 거지.)

104028 @ 예 꿩 사냥 또.(예 꿩 사냥 또.)

104028 #1 그 웨에는 안 헤 봐서.(그 외에는 안 해 봤어.)

104028 @ 아니 헤 본 거 아니 들은 거는 사양에 대해서 들은 거는?(아니 해 본 거 아니 들은 거는 사냥에 대해서 들은 거는?)

104028 #1 에.(에.)

104030 @ 노루사냥은 안 헤나수꽈?(노루사냥은 안 했었습니까?)

104030 #1 게메 노루ᄉᆞ농은 그 개 잇는 사름끼리.(그러니까 노루사냥은 그 개 있는 사람끼리.)

104030 @ 응.(응.)

104030 #1 노루ᄉᆞ농 허는데.(노루사냥 하는데.)

104030 @ 응.(응.)

104030 #1 이게, 경 쉽질 안 혀주.(이것이, 그렇게 쉽질 않지.)

104030 @ 예.(예.)

104030 #1 개가 워낙 좋아야 뒈곡.(개가 워낙 좋아야 되고.)

104031 @ 으 노루사냥에 게니까 들은.(으 노루사냥에 그러니까 들은.)

---

151) '도레' 도리(道理)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해 나갈 방도(方道)의 듯이나 여기서는 적의 뜻으로 쓰였다.

104030 #1 어.(어.)

104031 @ 노루사냥, 꿩사냥, 오소리, 지다리.(노루사냥, 꿩사냥, 오소리, '지다리.')

104031 #1 으.(으.)

104031 @ 지다리[152] 사냥도 옛날에 해났지예?('지다리' 사냥도 옛날에 했었지요?)

104031 #1 응, 지다리 사냥 허는디.(응, '지다리' 사냥 하는데.)

104031 @ 으.(으.)

104031 #1 그거는 그 기술자들이 허지.(그것은 기술자들이 하지.)

104031 @ 예 게난.(예 그러니까.)

104031 #1 일반사람은 그거 허질 안 허여.(일반사람은 그거 하지를 안 해.)

104031 @ 예.(예.)

104031 #1 그 옌날 여기 저 지금 ○○ 이 아버지 오○○씨가 산 떼. 다랑쉬에서 큰 노루 ᄒᆞ나를 개가 잡안 헷는데, 다랑쉬에서 이ᄁᆞ지 그 끅으로 그걸 짊어 앚언 고성ᄁᆞ지. 아, 네려 온 걸 보고 나 놀랫다 말이여.(그 옛날 여기 저 지금 ○○이 아버지 오○○씨가 살았을 때. '다랑쉬'에서 큰 노루 하나를 개가 잡아서 했는데, '다랑쉬'에서 여기까지 그 칡으로 그것을 지어가지고 '고성'까지. 아, 내려 온 걸 보고 나 놀랐다 말이다.)

104031 @ 아.(아.)

104031 #1 이거 거 오죽 무거울 거라게. 곧 그 죽엉 ᄒᆞ니까 그 노루도 족은 노루가 아닌데.(이거 거 오죽 무거울 거야. 곧 그 죽어서 하니까 노루도 작은 노루가 아닌데.)

104031 @ 응.(응.)

104031 #1 그걸 짊어전 이 고성ᄁᆞ지 지네 집ᄁᆞ지 왓서. 완 허난 우리가 구경ᄒᆞ고 ᄒᆞ다가.(그걸 짊어져서 이 고성까지 자기 집까지 왔어. 왔다 하니까 우리가 구경하고 하다가.)

104031 @ 응.(응.)

104031 #1 춤 거 구경ᄒᆞ고 ᄒᆞ다가 춤 나중에 잡으난. 고기 ᄒᆞᆫ 토막 얻어먹긴 헷주만은 아 그 거 돈 줘서 사먹는 처지가 그뗀 못 뒈는 떼라노니까.(참 거 구경하고 하다가 참 나중에 잡으니까. 고기 한 토막 얻어먹기는 했지만은 아 거 돈 줘서 사먹는 처지가 그땐 못 되는 때라서.)

104031 @ 예, 예.(예, 예.)

104031 #1 아 겐디 춤 그거를 자기가 잡은 뭐 이제 그 춤 것도 과시ᄒᆞᆯ랴고 해서 그걸 지언. 그, 죽을힘을 다헨 그걸 지언 온 거주. 요즘 ᄀᆞ뜨면은.(아 그런데 참 그거를 자기가 잡은 뭐 이제 그 참 것도 과시하려고 해서 그것을 지어서. 그, 죽을 힘을 다하고 그것을 지어서 온 것이지. 요즘 같으면.)

152) '지다리' '지달'로 보며 수달의 족제빗과의 포유류 일듯 하다.

104031 @ 예.(예.)

104031 #1 지엉 옴이랑마랑.(지어서 오기는커녕.)

104031 @ 예 아 거문.(예 아 그러면.)

104031 #2 다랑쉬에서 이디가 멀지. 저 보디지도 안 헌 딘디.('다랑쉬'에서 여기가 멀지. 저 가깝지도 안 한 덴데.)

104031 @ 예 맞수다. 아주 멀주게. 게난 꿩허고 노루허고 지다리허고 또 다른 거 사냥. 토끼사냥 같은 거는?(예 맞습니다. 아주 멀지. 그러니까 꿩하고 노루하고 '지다리' 하고 또 다른 것 사냥. 토끼사냥 같은 거는?)

104031 #1 토끼는 여기 그 드르에 토끼가 엇주게.(토끼는 여기 그 들에 토끼가 없지.)

104031 @ 날아다니는 새는 저기 맞추는 사람은 잇어나수꽈?(날아다니는 새는 저기 맞추는 사람은 있었습니까?)

104031 #1 어.(어.)

104031 @ 꿩 말고. 꿩 코[153] 놓는 거 말고.(꿩 말고. 꿩 올가미 놓는 거 말고.)

104031 #1 아 게난에 그건 요즘에 와서. 새총헤서 그.(아 그러니까 그건 요즘에 와서. 새총해서 그.)

104031 @ 응.(응.)

104031 #1 공기총 ᄀᆞ뜬 거 헹 잡는 거지 뭐 무신.(공기총 같은 거 해서 잡는 거지 뭐 무슨.)

104031 @ 옛날에 뿡개[154]엔 헤가지고 돌 삥글삥글 돌려근에에 착 맞춰가지고.(옛날에 '뿡개'라고 해가지고 돌 빙글빙글 돌려서 착 맞춰 가지고.)

104031 #1 에이고 게난 그거 아무나 그거 ᄒᆞ지도.(에이고 그러니까 그거 아무나 하지도.)

104031 @ 예 못 허주마는.(예 못 하지마는.)

104031 #1 그거 헴젠 무신 새 잡아져.(그거 한다고 무슨 새 잡아지니.)

104031 @ 으 그런 건 업꾸나예.(으 그런 건 없군요.)

104031 #1 새 잡는 거는.(새 잡는 거는.)

104031 @ 예.(예.)

104031 #1 그 옌날 그 눈 오면은 테기.[155](그 옛날 그 눈 오면 '테기.')

104031 @ 으.(으.)

104031 #2 셍이 테기이.(새 '테기.')

104031 #1 이 저 셍이 테기ᄒᆞ곡. 그 말총으로 치[156] 멘글아근에.(이 저 새 '테기' 하고. 그 말총으로 '치' 만들어서.)

---

153) '꿩코'는 꿩을 잡기 위한 올가미로 새끼나 노 따위로 옭아서 고를 내어 짐승을 잡는 장치다.

154) '뿡개'는 한 발 쯤 되는 노끈을 접어 겹친 사이에 돌을 접히어 놓고 노끈 끝을 쥐어 돌리다가 돌을 날려 보내는 사냥도구를 말한다.

155) '테기'는 흙벽을 바르기 위하여 벽 속에 엮은 나뭇가지인데 여기서는 그 대나무를 가리킨다.

156) '치'는 치(雉)다. 사냥 할 때 만들어 놓은 장치다.

104031 @ 응.(응.)

104031 #1 요거를 막 눈 오면은 새가 먹을 게 업쓰면은.(요것을 아주 눈 오면 새가 먹을 것이 없으면.)

104031 @ 응.(응.)

104031 #1 저 바닷가에 모레 판에 ᄀᆞ뜬디 가근에 모레 싹 걷어 뒁 놔 두며는 경 헹 거기에 좁쏠 싹 뿌령 놔두며는 와근에 뎅기당. 그 치에 걸리곡.(저 바닷가에 모레 판에 같은데 가서 모레 싹 걷어두어서 놓아 두면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좁쌀 싹 뿌려서 놓아두면 와서 다니다가. 그 '치'에 걸리고.)

104031 @ 아.(아.)

104031 #1 테기에 걸리곡. 헤영 잡는 수는, 막 잡아낫주게.('테기'에 걸리고. 해서 잡는 수는, 마구 잡았었지.)

104031 @ 아, 그럼 새는예, 셍이.(아, 그럼 새는요, 새.)

104031 #1 응.(응.)

104031 @ 생이도 것도 사냥이엔 헐 거 아닛꽈? 날 거를 잡는 거는?(새도 그것도 사냥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날 거를 잡는 거는?)

104031 #1 에이고 거 ᄉᆞ농 촐리멍.(에이고 거 사냥 차리면서.)

104031 #2 세 ᄉᆞ냥 소리는 안 듣고 못 들어봉.(새 사냥 소리는 안 듣고 못 들어보아서.)

104031 @ 예 사냥까지는.(예 사냥까지는.)

104031 #2 예 올케 하르방 ᄀᆞᆺ사.(예 올케 할아버지 아까.)

104031 #1 거 개인적으로, 거 개인적으로.(거 개인적으로, 거 개인적으로.)

104031 @ 으.(으.)

104031 #2 하르방 ᄀᆞᆺ사. ᄀᆞᆯ앗던 말짝 아니라도 그 눈 온 때 그 새 잡는 건. 치 놩 그거 ᄒᆞ는 거.(할아버지 아까. 말했던 말뿐 아니라도 그 눈 온 때 그 새 잡는 건. '치' 놓아서 그거 하는 거.)

104031 @ 치 놩?('치' 놓아서?)

104031 #2 테기ᄒᆞ곡.('테기'하고.)

104031 @ 테기 헹 위에 탁ᄒᆞ게.('테기' 해서 위에 탁하게.)

104031 #2 위에 탁허게시리 허여.(위에 탁하게끔 해.)

104031 @ 조 코고리 영 ᄃᆞᆯ아멧당 거.(조 이삭 이렇게 달아매었다가 거.)

104031 #1 응.(응.)

104031 #2 예.(예.)

104031 @ 거 탁 ᄐᆞᆫ앙 허면.(거 탁 뜯어서 하면.)

104031 #1 응.(응.)

104031 #2 조 코고리 마당에 조칩 ᄀᆞᆯ민 그것에 잇이민 ᄐᆞ당 네벗당. 그 테 멘들앙 그것더레 꼽앙 놔두민 새 먹젠 헹 탁허게 허민 경 헹. 그 저 밥주리셍이.(조 이삭 마당에 조짚 깔면 그것에 있으면 뜯어 내버렸다가. 그 '테' 만들어서 그것에 꽂

아 놓아두면 새 먹으려고 해서 탁 하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저 참새.)

104031 @ 밥주리셍이.(참새.)

104031 #2 응, 밥주리셍이 경 헹 잡앗고.(응, 참새 그렇게 해서 잡았고.)

104031 @ 예.(예.)

104031 #2 또 저 찍꾸리도 어떤 뗀 걸리문 걸리주마는.(또 저 직박구리도 어떤 땐 걸리면 걸리지만.)

104031 #1 게 찍꾸리 잡는 건. 목쩨비.[157](그럼 직박구리 잡는 것은. 목접이.)

104031 @ 아 목쩌비?(아 목접이?)

104031 #1 으, 목쩨비라고 헤서 이 나무 그 탄력.(으, 목접이라고 헤서 이 나무 그 탄력.)

104031 @ 예.(예.)

104031 #1 나무 죽 오그려 놔근에 영 그 중간에 헤근에 그.(나무 죽 오그려 놓아서 이렇게 그 중간에 해서 그.)

104031 #2 조코고리 허엿당.(조이삭 했다가.)

104031 #1 으 그 그 뭐 돌아메영허면은 그거 아피 ᄒᆞ젱ᄒᆞ며는 건드려불민. 그게 쏙 빠지면은 탁 이게.(으 그 그 뭐 달아매어서하면 그거 앞에 하려고하면 건드려버리면. 그것이 싹 빠지면 탁 이것이.)

104031 @ 응.(응.)

104031 #1 반동으로 이제 탁 튀겨 나면서 목 쫄랑.(반동으로 이제 탁 튕겨 나면서 목 잘라서.)

104031 @ 아.(아.)

104031 #1 목쫄려근에 그 죽주게.(목 잘려서 그 죽지.)

104031 @ 예.(예.)

104031 #1 게난 그게 목쩨비라고 헤가지고, 목쩨비.(그러니까 그것이 목접이라고 해가지고 목접이.)

104031 @ 응 그거가 테 테기?(응 그것이 '테' '테기?')

104031 #1 테기는 새 잡는 거.('테기'는 새 잡는 거.)

104031 @ 테기는 아까 이렇게 허는 거는 그거는 목제비.('테기'는 아까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은 목접이.)

104031 #2 목쩨비엔 헴신게 곳사헌 거.(목접이라고 하고 있네 아까 한 거.)

104031 @ 목쩨비.(목접이.)

104031 #1 응 목쩨비.(응 목접이.)

104031 @ 그거는 목쩨비엔 헌 거예.(그것은 목접이라고 한 것요.)

104031 #1 응, 찍꾸리 ᄀᆞ뜬 거 큰 거 큰새 잡는 거.(응, 직박구리 같은 거 큰 거 큰새 잡는 거.)

104031 @ 찍박꾸리주게. 목쩨비 찍구리 헌 게 요즘 나는 찍 찍 좀 커. 그 저 참

157) '목쩨비'는 목접이다. 목이 걸리도록 하게 만든 사냥도구를 말한다.

새보다는.(직박구리지. 목접이 직박구리 한 것이 요즘 나는 찍 찍 좀 커. 그 저 참 새보다는.)

104031 #1 응.(응.)

104031 @ 아 목쩨비엔 허는구나.(아 목접이라고 하는구나.)

104032 @ 족제비 덫에 대해 골아줍서. 족제비, 아까 족제비가 지달피[158] 아닌가마씨?(족제비 덫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족제비, 아까 족제비가 '지달피' 아닌가요?)

104032 #1 으 으, 족제비도 역시 목제비ᄀᆞ뜬 걸로 잡는 건디.(으 으, '지다리'도 역시 목접이 같은 걸로 잡는 건데.)

104032 @ 응.(응.)

104032 #1 족제비가.(족제비가.)

104032 #2 족제빈 무시거 허젠 잡아 와수꽈? 나 원.(족제비는 무엇 하려고 잡아 왔습니까? 나 원.)

104032 #1 아, 족제비가 그.(아, 족제비가 그.)

104032 #2 족제비 잡은 건 몰라 원.(족제비 잡은 건 몰라 원.)

104032 #1 소위 족제비 허민은. 그 족제비 털로 족제비 꼬리털로. 붓 멘들덴 헤근에.(소위 족제비 하면. 그 족제비 털로 족제비 꼬리털로. 붓 만든다고 해서.)

104032 #2 아.(아.)

104032 @ 예.(예.)

104032 #2 응.(응.)

104032 #1 그 많이 그것도 이용은 헤낫는데.(그 많이 그것도 이용은 했었는데.)

104032 @ 예.(예.)

104032 #1 족제비 ᄀᆞ뜬 것도 목쩨비 이용허주.(족제비 같은 것도 목접이 이용하지.)

104032 @ 목쩨비로예.(목접이로요.)

104032 #1 응.(응.)

104032 @ 목쩨비로.(목접이로.)

104032 #1 응.(응.)

104032 @ 남을 요렇게 했다가 톡 건들면은.(나무를 이렇게 했다가 톡 건들면.)

104032 #1 응.(응.)

104032 @ 탁 치멍 목에 걸리게끔.(탁 치면서 목에 걸리게끔.)

104032 #1 으 경 헤근에 그 침[159]헤근에 중간에 영 걸청. ᄒᆞ면은 요건만 톡 헤 버리면 탁 ᄒᆞ면 요게 우의께 알러레 탁 ᄂᆞ려강.(으 그렇게 해서 그 침해서 중간에 이렇게 걸쳐서. 하면은 요것만 탁 해 버리면 탁 하면 요것이 위의 것이 아래로 탁 내려가서.)

158) '지달피' '지디리'의 가죽을 말한다. 조사자가 '지다리'라는 질문을 잘못 말했다.
159) '침'은 침(針), 바늘이다.

104032 @ 응 그러면.(응 그러면.)
104032 #1 목 목 잡형 죽이는 거.(목 목 잡혀서 죽이는 거.)
104033 @ 아 그거는 경 허난 덫은 덫인 게예.(아 그것은 그렇게 하니까 덫은 덫인 게요.)
104033 #1 응 다 덫이라.(응 다 덫이야.)
104033 @ 다 덫예.(다 덫요.)
104033 #1 응.(응.)
104033 @ 덫 톡 ᄒᆞ면 그걸로 영 헤가지고예.(덫 톡 하면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104033 #1 응.(응.)
104033 @ 그 사냥에 대해서 ᄒᆞᆫ 번 꿩 사냥 갔다 왓주마는 그게 제일 큰 경험이구나예?(그 사냥에 대해서 한 번 꿩 사냥 갔다 왔지만 그게 제일 큰 경험이군요?)
104033 #1 으.(으.)
104033 @ 아까 또 노루 그 ᄃᆞ랑쉬에서 헤 온 거.(아까 그 노루 'ᄃᆞ랑쉬'에서 해 온 거.)
104033 #1 어.(어.)
104033 @ 경 허난.(그렇게 하니까.)
104033 #1 거 ᄒᆞ고 노루도 이 개가 좋아야 이거 잡는 거주. 경 아니민.(거 하고 노루도 이 개가 좋아야 이것 잡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104033 @ 응.(응.)
104033 #2 노룰 이겨져사 ᄒᆞᆯ 거난게.(노루를 이겨져야 할 거니까.)
104033 @ 응 개가.(응 개가.)
104033 #1 응.(응.)
104033 #1 게고 지다리.(그렇고 '지다리.')
104033 @ 예.(예.)
104033 #1 지다린 굴에서 연기를 막.('지다리'는 굴에서 연기를 마구.)
104033 @ 응.(응.)
104033 #1 그기 불 부쩡 막 연기를 네와근에. 도망가게 헤여근엥에. 뭐 잡곡 뭐 ᄒᆞ곡 ᄒᆞ는디.(거기 불붙여 마구 연기를 내어서. 도망가게 해서. 뭐 잡고 뭐 하고 하는데.)
104033 @ 응.(응.)
104033 #1 그 지달인 굴을 ᄎᆞ아서 굴쏘굽에 잇는 거니까.(그 '지다리'는 굴을 찾아서 굴속에 있는 거니까.)
104033 @ 아.(아.)
104033 #1 그 겨울에.(그 겨울에.)
104033 @ 겨울에예.(겨울에요.)
104033 #1 지달이가 오소리라.('지다리'가 오소리야.)

104033 #2 응.(응.)
104033 @ 나오면은 무시 걸로 잡으코예?(나오면 무엇으로 잡을까요?)
104033 #1 개.(개.)
104033 @ 개로 이것도 개.(개로 이것도 개.)
104033 #1 개. 거 막.(개. 거 마구.)
104033 @ 개로 돌아가근에 저기 그 물렌 헤가지고예. 삼춘! 아이고 삼춘 고맙쑤다. 저기 이 사냥은 다 허고. 이제 여청 삼춘예? 여청 삼춘은 이제 해도 될 거 아니우꽈예?(개로 달려가서 저기 그 물라고 해가지고요. 삼촌! 아이고 삼촌 고맙습니다. 저기 이 사냥은 다 하고. 이제 '여편' 삼촌? '여편' 삼촌은 이제 해도 될 거 아닙니까요?)

5. 바다일

105001 #2 무시거 헐 거? 다 골아 베신게.(무엇 할 거? 다 말해 버렸는데.)
105001 #1 헤, 헤, 헤.(헤, 헤, 헤.)
105001 @ 바당 물질.(바다 물질.)
105001 #2 아이고, 바당 물질 무시거 허여보지. 무시거 베랑 안 헤 봐수다게.(아이고, 바다 물질 무엇 해보지. 무엇 별로 안 해봤습니다.)
105001 @ 예, 그 저기 바당 일에는예. 그 허는 게 어떵 것들이 이신고마씨.? 바당일? 바다에서 허는 일들.(예, 그 저기 바다 일에는. 그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바다 일? 바다에서 하는 일들.)
105001 #2 아 바당에서 ᄒᆞ는 거게. 물에 들민 고동도 잡곡게.(아 바다에서 하는 거. 물에 들면 소라도 잡고.)
105001 @ 물에 들엉예.(물에 들어서요.)
105001 #2 전복도 봐지민 트곡.(전복도 보아지면 떼고.)
105001 @ 아.(아.)
105001 #2 문어도 봐지민 잡곡게. 그거 주 무시거 또 게 메역 철 나민 메역 ᄌᆞ무랑 풀고, 우믜 우믜 철 나민 우믜 ᄌᆞ무랑 풀고.(문어도 보아지면 잡고. 그것이지 무엇 또 게 미역 철 되면 미역 캐다 팔고.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철되면 우뭇가사리 캐서 팔고)
105001 @ 응.(응.)
105001 #2 감테 ᄌᆞ물 때 여름 나민 감테 ᄌᆞ무랑 풀곡, 그거 주. 무신 물에 든 게 무시거 벨로 헐게 잇어. 그거주.(감태 캘 때 여름 되면 감태 캐서 팔고, 그것이지. 무슨 물에 든 것이 무엇 별로 할 게 있어. 그것이지.)
105001 @ 응 물에 들어근에.(응 물에 들어서.)
105001 #2 응.(응.)

105001 @ 이거가 저기 그 즘수, 즘네?(이것이 저기 그 잠수, 잠녀?)
105001 #2 응.(응.)
105001 @ 즘녀로 헤근에예.(해녀로 해서요.)
105001 #2 응.(응.)
102001 @ 그 삼춘에 대해서예. 소개 조끔예 해줍서. 삼춘 이름은. 이름허고 나이 허고.(그 삼촌에 대해서요. 소개 조금 해주십시오. 삼촌 이름은. 이름하고 나이하고.)
102001 #2 이름허고 나이 헹 무시 거 홀 거라.(이름하고 나이해서 무엇 할 거야.)
102001 @ 삼춘예, 골아줍서.(삼촌요, 말해주십시오.)
102001 #2 나, 이름 몰르는디 하르방 알아지쿠과?(나, 이름 몰르는데 할아버지 알아지겠습니까?)
102001 @ 삼춘 골읍서.(삼촌 말하십시오.)
102001 #2 이름은 정계춘.(이름은 정계춘.)
102001 @ 정?(정?)
102001 #2 계춘이.(계춘이.)
102001 @ 예. 나이는예? 나이엔 헹. 죄송허우다. 연세로, 무슨 년으로 해도 좋쑤다.(예. 나이는요? 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연세로, 무슨 년으로 해도 좋습니다.)
102001 #2 어 멧 년으로 헹?(어 몇 년으로 헹?)
102001 @ 예. 몇 년생 무슨 저기 뭐 계유 생이니, 갑자 생이니 영 골아도.(예. 몇 년생 무슨 저기 뭐 계유 생이니, 갑자 생이니 이렇게 말해도.)
102001 #1 계유 셍.(계유 생.)
102001 #2 계유 셍.(계유 생.)
102001 @ 계유 생예.(계유 생요.)
102001 #2 응.(응.)
102001 @ 계유 셍예. 삼춘은 시집은 뭐 여기서 고성에서 고성, 아니 신양에서?(계유 생요. 삼촌은 시집은 뭐 여기서 '고성'에서 '고성', 아니 '신양'에서?)
102001 #2 아니 고성서 고성,(아니 '고성'에서 '고성,')
102001 @ 아 고성에서예.(아 '고성'에서요.)
102001 #2 예.(예.)
102001 @ 고성에서 나고 자라고예?('고성'에서 나고 자라고요?)
102001 #2 예.(예.)
102001 @ 예, 고성에서 나고 자라고예. 이거까지 저기 허곡 다른 거, 다른 거는 잔치해난 거는 나중에 ᄒᆞ꼼예 나중에 ᄒᆞ꼼예 저기 들어보고예. 그 바당 일에 골아줍서.(예, '고성'에서 나고 자라고요. 이거까지 저기 하고 다른 거, 다른 거는 잔치했던 거는 나중에 조금요 나중에 조금요 저기 들어보고요. 그 바다 일에 말해주십시

오.)

102001 #1 잔치헤난 거는 나한티 다 들엇는디 무신.(잔치했던 거는 나한테 다 들었는데 무슨.)

102001 #2 맞주게 잔치헤난 거 다 들어신디 뭐 들을 거 잇어게.(맞지 잔치했던 거 다 들었는데 뭐 할 거 있어.)

105002 @ 저기예, 듬북하고 감테를 허는디.(저기요, 듬북하고 감태를 하는데.)

105002 #2 예.(예.)

105002 @ 개인적으로도 허고 공동으로도 허지 안읍니까예? 먼저 개인.(개인적으로도 하고 공동으로도 하지 않습니까요? 먼저 개인.)

105002 #2 아니 이디.(아니 이데.)

105002 @ 예.(예.)

105002 #2 이 고성 방듸[160]는. 메역은 이제 공동 저 거시기허고 감테 무시거 허는 거는.(이 '고성' '방듸'는. 미역은 이제 공동 저 거시기하고 감태 무엇 하는 거는.)

105002 #1 듬북ᄀᆞ뜬 거는 개인적으로.(듬북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105002 #2 다 이녁냥 개인적으로 헤여.(다 이녁대로 개인적으로 해.)

105002 @ 아 감테하고 듬북은예.(아 감태하고 듬북은요.)

105002 #2 응.(응.)

105002 @ 개인적으로예.(개인적으로요.)

105002 #2 응.(응.)

105002 @ 개인적으로 허는디 이거는 저기 풍조로 헤근에 바다에 올라오니깐 개인적으로 허는 건가마씨?(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저기 풍조로 해서 바다에 올라오니깐 개인적으로 하는 건가요?)

105002 #2 올라 온 거나 ᄌᆞ무는 거나 이녁 이녁허민 이녁허는 거.(올라 온 거나 캐는 거나 이녁 이녁하면 이녁 하는 거.)

105002 @ 이녁 허민 이녁 허는 거예.(이녁 하면 이녁 하는 거요.)

105002 #2 응.(응.)

105002 @ 메역은 공동으로 허주마는. 공동으로 다 바찌는 거는 아니지 아니우꽈?(미역은 공동으로 하지만. 공동으로 다 바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05002 #2 아니 바당이.(아니 바다가.)

105002 @ 물에 들 때만 공동으로?(물에 들 때만 공동으로?)

105002 #2 고성 방듸가 뒈기 때문에.('고성' '신양'이 되기 때문에.)

105002 @ 예.(예.)

105002 #2 허는 따문에. 그 헤제[161] 홀 때 메역 ᄌᆞ물 때.(하는 때문에. 그 '허채' 할 때 미역 캘 때.)

---

160) '방듸'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마을의 옛 이름을 말한다.

161) '헤제'는 허채다.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 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105002 #1 게난 ᄀᆞ뜬 날 가서 이녁이 ᄒᆞᆫ 거는 이녁이 가져오는디.(그러니까 같은 날 가서 이녁이 한 것은 이녁이 가져오는데.)
105002 @ 응.(응.)
105002 #2 하영 허문 하영 찍세. 족영 헤도 이녁 찍세.(많이 하면 많이 몫. 작게 해도 이녁 몫.)
105002 @ 예.(예.)
105002 #2 어, 경 허는디.(어, 그렇게 하는데.)
105002 #1 자기가 헌 거 자기 가져가는데.(자기가 한 거 자기 가져가는데.)
105002 @ 응.(응.)
105002 #1 아무 때나 가서 못헤가지고.(아무 때나 가서 못해가지고.)
105002 #2 못 헤영.(못 해서.)
105002 @ 예.(예.)
105002 #1 거 허체 ᄒᆞ는 날만 강 ᄒᆞ는 거주게.(거 '허채' 하는 날만 가서 하는 거지.)
105002 #2 응.(응.)
105002 @ 허체?('허채?')
105002 #2 응, 허체.(응, '허채.')
105002 @ 허체?('허채?')
105002 #2 응 메역 허지.(응 미역 '허채.')
105002 @ 예 메역 허지?(예 미역 '허채?')
105002 #2 응.(응.)
105002 @ 메역 허지. 이건 물에 들 때만.(미역 '허채.' 이건 물에 들 때만.)
105002 #2 응.(응.)
105002 @ 그 허지가 잇엉 허는 거고?(그 '허채'가 있어서 하는 거고?)
105002 #2 응, 메역 허지 홀 때.(응, 미역 '허채' 할 때.)
105002 @ 감테나 듬북은 개인으로 허주만은.(감태나 듬북은 개인으로 하지만.)
105002 #2 응.(응.)
105002 @ 이거는 아무 날이나. 날 허고 상관엇이.(이것은 아무 날이나. 날 하고 상관없이.)
105002 #1 응.(응.)
105002 @ 하영 잇저허민.(많이 있다하면.)
105002 #2 응, 자기가 허고 싶으문.(응, 자기가 하고 싶으면.)
105002 @ 응.(응.)
105002 #2 그자 트멍나민 허는 거.(그저 틈나면 하는 거.)
105002 @ 예, 트멍나민 허는 거고예. 저.(예, 틈나면 하는 것이고요. 저.)
105003 @ 그 고둥허고예.(그 소라하고요.)
105003 #2 응.(응.)

105003 @ 게는예? 어떵 잡읍니까? 고동허고 게.(게는요? 어떻게 잡습니까? 소라하고 게.)
105003 #2 고동허고 게?('고동'허고 게?)
105003 @ 예, 고둥? 고동?(예, 소라? 소라?)
105003 #2 고동.(소라.)
105003 @ 예, 고동?(예, 소라?)
105003 #2 응.(응.)
105003 #1 게, 소라주게 고동이.(것이, 소라지 '고동이.')
105003 @ 고동 소라예.('고동' 소라요.)
105003 #2 응, 고동이 소라.(응, '고동'이 소라.)
105003 @ 예, 소라. 소라는.(예, 소라. 소라는.)
105003 #2 게메 고동은게.(그러니까 소라는.)
105003 #1 아, 거 벳기디 막 둥굴어. 둥굴어 둥굴엄시민.(아, 그것 밖에 마구 뒹굴어. 뒹굴어 뒹굴고 있으면.)
105003 #2 고동은 눈에 보이민.(소라는 눈에 보이면.)
105003 #1 막 눈에 보이민 잡아와.(바로 눈에 보이면 잡아와.)
105003 #2 물에 들면은.(물에 들면.)
105003 @ 예.(예.)
105003 #2 감테 아레.(감태 아래.)
105003 @ 예.(예.)
105003 #2 감테 아레나 이런 돌 트멍에나. 경 허면은 이제 잡앙 올라와근에 손으로.(감태 아래나 이런 돌 틈에나. 그렇게 하면 이제 잡아서 올라와서 손으로.)
105003 @ 예.(예.)
105003 #2 심엉 올라와근에. 망아리에 담앙.(잡아서 올라와서. 망사리에 담아서.)
105003 @ 망아리에 담앙예.(망사리에 담아서요.)
105003 #2 그자 이녁 하영 잡아지민 하영 앗고.(그저 이녁 많이 잡아지면 많이 갖고.)
105003 @ 예.(예.)
105003 #2 족영 잡아지민 족영 앗곡. 경 허는 거.(작게 잡아지면 작게 갖고. 그렇게 하는 거.)
105003 @ 저기 물 아레 들언예?(저기 물 아래 들어서요?)
105003 #2 응, 물 아레 들언.(응, 물 아래 들어서.)
105003 @ 물은 얕은 디나 지픈 디나.(물은 얕은 데나 깊은 데나.)
105003 #2 아이고게, 지픈 디는 잘도 지프주.(아이고, 깊은 데는 잘도 깊지.)
105003 @ 응.(응.)
105003 #2 경 ᄒᆞ곡 야픈 딘 또 야프곡. 중간에도 또 잇곡.(그렇게 하고 얕은 데

는 또 얕고. 중간에도 또 있고.)

105003 @ 중간에도 잇고예.(중간에도 있고요.)

105003 #2 응, 게난 상군, 중군, 똥군[162] 세 가지로. 헤 하, 하하.(응, 그러니까 '상군', '중군', '똥군' 세 가지로. 헤 하, 하하.)

105003 @ 상궁 중군 똥군예. 삼춘은 어느 군에서 들엉 헙디가?('상군', '중군', '똥군'요. 삼촌은 어느 군에서 들어서 했습니까?)

105003 #2 우린 똥군.(우린 '똥군.')

105003 @ 헤, 하, 하하, 예.(헤, 하, 하하, 예.)

105003 #2 우린 경 헹. 멧 해 허지도 못 헨. 아판 허지도 못 헷주.(우린 그렇게 해서. 몇 해 하지도 못 했어. 응 아파서 하지도 못 했지.)

105003 @ 아파부난예.(아파버리니까요.)

105003 #2 응 허지도 못 헷주만은 경 헹. 겅 헷주.(응 하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

105003 @ 게난 삼춘은 물질은 언제 배와근에 언제까지 헤져신고마씨?(그러니까 삼촌은 물질은 언제 배워서 언제까지 해졌는가요?)

105003 #2 아이고, 물질 어느 떼사 베와저신디.(아이고, 물질 어느 때야 배워졌는지.)

105003 @ 어릴 떼?(어릴 때?)

105003 #2 ᄒᆞ끔 허단에 그자.(조금 하다가 그저.)

105003 #1 ᄒᆞᆫ 열 데ᄋᆞ솟 떼부터 시작헤연에.(한 열 대여섯 살 때부터 시작해서.)

105003 @ 예.(예.)

105003 #1 ᄒᆞᆫ 마흔은 더 헤실 거라.(한 마흔은 더 했을 거야.)

105003 @ 마흔은 더 헨. 쉰 나까지.(마흔은 더 했어. 쉰 살까지.)

105003 #1 쉰ᄁᆞ지.(쉰까지.)

105003 @ 쉰ᄁᆞ지예.(쉰까지요.)

105003 #2 응 쉰ᄁᆞ지나 헤져신가.(응 쉰까지나 해졌는가.)

105003 @ 아이 게문 상군인게마씨. 그 정도 오래 허문 상군.(아이 그러면 상군이겠군요. 그 정도 오래 하면 상군?)

105003 #2 아니.(아니.)

105003 @ 거문, 남자삼춘은 마중도 댕기고예.(그러면, 남자촌은 마중도 다니고요.)

105003 #1 마중 허레 뎅겨서.(마중하러 다녔어.)

105003 @ 메역 마중 허레예?(미역 마중 하러요?)

105003 #1 응, 메역 마중허레.(응, 미역 마중하러.)

105003 @ 소라도 마중허레 가곡.(소라도 마중하러 가고.)

105003 #2 아이고 소란.(아이고 소라는.)

---

162) '똥군'은 작업하는 기량이 아주 부족한 해녀를 말한다.

105003 #1 아이고 소란, 소란 요세사 소라 헴주.(아이고 소라, 소라 요새야 소라 한다고 하지.)

105003 #2 요세난에 금헤엿다근에 허난 마중 헴주. 엿날엔 그자 뭐 그뗀.(요새니까 금했다가 하니까 마중 한다고 하지. 옛날에는 그저 뭐 그땐.)

105003 #1 그자.(그저.)

105003 #2 고동이 무신 돈 주멍 사수꽈? 잡아당 먹곡.(소라가 무신 돈 주며 샀습니까? 잡아다가 먹고.)

105003 @ 아.(아.)

105003 #1 거 잡아지민 먹엇주.(거 잡아지면 먹었지.)

105003 #2 먹엇주.(먹었지.)

105003 #1 그 풀거나 뭐 ᄒᆞ지도 안 헷서 옌날에.(그 팔거나 뭐 하지도 안 했어 옛날에.)

105003 @ 아 고동, 옛날에는예.(아 소라, 옛날에는요.)

105003 #2 으 엿날에.(으 옛날에.)

105003 @ 아.(아.)

105003 #2 우리 겟것이 뎅길 뗀 경 헤부난에. 원 그거 잡아지민 먹엇고 춤 올케.(우리 갯가에 다닐 땐 그렇게 해버리니까. 원 그거 잡아지면 먹었고 참 올케.)

105003 #1 금허지도 안혀곡.(금하지도 아니하고.)

105003 #2 금허지도 안혀곡 게 경 허민.(금하지도 아니하고 게 그렇게 하면.)

105003 @ 으.(으.)

105003 #2 메 날 그자 강. ᄒᆞ꼼씩 잡아당. 간 뗀 잡아당 먹고.(매 날 그저 가서. 조금씩 잡아다가. 갔을 땐 잡아다 먹고.)

105003 @ 먹고예.(먹고요.)

105003 #2 경 헨 헷주. 요즘이난 금 헤엿따근넹에 허지 허문 망아리로 ᄒᆞ나썩, 헤영 마줌덜 허멍 헷주.(그렇게 해서 했지. 요즘이니까 금했다가 '허채' 하면 망사리로 하나씩, 해서 마중들 하면서했지.)

105003 #1 양식이니까 요세는.(양식이니까 요새는.)

105003 @ 예.(예.)

105003 #1 막 종묠.(마구 종묘를.)

105003 @ 막 종묘를 헤영예.(막 종묘를 해서요.)

105003 #1 헤영.(해서.)

105003 @ 예, 예.(예, 예.)

105003 #1 응 양식이니깐 경 헴주. 그전에는 거.(응 양식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그전에는 거.)

105003 @ 예에 경 헷구나예. 거문 게는 어떵 잡아 혜신고마씨?(예에 경 했군요. 그러면 게는 어떻게 잡았는가요?)

105003 #1 겡이주게. 겡이.(게지게. 게.)

105003 @ 예, 게, 겡이.(예, 게, 게.)
105003 #2 겡이?(게?)
105003 @ 예.(예.)
105003 #1 겡이 별로 엇어.(게 별로 없어.)
105003 #2 겡인 거, 물에 들엉 허질 안 허고, 물싸민 돌 일렁 잡으는 거.(게는 거, 물에 들어서 하지를 않고, 물써면 돌 일으켜서 잡는 거.)
105003 @ 으.(으.)
105003 #1 거 젠젠헌 것덜.(거 자잘한 것들.)
105003 @ 예 돌 일렁예.(예 돌 일으켜서요.)
105003 #2 거 돌게.(거 부채게.)
105003 @ 돌게예?(부채게요?)
105003 #2 응.(응.)
105003 @ 거문 이거는 그냥 돌 일러근에.(그러면 이것은 그냥 돌 일으켜서.)
105003 #2 응 잡앙.(응 붙잡아서.)
105003 @ 헤당 잡아다근에.(하다가 잡아다가.)
105003 #2 그냥 먹는 거.(그냥 먹는 거.)
105003 @ 먹는 거.(먹는 거.)
105003 #2 뽂앙도 먹곡게.(볶아서도 먹고.)
105003 @ 예.(예.)
105003 #2 저 엿날엔 그거 잡아당, 뺏아근엥이.(저 옛날에는 그것 잡아다가, 빻아서.)
105003 @ 응.(응.)
105003 #2 젓 헤영.(젓 해서.)
105003 @ 아 젓 담앙예.(아 젓 담가서요.)
105003 #2 응 젓 둠앙 먹을 게 엇이난게.(응 젓 담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105003 @ 예.(예.)
105003 #2 쫍지랑허민. 그자 먹을 걸로.(짭짜래하면. 그저 먹을 것으로.)
105003 @ 응.(응.)
105003 #2 경 헨 그거 경 헹 먹어낫주만은 요즘사 경 이거 먹엄서? 요즘은 겡이죽[163] 허젠 허난에 줌수 그 저 해녀의 집이서 하영 잡아감서.(그렇게 해서 그거 그렇게 해서 먹었었지만 요즘에야 그렇게 이거 먹고 있니? 요즘은 게죽 하려고 하니까 해녀 그 저 해녀의 집에서 많이 잡아가고 있어.)
105003 @ 예 하영 잡아강예.(예 많이 잡아가서요.)
105003 #2 예.(예.)
105004 @ 예 그 고둥이 종류, 고둥에도 뭐 이 종류별로 잇지 않은가마씨?(예 그 소라 종류, 소라에도 뭐 이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요?)

163) '겡이죽'은 게를 이용해서 끓인 죽이다.

105004 #2 엇수다게.(없습니다.)
105004 @ 바당에서 뭐.(바다에서 뭐.)
105004 #2 아니양 저.(아니요 저.)
105004 @ 고메기?(고둥?)
105004 #2 종류벨로가 아니고 지픈디 건 홁으고.(종류별로가 아니고 깊은데 건 굵고.)
105004 @ 응.(응.)
105004 #2 야픈디 건, 야픈디 건 줄곡. 경 헌 거뿐이우다. 종류벨이 엇어 고동은.(얕은데 건, 얕은데 건 자잘하고.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종류별이 없어 소라는.)
105004 @ 아, 게난 우리가 얘기허는 것은 고동은 소란디.(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고동'은 소란데.)
105004 #2 응.(응.)
105004 @ 그 표준어로 고둥은 바당에서 기어다니고 집 있고 허, 허, 하는 거를 다 고동이엔 허난예. 삼춘이 혹시 잡아난 그 고동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그 표준어로 고둥은 바다에서 기어 다니고 집 있고 하는 것을 다 고둥이라고 하니까요. 삼촌이 혹시 잡았던 그 소라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
105004 #1 아, 아.(아, 아.)
105004 @ 소라 말고도 이신가?(소라 말고도 있는가?)
105004 #1 아, 저 보말도 고동이주게.(아, 저 고둥도 고둥이지.)
105004 @ 예, 보말도.(예, 고둥도.)
105004 #1 ᄋᆞ 경혼디 그런 걸, 여기서 뭐 크게.(오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서 뭐 크게.)
105004 @ 으.(으.)
105004 #1 뭐 네세우질 안 혓주게.(뭐 내세우지를 안 했지.)
105004 @ 으.(으.)
105004 #2 아니 게난에게, 그 보말도 춤 육지서 고동이엔 헙디다양.(아니 그러니까, 그 '보말'도 참 육지에서 고둥이라고 했습니다요.)
105004 #1 응, 응.(응, 응.)
105004 @ 예, 예.(예, 예.)
105004 #2 그 그거 보말도 잡아다근엥이 ᄒᆞ는 거 그것에 그것에 요거 허질 안 헴주.(그 그거 고둥도 잡아다가 하는 거 그것에 그것에 요거 하지를 안 하고 있지.)
105004 @ 응.(응.)
105004 #2 요즘은 잡앙 죽 쒕덜.(요즘은 잡아서 죽 쑤어서들.)
105004 @ 응.(응.)
105004 #2 장ᄉᆞ헌덴 헙디다마는 원 우리 홀 땐 그런 거 춤.(장사한다고 합니다마는 원 우리 할 땐 그런 거 참.)
105004 #1 건 기자.(건 거저.)

105004 #2 가민 잡아당 헨.(가면 잡아다가 해서.)
105004 #1 건 집이서 먹어부럿주.(건 집에서 먹어버렸지.)
105004 #2 하영 먹엇주.(많이 먹었지.)
105004 @ 예 메옹이엔 헌 것도.(예 두드럭고둥이라고 하는 것도.)
105004 #2 메옹기도 잇주.(두드럭고둥도 있지.)
105004 @ 메옹기?(두드럭고둥?)
105004 #2 으, 메옹기.(응 두드럭고둥.)
105004 @ 응 메옹기 또.(응 두드럭고둥 또.)
105004 #2 그 메옹기있곡 메옹기ᄒᆞ곡 또 무시거니? 것ᄀᆞ라 코ᄐᆞ데기도 잇고.(그 두드럭고둥 있고 두드럭고둥하고 또 무엇이니? 것보고 남방울타리고둥도 있고.)
105004 @ 코ᄐᆞ데기예.(남방울타리고둥요.)
105004 #2 코ᄐᆞ데기.(남방울타리고둥.)
105004 #1 웬보말.(대롱고둥.)
105004 #2 웬보말도 잇고.(대롱고둥도 있고.)
105004 @ 웬보말 어.(대롱고둥 어.)
105004 #1 술누리.(두드럭고둥.)
105004 @ 술누리.(두드럭고둥.)
105004 #2 수드리이.(두드럭고둥.)
105004 #1 수드린가?(두드럭고둥인가?)
105004 #2 으.(으.)
105004 @ 수드리(두드럭고둥.)
105004 #2 먹보말 허, 허.(밤고둥 허, 허.)
105004 @ 먹보말 또.(밤고둥 또.)
105004 #2 그거 말앙 또 무시거니?(그거 말아서 또 무엇이니?)
105004 #1 남뎅이.[164](‘남뎅이.’)
105004 #2 남뎅이.(‘남뎅이.’)
105004 @ 남뎅이.(‘남뎅이.’)
105004 #1 헤, 헤, 헤, 헤.(헤, 헤, 헤, 헤.)
105004 @ 또 호 호 호.(또 호 호 호.)
105004 #2 게난 그거주. 남뎅이.(그러니까 그것이지. ‘남뎅이.’)
105004 @ 아 남뎅이.(아 ‘남뎅이.’)
105004 #2 그것ᄁᆞ장양. 그것 ᄁᆞ장벳기. 먹보말, 수드리, 남뎅이.(그것까지요. 그것까지밖에. 밤고둥, 두드럭고둥, ‘남뎅이.’)
105004 @ 먹보말, 수드리, 남뎅이, 웬보말.(밤고둥, 두드럭고둥, ‘남뎅이’, 대롱고둥.)
105004 #2 웬보말.(대롱고둥.)

164) ‘남뎅이’는 눈알고둥을 고성에서 이르는 말이다. ‘돌포말’ ‘남보말’을 말한다.

105004 @ 코ᄐᆞ데기.(남방울타리고둥.)
105004 #1 메옹기.(두드럭고둥.)
105004 @ 메옹기?(두드럭고둥?)
105004 #2 으.(으.)
105004 #1 메옹기 쪼끔 메운 거.(두드럭고둥 조금 매운 거.)
105004 @ 예 매운 거.(예 매운 거.)
105004 #1 맛잇는 것ᄀᆞ라 메옹기.(맛있는 것보고 두드럭고둥.)
105004 #2 ᄒᆞ쏠 메운맛 잇인 거.(조금 매운맛 있는 거.)
105004 @ 예, 예.(예, 예.)
105004 #2 코ᄐᆞ드레기.(남방울타리고둥.)
105004 @ 아, 코ᄐᆞ타드렝기?(남방울타리고둥?)
105004 #2 응.(응.)
105004 @ 코ᄐᆞ드렝데기.(남방울타리고둥.)
105004 #2 그걸 잡아당 거 숣으민양. 네젠 ᄒᆞ민 코가 톡톡 토다집네다게. 오꼿[165]ᄒᆞ게 다른 것 ᄀᆞ찌 올라오지 아녕.(그걸 잡아다가 거 삶으면요. 꺼내려고 하면 코가 톡톡 뜯어집니다. 온전하게 다른 것 같이 올라오지 아니해서.)
105004 @ 응.(응.)
105004 #2 게난 코ᄐᆞ데기.(그러니까 남방울타리고둥.)
105004 @ 코ᄐᆞ레기도 마찬가지.(남방울타리고둥도 마찬가지.)
105004 #1 응, 맛은 잇어.(응, 맛은 있어.)
105004 @ 맛은 잇어.(맛은 있어.)
105004 #2 으, 것이 더 맛좋아.(으, 것이 더 맛좋아.)
105004 @ 코ᄐᆞ레기가 맛잇고예?(남방울타리고둥이 맛있고요?)
105004 #2 응.(응.)
105004 @ 코ᄐᆞ데기.(남방울타리고둥.)
105004 #2 응.(응.)
105004 @ 또 있지 안우꽈?(또 있지 않습니까?)
105004 #1 아 잇기야 뭐 하영 잇주마는.(아 있기야 뭐 많이 있지만.)
105004 @ 응.(응.)
105004 #1 그걸 다 알아져게.(그걸 다 알아져.)
105004 @ 생각나는 것만.(생각나는 것만.)
105004 #2 아 셍각나는 거나마나 그거 넘어 난 못 ᄀᆞᆯ으큰게. 엇어.(아 생각나는 것이나마나 그것 넘어 난 못 말하겠어. 없어.)
105005 @ 어, 경 허고 겡이 종류.(어, 그렇게 하고 게 종류.)
105005 #2 겡이 종륜게, 원 겡이 그거 저 거시깃 겡이ᄒᆞ고 또 물랑겡이[166]ᄒᆞ고

165) '오꼿'은 가만히 있다가 선뜻 일어서는 모양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전부 온전히 라는 뜻이다.
166) '물랑겡이'은 물렁게다.

또 돌켕이ᄒᆞ고 그거주.(게 종류는, 원 게 그거 저 거시기 게하고 또 물랑게하고 또 부채게 하고 그거지.)

105005 @ 물랑겡이, 돌켕이.(물렁게, 부채게.)

105005 #2 예, 그거 세 가지주. 거 경 헤도 물랑겡인 영 심으민 물랑물랑헤여.(예, 그거 세 가지. 거 그렇게 해도 물렁게는 이렇게 잡으면 말랑말랑해.)

105005 @ 물랑ᄒᆞ고예.(물렁하고요.)

105005 #2 또 돌켕인 돌ᄀᆞ찌 쾅쾅헤여.(또 부채게는 돌처럼 쾅쾅해.)

105005 @ 꽝꽝ᄒᆞ고.(꽝꽝하고요.)

105005 #2 또 그자 겡인 거기로 그.(또 그저 게는 거기로 그.)

105005 @ ᄒᆞ고.(하고.)

105005 #2 응 경 허여.(응 그렇게 해.)

105005 @ 그 크기에 따라도 이름이 이실 거 아닛꽈? 크기.(그 크기에 따라도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크기.)

105005 #2 아이 그.(아이 그.)

105005 @ 큰 거는?(큰 거는?)

105005 #2 그런 그듸서 잡은 겡이 크고 족고 ᄒᆞᆫ엇이 크게 차이가 엇어.(그런 그데서 잡은 게 크고 작고 한없이 크게 차이가 없어.)

105005 @ 응.(응.)

105005 #2 바당에서 거 잡는 게는, 그런 거는 큰 거 족은 거 헤도 그디 무신 바당에서 잡은 거. 무신 놀케여 무신.(바다에서 거 잡는 게는, 그런 거는 큰 거 작은 거 해도 그데 무슨 바다에서 잡은 거. 무슨 꽂게다 무슨.)

105005 @ 응, 놀케.(응, 꽂게.)

105005 #2 놀켕이여 무신 뭐여 잇젠, 놀케ᄒᆞ곡, 아 거 말앙 나 몰르쿠다.(꽂게다 무슨 뭐다 있다고, 꽂게하고, 아 거 말아서 나 모르겠습니다.)

105005 @ 게도 겡이 막 허게 뒈면은 보말 잡으민 막 큰 것도 막 그 저기 구덕에 막 뎅기곡 잡아넣곡 막 허지 안읍니까예? 경허난(그래도 게 아주 하게 되면 고둥 잡으면 아주 큰 것도 마구 저기 바구니에 마구 다니고 잡아넣고 아주 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105005 #2 ᄒᆞᆫ엇이 큰 거 엇어.(한없이 큰 거 없어.)

105005 #1 여기는 그 꼿게ᄀᆞ추룩 그 큰 것들이 업써.(여기는 그 꽃게처럼 그 큰 것들이 없어.)

105005 #2 이딘 엇어.(이곳은 없어.)

105005 @ 예, 예.(예, 예.)

105005 #1 잇당은 ᄒᆞ나 씩이나 잇는데 그거 헤서 무신 장ᄉᆞ를 허거나.(이따금 하나씩이나 있는데 그것 해서 무슨 장사를 하거나.)

105005 @ 집이서 먹을 떼에.(집에서 먹을 때.)

105005 #1 여기서 상품화를.(여기서 상품화를.)

105005 @ 안 허고예?(안 하고요?)
105005 #1 시키질 못허주게.(시키지를 못하지.)
105005 @ 예, 예 집이서 먹을 때.(예, 예 집에서 먹을 때.)
105005 #2 그 그 겡이 잡으레 강. ᄒᆞ쏠 큰 건 놀케 그거주.(그 그 게 잡으러 가서. 조금 큰 것은 꽂게 그거지.)
105005 @ 놀케 허고예.(꽂게 하고요.)
105005 #2 그건. 그거주. 무신 겡이가.(그것은. 그거지. 무슨 게가.)
105005 @ 으 경 헤도 죽쑤젠 허면은 경 헤도 물랑겡이를 헤다가 죽쒀?(으 그렇게 해도 죽을 쑤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말랑게'를 해다 죽 쒀?)
105005 #2 아니 물랑겡인 안 헤 네벼.(아니 말랑게는 안 해 내버려.)
105005 #1 건 건 막.(건 건 아주.)
105005 #2 건 맛엇어.(건 맛없어.)
105005 @ 게민 돌켕이?(그러면 부채게?)
105005 #2 응, 그냥 그자 겡이.((응, 그냥 그저 게.)
105005 @ 그냥 겡이?(그냥 게?)
105005 #2 겡이 헤다근에.(게 해다가.)
105005 @ 예.(예.)
105005 #2 이제 잘 시쳐둥. 뿟앙.(이제 잘 씻어두어서. 빻아서.)
105005 @ 예.(예.)
105005 #2 물 걸러 놩. 죽 쒕.(물 걸러 넣어서. 죽 쑤어서.)
105005 @ 겡이로예.(게로요.)
105005 #2 으.(으.)
105005 @ 경 허난 겡이 죽이로구나예.(그렇게 하니까 게 죽이군요.)
105005 #2 응, 경 헹 겡이죽.(응, 그렇게 해서 게 죽.)
105006 @ 응 그 횃불, 불을 이용해서예. 횃불을 이용해 가지고 저기 그 저 바당엣 걸 잡을 때는 어떵 잡으는고예.(응 그 횃불, 불을 이용해서요. 횃불을 이용해가지고 저기 그 저 바다에 그것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가요.)
105006 #2 아 불헤여근에 잡는 거?(아 불해서 잡는 거?)
105006 @ 예 불헤근에.(예 불해서.)
105006 #2 아침 세벽이(아침 새벽에.)
105006 #1 거 문어ᄒᆞ고 헤숨.(거 문어하고 해삼.)
105006 #2 물 쌀 때 뒈면.(물 썰 때 되면.)
105005 @ 예.(예.)
105006 #2 불을 비추면. 헤숨 잇는 딘 헤숨 잇고. 문어 잇는 딘 문어 잇고. 경 헤근에 횃불헤여근에 잡는 거.(불을 비추면. 해삼 있는 데는 해삼 있고. 문어 있는 데는 문어 있고. 그렇게 해서 횃불해서 잡는 거.)
105006 @ 해삼허고 문어 허고예?(해삼하고 문어 하고요?)

105006 #2 응.(응.)
105006 @ 아 물 새벽에 물 쌀 떼예.(아 물 새벽에 물 쌀 때요.)
105006 #1 응.(응.)
105006 #2 세벡 물쌀 떼.(새벽 물 썰 때.)
105006 @ 응.(응.)
105006 #2 이제 휏불 들렁 강 허면.(이제 횃불 들어서 가서 하면.)
105006 @ 응.(응.)
105006 #2 그 헤숨 나는 딘 가면 해숨이 잇고 또 뎅기당 보면 문어도 잇고.(그 해삼 나는 데는 가면 해삼이 있고 또 다니다가 보면 문어도 있고.)
105006 @ 문어도 잇고.(문어도 있고.)
105006 #2 경 헹 잡는 거.(그렇게 해서 잡는 거.)
105006 @ 예 문어도 ᄒᆞ고.(에 문어도 하고.)
105006 #1 문어는 문어는 불을 보면은 쫓아 나와.(문어는 문어는 불을 보면 쫓아 나와.)
105006 @ 아, 쫓아 나왕예. 아 그 이외에 거는 불로 이용해가지고 잡는 것들은?(아, 쫓아 나와서요. 아 그 이외에 것은 불로 이용해가지고 잡는 것들은?)
105006 #2 어 난 모르큰게 엇어.(어 난 모르겠어 없어.)
105006 @ 낙지? 낙지도 잡아 봐수꽈?(낙지? 낙지도 잡아 보았습니까?)
105006 #2 낙지나 문어나 뭐 그거 그듸.(낙지나 문어나 뭐 그거 그데.)
105006 @ 메 한 가지?(매 한 가지?)
105006 #2 메 한 가지.(매 한 가지.)
105006 @ 낙지나 문어나예. 그.(낙지나 문어나요. 그.)
105006 #2 경 ᄒᆞ곡 이 앞바당엔 낙지가 벨로 엇입니다게.(그렇게 하고 이 앞바다에는 낙지가 별로 없습니다.)
105006 @ 요 앞바당에.(요 앞바다에.)
105006 #1 으.(으.)
105006 @ 예? 저 고성 드르? 고성 벵듸이?(예? 저 '고성' 들판? '고성' '신양?')
105006 #2 예.(예.)
105007 @ 그 원이 잇지 안읍니까예? 원.(그 '원'이 잇지 않습니까요? '원.')
105007 #2 원이 무시거라?('원'이 무엇이야?)
105007 @ 저 바당에 갯담.[167](저 바다에 '갯담.')
105007 #1 아, 원이 옌날 궤기.(아, '원'이 옛날 고기.)
105007 #2 아 저 거시기.(아 저 거시기.)
105007 #1 가두와근에 잡아난.(가두어서 잡았던.)
105007 #2 거 어.(거 어.)
105007 #1 그거 엇서 여기는 엇어 그런 거.(그거 없어 여기는 없어 그런 거.)

167) '갯담' '원'과 동일하다.

105007 #2 그런 건 엇어.(그런 건 없어.)

105007 #1 저 온평[168]이는 잇어.(저 '온평'이는 있어.)

105007 @ 응 고성리는 엇어나수과?(응 '고성'이는 없었습니까?)

105007 #1 여기는 그냥 엇어.(여기는 그냥 없어.)

105007 #2 그런 거 엇수다게.(그런 거 없습니다.)

105007 @ 그 고성 벵디 쪽에. 바당에 그 너럭바위 잇인디이. 너럭바윈 엇인가마씨? 거는 저 어디 쪽인가? 저 성산쪽인가마씨?(그 '고성' '신양' 쪽에. 바다에 그 너럭바위 있는데. 너럭바위는 없는가요? 그것은 저 어디 쪽인가? '성산' 쪽인가요?)

105007 #1 아이, 고성리 앞바당에 벡기[169] 가민.(아이, '고성'이 앞바다에 '벡기' 가면.)

105007 @ 예, 벡기예.(예, '백기'요.)

105007 #2 응.(응.)

105007 @ 벡기도 원담은 안 만들엇주마는 경 헤도 원담추룩 그 역할을 헐 거 담은 디예?('벡기'도 '원담'은 안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해도 '원담'처럼 그 역할을 할 거 같은 데요?)

105007 #2 아이, 그런 거 엇어.(아이, 그런 거 없어.)

105007 #1 아이 그런 거 그물 놓지 않으면 고기가 막아지질 아녀혀.(아이 그런 거 그물 놓지 않으면 고기가 막아지지 아니해.)

105007 @ 아 막아지질 아녕예?(아 막아지지를 아니해서요?)

105007 #1 그물로 막아사.(그물로 막아야.)

105007 @ 예.(예.)

105007 #1 그물로 씌와근에 그.(그물로 씌워서 그.)

105007 #2 게난 그것ᄀᆞ라 개 막음이엔 ᄒᆞ주게.(그러니까 그것보고 개 막음이라고 하지.)

105007 @ 예.(예.)

105007 #2 개 막음.(개 막음.)

105007 @ 예 개 막음?(예 개 막음?)

105007 #2 응, 개 막음이엔 헤기네. 고기를 엿날에 춤 잡아난 어른이 잇주만은 이제는 엇어.(응, 개 막음이라고 해서. 고기를 옛날에 참 잡았던 어른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

105007 @ 응, 경 헤도 고성 어른이 그추룩 헹 잡아낫다는 거 아니우꽈예?(응, 그렇게 해도 고성 어른이 그처럼 해서 잡아났다는 거 아닙니까요?)

105007 #2 응 잡아낫주. 웃동네 저 누게양.(응 잡았었지. 윗동네 저 누구요.)

105007 #1 응, 이디 홍○○네 누구네.(응, 이데 홍○○네 누구.)

105007 @ 아 게문.(아 그러면.)

---

168) '온평이'는 서귀포시 성산읍 행정마을 중 온평마을이다.

169) '백기'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이에 소재한 지명을 말한다.

105007 #2 게난 그 어른네 다 돌아가셔 부난에.(그러니까 그 어른들 다 돌아가셔 버리니까.)

105007 @ 응 게난 그 어른네도 그물로 개 막음 헤근에.(응 그러니까 그 어른들도 그물로 개 막음해서.)

105007 #1 응.(응.)

105007 @ 잡앗다는 건게예?(잡았다는 것이네요?)

105007 #2 응.(응.)

105008 @ 거문 원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큰게예. 원이 엇어나난예. 원이 엇이난예.(그러면 '원'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겠군요. '원'이 없어서요. '원'이 없으니까요.)

105009 @ 멸치, 멜은 잡아야 뒐 거 아니우꽈예? 멜예 멜 들어근에예.(멸치, 멸치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요? 멸치요 멸치 들어서요.)

105009 #2 아니, 엿날에사게. 멜을 곳디 들영 강. 줏어당 멜. 저 메루치도 허곡. 젓도 담갓주마는.(아니, 옛날에야. 멸치를 해변에 들어서 가서. 주워서 멸치. 저 멸치도 하고. 젓도 담갔지마는.)

105009 @ 예.(예.)

105009 #2 요즘은 경 ᄒᆞ는게 엇주게.(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없지.)

105009 @ 예.(예.)

105009 #2 엿날ᄀᆞ찌 곳이 멜이 안 들어.(옛날처럼 해변에 멸치가 안 들어.)

105009 #1 옌날은이.(옛날에는.)

105009 @ 아.(아.)

105009 #1 이, 것ᄀᆞ라 무신 접. 것도 접이라.(이, 것보고 무슨 계. 그것도 계야.)

105009 @ 예 멜접.(예 멸치계.)

105009 #1 멜 잡는 접. 그것 그물 헤가지고.(멸치 잡는 계. 그것 그물 해가지고.)

105009 @ 예 후림, 후림.(예 후림, 후림.)

105009 #1 아니, 후림이 아니고.(아니, 후림이 아니고.)

105009 @ 멜 접?(멸치 계?)

105009 #1 응, 양쪽 가달로 그. 다 사람들 나가근에. 멜이 들어오민 그물을 짝 둘렁.(응, 양쪽 가닥으로 그. 다 사람들 나가서. 멸치가 들어오면 그물을 짝 둘러서.)

105009 @ 예.(예.)

105009 #1 이 쪽 동쪽 서쪽 헤 가지고. 다 양쪽으로 뗑경. 물을 끌어다근에. 그 잡앙.(이 쪽 동쪽 서쪽 해가지고. 다 양쪽으로 당겨서. 말을 끌어다가. 그 붙잡아서.)

105009 @ 예.(예.)

105009 #1 그것도 또 역시 접으로 헤가지고 그 동네에서.(그것도 또 역시 계로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105009 #2 간 사람 수정에 다 갈라.(가 있는 사람 개수에 다 갈라.)

105009 #1 다 나누어근에.(다 나누어서.)

105009 @ 응, 응, 응.(응, 응, 응.)

105009 #2 그듸 멜 그날 그 후리 헌 거. 그날 잡은 거를. 간사람 수정에 이제 그 그릇으로 헤영. 올케 츰 요센 말로 무신 소쿠리나.(그데 멸치 그날 그 후리 한 거. 그날 잡은 거를. 간사람 숫자에 이제 그 그릇으로 해서. 올케 참 요즘말로 무슨 소쿠리나.)

105009 @ 예, 예.(예, 예.)

105009 #2 게난 엿날에 이제 굴룬 걸체. 그런 걸로 갈랏주마는 요즘은 그런 게 엇어. 곳디 들지도 아녀. 엿날은 곳디 치데기고 뭐 ᄒᆞ는디.(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쓸데없는 삼태기. 그런 것으로 나눴지마는 요즘은 그런 게 없어. 해변에 들지도 아니해. 옛날은 해변에 치대기고 뭐 하는데.)

105009 @ 예, 예. 게난, 멜 헐 떼도 그물이 있어야 헐 거니까, 그물 관리 허는 게 접이고예.(예, 예. 그러니까, 멸치 할 때도 그물이 있어야 할 거니까, 그물 관리 하는 것이 계고요.)

105009 #1 응.(응.)

105009 @ 접이면은 동서로.(계면은 동서로.)

105009 #2 응.(응.)

105009 #1 응, 응.(응, 응.)

105009 @ 짝 그거를 저기 잡앙 오고, 건디 멀리서 멜을 들게끔 어떵 그 이, 후리는 건 엇인가마씨?(짝 그것을 저기 잡아서오고, 그런데 멀리서 멸치를 들게끔 어떻게 그 이, 후리는 건 없는가요?)

105009 #1 아니, 게 멜 들 떼는 그 멜이 어떵 곳으로 막.(아니, 그럼 멸치 들 때는 그 멸치가 어떻게 해변으로 마구.)

105009 @ 들어와근에.(들어와서.)

105009 #1 응 들어와.(응 들어와.)

105009 @ 아 곳에 들어오니까예.(아 해변에 들어오니까요.)

105009 #2 으 엿날엔 거 멜이 하난 것 싼디 어떵사 헨디.(으 옛날에는 거 멸치가 많으니까 것인지 어떻게야 했는지.)

105009 @ 응.(응.)

105009 #2 이제 곳디 멜이 막 오민. 물이 와작착 와작착[170] ᄒᆞ게.(이제 해변 멸치가 막 오면. 물이 '와작착 와작착' 하게.)

105009 @ 와작착 와작착 ᄒᆞ게.('와작착 와작착' 하게.)

105009 #2 곳디게.(해변에.)

105009 @ 예, 예.(예, 예.)

170) '와작착 와작착'은 한꺼번에 일이 끝나는 모양을 말한다.

105009 #2 그 멜이 들어 오주게.(그 멸치가 들어 오지.)
105009 @ 예.(예.)
105009 #1 아, 네불어게. 오늘 춥진 안헌게.(아, 내버려. 오늘 춥진 안하다.)
105009 #2 경 ᄒᆞ민.(그렇게 하면.)
105009 @ 예.(예.)
105009 #2 경 허민. 그저 거시기 이제.(그렇게 하면. 그저 거시기 이제.)
105009 #1 음.(음.)
105009 #2 이제 올케 저 ᄀᆞᆺ사 하르방 ᄀᆞᆯ아 말 마딴아. 접으로 강 멜 들엇쩽ᄒᆞ민. 이제 그걸 앗앙 강. 그물로 먼 딜로 강. 영 쳐 와근엥에 동서로.(이제 올케 저 방금 할아버지 말해 말 마땅히. 계로 가서 멸치 들었다고 하면. 이제 그걸 가져서 가서. 그물로 먼 데로 가서. 이렇게 쳐 와서 동서로.)
105009 @ 예.(예.)
105009 #2 잡아뎅경.(잡아당겨서.)
105009 @ 동서로예.(동서로요.)
105009 #2 그거 헤여근에 간사람 수정에 갈라나곡 헷주마는 요즘은 그런 거 엇어.(그거 해서 간사람 숫자에 갈랐었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거 없어.)
105009 @ 게메예.(그럼요.)
105009 #2 거 그런 거 엇건디.(거 그런 거 없는데.)
105009 #1 어.(어.)
105009 #2 멧 십 년 뒀어.(몇 십 년 됐어.)
105009 #1 경 홀 때는 멜을 그냥 모렛바닥에 ᄆᆞᆯ령 걸름도 헷서.(그렇게 할 때는 멸치를 그냥 모랫바닥에 말려서 거름도 했어.)
105009 @ 예 걸름예.(예 거름요.)
105009 #1 으.(으.)
105009 #2 뭐 거 그 듸서 잡앙 그레 널엇다근넹이.(뭐 거 그 데서 잡아서 거기에 널었다가.)
105009 @ 으.(으.)
105009 #2 다 걸름허영 보리 갈 때민 ᄀᆞ랑더레 ᄒᆞ나썩 흘청. 멜이 경 걸덴 헤근엥에. ᄒᆞ나썩 ᄒᆞ나썩 흘청.(다 거름해서 보리 갈 때면 고랑으로 하나씩 흘려서 멸치가 그렇게 걸다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흘려서.)
105009 @ 아.(아.)
105009 #2 그떼 무신 비료가 잇어수꽈?(그때 무슨 비료가 있었습니까?)
105009 @ 예, 예, 예.(예, 예, 예.)
105009 #2 무시거 잇수꽈게?(무엇 있습니까?)
105009 @ 예, 예, 게도 접이 잇서네예.(예, 예, 그래도 계가 있어서요.)
105009 #2 응.(응.)
105009 @ 그떼도예. 어째든 헤서 접에서는 갈랑도 가지곡 풀기도 헷을 거고 접

이니까.(그때도요. 어쨌든 해서 계에서는 갈라서도 가지고 팔기도 했을 거고 계니까.)

105009 #1 아, 겐디.(아, 그런데.)

105009 #2 아이.(아이.)

105009 #1 풀, 사 갈 사름이.(팔, 사 갈 사람이.)

105009 #2 그때 풀고 사가 가곡. 홀 사름이 엇어주게. 그런디 가근엥에 그거 잡아근엥에 헤 가 가면은 흘친 것도 하주.(그때 팔고 사가 가고. 할 사름이 없었지. 그런데 가서 그거 잡아서 해 가 가면 흘린 것도 많지.)

105009 @ 예 줏엉 놓고.(예 주어서 넣고.)

105009 #2 게민 흘친 거 줏어당 먹쩽 ᄒᆞ주. 돈 줘 거 사당 먹젠을 아니 허여게.(그러면 흘린 거 주어다 먹으려고 하지. 돈 줘서 거 사다 먹으려고 안 해.)

105009 @ 게 멜젓은 담아살 거니까는 집집마다.(그럼 멸치젓은 담가야할 거니까 집집마다.)

105009 #2 멜젓 담아도게. 멜첫 두어 동이 담으민 무시거.(멸치젓 담가도. 멸치젓 두어 동이 담그면 무엇.)

105009 #1 멜젓 얼마나 담아야게.(멸치젓 얼마나 담가야.)

105009 #2 얼마나 헹 먹젠게.(얼마나 해서 먹으려고.)

105009 @ 아.(아.)

105009 #1 ᄒᆞᆫ 두어 뒈 담으민 헤, 헤.(한 두어 되 담그면 헤, 헤.)

105009 @ 응 예에.(응 예에.)

105010 @ 거문 고기 낚으는 거예? 고기는 저기 어떵 낚아신고예?(그러면 고기 낚으는 거요? 고기는 저기 어떻게 낚았는가요?)

105010 #1 아, 그건.(아, 그건.)

105010 @ 고기 나끄는 거.(고기 낚는 거.)

105010 #1 베로도 강.(배로 가서.)

105010 @ 배.(배.)

105010 #1 나끄곡, 곳으로도 나끄고 ᄒᆞ는데.(낚고, 해변으로도 낚고 하는데.)

105010 @ 예 곳에도 나끄고.(예 해변에도 낚고.)

105010 #1 어, 뭐 첨데헤영 가근에 나끄주 무신.(어, 뭐 왕대해서 가서 낚지 무슨.)

105010 @ 첨데헤근에예. 첨데도 이제 긴 큰 것도 잇고 큰 첨데도 잇고 족은 첨떼도 잇고.(왕대해서요. 낚싯대도 이제 긴 큰 것도 있고 큰 왕대도 있고 작은 왕대도 있고.)

105010 #1 아, 거는 고기에 따라서.(아, 거는 고기에 따라서.)

105010 @ 예, 고기에 따라예?(예, 고기에 따라요?)

105010 #1 그 요즘 말ᄒᆞ는 이 감성동 소위 것ᄀᆞ라. 간성돔은 뭐엔 근다 마는 저.(그 요즘 말하는 이 감성돔 소위 것보고. 감성돔은 뭐라고 말한다마는 저.)

105010 #2 감성.(감성.)
105010 #1 어?(어?)
105010 #2 거 무시거? 돔이주게. 무시거게 감성돔이엔 흔 거 돔이란게게.(거 무엇? 돔이지. 무엇이 감성돔이라고 한 거 돔이던데.)
105010 #1 경 ᄒᆞ고 구릿.(그렇게 하고 감성돔.)
105010 #2 구릿ᄒᆞ곡게. 구릿ᄀᆞ란. 검은돔이엔 헤냐 ᄒᆞ곡.(감성돔하고. 감성돔보고는. 검은돔이라고 했냐 하고.)
105010 @ 아 검은 돔.(아 감성돔.)
105010 #2 어 구릿.(어 검은 돔.)
105010 #1 그런 거 ᄒᆞ는 거는. 옌날은 아주 첨때도 길게 ᄒᆞ곡.(그런 거 하는 거는. 옛날은 아주 낚싯대도 길게 하고.)
105010 @ 어.(어.)
105010 #1 뭘 헤 가지고. 춤 ᄌᆞ녁에 밤에 가서 낚앗주.(뭘 해가지고. 참 저녁에 밤에 가서 낚았지.)
105010 @ 아, 밤에.(아, 밤에.)
105010 #1 나깟고.(낚았고.)
105010 @ 그 그거 주젠 허젠허며는 찌가, 아니 그 저 먹이를 헤 줘사.(그 그거 주려고 하려고하면 찌가, 아니 그 저 먹이를 해줘야.)
105010 #1 응.(응.)
105010 @ 먹는 거를 줘사 그걸 먹젠.(먹는 거를 줘야 그걸 먹으려고.)
105010 #1 어 게난 그.(어 그러니까 그.)
105010 @ 올 거 아닛꽈예?(올 거 아닙니까요?)
105010 #1 그떼는.(그때는.)
105010 #2 벡게.(갯강구.)
105010 #1 밧게라고 잇서 밧게.(갯강구라고 있어 갯강구.)
105010 @ 게?(게?)
105010 #2 응.(응.)
105010 #1 응 밧게라고 그 에, 헤안가에 가문 큰 돌에 그냥 세카망케 확 그 돌아다니는 거 잇어.(응 갯강구라고 그 에, 해안가에 가면 큰 돌에 그냥 새까맣게 확 그 돌아다니는 거 있어.)
105010 #2 요세 집안에서.(요새 집안에서.)
105010 #1 응 그거 잡으민 뒈어.(응 그거 잡으면 되어.)
105010 #2 그 저 무시거니? 집이 잇인 것ᄀᆞ라. 바퀴벨레 닮은 게.(그 저 무엇이니? 집이 있는 것보고. 바퀴벌레 같은 것이.)
105010 @ 예, 예.(예, 예.)
105010 #2 바퀴벌레 닮은 게. 그 엿날엔 바당에 가민 곳띠 시커멍케 나와 낫주게. 겐디 요즘은 엇어양?(바퀴벌레 닮은 것이. 그 옛날에는 바다에 가면 해변에 시

커멓게 나왔었지. 그런데 요즘에는 없어요?)

105010 @ 밖이 그냥 쪼르르 다리 막 하영 잇인 거.(밖에 그냥 쪼르르 다리 아주 많이 있는 거.)

105010 #1 응, 응.(응, 응.)

105010 #2 응.(응.)

105010 #1 거멍 헌 거.(까맣게 한 거.)

105010 @ 예 거멍 헌 거예.(예 까맣게 한 거요.)

105010 #2 검엉 헌 거.(까맣게 한 거.)

105010 #1 그거 잡앙 그거 미끼로 헹.(그거 잡아서 그거 미끼로 해서.)

105010 @ 아.(아.)

105010 #1 거 구릿 ᄀᆞ뜬거 낚아낫주게.(거 감성돔 같은 거 낚았었지.)

105010 @ 미끼로예, 그거를 밧게엔 헤수과?(미끼로요, 그거를 갯강구라고 했습니까?)

105010 #1 응, 밧게.(응, 갯강구.)

105010 @ 밧게.(갯강구.)

105010 #2 응 밧게.(응 갯강구.)

105010 @ 밧게예. 밥주리엔 안 헤수과?(갯강구요. '밥주리'라고 안했습니까?)

105010 #2 밥주리엔 안 헹 밧게엔 헤서.('밥주리'라고 안 해서 갯강구라고 해서.)

105010 @ 밧게엔예?.(갯강구라고요?)

105010 #2 응 여기선 밧게엔 헤.(응 여기선 갯강구라고 해.)

105010 #1 응, 그건 동네마다 이름이 틀리니까.(응, 그건 동네마다 이름이 다르니까.)

105010 @ 거곡 족은 것들은? 족은 고기들은 저기.(그리고 작은 것들은? 작은 고기들은 저기.)

105010 #1 아 게메, 족은 것들은 소위 말허면은 물찌뎅이[171] ᄀᆞ뜬 거.(아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소위 말하면 물지렁이 같은 거.)

105010 #2 코셍이 ᄀᆞ뜬 거 그런 거 족은 춤데로 낚앗주.(용치놀래기 같은 거 그런 거 작은 왕대로 낚았지.)

105010 @ 코셍이.(용치놀래기.)

105010 #1 족은 거 족은 첨때로 낚으는 거.(작은 거 작은 왕대로 낚는 거.)

105010 #1 경 ᄒᆞ고, 물잇겁, 덕 이거 덕에서 ᄑᆞ는 거 잇어. 이 앞에 가면은 버덕잇짠여. 거 곡궹이로 찍으면은 그 안에 그.(그렇게 하고, 물미끼, 덕 이거 덕에서 파는 거 있어. 이 앞에 가면 들 있잖아. 거 곡괭이로 찍으면 그 안에 그.)

105010 @ 아, 버덕.(아, 들.)

---

171) '물찌뎅이' '물지렁이' '물주넹이'는 같은 말이라고 제보자가 한다. 바닷물 속에서 큰 돌 아래에 있는 붉은색 지렁이다.

105010 #2 지렝이가 나오주. 지렝이 닮은 거.(지렁이가 나오지. 지렁이 닮은 거.)

105010 #1 거 그런 걸로 낚으곡, 그거 ᄒᆞ면은 고기가 잘 물어.(거 그런 것으로 낚고, 그거 하면은 고기가 잘 물어.)

105010 @ 버덕, 버덕이엔 허면은 튼튼허게시리 된 땅 같은 거.(들, 들이라고 하면은 튼튼하게끔 된 땅 같은 거.)

105010 #2 응. 핀핀ᄒᆞᆫ디게.(응. 편편한데.)

105010 @ 예. 핀핀ᄒᆞᆫ디예?(예. 편편한 데요?)

105010 #2 핀핀ᄒᆞᆫ디 ᄀᆞ라. 버덕 경 ᄒᆞ주. 핀핀ᄒᆞ게시리. 이디 ᄀᆞ찌 영 ᄒᆞᆫ 디 그듸 못 꿩이로 찍어근에 ᄒᆞ민 그 안네에 이제 지렝이 닮은 거 나오민.(편편한데 보고. 들 그렇게 하지. 편편하게끔. 여기같이 이렇게 한 데 거기 못 꽹이로 찍어서 하면 그 안에 이제 지렁이 닮은 거 나오면.)

105010 @ 예, 예.(예, 예.)

105010 #2 그거 닛껍으로 꿰영.(그거 미끼로 꿰어서.)

105010 @ 예 닛껍으로.(예 미끼로.)

105010 #2 코셍이 조우럭. 어렝이.(용치놀래기 노래미 어렝놀래기.)

105010 @ 조우럭예.(노래미예.)

105010 #2 응 그런 거.(응 그런 거 어렝놀래기.)

105010 @ 어렝이.(어렝놀래기.)

105010 #2 어렝이.(어렝놀래기.)

105010 #1 우럭, 감뎅이 뭐 별거 다 낚으주.(우럭, '감뎅이' 뭐 별거 다 낚지.)

105010 @ 감뎅이, 그 지렝이 ᄀᆞ뜬 거렌 헙니까. 지렝이엔 헙니까?('감뎅이,' 그 지렁이 같은 거라고 합니까. 지렁이라고 합니까?)

105010 #2 지렝이엔 ᄒᆞ주게.(지렁이라고 하지.)

105010 @ 지렝이.(지렁이.)

105010 #2 양? 지렝이엔 ᄒᆞ주게.(예? 지렁이라고 하지.)

105010 @ 지렁이예? 예.(지렁이요? 예.)

105010 #1 여기선 발 닛껍, 물 닛껍 헤여.(여기서는 발 미끼, 물 미끼 해.)

105010 @ 발 닛껍? 하, 하.(발 미끼? 하, 하.)

105010 #2 발 닛껍 하, 하. 물 닛껍.(발 미끼 하, 하. 물 미끼.)

105010 @ 닛껍.(미끼.)

105010 #2 으.(으.)

105010 @ 예.(예.)

105010 #1 물 닛껍.(물 미끼.)

105010 @ 어.(어.)

105010 #2 물 닛껍 발 닛껍.(물 미끼 발 미끼.)

105010 #1 응.(응.)

105010 @ 늿껍예.(미끼요.)

105010 #1 아 우리 성산 고성서 골으난 고성서 곧는 데로 골아야주.(아 우리 '성산' '고성'서 말하니까 '고성'에서 말하는 대로 말해야지.)

105010 #2 응 경 헤사주.(응 그렇게 해야지.)

105010 @ 예, 고성서, 예 발 늿겁, 물 늿겁예. 이거를 지렝이예. 으.(예, '고성'에서, 예 발 미끼, 물 미끼요. 이거를 지렁이요. 으.)

105011 @ 그 낚싯대허고예, 낚싯줄 허고 낚시 뽕돌.(그 낚싯대하고요, 낚싯줄 허고 봉돌.)

105010 #1 응.(응.)

105011 @ 뽕돌은?(봉돌은?)

105011 #2 뽕돌?(봉돌?)

105011 @ 어떻게 만들언 어떻게 구해신고예?(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구했는가요?)

105011 #1 첨데는 여기 대.(낚싯대는 여기 대나무.)

105010 @ 예.(예.)

105011 #1 대나무 만으니까게.(여기 대나무 많으니까.)

105010 @ 예 집.(예 집.)

105011 #1 대 왓디서.(대 밭에서.)

105010 @ 대 왓예.(대 밭요.)

105011 #1 이제 쫄라근에.(이제 잘라서.)

105010 @ 예.(예.)

105011 #1 ᄒᆞ고.(하고.)

105010 @ 으.(으.)

105011 #1 그 줄은 살수 벳기 엇주게.(그 줄은 살수 밖에 없지.)

105010 @ 어.(어.)

105011 #1 그 정술을.(그 낚싯줄을.)

105011 @ 정술예?(낚싯줄요?)

105011 #1 응, 그 사고 뽕돌도 사야 뒈고.(응, 그 사고 봉돌도 사야 되고.)

105010 @ 예.(예.)

105011 #1 낚시도 사야 뒈고.(낚시도 사야 되고.)

105010 @ 뽕돌도 사야 뒈고.(봉돌도 사야 되고.)

105011 #1 거 뭐.(거 뭐.)

105011 @ 정술 사지 않을 때는 어떵 걸로 해 나신고예?(낚싯줄 사지 않을 때는 어떤 걸로 했는가요?)

105011 #1 정술 사지 않을 때는 저 그 거시기로 실로 꼬아진, 그 소위 것ᄀᆞ라 무시거엔 노꼿이엔 ᄒᆞ는디.(낚싯줄 사지 않을 때는 저 그 거시기로 실로 꼬아진, 그 소위 것보고 무엇이라고 노끈이라고 하는데.)

105011 @ 노꼿이마씨? 노끗? 노꼿?(노끈이요? 노끈? 노끈?)
105011 #2 어 끈을 노꼿이엔 허주.(어 끈을 노끈이라고 하지.)
105011 #1 그 실로 꼬여진 노꼿이 잇서.(그 실로 꼬여진 노끈이 있어.)
105011 @ 아 노꼿이.(아 노끈.)
105011 #1 실로 실로 그 게늘게.(실로 실로 그 가늘게.)
105011 @ 예 실이면은 집에서 잣던.(예 실이면 집에서 겯던.)
105011 #1 으 으.(으 으.)
105011 @ 무멩, 무명?(무명, 무명?)
105011 #1 응, 무명실로 헤서 영 꼬아진 게 잇주게. 게난 그것으로 그 소위 말ᄒᆞ면 줄로 헤낫주.(응, 무명실로 해서 이렇게 꼬아진 것이 있지.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 소위 말하면 줄로 했었지.)
105010 @ 예.(예.)
105011 #1 두린 떼는.(어린 때는.)
105011 @ 두린 떼는예, 무명실로예.(어린 때는요, 무명실로요.)
105011 #1 응.(응.)
105010 @ 예.(예.)
105011 #1 그거 오레헤서. 그런 걸로.(그거 오래했어. 그런 걸로.)
105010 @ 예.(예.)
105011 #1 그물 실이엔 ᄒᆞ든가? 그물 씰?(그물 실이라고 하던가? 그물 실?)
105011 @ 그물 실? 이거는 집에서 씰 잇인 걸로 헌 거로 헌 거 아니우꽈예?(그물 실? 이것은 집에서 실 있는 걸로 한 것으로 한 거 아닙니까요?)
105011 #1 아니 아니, 그것도 사야 뒈여.(아니 아니, 그것도 사야 돼.)
105011 @ 사사 뒈여마씨?(사야 되요?)
105011 #1 응.(응.)
105011 @ 아.(아.)
105011 #1 거 사람이 이디서 멩그랄저게 그거.(거 사람이 이 데서 만들어지니 그거.)
105011 @ 어.(어.)
105011 #1 아멩헤도 기계로 꼬아야. 기계로 나와야 뒈는 건디.(아무래도 기계로 꼬아야. 기계로 나와야 되는 건데.)
105011 @ 아 뽕돌 뽕돌도 사고예?(아 봉돌 봉돌도 사고요?)
105011 #1 어.(어.)
105011 @ 만들거나 해나진 안헤수과?(만들거나 하지는 안했습니까?)
105011 #1 응?(응?)
105011 @ 만들거나 해나진 안헤수과?(만들거나 하지는 안했습니까?)
105011 #1 아 납 잇시민 만들 순 잇주게.(아 납 있으면 만들 수는 있지.)
105011 @ 납으로예.(납으로요.)

105011 #1 응.(응.)
105011 @ 응.(응.)
105011 #2 납 이시민 납으로 무사 뀌와네. 그거 영.(납 있으면 납으로 왜 끓여서. 그거 이렇게.)
105011 #1 아 게 경.(아 그럼 그렇게.)
105011 #2 무시거 ᄉᆞ이에 놘 헤나지 안헤수꽈?(무엇 사이에 넣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105011 @ 응.(응.)
105011 #2 그걸 저기 물에 저 불에 봉 끌이민 물 뒈민.(그걸 저기 물에 저 불에 넣어서 끓이면 물 되면.)
105011 @ 아.(아.)
105011 #2 그레 실 닮은 거 가운디로 놘. 무신 그릇에 톡 비완. 놔두민 헤헷, 헤헷.(거기에 실 닮은 거 가운데로 넣어서. 무슨 그릇에 톡 비워서. 놓아두면 헤헷, 헤헷.)
105011 #1 응.(응.)
105011 #2 뽕돌이 뒈여.(봉돌이 되어.)
105011 @ 아.(아.)
105011 #1 그저 동그랗게 그 뽕돌만큼 뭘 멘들아 가지고 그 안에.(그저 동그랗게 그 봉돌만큼 뭘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105011 @ 예, 예.(예, 예.)
105011 #1 구멍 나게 멘들아서.(구멍 나게 만들어서.)
105011 @ 예.(예.)
105011 #1 경 헹 만들어도 뒈지마는.(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105011 @ 어.(어.)
105011 #1 거 만드는 건 경 거시기ᄒᆞ고 그게 막 나오니까 ᄑᆞ는 게.(거 만드는 건 그렇게 거시기하고 그게 마구 나오니까 파는 것이.)
105011 @ ᄑᆞ는 게.(파는 것이.)
105011 #1 응.(응.)
105011 @ 삼춘 때는 ᄑᆞ는 게 나오니까예.(삼촌 때는 파는 것이 나오니까요.)
105011 #1 응.(응.)
105011 @ 나오기 전에는 납으로 끌여가지고예?(나오기 전에는 납으로 끓여가지고요?)
105011 #1 응.(응.)
105011 @ 쓰던 것덜 헤가지고예? 응.(쓰던 것들 해가지고요? 응.)
105011 #1 아, 게 납이 거.(아, 그럼 납이 거.)
105011 @ 납도 거.(납도 거.)
105011 #1 뽕돌이니까게.(봉돌이니까.)

105011 @ 납도 저 구허기가 옛날에는 ᄑᆞ는 거 나오기 전에는 돌로 헤실테주마씨?(납도 저 구하기가 옛날에는 파는 거 나오기 전에는 돌로 했을 테지요?)

105011 #1 글쎄.(글쎄.)

105011 #2 거 뭘로사 헤신디 원.(거 무엇으로야 했는지 원.)

105011 #1 에 돌ᄁᆞ진 안 가.(에 돌까지는 안 가.)

105011 @ 경 허난 뽕돌 뽕똘 아닌가?(그렇게 하니까 봉돌 봉돌 아닌가?)

105011 #1 아이덜은 돌로 헷주. 젠젠 헨 아이들은 그 거 뽕똘 사기도 뭘 ᄒᆞ면은 돌 무껑 ᄒᆞ기도 헷주게.(아이들은 돌로 했지. 자잘한 아이들은 그 거 봉돌 사기도 뭘 하면은 돌 묶어서하기도 했지.)

105011 @ 예에.(예에.)

105013 @ 고깃배는예, 고깃배는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잇어신고마씨? 고깃배 종류.(고깃배는요, 고깃배는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었는가요? 고깃배 종류.)

105013 #1 고깃베 종류는게. 거 조그만 전마선 잇잔여. 풍선이.(고깃배 종류는. 거 조그만 전마선 있잖아. 풍선이.)

105013 @ 풍선예.(풍선요.)

105013 #1 거 터베.(거 떼배.)

105013 @ 터우 터우? 터?(터우 터우? 터?)

105013 #1 으.(으.)

105013 @ 터배.(떼배.)

105013 #1 터배.(떼배.)

105013 @ 예.(예.)

105013 #1 그 다음은 뭐 뽀드 ᄀᆞ뜬 거. 젠젠헌이.(그 다음은 뭐 보트 같은 거. 자잘한.)

105013 @ 뽀드? 뽀드는?(보트? 보트는?)

105013 #1 으.(으.)

105013 @ 뽀드면 동력 나올 때 뽀드.(보트면 동력 나올 때 보트.)

105013 #1 으 보드허고 이 터베를.(으 보트허고 이 떼배를.)

105013 #2 엿날엔 그 다른 거 안 나온 뗀 터베를 하영 사용헷주게.(옛날에는 그 다른 거 안 나온 땐 떼배를 많이 사용했지.)

105013 @ 터배예?(떼배요?)

105013 #2 떰메[172]ᄒᆞ곡.(전마선하고.)

105013 @ 뗌메?(전마선?)

105013 #2 응, 거 쪼그만 허게시리.(응, 거 조그만 하게끔.)

105013 #1 아, 그 뗌마라고 그거는.(아, 그 전마선이라고 그것은.)

105013 @ 뗌마?(전마선?)

105013 #1 그 족은, 큰 베에 그 뗌마 뗌마 헤여근에.(그 작은, 큰 배에 그 전마

172) '뗌마'는 전마선 같은 것이고 뗌마는(てんま) 일본 발음이다.

선 전마선 해서.)
105013 @ 으 으.(으 으.)
105013 #1 일본 놈들 곧는디, 그게 소위.(일본 놈들 말하는데, 그게 소위.)
105013 @ 조각배?(조각배?)
105013 #1 응, 왓다 갓다ᄒᆞ는 그 운반수단으로도 이용ᄒᆞ곡. 배 큰 베테레 갈 떼.(응, 왔다 갔다하는 그 운반수단으로도 이용하고. 배 큰 배에로 갈 때.)
105013 @ 응.(응.)
105013 #1 타기도 ᄒᆞ곡. ᄒᆞ는 건디.(타기도 하곡. 하는 건데.)
105013 @ 예, 예.(예, 예.)
105013 #1 그 적은 걸 이예기 ᄒᆞ는 거주게. 적은 걸.(그 적은 것을 이야기 하는 거지. 작은 것을.)
105013 @ 예, 예 그거는?(예, 예 그것은?)
105013 #1 게난 적은 거게 두 세 사름이 강 ᄒᆞᆫ 사름 탕 나가근에. 낙씨질혜영 들어오곡.(그러니까 적은 거 두 세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타서 나가서. 낚시질해서 들어오고.)
105013 @ 거는 노 젓는 걸로 혜가지고예.(거는 노 젓는 걸로 해가지고요.)
105013 #1 예, 노 절엉.(예, 노 저어서.)
105013 @ 노 절어근에예. 뗌마 말고 다른 말 엇어신가마씨? 조각배?(노 저어서요. 전마선 말고 다른 말 없었는가요? 조각배?)
105013 #1 게메 그거.(그러니까 그거.)
105013 @ 옛날엔 조각 표준말론 조각배일 것 같은디, 뗌마?(옛날엔 조각 표준말론 조각배일 것 같은데, 전마선?)
105013 #1 거.(거.)
105013 #2 뭐 배에 데ᄒᆞᆫ 건 몰르고.(뭐 배에 대한 건 모르고.)
105013 #1 하여튼, 별말이 그거 그자.(하여튼, 별말이 그거 그저.)
105013 @ 예.(예.)
105013 #1 곧는 데로 곧는 거난에.(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니까.)
105013 @ 예 뗌마예?(예 전마선요?)
105013 #1 으 말이.(으 말이.)
105013 @ 맞수다.(맞습니다.)
105013 #1 정 혜 정 나와이신 게. 아니고 ᄒᆞ니까 그자.(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그저.)
105013 @ 예.(예.)
105013 #1 편리ᄒᆞᆫ데로 곧는 거주.(편리한대로 말하는 거지.)
105013 @ 예.(예.)
105013 #1 게난 풍선.(그러니까 풍선.)
105013 @ 풍선.(풍선.)

105013 #1 게 보름에 의헤서 가는 게 풍선이주게.(그럼 보름에 의해서 가는 것이 풍선이지.)

105013 @ 예.(예.)

105013 #1 풍선이난 돗떼 달아근에 거 조금 솔레기 낙끄레 쯤 가젠 허문 그 풍선으로 가주게.(풍선이니까 돛대 달아서 거 조금 옥돔 낚으러 쯤 가려고 하면 그 풍선으로 가지.)

105013 @ 아, 솔레기이?(아, 옥돔이?)

105013 #1 으.(으.)

105013 @ 솔레기이예 풍선. 그 해녀들이 줌녀 어른들이 저기 채취 허는 거예. 해산물.(옥돔이요 풍선. 그 해녀들이 해녀 어른들이 저기 채취 하는 거요. 해산물.)

105013 #2 으.(으.)

105013 @ 아까는 고동은 저 저 따로 ᄒᆞ곡. 해산물에는 어떤 것이 잇어신고마씨? 메역?(아까는 소라는 저 저 따로 하고. 해산물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요? 미역?)

105013 #2 메역 메역ᄒᆞ고 메역벳기. 메역 그 헤산물헤영 허민 메역, 고동게.(미역 미역하고 미역밖에. 미역 그 해산물해서 하면 미역, 소라게.)

105013 @ 예 고동.(예 소라.)

105013 #2 전복 그런 거벳기. 문어 그런 거벳기 더 무신 거 좀수덜 잡는 것사 그거벳기 더 잇어, 전복.(전복 그런 거밖에. 문어 그런 거밖에 더 무슨 거 해녀들 잡는 것이야 그거밖에 더 있어, 전복.)

105013 @ 예, 전복.(예, 전복.)

105013 #2 으.(으.)

105013 @ 예. 전복을 다른 말로 무신 말이엔 헙니까? 빗이엔 헤신가마씨?(예. 전복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전복이라고 했는가요?)

105013 #2 응 그자 전복이엔 헷주. 엿날도 그자.(응 그저 전복이라고 했지. 옛날도 그저.)

105013 @ 예. 전복예 전복?(예. 전복요 전복?)

105013 #2 양. 전복이엔 헹 다른 거엔 말은 나 안 들어봣주.(예. 전복이라고 해서 다른 거라고 말은 나 안 들어봤지.)

105013 @ 예, 고동 전복.(예, 소라 전복.)

105013 #2 으.(으.)

105013 @ 작살로 이제 고기라든가 잡아지면은.(작살로 이제 고기라든가 잡아지면.)

105013 #2 응, 경 허난, 저 고무작쌀로 헤근엥이 고기도 쏘곡게.(응, 그렇게 하니까, 저 고무작살로 해서 고기도 쏘고.)

105013 @ 예, 고기도 쏘고예.(예, 고기도 쏘고요.)

105013 #2 문어도 잡곡.(문어도 잡고.)

105013 @ 예.(예.)
105013 #2 작살로.(작살로.)
105013 @ 성게ᄒᆞ고 솜 틀 때는 옛날엔 어떵 헤신고마씨?(성게하고 말똥성게 딸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요?)
105013 #2 저 성게ᄒᆞ고 솜 홀 때는 ᄀᆞᆯ각지.(저 성게하고 말똥성게 할 때는 호미.)
105013 @ 예.(예.)
105013 #2 요젠 요세는 그 솜 파는 그거를, 따로 멘들안.(요새는 요새는 그 말똥성게 파는 그거를 따로 만들어서.)
105013 @ 쪼그만 거예?(조그만 거요?)
105013 #2 마직ᄒᆞ게 ᄒᆞᆫ 호멩이엔 헷주만은, 엿날엔 ᄀᆞᆯ각지로.(알맞게 한 호미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호미로.)
105013 @ ᄀᆞᆯ각지예?(호미요?)
105013 #2 응.(응.)
105013 @ ᄀᆞᆯ각지로 ᄒᆞ고예.(호미로 하고요.)
105013 #2 전복 칠 땐 빗창으로 ᄒᆞ고.(전복 칠 땐 '빗창'으로 하고.)
105013 @ 빗창으로 ᄒᆞ고예?('빗창'으로 하고요?)
105013 #2 응.(응.)
105013 @ 경허고 바당에서 허는 그 옛날에는 먹을 거엔 헤가지고, 그 요즘 흔히 청각[173]이엔 헌 것도 해나신가마씨?(그렇게 하고 바다에서 하는 그 옛날에는 먹을 거라고 해가지고, 그 요즘 흔히 청각이라고 한 것도 했는가요?)
105013 #2 전각도 잇곡, 가시리도 잇고.(청각도 있고, 우뭇가사리도 있고.)
105013 @ 예 청각.(예 청각.)
105013 #2 가시리.(우뭇가사리.)
105013 @ 가시리.(우뭇가사리.)
105013 #2 ᄑᆞ레.(파래.)
105013 @ 예 ᄑᆞ레, 톳도 잇곡.(파래, 톳도 있고.)
105013 #2 ᄃᆞ시로 저 무시 거니? 거 솖앙 먹는 것ᄀᆞ라. 너페.(다시 저 무슨 거니? 거 삶아서 먹는 것보고. 넓패.)
105013 @ 아, 너페.(아, 넓패.)
105013 #2 너페ᄒᆞ곡. 전각도 잇고.(넓패하고. 청각도 있고.)
105013 @ 아, 전각. ᄆᆞᆯ망.(아, 청각. 모자반.)
105013 #1 ᄆᆞᆯ망도 잇고.(모자반도 잇고.)
105013 #2 ᄆᆞᆯ망도 싯고게. 톨도 잇고게.(모자반도 있고. 톳도 있고.)
105013 @ 예 톨.(예 톨.)
105013 #1 톨.(톳.)

173) '청각' 녹조류 청각과의 해조다.

105013 #2 응 솖앙 먹는 것사 뭐 그거지.(삶아서 먹는 거야 뭐 그거지.)
105013 @ 예.(예.)
105013 #1 톨 톨이 이제, 이 어촌게 전체적으로 ᄒᆞ는 거주. 거.(톳 톳이 이제, 이 어촌계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거.)
105013 @ 예, 예.(예, 예.)
105013 #1 톨은 공동으로 헤서 공동으로 ᄆᆞᆯ려가지고.(톳은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말려가지고.)
105013 @ 예.(예.)
105013 #1 공동으로 풀아근에.(공동으로 팔아서.)
105013 @ ᄒᆞ는 거난예.(하는 것이니까예.)
105013 #1 이 돈 갈르는 거주.(이 돈 가르는 거지.)
105013 @ 응 ᄆᆞᆯ망, 전각, 너페, ᄑᆞ레, 가시리, 청각 또 엇인가? 듬북 같은 거.(응 모자반, 청각, 넓패, 파래, 우뭇가사리, 청각 또 없는가? 듬북 같은 거.)
105013 #2 경 헹. ᄒᆞ문 또 문어 ᄀᆞ뜬 것도 우믜 메영 풀고.(그렇게 해서 또 문어 같은 것도 우뭇가사리 매어서 팔고.)
105013 @ 아, 우미.(아, 우뭇가사리.)
105013 #2 예 우미 메영 풀곡.(예 우뭇가사리 매어서 팔고.)
105013 @ 김도 잇어신가마씨?(김도 있었는가요?)
105013 #2 김은 엇어 이디.(김은 없어 여기.)
105013 #1 김은 엇어.(김은 없어.)
105013 @ 김은 엇고 조개?(김은 없고 조개?)
105013 #2 어?(어?)
105013 @ 조개? 바당에.(조개? 바다에.)
105013 #2 조게는 조게바당에 잇주게.(조개는 조개바다에 있지.)
105013 @ 조개 바당예?(조개 바다요?)
105013 #2 어.(어.)
105013 @ 조개, 조개도 막 여러 가지 아닛꽈? 이름이예?(조개, 조개도 아주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이름이요?)
105013 #2 아유, 조겐 이디도 그자 ᄒᆞᆫ 가지. 원 ᄆᆞᆯ콥조개 그자 조게.(아유, 조개는 여기에도 그저 한 가지. 원 '물콥조개' 그저 조개.)
105013 @ 예 ᄆᆞᆯ콥조개요.(예 '물콥조개'요.)
105013 #2 저 그자 조게.(저 그저 조개.)
105013 @ 예, ᄆᆞᆯ콥조개.(예 '물콥조개'.)
105015 @ 그 즘녀어른들 저기 즘수 헐 때 물질 헐 때 필요한 도구예? 필요한 것덜은?(그 해녀어른들 저기 잠수 할 때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요? 필요한 것들은?)
105015 #2 거게게. 테왁ᄒᆞ곡.(그것이. 테왁하고.)

105015 @ 테왁ᄒᆞ고.(테왁하고.)
105015 #2 저 ᄀᆞᆺ사 ᄀᆞᆯ아라 거 빗창ᄒᆞ곡.(저 아까 말해라 거 '빗창'하고.)
105015 @ 아, 빗창ᄒᆞ고예.(아, '빗창'하고요.)
105015 #1 소살ᄒᆞ고.(작살하고.)
105015 #2 ᄃᆞ시로 작살ᄒᆞ곡.(다시로 작살하고.)
105015 @ 작살ᄒᆞ고예.(작살하고요.)
105015 #2 이제 작살이엔 헴저.(이제 작살이라고 하지만.).
105015 @ 소살?(작살?)
105015 #2 엿날엔 소살.(옛날에는 작살.)
105015 @ 소살.(작살.)
105015 #2 응, 그거ᄒᆞ곡 이제 메역 ᄒᆞᆯ 때민 호미ᄒᆞ곡.(응, 그거하고 이제 미역 할 때면 낫하고.)
105015 @ 응 호미 허고, 또 쪼그마헌 거 옆에 메는 거.(응 호미 하고, 또 조그마한 거 옆에 매는 거.)
105015 #2 그거.(그거.)
105015 @ 전복이라도 해지민.(전복이라도 해지면.)
105015 #2 그거는 저기 거시기, 무시거 ᄒᆞ느니? 허 헛, 조레기.(그거는 저기 거시기, 무엇 하니? 허 헛, 조래기.)
105015 @ 아 조레기예?(아, 조래기요?)
105015 #2 응 망사리 말아 조레기.(응 망사리 말아 조래기.)
105015 @ 조레기.(조래기)
105015 #1 건 건, 문어 ᄀᆞ뜬 거.(건 건, 문어 같은 거.)
105015 @ 예.(예.)
105015 #1 그 준준헌 거 전복 ᄀᆞ뜬 거 중요헌 거 잡은 뗀 그것에 따로 놔서 도망가지 못허게 허영.(그 잔잔한 거 전복 같은 거 중요한 거 잡은 땐 그것에 따로 넣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105015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5015 #1 응.(응.)
105015 @ 눈?(물안경?)
105015 #2 응?(응?)
105015 @ 눈?(물안경?)
105015 #2 눈 써사 허곡.(눈 써야 하고.)
105015 @ 눈 써사 허곡. 귀 막을 떼는?(눈 써야 하고. 귀 막을 때는?)
105015 #2 귀 저, 거시기 밀.(귀 저, 거시기 밀.)
105015 @ 밀?(밀?)
105015 #1 응.(응.)
105015 @ 밀이엔 ᄀᆞᆯ아수꽈?(밀이라고 말했습니까?)

105015 #1 응.(응.)

105015 @ 그걸 막 찍어근에. 귀에 담아근에.(그걸 막 찧어서. 귀에 담아서.)

105015 #2 응, 응. 그 시커멍 혼 거 막는 거 그거 밀.(응, 응. 그 새카매서 한 거 막는 거 그거 밀)

105015 @ 으 밀, 밀은 쑥으로 해신가마씨?(으 밀, 밀은 쑥으로 했는가요?)

105015 #2 아니 그냥 거 무시거 시커멍 헌 거 나왓어.(아니 그냥 거 무엇 새카맣게 한 거 나왔어.)

105015 @ 프는 거?(파는 거?)

105015 #2 응, 거 나오고. 그자 아니 허영으네. 잠시 ᄒᆞ는 건 쑥 보벼근넹에 막아근엥이 ᄒᆞ곡.(응, 거 나오고. 그저 아니 해서. 잠시 하는 건 쑥 비벼서 막아서 하고.)

105015 @ 아, 이거 나오기 전에는 뭘로 해신고예?(아, 이거 나오기 전에는 무엇으로 했는가요?)

105015 #2 그거 나오기 전엔 뭔 뭣사 헤신디.(그거 나오기 전엔 뭔 무엇이야 했는지.)

105015 @ 바당에.(바다에.)

105015 #2 그거 바당에 들어 갈 때에 이제 지픈디 허는 사름덜은, 이제 밀을 막고.(그거 바다에 들어 갈 때에 이제 깊은데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밀을 막고.)

105015 @ 예.(예.)

105015 #2 야픈디 ᄒᆞ는 사름들은 이제 쑥도 헹ᄒᆞ고 그자도 ᄒᆞ곡 경 헨.(얕은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쑥도 해서하고 그저도 하고 그렇게 했어.)

105015 @ 예 그자도 허고예.(예 그냥도 하고요.)

105015 #2 응 경 헨 엿날에 그자 헤실 거라. 밀 안 나온 뗀.(응 그렇게 했어 옛날에 거저 했을 거야. 밀 안 나왔을 땐.)

105015 @ 밀 안 나 온 떼는예.(밀 안 나 왔을 때는요.)

105015 #2 응.(응.)

105015 @ 허곡 옷은 뭐? 저기.(하고 옷은 뭐? 저기.)

105015 #2 옷은 속곳 입언.(옷은 속곳 입어서.)

105015 @ 속곳이엔 헙니까?(속곳이라고 합니까?)

105015 #2 응, 솟곳.(응, 속곳.)

105015 @ 속곳허민 머리 쓰는 거는? 수건.(속곳하면 머리 쓰는 거는? 수건.)

105015 #2 수건.(수건.)

105015 @ 수건 허고.(수건 하고.)

105015 #2 적삼 물적삼.(적삼 '물적삼.')

105015 @ 물적삼 허곡. 저기 아랫 거는? 아랫것도 그냥 적삼이엔 헙니까?('물적삼' 하고. 저기 아래 거는? 아래 것도 그냥 적삼이라고 합니까?)

105015 #2 아니, 아레 건.(아니, 아래 건.)

105015 @ 소중이(소중의.)

105015 #2 속곳게.(속곳.)

105015 @ 예 아랫 건 속곳.(예 아래 건 속곳.)

105015 #1 응 소중이엔도 허곡 속곳이엔도 허곡.(응 소중의이라고도 하고 속곳이라고도 하고.)

105015 @ 예 소중이.(예 소중의.)

105015 #2 소중이가 엿날에 하영 골앗주. 속곳보단.(소중의가 옛날에 많이 말했지. 속곳보다는.)

105015 @ 예, 소중이예?(예, 소중의요?)

105015 #2 응 소중이.(응 소중의.)

105015 @ 소중이허곡. 물에 나오면 우에 더끄는 거.(소중의하고. 물에 나오면 위에 덮는 거.)

105015 #2 아이고 무신 거 더끄는 거 잇어수꽈게?(아이고 무슨 거 덮는 거 있었습니까?)

105015 #1 허, 허 불 추엇주.(허, 허 불 쬐었지.)

105015 #2 소중이 입엉 그자 불 솜앙 추엇주.(소중의 입어서 그저 불 때서 쬐었지.)

105015 @ 불 솜앙예?(불 때서요?)

105015 #2 응.(응.)

105015 @ 뚜데기엔 헌 건 안 해나수과?(포대기라고 한 건 안 했습니까?)

105015 #2 뚜데기엔 헌 거, 나건 디가 오레지 안혀네 혀단. 이제 고무 옷 나고 헤수다. 거 엿날에 무시 거 더끄고 헨 헤수과?(포대기라고 한 거, 나온 데가 오래지 않아서 하다가. 이제 고무 옷 나고 했습니다. 거 옛날에 무엇 덮고 하고 했습니까?)

105015 @ 응 맞수다.(응 맞습니다.)

105015 #2 그자 벗언 그자 불 추원 달달달달 털멍 헷주.(그저 벗어서 그저 불 쬐서 덜덜덜덜 떨면서 했지.)

105015 @ 응.(응.)

105015 #1 경 허난 얼마 살 알 저수꽈게?(그렇게 하니까 얼마 살 수 있었습니까?)

105016 @ 응, 응.(응, 응.)

105015 #1 물에 간게 게. 이젠 ᄒᆞ루 저물앙 헴주.(물에 가서 그럼. 이젠 하루 저물도록 하고 있지.)

105016 @ 응, 응.(응, 응.)

105015 #1 이제는 ᄒᆞᆫ 시간이여, 두 시간이여 헴주.(이제는 한 시간이다, 두 시간이다 하고 있지.)

105016 @ 응.(응.)

105015 #1 고무옷 안 입은 때는 가민 그자 워가[174] 들어갓당 나와야주 경.(고무

옷 안 입은 때는 가면 그저 곧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그렇게.)

105016 @ 맞수다. 옛날허고 비교해근에. 지금 물질은 어떵 생각해젬수꽈?(맞습니다. 옛날하고 비교해서. 지금 물질은 어떻게 생각해집니까?)

105016 #2 아이고 엿날ᄒᆞ고 비교행이사 요세사 마. 춤 천지 차이주게.(아이고 옛날하고 비교해서야 요새야 뭐. 참 천지 차이지.)

105016 @ 응.(응.)

105016 #2 편안ᄒᆞ게.(편안하게.)

105016 #1 천국, 천국.(천국, 천국.)

105016 #2 아니.(아니.)

105016 #1 요세는 거 춤 해녀 그 불턱에 가면은, 다 온수 뭐 보일라 다 헤가지고.(요새는 거 참 해녀 그 '불턱'에 가면은, 다 온수 뭐 보일러 다 해가지고.)

105016 @ 응.(응.)

105016 #2 방도 뜻뜻ᄒᆞ게 다 헤주곡 물도 뜻뜻ᄒᆞ곡.(방도 따뜻하게 다 해주고 물도 따뜻하고.)

105016 #1 모욕ᄒᆞ는 디도.(모욕하는 데도.)

105016 #2 무신 모욕, 나오민 모욕 뜨신 물로 싹 헤여근에 나오곡. 아이고 요세사 무신.(무슨 목욕, 나오면 목욕 따뜻한 물로 싹 해서 나오고. 어이고 요새야 무슨.)

105016 @ 응.(응.)

105016 #2 춤 데통령ᄒᆞ는 거 헴주.(참 대통령하는 거 하고 있지.)

105016 #1 헤, 헤, 헷.(헤, 헤, 헷.)

105016 @ 예, 요즘은 대통령이고 옛날에는 보면은 불턱에 와근에.(예, 요즘은 대통령이고 옛날에는 보면 '불턱'에 와서.)

105016 #2 어.(어.)

105016 @ 젖인 차로.(젖은 채로.)

105016 #1 불턱에도 우의도 엇이.('불턱'에도 위도 없이.)

105016 @ 예 우의도 엇이.(예 위도 없이.)

105016 #1 그냥 담 ᄒᆞ쏠 다민 그 옵페서 그자.(그냥 담 조금 쌓으면 그 옆에서 그저.)

105016 @ 그 불턱도, 그 옛날에도 불턱 잇어나신가마씨?(그 '불턱'도, 그 옛날에도 '불턱' 있었는가요?)

105016 #1 응.(응.)

105016 #2 아, 불턱게 영 똥그랑ᄒᆞ게.(아, '불턱' 이렇게 동그랗게.)

105016 @ 예, 똥그랑ᄒᆞ게예?(예, 동그랗게요?)

105016 #2 ᄒᆞ쏠형 허곡. 또 이런.(조금해서 하고. 또 이런.)

105016 #1 그게 다 으지ᄒᆞ는 거주게.(그게 다 의지하는 거지.)

---

174) '워가'은 워ᄀᆞ라 등 미루지 않고 곧을 뜻한다.

105016 @ 예.(예.)

105016 #2 설 설 셀벡, ᄒᆞᆯ 놉은 딘 거기로 헹 불 ᄉᆞᆷ안 추곡[175] 경 헷주게.(설 설 석벽 조금 높은 데는 거기로 해서 불 때서 쬐고 그렇게 했지.)

105016 @ 예, ᄒᆞ끔 놉은 딘.(예, 조금 높은 데는.)

105016 #1 응, 응.(응, 응.)

105016 @ 그대로 허곡예.(그대로 하고요.)

105016 #2 응, 거기로 이런 ᄋᆞ추룩 영 헨 이추룩 헌 담이나 요만이 헌 엉[176] 잇인 딘 요레 벵ᄒᆞ게 돌아허근넹이 불 ᄉᆞᆷ앙 추곡게.(응, 거기로 이런 이처럼 이렇게 한 이처럼 한 담이나 요만큼 한 '엉' 있는 데는 요리로 빙 하게 돌아서 불 때서 쬐고.)

105016 @ 불 ᄉᆞᆷ아 추고예.(불 때어 쬐고요.)

105016 #2 상군불턱, 중군불턱, 똥군불턱[177] 헹 불턱도.('상군불턱,' '중군불턱,' '똥군불턱' 해서 '불턱'도.)

105016 @ 예.(예.)

105016 #2 서너 밧디 헹으넹에.(서너 군데 해서.)

105016 @ 예, 예. 그기 불 ᄉᆞᆷ젠 허문 물질허레 가젠 허면은.(예, 예. 거기 불 때려고 하면 물질하러 가려고 하면은.)

105016 #2 검질 지엉 가주.(김 지어서 가지.)

105016 @ 검질 지엉 가구나 이녁만썩예?(김 지어서 가구나 이녁만큼요?)

105016 #2 남 정 가곡.(나무 지어서 가고.)

105016 @ 예 낭 졍 가곡예.(예 나무 지어서 가고요.)

105016 #2 어.(어.)

105016 @ 거문 또 이제 것도 또 불 가차이 가는 사람도 잇곡. 또 상군, 중군, 똥군이엔 헤가지고.(그러면 또 이제 것도 또 불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상군,' '중군,' '똥군'이라고 해가지고.)

105016 #2 상군 불턱은게, 상군은 오레 살앙나오민. ᄄᆞ로 뒈고게. 중군ᄒᆞ고는 제기 오레 살지 못허여근에 확 ᄒᆞ게 나오민 ᄄᆞ로 불 추어사주. 상군이영 ᄀᆞ찌 못 추난게.('상군 불턱'은, 상군은 오래 살아서나오면. 따로 되고. 중군하고는 빨리 오래 살지 못해서 확 하게 나오면 따로 불 쬐어야지. 같이 못 쬐니까.)

105016 @ 예 계속 불을 때질 못허난예.(예 계속 불을 때질 못하니까요.)

105016 #2 으.(으.)

105016 @ 예, 예.(예, 예.)

105016 #2 경 ᄒᆞ난 게속 뗄ᄀᆞᆷ 잇어사 떼주게.(그렇게 하니까 계속 땔감 있어야 때지.)

105016 @ 응, 응.(응, 응.)

---

175) '추곡' '추다'은 쬐다, 쬐고, 불을 쬐고의 뜻이다.
176) '엉'은 낭떨어지 비슷이 된 암석(岩石)이다.
177) '똥군불턱'은 작업하는 기량이 부족한 해녀의 불턱을 말한다.

105016 #2 그디 이제 저 허지 못허민 일찍 가근에 검질 못 앗엉 간 사름은 그디 숨베기 다 비어근에.(그데 이제 저 하지 못하면 일찍 가서 검질 못 가지고 간 사람은 그 데 순비기나무 다 베어서.)

105016 @ 응.(응.)

105016 #2 물른 검질 ᄉᆞ이에 넣어서. 그 불 부찌멍 불 추곡 헷주. 검질은.(마른 김 사이에 넣어서. 그 불 붙이면서 불 쬐고 했지. 김은.)

105016 @ 검질은.(김은.)

105016 #2 어디 경 잇어서.(어디 그렇게 있었어.)

105016 @ 맞수다게. 집에서 지들커도 해야되고 경 ᄒᆞ난.(맞습니다. 집에서 땔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05016 #2 응, 경 ᄒᆞ난.(응, 그렇게 하니까.)

105016 @ 검질은 헤가지고예.(김은 해가지고요.)

105017 @ 그 아까 좀 전에 골앗주만은예 물질 헐 때 옷 있지 아니우꽈예?(그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요 물질 할 때 옷 있지 않습니까요?)

105017 #2 응.(응.)

105017 @ 맨 처음에는 그냥 소중이 헷다가.(맨 처음에는 그냥 소중의 했다가.)

105017 #2 소중이 헷엿단 그다음엔.(소중의 했다가 그다음에는.)

105017 @ 물옷.(물옷.)

105017 #2 고무옷이주게.('고무옷'이지.)

105017 @ 그 다음 고무옷예?(그 다음 '고무옷'요?)

105017 #2 예.(예.)

105017 @ 고무옷은, 저기 언제쯤?('고무옷'은, 저기 언제쯤?)

105017 #2 언제부터 헤신디 거 알아지크라? 우리가 입어나질 안 헤부난게.(언제부터 했는지 거 알아지겠니? 우리가 입어나질 안 해버리니까.)

105017 @ 아, 삼춘은 고무옷을 안 입어났구나예?(아, 삼촌은 '고무옷'을 안 입었었군요?)

105017 #2 그런 거 안 입어 봔.(그런 거 안 입어 봤어.)

105017 @ 어, 게난 고무옷 막 나와도 삼춘은 안 입어봅디가?(어, 그러니까 '고무옷' 금방 나와도 삼춘은 안 입어봤습니까?)

105017 #2 아니 원 우리 안 헤난에게.(아니 원 우리 안 했으니까.)

105017 @ 아예 안 헤 봔?(아예 안 해 봤어?)

105017 #2 응. 그 때 고무옷 나올 떼는 물질을 못헷주. 아판.(응. 그 때 '고무옷' 나올 때는 물질을 못했지. 아팠어.)

105017 @ 예, 예, 물질을 못헨예.(예, 예, 물질을 못해서요.)

105017 #2 응.(응.)

105017 @ 게난에 맞수다. 칠십 년대 후부터 고무옷이 막 나와시난. 칠십 년대 팔십 년대부터.(그러니까 맞습니다. 칠십 년대 후부터 '고무옷'이 막 나왔으니까. 칠

십 년대 팔십 년대부터.)

105017 #2 어느 떼부터.(어느 때부터.)

105017 @ 지금 큰아이가 몇 살 떼쯤에 저기.(지금 큰아이가 몇 살 때쯤에 저기.)

105017 #1 흔 오십꺼지 헤실 거난게.(한 오십까지 했을 거니까.)

105017 @ 예, 예, 오십 쉰 살꺼지 헤시난예?(예, 예, 오십 쉰 살까지 했으니까요?)

105017 #2 으.(으.)

105017 @ 어, 말부터 허난에 맞수다. 칠십 년대부터 들어와시난에. 예 고무옷 다음에예.(어, 말부터 하니까 맞습니다. 칠십 년대부터 들어왔으니까. 예 '고무옷' 다음에요.)

105018 @ 톳은? 톳 채취는? 옛날부터 다 저기 공동으로 헤신가마씨?(톳은? 톳 채취는? 옛날부터 다 저기 공동으로 했는가요?)

105018 #2 톨?(톳?)

105018 @ 예.(예.)

105018 @ 톨 톳.(톳 톳.)

105018 #2 엿날부터 헷주. 그 받아가, 어촌계로헹 받아가기 시작ᄒᆞ난.(옛날부터 했지. 그 받아가, 어촌계로해서 받아가기 시작하니까.)

105018 @ 응, 어촌계 받앙 가기 시작ᄒᆞ난예.(응, 어촌계 받아서 가기 시작하니까요.)

105018 #2 응.(응.)

105018 @ 어촌계로 이거 받아가기는 언제부터 시작헤신고예?(어촌계로 이거 받아가기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요?)

105018 #2 어느 떼부터사 헤신디 뭐, 생각나크라?(어느 때부터야 했는지 뭐, 생각나겠어?)

105018 @ 그거는예.(그것은요.)

105018 #1 그게 에, 아마, 우리 정전뒈고.(그게 에, 아마, 우리 정전되고.)

105018 @ 아.(아.)

105018 #1 이 뭘 헤서 그.(이 뭘 해서 그.)

105018 @ 으.(으.)

105018 #1 어느 정도.(어느 정도.)

105018 @ 허니까 ᄒᆞ끔 지난예?(하니까 조금 지나서요?)

105018 #1 그 뭐가 나라가 쪼끔 안정 뒈가난.(그 뭐가 나라가 조금 안정 되가니까.)

105018 @ 응.(응.)

105018 #1 일본에서 그거를 수입을 헷거든. 우리나라 사람은 먹질 못헤서.(일본에서 그것을 수입을 했거든. 우리나라 사람은 먹질 못했어.)

105018 @ 예.(예.)
105018 #1 톨도.(톳도.)
105018 @ 응.(응.)
105018 #1 저거 일본 전량 막 수입헤 가근에.(저거 일본 전량 막 수입해 가서.)
105018 @ 응 맞수다.(응 맞습니다.)
105018 #2 일본 수입허여 가기 시작ᄒᆞ난에 톨 깝이 비쌋주게.(일본 수입해 가기 시작하니까 톳 값이 비쌌지.)
105018 @ 비쌋지예? 그전.(비쌌지요? 그전.)
105018 #2 응 경 ᄒᆞ단.(응 그렇게 하다가.)
105018 @ 음.(음.)
105018 #2 요즘 또 원 톨도 엇덴 헴수다.(요즘 또 원 톳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105018 @ 예, 예.(예, 예.)
105018 #2 저 바당에 다 무시것사 헴신디.(저 바다에 다 무엇이야 하고 있는지.)
105018 @ 게난 삼춘, 멘 처음 물질 헐 때는 그때는 공동으로 안 헤신게예? 개인적으로 허다근에.(그러니까 삼촌, 맨 처음 물질 할 때는 그때는 공동으로 안했네요? 개인적으로 하다가.)
105018 #1 아 아니 공동으로 헤서.(아 아니 공동으로 했어.)
105018 #2 공동으로.(공동으로.)
105018 @ 아 삼춘.(아 삼촌.)
105018 #2 그 때도 공동으로 홀 때주게.(그 때도 공동으로 할 때지.)
105018 @ 아 그때도 공동으로예?(아 그때도 공동으로요?)
105018 #2 응 다 헷주게.(응 다 했지.)
105018 @ 경 헤도 톳 잇어사 저 여름에 냉국도 헹 먹곡 설사 날 때 그거 뭰장 찍어근에 먹기도 허고.(그렇게 해도 톳 있어야 저 여름에 냉국도 해서 먹고 설사 날 때 그거 된장 찍어서 먹기도 하고.)
105018 #2 아니 게난 그런 거 ᄒᆞ는 거는게. 쯔끔 헤당 먹곡.(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것은. 조금 해다 먹고.)
105018 @ 먹곡.(먹고.)
105019 #2 톨 허체 ᄒᆞ레 갈 때도 ᄒᆞᆫ 줌 좁앙 왕 헹 먹곡게.(톳 '허채' 하러 갈 때도 한 줌 집어서 와서 해서 먹고.)
105018 @ 예, 예.(예, 예.)
105018 #1 거 집에서 먹는 거 정도는.(거 집에서 먹는 거 정도는.)
105018 @ 아.(아.)
105018 #1 다 뒈주게.(다 되지.)
105019 @ 우뭇가사리예? 우뭇가사리 천초엔 헙니까? 가시리엔 헙니까?(우뭇가사리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라고 합니까? 풀가사리라고 합니까?)

105019 #1 가시리.(풀가사리.)
105019 #2 아니여 저.(아니야 저.)
105019 #1 우뭇가사리 가시리.(우뭇가사리 풀가사리.)
105019 #2 우믜가 우믜는 우믜엥 ᄒᆞ곡.(우뭇가사리가 우뭇가사리는 우뭇가사리라고 하고.)
105019 @ 응.(응.)
105019 #2 그자 국 끌령 먹고 무시거 ᄒᆞ는 건 가시리.(그저 국 끓여서 먹고 무엇 하는 건 풀가사리.)
105019 @ 가시리?(풀가사리?)
105019 #2 ᄑᆞ레.(파래.)
105019 @ 예, 예.(예, 예.)
105019 #2 너페.(넓패.)
105019 @ 예, 예예.(예, 예예.)
105019 #2 전각, 경 헤근엥이.(청각, 그렇게 해서.)
105019 @ 예 전각헹 헤실.(예 청각해서 했을.)
105019 #2 또 ᄆᆞᆷ.(또 모자반.)
105019 @ 예, 이건 ᄆᆞᆷ 해신디. 우뭇가사리엔 헌 거가 ᄯᅳ로 엇인가마씨? 그냥 가시리?(예, 이건 모자반 했는데. 우뭇가사리라고 한 것이 따로 없는가요? 그냥 풀가사리?)
105019 #2 그냥 가시리. 우믓가시리가 아니고.(그냥 풀가사리. 우뭇가사리가 아니고.)
105019 @ 가시리?(풀가사리?)
105019 #2 응, 가시리? 우린 그자 그거 헤당. ᄂᆞ물 놓곡 헹 국 끌리민.(응, 풀가사리. 우린 그저 그거 해다가. 나물 놓고 해서 국 끓이면.)
105019 @ 국 끌려근에예.(국 끓여서요.)
105019 #2 국도 맛 좋곡.(국도 맛 좋고.)
105019 #1 어, 국이 맛이서.(어, 국이 맛있어.)
105019 @ 예, 예예.(예, 예예.)
105019 #1 가시리 국이.(풀가사리 국이.)
105019 @ 예 거문 우미는?(예 그러면 우뭇가사리는?)
105019 #2 우린 그자 저 헤당 발레여사. 솖앙 먹어 솖앙 여름에.(우뭇가사리는 그저 저 해다가 바래어야. 삶아서 먹어 삶아서 여름에.)
105019 @ 예.(예.)
105019 #1 그거 그거는 그 허옇게 그 춤 이 이슬에영 뭐헹 널엉 놔두면 허엿게 뒈면은 그걸 물 놓고 딸영.(그거 그거는 그 하얗게 그 참 이 이슬하고 뭐해서 널어서 놔두면 하얗게 되면 그걸 물 넣고 달여서.)
105019 @ 여름에.(여름에.)

105019 #2 그.(그.)
105019 @ 우무 만드는 거예?(우무 만드는 거요?)
105019 #1 응고시키면 우무가 뒈는 거주게.(응고시키면 우무가 되는 거지.)
105019 @ 예 .(예.)
105019 #2 거 우믜게 우믜.(거 우무 우무.)
105019 @ 예 우믜예.(예 우무요.)
105019 #2 우믜 픈는 거.(우무 파는 거.)
105019 @ 우믜 픈는 거예.(우무 파는 거요.)
105019 #2 그 거지, 그 우믓 솖은 거주.(그 거지, 그 우뭇가사리 삶은 거지.)
105019 @ 예.(예.)
105019 #2 우믓가시리 거.(우뭇가사리 거.)
105019 @ 가시리는 크기가 ᄒᆞ끔 틀립니까?(가시리는 크기가 조금 다릅니까?)
105019 #2 응. 저 뭐야.(응. 저 뭐야.)
105019 #1 빨갓코 젠젠헤여.(빨갛고 자잘해.)
105019 #2 커도 요만이 커사 요만이주.(커도 이만큼 커야 요만이지.)
105019 @ 아, 한 삼 센 이 삼 센치?(아, 한 삼 센 이 삼 센티?)
105019 #2 응.(응.)
105019 #1 거 저.(거 저.)
105019 #2 빨강ᄒᆞ게시리 돌로.(빨갛게끔 돌로.)
105019 #1 거 돌 바닥에.(거 돌 바닥에.)
105019 @ 예, 예.(예, 예.)
105019 #2 돌바닥에.(돌바닥에.)
105019 #1 빨강케 나는 거.(빨갛게 나는 거.)
105019 @ 아 바닥에, 우미는 또 물속에서 ᄌᆞ물앙 나오는 거?(아 바닥에, 우미는 또 물속에서 채취해서 나오는 거?)
105019 #2 물속에도 ᄌᆞ물고 또 ᄀᆞᆺ디도 잇곡.(물속에도 채취하고 또 해변에도 있고.)
105019 @ 아.(아.)
105019 #2 경헌디 ᄆᆞᆯ른 딘 엇주게 우믜는.(그런데 마른 데는 없지 우뭇가사리는.)
105019 @ 예, 예, 우미는예.(예, 예, 우뭇가사리는요.)
105019 #2 응.(응.)
105019 #1 물 잇는 디가 잇주.(물 있는 데가 있지.)
105019 @ 응.(응.)
105019 #2 물 잇는 디가 잇곡.(물 있는 데가 있고.)
105019 @ 응.(응.)
105019 #2 ᄆᆞᆷ도 물 지픈디 거시 ᄆᆞᆷ이 좋곡.(모자반도 물 깊은데 것이 모자반이

좋고.)

105019 @ 예.(예.)

105019 #2 톨은 원 물 싸는디 나는 거난에 원 물 싸근엥에 ᄒᆞ곡. ᄒᆞ는 거주마는.(톳은 원 물 써는데 나는 거니까 원 물 써서 하고. 하는 거지마는.)

105020 @ 전복허고 소라는예? 전복허고 소라는? 어 옛날에는 다 저 공동 옛날에는 개인으로 하고? 이제 나중에는.(전복하고 소라는요? 전복하고 소라는? 어 옛날에는 다 저 공동 옛날에는 개인으로 하고? 이제 나중에는.)

105020 #2 네중에는 이제 그.(나중에는 이제 그.)

105020 #1 아 게난 그게 어촌계서 자기가 돈을.(아 그러니까 그 어촌계서 자기가 돈을.)

105020 #2 어촌계로.(어촌계로.)

105020 #1 받제[178]홀랴고 파는 거지. 풀기 실으면 앗아당 먹어도 뒈여 개인이.(받자하려고 파는 거지. 팔기 싫으면 앗아다가 먹어도 돼 개인이.)

105020 @ 응, 응.(응, 응.)

105020 #1 으.(으.)

105020 #2 아니 못 앗엉 와.(아니 못 앗아서 와.)

105020 #1 아니 게민 못 앗엉 와 안 ᄑᆞ는 디사 어떵 저거.(아니 그러면 못 앗아서 와 안 파는 데야 어떻게 저거.)

105020 #2 아니양, 그 저 거시기 어촌게로 헤여근엥에 그 무시거 허제[179] 허영 홀 때양.(아니요, 그 저 거시기 어촌계로 해서 그 무엇 '허채' 해서 할 때요.)

105019 @ 예.(예.)

105020 #1 으.(으.)

105020 #2 헐 때는 그기서 다 풀아야 뒈. 풀앙 경 헤영 초담에 헤놓고 네중에라 근넹이. 이제 두 번 헐 때 가정 왕. 이녁 자기가, 이제 제ᄉᆞᆺ 때나 뭐 홀 때 ᄒᆞ켄 헤영 가정 오민 헤도.(헐 때는 거기서 다 팔아야 돼. 팔아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두 번 할 때 갖고서 와서. 이녁 자기가, 이제 제사 때나 뭐 할 때 하겠다고 해서 갖고 오면 해도.)

105019 @ 예.(예.)

105020 #2 경 아녕은.(그렇게 안하면.)

105020 @ 응, 응.(응, 응.)

105020 #2 못 가정 와.(못 갖고 와.)

105020 @ 응 게난.(응 그러니까.)

105020 #2 거 어촌계장이양. 딱 들어상 그거 험네께.(거 어촌계장이요. 딱 들어서서 그거 합니다.)

105020 @ 응 게난 그거는 어쨋튼 공동이라는 거고예?(응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

178) '받제'는 받자다. 관아에서 환곡이나 조세 따위를 받아들이던 일을 말한다.

179) '허제'는 허채다.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 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든 공동이라는 거고요?)

105020 #2 예, 예.(예예.)

105020 @ 거 삼춘 처음에 헐 때는 전복허고 소라는 저, 사가는 사람 엇이난. 해다가.(거 삼춘 처음에 할 때는 전복하고 소라는 저, 사가는 사람 없으니까. 해다가.)

105020 #2 먹는 거.(먹는 거.)

105020 @ 집에 먹고예?(집에 먹고요?)

105020 #2 먹고 응.(먹고 응.)

105020 @ 건 처음엔 개인적으로 허다가 후제.(건 처음엔 개인적으로 하다가 후제.)

105020 #2 응.(응.)

105020 @ 어촌계로 변허고예?(어촌계로 변하고요?)

105020 #2 응.(응.)

105021 @ 어, 전복허고 소라가예. 종류가 잇어예.(어, 전복하고 소라가요. 종류가 있어요.)

105021 #2 종뉴.(종류는.)

105021 @ 거 암커허고.(거 암컷하고.)

105021 #2 응.(응.)

105021 @ 수커허고.(수컷하고.)

105021 #2 응.(응.)

105021 @ 또 크기허고.(또 크기하고.)

105021 #2 응.(응.)

105021 @ 또 부분적으로.(또 부분적으로.)

105021 #2 으.(으.)

105021 @ 저기 나누어서 거문 암컷은 뭐렌 헙니까?(저기 나누어서 그러면 암컷은 뭐라고 합니까?)

105021 #2 응, 암천복.(암전복.)

105021 @ 암천복.(암전복.)

105021 #1 거 수천복ᄒᆞ곡.(거 수전복하고)

105021 @ 아 수컷은?(아 수컷은?)

105021 #1 암전복 숫천복ᄒᆞ고 으.(암전복 숫전복하고 으.)

105021 @ 어, 수천복.(어, 수전복.)

105021 #1 숫천복은 오무룩ᄒᆞ게시리 좋코, 암천복은 베짝[180]허여.(수천복은 오목하게끔 좋고, 암전복은 '베짝'해.)

105021 @ 이거는 벳짝허고예. 예 베짝허고 이거는 오무룩허고예.(이거는 '베짝'하고요. 예 '베짝'하고 이거는 오목하고요.)

105021 #2 예.(예.)

---

180) '베짝'은 속이 다 드러날 정도로 밖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05021 @ 크기에 따라가지고.(크기에 따라가지고.)

105021 #2 어.(어.)

105021 @ 큰 거는?(큰 거는?)

105021 #2 큰 거 족은 거, 그자 그거는 큰 거여, 족은 거 아니 허영 근으로 요센 뜨민게 큰 무신 거 허곡.(큰 거 작은 거, 그저 그거는 큰 거다, 작은 거 아니 하여서 근으로 요새는 뜨면 큰 무슨 거 하고.)

105021 @ 예.(예.)

105021 #1 멧 키로짜리.(몇 킬로그램짜리.)

105021 #1 멧 키로짜리. 헤, 헤, 헤 헷.(몇 킬로그램짜리. 헤, 헤, 헤 헷.)

105021 @ 아 어.(아 어.)

105021 #2 멧 키로짜리ᄒᆞ곡 경 ᄒᆞ주.(몇 킬로그램짜리하고 그렇게 하지.)

105021 @ 아 요세는 헤도 아 엿날에는.(아 요새는 헤도 아 옛날에는.)

105021 #2 큰 것ᄁᆞ란 아이고 야야, 이건 솔빡 만인 ᄒᆞ키여 영 ᄒᆞ고.(큰 거보고는 아이고 야야, 이건 솔박 만큼 하겠어 이렇게 하고.)

105021 #1 어, 허, 허, 헛.(어, 허, 허, 헛.)

105021 @ 솔빡 만이? 이름은 ᄯᅮ로 업고?(솔박 만큼? 이름은 따로 없고?)

105021 #2 응, 아이고 요거 영 큰 전복 야야 이거 암천복이여. 수천복이여 허멍 요거 크민. 요거 크민 요거 아이고 야야 솔빡 만이 ᄒᆞ키여 게 영 ᄒᆞ고.(응, 아이고 요거 이렇게 큰 전복 야야 이거 암전복이여. 수전복이여 하면서 요거 크면. 요거 크면 요거 아이고 야야 솔박 만큼 하겠어 이렇게 하고.)

105021 #1 어, 허, 허, 헛.(어, 허, 허, 헛.)

105021 @ 아, 게문 모양에 따라가지고예 전복도 이름이 이실 거 아니꽈예?(아, 그러면 모양에 따라가지고요 전복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요?)

105021 #2 게메 모양이.(그러니까 모양이.)

105021 @ 어.(어.)

105021 #2 암천복ᄒᆞ고 수천복이 뜰려.(암전복하고 수전복이 달라.)

105021 @ 예, 예, 암천복허고 숫천복이 뜰리고.(예, 예, 암전복하고 수전복이 다르고.)

105021 #2 수천복이 모냥이 뜰려.(수전복이 모양이 달라.)

105021 @ 예 거.(예 거.)

105021 #2 경 ᄒᆞ곡 또 그 나머지 오분제기엔 헹도 잇곡.(그렇게 하고 또 그 나머지 떡조개라고 해서도 있고.)

105021 @ 응, 오분제기예.(응, 떡조개요.)

105021 #2 응.(응.)

105021 @ 오분제기 그.(떡조개 그.)

105021 #1 건, 전복새끼가 아니고 건 종류가 또 틀린 거야.(건, 전복새끼가 아니고 건 종류가 또 다른 거야.)

105021 @ 예.(예.)
105021 #2 응, 건 오분제기.(응, 건 떡조개.)
105021 #1 오분제기.(건 떡조개.)
105021 @ 전복새끼는 뭐엔 헙니까?(전복새끼는 뭐라고 합니까?)
105021 #2 전복새끼 몰르큰게 무시거엔 허는지. 허, 허, 허.(전복새끼 모르겠어 무엇이라고 하는지. 허, 허, 허.)
105021 #1 어, 허, 허, 허.(어, 허, 허, 허.)
105021 @ 전복도 이렇게 모양에 따라가지고, 저기 여긴 뭐엔 허고 여긴 뭐엔 허고 헐 건고예?(전복도 이렇게 모양에 따라가지고, 저기 여긴 뭐엔 하고 여긴 뭐엔 하고 할 건가요?)
105021 #2 아 게난 암천복 수천복 이주게 원 모양이.(아 그러니까 암전복 수전복이지 원 모양이.)
105021 @ 암천복?(암전복?)
105021 #2 으,(으.)
105021 @ 숫천복 모양이? 으.(수전복 모양이? 으.)
105021 #2 으 으, 그거 원 이거 암천복이여 이건 수천복이여. 영 그자 경 헤나난에 그자.(으 으, 그거 원 이거 암전복이다 이건 수전복이다. 이렇게 그저 그렇게 했으니까 그저.)
105021 @ 으 응.(으 응.)
105021 #1 맛도 틀리주. 암천복ᄒᆞ고, 수천복ᄒᆞ곡.(맛도 다르지. 암전복하고, 수전복하고.)
105021 @ 예.(예.)
105021 #1 으, 맛이 수천복이 좋지 아녀이?(으, 맛이 수전복이 좋지 아니해?)
105021 @ 으,(으.)
105021 #2 술이 지프주.(살이 깊지.)
105021 #1 술이 깊으고.(살이 깊고.)
105021 @ 아 살이 깊어마씨?(아 살이 깊어요?)
105021 #1 응.(응.)
105022 @ 그 테 테 테우에 대해서예? 떼?(그 떼 떼 떼배에 대해서예? 떼?)
105022 #2 꿰에?(깨?)
105022 @ 떼 떼.(떼 떼.)
105022 #2 떼에?(떼에?)
105022 @ 떼예, 테우 테우?(떼요, 떼배?)
105022 #2 세우?(새우?)
105022 @ 테우?(떼배?)
105022 #2 테우가 뭐라.(떼배가 뭐야.)
105022 #1 테베.(떼배.)

105022 @ 테배.(떼배.)
105022 #2 테베에.(떼배.)
105022 @ 아, 테베에 테배에 대해서 골아줍서. 그거 저기 만드는 거나 모양이나.(아, 떼배에 떼배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그거 저기 만드는 거나 모양이나.)
105022 #1 아, 그거는 이 삼나무 이 굵은 거.(아, 그거는 이 삼나무 이 굵은 거.)
105022 @ 예.(예.)
105022 #1 헤다가 그 가운데로 다 구멍 똘롸근에.(해다가 그 가운데로 다 구멍 뚫어서.)
105022 @ 예.(예.)
105022 #1 글로 그 이제 그 족게 그 만들어서 그 ᄉᆞ이에 다 나무를 찔렁.(거기로 그 이제 그 작게 그 만들어서 그 사이에 다 나무를 찔러서.)
105022 @ 응.(응.)
105022 #1 게서 그거, 마 이 통나무가 ᄒᆞᆫ 열개 정도는 들어야 뒐 거라.(그래서 그거, 뭐 이 통나무가 한 열개 정도는 들어야 될 거야.)
105022 @ 예.(예.)
105022 #2 열개로 못헙네다게.(열개로 못합니다.)
105022 #1 그레서 ᄒᆞ고 그 그 ᄒᆞᆫ 서너 곤데를 그 가온데 다 구멍 똘롸근에. 나무로 그 ᄉᆞ이에 끼워근에.(그래서 하고 그 그 한 서너 군데를 그 가운데 다 구멍 뚫어서. 나무로 그 사이에 끼워서.)
105022 @ 끼워근에예.(끼워서요.)
105022 #1 으 경 ᄒᆞ고 그거 잘 밧줄로도 잘 무끄곡.(으 그렇게 하고 그거 잘 밧줄로도 잘 묶고.)
105022 @ 응 종류가 무스거마씸?(응 종류가 무슨 거요?)
105022 #1 거이가 삼나무가 곧짝ᄒᆞ고.(거의가 삼나무가 곧고.)
105022 @ 저 삼나무가 곧짝?(저 삼나무가 곧아?)
105022 #1 으 응.(으 응.)
105022 @ 물에도 잘 뜨고?(물에도 잘 뜨고?)
105022 #1 응, 물에도 잘 뜨곡 그레서.(응, 물에도 잘 뜨고 그래서.)
105022 #2 저 잘 썩지도 아녀곡게.(저 잘 썩지도 아니하고.)
105022 @ 잘 썩지도 아녀곡예?(잘 썩지도 아니하고요?)
105022 #1 응.(응.)
105022 @ 예.(예.)
105022 #2 경 ᄒᆞ곡 그.(그렇게 하고 그.)
105022 #1 거이 삼나무로 이용헤여.(거의 삼나무로 이용해.)
105022 @ 예.(예.)
105022 #2 오그라지지도 안허곡 헤사.(오그라지지도 안하고 해야.)

105022 #1 게민 또 그 우에는 상자리엔 헌 걸 또 만들주.(그러면 또 그 위에는 상자리라고 한 것을 또 만들지.)

105022 @ 상자리?(상자리?)

105022 #1 응, 상자리 만들엉. 그기 대로헤서 엮어가지고 ᄒᆞ민. 그 우의 앚아둠서 낙씨질도 ᄒᆞ곡.(응, 상자리 만들어서. 거기 대로해서 엮어가지고 하면. 그 우의 앉고서 낚시질도 하고.)

105022 @ 응.(응.)

105022 #1 이제 거기서 밥도 먹곡.(이제 거기서 밥도 먹고.)

105022 @ 응 상자리.(응 상자리.)

105022 #1 고기 낙끄레 가민.(고기 낚으러 가면.)

105022 @ 거문, 고기도 낚앗주마는 미역 ᄌᆞ물 때 그걸로 그 우에 미역도 헤지민 거 우에 저기 허곡 헤신가마씨?(거문, 고기도 낚았지만 미역 채취할 때 그걸로 그 우에 미역도 해지면 그 위에 하고 했는가요?)

105022 #1 아 메역 허제 헐 때는 터베가 가근에. 듬북도 듬북 홀 때도 강 터베로 시꺼오곡.(아 미역 '허채' 할 때는 떼배가 가서. 듬북도 듬북 할 때도 강 떼배로 실어오고.)

105022 @ 터베로 시꺼오곡?(떼배로 실어오고?)

105022 #2 감테도게.(감태도.)

105022 #1 메역도 그것에 시꺼 오곡.(미역도 그것에 실어 오고.)

105022 @ 응.(응.)

105022 #1 거 다.(거 다.)

105022 @ 다헤근에예? 낚시도 허곡.(다해서요? 낚시도 하고.)

105022 #1 운반홀 수 잇는 건 다헤시난게.(운반할 수 있는 건 다했으니까.)

105022 @ 예.(예.)

105022 #1 그걸로.(그것으로.)

105022 @ 자리나, 자리도 그걸로 거리고예?(자리돔이나, 자리도 그걸로 거렸고요?)

105022 #1 응, 자리도.(응, 자리돔도.)

105022 @ 자리.(자리돔.)

105022 #2 자리 터베로 으, 터베로 걸럿주.(자리돔 떼배로 으, 떼배로 거렸지.)

105022 #1 자리 터베로 걸엇주.(자리돔 떼배로 거렸지.)

105022 @ 응.(응.)

105022 @ 터배로 거리고예?(떼배로 거리고요?)

105022 #2 응.(응.)

105022 @ 터베는 나가민 어느 정도까지 바당에 멀리 나가는고예?(떼배는 나가면 어느 정도까지 바다에 멀리 나가는가요?)

105022 #1 아, 멀리 못나가.(아, 멀리 못나가.)

105022 #2 너믜 멀겐 못 나가주게 터베라부난.(너무 멀게는 못나가지 떼배라 버리니까.)

105022 @ 응.(응.)

105022 #1 그게 동력도 엇고. 풍력도 엇고. 이거 순 힘으로만 이렇게 그 젓엉.(그게 동력도 없고. 풍력도 없고. 이거 순 힘으로만 이렇게 그 저어서.)

105022 @ 젓엉?(저어서?)

105022 #1 나가야 뒈곡.(나가야 되고.)

105022 @ 위로 젓엉예?(위로 저어서요?)

105022 #1 으응.(으응.)

105022 @ 그거는 젓는 거는 뭐렌 헙니까?(그거는 젓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105022 #1 네.(노.)

105022 @ 네?(노?)

105022 #1 응 네.(응 노.)

105022 @ 으응, 거난 요 넬 젓엉. 어딜 가리 헷구나예?(으응, 그러니까 요 노를 저어서. 어딜 갈까 했군요?)

105022 #1 으 응.(으 응.)

105022 @ 네예?(노요?)

105022 #2 응.(응.)

105022 @ 네는 젓을 때, 옆으로 젓지 아녀고 우이로 젓는구나예?(노는 저을 때, 옆으로 젓지 안하고 위로 젓는군요?)

105022 #2 아이 아니 읖으로.(아이 아니 옆으로.)

105022 #1 터베는 우이로 젓어. 그냥 이 거시기 선은.(떼배는 위로 저어. 그냥 이 거시기 선은.)

105022 @ 옆에서.(옆에서.)

105022 #1 응. 그거는 이제 이렇게 헤서 젓는디.(응.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젓는데.)

105022 @ 예 풍선은?(예 풍선은?)

105022 #1 터베는 뒤에 헤가지고 이렇게 그 젓주게.(떼배는 뒤에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젓지.)

105022 @ 예. 위로 젓는 거예. 게난 돗 배예? 돗 단 돗 헌거예?(예. 위로 젓는 거요. 그러니까 돛배요? 돛 단 돛 한 거요?)

105023 #1 응.(응.)

105023 @ 예, 그 이거 풍선예? 이거에 대해서 저기, 이 고성[181]은 배 만드는디도 이서나지 안헤수과?(예, 그 이거 풍선요? 이거에 대해서 저기, 이 '고성'은 배 만드는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105023 #1 이 고성에 배 만드는 디는 엇고 신양리[182]에 가면은 좀 잇엇고. 저

181) '고성'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행정마을 중 고성마을이다.

시흥리.[183](이 고성에 배 만드는 데는 없고 '신양'이에 가면은 좀 있었고. 저 '시흥'이.)

105023 @ 시흥리 그 옛날에?('시흥'이 그 옛날에?)

105023 #1 응.(응.)

105023 @ 응.(응.)

105023 #1 그 잇엇주. 게난 뭐 다 만들어서 사용헷주 무신 그걸.(그 있었지. 그러니까 뭐 다 만들어서 사용했지 무슨 그걸.)

105023 @ 응.(응.)

105023 #1 어디 간, 혜 육지 간 사단 쓰지는 안헷주. 그 준준흔 것들은.(어디 가서, 혜 육지 가서 사다가 쓰지는 안했지. 그 자잘한 것들은.)

105023 @ 예, 시흥리서예?(예, '시흥'이서요?)

105023 #1 응.(응.)

105023 @ 허고 이거는 이거 만드는 사람이 또 따로 전문가가 잇인 거 아닛꽈예?(하고 이거는 이거 만드는 사람이 또 따로 전문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요?)

105023 #1 응, 전문가 그건 아이고 베 짓는 목수가 상당헌 아주.(응, 전문가 그건 아이고 배 짓는 목수가 상당한 아주.)

105023 @ 예 하르버지가 배 헤기네 낚시도 헷덴 허지 안읍디가예?(예 할아버지가 배해서 낚시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105023 #1 응.(응.)

105023 @ 게문 배도 요즘 자가용 사는 것보다 더 비싼 거 아니우꽈? 옛날에예?(그러면 배도 요즘 자가용 사는 것보다 더 비싼 거 아닙니까요? 옛날에요?)

105023 #1 아.(아.)

105023 @ 말 아니 소 소만큼. 쉐만큼.(말 아니 소 소만큼. 소만큼.)

105023 #1 아.(아.)

105023 @ 가격은 해신가마씨예?(가격은 했는가요?)

105023 #1 거 글쎄 그 때도 거 뭐 얼마사 줫는지 건 알 수가 엇이난에.(거 글쎄 그 때도 거 뭐 얼마야 줬는지 건 알 수가 없으니까.)

105023 @ 응 헤가지고예. 그 돗은예? 풍선에 돗 잇지 안우꽈예?(응 해가지고요. 그 돛은요? 풍선에 돛 있지 않습니까요?)

105023 #1 예.(예.)

105023 @ 뭘로 만들어신고예?(뭘로 만들었는가요?)

105023 #1 천으로.(천으로.)

105023 @ 천?(천?)

105023 #1 이 광목 ᄀᆞ뜬 거.(이 광목 같은 거.)

105023 @ 광목으로? 광목 말아근에 초석자리 자리로 저 헤나진 안해신가예?(광

182) '신양이'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행정마을 중 신양마을이다.
183) '시흥이'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행정마을 중 시흥마을이다.

목으로? 광목 말아서 초석자리 자리로 저 했었지 안했는가요?)

105023 #1 거 거 초석으로 헹은 그게 얼마 전뎌 네질 안혀니까.(거 거 초석으로 해서는 그것이 얼마 견뎌 내지를 않으니까.)

105023 @ 아, 광목으로예?(아, 광목으로요?)

105023 #2 거 광, 아튼 멘 종뉴로 헷주게. 멘.(거 광, 아튼 면 종류로 했지. 면.)

105023 @ 멘으로예?(면으로요?)

105023 #2 으 멘 종류로?(으, 면 종류로.)

105023 #1 으 것도 ᄒᆞ나론 안 뒈주게. 그거.(으 것도 하나로는 안 돼지. 그거.)

105023 @ 멧 겹?(몇 겹?)

105023 #1 멧 겁 처네 아마 멘들아실 거라.(몇 겹 쳐서 아마 만들었을 거야.)

105023 @ 아, 겹쳐서예? 게문 풍선은? 이거 테우는 위로 젓엇주마는. 풍선은 그래도 노가 잇을 거 아니우꽈?(아, 겹쳐서요? 그러면 풍선은? 이거 떼배는 위로 저었지만. 풍선은 그래도 노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5023 #1 노, 노 젓주게.(노, 노 저었지.)

105023 @ 노 저어야지예?(노 저어야지요?)

105023 #1 것도 노주게. 무신 동력 아닌 건 다 노 젓시난게.(것도 노지. 무슨 동력 아닌 건 다 노 저었으니까.)

105023 @ 예, 예. 그 바람 탈 떼까지예?(예, 예. 그 바람 탈 때까지요?)

105023 #1 으 으.(으 으.)

105023 @ 거문 이 노 젓는 거는 옆으로 젓읍니까. 위로 젓읍니까? 풍선은?(거문 이 노 젓는 거는 옆으로 젓습니까. 위로 젓습니까? 풍선은?)

105023 #1 아 게난 노 젓는 것도 그런 그 풍선은 그 노가 두 곤데쯤 잇주게.(아 게난 노 젓는 것도 그런 그 풍선은 그 노가 두 군데쯤 있지.)

105023 @ 예.(예.)

105023 #2 뒤 또꼬망에 잇곡. 앞에 잇곡.(뒤 똥구멍에 있고. 앞에 있고.)

105023 #1 으.(으.)

105023 #2 헤실 거난게.(했을 거니까.)

105023 #1 으, 이제 전네여. 머신 뭐여 ᄒᆞ는디. 네가 두 게, 이제 둘이쯤 뒈어. 두 게를 가저서 젓어.(으, 이제 전노다. 무슨 뭐야 하는데. 노가 두 개, 이제 둘쯤 돼. 두 개를 가져서 저어.)

105023 @ 예, 예.(예, 예.)

105023 #1 그런 베는. 다른 거 젠젠ᄒᆞᆫ 거는 ᄒᆞ나만 젓어도 뒈는데.(그런 배는. 다른 거 자잘한 거는 하나만 저어도 되는데.)

105023 @ 예.(예.)

105023 #1 쪼끔 큰 거 풍선이나 헹 돗이나 달앙 어디 뎅기는 거는 네가 두 게 잇서.(조금 큰 거 풍선이나 해서 돛이나 달아서 어디 다니는 거는 노가 두 개 있어.)

105023 @ 예, 두 개 이서예.(예, 두 개 있어요.)

105023 #1 예.(예.)

105023 @ 두 개 잇인디 노 저을 떼는 그거를 노를, 머리 우에 놔근에.(두 개 있는데 노 저을 때는 그거를 노를, 머리 위에 놔서.)

105023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5023 @ 옆으로 놔기네?(옆으로 놔서?)

105023 #1 옆으로.(옆으로.)

105023 @ 여피서예.(옆에서요.)

105023 #1 응.(응.)

105024 @ 그 돗배에 저 그 앞에 허고 뒤에 명칭이 있지 안우꽈예? 이름예? 앞에는?(그 돛배에 저 그 앞에 하고 뒤에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요? 이름요? 앞에는?)

105024 #1 이물 고물.(이물 고물.)

105024 @ 이물 고물.(이물 고물.)

105024 #1 앞을 이물이엔 ᄒᆞ곡. 뒤를 고물이엔 ᄒᆞᆯ 거라.(앞을 이물이라고 하고. 뒤를 고물이라고 할 거야.)

105024 @ 앞을예? 이물에 이 사공아, 고물에 저 사공아예 허듯이예?(앞을요? 이물에 이 사공아, 고물에 저 사공아 하듯이요?)

105023 #1 응.(응.)

105024 @ 그다음 돗 단 거는 돗도 또 두 개 잇이문, 앞 돗 뒷 돗 헤신가마씨?(그다음 돛 단 거는 돛도 또 두 개 있으면, 앞 돛 뒤에 돛 했는가요?)

105024 #1 아 그 겐디 그거ᄁᆞ지는 확실히 나는 모르키여.(아 그 그런데 그거까지는 확실히 나는 모르겠어.)

105024 @ 아, 이물 고물? 아, 그리고 내릴 떼는 뭔가 요즘은 뭐 닻을 내린댄 허멍 허는디. 그 그 내리젠 허면은 그 뭐 물에 뭐 드리쳐근에?(아, 이물 고물? 아, 그리고 내릴 때는 뭔가 요즘은 뭐 닻을 내린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 그 내리려고 하면 그 뭐 물에 뭐 들이뜨려서?)

105024 #1 응.(응.)

105024 @ 그거를?(그거를?)

105024 #1 응, 그 닷. 그떼는.(응, 그 닻. 그때는.)

105024 #2 아이게 내려오젠 허문.(아이 내려오려고 하면.)

105024 #1 아 아 앙까[184]를 요즘은 쓰는디. 그 쒜로 뒌 거 영 헤근에.(아 아 앵커볼트를 요즘은 쓰는데. 그 쇠로 된 거 이렇게 해서.)

105024 @ 예, 예.(예, 예.)

105024 #1 그 앙까.(그 앵커볼트.)

105024 @ 아.(아.)

105024 #1 옌날은 돌고망 똘롸근에 그. 줄 헤근에 그 돌로도.(옛날은 돌구멍 뚫

184) '앙카'는 앵커볼트(anchor bolt) 공업 기초 볼트다.

어서 그. 줄 해서 그 돌로도.)
105024 @ 줄 무껑예.(줄 묶어서요.)
105024 #1 거 많이 헷주. 그거.(거 많이 했지. 그거.)
105024 @ 예.(예.)
105024 #2 무껑 들이청.(묶어서 들이뜨리어서.)
105024 #1 응.(응.)
105024 @ 예, 예, 예, 게난 그거를 뭐렌 골아신고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했는가요?)
105024 #2 닷 주는 거.(닻 주는 거.)
105024 #1 닷돌.(닻돌.)
105024 @ 닷돌?(닻돌?)
105024 #1 응.(응.)
105024 @ 아 닷돌. 닷돌로 ᄒᆞ고예?(아 닻돌. 닻돌로 하고요?)
105024 #1 응.(응.)
105024 @ 닷돌로 ᄒᆞ고, 내릴 때는 또 그냥 튀어 내리기도 허곡. 무시거 밟앙 내릴 거 널판지 놔근에도 내리기도 허곡.(닻돌로 하고, 내릴 때는 또 그냥 튀어 내리기도 하고. 무엇 밟아서 내릴 거 널판자 놓아서도 내리기도 하고.)
105024 #2 아이고.(아이고.)
105024 #1 헤.(헤.)
105024 #2 그거 널판지 허지 안형. 이런 저 거시기 터레 가까이, 죽 ᄒᆞ게시리.(그거 널판자 하지 안 해서. 이런 저 거시기 쪽으로 가까이, 죽 하게끔.)
105024 @ 부저놔근에.(붙여놔서.)
105024 #1 응 닷 닷.(응 닻 닻.)
105024 #2 그거 닷 뎃끼민. 뎃끼민 저딧 건해도 이짝더레 배 데껸 닷 데끼민 잡아 뎅기나 어떵ᄒᆞ민, 그레 왕 톡 튀곡. 경 안허민 발도 젓곡, 옷도 젓곡 헷주.(그거 닻 던지면. 던지면 저쪽 건해도 이쪽으로 참바 던져서 닻 던지면 잡아 던지나 어떻게 하면, 거기로 와서 톡 튀고. 그렇게 안하면 발도 젖고, 옷도 젖고 했지.)
105024 @ 응.(응.)
105024 #2 어디 경 발판 놓고 무시거 허곡 헤서?(어디 그렇게 발판 놓고 무엇 하고 했어?)
105024 #1 헤, 헤, 헤.(헤, 헤, 헤.)
105024 @ 허, 허 맞수다 어.(허, 허 맞습니다. 어.)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옷, 옷은 옛날은 옷은 헹 살아실 거 아니꽈? 옷은 헹 입엉 살아실 거 아니우꽈?(옷, 옷은 옛날은 옷은 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옷은 해서 입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106001 #2 아니 옷은 저.(아니 옷은 저.)

106001 #1 하, 하, 아니 옷이사 뭐.(하, 하, 아니 옷이야 뭐.)

106001 @ 예 옷감, 옷감?(옷감, 옷감?)

106001 #2 옷감게.(옷감.)

106001 @ 예.(예.)

106001 #2 엿날이사 광목게 옥양목벳기 더 이서서게?(옛날이야 광목 옥양목밖에 더 있었어?)

106001 @ 광목 옥양목예?(광목 옥양목요?)

106001 #2 응 옥양목.(응 옥양목.)

106001 @ 예.(예.)

106001 #2 광목, 미녕.(광목, 무명.)

106001 @ 예 미녕.(예 무명.)

106001 #2 베.(베.)

106001 @ 미녕 베.(무명 베.)

106001 #2 그런 거주게.(그런 거지.)

106001 @ 응 베허고 미녕허고 베허고 또.(응 베하고 무명하고 베하고 또.)

106001 #2 광목허고.(광목하고.)

106001 @ 광목허곡.(광목하고.)

106001 #2 광목허고 옥양목허고.(광목하고 옥양목하고.)

106001 @ 예.(예.)

106001 #2 경 ᄒᆞ곡게. 이 다른 거 바지허, 저슬에 입는 건 멩지ᄒᆞ곡게.(그렇게 하고. 이 다른 거 바지, 겨울에 입는 건 명주하고.)

106001 @ 멩지ᄒᆞ곡예?(명주하고요?)

106001 #2 예 경 ᄒᆞᆫ 거 벳기 더 이서서?(예 그렇게 한 거 밖에 더 있었어?)

106001 @ 으, 게난 광목이나 옥양목 이 그 미녕 같은 경우는 멘화헤기네. 그 집이서.(으, 그러니까 광목이나 옥양목 이 그 무명 같은 경우는 면화해서. 그 집에서.)

106001 #2 그 멘네헤영.(그 면화해서.)

106001 @ 멘.(면.)

106001 #2 이디서 짜?(이데서 짜?)

106001 #1 에.(에.)

106001 #2 고성선 짜보질 안혀고.('고성'에서는 짜보지를 안하고.)

106001 @ 예.(예.)

106001 #2 그자 그거 광목 상, 중의도 헹 입곡, 바지도 헹 입곡, 적삼도 헹 입곡.(그저 그거 광목 사서, 중의도 해서 입고, 바지도 해서 입고, 적삼도 해서 입고.)

106001 #1 음.(음.)
106001 #2 우리 치메도 헹 입곡.(우리 치마도 해서 입고.)
106001 @ 아.(아.)
106001 #2 경 헹 몸뻬[185]도 헤영 감 디렁 입곡.(그렇게 해서 몸뻬도 해서 감 들여서 입고.)
106001 @ 예.(예.)
106001 #2 경 헷주 미신.(그렇게 했지 무슨.)
106001 @ 응 사다근에?(응 사다가?)
106001 #1 응.(응.)
106001 @ 필요헌 거 상?(필요한 거 사서?)
106001 #1 으 응.(으 응.)
106001 @ 장에 강?(장에 가서?)
106001 #1 여기서 짜는 건 엇어서.(여기서 짜는 건 없었어.)
106001 @ 아, 멘네를 심지 안헤곡예?(아, 면화를 심지 안하고요?)
106001 #1 응.(응.)
106001 #2 멘네를 심어도.(면화를 심어도.)
106001 #1 거 저 이불이나.(거 저 이불이나.)
106001 #2 이불이나.(이불이나.)
106001 #1 이불이나 헷주.(이불이나 했지.)
106001 @ 예.(예.)
106001 #2 이불이나 ᄒᆞ끔헨 헷주.(이불이나 조금해서 했지.)
106001 @ 솜예 아.(솜요 아.)
106001 #2 그런 거 미녕 베 짜는 건 안 헤봔.(그런 거 무명 배 짜는 건 안 해봤어.)
106001 @ 예 에.(예 에.)

명주

106002 @ 예 에, 그 저기 그 명주실예?(예 에, 그 저기 그 명주실요?)
106002 #2 으.(으.)
106002 @ 멩주? 명주를 옛날에 만들어낫덴 허는디. 명주실을 어떵 만들어신고예?(명주? 명주를 옛날에 만들어났다고 하는데. 명주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요?)
106002 #1 건 누에씰로 허는 건디 우리 안 헤봣주게이.(건 누에실로 하는 건데 우리 안 해봤지.)
106002 #2 건 육지서 헤 밧, 허주.(건 육지서 해 봤, 하지.)
106002 #1 으.(으.)
106002 #2 우리 거 누에로 헤여근넹에 ᄒᆞ덴 헌디.(우리 거 누에로 해서 한다고

185) '몸뻬'는 일본말 (monpe) 몸뻬다. 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로 일 바지로 순화되었다.

하는데.)
106002 #1 누에고치로 헤서 거 씰 뽑앙 ᄒᆞ는 게 명주 거든게.(누에고치로 헤서 거 실 뽑아서 하는 것이 명주거든.)
106002 @ 예, 예, 예. 으 누에로.(예, 예, 예. 으 누에로.)
106002 #2 경 ᄒᆞ난 그런 건 이디선 안 헤보앗주게.(그렇게 하니까 그런 건 여기서는 안 해보았지.)
106002 #2 육지서 그런 건 허주.(육지서 그런 건 하지.)
106002 #1 여 여기서는.(여 여기서는.)
106002 @ 으 으.(으 으.)
106002 #1 누에고치도 별로.(누에고치도 별로.)
106002 @ 예.(예.)
106002 #1 뽕 뽕이 엇언.(뽕 뽕이 없어서.)
106002 @ 뽕이 엇언예.(뽕이 없어서요.)
106002 #2 이디서 누에 질루는.(이 데서 누에 기르는.)
106002 #1 에 그 그.(에 그 그.)
106002 #2 사람도 베랑 엇어.(사람도 별로 없어.)
106002 #1 헤긴 허여낫서 ᄒᆞ쏠썩.(하긴 했었어 조금씩.)
106002 @ 예.(예.)
106002 #1 ᄒᆞ쏠썩 ᄒᆞ는 사람은 헷는데. 그거 뭐 기업으로 건.(조금씩 하는 사람은 했는데. 그거 뭐 기업으로 건.)
106002 @ 예.(예.)
106002 #1 그거헤서 뭐 크게 돈 벌지도 안 헤실 거라.(그거해서 뭐 크게 돈 벌지도 안 했을 거야.)
106002 @ 집에 베틀도예? 베틀 잇인 집 잇어나지 안 헤신가마씨? 집에서.(집에 베틀도요? 베틀 있는 집 있었지 안 했는가요? 집에서.)
106002 #1 베틀이 어디서? 엇어.(베틀이 어디서? 없어.)
106002 @ 베는 어떵? 만들엉.(베는 어떻게? 만들어서.)
106002 #2 응?(응?)
106002 @ 베 베.(베 베.)
106002 #2 아니 베 게메, 우린 베 산 입엇주. 이디서 짠 입어보거나 허진 안 현.(아니 베 그러니까, 우린 베 사 입었지. 여기서 짜서 입어보거나 안 했어.)
106002 @ 어.(어.)
106002 #2 초석 ᄀᆞ뜬 건 짯주마는.(초석 같은 건 짰지만.)
106002 #1 어 엉.(어 엉.)
106002 @ 초석은 짜도예?(초석은 짜도요?)
106002 #2 응.(응.)
106002 #1 베는 저 삼으로 ᄒᆞ는 거주게 삼.(베는 저 삼으로 하는 거지 삼.)

106002 @ 예, 삼예 으.(예, 삼요. 으.)

106002 #1 삼으로 ᄒᆞ는 건디. 그거 헤여근에 베틀헹 그거.(삼으로 하는 건데. 그거 해서 베틀해서 그거.)

106002 #2 ᄒᆞ는 거 이디선 안 헤서.(하는 거 여기선 안 했어.)

106002 #1 응.(응.)

106002 #2 육지서 헷주.(육지서 했지.)

106003 @ 그 명주 종류를예? 명주에 종류를?(그 명주 종류를요? 명주에 종류를?)

106003 #2 아 종뉴를게, 게난에게 멩주바지 ᄒᆞ는 거 그자, 그냥 넨 것ᄀᆞ란 멩지.(아 종류를, 그러니까 명주바지 하는 거 그저, 그냥 낸 것보고는 명주.)

106003 @ 멩지.(명주.)

106003 #2 따시로 그냥 ᄒᆞᆫ 것ᄀᆞ란. 저 아이고 ᄀᆞᆮ젠 ᄒᆞ난 잊어뱀저. 눼지 안현 것ᄀᆞ란. 아이고 무시거엔 ᄒᆞ느니, 아이고 못 ᄀᆞᆯ으쿠다원.(다시로 그냥 한 것보고는. 저 아이고 말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려진다. 내지 안한 것보고. 아이고 무엇이라고 하니, 아이고 못 말하겠습니다.)

106003 @ 셍명주, 셍멩지?(생명주, 생명주?)

106003 #2 셍멩지엔도 허곡.(생명주라고도 하고.)

106003 @ 셍멩지?(생명주?)

106003 #2 예.(예.)

106003 @ 응 셍 셍명주?(응 생 생명주.)

106003 #2 셍멩주.(생명주.)

106003 @ 생명주?(생명주?)

106003 #2 으.(으.)

106003 @ 으 셍멩주 수아주엔도 헤나수과?(생명주 수아주라고도 헤나수과?)

106003 #2 응?

106003 @ 수아주? 건 아니고? 셍멩주?(수아주? 건 아니고? 생명주?)

106004 @ 게난 바지 허는 건 멩지엔 허고?(그러니까 바지 하는 건 명주라고 하고?)

106004 #2 아니 셍멩지로도 셍멩지론. 저 정벵이 적삼 헤낫주. 셍멩지.(아니 생명주로도 생명주로는. 저 잠방이 적삼 했었지. 생명주.)

106004 @ 정벵이 적삼예?(잠방이 적삼요?)

106004 #2 응 건 씨원ᄒᆞᆫ 거난.(응 건 시원한 거니까.)

106004 @ 응 이건 시원헌 거고예? 그냥 멩지는 겨울에 두터운 거.(응 이건 시원한 거고요? 그냥 명주는 겨울에 두터운 거.)

106004 #2 예 저울 이제 바지저고리 헹. 입는 거 ᄒᆞ고.(예 겨울 이제 바지저고리 해서. 입는 거 하고.)

106004 @ 예.(예.)

106004 #2 생멩지론 그 거시기.(생명주로는 그 거시기.)
106004 @ 응.(응.)
106004 #2 중이 적삼 헤나실 거라.(중의 적삼 했었을 거야.)
106004 @ 중이 적삼예.(중의 적삼요.)
106004 #2 또 게난 모시도 잇고.(또 그러니까 모시도 있고.)
106004 @ 응.(응.)
106004 #2 모시적삼 모시치메도 잇고게 그런 거.(모시적삼 모시치마도 있고 그런 거.)
106004 @ 으.(으.)
106004 #2 게난 이디선 그런 건 안 헤 봐수다게.(그러니까 이디서는 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
106004 @ 예.(예.)
106004 #2 산 그자 헨 입어난 거.(사서 그저 해서 입었던 거.)
106004 @ 예, 예.(예, 예.)
106004 #2 그자 경 소문 듣는 거주.(그저 그렇게 소문 듣는 거지.)
106005 @ 무명씰을 만들어실 껀디예?(무명실을 만들었을 건데요?)
106005 #1 게메 무명씰이 멘화헤서.(글쎄 무명실이 면화해서.)
106004 @ 예, 예.(예, 예.)
106005 #1 그 거시기로.(그 거시기로.)
106005 @ 뭐 그 도르레.(뭐 그 도르래.)
106005 #1 으.(으.)
106005 #2 돌리는 걸로 헤신디. 우린 그런 거 안 헤봐수다.(돌리는 걸로 했는데. 우린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106004 @ 으.(으.)
106005 #1 우린 안 헤봔.(우린 안 해 봔.)
106005 @ 으, 그 할머니도 저기.(으, 그 할머니도 저기.)
106005 #1 응 우리.(응 우리.)
106005 #2 아이고 이 고성.(아이고 이 '고성.')
106005 #1 우리 할머니네 헤도 안 헤 봔.(응, 우리 할머니네 해도 안 해 봤어.)
106005 @ 응 고성은 큰 디라부난예?(응 '고성'은 큰 데여서요?)
106005 #2 고성 안에선 그런 거 헌 건 엇수다게.('고성' 안에선 그런 거 한 건 없습니다.)
106005 @ 응 누에치기도 헤난데는 잇덴 허긴 헤도.(응 누에치기도 했던데는 있다고 하긴 해도.)
106005 #1 응.(응.)
106004 @ 예.(예.)
106005 #2 어예,[186] 허는 거 못보고.(순식간, 하는 거 못보고.)

106005 @ 허는 거 못보고.(하는 거 못보고.)

106005 #2 으.(으.)

106005 @ 고성은예 큰 디주게예? 옛날에 관중[187] 아니꽈예?(고성은요 큰 데지요? 옛날에 '관중' 아닙니까요?)

106005 #1 응.(응.)

106005 @ 게난 물품이 저기 쉬운 거주. 오일장 서기네예 허면은 으.(그러니까 물품이 저기 쉬운 거지. 오일장 서서 하면은 으.)

106005 #2 으.(으.)

무명

106007 @ 그 무명 종류에 대해서예?(그 무명 종류에 대해서요?)

106007 #2 미녕 종뉴게 무시거.(무명 종류는 무엇.)

106007 @ 무명 종류, 저 광목 뭐 생목, 토목 뭐 그런 식이.(무명 종류, 저 광목 뭐 생목, 토목 뭐 그런 식이.)

106007 #2 아니 게난 미녕 종뉴게. 광목 잇고게.(아니 그러니까 무명 종류는. 광목 있고.)

106007 @ 예.(예.)

106007 #2 ᄯᅳ시로게 그, ᄀᆞᆺ사 ᄀᆞᆯ아도, 잊어벼점저.(다시로 그, 아까 말해도, 잊어버려진다.)

106007 @ 광목, 미녕.(광목, 무명.)

106007 #2 광목 미녕.(광목, 무명.)

106007 #1 그런 거 잘 몰른다게.(그런 거 잘 모른다.)

106007 #2 핫 핫 맞주.(핫 핫 맞지.)

106007 @ 광목?(광목?)

106007 #2 응.(응.)

106007 @ 닷세무명, 엿세무명 그런 거?('닷세무명,' '엿세무명' 그런 거?)

106007 #1 헤, 헤헷.(헤, 헤헷.)

106007 @ 엇고예?(없고요?)

106007 #1 그런 거 들어보지도 안 헨.(그런 거 들어보지도 안 했어.)

106007 @ 토목 생목? 생목도 아니고 생목? 생목도 업고. 아깐 생미녕은 잇어도예.(토목 생목? 생목도 아니고 생목? 생목도 없고. 아까는 생무명은 있어도.)

106007 #2 셍멩지? 그거주.(생명주? 그거지.)

106007 @ 셍멩지는 거 명주고예?(생명주는 거 명주고요?)

106007 #2 으 그거주 원.(으 그거지 원.)

106008 @ 예 무명으론 어떤 옷? 만드는고예?(예 무명으로는 어떤 옷? 만드는가

186) '어예'는 瞬息間이다. '어이'라고도 한다.

187) '관중'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요?)

106008 #2 아, 미녕으론 아무 거라도 만들앗주게.(아, 무명으로는 아무 거라도 만들었지.)

106008 @ 전부예?(전부요?)

106008 #2 중의 적삼도 만들고게. 바지저고리도 노변 입곡게. 저 광목 치메도 헹 입곡.(중의 적삼도 만들고. 바지저고리도 누벼서 입고. 저 광목 치마도 해서 입고.)

106008 @ 예 치메.(예 치마.)

106008 #2 몸뻬도 헹 입고게.(몸뻬도 해서입고.)

106008 @ 예 몸뻬도 허고예?(예 몸뻬도 하고요?)

106008 #2 몸뻬 허여근넹이 엿날엔 감드려근넹이 일복으로 그자 느랑 입엉 뎅기는 거난게. 경 ᄒᆞ곡.(몸뻬해서 옛날엔 감물 들여서 일복으로 그저 늘 입어서 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106008 @ 예.(예.)

106008 #2 경 헷주.(그렇게 했지.)

106008 @ 예.(예.)

106008 #2 엿날에 무시거 헌 어른들싸 멩지바지저고릴 경 입어젓수꽈? 미녕으로 허곡.(옛날에 무엇 한 어른들이야 명주바지저고리를 그렇게 입어졌습니까? 무명으로 하고.)

106008 #1 허, 헛.(허, 헛.)

106008 #2 광목으로 허곡.(광목으로 하고.)

106008 @ 광목으로 허고예.(광목으로 하고요.)

106008 #2 경 헷주.(그렇게 했지.)

106008 @ 예.(예.)

106008 #2 저 ᄀᆞᆺ사 ᄀᆞᆯ아. 저 옥양목엔 헌 걸로 헹 입곡.(저 아까 말해. 저 옥양목이라고 한 걸로 해서 입고.)

106008 @ 옥양목으로예?(옥양목으로요?)

106008 #2 예, 경 헷주. 멩지엔 헌 게 경 소소사름이 헨 입어저수과? 엿날에.(예, 그렇게 했지. 명주라고 한 것이 그렇게 소소사람이 해서 입어졌습니까? 옛날에.)

106008 @ 맞수다. 예, 예, 예.(맞습니다. 예, 예, 예.)

106008 #2 요세들은 무신 비단이여 무신 무시거여.(요새들은 무슨 비단이다 무슨 무엇이다.)

106008 #1 헷, 헤, 헤.(헷, 헤, 헤.)

106008 @ 예.(예.)

106008 #2 무신 죽어갈 때도 무신 벨거 다 나왐젠 헙디다마는 원.(무슨 죽어갈 때도 무슨 별거 다 나온다고 합디다마는 원.)

106009 @ 응, 저기 토목이엔 헌 거 모르고예?(응, 저기 토목이라고 한 거 모르고요?)

106009 #2 양?(예?)

106009 @ 저기 토목예?(저기 토목요?)

106009 #2 예.(예.)

106010 @ 응 무명. 광목으로 만드는 거는, 광목으로 만드는 거는.(응 무명. 광목으로 만드는 거는, 광목으로 만드는 거는.)

106009 #2 예.(예.)

106010 @ 포장, 커텐 옛날에 포장이엔 허지 안읍니까? 무시거?(포장, 커튼 옛날에 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

106010 #2 포장?(포장?)

106010 @ 예, 옛날에 광목으로는 이불 헐 떼.(예, 옛날에 광목으로는 이불 할 때.)

106010 #2 이불 홀 떼 저 거시기 이불안.(이불 할 때 저 거시기 이불안.)

106010 @ 이불안?(이불안?)

106010 #2 응, 꺼풀이 아니고 이불안.(응, 거죽이 아니고 이불안.)

106010 @ 예 이불안.(예 이불안.)

106010 #2 아이 게난 꺼풀도 그것에 붉은 물이나 들영으넹에 꺼풀도 헤나수다 광목에.(아이 그러니까 거죽도 그것에 붉은 물이나 들여서 거죽도 했습니다 광목에.)

106010 @ 광목에예?(광목에요?)

106010 #1 붉은 물에 들영으네.(붉은 물에 들여서.)

106010 @ 예 꺼풀도 허곡.(예 거죽도 하고.)

106010 #1 아 멩지 ᄀᆞ뜬 걸로 이불 안이사 우읫 거 영 부찌는 거.(아 명주 같은 걸로 이불안이야 위에 거 이렇게 붙이는 거.)

106010 #2 아니 게메.(아니 그러니까.)

106010 @ 예.(예.)

106010 #2 그 엿날에 이제 나난 헷주. 엿날에 초담 그 막 홀 떼는게 광목에 붉은 물 드련에 저 이불 꺼풀ᄒᆞ고.(그 옛날에 이제 나니까 했지. 옛날에 처음 그 아주 할 때는 광목에 붉은 물 들여서 저 이불 거죽하고.)

106010 @ 이불 꺼풀도 허고예?(이불 거죽도 하고요?)

106010 #2 광목은 안, 흰 찬 안허고.(광목은 안, 흰 채는 안하고.)

106010 @ 예 흰 차는 안허고예?(예 흰 채는 안하고요?)

106010 #2 응, 우인 그자 물 들영 꺼풀ᄒᆞ고.(응, 위엔 그저 물 들여서 거죽하고.)

106010 @ 꺼풀허고 옷은?(거죽하고 옷은?)

106010 #2 응?(응?)

106010 @ 애기덜 옷은?(아기들 옷은?)

106010 #2 애기덜 옷덜은 그것에 흰 걸로 헹 입지곡. 또 물 들영으네 검은 물드려근에.(아기들 옷들은 그것에 흰 걸로 해서 입히고. 또 물 들여서 검은 물 들여서.)

106010 @ 응.(응.)

106010 #2 이제 무시거?(이제 무엇?)

106010 #1 버물지 안허게.(더럽지 안하게.)

106010 #2 버물지 안허게시리.(더럽지 안하게끔.)

106010 @ 감물?(감물?)

106010 #2 아레.(아래.)

106010 @ 예.(예.)

106010 #2 허영 저 요세 ᄀᆞ트민 춤, 요세민 팬티보다는 클 거여.(해서 저 요새 같으면 참, 요새면 팬티보다는 클 거다.)

106010 @ 예.(예.)

106010 #2 하, 하핫.(하, 하핫.)

106010 @ 예.(예.)

106010 #2 경 헹 아이덜 아레 ᄒᆞ나썩 입정. 무신 살마달[188] 입쩜수꽈? 무시 걸 헤수꽈?(그렇게 해서 아이들 아래 하나씩 입혀서. 무슨 '살마다'를 입혔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106010 @ 맞수다예.(맞습니다요.)

106010 #2 그걸 ᄒᆞ나헹 입지민. 그자 그거.(그걸 하나해서 입히면. 그저 그거.)

106010 @ 그거ᄒᆞ고.(그거하고.)

106010 #2 우의도 그자 무시거 푸린물이나 붉은 물이나 들여근넹이 우의 ᄒᆞ나 적삼 ᄀᆞ뜬 거 멘들아근에 입찌민 그거곡게.(위에도 그저 무엇 푸른 물이나 붉은 물이나 들여서 위에 하나 적삼 같은 거 만들어서 입히면 그거고.)

106010 @ 예.(예.)

106010 #2 여름은 나민 저 거시기 요센 말로 난닝구[189] 닮게시리.(여름은 되면 저 거시기 요샌 말로 러닝 같게끔.)

106010 @ 예.(예.)

106010 #2 광목으로 허여근에 헹 입지곡.(광목으로 해서 하여서 입히고.)

106010 @ 응.(응.)

106010 #2 광목은 다 경 필 차 사저수꽈? 엿날에 밀ᄀᆞ루 잘리.(광목은 다 그렇게 필 채 사졌습니까? 옛날에 밀가루 자루.)

106010 @ 응.(응.)

106010 #2 그거 헤여근에 저 살마다들.(그거 해서 저 '살마다'들.)

106010 #1 헷.(헷.)

---

188) '살마다'는 일본어 사루마다(さるまた)를 말하고 있다.

189) '난닝구'는 러닝셔츠(running shirt)를 일본어로 말하고 있다.

106010 #2 멘들멍 입엇주.(만들면서 입었지.)
106010 @ 예, 예, 예.(예, 예, 예.)
106010 #1 헤, 헤, 헤.(헤, 헤, 헤.)
106010 @ 살마다 허곡.('살마다' 하고.)
106010 #1 헤 헷.(헤 헷.)
106010 @ 그민 그 옛날에 천막 칠 때예? 천막은 무시 걸로 저 광목으로 해나지 안해신가마씨?(그면 그 옛날에 천막 칠 때요? 천막은 무엇으로 저 광목으로 했었지 안했는가요?)
106010 #1 아 광목도 헤낫서.(아 광목도 했었어.)
106010 @ 천막.(천막.)
106010 #1 이 엣날 그 이 권당끼리 그 종친회서 ᄒᆞ는 천막들은게. 광목으로 뒌 게 소위 해가림이주 그게.(이 옛날 그 이 친척끼리 그 종친회서 하는 천막들은. 광목으로 된 것이 소위 해가림이지 그게.)
106010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6010 #1 그 비나 이런 거 가림이 아니고.(그 비나 이런 거 가림이 아니고.)
106010 @ 아, 해가림?(아, 해가림?)
106010 #2 어, 어, 햇빛 가림 ᄒᆞ는 거는 광목 ᄀᆞ뜬 걸로 헷는데.(어, 어, 햇볕 가림 하는 거는 광목 같은 걸로 했는데.)
106010 @ 으.(으.)
106010 #2 게난 그 후에는 다 이 저 소위 가빠.(그러니까 그 후에는 다 이 저 소위 가빠.)
106010 @ 예, 예 후에는 가빠ᄒᆞ고예.(예, 예 후에는 가빠하고요.)
106010 #2 그 뚜거운 거.(그 두거운 거.)
106010 @ 예, 예 응.(예, 예 응.)
106010 #2 그거 헤서 다 천막덜 멘들앗주.(그거 해서 다 천막들 만들었지.)
106010 @ 응, 응.(응, 응.)
106010 #2 그레야 비까지도 가려지니까. 비가 안 들어.(그래야 비까지도 가려지니까. 비가 안 들어.)
106010 @ 예, 예.(예, 예.)
106010 #2 게 광목ᄀᆞ뜬 건 비 오민 뭐.(그럼 광목 같은 건 비 오면 뭐.)
106010 @ 확 젖어불곡예.(확 젖어버리고요.)
106010 #1 응.(응.)
106010 @ 예, 얍지롱허니깐예.(예, 얄찍하니까요.)
106010 #1 응.(응.)
106010 @ 그거에 비해서 무명은 쫌 두껍곡? 저기.(그거에 비해서 무명은 좀 두껍고? 저기.)
106010 #2 광목이나 미녕이나 비슷ᄒᆞ주.(광목이나 무명이나 비슷하지.)

106010 @ 비슷허여근네예?(비슷해서요?)

106010 #2 응.(응.)

106010 @ 음, 애기덜 삿 지셍기는 무시걸로 해신고? 저 시라목[190] 나오기 전에.(음, 애기들 샅 기저귀는 무엇으로 했는가? 저 '시라목' 나오기 전에.)

106010 #2 시라목 나오기 전이.('시라목' 나오기 전에.)

106010 @ 소창지[191] 나오기 전에.('소창지' 나오기 전에.)

106010 #2 시라목 나오기 전이 삿바 헤수꽈게?('시라목' 나오기 전에 샅바 했습니까?)

106010 @ 아.(아.)

106010 #2 애기구덕에 밀 갈아 낭 밀칩헤여근엥이 반찍[192] 털엉. 저 물유왓당 톡ᄒᆞ게. 그레 끌민 오줌은 싸민. 알러레 ᄂᆞ려민.(애기구덕에 밀 갈아 나서 밀짚해서 '반찍' 털어서. 저 말렸다가 톡하게. 그쪽으로 깔면 오줌은 싸면. 아래로 내리면.)

106010 @ 예.(예.)

106010 #2 마리 논 딘 마리가 젖이민. 헌옷으로 딲갓주만은 북덕방[193] 헌딘 그자 알러레 ᄂᆞ리민 젖어신디.(마루 놓은 데는 마루가 젖으면. 헌옷으로 닦았지만은 '북덕방' 한데는 그저 아래로 내리면 젖었는지.)

106010 #1 헤, 헷.(헤, 헷.)

106010 @ 응.(응.)

106010 #2 물라신디. 그자 살곡 이제 그것도 제기 골아주지 못허민 그것이 젖어.(말랐는지. 그저 살고 이제 그것도 빨리 갈아주지 못하면 그것이 젖어.)

106010 @ 예.(예.)

106010 #2 밀찝이.(밀짚이.)

106010 @ 예, 예.(예, 예.)

106010 #2 젖이민 그거 벳난디. 톡ᄒᆞ게 할망들은 널엇당. 또 에기 눅지고 경 헷주. 어디 삿바허곡 하간 거 헙니까게.(젖으면 그거 볕드는데. 톡하게 할머니들은 널었다가. 또 애기 눕히고 그렇게 했지. 어디 샅바하고 여러 가지 거 합니까.)

106010 #1 헤, 헤, 헤, 헤.(헤, 헤, 헤, 헤.)

106010 @ 예에.(예에.)

106010 #2 경 ᄒᆞ곡 ᄒᆞ끔 잇이난에. 이 광목 몸뻬덜 헤여네 입엉 헐민. 그거 튿어근엥이 알에 끌아으넹에 눅지곡.(그렇게 하고 조금 있으니까. 이 광목 몸뻬들 해서 입어서 헐면. 그거 뜯어서 아래에 깔아서 눕히고.)

106010 @ 애기덜 끌아근엥에 눅지곡예. 예에.(애기들 깔아서 눕히고요. 예에.)

106010 #2 경 헷주. 삿바 촐리곡 하간 거 아이고.(그렇게 했지. 샅바 차리고 여러 가지 것 아이고.)

---

190) '시라목' '시렁목'은 무명실로 짠 무명천중 하나를 말한다.
191) '소창지'는 이불의 안감이나 기저귓감 따위로 쓰는 피륙을 말한다.
192) '반찍' '펀찍'은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 상태를 말한다.
193) '북덕방'은 짚, 검불 따위가 난잡하게 깔린 방이다.

106010 @ 맞수다 예, 예.(맞습니다 예, 예.)

106011 @ 홍세미녕[194]에 대해서 골아줍서.('홍세미녕'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6011 #2 응?(응?)

106011 @ 홍세미녕.('홍세미녕.')

106011 #2 홍세미녕?('홍세미녕?')

106011 @ 예, 예.(예, 예.)

106011 #2 홍세미녕도 게 미녕으롤 ᄒᆞ는 사름 광목으로 ᄒᆞ는 사름.('홍세미녕'도 게 무명으로 하는 사람 광목으로 하는 사람.)

106011 @ 미녕이나 광목이나예?(무명이나 광목이나요?)

106011 #2 예.(예.)

106011 @ 이거는 홍세미녕, 저기 홍세함[195]에 들어가는 거엔 헙니까?(이거는 '홍세미녕,' 저기 '홍세함'에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까?)

106011 #2 예예, 경 ᄒᆞ곡 잘 ᄒᆞ는 딘 옥양목허곡.(예예, 그렇게 하고 잘 하는 데는 옥양목하고.)

106011 @ 아 홍세함에예.(아 '홍세함'에요.)

106011 #2 예.(예.)

106011 @ 거문 이거는 홍세미녕은 홍세함에 어느 정도 저기 놓는고예?(그러면 이거는 '홍세미녕'은 '홍세함'에 어느 정도 저기 넣는가요?)

106011 #1 ᄒᆞᆫ 필.(한 필.)

106011 #2 ᄒᆞᆫ 필이 다 안 들어갑니께 그거.(한 필이 다 안 들어갑니다 그거.)

106011 @ 아.(아.)

106011 #2 ᄒᆞᆫ 필이 막 하.(한 필이 아주 많아.)

106011 @ 아 ᄒᆞᆫ 필은 서른 자예?(아 한 필은 서른 자요?)

106011 #2 예.(예.)

106011 @ 자로 서른 자난에.(자로 서른자니까.)

106011 #2 게난 하난에 그거 다 안 들어갈 거우다. 난 원 서른, 열데 잔가.(그러니까 많으니까 그거 다 안 들어갈 겁니다. 난 원 서른, 열다섯 자인가.)

106011 @ 열데 자.(열다섯 자.)

106011 #2 거 원.(거 전혀.)

106011 @ 어.(어.)

106011 #2 스무 잔가 열데 잔가. 거 잘 몰르쿠다게.(스무 자인가 열다섯 자인가. 거 잘 모르겠습니다.)

106011 @ 으 응 경 헹 홍세함에만 놓는 거예?(으 응 그렇게 해서 '홍세함'에만 넣는 거요?)

106011 #1 응.(응.)

---

194) '홍세미녕'은 혼례를 치루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속에 넣는 무명이다.

195) '홍세함'은 혼례를 치루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納幣函). 함속에는 예장과 무명을 넣는다.

106011 #2 예, 홍세함에 경.(예, '홍세함'에 그렇게.)

106011 @ 거문 이거는 어른이 받앙 놔뒀다가.(그러면 이거는 어른이 받아서 놔두었다가.)

106011 #2 애기.(애기.)

106011 @ 예, 애기 낭 친정어멍이 받앙 놔뒀다가 삼승할망[196] ᄃᆞ리[197] 놔주거나예?(예, 애기 낳아서 친정어머니가 받아서 놔뒀다가 '삼승할망' 다리 놓아 주거나?)

106011 #2 예.(예.)

106011 @ 경 헤가지고.(그렇게 해가지고.)

106011 #2 어.(어.)

106011 @ 허기도 허곡 궤 속에 잇섯다기네예?(하기도 하고 궤 속에 있었다가요?)

106011 #2 예.(예.)

106011 @ 경 허곡. 이걸로 삿지셍기 헤낫덴 헌 말은 듣고? 허, 허.(그렇게 하고. 이걸로 삳기저귀 했었다고 한 말은 듣고? 허, 허.)

106011 #2 아니 삿지셍기도 헌 헨 딘 헤수다. 할마, 그거 경 행 허민. 그 홍세함을 오민. 이제 저 어디 뎅기는 어른은 저. 우리 고성은 하로산[198]이엔 헌디가 잇수다게.(아니 삳 기저귀기도 한 하는 데는 했습니다. 할머, 그거 그렇게 하면. 그 '홍세함'을 오면. 이제 저 어디 다니는 어른은 저. 우리 '고성'은 '하로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106011 @ 예, 예.(예, 예.)

106011 #2 그 디 이제 흔 발 흔 발 잔뜩 발곡. 세 뿜 나근엥이 저.(그 곳 이제 한 발 한 발 잔뜩 밟고. 세 뼘 놔서 저.)

106011 #1 짤랑.(잘라서.)

106011 #2 그듸 저 갑네다게. 저가.(그데 지어 갑니다. 지어가.)

106011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6011 #2 경 헨 헌 다음에는 삿발 헷든.(그렇게 하고 한 다음에는 삳바를 했던.)

106011 @ 예, 예.(예, 예.)

106011 #2 에기 지셍길 헷든 경 헤.(애기 기저귀를 했든 그렇게 해.)

106011 @ 맞수다. 본향[199]에 가져가근에.(맞습니다. 본향당에 가져가서.)

---

196) '삼승할망'은 삼승할망은 아이를 점지해준다는 산신(産神)으로 기자(祈子), 산육(産育),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생불할망인 명진국할망, 구천왕구불법 동이용궁할망, 마마신인 마누라)으로 산신(産神) 산육신(産育神)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신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다.

197) 'ᄃᆞ리'는 다리(橋)다. 삼승할망이 지나가는 다리(긴무명)로 어린 아이가 있는 집안 벽장에 동살장 할망에게 올리는 기다란 무명천이다.

198) '하로산'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마을 수호하는 본향당(本鄕堂) '울레ᄆᆞ루하로산당'이라고 해서 인근마을, 수산 1리, 2리, 고성, 오조, 신양 마을을 아우르는 본향당으로 하로산신이 주신이며 이당을 하로산당이라 한다.

106011 #2 예, 예, 예.(예, 예, 예.)

106011 @ 목화.(목화.)

106011 #1 요세는 그 보따리를 가져간뎅 ᄒᆞ데. 그 홍세함 싸난 포.(요새는 그 보따리를 가져간다고 하데. 그 '홍세함' 쌌던 보.)

106011 #2 응 것도 앗아가곡.(응 것도 가져가고.)

106011 @ 예 것도.(예 것도.)

106011 #2 것도 부쩌가고 헙니다게.(것도 붙여가고 합니다.)

106011 #1 아 그거영, 그거영 갖엉 가는 거라?(아 그거하고, 그거하고 가져가는 거야?)

106011 #2 예.(예.)

106012 @ 목화농사에 대해서예? 멘네 농사예? 골아줍서.(목화농사에 대해서요? 면화 농사요? 말해주십시오.)

106012 #2 멘네용ᄉᆞ 우리 안 헤보난 거 잘 몰라.(면화농사 우리 안 해보니까 난 거 잘 몰라.)

106012 @ 거문 어머니네가 뚤 시집 보내젠 허민 어쨋든 그 이불은 헤사 될 거난 농사.(그러면 어머니네가 딸 시집보내려고 하면 어쨌든 그 이불은 해야 될 거니까 농사.)

106012 #2 이불 홀 뗀 우린 저, 우리 큰 뚤 풀 땐. 저 어디니? 삼양[200]이냐? 그 이불집[201] ᄒᆞ는디 이제도 잇인가?(이불 할 땐 우린 저, 우리 큰 딸 팔 땐. 저 어디니? '삼양'이냐? 그 '이불집' 하는데 이제도 있는가?)

106011 @ 응.(응.)

106012 #2 그듸 멘네 쏨 ᄒᆞ난에. 그듸 간 이불 세 체 헤단에 허고.(그데 면화 솜 하니까. 그데 가서 이불 세 채 해다가 하고.)

106012 @ 허고예? 삼춘은마씨? 삼춘은?(하고요? 삼촌은요, 삼촌은?)

106012 #2 아이고 우리 씨집 갈 떼사. 아이고, 이불 솜 무시거. 이불 두어 게 헨 와근엥이.(아이고 우리 시집 갈 때야. 아이고, 이불 솜 무엇. 이불 두어 개 하고 와서.)

106012 @ 경 허난 이불 두 개 허난 그 이불을 허젠허난 솜 잇어사 될 거난. 그 솜은 어떵.(그렇게 하니까 두 개 하니까 그 이불을 하려고하니까 솜 있어야 될 거니까. 그 솜은 어떻게.)

106012 #2 게난 솜 사단 헤실 거주.(그러니까 솜 사다가 했을 거지.)

106012 @ 예 솜 사다근에예?(예 솜 사다가요?)

106012 #2 예.(예.)

---

199) '본향'은 본향당이다. 본향당(本鄕堂) 제주에서 마을의 토주관(土主官)인 본향당신을 모신 신당(神堂)으로. 마을의 생산(生産), 물고(物故), 장적(帳籍), 호적(戶籍)을 관장하며 일 년 제일(정월 신과세제, 이월 영등제, 칠월 백중제, 시월 시곡제)에 단골들에게 제향을 받는다.

200) '삼양'은 제주시 행정마을 중 삼양동을 말한다.

201) '이불집'은 이불을 만들고 장사하는 가게를 말하고 있다.

106012 @ 그 동네에서도 경 헤도 저 솜은 심어실 거 아니꽈게?(그 동네에서도 그렇게 해도 저 솜은 심었을 거 아닙니까?)
106012 #1 아이 이불 홀 솜 아이.(아이 이불 할 솜 아이.)
106012 #2 동네 이 동네 솜 심은 디 엇어.(동네 이 동네 솜 심은 데 없어.)
106012 @ 솜 심은 디 엇어예?(솜 심은 데 없어요?)
106012 #1 거 다 이불집이 간 사당 그.(거 다 이불집이 갔다 사다가 그.)
106012 #2 그 삼양.(그 '삼양.')
106012 @ 으.(으.)
106012 #2 그 이불 ᄒᆞ는 집이 강 사단에 헤엿주.(그 이불 하는 집에 가서 사다가 하였지.)
106012 @ 예, 예.(예, 예.)
106012 #2 나 씨집 갈 때도 경 ᄒᆞ고 나도 뚤덜.(나 시집 갈 때도 그렇게 하고 나도 딸들.)
106012 @ 예, 예.(예, 예.)
106012 #2 풀아도 그듸 가네 다 그.(팔아도 그데 가서 다 그.)
106012 @ 삼양 가근네?('삼양' 가서?)
106012 #2 삼영 가네 그 저 멘네 솜이엔 헤연.('삼양' 가서 그 저 면화 솜이라고 해서.)
106012 @ 예, 예.(예, 예.)
106012 #2 사단에 헷주.(사다가 했지.)
106012 @ 예.(예.)
106012 #2 이디서 헤연 헤보질 아년.(여기서 해서 해보지를 아니했어.)
106012 @ 예, 농사가 엇언예?(예, 농사가 없었어요?)
106012 #2 응.(응.)
106012 @ 예.(예.)

모시

106013 @ 그 다음에 모시예?(그 다음에 모시요?)
106013 #2 응.(응.)
106013 @ 모시, 모시실 만드는 거예? 그런 거 저기.(모시, 모시실 만드는 거요? 그런 거 저기.)
106013 #2 그런 것도 안 헤보고.(그런 것도 안 해보고.)
106014 @ 그런 거 안 헤보고예. 모시로 어떤 옷을 만들어신고? 모시는 잇어실 거 아니우꽈예? 옷.(그런 거 안 해보고요. 모시로 어떤 옷을 만들었는가? 모시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요? 옷.)
106014 #1 여름에 여름에.(여름에 여름에.)
106014 #2 아니, 모시옷은게 다 헤 아무 거라도 헷주게. 중의 적삼도 ᄒᆞ곡.(아

니, 모시옷은 다 해 아무 거라도 했지. 중의 적삼도하고.)
106013 @ 응.(응.)
106014 #2 중의 적삼도 헹 입곡게.(중의 적삼도 해서 입고.)
106012 @ 예 중의 적삼ᄒᆞ고.(예 중의 적삼하고.)
106014 #2 또 그 중의 적삼ᄒᆞ곡, 그거 허는 거주. 모시론 이 죽음이 옷이나 무시거 ᄒᆞ는 건.(또 그 중의 적삼하고, 그거 하는 거지. 모시로는 이 죽음의 옷이나 무엇 하는.)
106012 @ 그런 건 안 입어서.(그런 건 안 입어서.)
106014 #2 안 허난. 안ᄒᆞ난에 그자.(안하니까. 안하니까는 그저.)
106014 @ 여름에 간드렁이 입고.(여름에 간들거리게 입고.)
106014 #2 예, 간드렁ᄒᆞ게시리 적삼ᄒᆞ곡 중이ᄒᆞ곡.(예, 간들거리게끔 적삼하고 중의하고.)
106014 #1 모시론 안 ᄒᆞ여?(모시로는 안 해?)
106014 #2 안 ᄒᆞ여, 모신 안흡니다.(안 해, 모시는 안합니다.)
106014 @ 모시론 안 헹예?(모시론 안 해서요?)
106014 #2 예.(예.)
106014 @ 그러면 치마저고리 곱게 입어질 거면은.(그러면 치마저고리 곱게 입어질 거면.)
106014 #2 응 곱게 헹 입젠 ᄒᆞ민 치메ᄒᆞ곡 적삼ᄒᆞ곡.(응 곱게 해서 입으려고 하면 치마하고 적삼하고.)
106014 @ 치마허곡 적삼허고예?(치마허곡하고 적삼하고요?)
106014 #2 어, 경 헹 입엇주.(어, 그렇게 해서 입었지.)
106015 @ 경 헹 입엉예? 응 모시를, 저기 심어야 될 거 아니우꽈예? 그거는 또 아까 삼?(그러게 해서 입어서요? 응 모시를, 저기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요? 그거는 또 아까 삼?)
106015 #1 거 삼이주.(거 삼이지.)
106015 @ 아 거는 되고. 모시는 또 재배허는 거에 대해서는.(아 것은 되고. 모시는 또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106015 #1 에에, 우리 안 헤봐서 몰라.(에에, 우리 안 해봐서 몰라.)
106015 #2 그런 거 몰라.(그런 거 몰라.)
106015 @ 응.(응.)

삼

106016 @ 거문 삼예?(그러면 삼요?)
106015 #2 응.(응.)
106016 @ 아까 삼은 벤디. 삼실 만드는 거예? 베. 베실 만드는 거에 대해서?(아까 삼은 베인데. 삼실 만드는 거요? 베. 베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106016 #2 베 만드는 건, 베 만드는 건 저.(베 만드는 거나, 베 만드는 거나 저.)
106016 #1 삼이주게.(삼이지.)
106016 #2 저 삼으로 ᄒᆞ고.(저 삼으로 하고.)
106016 @ 예.(예.)
106016 #2 ᄃᆞ시로 모시로 모시는 그 저 무시거꽈게? 그.(다시로 모시로 모시는 그 저 무엇입니까? 그.)
106016 @ 예, 모시는 따로 잇수다.(예, 모시는 따로 있습니다.)
106016 #2 응, 그 무시거 키와근넹이 ᄒᆞ민 ᄒᆞᆫ 거. ᄀᆞᆺ사 하르방 ᄀᆞᆯ안게마는.(응, 그 무엇 키워서 하면 한 거. 아까 할아버지 말했는데만.)
106016 #1 그 그게 삼이주게.(그 그게 삼이지.)
106016 #2 그게 삼이꽈게?(그게 삼입니까?)
106016 #1 응.(응.)
106016 #2 거 모시 멘드는 건, 씰 ᄲᆞᆸ앙ᄒᆞ는 거난에 그 저.(거 모시 만드는 건, 실 뽑아서하는 거니까 그 저.)
106016 @ 누에?(누에?)
106016 #2 누에헤연에.(누에해서.)
106016 #2 응.(응.)
106016 #2 그저 누에 씰 ᄲᆞᆸ앙 ᄒᆞ는 것이 모시고. 삼은 베고.(그저 누에 실 뽑아서 하는 것이 모시고. 삼은 베고.)
106016 #1 응, 베 베.(응, 베 베.)
106016 @ 예 베 응, 모시는? 모시는 실 뽑앙 허는 건 누에고?(예 베 응, 모시는? 모시는 실 뽑아서 하는 건 누에고?)
106016 #2 응.(응.)
106016 #1 응.(응.)
106016 @ 누에고치고?(누에고치고?)
106016 #2 응.(응.)
106016 @ 모시는 또.(모시는 또.)
106016 #2 아니, 모신 누에고치 ᄲᆞᆸ앙ᄒᆞ는 거고.(아니, 모시는 누에고치 뽑아서 하는 거고.)
106016 @ 예.(예.)
106016 #2 삼 저.(삼 저.)
106016 #1 삼은.(삼은.)
106016 #2 베는.(베는.)
106016 #1 응.(응.)
106016 #2 삼으로 ᄒᆞ는 거고.(삼으로 하는 거고.)
106016 @ 삼으로 ᄒᆞ는 거고.(삼으로 하는 거고.)

106016 #2 으.(으.)
106016 @ 어, 누에고치 허는 건 비단 아니우꽈? 비단? 멩지?(어, 누에고치 하는 건 비단 아닙니까? 비단? 명주?)
106016 #1 응.
106016 #2 누에고치 ᄒᆞ는 건.(누에고치 하는 건.)
106016 @ 멩지. 멩지.(명주 명주.)
106016 #2 멩지?(명주?)
106016 @ 예 멩주 명주.(예 명주 명주.)
106016 #1 아, 맞아 맞아 게난 모시나 베나 다.(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모시나 베나 다.)
106016 @ 다 저 삼으로.(다 저 삼으로?)
106016 #2 삼으로 ᄒᆞ는 거.(삼으로 하는 거.)
106016 @ ᄒᆞ는 거예?(하는 거요?)
106016 #2 응.(응.)
106016 #1 삼으로 ᄒᆞ는 거.(삼으로 하는 거.)
106016 @ 아, 게난 이거는 잘 만드는 과정은 잘 모르키여예?(아, 그러니까 이거는 잘 만드는 과정은 잘 모르겠군요?)
106016 #1 응.(응.)
106016 #2 응 몰라.(응 몰라.)
106017 @ 응 거문 베로 만드는 옷은? 어떤 거가 잇입니까?(응 그러면 베로 만드는 옷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6017 #2 베로 만드는 것도게. 중의적삼벳기.(베로 만드는 것도. 중의적삼밖에.)
106017 @ 중의적삼예.(중의적삼요.)
106017 #2 무신 겨울옷은 못 헹 입는 거난.(무슨 겨울옷은 못 헹 입는 거니까.)
106017 @ 예.(예.)
106017 #2 죽음이 옷 그자. 세스방 ᄒᆞ젱ᄒᆞ민 이제 도복 ᄀᆞ뜬 거.(죽음의 옷 그저. 새서방 하려고하면 이제 도포 같은 거.)
106017 @ 도복?(도포?)
106016 #2 응.(응.)
106017 @ 아.(아.)
106017 #2 경 ᄒᆞ곡. 이제 잘 ᄒᆞ는 딘 도복허곡. 중의적삼 베로 허곡.(그렇게 학. 이제 잘 하는 데는 도포하고. 중의적삼 베로 하고.)
106017 @ 예.(예.)
106017 #2 또 멩지론 이제 바지저고리ᄒᆞ곡.(또 명주론 이제 바지저고리하고.)
106017 @ 예, 예.(예, 예.)
106017 #2 후르메[202]ᄒᆞ곡.(두루마기하고.)

106016 @ 응.(응.)
106017 #2 경 헤근엥에 허는.(그렇게 해서 하는.)
106017 @ 아 멩지로는 후르메 바지저고리 후르메? 후리메는 어떤 거우꽈?(아명주로는 두루마기 바지저고리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어떤 겁니까?)
106017 #2 후르메 후르메는 저.(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저.)
106017 @ 두르마기를?(두루마기를?)
106017 #1 두르마기 두르마기.(두루마기 두루마기.)
106017 #2 으, 두르마기.(으, 두루마기.)
106017 @ 아, 두르마기예.(아, 두루마기요.)
106017 #1 두르마기도 여름 거 잇고 겨울 거 잇다 말이여.(두루마기도 여름 거 있고 겨울 거 있다 말이다.)
106017 @ 예, 예.(예, 예.)
106017 #2 게난.(그러니까.)
106017 @ 베도.(베도.)
106017 #2 여름 거는.(여름 거는.)
106017 #1 여름 거는 창옷이엔 ᄒᆞ고.(여름 거는 창옷이라고 하고.)
106017 #2 창옷이고 겨울 거는.(창옷이고 겨울 거는.)
106017 #1 두르마기고.(두루마기고.)
106017 #2 후르메. 두르마기 아니고, 후르메.(두루마기. 두루마기 아니고, 두루마기.)
106017 @ 후르메예, 창옷이엔 허구나예?(두루마기요, 창옷이라고 하는군요?)
106017 #1 으.(으.)
106017 #2 응.(응.)
106017 @ 이 만큼(조사자가 오른팔을 들고서 그 팔 아래쪽으로 원을 그려 보인다.) 헌 거를 창옷?(이 만큼(조사자가 오른팔을 들고서 그 팔 아래쪽으로 원을 그려 보인다.) 한 거를 창옷?)
106017 #2 아니.(아니.)
106017 #1 그거는 기자.(그거는 그저.)
106017 #2 저 세스방 입엉 이 만큼((제보자#2)가 오른팔을 들고서 그 팔 아래쪽으로 원을 그려 보이며) ᄒᆞᆫ 거는 도복.(저 새서방 입어서 이 만큼(제보자#2)가 오른팔을 들고서 그 팔 아래쪽으로 원을 그려 보이며) 한 거는 도포.)
106017 @ 아, 도복.(아, 도포.)
106017 #1 그냥 보통으로 이 두르막. 이 저.(그냥 보통으로 이 두루마기. 이 저.)
106017 @ 예, 예.(예, 예.)
106017 #2 여름에 여름에.(여름에 여름에.)

202) '후르메'는 두루마기의 제주말이다.

106017 #1 이ᄀᆞ찌 아주 간단ᄒᆞ게 여름에 하얀 걸로.(이같이 아주 간단하게 여름에 하얀 걸로.)
106017 @ 예, 예.(예, 예.)
106017 #1 헤영 입는 게.(해서 입는 것이.)
106017 @ 창옷이꽈?(창옷입니까?)
106017 #1 응 창옷.(응 창옷.)
106017 @ 아 여름옷.(여름옷.)
106017 #1 여름 옷, 여름 옷.(여름 옷, 여름 옷.)
106017 @ 얍시롱ᄒᆞ게.(얄찍하게.)
106017 #2 예.(예.)
106017 @ 얍시롱ᄒᆞ게 헤서.(얄찍하게 해서.)
106017 #1 응.(응.)
106017 #2 그자 두르메기ᄀᆞ찌.(그저 두루마기같이.)
106017 @ 두르메기ᄀᆞ찌 입은 게.(두루마기같이 입은 것이.)
106017 #2 하얀 거 ᄒᆞᆫ 겁으로만 헤영.(하얀 거 한 겹으로만 해서.)
106017 @ 아.(아.)
106017 #1 응.(응.)
106017 #2 여름에 제ᄉᆞ 때 입주게.(여름에 제사 때 입지.)
106017 @ 예, 예.(예, 예.)
106017 #2 게난 그거는 두르메기.(그러니까 그거는 두루마기.)
106017 #1 아, 창옷.(아, 창옷.)
106017 #2 저 거시기 창옷.(저 거시기 창옷.)
106017 @ 창옷예?(창옷요?)
106017 #2 예.(예.)
106017 @ 아, 도복은 저 새스방?(아, 도포는 저 새서방?)
106017 #1 겨울에 입는 거.(겨울에 입는 거.)
106017 #2 아니 겨울에, 새스방 때만 입는 거.(아니 겨울에, 새서방 때만 입는 거.)
106017 @ 새스방 때만 입고.(새서방 때만 입고.)
106017 #2 또 큰일 때에.(또 큰일 때에.)
106017 @ 예.(예.)
106017 #2 멩질 때라도, 다 출령 입젠 ᄒᆞ민 그 도복을 입엉ᄒᆞ곡.(명절 때라도, 다 차려서 입으려고 하면 그 도포를 입어서 하고.)
106017 @ 도복을 입엉으네 허곡예?(도포를 입어서 하고요?)
106017 #2 응.(응.)
106017 @ 그게 이렇게 헌 거 아니우꽈예?(그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요?)
106017 #1 으 음.(으 음.)

106017 #2 그거 경 흔 거주.(그거 그렇게 한 거지.)
106017 @ 예.(예.)
106017 #2 저 어른네 웨갓칩이 이제도 입엄신가 도복?(저 어른의 외갓집에 이제도 입고 있는가 도포?)
106017 @ 그.(그.)
106017 #2 이제 안 입엄실 거라. 하르방 죽어불고 ᄒᆞ난. 허 허.(이제 안 입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 죽어버리고 하니까. 허 허.)
106017 #1 하르방 죽어불고 다 죽어부난.(할아버지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니까.)
106017 @ 아.(아.)
106017 #2 원 제사 때 강 보민 다 도복 입어근넹에.(원 제사 때 가서 보면 다 도포 입어서.)
106017 @ 도복 입어근에 절허곡예?(도포 입어서 절하고요?)
106017 #1 어.(어.)
106017 @ 예, 그때 머리에도 씁니까?(예, 그때 머리에도 씁니까?)
106017 #1 으응, 유건 쓰고.(으응, 유건 쓰고.)
106017 #2 유건 쓰고.(유건 쓰고.)
106017 @ 유건 쓰는 거예.(유건 쓰는 거요.)
106017 #2 검은 검은 거 무시거 ᄒᆞ나 쓰곡 헤근에.(검은 검은 거 무엇 하나 쓰고 해서.)
106017 @ 예.(예.)
106017 #2 경 허영 다 삼헌 출려근넹에 헤영 쯧쯧.(그렇게 해서 다 삼헌 차려서 해서 쯧쯧.)
106017 @ 제사 때도마씨?(제사 때도요?)
106017 #2 응, 제삿 때도 경 헙디다게.(응, 제사 때도 그렇게 합디다.)
106017 @ 서귀포 쪽에는 경 허는디 삼춘네 웨가는 저기 신양리 아니꽈예?(서귀포 쪽에는 그렇게 하는데 삼촌네 외가는 저기 '신양'이 아닙니까요?)
106017 #1 응.(응.)
106017 #2 신양리.('신양'이.)
106017 @ 신양리도예?('신양'이도요?)
106017 #1 응, 신양린디 우리 웨삼춘이 보통이 아닌 분이랏주.(응, '신양'인데 우리 외삼촌이 보통이 아닌 분이였지.)
106017 #2 아니 게난 초담.(아니 그러니까 처음.)
106017 @ 응.(응.)
106017 #2 고성 저 웃동네에 살아낫주.('고성' 저 윗동네에 살았었지.)
106017 @ 예.(예.)
106017 #1 볼레.(본래.)

106017 #2 경 ᄒᆞ난 신양리 간 사는디.(그렇게 하니까 '신양'이 가서 사는데.)

106017 @ 그 아.(그 아.)

106017 #2 이제 그 제삿 떼에 우리 웨할머니 웨하르버지 제사 때 강 보민, 삼헌을 사는디. 다 도복 입엉 상.(이제 그 제사 때에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사 때 가서 보면, 삼헌을 서는데. 다 도포 입어서 서서.)

106017 @ 예, 예.(예, 예.)

106017 #2 경 헹ᄒᆞ민.(그렇게 해서하면.)

106017 @ 어.(어.)

106017 #2 원 나 원 자꾸 저 도복을 저추룩 헹 헤놓민. 어떵 홀 건고 허멍 헹.(원 나 원 자꾸 저 도포를 저처럼 해서 해놓으면. 어떻게 할 건가 하면서 해서.)

106017 @ 예, 예. 우리도 어릴 적에 저기 그 제사 떼 도복을 입어근에예. 그 친정에서 보문예.(예, 예. 우리도 어릴 적에 저기 그 제사 때 도포를 입어서요. 그 친정에서 보면요.)

106017 #2 예.(예.)

106017 @ 헤난 거 보긴 헤낫수다마는 어느 순간부턴 안 헙디다머. 경 허긴 허는디. 음 도복이 그거가 베로 만든 거 아니우꽈예?(했던 거 보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턴 안 합디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음 도포가 그것이 베로 만든 거 아닙니까요?)

106017 #2 예.(예.)

106017 @ 베로 만든 거예? 예.(베로 만든 거요? 예.)

106017 #1 요센 베로도 만들고 요세는.(요새는 베로도 만들고 요새는.)

106017 @ 막 명주로도예.(아주 명주로도요.)

106017 #1 이 합성수지로도 막 멘들아.(이 합성수지로도 마구 만들어.)

106017 @ 아.(아.)

106017 #1 요세 우리 그 종친회에 그 도복, 그 제복을 만들주. 이렇게 ᄒᆞ영 그 유건 검은 모ᄌᆞ 혼디.(요새 우리 그 종친회에 그 도포, 그 제복을 만들지. 이렇게 하여서 그 유건 검은 모자 한데.)

106017 @ 예, 예.(예, 예.)

106017 #1 아 그거 합성수지로덜 요세 다 만드는 거.(아 그거 합성수지로덜 요새 다 만드는 거.)

106017 @ 합성으로.(합성으로.)

106017 #1 거 퍼렁 혼 거.(거 파랑 한 거.)

106017 @ 예 거 드러 입엉으네예.(예 거 마구 입어서요.)

106017 #1 헤, 헤, 헤, 헷.(헤, 헤, 헤, 헷.)

106017 @ 맞수다예.(맞습니다요.)

106018 @ 그 삼 재배예? 삼 재배에 대해서 아는 거 이시민 ᄀᆞᆯ아줍서.(그 삼 재배요? 삼 재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106018#1 삼 재베는 잘 몰르키여. 그게 삼 재베ᄒᆞ며는, 그게 삼이 상당이.(삼 재배는 잘 모르겠어. 그게 삼 재배하면은, 그게 삼이 상당히.)

106018 @ 높이 자라근넹에예.(높이 자라서요.)

106018#1 높이 자라곡. 뭘 헹 허며는. 그거 쫄라근에 그거 삼 껍덕 벳경 ᄒᆞ는 거주게. 그 껍질 벳경.(높이 자라고. 뭘 해서 하면. 그거 잘라서 그거 삼 껍데기 벗겨서 하는 거지. 그 껍질 벗겨서.)

106018 @ 예.(예.)

106018#1 그 껍질 벳경 ᄒᆞ민 그 껍질을 거 물류왕 씻엉 두드리면은 그게 막.(그 껍질 벗겨서하면 그 껍질을 거 말려서 씻어서 두드리면 그게 아주.)

106018 @ 막 감는 게예.(막 감는 것이요.)

106018#1 씰이 나와.(실이 나와.)

106018 #2 아니 그것이 꺼풀 벳경. 이제 그것이 솖아.(아니 그것이 껍질 벗겨서. 이제 그것이 삶아.)

106018 @ 예.(예.)

106018 #2 물에 놩 솖아. 그걸 이제 건저 네엉 물류아. 물류아근에 또 이제 두드리멍. 또 이제 그거를 뿔앙. 엿날에 경 헷주만은 요제는 세제로 헴실 거우다.(물에 놓아서 삶아. 그걸 이제 건저 내어서 말려서. 말려서 또 이제 두드리면서. 또 이제 그것을 빨아서.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은 요새는 세제로 하고 있을 겁니다.)

106018 @ 응.(응.)

106018 #2 엿날엔 경 솖으멍 뿔멍.(옛날엔 그렇게 삶으면서 빨면서.)

106018 @ 예 솖으멍 뿔멍.(예 삶으면서 빨면서.)

106018 #2 뚜드리멍 헷주만은.(두드리면서 했지만은.)

106018 @ 경, 실 잣젠 허민. 무거근에. 그거를 물레에 돌려근에예.(그렇게, 실 자으려고 하면. 묶어서. 그것을 물레에 돌려서요.)

106018 #2 에 예.(예, 예.)

106018 @ 예 경 헷구나예.(예 그렇게 했구나.)

106018 #2 아니 게난. 그것이 삼헤영 뿔앙, 하영케 만들 거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삼해서 빨아서, 하얗게 만들 거 아니?)

106018 @ 예.(예.)

106018 #2 만들민 그거를 한 알에에 이디서 역껑.(만들면 그거를 한 올에 여기서 엮어서.)

106018 @ 무릎에서 역껑근에예?(무릎에서 엮어서요?)

106018 #2 이거를 역껑. ᄌᆞ근ᄌᆞ근ᄒᆞ게 헤 놧당. 그 거시기에서.(이거를 엮어서. 자근자근하게 해 놨다가. 그 거시기에서.)

106018 #1 베틀에서.(베틀에서.)

106018 #2 베틀에서 이제 감아멍 다 이제 발르게[203] 해놩, 또 이젠 막뎅이 절

203) '발르게'는 발다로 물결이나 바람 따위가 가라앉아 잔잔하다는 뜻이다.

로 이레 다 헤영. 그거를 꼳짝 똑 ᄀᆞ뜨게. ᄀᆞ뜬 줄을 멘들엉 헤놩, 이제 풀 쒕 그걸 다.(베틀에서 이제 감으면서 다 이제 '발게' 해놔서. 또 이젠 막대기 저리로 이리 다 해서. 그것을 곧게 딱 같게. 같은 줄을 만들어서 해놔서, 이제 풀 쑤어서 그걸 다.)

106018 @ 아 이겨서 헷구나.(이겨서 했구나.)

106018 #2 ᄇᆞᆯ롸근엥이.(발라서.)

106018 @ 으.(으.)

106018 #2 그거시 ᄇᆞ짝 ᄒᆞ게 헤놩. 이젠 또 베틀에 걸엉으넹에 벨.(그것이 바짝 하게 해놓아서. 이제는 또 베틀에 걸어서 베를.)

106018 @ 벨 짰구나예.(베를 짰군요.)

106018 #2 응, 경 헹 짜나고.(응, 그렇게 해서 짰었고.)

106018 #1 이, 이거 넹기멍.(이, 이거 넘기면서.)

106018 @ 예.(예.)

106018 #2 영 게네 우리 엿날에 초석 찔르듯이. 그 씰을 꿰영. 이레 갓닥. 이레 찔럿닥. 영 헤근에 탁탁 두드리멍 경 헹 허듯이.(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초석 찌르듯이. 그 실을 꿰어서. 이리 갔다가. 이리 찔렀다가. 이렇게 해서 탁탁 두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하듯이.)

106018 @ 경 헹 허듯이예.(그렇게 하듯이요.)

106018 #2 경 ᄒᆞ는 게주.(그렇게 하는 거지.)

106018 @ 예.(예.)

106018 #2 게난 일로 ᄒᆞᆫ 번 찔르곡. 일로 ᄒᆞᆫ 번 찌르곡. 허멍. 영 허멍으네.(그러니까 이리로 한 번 찌르고. 이리로 한 번 찌르고. 이렇게 하면서.)

106018 @ 응.(응.)

106018 #2 탁 손으로 못 헹 발로 탁탁ᄒᆞ게시리 치멍 경 헹 헤난 거 닮으우다게. 경 헌디 잘 그거 모르쿠다게.(탁 손으로 못 해서 발로 탁탁하게끔 치면서 그렇게 해서 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데 잘 그거 모르겠습니다.)

106018 @ 응 게도 잘 알암신게마씨.(응 그래도 잘 알고 있네요.)

도구

106019 @ 경 허민, 씨아라 헌 걸 말 들어봅디가? 씨아? 씨아가 무슨 말인 줄 모르크라. 그 씨아가 그, 씨를 삼을 허민예? 씰이 뭴 거 아니우꽈예?(그렇게 하면, 씨아라 한 것을 말 들어봤습니까? 씨아? 씨아가 무슨 말인 줄 모르겠다. 그 씨아가 그, 씨를 삼을 하면요? 실이 될 거 아닙니까요?)

106019 #2 응, 응.(응. 응.)

106019 @ 거문 이거 빙글빙글 감는 거가 아닌가마씨?(그러면 이거 빙글빙글 감는 것이 아닌가요?)

106019 #1 거 모르크라.(거 모르겠어.)

106019 @ 실을 감아근에 감는 거?(실을 감아서 감는 거?)

106019 #2 건 나도 원 몰르쿠다.(건 나도 원 모르겠습니다.)

106019 @ 모르고예.(모르고요.)

106019 #2 그런 건 안 헤보난.(그런 건 안 해보니까.)

106019 @ 예 씨아.(예 씨아.)

106020 @ 물레는?(물레는?)

106020 #2 저기 물렌 영영 돌리는 거 그거 닮수다.(저기 물레는 영영 돌리는 거 그거 같습니다.)

106020 @ 예 경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예 그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요?)

106020 #2 예, 예.(예, 예.)

106020 @ 돌려가지고 그것도 저기 이, 삼허는 집은 잇어근에. 그거 할머니들이 허고예.(돌려가지고 그것도 저기 이, 삼하는 집은 있어서. 그거 할머니들이 하고요.)

106020 #1 아, 물레 잇인 딘 잇어. 여기도.(아, 물레 있는 데는 있어. 여기도.)

106020 @ 물레헤기네예 응.(물레해서요 응.)

106021 @ 베틀도 허지 안 헤수과예? 베틀도 허는 집이는? 그거.(베틀도 하지 안 했습니까요? 베틀도 하는 집은? 그거.)

106021 #1 응 베틀도 헷주게.(응 베틀도 했지.)

106021 @ 베틀도.(베틀도.)

106021 #1 베틀도 헤영 헷는데. 이 근방에는.(베틀도 하고서 했는데. 이 근방에는.)

106021 @ 그 옛날에도?(그 옛날에도?)

106021 #1 응 그 우리가 잇을 동안은 나 못 봣어.(응 그 우리가 잇을 동안은 나 못 봤어.)

106021 @ 응.(응.)

106021 #2 제주시 터렌 어딘 잇일 거우다. 거 거시기 터레 제주시 저 촌 더레.(제주시 쪽에는 어디는 있을 겁니다. 거 거시기 쪽으로 제주시 저 촌 쪽에.)

106021 @ 그 시에도 그 과양[204]예?(그 시에도 그 '광양'요?)

106021 #1 응.(응.)

106021 @ 옛날에 과양 헷던 사람들예. 들어보면은 그 한 다섯 집이 하나씩은 예 베틀이 잇어낫덴마씨.(옛날에 '광양'했던 사람들요. 들어보면 그 한 다섯 집에 하나씩은 베틀이 있었었다고요.)

106021 #1 응 그레는.(응 그쪽에는.)

106021 @ 거문 돌령 가와리가와리[205]허멍예.(그러면 돌려서 '가와리가와리'하면서하면서요.)

106021 #1 응.(응.)

106021 @ 가근에 밤에 짜기네 헷낫덴 들은 도레[206]는 잇수다마는 여기는 엇언

204) '과양'은 제주시 삼도1, 2동에 위치한 지경을 부르는 이름이다.

205) '가와리가와리'는 일본말 가오리가오리(かわりかわり) 인데 그 뜻과는 다르다. 여기서는 빌려서 돌아가면서 의미다.

예?(가서 밤에 짜서 했었다고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없고요?)

106021#2 여긴 원 엇수다게. 그런 거 헤본 디가 엇어.(여기는 원 없습니다. 그런 거 해봤었던 데가 없어.)

106021@ 예.(예.)

바느질

106022 @ 거문 바느질에 대해서예. 바느질예? 바느질 도구에 대해서, 도구 뭐. 가위니 무시거니 한번 굴아줍서. 바느질허게 되민?(그러면 바느질에 대해서요. 바느질요? 바느질 도구에 대해서, 도구 뭐. 가위니 무엇이니 한번 말해 주십시오. 바느질하게 되면?)

106022 #2 바농질 ᄒᆞ는 거게. 바농 쌍ᄌᆞᄒᆞ곡.(바느질 하는 거. 바늘 상자하고.)

106022 @ 바농상저.(바늘상자.)

106022 #2 또 ᄀᆞ세ᄒᆞ곡.(또 가위하고.)

106022 @ ᄀᆞ세?(가위)

106022 #2 응 ᄀᆞ세 그거ᄒᆞ곡. 손 도베ᄒᆞ곡게.(응 가위 그거하고. 손 골무하고.)

106022 @ 손 도메?(손 골무?)

106022 #2 도메에, 이디 영 찔렁.(골무에, 여기 이렇게 질러서.)

106022 @ 아 손 도베.(아 손 골무.)

106022 #2 바농질 홀 떼.(바느질 할 때.)

106022 @ 영 ᄒᆞ곡예?(이렇게 하고요?)

106022 #2 응 그거ᄒᆞ곡. 그거 벳기 더 잇어?(응 그거하고. 그거 밖에 더 있어?)

106022 @ 또 씰페ᄒᆞ고예?(또 실패하고요?)

106022 #2 씰 감는 거 씰페ᄒᆞ곡게.(실 감는 거 실패하고.)

106022 @ 아 씰페, 실페ᄒᆞ고 손 도메ᄒᆞ고 ᄀᆞ세ᄒᆞ곡 이것밧게 엇인가마씨? 바농상저에?(아 실패, 실패하고 손 골무하고 가위하고 이것밖에 없는가요? 바농상자에?)

106022 #1 나 원 몰르쿠다. 거 벳기 엇이난 바농ᄒᆞ곡게. 씰페ᄒᆞ곡. ᄀᆞ세ᄒᆞ곡 그거 벳기.(나 원 모르겠습니다. 그것 밖에 없으니까 바늘하고. 실패하고. 가위하고 그것 밖에.)

106022 @ 또 바농들 끼워 놓는 거 잇지 안우꽈?(또 바늘들 끼워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6022 #2 바농 끼워 놓는 거 게메.(바늘 끼워 놓는 거 그러니까.)

106022 #1 바농쌈지 ᄒᆞ곡.(바느질고리 하고.)

106022 #2 아니 게난 바농쌍지가 바농.(아니 그러니까 바느질고리가 바늘.)

106022 @ 응.(응.)

106022 #2 그거 놓는 건디. 그거는 머리꺼럭.(그거 놓는 건데. 그것은 머리카

206) '도레'는 도리(道理)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해 나갈 방도(方道)의 듯이나 여기서는 적의 뜻으로 쓰였다.

락.)
106022 @ 예 머리꺼럭 모아뒷당.(예 머리카락 모아두었다가.)
106022 #2 담아근에.(담아서.)
106022 @ 응.(응.)
106022 #2 담앙 요만이 ᄒᆞ게 멘들앙.(담아서 요만큼 하게 만들어서.)
106022 @ 예.(예.)
106022 #2 그거 이제 친 돌앙. 그 저 거시기(그거 이제 끈 달아서. 그 저 거시기.)
106022 #1 바농상지에.(바느질고리에.)
106022 #2 바농쌍지터레 톡, 돌아메영.(바느질고리에로 톡, 달아매어서.)
106022 @ 돌아메영?(달아매어서?)
106022 #2 응 그것에.(응 그것에.)
106022 @ 예.(예.)
106022 #2 영 꼽앗당.(이렇게 꼽았다가.)
106022 @ 예, 바농 일러불지 안허게끔예.(예, 바늘 잃어버리지 안하게끔요.)
106022 #2 응 꼽앗다근에 ᄒᆞ곡 경 헤낫주.(꼽았다가 하고 그렇게 했었지.)
106022 @ 그건 뭐렌 골아나신고예?(그건 뭐라고 말했는가요?)
106022 #1 으 허, 허, 허.(으 허, 허, 허.)
106022 #2 뭐 무시거엔사 골아신디마.(뭐 무엇이라고 말했었는지.)
106022 @ 응.(응.)
106022 #2 허, 허 몰르쿠다.(허, 허 모르겠습니다.)
106022 @ 음.(음.)
106022 #2 무시겐 곧는 건지.(무엇이라고 말하는 건지.)
106022 @ 씰 도메?(실 골무?)
106022 #2 게난 바농 바농쏨지엥 아니 바농쏨지 아니 바농이, 사 올 때 바농쏨지엔 홀 거라.(그러니까 바늘 바느질고리라고 아니 바느질고리 아니 바늘이, 사 올 때 바느질고리라고 할 거야.)
106022 @ 예.(예.)
106022 #2 혼 쏨지 ᄃᆞ렌 헤여근에 헹 사오는 거.(한 쌈지 달라고 해서 사오는 거.)
106023 @ 아.(아.)
106023 #2 경 헌디 그거 꼽으는 건 뭐 무시거엔사 헤신디 뭐.(그런데 그거 꼽는 건 무엇이 라고야 했는지 뭐.)
106023 @ 어, 씰페 예, 예.(어, 실패 예, 예.)
106023 #2 핫 핫.(핫 핫.)
106023 @ 바느질 방법 있지 안우꽈? 바늘.(바느질 방법 있지 않습니까? 바늘.)
106023 #2 바늘질 방법은 이녁 다 소관 뒈로난.(바느질 방법은 이녁 다 소관대

로니까.)
106023 @ 응.(응.)
106023 #2 웬짝ᄒᆞ는 사름은 웬짝. ᄂᆞᄃᆞᆫ짝 ᄒᆞ는 사름은 ᄂᆞ돈짝으로 ᄒᆞ난. 그건 원.(왼편짝만하는 사름은 왼편짝. 오른짝 하는 사름은 오른짝으로 하니까. 그건 원.)
106023 @ 웬짝 ᄂᆞᄃᆞᆫ짝 게니까.(왼짝 오른짝 그러니까.)
106023 #2 응, 웬짝으로 ᄒᆞ는 사름은 웬짝으로 헤영 바농질을 ᄒᆞ곡.(응, 왼짝으로 하는 사람은 왼짝으로 하여서 바느질을 하고.)
106023 @ 예.(예.)
106023 #2 오른짝으로 ᄒᆞ는 사람은.(오른쪽으로 하는 사람은.)
106023 @ 오른짝으로 ᄒᆞ고예.(오른쪽으로 하고예.)
106023 #2 오른 쪽으로 심엉ᄒᆞ곡. 경 ᄒᆞ난 어느 것이 맞은 건지도 나는.(오른쪽으로 잡아서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것이 맞은 것인지도 나는.)
106023 @ 게난 적삼에 허젠 허면은, 이렇게 크게 막 헐 때도 잇고. 막 춤춤이 헐 때도 잇고.(그러니까 적삼에 허젠 하면은, 이렇게 크게 아주 할 때도 있고. 막 촘촘히 할 때도 있고.)
106023 #2 아니게.(아니게.)
106023 @ 그런 거 감치기도 잇고 경.(그런 거 감치기도 있고 그렇게.)
106023 #2 아니 적삼 허는디. 막 크게 족게 ᄒᆞ는 게 엇수다.(아니 적삼 하는데. 아주 크게 작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106023 @ 응.(응.)
106023 #2 그자 춤 올케 뎅침이엔 ᄒᆞᆫ 건.(그저 참 올케 온땀침이라고 한 건.)
106023 @ 뎅침.(온땀침.)
106023 #2 뒷바농질 ᄒᆞ는 것ᄀᆞ라 뎅침.(‘뒷바농질’ 하는 것보고 온땀침.)
106023 @ 뎅침.(온땀침.)
106023 #2 응.(응.)
106023 @ 뒷바농질.(온땀침.)
106023 #2 예, 경 ᄒᆞ곡. 또 그냥 호는 거엔 ᄒᆞᆫ 건.(예, 그렇게 하고. 또 그냥 호는 거라고 한 거는.)
106023 @ 호는 거?(호는 거?)
106023 #2 응, 그냥 ᄌᆞ근ᄌᆞ근 ᄒᆞ게시리 영 호와기네 ᄒᆞ는 거고.(응, 그냥 조금조금 호게끔 이렇게 호아서 하는 거고.)
106023 @ 어, 어.(어, 어.)
106023 #2 원 그거 ᄒᆞ곡.(원 그거 하고.)
106023 @ 이거 감치는 거?(이거 감는 거?)
106023 #2 응.(응.)
106023 @ 호는 거?(호는 거?)
106023 #2 아 호는 거. 경 ᄒᆞ곡.(아 호는 거. 그렇게 하고.)

106023 @ 아 쪼금 쪼금.(아 조금 조금.)

106023 #2 또 영 무신 거 심엉 영 감치는 거.(또 영 무슨 거 잡아서 이렇게 감치는 거.)

106023 @ 예, 예. 감추는 거?(예, 예. 감치는 거?)

106023 #2 예, 그거 ᄒᆞ곡 경 헹 원 세 가지.(예, 그거 하고 그렇게 해서 원 세 가지.)

106023 @ 감치는 거?(감치는 거?)

106023 #2 예.(예.)

106023 @ 호는 거는 조금씩 쪼금씩 헤근에.(호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해서.)

106023 #2 예.(예.)

106023 @ 허곡 감치는 거 허곡 뒷바늘질은?(감치는 거 허고 온땀침은?)

106023 #1 뎅침.(온땀침.)

106023 @ 영 헤근에 이렇게 헹 나와근에.(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서.)

106023 #2 아니, 이거 바농을 영 찔렁.(아니, 이거 바늘을 이렇게 질러서.)

106023 @ 예.(예.)

106023 #2 영 ᄒᆞ민, 이제 이것이 ᄒᆞᆫ 그믓 갈 거 아니우꽈?(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이 한 땀 갈 거 아닙니까?)

106023 @ 예 ᄒᆞᆫ 그믓 가민 또 뒤로.(예 한 땀 가면 또 뒤로.)

106023 #1 게민 그 ᄉᆞ이로.(그러면 그 사이로.)

106023 @ 예.(예.)

106023 #1 또 ᄒᆞᆫ 그믓 놔방.(또 한 땀 놓아 보아서.)

106023 @ 또 ᄒᆞᆫ 그믓 아피 가고.(또 한 땀 앞에 가고.)

106023 #1 또 ᄒᆞᆫ 그믓 영 ᄒᆞ고. 경 ᄒᆞ고 그자 호는 거엔 헌. 건 이거 바농이민 영 영 심어근에. 영 영 영 잡아 뗑경ᄒᆞ는 거고.(또 한 금 영 하고. 그렇게 하고 그저 호는 거라고 하는. 건 이거 바늘이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호는 거고.)

106023 @ 짭아 뎅겨서?(잡아 당겨서?)

106023 #1 또 요거 영 심엉 영영 ᄀᆞᆷ추와 오는 건 ᄀᆞᆷ추는 거고.(또 요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감쳐서 오는 건 감치는 거고.)

106023 @ 예 그거는 감추는 거 허고예?(예 그거는 감치는 거 하고요?)

106023 #1 응.(응.)

106023 @ 이거 세 개민 다 헤신게마씨?(이거 세 개면 다 했겠네요?)

106023 #2 예.(예.)

106023 @ 이 뎅침이엔 허며는 ᄃᆞᆫᄃᆞᆫᄒᆞ게 뒐 거 아니우꽈?(이 온땀침이라고 하면 단단하게 될 거 아닙니까?)

106023 #2 응?(응?)

106023 @ ᄃᆞᆫᄃᆞᆫᄒᆞ게.(단단하게.)

106023 #2 예?(예?)
106023 #2 빠지지 안허고.(빠지지 안하고.)
106023 #2 예. 빠지지 안혀게 든든ᄒᆞ게 ᄒᆞ는 게 뎅침.(예. 빠지지 안하게 단단하게 하는 것이 온땀침.)
106023 @ 뎅침예?(온땀침요?)
106023 #2 예.(예.)

옷 종류

106024 @ 옷 종류에 대해서 남자 옷 종류에 대해서 ᄀᆞᆯ아줍서?(옷 종류에 대해서 남자 옷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6024 #2 남ᄌᆞ 옷 종류엔게 바지저고리.(남자 옷 종류에는 바지저고리.)
106024 @ 바지저고리.(바지저고리.)
106024 #2 예, 그거 두르메기.(예, 그거 두루마기.)
106024 @ 저고리 두르메기.(저고리 두루마기.)
106024 #2 후르메.(두루마기.)
106024 @ 후르메 또.(두루마기 또.)
106024 #2 예, 경 ᄒᆞ고 그거주게 무신.(예, 그렇게 하고 그것이지 무엇.)
106024 @ 후르메 또.(두루마기 또.)
106024 #1 바지저고리, 정벵이 적삼.(바지저고리, 잠방이 적삼.)
106024 #2 정벵이 적삼.(잠방이 적삼.)
106024 @ 정벵이 적삼.(잠방이 적삼.)
106024 #1 거 여름 거. 어 허, 허헷.(거 여름 거. 어허, 허헷.)
106024 @ 어 허, 허.(어 허, 허.)
106024 #2 이제 또 창옷.(이제 또 창옷.)
106024 @ 창옷ᄒᆞ고(창옷하고.)
106024 #2 응 창옷 경 ᄒᆞ곡.(응 창옷 그렇게 하고.)
106024 @ 조끼도 조끼, 마고지.(조끼도 조끼, 조끼 마고자.)
106024 #2 아이, 게난 조끼는 요세난 조끼주.(그러니까 조끼는 요새니까 조끼지.)
106024 #1 허 헷(허헷.)
106024 @ 아 엇어수꽈?(아 없었습니까?)
106024 #2 옛날엔 쪼끼가 잇서수꽈?(옛날에는 조끼가 있었습니까?)
106024 @ 예.(예.)
106024 #2 게난 쪼기도게. 춤 저슬 거 잇고. 여름 거 잇곡 허주게.(그러니까 조끼도. 참 겨울 거 있고. 여름 거 있고 하지.)
106024 @ 아, 이제난 허난예?(아, 이제니까 하니까?)
106024 #2 예.(예.)

106024 @ 쪼기허고예. 이 겨울에 옷을 헤기네 입어근에. 여름에 옷을 그 그게 여름 들어가민 감옷헤기네. 감물 들영 허곡. 겨울 들어가면은 또 옷하나 만들어지면은 속곳은 옛날에 내복이엔 헌 건 엇이난. 또 새 옷 만들민 그 우에 입어근에. 속옷은 헌 옷으로 입곡. 경 헤나신가마씨?(조끼하고요. 이 겨울에 옷을 해서 입어서. 여름에 옷을 그 그게 여름 들어가면 갈옷해서. 감물 들여서 하고. 겨울 들어가면 또 옷 하나 만들어지면 속곳은 옛날에 내복이라고 한 건 없으니까. 또 새 옷 만들면 그 위에 입어서. 속옷은 헌 옷으로 입고. 그렇게 했는가요?)

106024 #2 옛날엔게.(옛날에는.)

106024 @ 예.(예.)

106024 #2 춤 무신 속옷이 춤 펜티가 잇어수꽈게?(무슨 속옷이 참 팬티가 있었습니까?)

106024 @ 예예, 예.(예예, 예.)

106024 #2 춤 바지허민 바지 입어근엥이 그자 살고.(참 바지하면 바지 입어서 그저 살고.)

106024 @ 예.(예.)

106024 #2 여름은 나민 정벵이적삼 입으민 그자 살곡.(여름은 나면 잠방이적삼 입으면 그저 살고.)

106024 @ 예, 예.(예, 예.)

106024 #2 경 헷주.(그렇게 했지.)

106024 #1 옛날 정벵이 입으민. 빤스[207] 안 입엉 입으민 들랑들랑헤서.(옛날 잠방이 입으면. 팬티 안 입어서 입으면 들렁들렁해서.)

106024 @ 아 아 아, 아.(아 아 아, 아.)

106024 #2 옛날에.(옛날에.)

106024 @ 하, 하.(하, 하.)

106024 #1 하, 하하, 핫.(하, 하하, 핫.)

106024 #2 춤 웃으운 말 곧저.(참 우스운 말 말하지.)

106024 @ 아.(아.)

106024 #2 고성 저, ○○이엔 헌 어른 잇서수다. 겐디 그 어른 할량이라.(고성 저 ○○이라고 한 어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 한량이야.)

106024 @ 아.(아.)

106024 #2 할량인디. 그 어룬은 여름 나민 모시적숨, 이제.(한량인데. 그 어른은 여름 나면 모시적삼, 이제.)

106024 @ 아.(아.)

106024 #2 모시 정벵일 입엉, 고성장[208] 말앙 '성산장'[209]에 가젱 ᄒᆞ민. 그건

207) '빤쓰' 팬티 일본발음으로 빤쓰(pantsu), 팬티(pants)다.

208) '고성장'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마을 장(場) 시장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나 보통 한 달에 여섯 번 선다.

209) '성산장'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마을 장(場) 시장이다.

영 앞인 남ᄌᆞ 어룬덜 영 꼬부령 영.(모시잠방이를 입어서, ‘고성장’ 말아서 ‘성산장’에 가려 하면. 그건 이렇게 앞에는 남자어른들 이렇게 꼬부려서 이렇게.)

106024 @ 예, 예.(예, 예.)

106024 #2 거시기 허리띠 메지 안헙니까?(거시기 허리띠 매지 안합니까?)

106024 @ 예, 예.(예, 예.)

106024 #2 게난 앞으론 안 보이곡. 뒤론 가민 이레착저레착 헴뗀 야, ○○이거 무시거 보커들랑 ‘성산장’에 가라. ‘성산장’에 가라.(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보이고. 뒤로는 가면 ‘이레착저레착’ 한다고 야, ○○이거 무엇 보려거든 ‘성산장’에 가라. ‘성산장’에 가라.)

106024 @ 하, 하.(하, 하.)

106024 #1 허, 허, 허, 헛.(허, 허, 허, 헛.)

106024 #2 경 허멍 웃시게 헤낫수다게.(그렇게 하면서 우스개 했었습니다.)

106024 @ 뒤 비처부니까예? 여름에.(뒤 비춰버리니까요? 여름에.)

106024 #2 예, 게난에 쏘곱에게 안 입으난게.(응, 그러니까 속에 안 입으니까.)

106024 @ 안 입으난깐예.(안 입으니까는요.)

106024 #2 훤ᄒᆞ게 모시 풀헤영 와상ᄒᆞ게시리 헤영 입으믄게 그것이.(훤하게 모시 풀해서 와상하게 해서 입으면 그것이.)

106024 #1 허, 허.(허, 허.)

106024 @ 쏙이.(속이.)

106024 #2 훤하게 보일게 아니우꽈게?(훤하게 보일 것이 아닙니까?)

106024 @ 예.(예.)

106024 #2 경 허믄 경 헹 허믄 우스겟말 무시것덜 하 허당, 야 야, 놈이 거 보커들랑 ‘성산장’에 강. ○○이거 강 보라 영 형.(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우스갯말 무엇들 하 하다가, 야야, 남의 거 보려거든 ‘성산장’에 가서 ○○이거 가서 보라 이렇게 해서.)

106024 @ 아, 아.(아, 아.)

106024 #2 응.(응.)

106024 @ 예, 예.(예, 예.)

106024 #2 그것이 훤ᄒᆞ게 보일게 아니우꽈게?(그것이 훤하게 보일 것이 아닙니까?)

106024 #1 거, 이름이랑 곧지 말라게.(거, 이름이랑 말하지 마라.)

106024 #2 아피는 영 접어부니까 안보이고.(앞에는 이렇게 접어버리니까 안보이고.)

106024 @ 아피는 이렇게 접으니까예.(앞에는 이렇게 접으니까요.)

106024 #2 응.(응.)

106025 @ 여자 옷은?(여자 옷은?)

106025 #2 여자 옷은게.(여자 옷은.)

106025 @ 저고리.(저고리.)

106025 #2 치메 여잔양. 치메 입곡 저 정벵이 입으민.(치마 여자는요. 치마 입고 저 잠방이 입으면.)

106024 #1 응.(응.)

106025 @ 치메허고.(치마하고.)

106025 #2 어.(어.)

106025 @ 정벵이? 예.(정벵이? 예.)

106025 #2 입으민 원 곰ᄎᆞ아지난에 거 여자는 원.(입으면 원 감추어지니까 거 여자는 원.)

106025 @ 어 저 저고리 우의 거 적삼?(어 저 저고리 위에 거 적삼?)

106025 #2 적삼.(적삼.)

106025 @ 적삼허고예. 저고리허고예.(적삼하고요. 저고리하고요.)

106025 #2 적삼 치메 정벵이 헤영.(적삼 치마 잠방이 해서.)

106025 @ 예, 정벵이헤영.(예, 정벵이해서.)

106025 #2 여자들은 곡 정벵이 입주. 쏘곱에.(여자들은 곡 잠방이 입지. 속에.)

106025 @ 예, 정벵이 입곡예.(예, 잠방이 입고요.)

106025 #2 예.(예.)

106025 #2 또 다른 여자들이 입을 옷들은 또, 결혼 헐 때는 뭐 활옷 입어근에 해도.(또 다른 여자들이 입을 옷들은 또, 결혼 할 때는 뭐 활옷 입어서 해도.)

106025 #2 아니 결혼 홀 떼도게, 멩지로 치메저고리 헤영ᄒᆞ곡.(아니 결혼 할 때도게, 명주로 치마저고리 해서하고.)

106025 @ 예, 치메저고리예.(예, 치마저고리요.)

106025 #2 ᄯᅳ시로 이제 쏙옷은 이제 정벵이로 그자 경 허난.(다시로 이제 속옷은 이제 잠방이로 그저 그렇게 하니까.)

106025 @ 예.(예.)

106025 #2 여ᄌᆞ 거는 이제 남ᄌᆞ 거 ᄀᆞ찌 허질 아녀고. 이 뒤로 영 터.(여자 거는 이제 남자 거 같지 하지를 않고. 이 뒤를 이렇게 터.(여자 거는 이제 남자 거 같이 하지를 않고. 이 뒤로 이렇게 터.)

106025 @ 예, 예 뒤로 텅.(예, 예 뒤로 터서.)

106025 #2 다 주워 불질 안형.(다 기워 버리지를 아니해서.)

106025 @ 예, 예.(예, 예.)

106025 #2 트민 여ᄌᆞ들은 그자 영 소변 볼 떼 앚앙 보는 거난. 글로 튀어근에 헤영 치메 입어근넹이 허곡게.(트면 여자들은 그저 이렇게 소변 볼 때 앉아서 보는 거니까. 거기로 터서 해서 치마 입어서 하고.)

106025 @ 예, 예 허곡예.(예, 예 하고요.)

106025 #2 예 경 헹 ᄒᆞ난에 무시거ᄒᆞ곡.(예 그렇게 해서 하니까 무엇하고.)

106026 @ 아이 옷에 대해서, 아이덜 옷.(아이 옷에 대해서, 아이들 옷.)

106026 #2 아이덜 옷도 그거우다게. 그자 춤 올케 곳사 골안 웃엇주마는 광목허영.(아이들 옷도 그겁니다. 그저 참 올케 아까 말해서 웃었지마는 광목해서.)

106025 @ 예.(예.)

106026 #2 허곡게. 또 그 옥양목이엔 헤네 국방섹 나고 저 검은 거 나곡. 곤섹[210] 나곡 헤네 국방섹광목이엔 헹 나 낫수다.(하고. 또 그 옥양목이라고 해서 국방색 나왔고 저 검은 거 나왔고. 곤색 나왔고 해서 국방색광목이라고 해서 나왔었습니다.)

106025 @ 예.(예.)

106026 #2 경 ᄒᆞ난 그거 곤걸로 그거 끗차근엥에 바지도 멘들앙 주곡.(그렇게 하니까 그거 고운 걸로 그거 끊어서 바지도 만들어서 주고.)

106025 @ 응.(응.)

106026 #2 치메도 멘들앙 주곡.(치마도 만들어 주고.)

106025 @ 으 응.(으 응.)

106026 #2 이제 속곳은 여자들 그저 물질 ᄒᆞᆯ 때 입는 속곳도.(이제 속곳은 여자들 물질하는 속곳도.)

106025 @ 속곳도.(속곳도.)

106026 #2 멘들앙 주곡.(만들어서 주고.)

106025 @ 예, 예.(예, 예.)

106026 #2 경 헤근엥이 그자 여자ᄀᆞ찌[211] 저 어른들ᄀᆞ찌 걸게 못허민 그자 정벵이ᄀᆞ추륵 헹. 치메 쏘곱에 입곡 여자덜은.(그렇게 해서는 그저 여자처럼 저 어른들처럼 길게 못하면 잠방이처럼 해서. 치마 속에 입고 여자들은.)

106025 @ 예, 예 정벵이ᄀᆞ추룩 헤근에예.(예, 예 잠방이처럼 해서요.)

106026 #2 예, 경 헹 입곡. 경 헷주 무신.(예, 그렇게 해서 입고. 그렇게 했지 무슨.)

106026 @ 응 맞수다 그.(응 맞습니다 그.)

106026 #1 진, 엇엉 못 입으난 거주. 잇인 사름은 잘 입어서게.(자기는, 없어서 못 입으니까 거지. 있는 사람은 잘 입었어.)

106026 #2 허기사게.(하기야.)

106026 @ 하, 하핫.(하, 하핫.)

106026 #1 하, 하하, 핫.(하, 하하, 핫.)

106026 #2 우리사 엇언 못 헷주난 못 입엇주만은.(우리야 없어서 못 해주니까 못 입었지만.)

106027 @ 예 경 헤도 옷을 만들젠 허민은, 크기도 재사되고 해야 될 거 아니우꽈?(그렇게 해도 옷을 만들려고 하면은, 크기도 재야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6027 #2 아니 크기 제곡 무시거 헤수꽈게. 그자 ᄒᆞᆫ 자 놩 허영 지럭시ᄒᆞ민 ᄒᆞᆫ

210) '곤섹'은 곤색 일본말(kon) 감색(紺色), 짙은 청색에 적색 빛깔이 풍기는 색이다.
211) 'ᄀᆞ찌'는 같이라는 말이나 여기에서는 처럼의 뜻이다.

자 지럭시 헹 입곡.(아니 크기 재고 무엇 했습니까. 그저 한 자 놔서 해서 길이 한 자 길이해서 입고.)

106027 @ 아.(아.)

106027 #2 크민 또게 작아 옷 놔근에 헤영.(크면 또 작은 옷 놔서 해서.)

106026 #1 엣.(엣.)

106027 #2 멘들아근넹이 헹 그자 주민 입곡.(만들어서 주면 해서 그저 입고.)

106027 @ 아.(아.)

106027 #2 경 헷주. 그거 크기 품 제곡 무시거 헤곡 헤수꽈?(그렇게 했지. 그거 크기 품재고 무엇하고 했습니까?)

106027 @ 게난 품재근에 경 헤도 짤라내는 것도 잇곡. 허지 안을 것꽈?(그러니까 품재서 그렇게 해도 잘라내는 것도 있고. 하지 않을 겁니까?)

106027 #2 쫄라네는 거는 몸뻬식으로양.(잘라내는 거는 몸뻬식으로요.)

106027 @ 예.(예.)

106027 #2 몸뻬식으로 영 놔근엥에 쫄라네영 그 쫄라넨 건 또 이디 밋.(몸뻬식으로 이렇게 놔서 잘라내어서 그 잘라낸 건 또 여기 밑.)

106027 @ 밋테.(밑에요.)

106027 #2 부쩌근에.(붙여서.)

106027 @ 예 넨 거예.(예 낸 거요.)

106027 #2 경 헤근엥에 몸뻬헤영.(그렇게 해서 몸뻬해서.)

106027 @ 멘들아예.(만들어요.)

106027 #2 몸뻰디 바진디 멘들앙 헹 입지곡. 경 헷주.(몸뻬인지 바지인지 만들어서 해서 입히고. 그렇게 했지.)

106027 @ 예, 밋 부찌고예(예, 밑 붙이고요?)

106027 #2 응.(응.)

106028 @ 저기 바지저고리예. 치마 보선 각 부분 잇지 안우꽈?(저기 바지저고리요. 치마 보선 각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6027 #2 어, 어.(어, 어.)

106028 @ 여기 허고 이렇게 허고 허는 거? 이디 고름허고 그런 거 한번.(여기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여기 고름하고 그런 거 한번.)

106028 #2 게난 저고리나 적삼이나 저고리나 마찬가지우다.(그러니까 저고리나 적삼이나 저고리나 마찬가집니다.)

106028 @ 예.(예.)

106028 #2 앞썹.(앞섶.)

106028 @ 예 앞썹.(예 앞섶.)

106028 #2 예, 안 앞썹, 밧 앞썹 안 앞썹.(예, 안 앞섶, 밖 앞섶 안 앞섶.)

106028 @ 예 안 앞썹, 밧.(예 안 앞섶, 밖.)

106028 #2 짓.(깃.)

106028 @ 짓예 짓예.(깃요 깃요.)
106028 #2 이 영 ᄒᆞ는 거.(이 이렇게 하는 거.)
106028 @ 예.(예.)
106028 #2 이제 또 그 짓우의 ᄒᆞ는 거 동전.(이제 또 그 깃 위에 하는 거 동전.)
106028 @ 동전예.(동전요.)
106028 #2 예, 경 헤근엥이 그거 게난 바지나 저고리나 우리 여자 껀, 저고리나 적삼이나 똑 ᄀᆞ찌 그거 그런 거에.(예, 그렇게 해서 그것 그러니까 바지나 저고리나 우리 여자 건, 저고리나 적삼이나 딱 같이 그거 그런 거에.)
106028 @ 똑 ᄀᆞ찌예?(똑 같이요?)
106028 #2 예.(예.)
106028 @ 경 허곡 이거는 묶으는 거는 무시걸로 헤수과?(그렇게 하고 이것은 묶는 거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106028 #2 곰.(고름.)
106028 @ 곰.(고름.)
106028 #2 곰예.(고름요.)
106028 @ 곰예?(고름요?)
106028 #2 응.(응.)
106028 @ 곰ᄒᆞ고 이기는?(고름하고 여기는?)
106028 #2 이제 안터레 메는 건 안꼼이엔 ᄒᆞ고.(이제 안쪽으로 매는 건 안고름이라고 하고.)
106028 @ 안꼼.(안고름.)
106028 #2 예.(예.)
106028 @ 예 안꼼이엔 ᄒᆞ곡.(예 안고름이라고 하고.)
106028 #2 적꼼인가 안꼼인가?(안고름인가 안고름인가?)
106028 @ 예.(예.)
106028 #1 적꼼.(안고름.)
106028 @ 적꼼ᄒᆞ고 적꼼.(안고름하고 안고름.)
106028 #2 적꼼인가.(안고름인가.)
106028 @ 그리고 속곳은 헐 때는 이디 어깨에 메는 거 잇고.(그리고 속옷은 할 때는 이데 어깨에 매다는 거 있고.)
106028 #2 예.(예.)
106028 @ 어깨 메는 거엔 헤수꽈?(어깨 매는 거라고 했습니까?)
106028 #2 예, 그냥 속곳ᄒᆞ민 그자 이디 어께에 메는 거 헤영. 이디 저 거시기 벌ᄆᆞ작 헤근넹이.(예, 그냥 속옷하면 그저 이데 어께에 매어다는 거 해서. 이데 저 거시기 벌매듭 해서.)
106028 @ 벌ᄆᆞ작예.(벌매듭요.)
106028 #2 응.(응.)

106028 #1 단추는 벌ᄆᆞ작.(단추는 벌매듭.)
106028 @ 예, 단추는 벌ᄆᆞ작 이거는 끈이엔 헤수꽈?(예, 단추는 벌매듭 이것은 끈이라고 했습니까?)
106028 #2 예, 메큰.(예, 메끈.)
106028 @ 메큰?(메끈.)
106028 #1 메끈.(메끈.)
106028 @ 메큰.(메끈.)
106028 #1 메끈.(메끈.)
106028 #2 응.(응.)
106028 @ 메끈 응 메끈예 그리고 또 아래 거는? 또 아렛 건? 그, 밑에도 이렇게?(메끈. 응 메끈요 그리고 또 아래 거는? 또 아래에 거는? 그, 밑에도 이렇게?)
106028 #2 아레 저 바지?(아래 저 바지?)
106028 @ 예, 아니 속곳에.(예, 아니 속곳에.)
106028 #2 속곳에 아렌게.(속곳에 아래는.)
106028 #1 아레도 그 벌ᄆᆞ작 헹.(아래도 벌매듭해서.)
106028 #2 벌ᄆᆞ작 헹 그레 다리.(벌매듭해서 거기에 다리.)
106028 #1 영 다리에.(이렇게 다리에.)
106028 @ 아, 벌ᄆᆞ작예?(벌매듭요?)
106028 #2 이 ᄒᆞᆫ착은 ᄒᆞᆫ착 가달은 들어가곡.(이 한쪽은 한쪽 다리는 들어가고.)
106028 @ 들어가고예.(들어가고요.)
106028 #2 ᄒᆞᆫ착 가달은 이제 영 다왕 터질 거 아니?(한쪽 다리는 이제 이렇게 땋아서 터질 거 아니?)
106028 @ 예, 예, 예.(예, 예, 예.)
106028 #2 경 허민 이레 다 벌ᄆᆞ작 일로 이레.(그렇게 하면 이리 다 벌매듭 이쪽으로 이리로 이리.)
106028 @ 벌ᄆᆞ작으로 허곡예.(벌매듭으로 하고요.)
106028 #1 어.(어.)
106028 #2 어, 겨곡 이디 또 허리 저 곰 헤영 무끄곡.(어, 그러고 여기 또 허리 저 고름 해서 묶고.)
106028 @ 아 허리에는 곰예?(아 허리에는 고름요?)
106028 #2 응 곰 헤영 무끄곡.(응 고름해서 묶고.)
106028 @ 허리는예 곰허고예. 그다음은 바지. 남자들 바지. 바지는?(허리는요 고름 하고요. 그다음은 바지. 남자들 바지. 바지는?)
106028 #2 남자덜 바지게 그게.(남자들 바지 그게.)
106028 @ 바지는? 뭐.(바지는? 뭐.)
106028 #2 다님.(대님.)
106028 @ 다님.(대님.)

106028 #2 아레 무끄는 거는 다님.(아래 묶는 거는 대님.)
106028 @ 예 다님.(예 대님.)
106028 #2 허리띤 저.(허리띠는 저.)
106028 @ 허리띠는 그냥 허리띠.(허리띠는 그냥 허리띠.)
106028 #2 그 허리띠엔 허주 무시거엔 홀 거라양.(그 허리띠라고 하지 무엇이라고 할 거예요.)
106028 #1 응.(응.)
106028 @ 허리띠.(허리띠.)
106028 #2 으 이디 영 무끄는 거.(으 여기에 이렇게 묶는 거.)
106028 @ 예, 허리띠.(예, 허리띠.)
106028 #1 메는 거.(매는 거.)
106028 @ 또 허릿띠 그다음은 그냥 바지.(또 허리띠 그다음은 그냥 바지.)
106028 #2 무사?(왜?)
106028 @ 바지허곡. 바지에 그 그냥 바지엔 헙니까? 그 허리춤에 들어가는 거 무시거엔 허곡. 웬쪽.(바지하고. 바지에 그 그냥 바지라고 합니까? 그 허리춤에 들어가는 거 무엇이라고 하고. 왼쪽.)
106028 #2 아 저 거시기. 저 바지에게 허리, 허리.(아 거시기. 바지에 허리, 허리.)
106028 @ 예, 허리. 예, 예.(예, 허리. 예, 예.)
106028 #2 응.(응.)
106028 @ 그건 허리고.(그건 허리고.)
106028 #2 응.(응.)
106028 @ 그 왼쪽 다리 놓는 거 그런 거는 뭐 엇인가마씨?(그 왼쪽 다리 놓는 거 그런 거는 없는가요?)
106028 #2 아이 그거 다님 칠 때 그 바지 입엉.(아이 그거 대님 찰 때 그 바지 입어서.)
106028 @ 예, 다님만허고.(예, 대님만 하고.)
106028 #2 예, 다님 칠 헹 ᄒᆞ는 거 뺏기게.(예, 대님 찰 해서 하는 거 밖에.)
106028 @ 뺏기 엇고예?(밖에 없고?)
106028 #2 무시거 더 엇주게 남ᄌᆞ 건 간딴ᄒᆞ주. 무시거.(무엇 더 없지 남자 것은 간단하지. 무엇.)
106028 @ 예, 예, 치마?(예, 예, 치마?)
106028 #2 우리 고성, 저 이 여ᄌᆞ입는 치마?(우리 '고성,' 저 이 여자 입는 치마?)
106028 @ 예 치마에 대해서는 저기 그 부분별로.(치마에 대해서는 저기 그 부분별로.)
106028 #2 치마엔게 허리ᄒᆞ곡.(치마에는 허리하고.)

106028 @ 허리.(허리.)
106028 #2 허리 치메 치메에 허리 둘고 곰 둘곡. 허영 입엇주.(허리 치마 치마에 허리 달고 고름 달고. 해서 입었지.)
106028 @ 곰 둘고예.(고름 달고요.)
106028 #2 응.(응.)
106028 @ 허리 둘고 곰 둘고.(허리 달고 고름 달고.)
106028 #2 으.(으.)
106028 @ 그다음 이 밋테 거는? 저기.(그다음 이 밑에 거는? 저기.)
106028 #2 무시거 밋엣 거?(무엇 밑에 거?)
106028 @ 그냥 허리허고 묶으는 거 곰 둘고 여기는 그냥 치메엔 허고예?(그냥 허리하고 묶는 거 고름 달고 여기는 그냥 치마라고 하고요?)
106028 #2 응 치메 알 헤부민게.(응 치마 아래 해버리면.)
106028 @ 예.(예.)
106028 #2 그냥 알 박으민게.(그냥 아래 박으면.)
106028 @ 예.(예.)
106028 #2 알 박아근에.(아래 박아서.)
106028 @ 아, 알 박아근에예?(아래 박아서요?)
106028 #2 응.(응.)
106028 @ 박아근에 ᄒᆞ고.(박아서 하고.)
106028 #2 치메헹 입곡.(치마해서 입고.)
106028 @ 저기 보선?(저기 버선?)
106028 #2 보선 신곡게.(버선 신고.)
106028 @ 보선 신곡허는디. 이거는? 이거는? 보선 코엔 헙니까?(버선 신고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보선 코라고 합니까?)
106028 #2 응 보선 코.(응 보선 코.)
106028 @ 보선 코. 코. 여기 이거 가운디에 잇는 거는 뭐엔 헙니까?(버선 코. 코. 여기 이거 가운데에 있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106028 #2 응?(응?)
106028 @ 가운데 버선코 허젠 허민 가운데.(가운데 버선코 하려고 하면 가운데.)
106028 #2 가운딘게.(가운데는.)
106028 @ 왼쪽에 선.(왼쪽에 선.)
106028 #2 가운디 선이주게. 게난.(가운데 선이지. 그러니까.)
106028 @ 가운디 선.(가운데 선.)
106028 #2 이거.(이거.)
106028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6028 #2 이제 요세는 보선을 이거 반뜩ᄒᆞ게 ᄒᆞ난 거주.(이거 이제 요새는 버

선을 이것 반듯하게 하니까 것이지.)

106028 @ 옛날에는?(옛날에는?)

106028 #2 요 씰밥이.(요 실밥이.)

106028 @ 예, 예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예, 예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106028 #2 영 웬쪽으로 영 허민 오른쪽이 신곡.(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신고.)

106028 @ 예.(예.)

106028 #2 오른쪽으로 영 ᄒᆞ민 웬쪽에 신곡. 경 헷주.(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왼쪽에 신고. 그렇게 했지.)

106028 @ 예, 씰밥 가지고예?(예, 실밥 가지고요?)

106028 #2 예.(예.)

106028 @ 거문 이기는 뭐엔 헙니까? 뒷칙이엔 헙니까?(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뒤축이라고 합니까?)

106028 #2 뒷치기.(뒤축.)

106028 @ 뒷치기. 또 요기는 버선은 이거는 상관엇곡?(뒷축. 또 여기는 버선은 이거는 상관없고?)

106028 #2 버선목.(버선목.)

106028 @ 아, 보선목? 예. 보선목, 뒤칙이 ᄒᆞ고, ᄒᆞ끔 들어가는 건 뭐엔 헙니까? 요기 보선에.(아, 버선목? 예. 버선목, 뒤축하고, 조금 들어가는 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버선에.)

106028 #2 ᄐᆞᆨ.('ᄐᆞᆨ.')

106028 @ ᄐᆞᆨ.('ᄐᆞᆨ?')

106028 #2 보선ᄐᆞᆨ.[212]('보선ᄐᆞᆨ.')

106028 @ 보선ᄐᆞᆨ.('보선ᄐᆞᆨ?')

106028 #2 응 보선ᄐᆞᆨ이 어떠난 자꾸 벗어졈저 헤근에.(응 '보선ᄐᆞᆨ'이 어떻게 하니까 자꾸 벗겨지고 있다 해서.)

106028 @ 벗어졈저 거문 막 자꾸 벗어져근에예.(벗어지고 있다 그러면 매우 자꾸 벗겨져서요.)

106028 #2 응 보선ᄐᆞᆨ.(응 '보선ᄐᆞᆨ.')

106028 @ 미글락미끌락 헹예.(미끌미끌 해서요.)

106028 #2 응.(응.)

106028 @ 여기는 버선코. 다 되신게. 요기는?(여기는 버선코. 다 되었네. 요기는?)

106028 #2 아, 그듸 무시거엔 안 ᄀᆞᆯ으고.(아, 그데 무엇이라고 안 말하고.)

106028 @ 무시거엔 안 ᄀᆞᆯ으고?(무엇이라고 안 말하고?)

---

212) '보선ᄐᆞᆨ'은 버선목 가장자리에서 보선 뒤축에서 안으로 조금 들어 간 지점인 듯하다.

106028 #2 경 ᄒᆞ난 요기는 보선코.(그렇게 하니까 여기는 버선코.)
106028 @ 예.(예.)
106028 #2 ᄋᆞ딘 보선ᄐᆞᆨ.(여기에는 '보선ᄐᆞᆨ.')
106028 @ ᄐᆞᆨ예?(ᄐᆞᆨ예?)
106028 #2 이제.(이제.)
106028 @ 이건 보선목예.(이건 보선목예.)
106028 #2 경 헹 허문.(그렇게 해서 하면.)
106028 @ 예.(예.)
106028 #2 자꾸 벗어졈젱 혜영 웃터레 올리곡.(자꾸 벗겨진다고 해서 위쪽으로 올리고.)
106028 @ 올리곡예?(올리고요?)
106028 #2 응 경 ᄒᆞ는 거 보선.(응 그렇게 하는 거 버선.)
106029 @ 그다음은 단추. 단추는 그냥 벌ᄆᆞ작이엔만 허는가마씨?(그다음은 단추. 단추는 그냥 벌매듭이라고만 하는가요?)
106029 #2 으, 아니, 다 이 속곳엔 벌ᄆᆞ작을 ᄃᆞᆯ아나고.(으, 아니, 이 속곳엔 벌매듭을 달았었고.)
106029 @ 예.(예.)
106029 #2 이 옷엔 단추도 ᄃᆞᆯ곡 벌ᄆᆞ작도 ᄃᆞᆯ곡 헷주마는 단추 나오건디가.(이 옷엔 단추도 달고 벌매듭도 달고 했지마는 단추 나온 지가.)
106029 @ 얼마 안 뒈난예? 예.(얼마 안 되니까요? 예.)
106029 #2 경 무시거 아니혜영. 게난에 벌ᄆᆞ작을 하영 헷주.(그렇게 무엇 아니해서. 그러니까 벌매듭을 많이 했지.)
106029 @ 벌ᄆᆞ작을 하영예.(벌매듭을 많이요.)
106029 #2 적삼에나 이제 또.(적삼에나 이제 또.)
106029 @ 예.(예.)
106029 #2 저고리엔 곰을 헤 ᄃᆞᆯ앗주마는.(저고리에는 고름을 거의 달았지마는.)
106029 @ 예.(예.)
106029 #2 이 적삼에는 벌ᄆᆞ작을 하영 ᄃᆞᆯ앗주.(이 적삼에는 벌매듭을 많이 달았지.)
106029 @ 예.(예.)

재단과 염색

106030 @ 재단, 저기 옷감 손질에 대해서예? 멩지가 막 어렵지 안우꽈? 광목도 어렵주만은.(재단, 저기 옷감 손질에 대해서요? 명주가 막 어렵지 않습니까? 광목도 어렵지만은.)
106030 #2 아, 멩지가 어렵주게.(아, 명주가 어렵지.)
106030 @ 예.(예.)

106030 #2 멩지가 이제 춤 풀험도 어렵곡.(명주가 이제 참 풀하기도 어렵고.)

106030 @ 응.(응.)

106030 #2 뭣도 어려왕. 옛날엔 멩지바지를 튿으민.(뭣도 어려워서. 옛날에는 명주바지를 뜯으면.)

106030 @ 예.(예.)

106030 #2 이제 풀을 허젱 허면. 어, 곳사 가시리.(이제 풀을 하려고 하면. 어, 아까 풀가사리.)

106030 @ 예 가시리.(예 풀가사리.)

106030 #2 가시리 메어당 풀 쒜근에.(풀가사리 매어다가 풀 쑤어서.)

106030 @ 예.(예.)

106030 #2 그걸 ᄒᆞ며는 더 벗짝 ᄒᆞ주게.(그걸 하면 더 바짝 하지.)

106030 @ 아.(아.)

106030 #2 경 헹 허민 그 풀 헤영. 이제 다듬일 헤사주. 멩지에.(그렇게 해서 하면 그 풀해서. 이제 다듬이를 해야지. 명주에.)

106030 @ 예 다듬이예?(예 다듬이요?)

106030 #2 다듬이 그거 다듬이 막게로 잘 두드리지 아녀민. 잘못 뚜드려부민 그 곱이로 끗차져 불곡.(다듬이 그거 다듬이 방망이로 잘 두드리지 아니하면. 잘못 두드려버리면 그 겹으로 끊어져 버리고.)

106030 @ 아.(아.)

106030 #2 그 씨게 두드렁.(그 세게 두드려서.)

106030 @ 예, 예.(예, 예.)

106030 #2 그 거시기 ᄒᆞᆫ 드레 헤민 글로 끄차지곡 ᄒᆞ난. 잘 맞추와근엥이.(그 거시기 한 데로 하면 거기로 끊어지고 하니까. 잘 맞추어서.)

106030 @ 어.(어.)

106030 #2 그 다듬일 잘헤여사.(그 다듬이를 잘해야.)

106030 @ 예.(예.)

106030 #2 그 고비가 끄차지지 안혀.(그 곱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106030 @ 예, 예.(예, 예.)

106030 #2 요즘은 풀 ᄒᆞ는 거나 저 아돌덜 풀 때도 베 헤연 ᄒᆞ난에 다듬아 주는 디 가민 저 거시기. 베 ᄒᆞᆫ 필 다듬는디 오만원이엔 헤네.(요즘은 풀 하는 거나 저 아들들 팔 때도 베 해서 하니까 다듬어 주는 데 가면 저 거시기. 베 한 필 다듬는데 오만원이라고 하니까.)

106030 @ 예, 예.(예, 예.)

106030 #2 에, 이녁냥으로 허준 헹. 물 톡톡ᄒᆞ게 컷단 그거 하올하올 ᄒᆞ게시리 헤완에 간 널엇단. 보들보들 헤가난. 놘 발로 꼰꼰 불랏단.(에, 이녁대로 하지 해서. 물 톡톡하게 잠갔다가 그거 하늘하늘 하게끔 헹궈서 갔다 널었다가. 보들보들 해가니까. 놓아서 발로 꾹꾹 밟았다가.)

106030 @ 아.(아.)
106030 #2 아리론 저 다리미로 쏙쏙 다리난. 바짝 페와전 헨.(아이론 저 다리미로 쏙쏙 다리니까. 바짝 펴지고 해서.)
106030 @ 아.(아.)
106030 #2 앗엉가난. 아이고 풀 잘 헤연 잘 헨 와수다.(가져가니까. 아이고 풀 잘 해서 잘 하고 왔습니다.)
106030 @ 예.(예.)
106030 #2 영 ᄒᆞ멍.(이렇게 하면서.)
106030 @ 예.(예.)
106030 #2 이제 게난 요즘은 그축룩 헹 헷주만은 엣날은 다 마께질을.(그러니까 요즘은 그처럼 하고 했지만은 옛날은 다 방망이질을.)
106030 @ 마께질.(방망이질.)
106030 #2 헤사 헷주게.(해야 했지.)
106030 @ 예 다듬이질을예?(예 다듬이질을요?)
106030 #2 응, 다듬이질을 헤연.(응, 다듬이질을 했어.)
106030 @ 아.(아.)
106030 #2 경 헨 헌디 요즘은 뭐.(그렇게 해서는 한데 요즘은 뭐.)
106030 @ 아.(아.)
106030 #2 그추룩 헨 허난에게.(그처럼 해서 하니까.)
106030 @ 명지는 어째튼 그 한 번 옷 저기 헤나면은 다 씰밥을 튿엉으넹에예.(명주는 어쨌든 그 한 번 옷 저기 해나면 다 실밥을 뜯어서요.)
106030 #2 예.(예.)
106030 @ 그 곰, 그 옷감 차례데로.(그 고름, 그 옷감 차례대로.)
106030 #2 응.(응.)
106030 @ 다.(다.)
106030 #2 게난, 바농 ᄒᆞᆫ 번 헤나민.(그러니까, 바늘 한 번 해나면.)
106030 @ 예, 예.(예, 예.)
106030 #2 그 바농질을 다 튿어근넹이. 호왓단 거 다 씰을 다 빠멍 헤영.(그 바늘질을 다 뜯어서. 호았던 거 다 실을 빼면서 해서.)
106030 @ 예.(예.)
106030 #2 뿔아근엥에 풀헤영 그거 다 그 ᄎᆞ레데로 놓멍. 이제 다듬메질을.(빨아서 풀해서 그거 다 그 차례대로 놓으며. 이제 다듬이질을.)
106030 @ 다듬이질을 허영.(다듬이질을 해서.)
106030 #2 헤영. 또 손 보앙 또 다듬메질 헤영 또 손 보곡.(해서. 또 손 보아서 또 다듬이질해서 또 손 보고.)
106030 @ 예, 예.(예, 예.)
106030 #2 경 ᄒᆞ멍 헤낫주.(그렇게 하면서 했었지.)

106030 @ 기지예. 응.(그렇지요. 응.)

106030 #2 경 헨디 요즘사 어디 경 헴서?(그렇게 한데 요즘이야 어디 그렇게 하고 있니?)

106030 @ 아.(아.)

106030 #2 요세 경 헌 거 어디 입엄서?(요새 그렇게 한 거 어디 입고 있니?)

106030 @ 예.(예.)

106030 #2 입찌도 안허곡.(입지도 안하고.)

106030 @ 게문 무명이나 저기 광목은 또 손질은?(그러면 무명이나 저기 광목은 또 손질은?)

106030 #2 광목 미녕도 그자 풀헤영 경 두드려근넹이.(광목 무명도 그저 풀해서 그렇게 두드려서.)

106030 @ 풀헤근에예? 두드려근에예?(풀해서요? 두드려서요?)

106030 #2 응.(응.)

106030 @ 그건 다시 튿찌 안 헤근에예?(그건 다시 뜯지 안 해서요?)

106030 #2 광목도 무사 튿어사게 올 발르긴 허주게.(광목도 왜 뜯어야 올 바르기는 하지.)

106030 @ 아, 튿어사, 아이고 바느질ᄀᆞ심도 하긴 하우다.(아, 뜯어야, 아이고 바느질감도 많긴 많습니다.)

106030 #2 응.(응.)

106030 @ 밭일도 해야 되지.(밭일도 해야 되지.)

106030 #2 예.(예.)

106030 @ 이것도 옷도 새로 맨날 만들어 입어야지.(이것도 옷도 새로 맨날 만들어 입어야지.)

106030 #2 게난 옛날엔 내복이 엇어부난에, 바지도 이제 우리하르버님 게실 때 바질 ᄒᆞ젠 허문. 솜을 놔야뒈.(그러니까 옛날엔 내복이 없어버리니까, 바지도 이제 우리할아버님 계실 때 바지를 하려고 하면. 솜을 넣어야 돼.)

106030 @ 예 어른덜들은예.(예 어른들은요.)

106030 #2 솜을 놩 허민. 그 솜을 안 빠지게 ᄒᆞ젠 허민. 그 저 거시기 마다. 씰밥마다 다 저 거시길 놔야뒈어 다.(솜을 넣어서 하면. 그 솜을 안 빠지게 하려고 하면. 그 저 거시기 마다. 실밥마다 다 저 거시길 넣어야 되어 다.)

106030 @ 예.(예.)

106030 #2 주워사 뒈주.(주워야 되지.)

106030 @ 예, 예.(예, 예.)

106030 #2 게난 그거를.(그러니까 그거를.)

106030 @ 어.(어.)

106030 #2 그 실밥마다 그 소겔 놩. 주워근에 이제 헤영. 끼와사 그 소게가 이레저레 안 헤영. 이제 그것에 톡ᄒᆞ게 붓더근엥이 잇엉 바지가 입으민 ᄃᆞ수곡.(그 실

밥마다 그 솜을 넣어서. 주워서 이제 해서. 끼워야 그 솜이 이리저리 안 해서. 이제 그것에 톡하게 붙어서 있어서 바지가 입으면 따습고.)

106030 @ 예.(예.)

106030 #2 경 안영 그걸 안 헹 허문 알레도 가볏닥.(그렇게 않아서 그걸 안 해서 하면 아래도 가버렸다가.)

106030 @ 밋트로 가볏닥.(밑으로 가버렸다가.)

106030 #2 읖더레도 가볏닥.(옆으로도 가버렸다가.)

106030 @ 예.(예.)

106030 #2 경 헹 뭉크려졍으넹이 입질 못 허여.(그렇게 해서 뭉겨져서 입질 못해.)

106030 @ 입지를 못 헤영예.(입지를 못해요.)

106030 #2 응 경 헤여.(응 그렇게 해.)

106030 @ 똣똣허지 안 허고예.(따뜻하지 안 하고요.)

106030 #2 응 경 헤근엥에 그 헷주. 요즘은 그자 미승으로 박아근에.(응 그렇게 해서 그 했지. 요즘은 그자 재봉틀로 박아서.)

106030 @ 예.(예.)

106030 #2 뒛상 헹 뿔앙 풀헤도 뒈고 그자 헤도 뒈고, 경 홀 건디.(뒤집어서 해서 빨아서 풀해도 되고 그저 해도 되고, 그렇게 할 건데.)

106030 @ 아.(아.)

106030 #2 겐디 옛날 허는 거 ᄒᆞ고도게.(그런데 옛날 하는 거 하고도.)

106030 @ 아.(아.)

106030 #2 춤 열에 ᄒᆞ나도 안헴주게.(참 열에 하나도 안하고 있지.)

106030 @ 예 맞수다게. 솜 헤가지고예. 무명은 허고.(예 맞습니다. 솜 해가지고요. 무명은 하고.)

106031 @ 여름엔 풀허지 안허고 무명은 물들이지 안헤쑤과예?(여름에는 풀하지 안하고 무명은 물들이지 않았습니까요?)

106031 #2 아니, 남ᄌᆞ어른덜은 그자 입어쑤다. 여ᄌᆞ들은 물들이멍, 검은 물도 드렷다. 북방섹 물도 드렷다. 붉은 것도 드렷다. 영 허멍 헤영.(아니, 남자어른들은 그저 입었습니다. 여자들은 물들이면서, 검은 물도 들였다. 북방색 물도 들였다. 붉은 것도 들였다. 이렇게 하면서 해서.)

106030 @ 아.(아.)

106031 #2 아이들 헹 입찌고 영 헷주만은.(아이들 해서 입히고 했지만은.)

106030 @ 아.(아.)

106031 #2 남ᄌᆞ 어른덜은 이제 바지나 중의 적삼이나 다 물 안 드렁.(남자 어른들은 이제 바지나 중의 적삼이나 다 물 안 들여서.)

106030 @ 물 안 들영?(물 안 들이고?)

106031 #2 그자 입언.(그저 입었어.)

106031 @ 물 안 들영 희영헌 걸로.(물 안 들여서 하얗게 한 걸로.)
106031 #2 예, 일 홀 뗀 감물 디련에 감옷 입엇주마는.(예, 일 할 땐 감물 들여서 갈옷 입었지만.)
106031 @ 일은예 감옷으로예.(일은요 갈옷으로요.)
106030 #2 예.(예.)
106031 @ 감옷으로 허주만은, 붉은 물은 염색 저기.(갈옷으로 하지만은, 붉은 물은 염색 저기.)
106030 #2 응.(응.)
106031 @ 꽃으로 헷수꽈? 무시걸로 헤수과?(꽃으로 했습니까? 무엇으로 했습니까?)
106031 #2 아이 그떼 물 무신 물산디 물 나완에 드려나수다게.(아 그때 물 무슨 물이었는지 물 나와서 들였었습니다.)
106031 @ 아 물 나완.(아 물 나와서.)
106031#1 물 다 픠는 염섹소. 허헛.(물 다 파는 염색소 허헛.)
106031 #2 하 하.(하 하.)
106031 @ 아 경 헷구나예.(아 그렇게 했군요.)
106030 #2 응.(응.)
106031 @ 푸린 물도?(푸른 물도?)
106030 #2 예.(예.)
106031 @ 푸른 염색소 나완예?(푸른 염색소 나와서요?)
106031 #2 예, 나완, 물 그거헤근넹에 헤영 물 들영. 검은 물도 디리곡(예, 나와서, 물 그거해서 해서 물 들여서. 검은 물도 들이고.)
106031 @ 예에 경 헷구나예. 아 염색소.(예에 그렇게 했군요. 아 염색소.)

신발

106032 @ 신발은예?(신발은요?)
106032 #2 허, 허 신발은게.(허, 허 신발은.)
106032 @ 예.(예.)
106032 #2 초담엔 초신 신고게.(처음에는 짚신 신고.)
106032 @ 예 초신예.(예 짚신요.)
106032 #2 예 그 다음엔 고무신 나완에게. 검은 고무신 나완 신고.(예 그 다음엔 고무신 나와서. 검은 고무신 나와서 신고.)
106032 @ 예.(예.)
106032 #2 그 ᄒᆞ끔 잇이난. 또 흰 고무신도 나완 신고.(그 조금 있으니까. 또 흰 고무신도 나와서 신고.)
106032 @ 응 옛날에는 그 초신허곡 또 저기.(응 옛날에는 그 짚신하고 또 저기.)

106032 #2 나막신.(나막신.)
106032 @ 또 나막신예?(또 나막신요?)
106032 #2 예.(예.)
106032 @ 나막신도 잇섯고.(나막신도 있었고.)
106032 #2 예.(예.)
106033 @ 또 가죽신으로 헤서 감 감티?(갑신?을 조사자가 잘못 말했다.) 저기 가죽으로예? 이 만든 신도 잇어나지 안헤수꽈?(또 가죽신으로 해서 감 감투?('갑실신?'을 조사자가 잘못 말했다.) 저기 가죽으로요? 이 만든 신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106033 #1 아이 거 이 촌엔 그런 거. 그 몰라 이 저. 사냥ᄒᆞ는 사람들이나 영ᄒᆞᆫ 사람들은 그.(아니 거 이 촌엔 그런 거. 그 몰라 이 저. 사냥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106033 @ 으.(으.)
106033 #1 특별ᄒᆞ게 제작헤서 그 춤 가죽으로 헤근에 멘들안 신엇을런지 모르주만은.(특별하게 제작해서 그 참 가죽으로 해서 만들어서 신었을는지 모르지만은.)
106033 @ 거 안헹예?(거 안해서요?)
106033 #1 예.(예.)
106033 #1 우리 뭐 가죽.(우리 뭐 가죽.)
106033 @ 예 거난 주로 초신을 신엇구나예?(예 그러니까 주로 짚신을 신었군요?)
106033 #1 예, 초신이라던가. 게난 우리 일제시대도 운동화도 좀 나왓서.(예, 짚신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도 운동화도 좀 나왔어.)
106033 @ 예, 응.(예, 응.)
106033 #1 난 그 ᄒᆞᆨ교에서 운동화 배급 받안. 아 어떤 놈 듯날 신언 가난 앗어가벼 가지고.(난 그 학교에서 운동화 배급 받아서. 아 어떤 놈 다음날 신어서 가니까 가져가버려 가지고.)
106033 #2 헷, 헷, 헷, 헷.(헷, 헷, 헷, 헷.)
106033 #1 일러먹언.(잃어버려서.)
106033 #2 겐 멘 발에 왓구나. 헷, 헷, 헷 헷.(그래서 맨 발에 왔구나. 헷, 헷, 헷, 헷.)
106033 @ 아.(아.)
106033 #2 아이고.(아이고.)
106033 #1 춤.(참.)
106033 @ 거문 가죽신에 대해서는 모르큰게예? 가죽신 만드는 과정예?(그러면 가죽신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가죽신 만드는 과정요?)
106033 #1 응, 그거는 이 춤 사냥ᄒᆞ는 사람이라든지. 이 산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 이런 사름들은 신발이 돈돈헤야 뒈주.(응, 그거는 이 참 사냥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산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 이런 사름들은 신발이 단단해야 되지.)

106033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6033 #1 우리야 소위 조리[213] 신어근에. 그 초신 닮은 거. 그 조리라도 신으민. 이디사 뎅기주만은.(우리야 소위 조리 신어서. 그 짚신 같은 거. 그 조리라도 신으면. 여기야 다니지만은.) 조 리

106033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6033 #1 그 산에나 이런디 뎅기는 사람들은 그 신발이 든든허지 안 헹은.(그 산에나 이런데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신발이 단단하지 안 해서는.)

106034 @ 예 맞수다. 거문 삼춘은 나막신 만들어납디가?(예 맞습니다. 그러면 삼촌은 나막신 만들었었습니까?)

106034 #1 나막신 우리가 어떵 만들어 그 나막신 만드는 그.(나막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그 나막신 만드는 그.)

106034 #2 하르방 잇어낫주.(할아버지 있었었지.)

106034 @ 하르방들이.(할아버지들이.)

106034 #1 응, 집에 청 헤다가.(응, 집에 청 해다.)

106034 @ 아 집에?(아 집에?)

106034 #1 응 청 헤다가. 그 나막신을 우리 발에 맞게.(응 집에 청 해다 그 나막신을 우리 발에 맞게.)

106034 @ 아.(아.)

106034 #1 이거를 그 식구 걸 다 만들어.(이거를 그 식구 것을 다 만들어.)

106034 @ 아, 식구대로예?(아, 식구대로요?)

106034 #1 응, 쏠도 주곡 돈도 주곡 헤여근에 그거.(응, 쌀도 주고 돈도 주고 해서.)

106034 @ 아.(아.)

106034 #1 다 만들어서 그거를 신어.(그거 다 만들어서 그거를 신어.)

106034 @ 아.(아.)

106034 #1 겐디 비가 오면은.(그런데 비가 오면.)

106034 @ 예.(예.)

106034 #1 여기는 흑 밧이라이.(여기는 흙 밭이야.)

106034 @ 예.(예.)

106034 #1 도저히.(도저히.)

106034 @ 나막신.(나막신.)

106034 #1 그 나막신 안 신으민.(그 나막신 안 신으면.)

106034 @ 안 신으민.(안 신으면.)

106034 #1 걸어 뎅기질 못헤여.(걸어 다니지를 못해.)

106034 @ 다닐 수가 엇이큰게예?(다닐 수가 없겠네요?)

106034 #1 응.(응.)

---

213) '조리'는 조리(皁履)로 검정 신이다.

106034 @ 아, 발에 맞게 완전 맞춤형이다예.(아, 발에 맞게 완전 맞춤형이다.)
106034 #1 어.(어.)
106034 @ 어, 예.(어, 예.)
106034 #1 아 맞추게 만들어야주게.(어, 아 맞추게 만들어야지.)
106034 @ 예 맞추게 헤가지고.(예 맞추게 해가지고.)
106034 #1 게난 그거 딱 본떠근에 헤영.(그러니까 그거 딱 본떠서 해서.)
106034 @ 아.(아.)
106034 #1 그 소위 ᄀᆞᆨ쒜로 헤서 거 다 안넷 거 파네주.(소위 호비칼로 해서 거 다 안에 거 파내지.)
106034 @ ᄀᆞᆨ쒜로예?(호비칼로요?)
106034 #1 응.(응.)
106034 @ 거문 식구데로 다섯이면 다섯을 만들젠 ᄒᆞ민 ᄒᆞᆫ 이틀이고 삼일이고 걸리큰게예.(그러면 식구대로 다섯이면 다섯을 만들려고 하면 한 이틀이고 삼일이고 걸리겠네요.)
106034 #1 예.(예.)
106034 #2 아이고 이틀 삼 일로 헤집네까? 그거. 통나무 끈어근넹에 ᄒᆞ는 건디.(아이고 이틀 삼 일로 해집니까? 그거. 통나무 끊어서 하는 건데.)
106034 #1 어.(어.)
106034 #2 쩻, 쩻, 쩻, 쩻.(쩻, 쩻, 쩻, 쩻.)
106034 @ 아, 통나무, 나무는 어떤 나무로.(아, 통나무, 나무는 어떤 나무로.)
106034 #1 아, 게 아무 나무나.(아, 게 아무 나무나.)
106034 @ 아.(아.)
106034 #1 겐디 쪼금 질긴 나무 그 좀 이 잡나무.(그러니까 조금 질긴 나무 그 좀 이 잡나무.)
106034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6034 #1 강한 나무로 헤야.(강한 나무로 해야.)
106034 @ 아.(아.)
106034 #1 겐디 겨민 나막신이 또 버쳐.(그런데 그러면 나막신이 또 부처.)
106034 @ 무거웡예.(무거워서요.)
106034 #1 어, 게난 뒐 수잇스면 건 춤 아이들이라도 술술 걸어 뎅기젠 ᄒᆞ면은.(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건 참 아이들이라도 살살 걸어 다니려고 하면.)
106034 @ 응.(응.)
106034 #1 그 소나무 ᄀᆞ뜬 것도 뒈여게. 그 저 쪼끔 무겁질 안혀니까.(그 소나무 같은 것도 돼. 그 저 조금 무겁질 안하니까.)
106034 @ 예, 예, 응 소나무도예?(예, 예, 응 소나무도요?)
106035 @ 짚신은 초신?(짚신은 짚신?)
106035 #1 응.(응.)

106035 #2 응 초신.(응 짚신.)
106035 @ 초신은 저기.(짚신은 저기.)
106035 #2 산듸칩으로.(밭볏짚으로.)
106035 @ 산듸칩으로예. 산듸칩으로 산디찝으로 허는디. 초신 허게 되민 ᄒᆞ끔 높게도 만들엇덴 허는디예?(밭볏짚요. 밭볏짚으로 밭볏짚으로 하는데. 짚신 하게 되면 조금 높게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06035 #1 아니 높게는.(아니 높게는.)
106035 @ 앞뒤로.(앞뒤로.)
106035 #2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06035 #1 헷, 헷, 헷, 헷.(헷, 헷, 헷, 헷.)
106035 #2 초신을 높게 어떵 높게 홀 말이라.(짚신을 높게 어떻게 높게 할 말이야.)
106035 #1 이거 이거 절아야 뒈는 거주. 헤 헤.(이거 이거 결어야 되는 거지. 헤헤.)
106035 @ 예, 예, 예, 예, 절어야.(예, 예, 예, 예, 결어야.)
106035 #1 게난 그거, 에 그 가온디. 것ᄀᆞ라 뭐엔 헤. 그거 영. 차근에 네 개를 놔서 절어. 그 이 거시기로부터.(그러니까 그거, 에 그 가운데. 것보고 뭐라고 해. 그거 이렇게. 짜서 네 개 넣어서 결어. 그 이 거시기로부터.)
106035 @ 절어.(결어.)
106035 #1 앞으로부터 짜 간다 말이여.(앞으로부터 짜 간다 말이야.)
106035 @ 예.(예.)
106035 #1 그렇게 ᄒᆞ면은.(그렇게 하면은.)
106035 #2 산딧칩으로 멍석 줄듯이 절어사.(밭볏짚으로 멍석 겯듯이 결어야.)
106034 #1 어 경 형 깍.(어 그렇게 해서 총.)
106035 #2 경 헹 신에 발에 맞게.(그렇게 해서 신에 발에 맞게.)
106035 #1 이 깍 신깍을.(이 총 신울을.)
106035 @ 신깍?(신울?)
106035 #1 멘들어야주. 건 뭘로 멘드냐면은.(만들어야지. 건 뭘로 만드느냐 면.)
106035 #2 절어가멍.(결어가면서.)
106035 #1 이 미.(이 '미.')
106035 @ 응.(응.)
106035 #1 미엔 흔 게 뭐이냐 ᄒᆞ면은 이 저 음.('미'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저 음.)
106035 #2 억쉐 그저.(억새 그저.)
106035 #1 어, 억쉐 그 나오는데.(어, 억새 그 나오는데.)
106035 #2 삐젱이.[214]('삐쟁이.')

214) '삐쟁이' '미쟁이' '미삐쟁이'는 참억새의 줄기 끝에 이삭 모양으로 핀 가느다란 꽃이다.

106035 #1 억쉐꼿 나오는데 그 꼿순 나오는 그거를 뽑으며는.(억새꽃 나오는데 그 꽃순 나오는 그것 뽑으면.)

106035 @ 아.(아.)

106035 #1 그걸 뽑아서.(그걸 뽑아서.)

106035 @ 아.(아.)

106035 #1 이제 그 ᄆᆞᆯ려근에. 두드령 ᄒᆞ면은 그게 그 저.(이제 그 말려서. 두드려서 하면은 그게 그 저.)

106035 @ 응.(응.)

106035 #1 뭐이냐 그 이 노가 아주 질겨.(뭐냐 그 이 노가 아주 질겨.)

106035 @ 아.(아.)

106035 #1 응, 신사락[215] 보다도 질겨.(응, '신사라' 보다도 질겨.)

106035 @ 질겨 아, 미.(질겨 아, '미.')

106035 #2 경 헨 그거 산뒷칩에 심으멍 절멍.(그렇게 해서 그거 밭볏짚에 심으면서 결으면서.)

106035 #1 경 헹 그걸 영 헹 꼽아근에 그 이제 그 신깍을 만드는 거라. 영 헤근에 두 게 ᄒᆞ영 ᄒᆞ면은 요것도 연결헤야. 헤, 헤. 이 깍을 또 연결헤영 동그랗게 헤놔야 신이 뒈는 거난.(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꼽아서 그 이제 그 신올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두 개 해서 하면 요것도 연결해야 헤, 헤. 이 총을 또 연결해서 동그랗게 해놔야 신이 되는 거니까.)

106035 @ 신이 뒈는 거난예, 예, 예. 그렇게 헤근에예.(신이 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해서요.)

106035 #1 응 뒷치기 ᄒᆞ곡.(응 뒤축이하고.)

106035 @ 아, 뒷칙허고예.(아, 뒤축하고요.)

106035 #1 으흥.(으흥.)

106035 @ 거문 뒷칙은 ᄒᆞ끔 높아사 될 거 아니우꽈예?(그러면 뒤축은 조금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요?)

106035 #1 아니 게난게 이ᄁᆞ지 오게게.(아니 그러니까 이까지 오게.)

106035 #2 벗어지지 아녀게 헤사주.(벗어지지 아니하게 해야지.)

106035 @ 벗어지지 아녀게예?(벗어지지 안하게요?)

106035 #1 응.(응.)

106034 #1 뒤 빠지지 아녀게.(뒤 빠지지 않게.)

106034 @ 빠지지 아녀게 영 올려근에예.(빠지지 않게 이렇게 올려서요.)

106034 #1 응 뒷치기 경 헹 높으게 헤불민 이기 다 헤싸져근에.(응 뒤축이 그렇게 해서 높게 해버리면 여기 다 헤벌어져서.)

106035 @ 맞수다 아이고.(맞습니다 아이고.)

---

215) '신사라(新西蘭)'는 집 울타리 안에 심는 식물. 긴 잎을 두들겨 꼬아 밧줄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106035 #2 아이게 양말을 신으카 무시거 신으카.(아이 양말을 신을까 무엇 신을까.)

106035 @ 예.(예.)

106035 #2 그자 초신헤여근넹에. 새 것쯤은 볼 박아놔근에. 신으민게 이디 게 밀어 비엉.(그저 짚신해서. 새 것쯤은 볼 박아놔서. 신으면 이데 것이 밀어 버려서.)

106035 @ 밀어 비엉예?(밀어버려서요.)

106035 #2 응 밀어 버려근넹에게.(응 밀어버려서.)

106035 @ 경 허면은 그걸 또 이제 뒛사근에 또. 안에 거가 또 벳깃디에 가근에. 신게도 헤나수과?(그렇게 하면 그것을 또 이제 뒤집어서. 안에 그것이 또 밖에 가서. 신게도 했습니까?)

106035 #2 아이 거 원 경은.(아니 거 원 그렇게는.)

106035 @ 경은 안헤낫수과?(그렇게는 안했습니까?)

106035 #2 아 경은 안헤낫주.(아 그렇게는 안했었지.)

106035 #1 아, 그 뒛상 신어나서 뒛상.(아, 그 뒤집어서 신었었어 뒤집어서.)

106035 #2 뒛상 어떵 신어봐? 터지지 안 헹 뒛상 신어집네까?(뒤집어서 어떻게 신어봐? 터지지 안 해서 뒤집어서 신습니까?)

106035 #1 헷, 헷, 헷, 헷.(헷, 헷, 헷, 헷.)

106035 #2 말도 원.(말도 원.)

106035 #1 뒛상 신으면은.(뒤집어서 신으면.)

106035 @ 예.(예.)

106035 #1 ᄒᆞ쏠 더 신지 멧 칠.(조금 더 신지 며칠.)

106035 @ ᄒᆞ끔 더 신으며는 ᄒᆞᆫ 몇 일 더 신으난예?(조금 더 신으면 한 몇 더 신으니까요?)

106035 #1 예.(예.)

106035 @ 초신을 신으며는 ᄒᆞᆫ 며칠까지 신어지는고예? ᄒᆞᆫ 달?(짚신을 신으면 한 며칠까지 신어지는가요? 한 달?)

106035 #1 아니.(아니.)

106035 #2 아니.(아니.)

106035 #1 ᄒᆞᆫ 열흘 미만.(한 열흘 미만.)

106035 @ 예.(예.)

106035 #2 비가 오민 산딧칩이난 비나 오민게 흘탁탁[216] 헤근에.(비가 오면 밭 볏짚이니까 비나 오면 흘탁탁 해서.)

106035 #1 헷, 헷.(헷, 헷.)

106035 @ 흘탁탁 빠저근네예.(흘탁탁 빠져서요.)

106035 #2 어.(어.)

106035 @ 예.(예.)

216) '흘탁탁'은 헐렁이는 모양새다.

106035 #2 겐디 벳디 물륨도 ᄒᆞ곡게.(그런데 볕에 말리기도 하고.)

106035 @ 아, 게민 맨날 앚앙 초신만 줄아신게예?(아, 그러면 맨날 앉아서 짚신만 결었겠네요?)

106035 #2 아니 게난에, 어디 안 강. 날 궂인 날은 하르방덜 초신을 자꾸 줄앗주. 경 ᄒᆞ민 경 앚아근엥에 ᄒᆞ민게. ᄒᆞ루 멧 베 ᄒᆞ민 헤영 돌아멧다근에 터지민 신곡게. 경 헷주.(아니 그러니까, 어디 안 가서. 날 궂은 날은 할아버지들 짚신을 자꾸 결었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앉아서 하면. 하루 몇 켤레 하면 해서 달아매었다가 터지면 신고. 그렇게 했지.)

106035 @ 바꽝 신곡예.(바꿔서 신고요.)

106035 #2 예 경 헷주게.(예, 그렇게 했지.)

106035 @ 예.(예.)

106035 #2 요세도 보민 육지서 보민 그거 헤당 돌아메곡.(요새도 보면 육지서 보면 그거 해다가 달아매고.)

106035 @ 예.(예.)

106035 #2 ᄒᆞᆫ 거.(한 거.)

106035 #1 옛날 나가 국민, 초등ᄒᆞᆨ교 일학년 때라.(옛날 내가 국민, 초등학교 일학년 때야.)

106035 @ 궁민학교예.(국민학교예.)

106035 #1 응, 그 일제 시데거든이.(그 일제강점기거든.)

106035 @ 예.(예.)

106035 #1 응 일제시덴데, 그 욧가[217] 팔 일마다 진자삼빠[218]일 ᄒᆞ거든.(응 일제강점긴데, 그 사흘 팔 일마다 신사참배를 하거든.)

106035 @ 아, 팔 일마다.(아, 팔 일마다.)

106035 #1 여기서도 저 일출봉 지금. 저 절간 우에 진자[219]가 잇엇서.(여기서도 저 일출봉 지금. 저 절간 위에 신사가 있었어.)

106035 @ 예, 예.(예, 예.)

106035 #1 게민 겨울에 욧가엔 ᄒᆞ민 팔일이거든.(그러면 겨울에 나흘이라고 하면 팔일이거든.)

106035 @ 아.(아.)

106035 #1 메돌 욧가, 게난 팔일.(매달 사흘, 그러니까 팔일.)

106034 @ 매달 팔일.(매달 팔일.)

106034 #1 응, 팔일 날은 진자삼빠일을 이 동남ᄒᆞᆨ교에서도 그딜 가야뒈여.(응, 팔일 날은 신사참배를 이 동남학교에서도 그 데를 가야돼.)

106035 @ 아 거길 가근에?(아 거기를 가서?)

106035 #1 응 그 참배를 허레이.(응 그 참배를 하러.)

---

217) '욧가'는 일본어 욧가(よっか)(四日), 나흘이다.
218) '진자삼빠이'는 일본말 진자삼빠이(神社參拜) 신사참배(神社參拜)다.
219) '진자'는 일본 신사(神社)다.

106035 @ 아.(아.)

106035 #1 게면은 그 초신을 신엉 간다 말이여. 게민 그 일출봉 그 중턱이라 노니까. 뒈게 ᄇᆞ름이 차가워.(그러면 그 짚신을 신어서 간다 말이다. 그러면 그 일출봉 그 중턱이라서 되게 바람이 차가워.)

106035 @ 예.(예.)

106035 #1 차가워서 초신을 신으민 이디가 아프면. 이젠 좀 벗엉 그걸 그 우이서 둘싹둘싹 헤가며는. 초신이 다 얼어부러.(차가워서 짚신을 신으면 여기가 아프면. 이젠 조금 벗어서 그것을 그 위에서 달싹달싹 해가면. 짚신이 다 얼어버려.)

106035 @ 응, 그떼 신사가 있었으면 도리 이렇게 영 세운 거 도리가 있었겠네예.(응, 그때 신사가 있었으면 도리 이렇게 이렇게 세운 거 도리가 있었겠네요.)

106035 #1 응, 그런 거 잇엇주게. 그 영 ᄒᆞᆫ 나무로.(응, 그런 거 있었지. 그렇게 한 나무로.)

106035 @ 예, 예.(예, 예.)

106035 #1 만든 거.(만든 거.)

106035 @ 예, 예.(예, 예.)

106035 #1 그게 다 잇엇주. 게난 그 그게 해방 뒈난.(그게 다 있었지. 그러니까 그 그게 해방 되니까.)

106035 @ 없에여지난예.(없애버려지니까요.)

106035 #1 응 없엣주게.(응 없앴지.)

106035 @ 아 게난 초신을 신어근에 거기까지?(아 그러니까 짚신을 신어서 거기까지?)

106035 #1 응.(응.)

106035 @ 갔다는 거라예.(갔다는 거야.)

106035 #1 응, 거기 간 ᄒᆞ니까 올 때는 올케 그거 초신은 들르고 멘발에 올 수 밖에 엇어. 거, 신지 못 헤. 다 얼어변.(응, 거기 가서 하니까 올 때는 올케 그거 짚신은 들고 맨발에 올 수 밖에 없어. 거, 신지 못 해. 다 얼어버려서.)

106035 @ 얼어부난예?(얼어버리니까요?)

106035 #1 붓더부난.(붙어버리니까.)

106035 @ 응.(응.)

106035 #1 그 그렇게 그 우리 살아서.(그 그렇게 그 우리 살았어.)

106035 @ 예. 아이고 애써수다.(예. 아이고 애썼습니다.)

106035 #1 허허, 허, 헷.(허허, 허, 헷.)

106036 @ 그 초신 종류에 대해서 ᄀᆞᆯ아줍서?(그 짚신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6036 #1 종류 엇어.(종류 없어.)

106036 @ 엇어? 어른신허고 아이신? 다 초신?(없어? 어른신하고 아이신? 다 짚신?)

106036 #1 응, 다 초신이주 무신.(응, 다 짚신이지 무슨.)
106036 @ 다 초신?(다 짚신?)
106036 #1 예.(예.)
106036 @ 여자도 똑 ᄀᆞ찌?(여자도 똑 같이?)
106036 #1 에기신도 초신이고 아 여자신이나 무신 남자신이나 그 구별이 잇인 거라?(애기신도 짚신이고 아 여자신이나 무슨 남자신이나 그 구별이 있는 거야?)
106036 #2 거 구별헤서게. 이녁 발에 맞이면 신으난게.(거 구별했어. 이녁 발에 맞으면 신으니까.)
106036 #1 좀 족게 허면은.(좀 작게 하면.)
106036 @ 예.(예.)
106036 #1 좀 족게 허면은 그자 이녁 발에 맞으면 신으니까.(좀 작게 하면은 그저 이녁 발에 맞으면 신으니까.)
106036 #2 크게 ᄒᆞ민 발 큰 사름 신곡.(크게 하면 발 큰 사람 신고.)
106036 @ 응.(응.)
106036 #2 경 헷주. 발에 맞추멍 신엇주.(그렇게 했지. 발에 맞추면서 신었지.)
106036 #1 허, 어헛, 헛.(허, 어헛, 헛.)

모자 등

106037 @ 모자가 옛날에 모자가 잇엇을 거 아니우꽈? 모자 아는 데로 ᄀᆞᆯ아줍서.(모자가 옛날에 모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자 아는 대로 말해주십시오.)
106037 #1 모자도 모자도 잇엇는데. 그 일본군인덜 쎈또[220]모라고.(모자도 모자도 있었는데. 그 일본군인들 전투모라고.)
106037 @ 아.(아.)
106037 #1 전투모라고 그 일본 놈덜 잇엇고 옌날 그 일본시대에.(전투모라고 그 일본 놈들 있었고 옛날 그 일본시대에.)
106037 @ 예.(예.)
106037 #1 거 뭐이니? 이거 뭐 헤 가지고 영 무껑 뎅겨난 모자.(거 뭐니? 이거 뭐 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다녔었던 모자.)
106037 @ 음 군인들.(음 군인들.)
106037 #1 것ᄀᆞ라 뭐엔 ᄀᆞᆯ아?(것보고 뭐라고 말해?)
106037 #2 아 뭐엔 ᄀᆞ르키여마는 노시 못 ᄀᆞ르키여. 저 속곳 속곳 그 거시기ᄀᆞ치록 멘든 거주. 그것ᄀᆞ라.(아 뭐라고 말하겠다마는 전혀 못 말하겠어. 저 속옷 속옷 그 거시기처럼 만든 거지. 그것보고.)
106037 #1 아이 게난 영 만든?(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106037 #2 복감티? 복감틴가?(감투? 감투인가?)
106037 #1 복감보.[221](‘감투모.’)

220) ‘센또모’는 일본어 전투(戰鬪)(せんとう)모(帽)자를 가르키는 말이다.

106037 #2 복감티 복감티.(감투 감투.)

106037 #1 그 게 이제 소위 폭격을 헤도.(그 게 이제 소위 폭격을 해도.)

106037 @ 응.(응.)

106037 #1 솜 놓왕 ᄒᆞ는 때문에 총알이 잘 안 들어간다고 헤서. 이거 그 때 일제시대에덜 써났어.(솜 넣어서 하는 때문 총알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그 때 일제강점기에들 썼었어.)

106037 @ 아.(아.)

106037 #2 이제 ᄀᆞ뜨면 고넹이 모자ᄀᆞ찌.(이제 같으면 고양이 모자같이.)

106037 @ 예, 예, 예.(예, 예, 예.)

106037 #1 응, 응.(응, 응.)

106037 #2 그추룩 헤네. 영 헹 멘들앙. 썽 허민 요 두엔 홋쏠 트주.(그처럼 해서. 이렇게 하고 만들어서. 써서 하면 이 뒤에는 조금 트지.)

106037 @ 예, 예.(예, 예.)

106037 #2 텅 허민 요레 영 오게 헤영 일로 이레 무꺼근엥이.(터서 하면 여기로 이렇게 오게 해서 이리로 이리 묶어서.)

106037 @ 무꺼근에예, 예, 예.(묶어서요 예, 예.)

106037 #2 그거 모ᄌᆞ를 경 헨 쓰곡.(그거 모자를 그렇게 해서 쓰고.)

106037 @ 응.(응.)

106037 #2 애기덜토 경 헹 씌와나고 헷주.(애기들도 그렇게 해서 씌웠었고 했지.)

106037 @ 예.(예.)

106037 #2 무신 모ᄌᆞ가 어디 서?(무슨 모자가 어디 있니?)

106037 @ 그 옛날에는?(그 옛날에는?)

106037 #1 그 일제시데 일제시데.(그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106037 @ 이건 일제 시데고예. 그 전에는?(이건 일제강점기고요. 그전에는?)

106037 #1 그전에는 우리 몰르고.(그전에는 우리 모르고.)

106038 @ 응 여름모자는 여름모자는 밭디서는 뭐 패랭이 말고 갓?(응 여름모자는 여름모자는 밭에서는 뭐 패랭이 말고 갓?)

106038 #1 거이 페렝이덜 썻주게.(거의 패랭이들 썼지.)

106038 #2 페렝이주게 어디 페렝이 말고 어디 서? 대페렝이 요세 밀짚페렝이도 베랑 엇곡. 대페렝이.(패랭이지 어디 패랭이 말고 어디 있니? 대패랭이 요새 밀짚패랭이도 별로 없고. 대패랭이.)

106038 #1 대로 만들어서.(대로 만들어서.)

106038 @ 대페렝이 여자나 남자나예?(대패랭이 여자나 남자나요?)

106038 #2 예.(예.)

106038 @ 예, 대페렝이.(예, 대패랭이.)

---

221) '복감보'는 복감모(帽)일 듯. 감투에 모(帽)붙어서 모자와 같은 말로 볼 수 있다.

106038 #1 대페렝이 썻주.(대패랭이 썼지.)
106038 @ 또 비올 때는, 비올 때는 모자 쓰는 거 엇엇인가마씨?(또 비올 때는, 비올 때는 모자 쓰는 거 없었는가요?)
106038 #2 모자가 아니고 저 모자 쓰다.(모자가 아니고 저 모자 쓰다.)
106038 #1 정당벌립[222]이라고.('정당벌립'이라고.)
106038 #2 정당벌립 헷, 헷, 헷.('정당벌립' 헷, 헷, 헷.)
106038 #1 게고 그 쉐털로 만든 그 벌립.(그리고 그 소털로 만든 그 벙거지.)
106038 @ 예.(예.)
106038 #1 그리고 정당벌립.(그리고 '정당벌립.')
106038 @ 예.(예.)
106038 #1 요런 거 ᄒᆞ면은 그 때 우장을 새로 쫙 만들언.(이런 거 하면은 그 때 우장을 새로 쫙 만들었어.)
106038 @ 예.(예.)
106038 #1 겐디 우리 성산 쪽에 우장이 젤 췌고로 든든ᄒᆞ게 만들어젓써.(그런데 우리 '성산'쪽에 도롱이 젤 최고로 단단하게 만들어졌어.)
106038 @ 아.(아.)
106038 #2 게난.(그러니까.)
106038 #1 그거 입곡 벌립 써불민 원. 비가 암만 와도 이건.(그거 입고 벙거지 써버리면 원. 비가 암만 와도 이거는.)
106038 @ 아.(아.)
106038 #2 쏘곱더레 안 드난게.(속안으로 안 드니까.)
106038 @ 비가 안 들어근에예.(비가 안 들어서요.)
106038 #1 응.(응.)
106038 @ 아, 아.(아, 아.)
106038 #2 게난 우장 쓰곡. 벌립모ᄌᆞ 써근에. 헤, 헤.(그러니까 도롱이 쓰고. 벙거지모자 서서. 헤, 헤.)
106038 @ 벌립모자 써근에예.(벙거지모자 써서요.)
106038 #2 응.(응.)
106039 @ 겨울모자는?(겨울모자는?)
106039 #2 게메 겨울 모자는 복감보 그거 복감티엔사.(그러면 겨울 모자는 감투 그거 감투라고야.)
106039 #1 헷, 헷, 헷.(헷, 헷, 헷.)
106039 #2 헤신디 복감보엔 헤신디 하. 하.(했는지 '복감모'라야 했는지 하. 하.)
106039 @ 복감티이.(감투.)
106039 #2 예, 감티 그거 멘들안 썬.(예, 감투 그거 만들어서 썼어.)
106038 @ 음.(음.)

222) '정당벌립'은 댕댕이덩굴로 결은 벙거지로 모자다.

106039 #1 그 그게 일본사람들이 쓰고 온 거라. 일본서.(그 그것이 일본사람들이 쓰고 온 거야. 일본에서.)

106038 @ 응.(응.)

106039 #1 그 뭐이냐 ᄒᆞ며는 거 소위 이. 공습ᄒᆞᆯ 때도.(그 뭐냐 하며는 거 이른바. 공습할 때도.)

106038 @ 응.(응.)

106039 #1 그거 솜 놓아서 이 두껍게 헤 불이며는 뭐 실탄도 여기 그 솜을 막 놔불이며는 안 들어간다고 헤서 그.(그거 솜 넣어서 이 두껍게 해 버리면 뭐 실탄도 여기 그 솜을 마구 넣어 버리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

106038 @ 응.(응.)

106039 #1 파편 ᄀᆞ뜬 거.(파편 같은 거.)

106039 #2 저 씰 쏘곱에도 데가리에도 들어가는 거 솜만썩 놓는 거 안 들어 갑네까게?(저 실 속안에도 머리에도 들어가는 거 솜만큼 놓는 거 안 들어갑니까요?)

106038 @ 하, 하핫.(하, 하핫.)

106039 #1 헤, 헷.(헤, 헷.)

106039 #2 말만 말만 그렇주. 뚯게 허젠.(말만 말만 그렇지. 따습게 하려고.)

106040 @ 양테 저기 헤난 거 알아지쿠과?(갓양테 저기 했던 거 알아지겠습니까?)

106040 #2 양테?(갓양테?)

106040 @ 양테예. 양테.(갓양테요. 갓양테.)

106040 #2 양?(예?)

106040 @ 양테예.(갓양테요.)

106040 #2 아이 몰르큰게 난 무스건지.(아이 모르겠어 난 무엇인지.)

106040 #1 양테가 뭐이라.(갓양테가 뭐야.)

106040 #2 나도 몰르쿠다. 양테가 뭣산지.(나도 모르겠습니다. 갓양테가 뭣인지.)

106040 @ 양테에 그 저기 망건허고 양테ᄒᆞ곡.(갓양테요 그 저기 망건하고 갓양테하고.)

106040 #1 아, 양테가 뭔지 몰르크라. 망건은 이 이멩이에 쓰는 게 망건이주만은.(아, 갓양테가 뭔지 모르겠어. 망건은 이 이마에 쓰는 것이 망건이지만은.)

106040 @ 예, 양테예.(예, 갓양테요.)

106041 @ 총모자?(총모자?)

106041 #1 음, 총모자는 거시기주게.(음, 총모자는 거시기지.)

106041 @ 아까 복감티 같은 거꽈?(아까 감투 같은 겁니까?)

106041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6041 @ 말총모자?(말총모자?)

106041 #1 건 말총으로 만든 건디. 저 것끄라 무시거엔 ᄒᆞ느니? 제ᄉᆞ ᄒᆞᆯ 때 쓰

는 거.(건 말총으로 만든 건데. 저 것보고 무엇이라고 하니? 제사 할 때 쓰는 거.)
106041 @ 갓?(갓?)
106041 #1 갓.(갓.)
106041 @ 아 갓.(아 갓.)
106041 #1 거 거 거 말총으로 멘드는 거주.(거 거 거 말총으로 만드는 거지.)
106041 @ 말총모자 갓예? 총모자 갓예. 어 총모자 겯는 거는 모르주예? 알아지쿠꽈?(말총모자 갓요? 총모자 갓요. 어 총모자 겯는 거는 모르지요? 알아지겠습니까?)
106041 #1 몰라.(몰라.)
106042 @ 여기는, 탕건?(여기는, 탕건?)
106042 #1 응?(응?)
106042 @ 탕건 탕건.(탕건 탕건.)
106042 #1 아 게. 탕건도 그 갓 쏘곱에 쓰는 거거든.(아 그럼. 탕건도 그 갓 속 안에 쓰는 거거든.)
106042 @ 예, 예, 예. 이거 갓 쏙에 쓰는 거예? 갓 속에.(예, 예, 예. 이거 갓 속에 쓰는 거요? 갓 속에.)
106043 @ 응, 갓 쏙에 망건?(응 갓 속에 망건?)
106043 #1 망건은 이 이마에.(망건은 이마에.)
106043 @ 예 이마에예.(예 이마에요.)
106043 #1 두르는 거.(두르는 거.)
106043 @ 두르는 거예? 그것도 여기서 만드는 거나 뭐 허는 거는 집에는 잇어실 거 아니우꽈? 하르버지네는.(이마에 두르는 거요? 그것도 여기서 만드는 거나 뭐 하는 거는 집에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들은.)
106043 #1 어, 잇엇주. 잇엇는디.(어, 있었지. 있었는데.)
106043 @ 으 이 갓도 게. 저기 저 식게 때 허젠 허면은 갓 쓰는 데는 베랑, 갓은 안 써근엥예.(으 이 갓도 게. 저기 저 제사 때 하려고 하면 갓 쓰는 데는 별로, 갓은 안 썼어요.)
106043 #2 제사 뗀 갓은 안 쓰고 그 망건인가 무시거 검은 것만 영 썬게.(제사 땐 갓은 안 쓰고 그 망건인가 무엇 검은 것만 이렇게 썼어.)
106043 #1 아니.(아니.)
106043 #2 거 무시것과?(거 무엇입니까?)
106043 #1 거 도복을 입으민 갓을 쓰게 뒌 거라. 원칙으로.(거 도포를 입으면 갓을 쓰게 된 거야. 원칙으로.)
106043 @ 예.(예.)
106043 #2 게메 거 안 썬게게.(그러니까 거 안 썼어.)
106043 #1 도복을 도복을 안 입언 창옷만 입으니까.(도포를 도포를 안 입고 창옷만 입으니까.)

106043 @ 어.(어.)
106043 #1 거 두르메기만 입으니까 안 쓰는 거지.(거 두루마기만 입으니까 안 쓰는 거지.)
106043 #2 신양리.('신양'이.)
106043 #1 게난.(그러니까.)
106043 #2 신양리 제ᄉᆞ 홀 때 가난 검은 거 무시건만 썻언게.('신양'이 제사 할 때 가니까 검은 거 무엇만 썼던데.)
106043 #1 아 게메 그거 갓 엇이난 그거 갓 데신 쓴 거주게.(아 그러니까 그거 갓 없으니까 그거 갓 대신 쓴 거지.)
106043 #2 게메 게난.(그럼 그러니까.)
106043 #1 그거 유건인디.(그거 유건인데.)
106043 #2 게메.(그러니까.)
106043 #1 경 ᄒᆞ난 저게, 그 본레 도복을 입으민 갓을 써야 그게.(그렇게 하니까 저게, 그 본래 도포를 입으면 갓을 써야 그게.)
106043 @ 예, 예.(예, 예.)
106043 #1 그 갖추는 거라.(그 갖추는 거야.)
106043 @ 예, 예.(예, 예.)
106043 #1 겐디 갓이 경.(그런데 갓이 그렇게.)
106043 @ 엇주.(없지.)
106043 #1 메 집이 없음으로 못 쓰는 거주.(매 집에 없음으로 못 쓰는 거지.)
106043 @ 갓이 메 집이 없어서예?(갓이 매 집이 없어서요?)
106043 #1 응.(응.)
106043 @ 그 옛날에도예? 예 맞수다.(그 옛날에도요? 예 맞습니다.)
106043 #1 응, 아 그 엣날엔 어느 정돈 거이 노인들은 다 잇어낫는데.(응, 아 그 옛날엔 어느 정도 거의 노인들은 다 있었는데.)
106043 @ 예, 예예.(예, 예예.)
106043 #1 그게 ᄎᆞᄎᆞᄎᆞᄎᆞ 그 시대가 헨. 일제시대가 끗나고 헤가니까 그게 엇어진 거주게.(그것이 차차차차 그 시대가 해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가니까 그게 없어진 거지.)
106044 @ 응 도롱이. 아까 저기 우장이 도롱이 아닛꽈예?(응 도롱이. 아까 저기 우장이 도롱이 아닙니까요?)
106044 #1 응?(응?)
106044 @ 도롱이. 우장. 우장이 도롱이 아닌가마씨?(도롱이. 도롱이. 도롱이 도롱이 아닌가요?)
106044 #1 몰라, 난 도롱이엔 ᄒᆞᆫ 말은 안 들어봐서.(몰라, 난 도롱이라고 한 말은 안 들어봤어.)
106044 @ 안 들어봐수꽈?(안 들어봤습니까?)

106044 #1 응 우장.(응 도롱이.)

106044 @ 우장? 아, 도롱이 안 들고. 우장도 긴 것도 잇고 짧은 것도 잇지 안우꽈예?(도롱이? 아, 도롱이 안 듣고. 도롱이도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요?)

106044 #1 게난 그건 만들메 가는 거주게. 하르방이 만들 때 홋솔 길게 만들어불민 긴 거고, 홋솔 쫄르게 만들어불민 쫄른 거주.(그러니까 그건 만듦에 가는 거지. 할아버지가 만들 때 조금 길게 만들어버리면 긴 거고, 조금 짧게 만들어버리면 짧은 거지.)

106044 @ 하, 하핫.(하, 하핫.)

106044 #1 그걸 똑 규격헨.(그걸 똑 규격해서.)

106044 @ 아.(아.)

106044 #1 제멍 만들진 안헤시난.(재면서 만들진 안했으니까.)

106044 @ 게난 이 동네 거는 비가 안 들게끔예. 헷덴 허니까는.(그러니까 이 동네 거는 비가 안 들게끔요. 했다고 하니까는.)

106044 #2 길게 입엇주게.(길게 입었지.)

106044 @ 길게 입엉예?(길게 입어서요?)

106044 #2 이디 우장 길게 입엇주.(여기 도롱이 길게 입었지.)

106044 #1 으 응.(으 응.)

106044 @ 길게 입엉예. 길게 입곡 겉으론 짜는 그 방법이 다른 거라예?(길게 입어서요. 길게 입고 겉으로는 짜는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106044 #1 아니 방법은 아주 촘촘ᄒᆞ게. 거 거 허젠 ᄒᆞ문 어.(아니 방법은 아주 촘촘하게. 거 거 하려고 하면 어.)

106044 #2 줌지리 헌 거.(아주 잘게 한 거.)

106044 #1 거 새도 막 촘촘히 그거 장만헤가지고오, 아주 께끗이 헤서 그.(새도 막 촘촘히 그거 장만해가지고 아주 깨끗이 해서 그.)

106044 @ 예.(예.)

106044 #1 잘 헷주.(잘 했지.)

106044 @ 예.(예.)

106044 #2 게난 데가린 끗차동. 그 데가린 영 새가 영 질민 이 이파린 이만헤곡 요딧 거는 영 끗차근넹에 영 홀타불민. 이디 붓터난 여핏 것만 헤영ᄒᆞ민.(그러니까 머리는 끊어두어서. 그 머리는 이렇게 띠가 이렇게 길민 이 잎은 이만하고 여기에 거는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홅아버리면. 여기 붙었던 옆의 것만 해서하면.)

106044 @ 음.(음.)

106044 #2 그 이파리에 것에 거 이파리에 것에 그것에 헤영 노끗에 헹 놩. 쫑쫑ᄒᆞ게시리 헤영. 봉오리 잔뜩 헹 헤불면. 이 근방에 거는 경 쫑쫑ᄒᆞ게 헹 물도 안 들어가곡.(그 잎에 것에 거 잎에 것에 그것에 해서 노끈에 해서 놓아서. 쫑쫑하게끔 해서. 봉오리 잔뜩 해서 해버리면. 이 근방에 것은 그렇게 쫑쫑하게 해서 물도 안

들어가고.)
106044 @ 예.(예.)
106044 #1 응.(응.)
106044 #2 경 ᄒᆞ곡 딴 디서는 그거를 잘 홀트지 안 헤근엥이 요디 영 쪽 들여놓을 걸.(그렇게 하고 딴 데서는 그거를 잘 홅지 안 해서 요데 이렇게 쏙 들여놓을 걸.)
106044 @ 으 응.(으 응.)
106044 #2 요만이 헤불곡 요만이 헤불곡 ᄒᆞ며는.(요만큼 해버리고. 요만큼 해버리고 하면.)
106044 @ 응 물이 물이 들어강예.(응 물이 물이 들어가서요.)
106044 #2 경 늘어정 얼곡.(그렇게 늘어져서 얼고.)
106044 @ 예.(예.)
106044 #2 비가 들어가곡. 경 헷주.(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했지.)
106043 @ 예, 예, 예.(예, 예, 예.)
106044 #2 게난 그 짜는 차이, 짜는 차이.(그러니까 그 짜는 차이, 짜는 차이.)
106044 @ 예, 맞수다. 짜는 차이예?(예, 맞습니다. 짜는 차이요?)
106044 #2 응.(응.)
106044 @ 이 틈세예? 응.(이 틈새요? 응.)
106044 #2 응.(응.)
106044 @ 아이고 여섯시 십오 분. 삼춘, ᄀᆞ만이 앚앙 허젠허니까 화장실도 못 가곡.(아이고 여섯시 십오 분. 삼촌 가만히 앉아서 하려고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106044 #2 아이 뒛수다.(아이 됐습니다.)
106044 @ 잠깐 쉬곡예 잠깐 쉬곡예. 잠깐예. 나중에 남자 삼춘예.(잠깐 쉬고요 잠깐 쉬고요. 잠깐요. 나중에 남자 삼촌요.)
106044 #1 나? 나 헤도 좋고 안 헤도 좋아게(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106044 @ 집 허는 거. 집 허는 거는예? 그거는 또 시간 보멍예.(집하는 거. 집하는 거는요? 그거는 또 시간 보면서요.)
106044 #1 응.(응.)
106044 @ 이거는 또, 저기.(이거는 또, 저기.)
106044 #1 허, 헛.(허, 헛.)
106044 @ 쪼끔 이따가 삼춘안티, 여자삼춘안티 들어 볼 거가 잇수다.(조금 이따가 삼촌한테, 여자삼촌한테 들어 볼 것이 있습니다.)
106044 #1 응.(응.)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거문 이제 밥 해 먹는거예?(그러면 이제 밥 해 먹는 거요?)

107001 #2 무시거 헐 거?(무엇 할 거?)

107001 @ 밥 헤 먹는 거.(밥 해 먹는 거.)

107001 #2 밥 헤 먹는 거. 허, 허, 허, 헛.(밥 해 먹는 거. 허, 허, 허, 헛.)

107001 @ 밥의 종류?(밥의 종류?)

107001 #2 응.(응.)

107001 @ 밥 종류 굴아줍서.(밥 종류 말해주십시오.)

107001 #2 밥 종류게.(밥 종류.)

107001 @ 예.(예.)

107001 #2 초담에 우리 헐 떼게. 보리밥헤연에 먹고.(처음에 우리 할 때. 보리밥 해서 먹고.)

107001 @ 예. 보리밥예?(예. 보리밥요?)

107001 #2 그다음에 조팝헤영 먹곡.(그다음에 조밥해서 먹고.)

107001 @ 예.(예.)

107001 #2 조팝 좁쏠에 감저 싸라놩 밥헹 먹곡.(조밥 좁쌀에 고구마 썰어 넣어서 밥해서 먹고.)

107001 @ 예 좁쏠에 감저예?(예 좁쌀에 고구마요?)

107001 #2 예.(예.)

107001 @ 감저허곡.(고구마하고.)

107001 #2 또 보리 하도 그 저 제국시절인가. 어느 뗀가. 공출허고 하간거 ᄒᆞ난에, ᄑᆞ레 헤단에 보리밥에 ᄑᆞ레헨 먹고.(응, 또 보리 너무나 많이 그 저 제국시절인가. 어느 땐가. 공출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파래 해다가 보리밥에 파래해서 먹고.)

107001 @ 예.(예.)

107001 #1 톨, 톳.(톳, 톳.)

107001 #2 에이.(에이.)

107001 #1 톨밥.(톳밥.)

107001 #2 ᄑᆞ레밥 헨 먹고.(파래밥 해서 먹고.)

107001 @ 보리.(보리.)

107001 #2 보리 쏠엔 톨밥.(보리 쌀엔 톳밥.)

107001 @ 예 톨밥. 예.(예 톳밥. 예.)

107001 #2 또 조 철엔 나난 톨밥 헨 먹고.(또 조 철에는 되면 톳밥 해서 먹고.)

107001 @ 톨밥예?(톳밥요?)

107001 #2 예.(예.)

107001 @ 예, 또 보리에 톨이엔 헷지예? 아까예?(예, 또 보리에 톳이라고 했지요? 아까요?)

107001 #2 보리 보리에는 ᄑᆞ레.(보리 보리에는 파래.)

107001 @ 아, 픠레에.(아, 파래에.)
107001 #2 응.(응.)
107001 @ 아, 픠레에. 예.(아, 파래에. 예.)
107001 #2 좁쏠에는 톨.(좁쌀에는 톳.)
107001 @ 톨예. 또.(톳요. 또.)
107001 #2 경 허고게. 그자 펭세 때 먹을 뗀게, 보리쏠에 좁쏠에 놩 밥헹 먹곡.(그렇게 하고. 그저 평소 때 먹을 땐, 보리쌀에 좁쌀에 넣어서 밥해서 먹고.)
107001 @ 보리 보리쏠.(보리 보리쌀.)
107001 #2 보리쏠.(보리쌀.)
107001 @ 좁쏠.(좁쌀.)
107001 #2 응, 놩 밥도 헹 먹곡.(응, 넣어서 밥도 해서 먹고.)
107001 @ 이 밥은 보리쏠 좁쏠은 그냥 무슨 밥이엔 헙니까? 그냥.(이 밥은 보리쌀 좁쌀은 그냥 무슨 밥이라고 합니까? 그냥.)
107001 #2 아, 그냥 밥이엔.(아, 그냥 밥이라고.)
107001 @ 그냥 밥?(그냥 밥?)
107001 #2 보리쏠 놓고 좁쏠 놩 흔 밥 그자.(보리쌀 넣고 좁쌀 넣어서 한 밥 그저.)
107001 @ 흔 밥이엔 ᄒᆞ곡(한 밥이라고 하고.)
107001 #2 응 게곡. 또 이따근넹에 감자 싸라 놓곡 좁쏠만 놩 밥, 니젱이 놓고 헹. 밥도 헹 먹곡.(응 그렇게 하고. 또 이따가 고구마 썰어 넣고 좁쌀만 넣어서 밥, 나깨 넣고 해서. 밥도 해서 먹고.)
107001 @ 감저에 느젱이?(고구마에 나깨?)
107001 #2 응, 좁쏠에 헤근에 니젱이 놔근에. 밥헹 먹곡.(응, 좁쌀에 해서 나깨 넣어서. 밥해서 먹고.)
107001 #1 메밀ᄀᆞ루 ᄀᆞᆯ아난디.(메밀가루 갈았던데.)
107001 @ 예.(예.)
107001 #2 니젱이.(나깨.)
107001 #1 그 니젱이 그게 맛잇인 거라. 하, 하핫(그 나깨 그게 맛있는 거야. 하, 하핫.)
107001 @ 그, 저기 좁쏠도 들어가고, 감저도 들어가고.(그, 저기 좁쌀도 들어가고, 고구마도 들어가고.)
107001 #2 들어가고.(들어가고.)
107001 @ 니젱이도 들어가고?(나깨도 들어가고?)
107001 #2 응.(응.)
107001 @ 아, 이거는 이건 제일 좋은 음식이우다.(아, 이거는 이게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107001 #2 응, 게난.(응, 그러니까.)

107001 @ 이제까지.(이제까지.)
107001 #2 어떵 ᄒᆞ민.(어떻게 하면.)
107001 @ 예.(예.)
107001 #2 좁쏠 물 꿰민, 좁쏠 놔.(좁쌀 물 끓이면, 좁쌀 넣어.)
107001 @ 예.(예.)
107001 #2 그다음에 감저 놩.(그다음에 고구마 넣어서.)
107001 @ 예.(예.)
107001 #2 이제 밥이 다 뿔어가 가민 니젱이 웃터레 확 허꺼.(이제 밥이 다 잦히어가 가면 나깨 위로 확 흩어.)
107001 @ 확 허꺼근네예.(확 흩어서요.)
107001 #2 경 헤근에 이제.(그렇게 해서 이제.)
107001 @ 예.(예.)
107001 #2 헷다근에 틈 자민 박박 젓엉.(했다가 뜸 재우면 박박 저어서.)
107001 @ 예.(예.)
107001 #2 밥을 ᄒᆞ민 맛 좋주게.(밥을 하면 맛 좋지.)
107001 @ 맛 좋주예? 예.(맛 좋지요? 예.)
107001 #2 예.(예.)
107001 @ 영 허곡.(이렇게 하고.)
107001 #2 경 허곡 또 기축 헹 그 밥을 헹 먹곡.(그렇게 하고 또 그처럼 해서 그 밥을 해서 먹고.)
107001 @ 응, 풋밥 또 먹어 나수과? 콩밥 풋밥.(응, 팥밥 또 먹었었습니까? 콩밥 팥밥.)
107001 #2 저 톨밥?(저 톳밥?)
107001 @ 풋 풋?(팥 팥?)
107001 #2 풋은, 잔칫 떼나.(팥은, 잔치 때나.)
107001 @ 응.(응.)
107001 #2 그떼나 풋에 보리쏠에 서껑 밥헹 먹곡.(그때나 팥에 보리쌀에 섞어 밥해서 먹고.)
107001 @ 예, 잔칫 떼예?(예, 잔치 때요?)
107001 #2 예.(예.)
107001 @ 응, 잔치ᄒᆞ고.(응, 잔치하고.)
107001 #2 응, 경 ᄒᆞ영.(응, 그렇게 해서.)
107001 @ 또 콩. 콩도 놔근에. 밥에 콩 놔근에.(또 콩. 콩도 넣어서. 밥에 콩 넣어서.)
107001 #2 콩은 아니 놔.(콩은 아니 넣어.)
107001 @ 찹쌀 같은 거. 산듯밥 멧밥.(찹쌀 같은 거. 밭벼밥 메밥.)
107001 #2 아니, 그런 거 멧밥에 저 보리 쏠이나 콩이나 서껑 ᄒᆞ진 아년. 멧밥

은.(아니, 그런 거 메밥에 저 보리쌀이나 콩이나 섞어서 하지는 아니하고. 메밥은.)
107001 @ 곤밥으로만.(흰쌀밥으로만.)
107001 #2 이제 곤쏠만 놩 허고.(이제 흰쌀만 넣어서 하고.)
107001 @ 예.(예.)
107001 #2 이제 수정이나 하근넹. 갈라먹젠 ᄒᆞ민, 갈라 먹을 밥은.(이제 수나 많아서. 나누어먹으려고 하면, 갈라 먹을 밥은.)
107001 @ 예.(예.)
107001 #2 보리쏠에 곤쏠에 서꺼근에 헤어나고.(보리쌀에 흰쌀에 섞어서 해났고.)
107001 @ 보리에예.(보리에요.)
107001 #2 으 경 헷주만은.(으 그렇게 했지만은.)
107001 @ 곤쏠에예. 예, ᄆᆞ믈로?(흰쌀에요. 예, 메밀로?)
107001 #2 ᄆᆞ믈로.(메밀로.)
107001 @ ᄆᆞ믈쏠로만 헨 밥. ᄆᆞ믈?(메밀쌀로만 한 밥. 메밀?)
107001 #2 ᄆᆞ믈쏠로만 밥은 안 뒈고.(메밀쌀로만 밥은 안 되고.)
107001 @ 예.(예.)
107001 #2 저 거시기.(저 거시기.)
107001 #1 좁쏠에.(좁쌀에.)
107001 #2 좁쏠에 서껑.(좁쌀에 섞어서.)
107001 #1 좁쏠에.(좁쌀에.)
107001 @ 좁쏠에 서꺼근에예?(좁쌀에 섞어서요?)
107001 #2 응 밥허민 ᄆᆞᆫ지락허게 맛 좋주 맛 좋아낫주.(응 밥하면 '멘작'하게 맛좋지 맛좋았었지.)
107001 @ 응 좁쏠ᄒᆞ고 저기.(응 좁쌀하고 저기.)
107001 #2 ᄆᆞ믈쏠ᄒᆞ고.(메밀쌀하고.)
107001 @ ᄆᆞ믈예?(메밀요?)
107001 #1 ᄆᆞ믈쏠은 쪼금 놓곡.(메밀쌀은 조금 넣고.)
107001 @ 예, 거문 이 밥은 무신 밥이엔 허코예?(예, 그러면 이 밥은 무슨 밥이라고 할까요?)
107001 #2 무신 밥이엔 헐 것산디. 좁쏠에 저 ᄆᆞ믈쏠 놘 밥 헷저, 먹으라 영 헷주. 으 하, 하하.(무슨 밥이라고 할 것인지. 좁쌀에 저 메밀쌀 넣어서 밥 했다. 먹어라 이렇게 했지. 으 하, 하하.)
107001 @ 예.(예.)
107001 #2 응.(응.)
107002 @ 밥 허는 쌀이 종류에 대해서 ᄀᆞᆯ아줍서. 밥허는 쌀.(밥 하는 쌀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밥하는 쌀.)
107002 #2 밥허는 거게. 보리쏠, 좁쏠.(밥하는 거. 보리쌀, 좁쌀.)

107001 @ 예.(예.)
107002 #2 피쏠, 석상비쏠.[223](핍쌀, '석상비쌀.')
107002 @ 석(석?)
107002 #2 석상비.('석상비')
107002 @ 석상비?('석상비?')
107002 #2 쏠.(쌀.)
107002 @ 피쏠?(핍쌀?)
107002 #2 응.(응.)
107002 @ 응 석상비.(응 '석상비.')
107002 #2 피쏠.(핍쌀.)
107001 @ 예.(예.)
107002 #1 산듸쏠.(밭벼쌀.)
107001 @ 예.(예.)
107002 #2 산듸쏠.(밭벼쌀.)
107002 @ 산듸쏠 좁쏠 게니까 ᄆᆞ믈쏠은 아니고?(밭벼쌀 좁쌀 그러니까 메밀쌀은 아니고?)
107002 #2 응, 모믈쏠은게. 좁쏠에 서껑에.(응, 메밀쌀은. 좁쌀에 섞어서.)
107001 @ 예 서끄멍 ᄒᆞ니까예.(예 섞으면서 하니까요.)
107002 #2 ᄆᆞ믈쏠만 놩 밥을 못ᄒᆞ난게.(메밀쌀만 넣어 밥을 못하니까.)
107002 @ 예, 예, 예, 쌀 종류가.(예, 예, 예, 쌀 종류가.)
107002 #2 피 좁쏠게.(피 좁쌀.)
107001 @ 예.(예.)
107002 #2 석상비쏠.('석상비쌀.')
107002 @ 석상비 피쏠예?('석상비' 핍쌀요?)
107002 #2 응.(응.)
107002 @ 석상피쏠?('석상비쌀?')
107003 @ 그 보리밥에 보리밥에 대해 저기 ᄀᆞᆯ아줍서. 보리밥.(그 보리밥에 보리밥에 대해 저기 말해주십시오. 보리밥.)
107003 #2 보리밥엔게 보리밥에 서끄는 건 좁쏠에 보리쏠에도 서껑 ᄒᆞ곡 곤쏠에 보리쏠에 서껑도 허곡게.(보리밥에는 보리밥에 섞는 건 좁쌀에 보리쌀에도 섞어서 하고 흰쌀에 보리쌀에 섞어서도 하고.)
107003 @ 예, 예.(예, 예.)
107003 #2 경 헷주게.(그렇게 했지.)
107003 @ 예. 보리쌀 보리밥은 허젠 허면은.(예. 보리쌀 보리밥은 하려고 하면은.)
107003 #2 보리밥은 그자. 보리밥만 허젱 허민. 보리밥 부꾸왓다근넹에.(보리밥

223) '석상비쏠' '석상베쏠'은 '산듸 춥쏠' 찰기가 있는 밭벼의 한 종류다.

은 그저. 보리밥만 하려고 하면. 보리밥 끓었다가.)
107003 @ 예.(예.)
107003 #2 혼 번 궤엉.(한 번 끓여서.)
107003 @ 혼 번 궤엉예.(한 번 끓여서요.)
107003 #2 ᄒᆞ쏠 틈 제왓당.(조금 뜸 재웠다가.)
107003 @ 예.(예.)
107003 #2 틈 제왓다근에. 따시 불 솜앙 뿔롸.(뜸 재웠다가. 다시 불 때어 잦히어서.)
107003 @ 뿔라근에예?(잦히어서요?)
107003 #2 예 경 헤근넹엥 틈 자민.(예 그렇게 해서 뜸 재면.)
107003 @ 틈 자근네예.(뜸 재서요.)
107003 #2 퍼 놩 먹엇주게.(퍼 넣어서 먹었지.)
107003 @ 예 헤근에 뭐 이것저것 놔근에도 되고 보릿쏠은 한번 궤어근에예? 예.(해서 뭐 이것저것 넣어서도 되고 보리쌀은 한번 끓여서요? 예.)
107003 #2 응.(응.)
107003 @ 경 ᄒᆞ곡 보리밥은 하영 쉬어나지 안헤수과예? 여름에.(그렇게 하고 보리밥은 많이 쉬었었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107003 #2 여름에 하영 쉬주게.(여름에 많이 쉬지.)
107003 @ 하영 쉬어그네예.(많이 쉬어서요.)
107003 #2 예.(예.)
107003 @ 그 하영 쉬어나민.(그 많이 쉬어나면.)
107003 #2 거 하영 쉬엉.(거 많이 쉬어서.)
107003 @ 예.(예.)
107003 #2 경 허민 그거 네불지 못헤영 아까와근에 쉰다리[224] 헤영.(그렇게 하면 그거 내버리지 못해서 아까워서 '쉰다리' 해서.)
107003 @ 쉰다리헹여예?('쉰다리'해서요?)
107003 #2 예, 순다리 헤여근에 저 거시기 그거 쑤어근에 먹었주.(예, '순다리' 해서 저 거시기 그거 쑤어서 먹었지.)
107003 @ 예. 순다리헤근에, 아 순다리헹 한번 쑤어근에예?(예. '순다리'해서, 아 '순다리'해서 한번 쑤어서요?)
107003 #2 응, 끌여근에.(응, 끓여서.)
107003 @ 끌여근에예?(끓여서요?)
107003 #2 예.(예.)
107003 @ 예 순다리, 이거는 여름에는 또 막 그 몸에 좋은 거. 요즘은 막 몸에 좋텐 헤근에.(예 '순다리,' 이거는 여름에는 또 아주 그 몸에 좋은 거. 요즘은 막 몸에 좋다고 해서.)

224) '쉰다리'는 쉰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飮料)다.

107003 #2 응. 게메.(응. 그러니까.)
107003 @ 일부러 순다리덜 많이 헤근에.(일부러 순다리들 많이 해서.)
107003 #2 순다리 헹 많이 먹엄주.('순다리' 해서 많이 먹고 있지.)
107003 @ 요구르트보다도 뭐.(요구르트보다도 뭐.)
107003 #2 예.(예.)
107003 @ 좋덴 허멍.(좋다고 하면서.)
107003 #2 예.(예.)
107003 @ 허멍 골읍디다마는. 보리밥 허고, 보리밥은 허게 되면은 그 해나면은 솥디 놓으면은 쉬어불 거난에 다시 저기 차.(하면서 말합니다만. 보리밥 하고, 보리밥은 하게 되면 그 해나면 솥에 넣으면 쉬어버릴 거니까 다시 저기 차.)
107003 #2 차반지에 퍼.(채롱에 퍼.)
107003 @ 차반지에 퍼근에.(채롱에 퍼서.)
107003 #2 돌아메여.(달아매어.)
107003 @ 돌아메여예?(달아매어요?)
107003 #2 예.(예.)
107003 @ 차반지에 해서예 돌아메여예.(채롱에 해서 달아매어요.)
107004 @ 반지기밥.(반지기밥.)
107004 #2 반지기밥?('반지기밥?')
107004 @ 예, 반지기밥.(예, '반지기밥.')
107004 #1 반제기밥이엔 헹. 반반 헌 밥을.('반지기밥'이라고 해서. 반반 한 밥을.)
107004 #2 게난 서껑 허는.(그러니까 섞어서 하는.)
107004 #1 반제기. 헤, 헷('반지기.' 헤, 헷.)
107004 @ 예.(예.)
107004 #2 서껑 허는, 서껑 ᄒᆞ는 밥ᄀᆞ라 반지기밥이엔 헤실 테주.(섞어서 하는, 섞어서 하는 밥보고 반지기 밥이라고 했을 테지.)
107004 @ 예, 예, 예.(예, 예, 예.)
107004 #1 헤, 헤 헷.(헤, 헤 헷.)
107004 @ 거문 아까 보리쏠, 곤쏠.(그러면 아까 보리쌀, 흰쌀.)
107004 #2 응.(응.)
107004 #2 예.(예.)
107004 @ 좁쏠 ᄆᆞ믈쏠 뭐 보리 좁쏠.(좁쌀 메밀쌀 뭐 보리 좁쌀.)
107004 #2 게 곤쏠도 놓곡게.(그럼 흰쌀도 넣고.)
107004 @ 곤쏠도 허고예.(흰쌀도 하고요.)
107004 #2 그거 다 놘, 경 ᄒᆞ난 게 반지기밥이엔.(그거 다 넣고, 그렇게 하니까 게 '반지기밥'이라고.)
107004 @ 반지기밥예.('반지기밥'요.)

107004 #2 헤실 테주.(했을 테지.)
107004 @ 예, 섞어근에 허는 거예?(예, 섞어서 하는 거요?)
107004 #2 응.(응.)
107005 @ 흰밥에 대해서 골아줍서. 흰밥.(흰밥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흰밥.)
107005 #2 쉰밥은게. 쉰다리 헹 먹는.(쉰밥은. '쉰다리' 해서 먹는.)
107005 @ 흰, 흰밥.(흰, 흰밥.)
107005 #2 아 흰밥 흰쏠밥게.(아 흰밥 흰쌀밥.)
107005 @ 흰쏠밥예?(흰쌀밥요?)
107005 #2 예.(예.)
107005 @ 흰쏠밥 곤밥.(흰쌀밥 흰쌀밥.)
107005 #2 곤밥 허 헛.(흰쌀밥 허 헛.)
107005 @ 곤밥. 허, 허, 허, 허.(흰쌀밥. 허, 허, 허, 허.)
107005 #2 허 헛, 이제 춤 흰쏠밥은 이젯 말. 곤밥.(허 헛, 이제 참 흰쌀밥은 이제 말. 흰밥.)
107005 #1 허, 허 헛.(허, 허 헛.)
107005 @ 곤밥예?(흰밥요?)
107004 #2 응.(응.)
107005 @ 새각시밥?[225]('신부밥?')
107005 #2 응, 새각시 밥. 허 헛.(응, '신부밥.' 허 헛.)
107005 @ 새각시밥. 새스방밥.[226]('신부밥.' '새신랑밥.')
107005 #2 새스방밥.('새신랑밥.')
107005 @ 식게밥.(제삿밥.)
107005 #2 응 식게밥.(응 제삿밥.)
107005 @ 곤밥이난예?(흰밥이까요?)
107005 #2 응, 곤밥이난에. 응.(응, 흰밥이니까. 응.)
107005 @ 식게밥예.(제삿밥요.)
107005 #1 춤 곤밥 혼 직 얻어먹젱.(참 흰밥 한 술 얻어먹으려고.)
107005 @ 예.(예.)
107005 #1 혼 줌.(한 줌.)
107006 #2 허어 헛.(허어 헛.)
107005 #1 혼 숟가락 얻어먹젱 아이고.(한 숟가락 얻어먹으려고 아이고.)
107006 @ 조팝, 조팝.(조밥, 조밥.)
107006 #1 으하 핫.(으하 핫.)
107006 @ 조팝에 대해근에 골아줍서. 아까는 조팝은 여기 이 서끄니까는예. 서

225) '새각시밥' 결혼식 하면서 갓 결혼하는 신부가 신랑집에서 도착해서 처음 받아든 상에 놓인 밥을 말한다. 신부상에는 흰쌀밥을 해서 올려놓는다. 이 밥이 '신부밥'이다.
226) '새스방밥'은 결혼식 하면서 갓 결혼하는 신랑 신부집에서 도착해서 처음 받아든 상에 놓인 밥을 말한다. 신랑상에는 흰쌀밥을 해서 올려놓는다. 이 밥이 '새스방밥', '새서방밥'이다.

껑 먹는 거예?(조밥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아까는 조밥은 여기 이 섞으니까는요. 섞어서 먹는 거요?)

107006 #2 응 게난 좁쏠만 헌 건 조팝이고.(응 그러니까 좁쌀만 한 건 조밥이고.)

107006 @ 예. 조팝이고.(예. 조밥이고.)

107006 #2 응 서껑 먹는 건 게. 보리쏠, 좁쏠헤네 서껀 먹는 거.(응 섞어서 먹는 건 게. 보리쌀, 좁쌀해서 섞어서 먹는 거.)

107006 @ 예.(예.)

107006 #2 또 감저 놘 서껑 먹는 거.(또 고구마 넣어 섞어서 먹는 거.)

107006 @ 예, 서껑 먹고.(예, 섞어서 먹고.)

107006 #2 또 이제 느젱이 놓곡.(또 이제 나깨 넣고.)

107006 @ 예, 느젱이.(예, 나깨.)

107006 #2 헨 서껑 먹고.(해서 섞어서 먹고.)

107006 @ 조팝도 이제 흐린조도 잇곡.(조밥도 이제 차조도 있고.)

107006 #2 으.(으.)

107006 @ 메조도 잇지 아니우꽈예?(메조도 있지 않습니까?)

107006 #2 흐린조팝도 잇게. 모인 좁쏠밥도 잇곡게.(차조밥도 있고. 메 조밥도 있고.)

107006 @ 응 흐린조팝허고.(응 차조밥하고.)

107006 #2 응.(응.)

107006 @ 모인좁쌀밥예?(메 조밥요?)

107006 #2 예.(예.)

107006 @ 흐린조는 보통 게도 노랑조도 흐린조 잇지 안우꽈?(차조는 보통 그래도 노란조도 차조가 있지 않습니까?)

107006 #2 아이 노랑조도 잇주만은 데부분 검엉.(아이 노랑조도 있지만은 대부분 검어서.)

107006 @ 검은조[227]예?(검은조요?)

107006 #2 응.(응.)

107006 @ 흐린조가 검은조예?(차조가 검은조요?)

107006 #2 응.(응.)

107006 @ 검은 검은조엔 헷수과?(검은 검은조라고 했습니까?)

107006 #2 검은.(검은.)

107006 #1 흐린조엔 헷주.(차조라고 했지.)

107006 @ 그냥 흐린조엔예?(그냥 차조라고요?)

107006 #2 흐린조엔 헷주. 검은조엔 안 헨, 흐린조.(메조라고 했지. 검은조라고 안 해서, 차조.)

227) '검은조'는 쌀알이 굵고 차진 조(粟)의 한가지다.

107006 @ 예.(예.)

107006 #2 흐린좁쏠 헷주.(차좁쌀 했지.)

107006 @ 흐린좁쏠. 흐린좁쏠.(차좁쌀. 차좁쌀.)

107007 @ 팥밥, 팥에 대해서, 팥밥은 잔치밥이엔 해서예?(팥밥, 팥에 대해서, 팥밥은 '잔치밥'이라고 했어요?)

107007 #2 예, 잔치밥에 홀 때 풋밥 헷주. 집이서 가정에서 먹을 때 풋밥헹 먹는 디가 벨로 엇엇일거우다.(예, 잔치밥에 할 때 팥밥했지. 집에서 가정에서 먹을 때 팥밥해서 먹는 데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107007 @ 엇어예. 영장밥[228]도 팥밥 헤신가마씨?(없어요. '영장밥'도 팥밥 했는가요?)

107007 #2 예, 영장밥도 풋밥.(예, '영장밥'도 팥밥.)

107007 @ 영장밥예. 팥밥('영장밥'요. 팥밥.)

107007 #2 잔치밥[229] 풋밥 헤실 거고.('잔치밥' 팥밥 했을 거고.)

107007 @ 잔치밥이나 풋밥. 또 생각나는 거 풋밥은.('잔치밥'이나 팥밥. 또 생각나는 거 팥밥은.)

107007 #2 원, 풋밥 ᄒᆞ는 거 그거 벳긴 허고 게. 영장 나민 풋죽 쑤는 거 벳긴. 무신 그거.(원, 팥밥 하는 거 그거 밖에는 하고 게. 영장 나면 팥죽 쑤는 거 밖에는. 무슨 그거.)

107007 @ 응.(응.)

107007 #2 풋밥 풋으로 ᄒᆞ는 거. 거 벳기, 더 잇수꽈?(팥밥 팥으로 하는 거. 거 밖에, 더 있습니까?)

107008 @ 피밥?(피밥?)

107008 #2 게난 ᄀᆞᆺ사게. 피 좁쏠이엔 흔 거 피밥게.(그러니까 아까. 핍쌀이라고 한 거 피밥.)

107008 @ 예, 피좁쏠예?(예, 핍쌀요?)

107008 #2 예.(예.)

107008 @ 아, 피좁쏠이엔 했구나예?(아, 핍쌀이라고 했군요?)

107008 #2 예.(예.)

107008 @ 피좁쏠예.(핍쌀요.)

107008 #2 피좁쏠.(핍쌀.)

107008 @ 피좁쏠 피밥예?(핍쌀 피밥요?)

107008 #2 예.(예.)

107008 @ 아, 피밥은 허젱 허민 어떵 헙니까?(아, 피밥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7008 #2 아, 피밥도 허젱 허민 그자 저 조팝 허듯이 싯어근엥에 허민 밥 맛

228) '영장밥'은 영장(永葬) 장사(葬事)에 짓는 밥이다. 팥을 놓아 밥을 짓는다.
229) '잔치밥'은 잔치에 짓는 밥이다. 팥을 넣어 밥을 짓는다.

좁네다. 거 피밥.(아, 피밥도 하려고 하면 그저 저 조밥 하듯이 씻어서 하면 밥 맛 좋습니다. 거 피밥.)

107008 @ 조팝 곧추룩예?(조밥 같이요?)

107008 #2 예. 피밥 막 맛 좋읍네다.(예. 피밥 아주 맛 좋습니다.)

107008 @ 색깔은 불그릉헙니까?(색깔은 불그레합니까?)

107008 #2 아니 흰 거.(아니 흰 거.)

107008 #1 헤영허주.(하얗지.)

107008 @ 아 희영헤마씨?(아 하얘요?)

107008 #2 응, 거어 석상비쏠이엔 흔 것도 이제. 그자 곤쏠 닮아도 밥허민 무시거 헹 먹곡.(응, 거 '석상비쌀'이라고 한 것도 이제. 그저 흰쌀 같아도 밥하면 무엇 해서 먹고.)

107008 @ 예.(예.)

107009 @ 감저밥, 감저밥은 아까 서꺼근에 허면은 감저밥 되고예?(고구마밥, 고구마밥은 아까 섞어서 하면은 고구마밥 되고요?)

107009 #2 예.(예.)

107009 @ 감저, 감저, 는젱이, 감저밥, 좁쏠, 감저, 보리, 감저, 곤쏠 멧밥, 곤쏠 감저밥.(고구마, 고구마, 나깨, 고구마밥, 좁쌀, 고구마, 보리, 고구마, 흰쌀 메밥, 흰쌀 고구마밥.)

107010 @ 무밥이엔 헌 거 잇수꽈? 무수.(무밥이라고 한 거 있습니까? 무.)

107010 #2 우리 산 떼, 우리 헤 먹을 뗀 무밥이엔 흔 건 안 헤 먹어봐신디. 요센 무밥이영 무시거엔 헤도.(우리 살 때, 우리 해 먹을 땐 무밥이라고 한 건 안 해 먹어봤는데. 요새는 무밥하고 무엇이라고 해도.)

107010 @ 요세만예?(요새만?)

107010 #2 예. 요세만 허주. 우리 홀 때는 안 헤 봐수다.(예. 요새만 하지. 우리 할 때는 안 해 봤습니다.)

107010 #1 홀 줄 몰란 안 헷주.(할 줄 몰라서 안 했지.)

107010 #2 헐 중 몰란 안 헤신디사.(할 줄 몰라서 안 했었지야.)

107010 @ 하, 하.(하, 하.)

107010 #1 허, 허 헛 헛.(허, 허 헛 헛.)

107010 #2 아니 이딧 사름이 헤 먹질 안허난 못 헤먹엇주.(아니 여기에 사람이 해 먹질 안하니까 못 해먹었지.)

107010 @ 예.(예.)

107011 @ 톳밥.[230](톳밥.)

107011 #2 응. 톨밥은 헨.(응. 응. 톳밥은 했어.)

107011 @ 톨밥은 아까.(톳밥은 아까.)

107011 #2 먹엇주.(먹었지.)

---

230) '톨밥' 톳밥이다. 기근 때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톳과 보리를 섞어서 밥을 지어먹었었다.

107011 @ 톨밥은?(톳밥은?)
107011 #2 예.(예.)
107011 #1 톨밥은 맛좋아.(톳밥은 맛좋아.)
107011 @ 톨밥은?(톳밥은?)
107011 #2 좁쏠에 놩.(좁쌀에 넣어서.)
107011 @ 좁쏠 놩예.(좁쌀 넣어서요.)
107011 #1 뻐덕뻐덕 헌 게.(뻐덕뻐덕 한 것이.)
107011 @ 좁쏠 놔근에.(좁쌀 넣어서.)
107011 #1 응.(응.)
107011 @ 톨밥은예?(톳밥은요?)
107011 #2 예.(예.)
107011 @ 톨은 얼마나 놓고 좁쏠은 얼마나 놓을 건고예?(톳은 얼마나 넣고 좁쌀은 얼마나 넣을 건가요?)
107011 #2 아, 좁쏠은 그자 이녁 떼먹을 만큼 놓고.(아, 좁쌀은 그저 이녁 끼니 먹을 만큼 넣고.)
107011 @ 예.(예.)
107011 #2 저 톨은 혼 주먹 놧주게.(저 톳은 한 주먹 넣었지.)
107011 @ 아, 때만큼 ᄒᆞ고?(아, 끼니만큼 하고?)
107011 #2 예, ᄒᆞ끔은 놩.(예, 조금은 넣어서.)
107011 @ 톨은 이제 혼 줌예?(톳은 이제 한 줌요?)
107011 #2 응, 혼 주먹 놩 허민. 밥이게.(응, 한 주먹 넣어서 하면. 밥이.)
107011 @ 응 밥이.(응 밥이.)
107011 #2 예.(예.)
107011 @ 아.(아.)
107011 #2 톨도 물쎄기 숢앙 헤사. 밥이 흐랑[231]ᄒᆞ게 좋주. 경 아니민.(톳도 물씬히 삶아서 해야. 밥이 늘어지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107011 @ 응.(응.)
107011 #2 부뜨지 아녀.(붙지 안 해.)
107011 @ 예.(예.)
107012 @ 패밥이엔 헌 거 잇수꽈?('패밥'이라고 한 거 있습니까?)
107012 #2 페밥이엔 헌 건 엇어.('패밥'이라고 한 건 없어.)
107012 @ 패밥?(패밥?)
107012 #2 페는 뭇에 숢안 먹어낫주 페.(패는 무릇에 삶아서 먹었었지 패.)
107012 @ 페?(패?)
107012 #2 예.(예.)
107012 @ 뭇에?(무릇에?)

231) '흐랑'은 늘어지다와 같은 의미다.

107012 #2 그저 무 무 응.(그저 무릇 무릇 응.)
107012 #1 바다에. 잇는 페.(바다에 있는 패.)
107012 @ 너페를 얘기허는 거?(넓패를 말 하는 거?)
107012 #2 너페.(넓패.)
107012 @ 응.(응.)
107012 #2 너페 말앙. 그듸 저, 너페 닮은 게 잇주. ᄀᆞ찌 부떵.(넓패 말아서. 거기 저, 넓패 닮은 것이 있지. 같이 붙어서.)
107012 @ 예.(예.)
107012 #2 그 너페영 ᄀᆞ찌 부튼 거.(그 넓패하고 같이 붙은 거.)
107012 @ 아.(아.)
107012 #2 경 헹 그거 메여다근넹이 저 뿔아뒁 뭇.(그렇게 해서 그거 매어다가 저 빨아두고서 뭇.)
107012 @ 무수?(무?)
107012 #2 밧디.(밭에.)
107012 @ 예.(예.)
107012 #2 뭇 줏어단 그것에.(뭇 주어다가 그것에.)
107012 @ 아 뭇?(아 뭇?)
107012 #2 예 구원 먹어낫주.(예 구워서 먹었었지.)
107012 @ 아.(아.)
107012 #2 응. 페밥이엔 헌 건 엇어.(응. 패밥이라고 한 건 없어.)
107012 @ 엇어?(없어?)
107012 #2 그거 페 메당 그 뭇 굴 뗴 헹 먹어낫주.(그거 패 매어다가 그 뭇 구울 때 해서 먹었었지.)
107012 @ 아 뭇 굴 떼?(아 뭇 구울 때?)
107012 #2 응.(응.)
107012 @ 그 페밥은 엇고? 밥이엔 헌 건 엇고.(그 패밥은 없고? 밥이라고 한 건 없고.)
107012 #2 응 페밥은 엇고 밥이엔 헌 건 엇엇주.(응 패밥은 없고 밥이라고 한 건 없었지.)
107013 @ 국, 국 종류에 대해서 ᄀᆞᆯ아줍서.(국, 국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13 #2 국 종류 무시거 뒌장국벳기 무시거게.(국 종류 무엇 된장국밖에 무엇.)
107013 @ 뒌장국. 뒌장 풀어 놩 뒌장국.(된장국. 된장 풀어 넣어서 된장국.)
107013 #2 뒌장국, 물장국.(된장국, 간장국.)
107013 @ 응, 물장국예.(응, 간장국요.)
107012 #2 응.(응.)
107013 @ 물장국은 여름에 저기 물에 카근에 먹는 거예?(간장국은 여름에 저기

물에 타서 먹는 거요?)
107013 #2 아니, 저 뒌장을 여름에 저 물에 타근에 헹 먹주.(아니, 저 된장을 여름에 저 물에 타서 해서 먹지.)
107013 @ 예.(예.)
107013 #2 물장은.(간장은.)
107013 @ 예.(예.)
107013 #2 궤깃국 끌일 떼나.(고깃국 끓일 때나.)
107013 @ 아 예, 예.(아 예, 예.)
107013 #2 경 홀 떼나.(그렇게 할 때나.)
107013 @ 아.(아.)
107013 #2 또 물장 헹 국을 헹 먹는 어른덜토 잇일 테주게.(또 간장 해서 국을 해서 먹는 어른들도 있을 테지.)
107013 @ 예 물장.(예 간장.)
107013 #2 우린 뒌장으로만 여름나민 국을 헹 먹는디이.(우린 된장으로만 여름나면 국을 해서 먹는데.)
107013 @ 예, 예.(예, 예.)
107013 #2 물장을 좋아허는 어른덜은 물장 놩 국 헹 먹는 어른덜토 잇주만은 헤도.(간장을 좋아하는 어른들은 간장 넣어서 국 해서 먹는 어른들도 있지만은 해도.)
107013 @ 물장 놩예.(간장 넣어서요.)
107013 #2 우리는 데부분 저 여름 나민 뒌장헤근엥에.(우리는 대부분 저 여름나면 된장해서.)
107013 @ 뒌장헤근에예?(된장해서요?)
107013 #2 예 ᄂᆞ물 솖앙 놩.(예 나물 삶아서 넣어서.)
107013 @ 예, 예.(예, 예.)
107013 #2 허곡.(하고.)
107013 @ 아, 아.(아, 아.)
107013 #2 톨도 헤근엥에 뒌장 놩 무청 헹 먹고.(톳도 해서 된장 넣어서 무쳐서 해서 먹고.)
107013 @ 예.(예.)
107013 #1 헤이고 이거 저녁시간도 넘어불고. 허 헛.(하이고 이거 저녁시간도 넘어버리고 허 헛.)
107013 @ 예 톨도.(예 톳도.)
107013 #1 할망. 헤, 헤, 헤 헷.(할머니. 헤, 헤, 헤 헷.)
107013 @ 아 하, 하핫 예.(아 하, 하핫 예.)
107013 #2 경 헴 경 헴주게.(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107013 @ 예, 여름에 톨국예?(예, 여름에 '톳국'요?)

107013 #2 예, 톨냉국[232] 헤민.(예, '톳냉국' 하면.)

107013 @ 톨냉국에예?('톳냉국'에요?)

107013 #2 응.(응.)

107013 @ 예 톨냉국.('톳냉국.')

107013 #2 톨냉국 헹 먹곡.('톳냉국' 해서 먹고.)

107013 @ 궤기 아, 물장국이 물, 우리 얘기하는 간장을 물장이엔 헷구나예?(고기 아, 간장국이 물, 우리 얘기하는 간장을 간장이라고 했군요?)

107013 #2 응, 근장이 물장이주게.(응, 간장이 간장이지.)

107013 @ 간장이 물장, 궤깃국. 이건 식께 때, 큰일 때.(간장이 간장, 고깃국. 이건 제사 때, 큰일 때.)

107013 #2 식게 때고 그냥 집이서 헹 먹을 때고 궤깃국 끌일 뗀 근장을 놔서.(제사 때고 그냥 집에서 해서 먹을 때나 고깃국 끓일 땐 간장을 넣어서.)

107013 @ 궤깃국 끌일 뗀 간장을 놩예?(고깃국 끓일 땐 간장을 넣어요?)

107013 #2 응.(응.)

107013 @ 예. 또 저기 국 국으로 헐 수 있는 거는 ᄂᆞ물국.(예. 또 저기 국 국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나물국.)

107013 #2 ᄂᆞ물국.(나물국.)

107013 @ ᄂᆞ물 된장국예?(나물 된장국요?)

107013 #2 어, ᄂᆞ물 뒌장국ᄒᆞ곡 우린 저 근장 놩 국은 저 ᄂᆞ물 놩 안 끌영 먹어봐서 원.(어, 나물 된장국하고 우린 저 간장 넣어서 국은 나물 넣어서 안 끓여서 먹어봤어 전혀.)

107013 @ 아 예. 뒌장으로만 헤근넹에예?(아 예. 된장으로만 해서요?)

107013 #2 응, 뒌장 놩 끌영.(응, 된장 넣어서 끓여.)

107013 @ 무수국 무수국?(무국?)

107013 #2 무수국도 끌영 먹고게. 무수국도 우린 뒌장 놩 끌영 먹는디 딴디덜은 원 근장 놩사 끌영 먹엄신디. 어떵사 헴신디.(무국도 끓여 먹고. 무국도 우린 된장 넣어 끓여서 먹는데 딴데들은 간장 넣어서야 끓여서 먹고 있는지. 어떻게야 하고 있는지.)

107013 @ 예, 예.(예, 예.)

107013 #2 우린 그자 뒌장국만 먹어나난에 그자 뒌장국 경 헹.(우린 그저 된장국만 먹어나니까 그저 된장국 그렇게 해서.)

107013 @ 뒌장국ᄒᆞ고예.(된장국하고요.)

107013 #2 예.(예.)

107013 @ 또 저기 국 허게 되면은 궤기국은 뭐 소고기국도 잇고.(또 저기 국 하게 되면 고깃국은 뭐 소고기국도 있을 거고.)

107013 #2 소고기국 끌일 때도 난 근장 놔지고.(소고기국 끓일 때도 난 간장 넣

232) '톳냉국' 톳을 넣어 만든 촛국으로 여름철에 즐겨먹는다.

어지고.)

107013 @ 예.(예.)

107013 #2 바닷고기 놩 국 끌일 때도 ᄀᆞᆫ장 놔지고.(바닷고기 넣어서 국 끓일 때도 간장 넣어지고.)

107013 @ 예, 예.(예, 예.)

107013 #2 경 헤여.(그렇게 해.)

107013 @ 예, 경 허곡. 저 뒈지고기로는 국, 무수 놩 안 끌입니까?(예, 그렇게 하고. 저 돼지고기로는 국, 무 넣어서 안 끓입니까?)

107013 #2 돗.(돼지.)

107013 @ 도세기고기.(돼지고기.)

107013 #2 뒈지고기 놩도 무수 놓고. ᄀᆞ루 놩 끌영 먹어짐도 먹음도 허주.(돼지고기 넣어도 무 넣고. 가루 넣어 끓여서 먹어지기도 먹기도 하지.)

107013 @ 도세기국예?(돼지국요?)

107013 #2 예.(예.)

107013 @ 그거는 무슨 그냥 도세깃 궁물?(그거는 무슨 그냥 돼지 국물?)

107013 #2 예, 도세기궤기 싸라 놓고, 무수 싸라 놓고.(예, 돼지고기 썰어 넣고, 무 썰어 넣고.)

107013 @ 무수 썰어 놓곡.(무 썰어 넣고.)

107013 #2 ᄀᆞᆫ장 놔근엥이 저 ᄆᆞ믈ᄏᆞ루 ᄒᆞ쏠 놔근에 끌영.(간장 넣어서 저 메밀가루 조금 넣어서 끓여서.)

107013 @ 예. ᄆᆞ믈ᄏᆞ루예?(예. 메밀가루요?)

107013 #2 응.(응.)

107013 @ 경 ᄒᆞ곡 응, 또 저기 콩, 콩ᄁᆞ루 놔근에.(그렇게 하고 응, 또 저기 콩, 콩가루 넣어서.)

107013 #2 예, 콩ᄁᆞ루 놩 무수국도 끌이곡.(예, 콩가루 넣어서 무국도 끓이고.)

107013 @ 콩 그거를 무슨 국이엔 헙니까?(콩 그것을 무슨 국이라고 합니까?)

107013 #2 콩국.(콩국.)

107013 @ 콩국.(콩국.)

107013 #2 응 그건 끌일 때 소곰 놩 끌영.(응 콩국. 그건 끓일 때 소금 넣어 끓여서.)

107013 @ 예 소금예.(예 소금요.)

107013 #2 저 거시기 콩ᄀᆞ루 놩 끌이고.(저 거시기 콩가루 넣어서 끓이고.)

107013 @ 소금 놩 허고, 또 감저[233]로도 뒌장 놔근에 그 무슨 국? 그거는.(소금 넣어서 하고, 또 감자로도 된장 넣어서 그 무슨 국? 그것은.)

107013 #2 에 감저로는 뒌장국.(에 감자로는 된장국.)

107013 @ 뒌장국.(된장국.)

233) '감저' 여기서는 감자를 '감저'로 조사자가 말을 잘못했다.

107013 #2 그런 거.(그런 거.)
107013 @ 뒌장국은.(된장국은.)
107013 #2 저 거시기 지슬 감전 저, 뒌장 놔근에 찌게헹 먹고.(저 거시기 감자 감자는 저, 된장 넣어서 찌게해서 먹고.)
107013 @ 지슬 감저예?(감자 감자요?)
107013 #2 응, 그자 지슬.(응, 그저 감자.)
107013 @ 예 감자국예.(예 감자국요.)
107013 #2 응 고구마가 아니고 감저.(응 고구마가 아니고 감자.)
107013 @ 예, 예, 감저 지슬 감저예.(예, 예, 감자 감자 감자요.)
107013 #2 응.(응.)
107013 @ 몸국도 잇지 아니우꽈? 국은?(모자반국도 있지 않습니까? 국은?)
107013 #2 몸국도 이십주게.(모자반국도 있습지요.)
107013 #1 건 도야지고기에.(건 돼지고기에.)
107013 #2 몸국도게 뒈지궁물에에, 뒈지궁물에 몸국 끌여근엥에.(모자반국도 돼지국물에, 돼지국물에 모자반국 끓여서.)
107013 @ 뒈지고기 뒈지예에.(돼지고기 돼지요.)
107013 #2 예, 것도 거 소곰 놔근엥에 끌영 먹어.(예, 것도 거 소금 넣어서 끓여 먹어.)
107013 @ 아 국이 상당히 할 것 같은디 메역국, 몸국.(아 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미역국, 모자반국.)
107013 #2 아니 몸국.(아니 모자반국.)
107013 @ 예.(예.)
107013 #2 무우국.(무국.)
107013 @ 예.(예.)
107013 #2 베추국.(배추국.)
107013 @ 베추국. 예.(배추국. 예.)
107013 #2 어 저 거시기 메역국.(어 저 거시기 미역국.)
107013 @ 예, 메역국 허고 또 토란국도 헤나지 안헤수과?(예, 미역국 하고 또 토란국도 했었지 안했습니까?)
107013 #2 예, 토란국도 헤낫주. 토란국도 헤나고.(예, 토란국도 했었지. 토란국도 해나고.)
107013 @ 토란국도예.(토란국도요.)
107013 #2 예.(예.)
107013 @ 토란도 우녕에 잇이난 잇엉으네 다 심어놔근에예?(토란도 텃밭에 있으니까 있어서 다 심어 놔서요?)
107013 #2 옛날엔 저 장갑 엇인 뗀, 그거 헤 나면 손 근지러왕.(옛날엔 저 장갑 없을 땐, 그거 해 나면 손 근지러워서.)

107013 @ 손에 근지러왕예.(손에 근지러워서요.)
107013 #2 막 헤신디 요즘은 장갑잇곡 무시거 ᄒᆞ난 안 근지러왕 ᄒᆞ덴 헙디다마는.(아주 했는데 요즘은 장갑 있고 무엇 하니까 안 근지러워 한다고 합디다마는.)
107013 @ 맞수다. 예, 예, 토란국. 무신 거 국이 하실 건디.(맞습니다. 예, 예, 토란국. 무슨 것 국이 많을 건데.)
107013 #2 성게국 같은 것도 잇엇고게.(성게국 같은 것도 있었고.)
107013 @ 바당에 맞수다게. 보말허민 보말국도 잇곡.(바다에 맞습니다. 고둥하면 고둥국도 있고.)
107013 #1 천지주. 뭐 세상 게 다.(천지지. 뭐 세상 것이 다.)
107013 @ 건 우리가 아는 거. 가시리국도 잇엇곡. 저 가시리.(건 우리가 아는 거. 풀가사리국도 있었고. 저 풀가사리.)
107013 #2 가시리국도 그거 국 ᄒᆞ젠 ᄒᆞ민 다 그런 거 가시릿국 보말국. 저 거시기 또 무시거니?(풀가사리국도 그거 국 하려고 하면 다 그런 거 풀가사리국 고둥국. 저 거시기 또 무엇이니?)
107013 @ 옥돔국.(옥돔국.)
107013 #1 성게국.(성게국.)
107013 @ 뭐, 갈치국 호박국.(뭐, 갈치국 호박국.)
107013 #1 헤, 헤, 헤 헷.(헤, 헤, 헤 헷.)
107013 #2 아니, 국 거 수정 ᄒᆞ젠 ᄒᆞ민 다 그거.(아니, 국 거 수 하려고 하면 다 그거.)
107013 @ 예.(예.)
107013 #2 갈칫국도 끌여야지.(갈치국도 끓여야지.)
107013 @ 예.(예.)
107013 #2 성겟국도 끌여야지. 하 하.(성게국도 끓여야지. 하 하.)
107013 @ 예, 갈칫국예.(예, 갈치국요.)
107013 #2 응, 성겟국.(응, 성게국.)
107013 @ 건 지금이나 거이 비슷한 거로 봐야 뒈.(건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거로 봐야 돼.)
107013 #1 예.(예.)
107013 @ 지금이나 옛날이나.(지금이나 옛날이나.)
107013 #2 응.(응.)
107013 @ 고동 잡아나민 그것도 헤근에 썰어 놔근에.(소라 잡아나면 그것도 해서 썰어 넣어서.)
107013 #2 예, 소라국도 끌영.(예, 소라국도 끓여서.)
107013 @ 소라 물회게.(소라 물회.)
107013 #1 하여튼 아무거나.(하여튼 아무거나.)
107013 @ 소라 물회도 헤납디가?(소라 물회도 했었습니까?)

107013 #2 응?(응?)
107013 @ 물회 물회. 물회는 안허지예?(물회 물회. 물회는 안하지요?)
107013 #2 물훼도 헙네다.(응, 물회도 합니다.)
107013 @ 아 소라물회에.(아 소라물회.)
107013 #2 예 소라물훼도 막 맛좋곡 성게물훼도 맛좋고.(예 소라물회도 맛좋고 성게물회도 맛좋고.)
107013 @ 성게물회도?(성게물회도?)
107013 #2 저 메역에 성게물훼 헹 먹어.(저 미역에 성게물회 해서 먹어.)
107013 @ 예, 경 허곡 또 해삼으로도 저기.(예, 그렇게 하고 또 해삼으로도 저기.)
107013 #2 헤삼?(해삼?)
107013 @ 해삼도 헤지민 것도 물회 헤나수꽈?(해삼도 해지면 것도 물회 했었습니까?)
107013 #1 에, 에.(에, 에.)
107013 #2 아이 그건 물훼 아녕. 그자 무청 먹는 거.(아이 그건 물회 안 해서. 그저 무쳐 먹는 거.)
107013 @ 무청 먹어?(무쳐서 먹어?)
107013 #2 메역에 무청.(미역에 무쳐서.)
107013 @ 메역에 무처근에예?(미역에 무쳐서요?)
107013 #1 예.(예.)
107013 @ 또 경 허곡 오징어 허민 오징어도 물회.(또 그렇게 하고 오징어 하면 오징어도 물회.)
107013 #1 물회(물회.)
107013 @ 자리물회.(자리회.)
107013 #2 자리물훼도 허곡.(자리회도 하고.)
107013 @ 아 자리물회.(아 자리회.)
107013 #2 오징에물훼도 허곡.(오징어물회도 하고.)
107013 @ 응 오징어 물회도 허고예. 바당에 어렝이 잡으민 어렝이.(응 오징어 물회도 하고요. 바다에 어렝놀래기 잡으면 어렝놀래기.)
107013 #2 어렝이 물훼도 헤 먹곡.(어렝놀래기물회도 해 먹고.)
107013 @ 예, 어렝이물회도 허고 물회는.(예, 어렝놀래기물회도 하고 물회는.)
107013 #1 바닷고긴 물훼 못 먹는게. ᄒᆞ나도 엇어.(바닷고긴 물회 못 먹는 것이. 하나도 엇어.)
107013 @ 예.(예.)
107013 #1 다 먹어.(다 먹어.)
107013 @ 예, 다 바닷고기예, 바닷고기로.(예, 다 바닷고기요. 바닷고기로.)
107014 @ ᄂᆞ물국, 나물국 ᄂᆞ물국에 대해서 ᄀᆞᆯ아줍서. ᄂᆞ물국. ᄂᆞ물국은 배추국

아까예.(나물국, 나물국 나물국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나물국. 나물국은 배추국 아까요.)

107014 #2 예, 베춧국 ᄂᆞ물국.(예, 배추국 나물국.)

107014 @ 또 무수국. 무수국이엔 헷지예?(또 무국. 무국이라고 했지요?)

107014 #2 응, 무수국.(응, 무국.)

107014 @ 또 무수ᄂᆞ물도 허지 안헷수과? 배추ᄂᆞ물, 에기ᄂᆞ물?(또 무나물도 하지 안했습니까? 배추나물, 어린나물?)

107014 #2 아니 베추도 퍼렁흔 이파리 놩 국 끌리곡.(아니 배추도 파라한 이파리 넣어 국 끓이고.)

107014 @ 예.(예.)

107014 #2 무수도 저 이파리헤근에 솖앗당.(무도 이파리해서 삶았다가.)

107014 @ 예.(예.)

107014 #2 솖앗다근에.(삶았다가.)

107014 @ 예, 예 솖앗당.(예, 예 삶았다가.)

107014 #2 뒌장국 헤근에 먹어도 뒈고.(된장국 해서 먹어도 되고.)

107014 @ 예예, 무수 이파리예?(예예, 무 이파리요?)

107014 #2 무수 이파리. 그것이.(무 이파리. 그것이.)

107014 @ 예.(예.)

107014 #1 시레기국이주 그거.(시래기국이지 그거.)

107014 @ 예예, 무수 이파리 놔근에예?(예예, 무 이파리 넣어서요?)

107014 #2 예.(예.)

107014 @ 그거 헹 국허고 우리가 나물이엔 허민. 풀 잇인 걸 나물이엔 허지 안읍니까? 우에 배추 ᄀᆞ추룩예? 풀이 어랑어랑 허게 나온 거예?(그거 해서 국하고 우리가 나물이라고 하면. 풀 있는 걸 나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 배추 같이요? 풀이 야들야들 하게 나온 거요?)

107014 #1 으응 그게 ᄂᆞ물이주게.(그게 나물이지.)

107014 #2 예.(예.)

107014 @ 예 그게 ᄂᆞ물예?(예 그게 나물요?)

107015 @ 콩나물도 ᄂᆞ물 아닛꽈예?(콩나물도 나물 아닙니까요?)

107015 #2 아, 콩ᄂᆞ물도 놔근넹에 국 끌영 먹지마는 우리 원, 콩ᄂᆞ물국은 안 끌영 안 먹으난에 하르방 안 먹으난에.(아, 콩나물도 넣어서 국 끓여서 먹지만 우리 전혀, 콩나물국은 안 끓여서 안 먹으니까 할아버지 안 먹으니까.)

107015 @ 먹을 떼나예?(먹을 때나요?)

107015 #2 우리 안 끌여 먹어봐서.(우리 안 끓여 먹어봤어.)

107015 #1 난 군대에서 콩ᄂᆞ물 두부 이제 뭐이냐?(난 군대에서 콩나물 두부 이제 뭐이냐?)

107015 #2 동테.(동태.)

107015 #1 동태.(동태.)

107015 #2 헛, 헛.(헛, 헛.)

107015 #1 이거 눼연 원 지금ᄁᆞ지도 먹질 못 헤여.(이거 '눼여'서 전혀 지금까지도 먹질 못 해.)

107015 @ 아.(아.)

107015 #2 군대 간 눼연 오난 원 지금ᄁᆞ지도 안 먹어.(군대 갔다 눼여서 오니까 원 지금까지도 안 먹어.)

107015 @ 아, 깃과?(아, 그렇습니까?)

107015 #2 경 ᄒᆞ난 집이 동태허고 두부를 암만 먹고정 헤도 잇당 아이들이나 사오민 먹어도 역부로나 사오진 안헤여.(그렇게 하니까 집에 동태하고 두부를 암만 먹고 싶어도 해도 이따가 아이들이나 사오면 먹어도 일부로나 사오지는 안 해.)

107015 @ 아 두부도?(아 두부도?)

107015 #1 워낙 군대에서 잘 먹어노니까.(워낙 군대에서 잘 먹어서.)

107015 @ 아.(아.)

107015 #1 그 그 소위 행정 참모부가, 거기 우리참모부 G1, G2, G3, G4헤서 4개 참모부가 다 ᄒᆞᆫ 주위에 잇는디 그 군수처에서, 그 부식 시껑오민 우리 강 ᄒᆞᆫ 상자씩 무조건 네려부는 거라 처음에.(그 그 소위 행정 참모부가, 거기 우리참모부 G1, G2, G3, G4해서 4개 참모부가 다 한 주위에 있는데 그 군수처에서, 그 부식 실어오면 우리 가서 한 상자씩 무조건 내려버리는 거야 처음에.)

107015 @ 거 잘 먹은 거주마씨. 그 당시에.(거 잘 먹은 거지요. 그 당시에.)

107015 #1 게난 너미 먹어부니까.(그러니까 너무 먹어버리니까.)

107015 @ 아.(아.)

107015 #1 눼여 가지고 당취 이거 원.('눼여' 가지고 당최 이거 원.)

107015 @ 영양 좋은 거, 두부 ᄀᆞ뜬 거, 동태 같은 거 또 얼마나 그거.(영양 좋은 거, 두부 같은 거, 동태 같은 거 또 얼마나 그거.)

107015 #2 게메게, 게난 그런 걸로만 먹언 게 눼여노난 집이선 원, ᄒᆞᆫ 번 못 헤먹어봔.(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먹어서 게 눼여서 집에서는 원, 한 번 못 해먹어봤어.)

107015 #1 하, 하하.(하, 하하.)

107015 #2 요번에 우리 저, 거시기 뚤 와네 동태 사단에 헷관데.[234] 아, 어떠난 동태사단에 헤시니? ᄒᆞ난 동태 사단 ᄒᆞᆫ 번 찌게 헤 보젠 헤수다. ᄒᆞ멍 ᄒᆞ난 느네 아바진 안 먹을 건디이 허멍. 허, 허, 허.(요번에 우리 저, 거시기 딸 와서 동태 사다가 했기에. 아, 어떻게 하니까 동태사다가 했니? 하니까 동태 사다가 한 번 찌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너희 아버지는 안 먹을 건데 하면서. 허, 허, 허.)

107015 @ 경 헷구나예.(그렇게 했군요.)

---

234) '헷관데'는 했기에의 제주말이다.

107015 #2 경 헨 혼 번 먹어봣주 원.(그렇게 했다 한 번 먹어봤지 원.)
107015 @ 아.(아.)
107015 #2 동태엔 혼 건 혼 번 사 보질 안 현.(동태라고 한 건 한 번 사 보질 안 했어.)
107015 @ 맞수다.(맞습니다.)
107016 @ 무수국은 그냥 저기 허젠 허민 그냥 썰어근에.(무국은 그냥 저기 하려고 하면 그냥 썰어서.)
107016 #2 응, 무수체로 싸랑.(응, 무채로 썰어서.)
107016 @ 채로 썰어근에예?(채로 썰어서요?)
107016 #2 예, 국 끌영.(예, 국 끓여서요.)
107016 @ 국 끌영예.(국 끓여서요.)
107016 #2 예.(예.)
107016 @ 이것도 저기 된장 풀어 놓을 거 아니우꽈?(이것도 저기 된장 풀어 놓을 거 아닙니까?)
107016 #2 된장도 풀어놓는 사람 잇곡. 간장도 놓는 사람 잇곡. 간장도 놓는 사람.(된장도 풀어넣는 사람 있고. 간장도 넣는 사람 있고. 간장도 넣는 사람.)
107016 @ 간장도 놓고예?(간장도 넣고요?)
107016 #2 응.(응.)
107016 @ 무수국에는 또 으라 가지 고기도 놓을 수도.(무국에는 또 여러 가지 고기도 넣을 수도.)
107016 #2 응.(응.)
107016 @ 바닷고기도예?(바닷고기도요?)
107016 #2 응, 무숫국에는게. 아무 거라도 놓주. 뒈지고기 놓왕.(응, 무국에는. 아무 거라도 놓지. 돼지고기 넣어서.)
107016 @ 예.(예.)
107016 #2 썰엉 국 끌여도 뒈곡.(썰어서 국 끓여도 되고.)
107016 @ 소고기.(소고기.)
107016 #2 소고기 놩 헤도 뒈고.(소고기 넣어서 해도 되고.)
107016 @ 바다 셍선.(바다 생선.)
107016 #2 바닷고기 놩 헤도 뒈고.(바닷고기 넣어서 해도 되고.)
107016 @ 헤도 뒈곡예.(해도 되고요.)
107016 #2 응.(응.)
107016 #1 겐디, 무수 논게 시원헤여.(그런데 무 넣은 것이 시원해.)
107016 @ 예, 예.(예, 예.)
107016 #1 무숫국이.(무국이.)
107016 @ 예, 예, 무숫국이예?(예, 예, 무국이요?)
107016 #2 응.(응.)

107016 @ 거고 무수도 이파리도 우에 놓고, 이파리도 ᄀᆞ찌 놩.(그리고 무도 이파리도 위에 놓고, 이파리도 같이 넣어서.)

107016 #2 어, 이파리도 ᄀᆞ찌 놔도 좋아.(어, 이파리도 같이 넣어도 좋아.)

107016 @ 예. 이파리도 놓고예. 이거는 뭐 전부 할 수 잇는 거니까.(예. 이파리도 넣고요. 이거는 뭐 전부 할 수 있는 거니까.)

107017 @ 콩국 ᄀᆞᆯ아줍서.(콩국 말해 주십시오.)

107017 #2 콩국도게 그 무수 놩 끌이주게.(콩국도 무 넣어서 끓이지.)

107017 @ 무수 놔근에예.(무 넣어서요.)

107017 #2 응 무수 놔근에 끌여.(무 넣어서 끓여.)

107016 @ 예.(예.)

107017 #2 메역에도 놩 끌여.(미역에도 넣어서 끓여.)

107016 @ 예.(예.)

107017 #2 메역에 놔도 끌인디 하, 데부분.(미역에 넣어도 끓이는데 많아, 대부분.)

107016 @ 무수 놔근에예?(미역 넣어서요?)

107016 #2 응.(응.)

107017 @ 무수 놔근에 끌이다근에.(무 넣어서 끓이다가.)

107017 #2 무수에 놔근에.(무에 넣어서.)

107017 @ 콩국 끌이기가 제일 어렵지 안읍니까예?(콩국 끓이기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요?)

107017 #2 응, 게난.(응, 그러니까.)

107017 #1 부꺼 불카부덴.(끓어 넘쳐 버릴까봐서.)

107017 #2 무수 노코 콩ᄀᆡ루 놓곡헤영 끌영.(무 넣고 콩가루 넣고 해서 끓여서.)

107016 @ 예.(예.)

107017 #2 경 헤근엥에 부꺼 가 가민 소곰 ᄒᆞᆫ 방울 드리치민 잔지랏당 또 부꺼 가 가민 소곰 ᄒᆞᆫ 방울 드리치고 경 허곡.(그렇게 해서 끓어 넘쳐 가 가면 소금 한 방울 넣으면 잠재웠다 또 끓어 넘쳐 가 가면 소금 한 방울 넣고 그렇게 하고.)

107017 @ 아, 소금 ᄒᆞᆫ 방울씩 놓다근에 눌렀다근에(아, 소금 한 방울씩 넣다가 다시 넘치면.)

107017 #1 경 아니ᄒᆞ민.(그렇게 안하면.)

107017 @ 또 부끄민.(또 끓어 넘쳐버리면.)

107017 #1 막 부꺼부러어.(아주 끓어 넘쳐버려.)

107017 @ 소금은 ᄋᆞ라 차례.(소금은 여러 차례.)

107017 #2 응.(응.)

107017 @ 나눠 놩구나예?(나눠서 넣었네요?)

107017 #2 게난 ᄒᆞᆫ꺼번에 간을 뒈게 말앙.(그러니까 한꺼번에 간을 되게 말아서.)

107017 @ 응.(응.)

107017 #2 그자 무수 싸라 놩. 그 콩ᄁᆞ루 웃터레 놩헤민 ᄒᆞ끔 이시민 궤어 갈거 아니라게. 궤 가민 부꺼 불민 맛이 엇어 콩국.(그저 무 썰어 넣어서. 그 콩가루 위로 넣어서 하면 조금 있으면 끓어 갈 거 아니야. 끓어 가면 끓어 넘쳐 버리면 맛이 없어 콩국.)

107017 @ 예, 예.(예, 예.)

107017 #2 경 ᄒᆞ난 부끄지 아니형. 부그락ᄒᆞ게.(그렇게 하니까 끓지 않고. 보각하게.)

107017 #1 헤, 헷.(헤, 헷.)

107017 #2 궤어 와가민 소곰 서너 방울 확 들이치민. ᄒᆞ쏠 잔질룅, 헷다근엥이 또 숨아 가 가민. 또 궤어 가민. 소곰 서너 방울 또 들이치곡 헹. ᄋᆞ라 차레에 소곰 ᄒᆞ끔썩 ᄒᆞ멍 끌여근에. 경 헹 간 봥 다 끌여지민 간 봥 싱거우민. 소곰 더 놓곡.(끓어 가면 소금 서너 방울 확 넣으면. 조금 잠재우고, 했다가 또 때 가 가며. 또 끓여 가면. 소금 서너 방울 또 넣고 해서. 여러 차례에 소금 조금씩 하면서 끓여서. 그렇게 해서 간 봐서 다 끓여지면 간 보아서 싱거우면. 소금 더 넣고.)

107017 @ 예, 예.(예, 예.)

107017 #2 경 아니 ᄒᆞ민 말곡 경 헤근에.(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렇게 해서.)

107017 @ 예에 경 헤근에예, 콩국은 제라허게[235] 겨울에 많이 먹지예?(예에 그렇게 해서요, 콩국은 '제라허게' 겨울에 많이 먹지요?)

107017 #2 소고기?(소고기?)

107017 @ 콩국.(콩국.)

107017 #1 겨울에 먹는 거주게.(겨울에 먹는 거지.)

107017 @ 제라허게 겨울에예?('제라허게' 겨울에요?)

107017 #2 응, 응.(응, 응.)

107017 @ 겨울에예? 응.(겨울에요? 응.)

107017 #2 응.(응.)

107018 @ 호박닙국 ᄀᆞᆯ아줍서.(호박잎국 말해주십시요.)

107018 #2 호박닙은게 여름 나사게 호박닙 튿아다 놓곡 ᄀᆞ루 놓코 허영 국 끌영.(호박잎은 여름 나야 호박잎 뜯어다 넣고 가루 넣고 해서 국 끓여서.)

107018 @ ᄀᆞ루면 무슨 ᄀᆞ루?(가루면 무슨 가루?)

107018 #2 응.(응.)

107018 @ ᄆᆞ믈ᄀᆞ루?(메밀가루?)

107018 #2 ᄆᆞ믈ᄀᆞ루라도 놓곡.(메밀가루도 넣고.)

107018 #1 에잇 밀ᄀᆞ루도 좋아.(에잇 밀가루도 좋아.)

107018 #2 밀ᄀᆞ루도 노코게.(밀가루도 넣고.)

107018 #1 밀ᄀᆞ루도 좋아.(밀가루도 좋아.)

---

235) '제라허게'는 온전하게, 정확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제주말이다.

107018 @ 응.(응.)
107018 #2 경 헤근에 놩 끌영 먹주.(그렇게 해서 넣어서 끓여서 먹지.)
107018 @ 끌여근에예?(끓여서요?)
107018 #2 응.(응.)
107018 @ 이거는 또.(이거는 또.)
107018 #2 찌엉도 먹곡.(쪄서도 먹고.)
107018 @ 쩡도 먹고?(쪄서도 먹고?)
107018 #2 응.(응.)
107018 @ 맛이 워낙 좋으난예.(맛이 워낙 좋으니까요.)
107018 #2 ᄋᆞ.(ᄋᆞ.)
107018 @ 경 헐 때는 ᄌᆞ베기도 쪼끔.(그렇게 할 때는 수제비도 조금.)
107018 #2 예, 저 그 국 끓일 때 ᄌᆞ베기도 ᄒᆞ나썩 헤노민 좋주.(예, 저 그 국 끓일 때 수제비도 하나씩 헤해 넣으면 좋지.)
107018 @ 예.(예.)
107018 #2 몸 저 밀ᄀᆞ루 헤근에.(몸 저 밀가루 해서.)
107018 @ 예 밀ᄀᆞ루 헤기네예?(예 밀가루 해서요?)
107018 #2 ᄋᆞ.(ᄋᆞ.)
107018 @ 예.(예.)
107019 @ 이 모자반이 몸 아니웃과예?(이 모자반이 모자반 아닙니까요?)
107019 #1 응.(응.)
107019 #2 응, 모자반이 몸이주.(응, 모자반이 모자반이지.)
107019 @ 예, 몸 몸국 골아줍서.(예, 모자반 모자반국 말해주십시오.)
107019 #2 몸국은 저 꽝 딸려근에 몸 끌여도 뒈고.(모자반국은 저 뼈 달여서 모자반 끓여도 되고.)
107019 @ 예, 예, 예. 꽝.(예, 예, 예 뼈.)
107019 #2 궤기 놩 끌여도 좋고.(고기 넣어서 끓여도 좋고.)
107019 @ 궤기는 그냥.(고기는 그냥.)
107019 #1 뒈지고기.(돼지고기.)
107019 @ 소고기?(소고기?)
107019 #1 뒈지고기.(돼지고기.)
107019 @ 뒈지고기?(돼지고기?)
107019 #2 예, 소고기 보단.(예, 소고기 보다는.)
107019 @ 뒈지고기 뒈지고기.(돼지고기 돼지고기.)
107019 #2 뒈지고기 놩 끌여사. 몸엔 테와.(돼지고기 넣어서 끓여야. 모자반엔 '테와.')
107019 @ 테왕예?('테와'서요?)
107019 #2 응.(응.)

107019 @ 예.(예.)
107019 #2 경 ᄒᆞ난 경 형 끌이고.(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끓이고.)
107019 @ 예 끌이는디 ᄋᆞ기 들어가는 것들은?(예 끓이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107019 #2 들어가는 건게.(들어가는 건.)
107019 @ 파 이것저것.(파 이것저것.)
107019 #2 고기종륜 놓민.(고기종류는 넣으면.)
107019 @ 허고.(하고.)
107019 #2 꽝 딸린 거로 ᄒᆞ고.(뼈 달인 거로 하고.)
107019 @ 예 그 궁물에, 예.(예 그 국물에, 예.)
107019 #2 고기종류 놓고 경 허민 몸국은 맛잇주.(고기종류 넣고 그렇게 하면 모자반국은 맛있지.)
107019 @ ᄂᆞ물 ᄀᆞ튼 거.(나물 같은 거.)
107019 #2 ᄂᆞ물도 놓곡.(나물도 넣고.)
107019 @ 파 ᄀᆞ뜬 거?(파 같은 거?)
107019 #2 파도 놓곡.(파도 넣고.)
107019 @ 예.(예.)
107019 #2 이제 잘 헹 먹젠 허민 쑥갓도 놓곡.(이제 잘 해서 먹으려고 하면 쑥갓도 넣고.)
107019 @ 아 쑥갓?(아 쑥갓?)
107019 #2 응.(응.)
107019 @ 예, 예.(예, 예.)
107019 #2 예, 다 그런 거 양념은 다 들어간덴 ᄒᆞᆫ 건 다 들어 놔사. ᄯᅳ시.(예, 다 그런 거 양념은 다 들어간다고 한 건 다 들여 넣어야. 다시.)
107019 @ 파 허곡.(파 하고.)
107019 #2 쑥갓도 놓곡. 또시로 그 저 무시거니?(쑥갓도 넣고. 다시로 그 저 무엇이니?)
107019 @ 그 콥데사니?(그 마늘?)
107019 #2 콥데사니.(마늘.)
107019 @ 콥데사니.(마늘.)
107019 #2 ᄲᅵᆺ은 것도 놓곡.(마늘 빻은 것도 넣고.)
107019 @ ᄲᅵᆺ은 것도 놓곡.(마늘 빻은 것도 넣고.)
107019 #2 ᄋᆞ.(ᄋᆞ.)
107019 @ 콥데사니 파?(마늘 파?)
107019 #2 파 그거 말앙도.(파 그거 말아서도.)
107019 @ 응.(응.)
107019 #2 쪽파도 놔도 뒈고게.(쪽파도 넣어도 되고.)

107019 @ 예, 예, 쪽파도 놔도 뒈고예.(예, 예, 쪽파도 넣어도 되고요.)
107019 #2 으 그냥 데파도.(으 그냥 대파도.)
107019 @ 데파도예.(대파도요.)
107019 #2 놔도 뒈고게.(넣어도 되고.)
107019 @ 예, 예.(예, 예.)
107019 #2 데사니 뻣은 것도 놓고.(마늘 빻은 것도 넣고.)
107019 @ 아, 데사니 데사니.(아, 마늘 마늘.)
107019 #2 으.(으.)
107019 @ 아 데사니 뻣은 거예?(아 마늘 빻은 거요?)
107019 #2 으.(으.)
107019 @ 데사니 그 잎도 잇지 안우꽈예?(마늘 그 잎도 있지 않습니까요?)
107019 #2 응.(응.)
107019 @ 데사니.(마늘.)
107019 #2 잎도 잇주.(잎도 있지.)
107019 @ 파랑헌 거예?(파란 거요?)
107019 #2 예.(예.)
107019 @ 예 파랑헌 거 데산이넙은 뭐엔 ᄀᆞᆯ읍니까.(예 파란 거 마늘잎은 뭐라고 합니까.)
107019 #2 그거.(그거.)
107019 @ 마농?(마늘?)
107019 #2 파랗흔 거.(파란 거.)
107019 @ 페마농이 아니고.(쪽파가 아니고.)
107019 #2 그거 콥데산이 껀디.(그거 마늘에 건데.)
107019 @ 예.(예.)
107019 #2 그 저 거시기 파ᄀᆞ찌 맛잇진 아니 허여 그 싸라 놔도.(그 저 거시기 파같이 맛있지는 안 해 그 썰어 넣어도.)
107019 @ 아.(아.)
107019 #2 그건 저.(그거는 저.)
107019 @ 그냥 으.(그냥 으.)
107019 #2 그 무시거 양념에 놔도.(그 무엇 양념에 넣어도.)
107019 @ 예, 예.(예, 예.)
107019 #2 파ᄀᆞ찌 맛잇질 아녀.(파같이 맛있지를 않아.)
107019 @ 예.(예.)
107019 #2 경 ᄒᆞ난 그 저 콥데산인 지 담을 때도 그 이파린 헷[236] 뜨다 뒁 헤여.(그렇게 하니까 그 저 마늘은 장아찌 담을 때도 그 이파린 '헷' 뜯어 두어서 해.)
107019 @ 아, 경 헷구나.(아, 그렇게 했구나.)

236) '헷' 파 잎 부분을 분지르면서 내는 의성어다.

107019 #2 경 홈으로 뚜다 뒁.(그렇게 함으로 뜯어 두어서.)
107019 @ 뚜다 뒁 허여예?(뜯어 두어서 해요?)
107019 #2 남뎅이만 그 ᄒᆞ는 거.(줄기만 그 하는 거.)
107019 @ 아.(아.)
107019 #2 이파린 맛이 벨로 엇어.(이파린 맛이 별로 없어.)
107019 @ 아, 맛이 벨로 엇엉예.(아, 맛이 별로 없어서요.)
107019 #2 응.(응.)
107019 @ 저 콥데산이 ᄲᆞ아근에 놔근에예.(저 마늘이 빻아서 넣어서요.)
107019 #2 응, ᄲᅡᆨ산 놓곡.(응, 빻아서 넣고.)
107020 @ 생선국 종류 골아줍서. 생선국.(생선국 종류 말해주십시오. 생선국.)
107020 #2 셍선국은게 솔레기.(생선국은 옥돔.)
107020 #1 셍선 난 건 다 먹주.(생선 나는 건 다 먹지.)
107020 #2 헛, 헛, 헛.(헛, 헛, 헛.)
107020 #1 국 끌영 먹어지난.(국 끓여서 먹어지니까.)
107019 @ 으 흥 솔라니 국.(으 흥 옥돔 국.)
107020 #2 솔레기 국도 잇고게. 조깃 국도 잇곡.(옥돔 국도 있고. 조기 국도 있고.)
107020 @ 솔, 솔레기 국.(솔, 옥돔국.)
107020 #2 응, 조기 국.(응, 조깃국.)
107020 @ 조기 국.(조깃국.)
107020 #2 또 무시거라. 궤기 일름을 다 알아지크라.(또 무엇이야. 고기 이름을 다 알아지겠니.)
107020 @ 솔레기 솔레깃국이엔 허는구나예?(옥돔 옥돔국이라고 하는군요?)
107020 #2 응.(응.)
107020 @ 조깃국.(조깃국.)
107020 #2 이딘.(여기는.)
107020 #1 옥돔을 솔레기.(옥돔을 '솔레기.')
107020 #2 옥돔ᄀᆞ라 솔레기이.(옥돔보고 '솔레기.')
107020 @ 솔레기예?(옥돔요?)
107020 #2 응.(응.)
107020 @ 솔레기국.(옥돔국.)
107020 #2 또 조깃.(또 조기.)
107020 @ 조깃국.(조깃국.)
107020 #2 조기국도 잇고게.(조깃국도 있고.)
107020 @ 또.(또.)
107020 #1 게 돔덜.(그럼 돔들.)
107020 #2 돔도 잇고게. 다 그 바당에 나는 거 그런 거.(돔도 있고. 다 그 바다

에 나는 거 그런 거.)
107020 @ 응.(응.)
107020 #1 건 다 끌여도 다 먹어지여.(건 다 끓여도 다 먹어져.)
107020 @ 응.(응.)
107020 #2 다 끌려근엥에.(다 끓여서요.)
107020 @ 옛날에도 돔이엔 헤나신가마씨?(옛날에도 돔이라고 했는가요?)
107020 #1 응.(응.)
107020 #2 엿날에도 돔이엔 헷주게.(옛날에도 돔이라고 했지.)
107020 #1 에, 에.(에, 에.)
107020 #2 돔 그거 게. 검은 돔게.(돔 그거. 검은 돔.)
107020 @ 아, 아.(아, 아.)
107020 #2 그거 ᄒᆞ고.(그거 하고.)
107020 #1 붉은 돔.(붉은 돔.)
107020 #2 또 붉은 돔 황 돔 ᄒᆞ곡게.(또 붉은 돔 황 돔 하고.)
107020 #1 예.(예.)
107020 #2 기축 허영 허곡. 또시로 저 무시거니? 그 늘레네 나는 것ᄀᆞ라 무시거엔 ᄒᆞᆫ다마는.(그처럼 해서 하고. 다시로 저 무엇이니? 그 '늘레내' 나는 것보고 무엇이라고 한다마는.)
107020 @ 검은 검은 거?(검은 검은 거?)
107020 #2 저 검은 거.(저 검은 거.)
107020 #2 아 저 무신 거.(아 저 무슨 거.)
107020 @ 벤자리?[237]('벤자리?')
107020 #1 아 그 구릿?(아 그 감성돔?)
107020 #2 응, 구릿.(응, 감성돔.)
107020 @ 응? 구릿.(응? 감성돔?)
107020 #2 구릿도 형 끌영도 먹곡게.(감성돔도 해서 끓여서도 먹고.)
107020 @ 구릿.(감성돔.)
107020 #2 뭐 닷지도 엿날에 하영 나 나난.(뭐 독가시치도 옛날에 많이 났었으니까.)
107020 @ 닷지.(독가시치.)
107020 #2 닷지도 끌영 먹곡.(독가시치도 끓여서 먹고.)
107020 @ 아 닷지도.(아 독가시치도.)
107020 #2 뭐 못 끌영 먹는 게 잇어?(뭐 못 끓여서 먹는 것이 있니?)
107020 @ 애기 나난 다음에.(애기 낳아난 다음에.)
107020 #2 어렝이도 끌영 먹고.(어렝놀래기도 끓여서 먹고.)
107020 @ 예 어렝이도.(예 어렝놀래기도.)

237) '벤자리'는 하스돔과의 바닷물고기다.

107020 #2 응.(응.)
107020 @ 애기 나난 다음에?(애기 낳아난 다음에?)
107020 #2 응, 아기 나난 다음에.(응, 아기 낳아난 다음에.)
107020 @ 저기 허는 거?(저기 하는 거?)
107020 #2 솔레기 놩 끌영.(옥돔 넣어서 끓여서.)
107020 @ 솔레기 놩.(옥돔 넣어서.)
107020 #2 메역 놓고 헹 끌영.(미역 넣고 해서 끓여서.)
107020 @ 메역 놓고 허고 또 저기 젖 잘 안 나오면은 또 허는.(미역 넣고 하고 또 저기 젖 잘 안 나오면 또 하는.)
107020 #2 젖 잘 안 나왕 허민, 도세기아강발 헤다근엥 딸영.(젖 잘 안 나와서 하면, 돼지족발해서 달여서.)
107020 @ 예, 예.(예, 예.)
107020 #2 딸려근엥에 멕여.(달여서 먹여.)
107020 @ 으 으.(으 으.)
107020 #2 에기 어멍.(애기 어머니.)
107020 @ 에기 어멍은?((애기 어머니는?)
107020 #2 으.(으.)
107020 @ 예.(예.)
107021 @ 미역국에 대해서.(미역국에 대해서.)
107021 #2 예 메역국. 애기 나 나문 메역국 주로 먹주게.(예 미역국. 애기 낳아 나면 미역국 주로 먹지.)
107021 @ 애기 나 나면은예?(애기 낳아나면요?)
107021 #2 응 솔레기 놓멍 끌여근엥이.(응 옥돔 넣으면서 끓여서.)
107021 @ 예.(예.)
107021 #2 주로게.(주로.)
107021 @ 예 솔레기.(예 옥돔.)
107021 #2 주로 먹주.(주로 먹지.)
107021 @ 솔레기는 매번 주지 못 허지 안습니까게예.(옥돔은 매번 주지 못 하지 않습니까요.)
107021 #2 아이고, 경 헤도. 에기 낭 사흘ᄁᆞ지는 솔레기국 멕여.(아이고, 그렇게 해도. 에기 낳아 사흘까지는 옥돔국 먹여.)
107021 @ 아, 사흘ᄁᆞ지예.(아, 사흘까지요.)
107021 #2 예.(예.)
107021 @ 사흘ᄁᆞ지 헤기네 허고 아까는 그 아강발이엔 헌 거는.(사흘까지 해서 하고 아까는 그 족발이라고 한 거는.)
107021 #2 젖 안 나와 가민. 이제 그거 딸영 멕이는 거.(젖 안 나와 가면. 이제 그거 달여서 먹이는 거.)

107021 @ 멕이는 거예. 응 미역은 애기 나낭 솔레기국 이거허고.(먹이는 거요. 응 미역은 애기 낳아서 옥돔국 이거하고.)
107021 #2 응.(응.)
107021 @ 식게 헐 때.(제사 할 때.)
107021 #2 식게 홀 때도 그.(제사 할 때도 그.)
107021 @ 메역 놓고.(미역 넣고.)
107021 #2 메역 놓코 솔레기 놓고 헤영.(미역 넣고 옥돔 넣고 해서.)
107021 @ 메역 놓고 솔레기 허영예?(미역 넣고 옥돔 해서요?)
107021 #2 응.(응.)
107021 @ 식게, 겡예?(제사, 갱요?)
107021 #1 제ᄉᆞ.(제사.)
107021 @ 예 겡.(예 갱.)
107021 #2 응, 멩질 홀 때도.(응, 명절 할 때도.)
107021 @ 멩질.(명절.)
107021 #2 그 솔레기 놓고 허영 끌영.(그 옥돔 넣고 해서 끓여서.)
107021 #1 겡국 홀 때는 마늘 ᄀᆞ뜬 거 안 놓으메.(갱국 할 때는 마늘 같은 거 안 놓는다.)
107021 @ 예, 예, 겡국 홀 때는 마늘 ᄀᆞ뜬 거는 일체 안 놓고.(예, 예, 갱국 할 때 마늘 같은 거는 일체 안 넣고.)
107021 #2 응.(응.)
107021 @ 물장 놔근예?(간장 넣어서요?)
107021 #2 응 물장.(응 간장.)
107021 @ 물장 또시 장물이엔 헙니까 물장이엔 헙니까?(간장 또 간장이라고 합니까 간장이라고 합니까?)
107021 #2 장물.(간장.)
107021 @ 장물예?(간장요?)
107021 #2 으.(으.)
107021 @ 아, 장물 놔근에.(아, 간장 넣어서.)
107022 @ 냉국?(냉국?)
107022 #2 응?(응?)
107022 @ 냉국.(냉국.)
107022 #2 냉국?(냉국?)
107022 @ 예, 냉국, 냉국은 뭐 ᄋᆞ라 가지.(예, 냉국, 냉국은 뭐 여러 가지.)
107022 #2 아, 냉국은 ᄋᆞ라 가지주 게. 저 거시기 웨냉국도 잇곡게.(아, 냉국은 여러 가지지 게. 저 거시기 오이냉국도 있고.)
107022 @ 웨냉국?(오이냉국?)
107022 #2 ᄂᆞ물냉국도 잇고게.(나물냉국도 있고.)

107022 @ 아, ᄂᆞ물예?(아, 나물요?)
107022 #2 응.(응.)
107022 @ ᄂᆞ물냉국. 여름에는 웨냉국이 하지예? 물웨.(나물냉국. 여름에는 오이냉국이 많지요? 물외.)
107022 #2 웨냉국이 하주게.(오이냉국이 많지.)
107022 @ 예 물웨.(예 물외.)
107022 #2 물웨 놔근엥에 싸라 놩.(물외 넣어서 썰어 넣어.)
107022 #1 게민 그거.(그러면 그거.)
107022 #2 냉국 헤곡.(냉국 하고.)
107022 #2 향기가 잇으니까.(향기가 있으니까.)
107022 @ 예.(예.)
107022 #2 저 뒌장 풀어 놓곡 헹.(저 된장 풀어 넣고 해서.)
107022 @ 된장 풀어 놓고예.(된장 풀어 넣고요.)
107022 #2 응, 경 헹 끌영.(응, 그렇게 해서 끓여서.)
107022 @ 경 허곡.(그렇게 하고.)
107022 #2 저 냉국헤영.(저 냉국해서.)
107022 @ 응 여기도 냉국도 미역냉국도 이실 거곡 아까.(응 여기도 냉국도 미역냉국도 있을 거고 아까.)
107022 #2 아니 메역넹국도 잇곡.(아니 미역냉국도 있고.)
107022 @ 예.(예.)
107022 #2 또시로게 무시거니게, 바당에 나는 거 조우럭도 헤도, 헤도 먹곡게.(다시로 무엇이니, 바다에 나는 거 노래미도 해도, 해도 먹고.)
107022 @ 아, 조우럭예.(아, 노래미요.)
107022 #2 이제 어렝이도게 넹국 헹 먹곡.(이제 어렝놀래기도 냉국 해서 먹고.)
107022 @ 어, 어렝이예.(어, 어렝놀래기요.)
107022 #2 응, 뭐 웨 넹국 헤 먹는 거 족아?(응, 뭐 왜 냉국 해 먹는 거 작아?)
107022 @ 어, 소라도 허곡.(어, 소라도 허곡.)
107022 #2 아. 오징어도.(아. 오징어도.)
107022 @ 아. 오징어도.(아. 오징어도.)
107022 #2 오징어 ᄀᆞ뜬 것도 먹곡게.(오징어 같은 것도 먹고.)
107022 @ 아.(아.)
107022 #2 소라 ᄀᆞ뜬 것도 헹 먹곡 뭐.(소라 같은 것도 해서 먹고 뭐.)
107022 @ 옛날에 거 이거 냉국은 잘 먹어신게마씨.(옛날에 거 이거 냉국은 잘 먹었네요.)
107022 #2 아이고게.(아이고.)
107022 #1 아이고게 요즘엔게 시원ᄒᆞ게.(아이고 요즘에는 시원하게.)
107022 @ 시원ᄒᆞ게예.(시원하게요.)

107022 #2 시원흔 맛으로 그걸 헨 먹엇주.(시원한 맛으로 그걸 해서 먹었지.)

107022 @ 소라 냉국예.(소라 냉국요.)

107022 #2 일 ᄒᆞ다근엥에 딱 지천게 들어오민 ᄒᆞ고 밧디 갈 뗀. 뒌장 ᄒᆞ나 앗엉 가곡. 밧 엠이 조 불릴 때 밧 엠더레 무수씨 ᄒᆞ나썩 뎃경 네불민 그 무수가 낭. 검질 메여근넹이 헐 때 ᄉᆞ아근엥 그 ᄂᆞ물.(일 하다가 딱 지쳐서 들어오면 하고 밭에 갈 땐. 된장 하나 가져서 가고. 밭 옆에 조 밟을 때 밭 옆쪽으로 무씨 하나씩 던져서 내버리면 그 무가 나서. 김매어서 할 때 솎아서 그 나물.)

107022 @ 응.(응.)

107022 #2 헹 왕 데우청 숢앙 냉국 헹 먹곡.(해서 와서 데쳐서 삶아서 냉국 해서 먹고.)

107022 @ 냉국 헹 먹곡. 예, 예.(냉국 해서 먹고. 예, 예.)

107022 #2 또 그 조 빌 뗀.(또 그 조 벨 땐.)

107022 @ 예.(예.)

107022 #2 그 무수 메영 호미로 착착 끄차기네. 뒌장 찍으멍 밥 먹엉 그 조 비곡 경 헷주.(그 무 매어서 낫으로 착착 잘라서. 된장 찍으며 밥 먹어서 그 조 베고 그렇게 했지.)

107022 @ 예.(예.)

107022 #2 어디 반찬이엔.(어디 반찬이라고.)

107022 #1 반찬이.(반찬이.)

107022 #2 ᄒᆞᆫ 거 무시거 이서게?(한 것 무엇 있어?)

107022 @ 맞수다 예.(맞습니다 예.)

107022 #2 저 요세ᄀᆞ찌 베추라도 저 쏙 앚으게 헤져서. 무신 걸름이 잇어사. 쏙 앚으게 홀 거주게. 요센 비료가 처 잇으난 쏙을 앚암주만은 그뗀 멘 땅에 그거 헹 허민. 제우 오줌이나 쌍 모두아 놧당 거 그거나 ᄒᆞ쏠 주민 그거 퍼데기 탁탁 퍼진 거허영. 호미로 케영 소 소곰물에 바당이 간 씻어당.(저 요새같이 배추라도 저 속 앉게 해졌어? 무슨 거름이 있어야. 속 앉게 할 거지. 요새는 비료가 많이 있으니까 속을 앉고 있지만 그땐 맨 땅에 그거 해서 하면. 겨우 오줌이나 싸서 모여 놓았던 거 그것이나 조금 주면 그거 '퍼데기' 탁탁 퍼진 거해서. 낫으로 케어서 소 소금물에 바다에 가서 씻어다가.)

107022 @ 응.(응.)

107022 #2 소곰에 ᄃᆞᆼ갓당.(소금에 담갔다가.)

107022 @ 응.(응.)

107022 #2 이제 고칫ᄀᆞ룬 어디 ᄀᆞ는 디가 잇엇서게. 게난 밧.(이제 고춧가루는 어디 가는 데가 있었어. 그러니까 밭.)

107022 @ 밧.(밭.)

107022 #2 엠에 싱것당 그거 멜젓에 ᄀᆞ찌 놩 딸영. 딸여근넹이 그거 ᄀᆞ치 건정 박박 ᄒᆞ게시리 밀민 거 붉은 물 나민 이제 그거 헤근넹이 저 멜젓은 건더기영 뎃겨

벼뒁. 그 궁물에 저 거시기 김치 절인 거 꽉꽉 ᄒᆞ게시리 ᄃᆞᆼ갓다근넹이 저 마농 놓곡 헹 ᄃᆞᆼ갓당. 시그릉ᄒᆞ민 그것이 반찬이곡. 멜젓ᄒᆞ민 그거 자리젓도 메 집이 자리젓 헤져?(옆에 심었다가 그거 멸치젓에 같이 넣어서 달여서. 달여서 그거 같이 건져서 박박 하게끔 밀면 거 붉은 물 나면 이제 그거 해서 저 멸치젓은 건더기하고 던져버려 두어서. 그 국물에 저 거시기 김치 절인 거 꽉꽉 하게끔 담갔다가 저 마늘 넣고 해서 담갔다가. 시금하게 하면 그것이 반찬이고. 멸치젓하면 그거 자리젓도 매집에 자리젓 해지니?)

107022 @ 맞수다.(맞습니다.)

107022 #2 자리젓 헤여근넹이 그거 ᄒᆞ쏠 앚엉 강 ᄒᆞ곡. 경 ᄒᆞ민 반찬이 엇이난, 그 게 뒌장만 ᄒᆞ나 앚엉 가민 그거 무수 헤여근넹이 착착 호미로 비당 그차 놩 뒌장 찍으멍 먹곡.(자리젓 해서 그거 조금 가져서 가서 하고. 그렇게 하면 반찬이 없으니까 그 게 된장만 하나 가지서 가면 그거 무해서 착착 낫으로 베어다가 잘라놔서 된장 찍으면서 먹고.)

107022 @ 예, 예.(예, 예.)

107022 #2 경 헷, 경 헷주.(그렇게 했, 그렇게 했지.)

107022 @ 예.(예.)

107022 #2 게맛 줏그듸. 바당 ᄌᆞ끗디 간 사람덜은 저 뒌장 앚앙 가민 그 아레 물싸민 ᄂᆞ려강 겡이 잡아당 찍엉 먹어낫젠도 다 헤여.(개 옆에. 바다 옆에 간 사람들은 저 된장 가져서 가면 그 아래 물써면 내려가서 게 잡아다가 찍어서 먹었었다고도 다 해.)

107022 @ 맞수다 예, 예.(맞습니다 예, 예.)

107022 #2 반찬이 엇이난.(반찬이 없으니까.)

107022 @ 예 반찬이 엇이난예.(예 반찬이 없으니까요.)

107022 #2 응.(응.)

107022 @ 예 반찬은 반찬은 하신디. 먹을 건 하신디. 조리 헹 먹진 안헷주.(예 반찬은 반찬은 많은데. 먹을 건 많은데. 조리 해서 먹지는 않았지.)

107022 #2 돈.(돈.)

107022 @ 예.(예.)

107022 #2 헤영 사 먹을 게 잇어사 사 먹주게.(해서 사 먹을 것이 있어야 사 먹지.)

107022 @ 예, 예.(예, 예.)

107022 #2 또 바다이 간 궤기 잡아 온 것도 돈이 잇어사 사당. 끌영 먹곡 반찬 헹 먹주. 어디 돈이 나서?(또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 온 것도 돈이 있어야 사다가. 끓여서 먹고 반찬 해서 먹지. 어디 돈이 났어?)

107022 @ 예, 예.(예, 예.)

107022 #2 놈이 일 허레 강 죽도록 살도록 다섯 시 전이 강 헤어도 좁쏠이민 두 뒈. 존 흔 말.(남의 일 하러 가서 죽도록 살도록 다섯 시 전에 가서 해도 좁쌀이

면 두 되. 조는 한 말.)

107022 @ 응.(응.)

107022 #2 경 흔 걸로 헤다근넹이 먹곡. 그거 풀아근엥에 어디 궤기 사먹을 돈이 어디 이서?(그렇게 한 걸로 해다가 먹고. 그거 팔아서 어디 고기 사먹을 돈이 어디 있어?)

107022 @ 응 맞수다.(응 맞습니다.)

107022 #2 경 ᄒᆞ니, 이제 춤 장은 콩 갈앗당 이녁 장 헤근넹이 그건 엇지 안 헤영 그자 앗앙 뎅기멍. 멩물에도 뒌장 헤근넹이 국 헤근에.(그렇게 하니, 이제 참 장은 콩 갈았다가 이녁 장해서 그건 없지 않아서 그저 가져서 다니면서. 맹물에도 된장 해서 국 해서.)

107022 @ 국 행 먹고.(국 해서 먹고.)

107022 #2 밥 즘앙 먹곡.(밥 말아서 먹고.)

107022 @ 예, 밥 즘앙 먹곡예.(예, 밥 말아서 먹고요.)

107022 #2 경 헹. 춤 ᄀᆞᆺ사.(그렇게 해서. 참 아까.)

107022 #1 여름엔 멩물에 장 뒌장 탁 풀어 놔근에 밥 즘앙 먹는 게 췌고.(여름엔 맹물에 장 된장 탁 풀어 넣어서 밥 말아서 먹는 것이 최고.)

107022 @ 예, 최고우다. 밥도 잘 들어가곡.(예, 최고입니다. 밥도 잘 들어가고.)

107022 #2 경 ᄒᆞ곡. 요센 곤쏠이난 허주. 엿날에 보리쏠에 그 뒌장 풀어 놩 밥 ᄌᆞ무민 더 맛좋앗서.(그렇게 하고. 요새는 흰쌀이니까 하지. 옛날에 보리쌀에 그 된장 풀어 넣어서 밥 말면 더 맛좋았어.)

107022 @ 예 맞 좋아수다.(응 맞 좋았습니다.)

107022 #2 요세 곤쏠 놩 밥허영 즘은 건 맛이 엇어도.(요새 흰쌀 넣어 밥해서 말은 건 맛이 없어도.)

107022 @ 예, 예, 예.(예, 예, 예.)

107022 #2 엿날에 보리쏠 놩, 밥헤여근엥에 뒌장 싹싹 풀어 놩. 확 ᄒᆞ게시리 그레 즘아근엥이 먹으민.(옛날에 보리쌀 넣어서, 밥해서 된장 싹싹 풀어 넣어. 확 하게끔 거기에 잠가서 먹으면.)

107022 @ 먹으민.(먹으면.)

107022 #2 얼마나 맛이 잇엇서게?(얼마나 맛이 있었어?)

107022 @ 예 고소허고예.(예 맛이 있어. 고소하고요.)

107022 #2 경 헌디. 요즘은 곤쏠밥이 난 경 맛이 엇어.(그런데. 요즘은 흰쌀밥이 난 그렇게 맛이 없어.)

107022 @ 예, 예 맞수다.(예, 예 맞습니다.)

107022 #1 헤 헷.(헤 헷.)

107022 @ 어, 맞수다.(어, 맞습니다.)

107022 #2 하간 거 놓노렌 허멍. 콩도 무신 뎃 가지여. 무신 멧 가지엔 헤도.(여러 가지 거 넣는다고 하면서. 콩도 무슨 댓 가지다. 무슨 몇 가지라고 해도.)

107022 @ 예, 예.(예, 예.)

107022 #2 놓멍 해도 그 때만이 맛이 엇어.(넣으면서 그 때만큼 맛이 없어.)

107023 @ 으, 게난 성게국도 헤가지고 성게국도 또 저기 성게 헤지면은 ᄂᆞ물 놔근에 끌여근에 팔팔.(으, 그러니까 성게국도 해가지고 성게국도 또 저기 해지면 나물 넣어서 끓여서 팔팔.)

107023 #2 아니 ᄂᆞ물ᄂᆞ물 놩.(아니 나물 넣어서.)

107023 @ 끌영.(끓여서.)

107023 #2 그건 성게는 ᄂᆞ물 아니 놩 메역.(그거 성게는 나물 아니 넣어서 미역.)

107023 @ 메역 놩예.(미역 넣어서요.)

107023 #2 메역 놩 끌리곡 또 넹국도.(미역 넣어서 끓이고 또 냉국도.)

107023 @ 응.(응.)

107023 #2 메역에 냉국 그 솜 놩 냉국.(미역에 냉국 그 말똥성게 넣어서 냉국.)

107023 @ 아, 메역예.(아, 미역요.)

107023 #2 경 허주. 저 ᄂᆞ물은 아니.(그렇게 하지. 저 나물은 아니.)

107023 @ 아.(아.)

107023 #2 그 솜엔 메역.(그 말똥성게엔 미역.)

107023 @ 메역예?(미역요?)

107023 #1 그 태우[238]는 게 잇이난에.(그 '태우'는 것이 있으니까.)

107022 @ 예, 예.(예, 예.)

107023 #1 다.(다.)

107023 @ 보말 보말은? 또 메역을 놓던지?(고둥 고둥은? 또 미역을 넣었는지?)

107023 #2 메역 놔근에 ᄀᆞ루 놓고 헹 끌리곡.(미역 넣어서 가루 넣고 해서 끓이고.)

107023 @ 메역, ᄀᆞ루 놓곡예?(예, 가루 놓고요?)

107023 #2 응, 경 헹 끌리곡. ᄀᆞ루 놓왕 볶앙.(응, 그렇게 해서 끓이고. 가루 넣어서 볶아서.)

107023 @ 아 볶아근에예.(아 볶아서요.)

107023 #2 응 볶아근엥에도 먹곡. 그냥도 또 장물에.(응 볶아서도 먹고. 그냥도 또 간장에.)

107023 @ 장물에예.(간장에요.)

107023 #2 응 볶아근에 먹곡.(볶아서도 먹고.)

107023 @ 예, 예.(예, 예.)

107023 #2 또.(또.)

107023 @ 예, 너페국은?(예, 넓패국은?)

238) '태운' '태우다' '테와', 어떤 복이나 기능 재주를 타고 나다. 여기에서는 관계가 제일 알맞다의 뜻이다.

107023 #2 넙페국은 솖아근엥이 그 ᄀᆞ루 놩 끌영.(넓패국은 삶아서 가루 넣어서 끓여서.)

107023 @ 솖아서예?(삶아서요?)

107023 #2 응, 솖앙 ᄀᆞ루 놩 끌여서.(응, 삶아서 가루 넣어서 끓여서.)

107023 #1 솖앙 놔뒷당.(삶아서 놔두었다가.)

107023 @ 아 솖아서 놔뒷당?(아 삶아서 놔뒀다가요?)

107023 #1 차반지에 펑 놔뒷당.(채롱에 퍼서 넣어두었다가.)

107023 @ 아.(아.)

107023 #1 ᄒᆞ쏠썩 놓멍.(조금씩 넣으면서.)

107023 @ 응 거문 넙패국에는 간장 물장 놔근에예?(그러면 넓패국에는 간장 간장 넣어서요?)

107023 #2 응, 물장.(응, 간장.)

107023 @ 아.(아.)

107023 #2 아, 물장 ᄒᆞ쏠ᄒᆞ민 뒈여. 그건 쫍지랑 헤영.(아, 간장 조금하면 돼. 그건 짭짤해서.)

107023 @ 쫍지랑ᄒᆞ니까.(짭짤하니까.)

107023 #2 바당이서 막 밀엉 왕 그듸서 씻청 와근에. 그자 솟디 왕.(바다에서 마구 밀어서 와서 가기서 씻어서 와서. 그저 솥에 와서.)

107023 @ 그자 솟디 놩.(그저 솥에 넣어서.)

107023 #2 솖으주게.(삶지.)

107023 @ 솖으난예.(삶으니까요.)

107023 #2 솖으민 그거시 짭지그랑허여.(삶으면 그것이 짭짤해.)

107023 @ 예.(예.)

107023 #2 쫍지그랑 ᄒᆞ민 그거 놩 풀어 놩 허여근에 ᄒᆞ쏠 싱거우민 근장.(짭짤하면 그거 넣어서 풀어 넣어서 해서 조금 싱거우면 간장.)

107023 @ 근장 ᄒᆞ쏠 놔근에.(간장 조금 넣어서.)

107023 #2 ᄒᆞ끔 놓나. 뒌장 ᄒᆞ끔 놓나. 이녁 셍메에 맞게.(조금 넣으나. 된장 조금 넣으나. 이녁 성미에 맞게.)

107023 @ 생메에예.(성미에요.)

107023 #2 끌영 먹는 거난.(끓여서 먹는 거니까.)

107023 @ 가시리국은?(풀가사리국은?)

107023 #2 가시리국은 뒌장에 ᄂᆞ물 놩 끌영.(풀가사리국은 된장에 나물 넣어서 끓여.)

107023 @ 된장에 ᄂᆞ물 놩예?(된장에 나물 넣어서요?)

107023 #2 응 경 ᄒᆞ민 막 맛 좋아.(응 그렇게 하면 아주 맛 좋아.)

107023 @ 예 여기는 뭐 ᄀᆞ루 놓을 필요가 엇인 거 아니우꽈예?(예 여기는 뭐 가루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요?)

107023 #2 응, ᄀᆞ루 안 놔도 문작ᄒᆞ게.(응, 가루 안 넣어도 반드럽게.)
107023 @ 예 문작ᄒᆞ니까예.(예 반드러우니까요.)
107023 #2 막 맛좋아.(아주 맛좋아.)
107023 @ ᄑᆞ레국?(파래국?)
107023 #2 ᄑᆞ렛국도 그자 뒌장에 그자 파레만 놩 끌영.(파래국도 그저 된장에 그저 파래만 넣어서 끓여.)
107023 @ 아, 된장에.(아, 된장에.)
107023 #2 응.(응.)
107023 #1 겐디, 이 동네 ᄑᆞ레는 찌글락 찌글락혜영. 혼엇이 벨로 좋질 아녀.(그런데, 이 동네 파래는 찌글락 찌글락해서. 별로 별로 좋지를 않아.)
107023 @ 응.(응.)
107023 #2 몰레가 많아.(모레가 많아.)
107023 #1 어, 이 저.(어, 이 저.)
107023 @ 몰레가예.(모레가요.)
107023 #1 으 김 ᄑᆞ레라야지.(으 김 파래라야지.)
107023 @ 예.(예.)
107023 #1 육지에서 나는 이디 파레는.(육지에서 나는 여기 파래는.)
107023 @ 응 아까 물회는, 저 물회는 ᄀᆞᆯ아 주난에예.(응 아까 물회는, 저 물회는 말해 주니까요.)

죽류

107024 @ 죽 삼춘. 죽예?(죽 삼촌. 죽요?)
107024 #2 죽?(죽?)
107024 @ 예.(예.)
107024 #2 쑤는 거?(죽? 쑤는 거?)
107024 @ 예, 죽 종류.(예, 죽 종류.)
107024 #2 죽 종류. ᄑᆞᆺ죽(죽 종류. 팥죽.)
107024 @ 저 재료 별로.(저 재료 별로.)
107024 #2 ᄑᆞᆺ죽.(팥죽.)
107024 @ ᄑᆞᆺ으로 헤서.(팥으로 해서.)
107024 #2 ᄑᆞᆺ죽.(팥죽.)
107024 @ 예 ᄑᆞᆺ죽.(팥죽.)
107024 #2 콩죽.(콩죽.)
107024 @ 콩죽, 콩 놓고예.(콩죽, 콩 놓고요.)
107024 #2 응, 콩죽. 저 녹디죽.(응, 콩죽. 저 녹두죽.)
107024 @ 녹디죽, 녹디 놔기네 허민예.(녹두죽, 녹두 넣어서 하면요.)
107024 #2 응.(응.)

107024 @ 녹디죽.(녹두죽.)
107024 #2 녹디 놩 죽 쑤는 거.(녹두 넣어서 죽 쑤는 거.)
107024 @ 그 다음에는?(그 다음에는?)
107024 #2 그 남은 게 무시거 퓻허곡 콩허고 녹디ᄒᆞ고 헤부난에, 검은 검은 돔비 놩.(그 남은 것이 무엇 팥하고 콩하고 녹두하고 해버리니까, 검은 검은 동부 넣어서. 검은 검은 동부 넣어서.)
107024 @ 돔비?(동부?)
107024 #2 응 검은 돔비.(응 검은 동부.)
107024 @ 예.(예.)
107024 #1 아, 쏠죽 잇잖여게. 흰죽. 흰죽.(아, 쌀죽 있잖아. 흰죽. 흰죽.)
107024 #2 무시거어?(무엇?)
107024 #1 흰죽.(흰죽.)
107024 #2 흰죽 어, 쏠만 놩 흰죽.(흰죽 어, 쌀만 넣어서 흰죽.)
107024 @ 흰죽.(흰죽.)
107024 #2 ᄆᆞ믈축 으.(메밀죽 으.)
107024 @ ᄆᆞ믈축.(메밀죽.)
107024 #2 으.(으.)
107024 @ 또 저기 몸 아프거나 허게 되면은 허는 그 저. 그 ᄆᆞ믈에 파에.(또 저기 몸 아프거나 하게 되면 허는 그 저. 그 메밀에 파에.)
107024 #2 저 거시기?(저 거시기?)
107024 @ 예.(예.)
107024 #1 감기 걸릴 때.(감기 걸릴 때.)
107024 #2 ᄆᆞ믈쏠에 저 파 놩?(메밀쌀에 저 파 넣어서?)
107024 @ 예. ᄆᆞ믈쏠.(예. 메밀쌀.)
107024 #2 응 파놩.(응 쪽파 넣어서.)
107024 #1 쪽파 쪽파 놔근에.(쪽파 쪽파 넣어서.)
107024 #2 응.(응.)
107024 @ 쏠에 쪽파 놔근에예.(쌀에 쪽파 넣어서요.)
107024 #2 응.(응.)
107024 @ 감기에예. 감기에요.)
107024 #2 응, 감기.(응, 감기.)
107024 @ 예, 경 ᄒᆞ곡 저기 바닷고기 헤놔근에 거기 쏠 놔근에 흰죽은.(예, 그렇게 하고 저기 바닷고기 해서 거기 쌀 넣어 흰죽은.)
107024 #2 아이고 것도 아무거 놩 쒀도 좋주.(아이고 것도 아무거나 넣어서 쑤어도 좋지.)
107024 @ 바닷고기 놔근에예?(바닷고기 넣어서요?)
107024 #2 응, 바닷고기 놩 쏠 놔근에 죽 쑤는 거.(응, 바닷고기 넣어서 쌀 넣어

서 죽 쑤는 거.)
107024 @ 예 바닷고기.(예 바닷고기.)
107024 #2 응.(응.)
107024 #1 그 죽이 맛잇서.(그 죽이 맛있어.)
107024 @ 예.(예.)
107024 #2 게난.(그러니까.)
107024 @ 어죽이엔.(어죽이라고.)
107024 #2 응.(응.)
107024 @ 육지선.(육지에서는.)
107024 #2 응 어죽이엔.(어죽이라고.)
107024 @ 어죽이엔 허주마는.(어죽이라고 하지만은.)
107024 #2 응 육지서 어죽 어죽 헨게.(응 육지서 어죽 어죽 했어.)
107024 @ 예.(예.)
107024 #2 게난게. 그거 무시거 바당에 나는 거 다 놩 죽 쒀도 뒈.(그러니까. 거 무엇 바다에 나는 거 다 넣어서 죽 쒀도 돼.)
107024 @ 예.(예.)
107024 #2 보말 놩 죽 쒀도 뒈고.(보말 넣어서 죽 쒀도 되고.)
107024 @ 보말죽.(보말죽.)
107024 #2 겡이.(게.)
107024 @ 보말 놓젠 허민 흰쏠 아니꽈?(보말 넣으려고 하면 흰쌀 아닙니까?)
107024 #2 응, 흰쏠 놩 죽 쑤고.(응, 흰쌀 넣어서 죽 쑤고.)
107024 @ 흰쏠.(흰쌀.)
107024 #2 따시로.(다시로.)
107024 @ 겡이.(게.)
107024 #2 겡이도 흰쏠 놩 죽 쑤고.(게도 흰쌀 넣어서 죽 쑤고.)
107024 @ 흰쏠 놔근에 허고예?(흰쌀 넣어서 하고요?
107024 #2 으.(으.)
107024 @ 춥쌀 안들어 가근에예?(찹쌀 안 들어가서요?)
107024 #2 아이 좁쏠 안 놔근에 그자.(아니 좁쌀 안 넣어서 그저.)
107024 @ 아니 춥쏠 춥쌀, 아 찹쌀.(아니 찹쌀 찹쌀, 아 찹쌀.)
107024 #2 춥쌀?(찹쌀?)
107024 @ 예.(예.)
107024 #2 아이 찹쌀헤도 좋을 테주.(아이 찹쌀해도 좋을 테지.)
107024 @ 예 겡이죽. 보말죽, 겡이죽.(예 게죽. 고둥죽, 게죽.)
107024 #2 저 궤기죽. 저 바당고기.(저 고기죽. 저 바다고기.)
107024 #1 고기, 고기.(고기, 고기.)
107024 #2 솔레기주게 그게.(옥돔이지 그것이.)

107024 @ 솔레기예?(옥돔요?)
107024 #1 응.(응.)
107024 @ 솔레기예. 솔레기.(옥돔요. 옥돔.)
107024 #1 고등어 놩 죽 쒀도 맛잇어.(고등어 넣어서 죽 쒀도 맛있어.)
107024 @ 고등어?(고등어?)
107024 #1 응.(응.)
107024 @ 아, 고등어도 죽 쒀나수과?(아, 고등어도 죽 쒔었습니까?)
107024 #1 고등어 싱싱헌 거 놓면은 뭐.(고등어 싱싱한 거 넣으면 뭐.)
107024 @ 예, 예, 고등어죽.(예, 예, 고등어죽.)
107024 #1 고등어죽 쒕 먹엇주 뭐.(고등어죽 쑤어서 먹었지 뭐.)
107024 @ 아.(아.)
107024 #2 죽 쑤는 거게 바당고기로 죽 쑤는 거 그거 게.(죽 쑤는 거 바다고기로 죽 쑤는 거 그거.)
107024 @ 그.(그.)
107024 #1 아무 거라도 뒈여.(아무 거라도 돼.)
107024 #2 아무 거라도 뒈는 거주.(아무 거라도 되는 거지.)
107024 @ 저기 예, 몸국 ᄀᆞ튼디예, 쏠 놔근에 죽 같은 건 안 끌여나수과?(저기 예, 모자반국 같은데요, 쌀 넣어서 죽 같은 건 안 끓였었습니까?)
107024 #2 에에 몸은 놩 죽 쑤는 건 아니 보고.(에에 모자반은 넣어서 죽 쑤는 건 아니 보고.)
107024 @ 도세기 궁물에?(돼지 국물에?)
107024 #1 몸은 거 도야지 궁물이라야 몸국.(모자반은 거 돼지 국물이라야 모자반국.)
107024 @ 몸국 허는디. 거기에 쏠 놔 저기 죽은 안 헤나고예?(모자반국 하는데. 거기에 쌀 넣어 저기 죽은 안 했었고요?)
107024 #2 응, 몸으로 죽은 안 헤나고.(응, 모자반으로 죽은 안 했었고.)
107024 @ 안 헤나고예.(안 했었고요.)
107024 @ 문어죽도 잇어나수과?(문어죽도 있었습니까?)
107024 #2 ᄆᆞ믈쏠 죽은 헷주만은.(메밀쌀 죽은 했지만은.)
107024 @ 예, 문어죽.(예, 문어죽.)
107024 #2 문어? 문어죽 쑵네다.(문어? 문어죽 쑵니다.)
107024 @ 문어죽.(문어죽.)
107024 #2 응.(응.)
107024 @ 또 이것도 흰쏠 놔근에 허는 거 아니우꽈예?(또 이것도 흰쌀 넣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요?)
107024 #2 응, 흰쏠 놩.(응, 흰쌀 넣어서.)
107024 @ 전복으로 죽 쑤고.(전복으로 죽 쑤고.)

107024 #2 응, 전복으로도 쑤고.(응, 전복으로도 쑤고.)

107024 @ 전복죽 아까.(전복죽 아까.)

107024 #2 저 고동으로도 쑤고.(저 소라로도 쑤고.)

107024 @ 고등예?(소라요?)

107024 #2 응.(응.)

107024 @ 소라예?(소라요?)

107024 #2 응, 소라.(응, 소라.)

107024 @ 아, 고동예?(소라요?)

107024 #2 응.(응.)

107024 @ 고동, 소라 겡이 죽허고. 또 죽 쑤는 바닷 거도 많고 감저, 감저 죽은 엇지예?(소라요? 소라, 게 죽하고 또 죽 쑤는 바다 것도 많고 고구마, 고구마 죽은 없지요?)

107024 #2 아니 엿날에 좁쏠 놩 감저죽도 쒀 나수다마는.(아니 옛날에 좁쌀 넣어서 고구마죽도 쒔었습니다마는.)

107024 @ 아 좁쌀, 좁쏠ᄒᆞ고.(아 좁쌀, 좁쌀하고.)

107024 #2 감저 놘에.(감저 넣어서.)

107024 @ 감저 놓고예.(고구마 놓고요.)

107024 #2 감저 놘에 죽 쑤고, 춤 ᄒᆞᆫ 번인 저이 그 ○○이 어멍ᄀᆞ라. 그 말 ᄀᆞᆯ안 아이고 야야, 그 말 튼넨다. 튼넨다. 허멍 ᄀᆞᆯ안게 마는.(고구마 넣어서 죽 쑤고, 참 한 번인 저 그 ○○이 어머니보고. 그 말 말하고 아이고 야야, 그 말 떠올린다. 떠올린다. 하면서 말했지마는.)

107024 @ 응.(응.)

107024 #2 그듸 춤 연날에 장술 헤나난에. 그듸 소곰 사레 간 보난에. 웨솟[239] 디로 죽을 그자 불탁불탁[240] ᄒᆞᆫ 솟을 속빡[241] 쒄. 곤쏠에 좁쏠에 감저에 놩 죽을 쒄. “무슨 소곰? 어떵 연 완?” “소곰 사레 와수다.” ᄒᆞ난. 저 이리와 ᄋᆞ레 와. 요기 ᄃᆞᆺ은디 ᄒᆞ쏠 와. ᄒᆞ쏠 ᄋᆞ레 왕 잇어. 나 앗아 네져. 나 앗아 네져ᄒᆞ난. 그 죽 먹엉 가렌 허젠.(그데 참 옛날에 장사를 했었으니까. 거기 소금 사러 가서 보니까. ‘웨솟’에서 죽을 그저 불탁불탁 한 솥을 수북하게 쑤었어. 흰쌀에 좁쌀에 고구마에 넣어서 죽을 쑤었어. “무슨 소금? 어떻게 해서 왔어?” “소금 사러 왔습니다.” 하니까. “저 이리와 여기로 와. 여기 따스운데 조금 와. 조금 와 있어. 내 가져 내겠어. 내 가져 내겠어.”하니까 그 죽 먹어서 가라고 하려고.)

107024 @ 아.(아.)

107024 #2 “네가 앗아 네크메 ᄋᆞ레 와 ᄒᆞ쏠 불 춰. 불 춰 아이고 이 ᄇᆞᄅᆞᆷ에 눈 ᄊᆞ레기 ᄒᆞ는디. 이레 와 이레 와.” ᄒᆞ연. 경 헤연 이젠 가네 벳긋디 간 어디 우

239) ‘웨솟’ 일본에서 만든 솥이다.

240) ‘불탁불탁’ 죽이 끓여지면서 내는 소리다.

241) ‘속빡’ 수북 물건이 가득하게 많이 담겨져 있거나 쌓여있다. 여기에서는 솥 안에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잣[242] 우영에 간. ᄒᆞ쏠 영 뎅기는 추룩 헨 와네. “아이고 죽 다 쒀젓저. 느네 죽덜 흔 사발 먹엉 가라. 먹엉 가라.” ᄒᆞ멍 헨 죽을 데접으로 ᄒᆞ나썩 거려주난. 바싹 얼고 헌디 간디 감저 놓고 흰쏠 놓고, 좁쏠 놓고 헨.(“내가 가져 내겠다며 여기로 와 조금 불 쬐. 불 쬐 아이고 이 바람에 눈싸라기 하는데.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가서 밖에 갔어. 어디 ‘우잣’ 텃밭에 갔다 조금 이렇게 다닌 것처럼 했다 와서. “아이고 죽 다 쒀졌다. 너희 죽을 한 사발 먹어서 가. 먹어서 가.” 하면서 해서 죽을 대접으로 하나씩 떠주니까. 바싹 얼고 해서 갔는데 고구마 넣고 흰쌀 넣고, 좁쌀 넣고 해서.)

107024 @ 예.(예.)

107024 #2 죽을 쑤난. ᄒᆞᆫ 그릇썩을 주난 어떵사 맛이 존디.(죽을 쑤니까. 한 그릇씩을 주니까 어떻게야 맛이 좋은지.)

107024 @ 아.(아.)

107024 #2 경 헨 쑤언 먹언.(그렇게 해서 쑤어서 먹어서.)

107024 @ 아.(아.)

107024 #2 거, 얻어먹어 완 허난. 요번에 그 말 ᄀᆞᆯ으난, “아이고 야야 그 말을 ᄀᆞ자 튼넨 ᄀᆞᆯ암다.” 허난.(거. 얻어먹어 왔어 하니까. 이번에 그 말 말하니까, “아이고 야야 그 말을 여태까지 떠올려서 말하고 있구나.” 하니까.)

107024 @ 어.(어.)

107024 #2 “아니 그 떼ᄀᆞ찌 맛 좋은 거 먹어 본딜 못 헷수다.” 허멍 ᄀᆞᆯ안.(“아니 그 때같이 맛좋은 거 먹어 보지를 못 했습니다.” 하면서 말해서.)

107024 @ 아 하, 하하.(아 하, 하하.)

107024 #2 웃어신디이.(웃었는데.)

107024 @ 아, 경 헷구나예?(아, 그렇게 했군요?)

107024 #2 응 엿날에.(응 옛날에.)

107024 @ 감저죽.(고구마죽.)

107024 @ 맞수다게 예, 예.(맞습니다 예, 예.)

107024 #2 엿날엔 경 헹 먹어낫주.(옛날엔 그렇게 해서 먹었지.)

107024 @ 피 놓고도 죽 쒀? 저.(피 넣고도 죽 쒀? 저.)

107024 #2 응 피죽도 잇주게.(피죽도 있지.)

107024 @ 피죽예?(피죽요?)

107024 #2 응.(응.)

107024 @ 예 피죽.(예 피죽.)

107024 #2 피죽도 쑤엉 먹주.(피죽도 쑤어서 먹지.)

107024 @ 피죽도 쑤고 으.(피죽도 쑤고 으.)

107024 #2 죽 안 쑤는 거, 죽 못 쑤는 쏠사 어디서? 석상비쏠[243]도 놩 죽쒀도

242) ‘우잣’은 한 집안의 울타리 안쪽이다.

243) ‘석상비쏠’ ‘석상베쏠’은 ‘산듸 찹쏠’ 찰기가 있는 밭벼의 한 종류다.

뒈곡.(죽 안 쑤는 거, 죽 못 쑤는 쌀이야 어디 있니? '석상비쌀'도 넣어서 죽 쑤어도 되고.)

107024 @ 예 석상비쏠도예.(예 '석상비쌀'도요.)

107024 #2 응.(응.)

107024 @ 맞수다.(맞습니다.)

107024 #2 응 아무거스로도.(응 아무것으로도.)

107024 #1 맛이 맛이 틀리주.(맛이 맛이 다르지.)

107024 @ 예 석상비쏠예?(예 '석살비쌀'요?)

107024 #2 맛이 틀림뿐이주. 이제 죽 못 쑤는 쏠사 엇주게.(맛이 다름뿐이지. 이제 죽 못 쑤는 쌀이야 없지.)

107024 @ 맞수다. 보리죽도 잇지안우꽈?(맞습니다. 보리죽도 있지 않습니까?)

107024 #2 게 보리죽도 쒓주게. 보리죽도 쑤곡게.(그렇지 보리죽도 쒔지. 보리죽도 쑤고.)

107024 @ 보리죽도예? 응 보리죽(보리죽도요? 응 보리죽.)

107024 #2 밀ᄁᆞ루, 연날에 육지 어른덜은 밀ᄏᆞ루죽도 쒀근넹에 먹으난 밀ᄏᆞ룻떡이엔 ᄒᆞᆫ 건 일절 안 먹는 사름도 잇어나쑤다. 우리 밧디 일ᄒᆞ레 빌언 ᄒᆞ난에, 밀ᄏᆞ루 말 ᄀᆞ르난. "아이고 밀ᄀᆞ루 말은 ᄒᆞ지 마세요. 내 밀ᄀᆞ루 눼여 가지고." 허멍 징걸머리가 낫덴.(밀가루, 옛날에 육지 어른들은 밀가루죽도 쒀서 먹으니까 밀가루떡이라고 한 것은 일절 안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밭에 일하러 빌어서 하니까, 밀가루 말 하니까. "아이고 밀가루 말은 하지 마세요. 내 밀가루 물려가지고." 하면서 진절머리가 났다고.)

107024 @ 징걸머리예.(진절머리요.)

107024 #1 헤, 헷.(헤, 헷.)

107024 #2 야, 게난 무사 경 헨닌 ᄒᆞ난 밀ᄏᆞ루죽만 먹엇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니 하니까 밀가루죽만 먹었다고.)

107024 @ 예에, 아.(예에, 아.)

107024 #2 난 무시거 쏠에 죽 못 쑤는 건 어십주.(난 무엇 쌀에 죽 못 쑤는 것은 없입주.)

107024 @ 예.(예.)

107024 #2 엇어. 고기도 죽 못 쑤는 게 엇어. 뒈지고기 놩도 죽 쒀도 맛잇서렌 맛잇어.(없어. 고기도 죽 못 쑤는 것이 없어. 돼지고기 넣어도 죽 쒀도 맛있었다고 맛있어.)

107024 @ 아, 아.(아, 아.)

107024 #2 이 ㅇㅇ이 각신 뒈지고기 사다 놩 게고저고 죽만 쒕 먹넨 헴쑤께.(이 ㅇㅇ이 각시는 돼지고기 사다 놓아서 그러고저러고 죽만 쑤어서 먹는다고 하고 합니다.)

107025 @ 그 예 삼춘, 흰죽예?(그 예 삼촌, 흰죽요?)

107024 #2 응.(응.)
107025 @ 아깐 종류에 대해서 흰죽은?(아까는 종류에 대해서 흰죽은?)
107025 #2 게 곤쏠 죽허곡.(그럼 흰쌀 죽하고.)
107025 @ 곤쏠예.(흰쌀요.)
107024 #2 응.(응.)
107025 @ 곤쏠이엔 헌 거는 산듸를 곤쏠이엔.(흰쌀이라고 하는 거는 밭벼를 흰쌀이라고.)
107024 #2 응.(응.)
107025 @ 헌 거꽈?(한 겁니까?)
107025 #1 아니, 아니. 어, 어.(아니, 아니. 어, 어.)
107025 #2 산듸쏠이 곤쏠이주게.(밭벼쌀이 흰쌀이지.)
107025 @ 산듸쏠예.(밭벼쌀요.)
107025 #1 맞아.(맞아.)
107025 #2 어.(어.)
107025 #1 벼가 엇이난 이딘.(벼가 없으니까 여기는.)
107024 @ 예, 예.(예, 예.)
107025 #2 석상비쏠.('석상비쌀.')
107025 @ 예, 흰죽예?(예, 흰죽요.)
107024 #2 응.(응.)
107025 @ 석상비쏠예.('석상비쌀요.')
107024 #2 응.(응.)
107025 @ 피쏠예.(픱쌀요.)
107025 #2 피쏠.(픱쌀.)
107025 @ 피 피죽.(피 피죽.)
107024 #2 응 피죽 피쏠 놩.(응 피죽 픱쌀 넣어서.)
107025 @ 예, 피죽예 피쏠 놔기네예.(피죽요 픱쌀 넣어서요.)
107024 #2 응.(응.)
107025 @ 피죽ᄒᆞ고 흰죽은 영예?(피죽하고 흰죽은 이렇게요.)
107024 #2 응.(응.)
107025 @ 곤쏠.(흰쌀.)
107025 #2 곤쏠 죽.(흰쌀 죽.)
107025 @ 곤쏠 죽 그 다음.(흰쌀 죽 그 다음.)
107025 #2 찹쏠.(찹쌀.)
107025 @ 찹쌀 죽예, 촙쏠 죽.(찹쌀 죽요, 찹쌀 죽.)
107025 #2 응, 피죽.(응, 피죽.)
107024 @ 예.(예.)
107025 #2 석상비쏠 죽.('석상비쌀' 죽.)

107025 @ 석상비쏠 죽.('석상비쌀' 죽.)
107024 #2 응.(응.)
107025 @ 예. 흰죽은. 또 엇이키여. ᄆᆞ믈 죽은 흰쏠 흰 거가 아니난예?(흰죽은 없겠다. 또 메밀죽은 흰쌀 흰 것이 아니니까요?)
107025 #2 ᄆᆞ믈쏠 죽은 몰라.(메밀쌀 죽은 몰라.)
107025 @ 어 따로.(어 따로.)
107025 #2 흰죽으로 뒈는 가?(흰죽으로 되는 가?)
107025 @ 아아, 따로 잇인게마씨.(아아, 따로 있네요.)
107025 #2 응.(응.)
107026 @ 아 삼춘 죽 종류예에. 죽 종류에 좁쏠죽 잇지안우꽈?(아 삼촌 죽 종류에 죽 종류에 좁쌀죽 있지 않습니까?)
107026 #2 좁쏠 죽도 잇주게.(좁쌀 죽도 있지.)
107026 @ 좁쏠 죽예?(좁쌀 죽요?)
107026 #2 응 좁쏠 죽도 쒕 먹으난게.(응 좁쌀 죽도 쒀서 먹으니까.)
107026 @ 좁쏠 죽예, 예.(좁쌀 죽요, 예.)
107026 #2 좁쏠 죽도 잇주게.(좁쌀 죽도 있지.)
107026 #1 좁쏠 죽도 맛잇어.(좁쌀 죽도 맛있어.)
107026 @ 예, 좁쏠로 헤가지고 좁쏠로예.(예, 좁쌀로 해가지고 좁쌀로요.)
107026 #1 아이고 응, 응.(아이고 응, 응.)
107026 #2 좁쏠로 좁쏠양.(좁쌀로 좁쌀요.)
107026 @ 예.(예.)
107026 #2 저 거시기, 아파근에.(저 거시기, 아파서.)
107026 @ 예, 예.(예, 예.)
107026 #2 이 어른덜 아파근엥이 물 멕일 때도 좁쏠 놔근넹이 죽 끌영.(이 어른들 아파서 물 먹일 때도 좁쌀 넣어서 죽 끓여서.)
107026 @ 예, 예.(예, 예.)
107026 #2 죽 끌영 그 물을 드려사 좋아.(죽 끓여서 그 물을 드려야 좋아.)
107026 @ 예, 예 맞수다. 으 좁쏠에.(예, 예 맞습니다. 으 좁쌀에.)
107026 #2 경 경 허는 거 좁쏠이.(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 좁쌀이.)
107026 @ 좁쏠이에.(좁쌀이요.)
107027 @ 몸에 경 좋덴예?(몸에 그렇게 좋다고요?)
107026 #2 응 몸에.(응 몸에.)
107027 @ 몸에 경 좋덴예?(몸에 그렇게 좋다고요?)
107026 #2 응 몸에 경 좋덴.(응 몸에 그렇게 좋다고.)
107027 @ 풋죽은 풋 숢아기네 그.(팥죽은 팥 삶아서 그.)
107027 #2 풋 놓고 쏠 놓고 헹 쑤는 거.(팥 넣고 쌀 넣고 해서 쑤는 거.)
107027 @ 예 풋 놓고 쏠 놓고 여기 동지에.(예 팥 넣고 쌀 넣고 여기 동지에.)

107027 #2 동지에도 쑤곡게. 그냥도 쒕 먹곡.(동지에도 쑤고. 그냥도 쒀서 먹고.)
107027 @ 그냥도 쒕 먹고.(그냥도 쒀서 먹고.)
107027 #2 영장 나민 허곡.(영장 나면 하고.)
107027 @ 영장칩[244]이예?(영장집이요?)
107027 #2 예, 그듸 강 쒕 먹고.(예, 거기 가서 쒀서 먹고.)
107027 @ 영장칩이 허곡 또 영장집이 말고는 또 풋죽 쑤는 디가 또 잇인가마씨?(영장집에 하고 또 영장집이 말고는 또 팥죽 쑤는 데가 또 있는가요?)
107027 #2 어서.(없어.)
107027 @ 엇어근에.(없어서.)
107027 #2 그자 이녁 쒕 먹구정 허민 쒕 먹는 거.(그저 이녁 쒀서 먹고자 하면 쒀서 먹는 거.)
107027 @ 예, 예.(예, 예.)
107028 @ 콩죽.(콩죽.)
107028 #2 콩죽도게 이녁 쒕 먹구정 ᄒᆞ민.(콩죽도 이녁 쒀서 먹고 싶어서 하면.)
107028 @ 콩.(콩.)
107028 #2 쒕 먹고게 쏠 놩 콩죽 쑤엉게.(쒀서 먹고 쌀 넣어서 콩죽 쑤어서.)
107028 @ 쏠 놩 콩죽예?(쌀 넣어서 콩죽요?)
107028 #2 응.(응.)
107028 @ 쏠 놔근예?(쌀 넣어서요?)
107028 #2 응.(응.)
107028 @ 쏠 놔근에 예.(쌀 넣어서 예.)
107028 #2 응.(응.)
107028 @ 쏠은 무슨 아무 쏠이나.(쌀은 무슨 아무 쌀이나.)
107028 #2 아니 곤쏠 놩 쒀사주.(아니 흰쌀 넣어서 쒀야지.)
107028 @ 곤쏠예.(흰쌀요.)
107028 #2 응.(응.)
107028 @ 응.(응.)
107029 @ 메밀 죽 ᄆᆞ믈 죽.(메밀 죽 메밀 죽.)
107029 #2 ᄆᆞ믈쏠 죽?(메밀쌀 죽?)
107029 @ 예. 아까 저 감기 걸렸을 때.(예. 아까 저 감기 걸렸을 때.)
107029 #2 응.(응.)
107029 @ 헌 거허고, ᄆᆞ믈 물 팔팔팔팔 궤아근에. 저기 ᄆᆞ믈.(한 것하고, 메밀 물 팔팔팔팔 끓여서. 저기 메밀.)
107029 #2 게메, ᄆᆞ믈쏠 놔근에 죽 쑤는 거.(그러니까, 메밀쌀 넣어서 죽 쑤는 거.)

244) '영장칩' '영장집'은 장사(葬事)지내는 집이다.

107029 @ 저기 ᄆᆞ믈쏠 확 놔근에 후르륵 헤가지고.(저기 메밀쌀 확 넣어서 후르륵 해가지고.)
107029 #2 응.(응.)
107029 @ 그거 죽 아니우꽈예?(그거 죽 아닙니까요?)
107029 #2 응, 그게 죽.(응, 그게 죽.)
107029 @ 그거는 또 저기 자꾸 먹어실 거 닮아예.(그거는 또 저기 자꾸 먹었을 거 같아요.)
107029 #1 아이구.(아이고.)
107029 @ 쏠이 잇어시민예?(쌀이 있었으면요?)
107029 #1 저녁 저녁 헐 떼도 지나불고.(저녁 저녁 할 때도 지나버리고.)
107029 #2 죽 ᄆᆞ믈 죽은게 추운 떼.(죽 메밀 죽은 추울 때.)
107029 @ 예, 예.(예, 예.)
107029 #2 ᄒᆞ쏠 영 죽 헤근에 헹 먹으민.(조금 이렇게 죽 해서 해서 먹으면.)
107029 @ 예 추운 떼예.(예 추운 때요.)
107029 #2 뚯뚯허게시리 좋주게.(따뜻하게끔 좋지.)
107029 @ 예, 예, 예.(예, 예, 예.)
107029 #1 이거.(이거.)
107030 @ 녹두죽?(녹두죽?)
107030 #2 녹디죽도게 경.(녹두죽도 그렇게.)
107030 @ 녹디죽예.(녹두죽요.)
107030 #2 응.(응.)
107030 @ 녹디죽은, 어느 제 많이 먹어.(녹두죽은 어느 때 많이 먹어.)
107030 #2 녹디죽은(녹두죽은.)
107030 @ 저기 여름에 많이 먹어신가마씨?(저기 여름에 많이 먹었는가요?)
107030 #2 저 저기 칠팔월에.(저 저기 칠팔월에.)
107029 #1 아이구.(아이고.)
107030 #2 팔월 달 뒈민 잘 먹을 거라.(팔월 달 되면 잘 먹을 거야.)
107030 @ 칠팔월 달예?(칠팔월 달요?)
107030 #2 응.(응.)
107030 #1 영, 놔두민, 헤, 헤, 헤, 헷.(응 이렇게, 놔두면 헤, 헤, 헤, 헷.)
107030 @ 흰쏠로 ᄒᆞ고.(흰쌀로 하고.)
107030 #2 응?(응?)
107030 @ 흰쏠.(흰쌀.)
107030 #2 흰쏠 놩 죽 쑤주.(흰쌀 넣어서 죽 쑤지.)
107030 @ 흰쏠 놩예.(흰쌀 넣어서요.)
107030 #1 나가.(내가.)
107030 #2 응.(응.)

107030 #1 저기 저.(저기 저.)
107030 @ 저기.(저기.)
107030 #1 그 서귀포 지역에.(그 서귀포 지역에.)
107030 @ 둑, 둑.(닭, 닭.)
107030 #1 부지회장꺼지 맡안 잇주.(부지회장까지 맡아서 있지.)
107030 @ 아, 기꽈?(아, 그렇습니까?)
107030 #1 응.(응.)
107030 @ 저기 둑 놔근에도.(저기 닭 넣어서도.)
107030 #2 응. 둑 놔근엥에 녹디 놩도 쒕 먹곡.(응. 닭 넣어서 녹두 넣어도 쒀서 먹고.)
107030 @ 둑 놔근에도예.(닭 넣어서도요.)
107030 #2 응.(응.)
107030 @ 둑죽 쒕.(닭죽 쒀서.)
107030 #2 솖아으네.(삶아서.)
107030 @ 솖아으네예.(삶아서요.)
107030 #2 응.(응.)
107030 @ 녹디만은 귀헌 거난에 녹디만 허기는예.(녹두만은 귀한 거니까 녹두만 하기는요.)
107030 #2 응.(응.)
107030 @ 그러잖아예. 예.(그렇잖아요. 예.)
107030 #2 응.(응.)
107031 @ 둑죽은 아까 이거.(닭죽은 아까 이거.)
107030 #2 ᄋᆞ.(ᄋᆞ.)
107031 @ 둑죽. 둑죽은 그냥 흰쏠.(닭죽. 닭죽은 그냥 흰쌀.)
107031 #2 흰쏠로 놓고 녹듸 놓고 형.(흰쌀로 넣고 녹두 넣고 해서.)
107031 @ 흰쏠 허고.(흰쌀로 하고.)
107031 #2 녹디 놓고.(녹두 넣고.)
107031 @ 녹디 놓고예.(녹두 넣고요.)
107031 #2 응.(응.)
107031 @ 녹디 놓고 둑죽ᄒᆞ곡. 쫌 헤가민 옛날에는 저기 인삼도 놔근에 닭죽도 허곡예? 인삼.(녹두 넣고 닭죽하고. 좀 해가면 옛날에는 저기 인삼도 넣어서 닭죽도 하고요?)
107031 #2 인삼 놩도 허주게.(인삼 넣어도 하지.)
107031 @ 인삼 놩도 허고예.(인삼 넣어서도 하고요.)
107031 #2 예.(예.)
107031 @ 그 옛날에 대추도 놔근에.(그 옛날에 대추도 놔서.)
107031 #2 데추도 놩 허곡.(대추도 넣어서 하고.)

107031 @ 인삼 데추.(인삼 대추.)
107031 #2 응, 응.(응, 응.)
107031 @ 약으로예?(약으로요?)
107031 #2 응, 약으로.(응 약으로요.)
107031 @ 약으로 헤가지고.(약으로 해가지고.)
107032 @ 응 갱죽, 겡이죽예.(응 '갱죽,' '겡이죽'요.)
107032 #2 예.(예.)
107032 @ 겡이죽.('겡이죽.')
107032 #2 겡이죽도 약으로 먹어. 뻬아픈디 먹넨.('겡이죽'도 약으로 먹어. 뼈아픈데 먹는다고.)
107032 @ 기지예, 약으로 먹지예.(그렇지요, 약으로 먹지요.)
107032 #2 응, 뻬아픈디 먹넨.(뼈아픈데 먹는다고.)
107032 #1 칼슘이 워낙 좋은, 한 거난에.(칼슘이 워낙 좋은, 많은 거니까.)
107032 @ 예, 예, 게난 이거는 이 겡이는 아무 때나 나는 겡이가.(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게는 아무 때나 나는 게가.)
107032 #1 어.(어.)
107032 @ 아니렌 허멍예?(아니라고 하면서요?)
107032 #2 겡이가 낫긴 낫는디.(게가 낫기는 낫는데.)
107032 @ 예.(예.)
107032 #2 이 저 거시기에는 ᄒᆞ쏠 줄어.(이 저 거시기에는 조금 줄어.)
107032 @ 아. 유월엔.(아. 유월에는?)
107032 #2 줄엉 맛이 업써.(줄어서 맛이 없어.)
107032 @ 아.(아.)
107032 #2 경 ᄒᆞ난. 오월 ᄃᆞᆯ로부터 시작행 유월 ᄃᆞᆯ꼬지 막 솔청.(그렇게 하니까. 오월 달로부터 시작해서 유월 달까지 아주 살쪄서.)
107032 @ 아 살저근에예.(아 살쪄서요.)
107032 #2 응, 경 ᄒᆞ난 백중[245] 넘으민 겡이가 막 원 싹 쭐어비러.(응, 그렇게 하니까 백중 넘으면 게가 아주 전혀 싹 줄어버려.)
107032 @ 아.(아.)
107032 #2 다른 것도.(다른 것도.)
107032 @ 이거는 쫙.(이거는 쫙.)
107032 #2 백중 넘으민 쭌덴 허주만은.(백중 넘으면 준다고 하지만은.)
107032 @ 아 쭐어예.(아 줄어요.)
107032 #2 겡이가 막 줄어부러.(게가 아주 줄어버려.)
107032 @ 아 게난 오월 유월에.(아 그러니까 오월 유월에.)

245) '백중'은 음력 칠월 보름 제주도에서는 백중에 민속행사를 한다. 백중 물맞이, 민간신앙으로 당(堂)제와 말 목동을 위한 '테우리ᄀᆞ사' 등 백중제를 지낸다.

107032 #2 응, 응.(응, 응.)
107032 @ 그 장마쯤에 헤가지고.(그 장마쯤에 해가지고.)
107032 #2 게난 유월ᄁᆞ지가.(그러니까 유월까지가.)
107032 @ 응.(응.)
107032 #2 유월ᄁᆞ지가 제일.(유월까지가 제일.)
107032 @ 제일헤기네예. 맞수다예. 이것ᄀᆞ추룩 좋은 거가 업주마씨 게. 막 비싸, 저기 그 게에서예. 겡이에서 나오는 그 무슨 무슨 거엔 헤가지고 막 비싼 거. 일본에 수출허는 거 잇덴 허긴 허는디 이제 깜박 잊어부럿저. 건디 그것보다도 겡이죽이 최고주 뭐. 뺏아기네.(제일해서요. 맞습니다요. 이것처럼 좋은 거가 없지요 게. 아주 비싸, 저기 그 게에서요. 게에서 나오는 그 무슨 무슨 거라고 해가지고 아주 비싼 거. 일본에 수출하는 거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깜박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것보다도 '겡이죽'이 최고지 뭐. 빻아서.)
107032 #2 응, 응.(응, 응.)
107032 @ 그 궁물 쫙 놔기네예.(그 국물 싹 넣어서요.)
107032 #2 응.(응.)
107032 @ 이거는 진짜 최고 닮아. 이 이거 외에.(이거는 진짜 최고 같아. 이 이거 외에.)
107033 @ 아, 꿩죽하고.(아, 꿩죽하고.)
107033 #2 꿩죽도 잇주. 꿩도 놩 죽은 쑤주. 하, 하, 하, 하.(꿩죽도 잇지. 꿩도 넣어서 죽은 쑤지. 하, 하, 하, 하.)
107033 @ 꿩죽.(꿩죽.)
107033 #2 아이들은 꿩죽이 췌고엔 헤주.(아이들은 꿩죽이 최고라고 하지.)
107033 @ 꿩죽예.(꿩죽요.)
107033 #2 아이들은.(아이들은.)
107033 @ 아이들은예?(아이들은요?)
107033 #1 어린아이들은 꿩. 병아리 헤여근에.(어린아이들은 꿩. 병아리 해서.)
107033 @ 예.(예.)
107033 #1 걸 죽쒕 멕이면은 막 줄이벵[246] ᄒᆞ는 아이도.(그걸 죽 쒀서 먹이면 막 '줄이병' 하는 아이도.)
107033 @ 아, 꿩죽은 어떵 헙니까?(아, 꿩죽은 어떻게 합니까?)
107033 #1 음.(음.)
107033 #2 아 꿩죽도 쏠로 놔근에 기자.(아 꿩죽도 쌀로 넣어서 그저.)
107033 #1 ᄃᆞᆨ죽 쑤듯이.(닭죽 쑤듯이.)
107033 #2 ᄃᆞᆨ죽 쑤듯이.(닭죽 쑤듯이.)
107033 @ 닭죽 쑤듯이 쒕으네.(닭죽 쑤듯이 쒀서.)
107033 #2 응.(응.)

246) '줄이벵'은 줄어서 살이 빠져 야위어 가는 병이다.

107033 @ 이거 허당 보민 나중에 엿 뒈지 안읍니까?(이거 하다가 보면 나중에 엿 되지 않습니까?)
107033 #2 아니 저 엿도 허주게 엿도.(아니 저 엿도 하지 엿도.)
107033 @ 엿도 허긴 허주마는.(엿도 하기는 하지마는.)
107033 #2 응.(응.)
107033 @ 엿이 되거나 허진 안 허고예?(엿이 되거나 하지는 안하고요?)
107033 #2 아니 엿 뒈거나 허진 안 형 그자.(아니 엿 되거나 하지는 안하고 그저.)
107033 @ 응.(응.)
107033 #2 독죽 쑤듯이 쑤민.(닭죽 쑤듯이 쑤면.)
107033 @ 독죽?(닭죽?)
107033 #2 응 쑤듯이 쑤면은 맛좋아.(응 쑤듯이 쑤면 맛좋아.)
107033 @ 예.(예.)
107033 #2 경 헌디 애기들 멕이는 거는 꿩 그 존존헌 빙아리.(그런데 아기들 먹이는 거는 꿩 그 자잘한 병아리.)
107033 @ 예, 예, 예.(예, 예, 예.)
107033 #2 빙아리 헤근엥이. 춤지름에 볶앙.(병아리 해서. 참기름에 볶아서.)
107033 @ 예.(예.)
107033 #2 쏠 놩 죽 쒕. 경 안혀민 죽 못 먹게 뭰 아기는.(쌀 넣어서 죽 쒀서. 그렇게 안하면 죽 못 먹게 된 아기는.)
107033 @ 응.(응.)
107033 #2 이제 물.(이제 물.)
107033 @ 예.(예.)
107033 #2 딸영 물 멕영.(달여서 물 먹여서.)
107033 @ 아.(아.)
107033 #2 에기덜.(아기들.)
107033 @ 에기 에기 막 물에기는.(아기 아기 아주 젖먹이는.)
107033 #2 응.(응.)
107033 @ 물로예. 끌여서 물로 멕영예.(물로요. 끓여서 물로 먹여서요.)
107033 #2 예.(예.)
107033 @ 물 쫍찌라근에예?(물 짜내서요?)

범벅과 수제비

107034 @ 그다음 범벅허고예.(그다음 범벅하고요.)
107034 #2 응.(응.)
107034 @ 범벅.(범벅.)
107034 #2 범벅은게 ᄆᆞ믈ᄏᆞ루로 감저 놩 범벅허고.(범벅은 메밀가루로 고구마

넣어서 범벅하고.)
107034 @ ᄆᆞ믈.(메밀.)
107034 #2 ᄀᆞ루.(가루.)
107034 @ 감저예.(고구마요.)
107034 #2 응 ᄆᆞ믈ᄀᆞ루 헹.(응 메밀가루 해서.)
107034 @ ᄆᆞ믈ᄀᆞ루에.(메밀가루에.)
107034 #2 감저 놩 범벅허고.(고구마 넣어서 범벅하고.)
107034 @ 예, 예. 감저범벅허고 또.(예, 예. 고구마범벅하고 또.)
107034 #2 범벅?(범벅?)
107034 @ 예.(예.)
107034 #2 ᄃᆞ시로게, 감젓ᄁᆞ루.(다시로 고구마가루.)
107034 @ 감저ᄁᆞ루.(고구마가루.)
107034 #2 범벅도 허고.(로 범벅도 하고.)
107034 @ 감저ᄁᆞ루예?(고구마가루요.)
107034 #2 예.(예.)
107034 @ 아 범벅, 감저ᄁᆞ루 이건 뻿데기 헤근에 ᄀᆞ루 ᄀᆞᆯ아근에.(아 범벅, 범벅 고구마가루 이건 절간고구마 해서 가루 갈아서.)
107034 #2 응, ᄀᆞ루 ᄀᆞᆯ앙.(응, 가루 갈아서.)
107034 @ 헨 거 아니우꽈예.(한 거 아닙니까요.)
107034 #2 먹곡 ᄒᆞ고.(먹고 하고.)
107034 @ 응.(응.)
107034 #2 건 거 감저 뻿데기 헤근넹에 떡도 헹 먹곡게.(그건 거 고구마 절간고구마 해서 떡도 해서 먹고.)
107034 @ 뻿데기 떡예?(절간고구마 떡요?)
107034 #2 응, ᄀᆞ루 ᄀᆞᆯ앙.(응, 가루 갈아서.)
107034 @ 예. ᄀᆞ루 ᄀᆞᆯ앙 허곡예.(예. 가루 갈아서 하고요.)
107034 #2 응.(응.)
107034 @ 그 ᄆᆞ믈 ᄆᆞ믈 감저 수제비 범벅은 이거고 감젓ᄁᆞ루 범벅.(그 메밀수제비 범벅은 이거고 고구마가루 범벅.)
107034 #2 응.(응.)
107034 @ 또.(또.)
107035 #2 감저ᄁᆞ루로 저베기도 허주게.(고구마가루로 수제비도 하지.)
107035 @ 예 감저ᄁᆞ루는 저베기예?(예 고구마가루는 수제비요?)
107035 #2 응.(응.)
107035 @ 응, 응.(응, 응.)
107035 #2 저베기.(수제비.)
107035 @ 감저ᄁᆞ루. 감저 저베기예?(고구마가루. 고구마 수제비요?)

107035 #2 응, 감저ᄁᆞ루 저베기.(응, 고구마가루 수제비.)
107035 @ 예 저베 ᄌᆞ베기예?(예 수제 수제비요?)
107035 #2 응, 저베기.(응, 수제비.)
107035 @ 저베기.(수제비.)
107035 #2 응.(응.)
107035 @ 예 저베기 감저ᄁᆞ루 점벡 저베기, 제베기는 감저ᄁᆞ루로 허곡. 그냥 밀ᄀᆞ루론.(예 수제비 고구마가루 수제 수제비, 수제비는 고구마가루로 하고. 그냥 밀가루로는.)
107035 #2 아, 밀ᄁᆞ루는.(아, 밀가루도.)
107035 @ 기억엔.(기억에는.)
107035 #2 허주만은.(하지만.)
107035 @ 예.(예.)
107035 #2 저베기엔 ᄒᆞᆫ 건, 감저ᄁᆞ루 ᄆᆞᆯ아근에에.(수제비라고 한 건, 고구마가루 말아서.)
107035 @ 예, 예, 예.(예, 예, 예.)
107035 #2 달롸근에 손으로 영 영 좁앙.(다루어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107035 @ 아.(아.)
107035 #2 톡톡 들이친 거 저베기.(톡톡 들이뜨린 거 수제비.)
107035 @ 저베기이.(수제비.)
107035 #2 또 ᄆᆞ믈ᄀᆞ루나 저 밀ᄀᆞ루나.(또 메밀가루나 저 밀가루나.)
107035 @ 응.(응.)
107035 #2 ᄒᆞᆫ 건 숟까락으로 떠 놓으므로.(한 건 숟가락으로 떠 넣었으므로.)
107035 @ 아.(아.)
107035 #1 수제비.(수제비.)
107035 #2 건 수제비.(그것은 수제비.)
107035 @ 수제비.(수제비.)
107035 #1 헤, 헤, 헤 헷.(헤, 헤, 헤 헷.)
107035 @ 아, 수제비.(아, 수제비.)
107035 #2 응.(응.)
107035 @ ᄆᆞ믈ᄀᆞ루는예.(메밀가루는요.)
107035 #1 수제비.(수제비.)
107035 @ ᄀᆞ루는.(가루는.)
107035 #1 밀ᄀᆞ루도 수제비.(밀가루도 수제비.)
107035 @ 수제비.(수제비.)
107035 #1 감저ᄁᆞ루로 ᄒᆞᆫ 건 저베기.(고구마가루로 한 건 수제비.)
107035 @ 저베기 저베기 아.(수제비 수제비 아.)

107035 #2 경 ᄒᆞ난, 그것에 이제 좁쏠에 감저ᄁᆞ루저베기 헤 놩 헤도 맛좋아.(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이제 좁쌀에 고구마가루수제비 해 넣어서 해도 맛좋아.)
107035 @ 아, 좁쏠에예.(아, 좁쌀에요.)
107035 #2 응, 죽 쒀근에 ᄌᆞ베기 헤 놔도.(응, 죽 쒀서 수제비 해 넣어도.)
107035 @ 좁쏠에 감저ᄁᆞ루에예?(좁쌀에 고구마가루에요?)
107035 #2 저베기 혜영.(수제비 해서.)
107035 @ 아, 저베기.(아, 수제비.)
107035 #2 감저ᄁᆞ루저베기 놩.(고구마가루 수제비 넣어서.)
107035 @ 저베기.(수제비.)
107035 #2 죽 쒕.(죽 쒀서.)
107035 @ 저베기, 예. 여긴 구분이.(수제비, 예. 여긴 구분이.)
107036 @ 칼국수 칼국수.(칼국수 칼국수.)
107036 #2 칼국수게, ᄆᆞ믈ᄀᆞ루도 허곡. 밀ᄀᆞ루도 허곡.(칼국수, 메밀가루도 하고. 밀가루도 하고.)
107036 @ 예, 밀ᄀᆞ루예? 특히.(예, 밀가루요? 특히.)
107036 #2 응 ᄆᆞ믈ᄀᆞ루 밀ᄀᆞ루주게.(메밀가루 밀가루지.)
107036 @ 예, 예.(예, 예.)
107036 #2 무시거 다른 거.(무엇 다른 거.)
107036 @ 밀ᄀᆞ루예.(밀가루요.)
107036 #2 응.(응.)
107036 @ 예, ᄆᆞ믈ᄀᆞ루 저기 칼국수는 국제[247] 헤나수과?(예, 메밀가루 저기 칼국수는 '국제' 했었습니까?)
107036 #2 아니, 곶게 ᄒᆞ민.(아니, 곶게 하면)
107036 @ 국제 국제.(아니, '국제' '국제.')
107036 #2 곶게.(곶게.)
107036 @ 아니, 국제.(아니, '국제.')
107036 #2 국제.('국제.')
107036 @ 국제 멩질날 세벽에.('국제' 명절날 새벽에.)
107036 #2 아니 세벡에.((아니 새벽에.)
107036 @ 안 헤나수과?(안 했었습니까?)
107036 #2 안 헤난.(안 했었어.)
107036 @ 응, 응, 응.(응, 응, 응.)
107036 #2 그 세벽엔.(그 새벽에는.)
107036 #1 건 떡국.(그 건 떡국.)
107036 #2 그뗀 떡국 헤연.(그땐 떡국 했어.)
107036 @ 그뗀 떡국?(그땐 떡국?)

247) '국제' 국제(祭)는 설날 새벽에 메밀가루를 이겨 썬 메밀칼국수를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다.

107036 #2 응.(응.)
107036 @ 국제라고 따로 안 지내나수과?(국제라고 따로 안 지냈었습니까?)
107036 #2 응.(응.)
107036 @ ᄆᆞ믈 헤가지고.(메밀 해가지고.)
107036 #1 응?(응?)
107036 @ 칼국, 칼로 잡아근에.(칼국, 칼로 잡아서.)
107036 #2 그런 건 안 헤보고.(그런 건 안 해보고.)
107036 @ 그런 건 안 헤보고?(그런 건 안 해보고?)
107036 #2 응.(응.)
107036 #1 건 건 저 저기 떡국제[248]라고 헤서 미리.(저 저기 '떡국제'라고 해서 미리.)
107036 @ 세벽에 세벽에.(새벽에 새벽에.)
107036 #1 으.(으.)
107036 @ 세벽에.(새벽에.)
107036 #1 으 새벽이 것도 ᄒᆞ는디 잇고 안 허는디 잇어.(저 새벽에 것도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어.)
107036 @ 아 것도 떡국으로 헤기네 헷구나예.(아 그것도 떡국으로 해서 했군요.)
107036 #1 응 떡국ᄒᆞ곡.(응 떡국하고.)
107036 #2 거는 주로 허질 않고. 가문에 따라근에.(그거는 주로 하지를 않고. 가문에 따라서.)
107036 @ 예에.(예에.)
107036 #2 그 집안에 따랑 멩질제 지네기 전에 세벡이 떡국 헹 올려근에.(그 집안에 따라서 명절 제 지내기 전에 새벽에 떡국 해서 올려서.)
107036 #1 응.(응.)
107036 #2 그것 퇴공헤여 도근에 멩질젤 지네영.(그것 퇴공해 두어서 명절 제를 지내서.)
107036 @ 예, 예.(예, 예.)
107036 #2 경 헌디 그거 집안마다 허질 않고. 거.(그런데 그거 집안마다 하지를 않고. 거.)
107036 @ 허는 집이예?(하는 집이요?)
107036 #2 예.(예.)
107036 @ 예 허는 집이.(예 하는 집이.)
107036 #2 그 가문에 따라근엥에.(그 가문에 따라서.)
107036 @ 아, 그떼 칼로 칼국수 식으로 안 헤근넹에.(아, 그때 칼로 칼국수 식으로 안 해서.)

248) '떡국제' 국제(祭)는 설날 새벽에 메밀가루를 이겨 썬 메밀칼국수를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다.

107036 #2 안 헤근넹에.(안 해서.)
107036 @ 떡국으로 헷국나예?(떡국으로 했군요?)
107036 #2 떡국으로.(떡국으로.)
107036 @ 예, 예.(예, 예.)
107036 #1 게 떡국멩질이렌 허주게.(그럼 떡국명절이라고 하지.)
107036 @ 응.(응.)
107036 #1 떡국.(떡국.)
107036 @ 거문 칼국수는 이거는 메밀국수도 칼국수 아니우꽈?(그러면 칼국수는 이것은 메밀국수도 칼국수 아닙니까?)
107036 #2 어, ᄆᆞ믈.(어, 메밀.)
107036 @ ᄆᆞ믈도예?(메밀도요?)
107036 #2 응.(응.)
107036 #1 아, 칼로 썰면 칼국수주게.(아, 칼로 썰면 칼국수지.)
107036 #2 하, 하핫.(하, 하핫.)
107036 @ 예, 예. ᄆᆞ믈로예.(예, 예. 메밀로요.)
107036 #2 응 걸로.(응 걸로.)
107036 @ 칼국순.(칼국수는.)
107036 #2 게메 난. 칼로 써난 칼국수.(그러니까 난. 칼로 썰어서 칼국수.)
107036 @ 예, 예.(예, 예.)
107036 #1 하, 하핫.(하, 하핫.)
107036 #2 숟까락으로 떠나난 국수.(숟가락으로 떴었으니까 국수.)
107036 @ 예 수제비.(예 수제비.)
107036 #2 수제비.(수제비.)
107036 @ 예.(예.)
107036 #1 헤, 헤 헷.(헤, 헤 헷.)
107036 @ 겨곡 또 꿩.(그리고 또 꿩.)
107036 #2 꿩 죽.(꿩 죽.)
107036 @ 아 꿩 죽이 아니고 꿩 국수 아니.(꿩 죽이 아니고 꿩 국수 아니.)
107036 #2 아니 꿩.(아니 꿩.)
107036 @ 꿩 ᄆᆞ믈국수로구나?(꿩 메밀국수로구나?)
107036 #2 꿩 ᄆᆞ믈국수도 허곡.(꿩 메밀국수도 하고.)
107036 @ 꿩 ᄆᆞ믈국수.(꿩 메밀국수.)
107036 #2 응.(응.)
107036 @ 이것도 칼로 썰엉 허는 거난.(이것도 칼로 썰어서 하는 거니까.)
107036 #2 응, 칼로 써는 거라 ᄆᆞ밀국수.(응, 칼로 써는 거야 메밀국수.)
107036 #1 게 꿩 딸린 물에.(그럼 꿩 달인 물에.)
107036 #2 응.(응.)

107036 #1 국수헹 먹는.(국수해서 먹는.)
107036 @ 예. 국수 허는 거예.(예. 국수 하는 거요.)
107036 #1 거난.(거니까.)
107036 @ 예, 예.(예, 예.)

김치

107037 @ 김치종류예?(김치종류요?)
107037 #2 김치?(김치?)
107037 @ 예, 무수허게 되면은?(예, 무하게 되면?)
107037 #2 아 저.(아 저.)
107037 @ 무수로는?(무로는?)
107037 #2 베추김치, 무수김치.(배추김치, 무김치.)
107037 @ 예.(예.)
107037 #1 무수체 김치.(무채 김치.)
107037 @ 무수김치.(무김치.)
107037 #2 응.(응.)
107037 #1 동치미.(동치미.)
107037 @ 무수체 김치.(무채김치.)
107037 #2 응 이제.(응 이제.)
107037 @ 무수.(무.)
107037 #2 동치미김치.(동치미김치.)
107037 @ 아, 동치미 김치도 담가놧수꽈?(아, 동치미김치도 담갔었습니까?)
107037 #2 응, 돔가 낫주게. 거 엿날에 이디선.(응, 담갔었지. 거 옛날에 여기서는.)
107037 @ 예.(예.)
107037 #2 어떵 헤시니ᄒᆞ민. 촌물에 강으넹이.(어떻게 했느냐하면. 짠물에 가서.)
107037 @ 예.(예.)
107037 #2 매 무수 그 저, 엿날엔 요센 무수 아녀고 다깡[249]무수 하영 ᄒᆞ곡, 그 저 거시기 무수 단지 무수허난. 다깡 무수 갈앗다근넹에 네영 싯엉 ᄒᆞ쏠 벳디 놔두민 그게 ᄒᆞ쏠.(매 무 그 저, 옛날에는 요새 무 안하고 단무지 무 많이 하고, 그저 거시기 무 단무지 무하니까. 단무지 무 갈았다가 내어서 씻어서 조금 볕에 놔두면 그게 조금.)
107037 @ 소들롸?(시들어?)
107037 #2 시들어.(시들어.)
107037 @ 예 시들어.(예 시들어.)

249) '다깡' 일본식발음 다꾸앙으로 다꾸앙(takuan) 단무지(무로 담근 일본식 짠지)이다.

107037 #2 경 허민 바다에 강 거 싯엉. 이제 그 물 질엉 왕. 그 촌물에 이제 소곰 더 놔근에. 이제 그레 들이청 돌 딱 지둘뢍 놔두민. 이제 그거시.(시들어. 그렇게 하면 바다에 가서 거 씻어서. 이제 그 물 길어서 와서. 그 짠물에 이제 소금 더 넣어서. 이제 거기에 들이뜨려서 돌 딱 짓눌러서 넣어두면. 이제 그것이.)

107037 @ 응.(응.)

107037 #2 여름 나도 먹곡. 여름엔 갓을 ᄒᆞ쏠 쓰주.(여름 나도 먹고. 여름에는 골마지를 조금 쓰지.)

107037 @ 예, 예.(예, 예.)

107037 #2 게민 갓 영 ᄒᆞ게.(그러면 골마지 이렇게 하게.)

107037 @ 영 가져둰에.(이렇게 가져두고.)

107037 #2 엿날 사름덜게 무시거 영 국자로나 무시걸로.(옛날 사람들 무엇 이렇게 국자로나 무엇으로.)

107037 @ 예, 예.(예, 예.)

107037 #2 영 걷어두군에 그거 건저네영. 그 물 영 영 헤뒁. 걸어놩 싸라 놩. 세고롬ᄒᆞ게끔 ᄒᆞ영.(이렇게 걷어두어서 그거 건져내어서. 그 물 이렇게 이렇게 해두어서. 떠놓아서 썰어 놓아. 새콤하게끔 해서.)

107037 @ 맞수다 예.(맞습니다 예.)

107037 #2 세코롬ᄒᆞ게시리 헹 먹곡.(새콤하게끔 해서 먹고.)

107037 @ 아.(아.)

107037 #2 또 그 무수로 닷깡 그 물 디리는 거 잇어나서.(또 그 무로 단무지 그 물 들이는 거 있었어.)

107037 @ 예, 예.(예, 예.)

107037 #2 그 거난 산듸 엿날에 가난.(그 그러니까 밭벼 옛날에 가니까.)

107037 @ 어.(어.)

107037 #2 산듸, 봄이 싀에 놓곡. 그 물 들인 거 놓곡 헤영. 이제 단지에 헤영 딱 ᄒᆞ게시리 황에 헤영 담앙. 돌 지둘뢍 놧당. 그거 아이덜 학교 뎅길 때 그거 ᄒᆞ나 빠네영 씻엉. 싸랑 벤또 반찬허곡 헷주. 무시거 홀 게 잇어수과?(밭벼 봄이 사이에 넣고. 그 물 들인 거 놓고 해서. 이제 단지에 해서 딱 하게끔 독에 해서 담아서. 돌 짓눌러서 놓았다가. 그거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그거 하나 빼어내어서 씻어서. 썰어서 도시락 반찬하고 했지. 무엇 할 것이 있었습니까?)

107037 @ 아, 무수예. 예.(아, 무요. 예.)

107037 #2 응.(응.)

107037 @ 거문 그게 동치미고예?(그러면 그것이 동치미고요?)

107037 #2 으.(으.)

107037 @ 아, 그게 무수.(아, 그것이 무.)

107037 #2 무수.(무.)

107037 @ 무김치?(무김치?)

107037 #2 아니 그거시 그 촌물에 ᄃᆞᆼ간 ᄒᆞᆫ 것에 요센 말로 동치미주.(아니 그것이 그 짠물에 담가서 한 것에 요새 말로 동치미지.)
107037 @ 아, 촌물에 헤나니까.(아, 짠물에 했으니까.)
107037 #1 응.(응.)
107037 @ 동치미.(동치미.)
107037 #2 응.(응.)
107037 @ 아.(아.)
107037 #2 요센 말로 동치미.(응, 요사이 말로 동치미.)
107037 @ 예, 예.(예, 예.)
107037 #2 엿날엔 그 물김치로 헤여근에 헷주마는.(옛날엔 그 물김치로 해서 했지만.)
107037 @ 예, 그다음에 또 김치가 또 어떤 김치가 또 잇인고예?(예, 그다음에 또 김치가 또 어떤 김치가 또 있는가요?)
107037 #2 아이게 김치.(아이 김치.)
107037 @ 동치미.(동치미)
107037 #2 파김치도 싯고게.(파김치도 있고.)
107037 @ 파김치.(파김치.)
107037 #2 이제 갓짐치도 잇곡.(이제 갓김치도 있고.)
107037 @ 아, 갓김치도 잇어낫구나예?(아, 갓김치도 있었었군요?)
107037 #2 으, 갓김치도 잇곡게.(으, 갓김치도 있고.)
107037 @ 아 갓김치.(아 갓김치.)
107037 #2 이제 이젠 그 돌산갓[250] 이엔 헷주만은, 엿날엔 퍼렁헌 갓. 그저 퍼렁ᄒᆞ진 아녀고 저.(이제 이젠 그 '돌산갓' 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파랗게 한 갓. 그저 파랗진 안하고 저.)
107037 @ 까실락까실락 헌 거마씨?(까슬까슬 한 거요?)
107037 #2 아니, 그 저 보라섹.(아니, 그 저 보라색.)
107037 @ 예, 예. 보라색 예, 예.(예, 예. 보라색 예, 예.)
107037 #2 그거 그 갓김치 경 ᄒᆞ난.(그거 그 갓김치 그렇게 하니까.)
107037 @ 저 겟ᄂᆞ물이엔 ᄒᆞᆫ 것과?(저 갓나물이라고 한 것입니까?)
107037 #2 으 갓ᄂᆞ물은.(으 갓나물은.)
107037 @ 갓ᄂᆞ물?(갓나물?)
107037 #2 그자 ᄂᆞ물담께 파랑ᄒᆞ고.(그저 나물같이 파랑하고.)
107037 @ 예.(예.)
107037 #2 그.(그.)
107037 @ 예, 보라색 나는 거?(예, 보라색 나는 거?)
107037 #2 보라섹 ᄒᆞ는거시 갓. 엿날에 갓김치엔 헤영.(보라색 하는 것이 갓. 옛

250) '돌산갓'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마을의 갓나물을 돌산갓이라고 말한다.

날에 갓김치라고 해서.)
107037 @ 아.(아.)
107037 #2 게난 배추에도 그걸 싸라근엥에 양념ᄒᆞ는디 ᄀᆞ찌 영 버무렷당. 놓왕 ᄒᆞ민 것도 맛조코.(그러니까 배추에도 그걸 썰어서 양념하는데 함께 이렇게 버물렸다가. 넣어서 하면 그것도 맛좋고.)
107037 @ 맛좋고 색깔도 곱게 나오고예.(맛좋고 색깔도 곱게 나오고요.)
107037 #2 응, 경 헤낫주.(응, 그렇게 했었지.)
107037 @ 아, 갓김치.(아, 갓김치.)
107037 #2 경 ᄒᆞᆫ 거주.(그렇게 한 거지.)
107037 @ 또 또 김치 또 ᄀᆞᆯ아줍서.(또 또 김치 또 말해주십시오.)
107037 #2 거 벳기 무시거.(그거 밖에 무엇.)
107037 @ 아.(아.)
107037 #2 난 몰르큰게.(난 모르겠어.)
107038 @ 예 거는 이거 배추김치에.(예 그거는 이거 배추김치에.)
107038 #2 으.(으.)
107038 @ 배추김치는?(배추김치는?)
107038 #2 무수김치.(무김치.)
107038 @ 아니 배추김치는? 배추(아니 배추김치는? 배추)
107038 #2 배추게.(배추.)
107038 @ 배추헤서 지금 배추ᄒᆞ고는 틀리지 안읍니까? 옛날 배추는.(배추해서 지금 배추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 배추는.)
107038 #2 엿날 배추는 게메 쏙 아니 앚으난 퍼데기게.(옛날 배추는 그러니까 속 아니 앉으니까 '퍼데기.')
107038 @ 퍼데기예.('퍼데기요.')
107038 #2 예, 퍼데기 김치허영 소곰물에.(예, '퍼데기' 김치해서 소금물에.)
107038 #1 아 게난 김장김치 홀 떼 ᄒᆞᆫ 거는 김장김치고 그 나머지 그 저 이파리덜 ᄐᆞ다근에 ᄒᆞ는 거는 다 갓김치주 무신 그거 아니라.(아 그러니까 김장김치 할 때 한 거는 김장김치고 그 나머지 그 저 이파리들 뜯어서 하는 거는 다 갓김치지 무슨 그거 아니야.)
107038 #2 아니라. 배추 톧앙 헌 김치ᄒᆞ고 갓김치는 틀립니께게.(아니라. 배추 뜯어다 한 김치하고 갓김치는 다릅니다.)
107038 @ 으.(으.)
107038 #1 에이구, 거 다 경 헤도.(아이고, 거 다 그렇게 해도.)
107038 @ 배추 퍼데기 해서.(배추 '퍼데기' 해서.)
107038 #1 그거 다 갓김치로 먹언.(그거 다 갓김치로 먹었어.)
107038 @ 옛날 거는 지금ᄒᆞ고 틀려서 종자가 다르덴 헙디다.(옛날 거는 지금하고 달라서 종자가 다르다고 합디다.)

107038 #2 게메게.(그러니까.)
107038 @ 한국에 배추가.(한국에 배추가.)
107038 #2 예 게난.(예 그러니까.)
107038 @ 쏙 안 앚으는 거렌.(속 안 앉는 거라고.)
107038 #2 엿날엣 건 영 쏙을 탁 안 앚앙.(옛날에 건 이렇게 속을 탁 안 앉아서.)
107038 @ 예, 예, 예.(예, 예, 예.)
107038 #2 영 퍼데기추룩.(이렇게 '퍼데기'처럼.)
107038 @ 퍼데기추룩.('퍼데기'처럼.)
107038 #2 요세민 요새민 퍼데기.(요즘이면 요즘이면 '퍼데기.')
107038 @ 퍼데기주만은.('퍼데기'지만.)
107038 #2 예, 예, 경 흔디 엿날엔 그거를 헤영 이제.(예, 예, 그렇게 한데 옛날엔 그거를 해서 이제.)
107038 @ 어.(어.)
107038 #2 아랑아랑ᄒᆞ주게.(야들야들하지.)
107038 @ 예, 예, 예.(예, 예, 예.)
107038 #2 경 ᄒᆞ민 호미로 케여근엥이 다. 그듸 다 시처근에 또 소곰물에 둥갓당. 그거 또 시청 이제 멜첮 노코.(그렇게 하면 낫으로 캐어서 다. 그데 다 씻어서 또 소금물에 담았다가. 그거 또 씻어서 이제 멸치젓 넣고.)
107038 @ 아까 멜젓 노코예.(아까 멸치젓 넣고요.)
107038 #2 예, 멜젓노코게.(예, 멸치젓 넣고.)
107038 @ 고추.(고추.)
107038 #2 저 고치 놓곡 헹 솖아근에.(저 고추 넣고 해서 삶아서.)
107038 @ 솖아근에 예.(삶아서 예.)
107038 #2 건정 그레 물 놓민은 ᄂᆞ물 저 거시기 콥데산이 ᄲᆞ아 놓민 그게.(건져서 거기 물 넣으면 나물 저 거시기 마늘 빻아 넣으면 그게.)
107038 @ 예 데산이 놔서예.(예 마늘 넣어서요.)
107038 #2 예, 그거 ᄲᆞ아.(예, 그거 빻아.)
107038 @ 그떼 생강은 안 놧지 안우꽈?(그때 생강은 안 넣었지 않습니까?)
107038 #2 생강이 어딧수꽈게?(생강이 어디 있습니까?)
107038 @ 예 생강은 안 놓곡.(예 생강은 안 넣고.)
107038 #2 그떼 생강이 엇주게.(그때 생강이 없지.)
107038 @ 예, 맞수다. 그게 저 배추김치라예.(예, 맞습니다. 그게 저 배추김치야.)
107038 #2 예.(예.)
107038 @ 예, 예, 예.(예, 예, 예.)
107038 #2 그게 베추김치.(그게 배추김치.)

107038 @ 이 그떼 배추가 그냥 배추엔 헷수과?(이 그때 배추가 그냥 배추라고 했습니까?)
107038 #2 응?(응?)
107038 @ 그떼 배추는?(그때 배추는?)
107038 #2 그떼도 배추.(그 때도 배추.)
107038 @ 배추예?(배추요?)
107038 #2 응, 배추.(응, 배추.)
107038 @ 이게 한국이 배추엔 허는 거 닮습디다게.(이게 한국의 배추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107038 #2 예.(예.)
107039 @ 열무김치?(열무김치?)
107039 #2 열무?(열무?)
107039 @ 열무야 어.(열무야 어.)
107039 #2 열무.(열무.)
107039 @ 여름에 나는 무.(여름에 나는 무.)
107039 #2 열무는 그자 영 즞으게 갈앗당 속아당.(열무는 그저 이렇게 잦게 갈았다가 솎아다가.)
107039 @ 예.(예.)
107039 #2 속아당 경 ᄒᆞ영 베추김치 ᄒᆞᆫ 게 열무김치ᄒᆞ고. 요즘은 또 그저 알타리무우엔 ᄒᆞ느냐 그거 무시거.(솎아다가 그렇게 해서 배추김치 한 것이 열무김치하고. 요즘은 또 그저 총각무라고 하느냐 그거 무엇.)
107039 @ 예.(예.)
107039 #2 그거 헤여근에 그 열무김치엔 ᄒᆞ곡 경 헴주.(그거 해서 그 열무김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107039 @ 으 옛날엔 그냥 속아당예.(으 옛날엔 그냥 솎아다가요.)
107039 #2 예.(예.)
107039 @ 무수 영 나민예?(무 이렇게 나면요?)
107039 #2 무수 즞으게 갈앗당.(무 잦게 갈았다가.)
107039 @ 예.(예.)
107039 #2 속아근엥이 김치 헨 거 열무김치엔 헹 헷주마는.(솎아서 김치 헨 거 열무김치라고 해서 했지마는.)
107039 @ 응.(응.)
107039 #2 요제는 저 그 무신 김치가 열무김치?(요새는 그저 무슨 김치가 열무김치?)
107039 @ 총각김칠 열무김치엔예.(총각김치가 열무김치라고요.)
107039 #2 응 총각김치 열무김치 경 헹 허주.(응 총각김치 열무김치 그렇게 해서 하지.)

107039 @ 열무김치는 그 때는 저기 멜젓을 하영 놧지예?(열무김치는 그 때는 저기 멸치젓을 많이 넣었지요?)

107039 #2 멜젓을 하영 헷주게. 무시거 다른 게 잇어?(멸치젓을 많이 했지. 무엇 다른 것이 있어?)

107039 @ 멜젓 많이 놓곡.(멸치젓 많이 넣고.)

107039 #2 예.(예.)

107039 @ 파나 ᄒᆞ끔.(파나 조금.)

107039 #2 응.(응.)

107039 @ ᄀᆞ찌.(함께.)

107039 #2 아이고, 파도 몰르쿠다마는. 난 파 경 하영 놓멍 ᄒᆞ지 못 헤영.(아이고, 파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난 파 그렇게 많이 넣으면서 하지 못 해서.)

107039 @ 그냥.(그냥.)

107039 #2 그자 마 데산이 ᄲᆞ아 놓고 멜첫 놓고.(그저 마늘 빻아 넣고 멸치젓 넣고.)

107039 @ 데산이예?(마늘요?)

107039 #2 응 그거 멜첫 놓곡 경 헹.(응 그것 멸치젓 넣고 그렇게 해서.)

107039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39 #2 예.(예.)

107040 @ 물김치?(물김치?)

107040 #2 물김친게 그 무수 싸랑. 거 나풀나풀[251] 싸랑 게. 엿날에 소곰 ᄒᆞ당. 저 당원[252]인가.(물김친 그 무 썰어서. 거 나풀나풀 썰어서. 옛날에 소금 하다가. 저 감미료인가.)

107040 @ 예, 예.(예, 예.)

107040 #2 무슨 거 나난 그거 ᄒᆞ꼼썩 놓멍.(무슨 거 나니까 그거 조금씩 넣으면서.)

107040 @ 어.(어.)

107040 #2 경 헤네.(그렇게 해서.)

107040 @ 경 헤네?(그렇게 해서?)

107040 #2 예.(예.)

107040 @ 헨 허고예.(해서 하고요.)

107040 #2 헤연 헤 뎅기단 이젠, 그런 거 이젠 먹지 말렌 헴젠 허멍.(해서 해 다니다가 이젠, 그런 거 이젠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서.)

107040 @ 예.(예.)

107040 #2 이젠 안 먹음 시작ᄒᆞ난.(이젠 안 먹음 시작하니까.)

107040 @ 아.(아.)

---

251) '나풀나풀' 나풀은 얇은 물체가 바람에 날리어 가볍게 자꾸 움직이다. 그처럼 무를 얇게 써는 것이다.

252) '당원' 단맛을 내는 데 쓰는 재료를 통틀어 이르는 감미료를 이르는 말이다.

107040 #2 하, 하하, 핫.(하, 하하, 핫.)
107040 #2 허, 허, 허, 헛.(허, 허, 허, 헛.)
107040 @ 예 물김치예. 게난 물김치도 저기 시원허게 먹젠 허민. 무수가 들어가난에예.(예 물김치요. 그러니까 물김치도 저기 시원하게 먹으려고 하면. 무가 들어가니까요.)
107040 #2 예.(예.)
107040 @ 그추룩 헤기네에.(그렇게 해서요.)
107040 #2 예, 경 헨 그 소곰물 끌영. 그거 헹 놔두민.(예, 그렇게 해서 소금물 끓여서. 그거 해서 놔두면.)
107040 @ 아.(아.)
107040 #2 저 ᄒᆞ쏠 놔두민 세코롬ᄒᆞ게.(저 조금 놔두면 새콤하게.)
107040 @ 예, 예, 예.(예, 예, 예.)
107040 #2 둡네다게.(답니다.)
107040 @ 예, 무수가 다니깐예.(예, 무가 달아서요.)
107040 #2 예, 경 형.(예, 그렇게 해서.)
107040 @ 소금물 끌여근넹에 놔뒀다가.(소금물 끓여서 놔뒀다가.)
107040 #2 응.(응.)
107040 #1 건 식촌 안 놓는 거라?(건 식초는 안 넣는 거야?)
107040 @ 물 건건허게 놩.(물 건건하게 넣어서.)
107040 #2 예?(예?)
107040 #1 식초도 놓주게.(식초도 넣지.)
107040 @ 식초?(식초?)
107040 #2 아니 식초 안 놩양.(아니 식초 안 넣어서요.)
107040 @ 그냥?(그냥?)
107040 #2 그 엿날엔 요즘은 헐 때 밀가루를 쪼끔 풀엉으넹에 허민 물이 쫌 어둑을 거주게.(그 옛날엔 요즘은 할 때 밀가루를 조금 풀어서 하면 물이 좀 어두울 거지.)
107040 @ 예.(예.)
107040 #2 경 허민, 그 물을 이제 식켜 이제 배춘 또 아니 무순 나풀나풀ᄒᆞ게 싸라.(그렇게 하면, 그 물을 이제 식혀 이제 배추는 또 아니 무는 나풀나풀하게 썰어.)
107040 @ 예.(예.)
107040 #2 경 ᄒᆞ민 소곰 안형 그 소곰물 끓인 거 식으민. 그자 부엉 놔뒁.(그렇게 하면 소금 안 해서 그 소금물 끓인 거 식으면. 그자 부어서 놔둬서.)
107040 @ 부어근에.(부어서.)
107040 #2 ᄒᆞᆫ 멧틀 이시민 뱃그띠 놔두민 세코롬ᄒᆞᆫ 게.(한 며칠 있으면 밖에 놔두면 새콤한 것이.)

107040 @ 세코롬흔 게.(새콤한 것이.)
107040 #2 맛잇어.(맛있어.)
107040 @ 궁물 잇고.(국물 있고.)
107040 #2 응 궁물도 먹곡.(응 국물도 먹고.)
107040 @ 예, 예.(예, 예.)
107040 #2 무우도 먹곡.(무도 먹고.)
107040 @ 으.(으.)
107040 #2 경 헹 물김치.(그렇게 해서 물김치.)
107040 @ 예.(예.)
107041 @ 동지김치?(장다리김치?)
107041 #2 동지김치는게. 그 통 차 헤놔근넹에 허는 게ᄀᆞ라 동지김치엔 ᄒᆞ는 게주.(장다리김치는. 그 통 채 해 넣어서 하는 것보고 장다리김치지. 하는 거지.)
107041 @ 동 차하면 동 올라온 거예?(장다리면 동 올라온 거요.)
107041 #2 예 그거는.(예 그것은.)
107041 @ 봄동 올라온 거?(봄동 올라온 거?)
107041 #2 예, 동김치.그거.(예, '동김치' 그거.)
107041 @ 동김치예.(동치미요.)
107041 #2 예.(예.)
107041 @ 동김치는 이거는 겨울에?('동김치'는 이것은 겨울에?)
107041 #2 아니게 봄.(아니 봄.)
107041 @ 봄 봄에예.(봄 봄에요.)
107041 #2 봄에.(봄에.)
107041 @ 봄이, 봄이 헐 때 여기는 또 젓갈 허곡.(봄에, 봄에 할 때 여기는 또 젓갈 하고.)
107041 #2 고칫ᄀᆞ루 놩게.(고춧가루 넣어서.)
107041 @ 젓갈허곡.(젓갈하고.)
107041 #2 마농 삐저 놓고.(마늘 빻아 넣고.)
107041 @ 예 젓갈ᄒᆞ고.(예 젓갈하고.)
107041 #2 응.(응.)
107041 @ 고춧ᄀᆞ루 허고. 이거는 상당히 맛 좋은 거 아니우꽈?(고춧가루 하고. 이거는 상당히 맛 좋은 거 아닙니까?)
107041 #2 응.(응.)
107041 @ 익으면은예?(익으면요?)
107041 #2 잘도 맛 좋주게.(잘도 맛 좋지.)
107041 @ 이건 나중에 이거 지정 먹기도 허고예?(이건 나중에 지저서 먹기도 하고요?)
107041 #2 응.(응.)

107041 @ 으 동김치가 그거고.(으 '동김치'가 그거고.)
107042 @ 무김치?(무김치?)
107042 #2 물?(물?)
107042 @ 무 무.(무 무.)
107042 #2 무김치?(무김치?)
107042 @ 무김치가 아까.(무김치가 아까.)
107042 #2 응.(응.)
107042 @ 무수김치? 예.(무김치? 예.)
107042 #2 응, 물김치 그거고.(응, 물김치 그거고.)
107042 @ 아니, 무 무 무수.(아니, 무 무 무.)
107042 #2 무수 으.(무 으.)
107042 @ 예.(예.)
107042 #2 게메 무수게 그.(그러니까 무 그.)
107042 @ 예 무수채김치 ᄒᆞ고?(예 무채김치하고?)
107042 #2 응.(응.)
107042 @ 어, 무수채 김치예?(어, 무채 김치요?)
107042 #2 예 무수.(예 무.)
107042 @ 채김치는 거 금방 행 먹는 거. 채김치엔 ᄒᆞ고.(채김치는 거 금방 해서 먹는 거. 채김치라고 하고.)
107042 #2 응.(응.)
107042 @ 무수 저기 썰어근에.(무 저기 썰어서.)
107042 #2 무수 크게 싸라근넹에 헌 건 무수김치.(무 크게 썰어서 한 건 무김치.)
107042 @ 크게 헌 건.(크게 한 건.)
107042 #1 동치미주. 동치미.(동치미지. 동치미.)
107042 #2 응 동치미, 아이 그건 동치민 물 허영 ᄒᆞ는 게. 동치미고.(응 동치미, 아이 그건 동치민 물 해서 하는 것이. 동치미고.)
107042 @ 아.(아.)
107042 #1 아이 저.(아이 저.)
107042 @ 그 거 동치미.(그 것 동치미.)
107042 #1 깍뚜기 깍뚜기.(깍두기 깍두기.)
107042 @ 예.(예.)
107042 #2 깍두기 김치.(깍두기 김치.)
107042 @ 예 깍뚜기도 ᄒᆞ고 그거 무수가 이게 동 동김치도 되큰게예.(예 깍두기도 하고 그거 무수가 이게 동 '동김치'도 되겠네요.)
107042 #2 예, 예.(예, 예.)
107042 @ 동치미도 뒈큰게예?(동치미도 되겠네요?)

107042 #1 응.(응.)
107042 #2 예.(예.)
107042 @ 아까 그거예?(아까 그거요?)
107042 #2 예, 예.(예, 예.)
107042 @ 그거 저기 긴 무수 놔근에. 그 긴무수?(그거 저기 긴 무 넣어서. 그 긴무?)
107042 #2 으 으.(으 으.)
107042 @ 단 단.(단 단.)
107042 #2 으, 저 닷꽝 무수 헨 거.(으, 저 단무지 무 한 거.)
107042 #1 단무지.(단무지.)
107042 #2 그것이 동치미 데신이엔 요 지금 말로 동치미엔 말이우다.(그것이 동치미 대신이라고 요 지금 말로 동치미라는 말입니다.)
107042 @ 예, 닷광 무수예?(예, 단무지 무요?)
107042 #2 으.(으.)
107042 @ 예.(예.)
107042 #2 그거 헹 ᄒᆞ쏠 시둘롯당.(그거 해서 조금 시들였다가.)
107042 @ 예 시둘롯당.(예 시들였다가.)
107042 #2 소곰물에.(소금물에.)
107042 @ 예 소금물에.(예 소금물에.)
107042 #2 컹 헌 거.(잠가서 한 거.)
107042 @ 예.(예.)
107042 #2 아 요세 동치미 ᄒᆞ는 거 다 소곰물에 허는 거주 무신.(아 요새 동치미하는 거 다 소금물에 하는 거지 무슨.)
107042 @ 예, 예.(예, 예.)
107043 @ 파김치?(파김치?)
107043 #2 파김치는 또게 젓갈 놩 헙니다.(파김치는 또 젓갈 넣어서 합니다.)
107043 @ 젓갈 놔기네?(젓갈 넣어서?)
107043 #2 젓갈ᄒᆞ곡 설탕. 설탕이나 물엿이나.(젓갈하고 설탕. 설탕이나 물엿이나.)
107043 @ 옛날에? 아 옛날에는.(옛날에? 아 옛날에는.)
107043 #2 엿날에는 그자 헷주게.(옛날에는 그저 했지.)
107043 @ 그자.(그저.)
107043 #2 저 젓갈에만.(저 젓갈에만.)
107043 @ 젓갈에만예?(젓갈에만요?)
107043 #2 응.(응.)
107043 @ 젓갈에만.(젓갈에만.)
107043 #2 고치 놓곡 젓갈에만.(고추 넣고 젓갈에만.)

107043 @ 고치 놓고예?(고추 넣고요?)
107043 #2 예.(예.)
107043 #1 아 젓갈에 몸만 죽으민 김치난에.(아 젓갈에 몸만 죽으면 김치니까.)
107043 #2 으.(으.)
107043 @ 예, 예.(예, 예.)
107043 #2 하, 하하, 핫.(하, 하하, 핫.)
107043 #1 헤, 헤, 헤, 헷.(헤, 헤, 헤, 헷.)
107043 #2 아니, 겨고 판 게. 그자 젓갈에 이제도 허는 거난에.(아니, 그러고 파는 게. 그저 젓갈에 이제도 하는 거니까.)
107043 @ 예, 예.(예, 예.)
107044 @ 달래? 달렌 꿩마농?(달래? 달래는 달래?)
107044 #2 꿩마농.(달래.)
107044 @ 꿩마농예?(달래요?)
107044 #2 응.(응.)
107044 @ 꿩마농 김친 어떵 헙니까?(달래 김치는 어떻게 합니까?)
107044 #2 꿩마농김치도 마치 한 가지우다. 그거 우린 저 근장에 헹 먹어수다마는.(달래김치도 마치 한 가지입니다. 그거 우린 저 간장에 해서 먹었습니다마는.)
107044 @ 아, 간장에예.(아, 간장에요.)
107044 #2 응.(응.)
107044 @ 간장에 저기.(간장에 저기.)
107044 #2 그거 쏨쏨 싸라근넹에.(그거 송송 썰어서.)
107044 @ 아, 썰어근에예.(아, 썰어서요.)
107044 #2 싸라근엥에 근장 놔근에 영.(썰어서 간장 넣어서 이렇게.)
107044 @ 저 듬갓다근에?(저 담갔다가.)
107044 #2 싹 ᄒᆞ게시리 버무령 놔두민게.(싹 하게끔 버물려서 넣어두면.)
107044 @ 아 버무령.(아 버무려서.)
107044 #2 몸도 죽곡 그자 헹 먹어.(몸도 죽고 그저 해서 먹어.)
107044 @ 게문 여기에 고춧ᄀᆞ루 안 놓곡?(그럼 여기에 고춧가루 안 넣고?)
107044 #2 고춧ᄀᆞ루도 놔사주게.(고춧가루도 넣어야지.)
107044 @ 어 고춧ᄀᆞ루 놓고예?(어 고춧가루 넣고요?)
107044 #2 예.(예.)
107044 @ 아.(아.)
107044 #2 게난 생강 ᄀᆞ뜬 거 무신.(그러니까 생강 같은 거 무슨.)
107044 @ 그런 거 안 놓고.(그런 거 안 놓고.)
107044 #2 마농 마농짐치난.(달래 달래김치니까.)
107044 @ 예, 예.(예, 예.)
107044 #2 마농은 안 놓난.(마늘은 안 넣으니까.)

107044 @ 예, 마농김치 이 마농김치는 꿩마농김치는 이것도 저기 새코롬ᄒᆞ게 잘.(예, 달래김치 이 달래김치는 달래김치는 이것도 저기 새콤하게 잘.)

107044 #2 거양 ᄉᆡ고롬ᄒᆞ게는 ᄒᆞ젱 ᄒᆞ민.(거요 시금하게는 하려고 하면.)

107044 @ 어.(어.)

107044 #2 엿날엔 저 케영 하영 케당. 케다근에 판찍 싯엉 영 ᄌᆞ지 멘들앙.(옛날엔 저 캐서 많이 캐어다가. 캐어서 '판찍' 씻어서 이렇게 모춤 만들어서.)

107044 @ 예, 예.(예, 예.)

107044 #2 경 혀근에.(그렇게 해서.)

107044 @ 둥글허게 감아근엥에예.(예, 예 둥글게 감아서요.)

107044 #2 예 영 멘들아근에 이제.(예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107044 @ ᄒᆞ곡.(하고.)

107044 #2 소곰 허끄멍 그거 ᄌᆞ근ᄌᆞ근ᄒᆞ게 항아리에 놩. 돌 딱 지둘롸근넹에 놔두민. 그 소곰 녹곡 그거 허민 물이 근근허주게. 경 허민 이제 보리밥 먹을 때민 그거 ᄒᆞ나 ᄊᆞ곱으로 빠네영.(소금 흩뜨리면서 그거 자근자근하게 항아리에 넣어서. 돌 딱 짓눌러서 넣어두면. 그 소금 녹고 그거 하면 물이 근근하지. 그렇게 하면 이제 보리밥 먹을 때면 그거 하나 속으로 빼내서.)

107044 @ 응.(응.)

107044 #2 이제 싸랑을 먹든지 그자.(이제 썰어서 먹든지 그저.)

107044 @ 그자 손으로 감앙 먹어.(그저 손으로 감아서 먹어.)

107044 #2 손으로 영 영 감아근엥에 먹던지.(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먹든지.)

107044 @ 아.(아.)

107044 #2 이제 봄 나민 감저 처도 그것에 먹곡.(이제 봄 나면 고구마 쪄도 그것에 먹고.)

107044 @ 아.(아.)

107044 #2 보리밥에도 그것에 먹곡.(보리밥에도 그것에 먹고.)

107044 @ 어.(어.)

107044 #2 경 허영.(그렇게 해서.)

107044 @ 그거는 김치가 아니고 지시키여예?(그거는 김치가 아니고 장아찌겠네요?)

107044 #2 아니 그 마농짐치엔 헷수다.(아니 그 마늘김치라고 했습니다.)

107044 @ 마농김치이?(마늘김치?)

107044 #2 예, 드른마농짐치.(예, 달래김치.)

107044 @ 드르마농김치예?(달래김치요?)

107044 #2 응.(응.)

107044 @ 마농김치예. 아.(달래김치요. 아.)

107044 #2 예, 드른마농짐치엔 헹.(예, 달래김치라고 해서.)

107044 @ 예 짐치, 김치 짐치예?(예 김치, 김치 김치요?)
107044 #2 예 김치이.(예 김치.)
107044 @ 예, 김치예.(김치요.)
107044 #2 응.(응.)
107045 @ 아까 갓김치가 아까 그거 아닛꽈예?(아까 갓김치가 아까 그거 아닙니까요?
107045 #2 응.(응.)
107045 @ 갓김치가 보라색.(갓김치가 보라색.)
107045 #2 예, 예, 그 엿날에 그 갓김치.(예, 예, 그 옛날에 그 갓김치.)
107045 @ 예 보라섹.(예 보라색 .)
107045 #2 보라섹으로 흔 게 갓김치.(보라색으로 한 것이 갓김치.)
107045 @ 갓김치예. 어.(갓김치요. 어.)
107045 #2 예.(예.)
107045 @ 보라색으로.(보라색으로.)
107046 @ 이제 저기 부추를 부추를 세우리, 세우리.(이제 저기 부추를 부추를 부추, 부추.)
107046 #2 세우리이?(부추?)
107046 @ 예, 세우리김치.(예, 부추김치.)
107046 #2 세우리김치도 저 거시깃 젓갈 놩 ᄒᆞ는 사람도 잇곡.(부추김치도 저 거시기 젓갈 넣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107046 @ 예.(예.)
107046 #2 근장 놩 ᄒᆞ는 사람도 잇곡. 젓갈 못 먹는 사람은.(간장 넣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젓갈 못 먹는 사람은.)
107046 @ 아.(아.)
107046 #2 근장 놔서 헹 먹곡. 경 아니ᄒᆞᆫ 사람은 젓갈 놩 헹 먹곡 경 헙네다.(간장 넣어서 해서 먹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젓갈 넣어서 해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107046 @ 아 젓갈이나 간장 놔기네예?(아 젓갈이나 간장 넣어서요?)
107046 #2 예.(예.)
107046 @ 이것도 이 이것도 꿩마농 드른마농김치랑 비슷헌 건 아니지예?(이것도 이 이것도 달래 달래김치하고 비슷한 건 아니지요)?
107046 #2 아이 비슷ᄒᆞ지 안녑니다.(아이 비슷하지 안합니다.)
107046 @ 비슷ᄒᆞ지.(비슷하지.)
107046 #2 ᄒᆞ쏠 저 틀려.(조금 저 달라.)
107046 @ 틀려예?(달라요?)
107046 #2 예.(예.)
107046 @ 젓갈 놓고.(젓갈 넣고.)

107046 #2 예.(예.)
107046 @ 고춧ᄀᆞ루 고추 ᄒᆞ끔 넣고.(고춧가루 고추 조금 넣고.)
107046 #2 고칫ᄀᆞ루 ᄒᆞ쏠 놓고 헹.(고춧가루 조금 넣고 해서.)
107046 @ 고춧ᄀᆞ루 게난 고춧ᄀᆞ루도 저 옛날 고추룩 배추김치ᄀᆞ추룩 이 젓갈에 ᄀᆞ찌 갈아근에 끌여근에 놓건 아니고마씨?(고춧가루 그러니까 고춧가루도 저 옛날처럼 배추김치처럼 이 젓갈에 함께 갈아서 끓여서 넣은 건 아니고요?)
107046 #2 아니 엿날ᄀᆞ찌.(아니 옛날같이.)
107046 @ 그건 아니고?(그건 아니고?)
107046 #2 응, 엿날ᄀᆞ찐 그추룩은 아니 헹 그건.(응, 옛날같이 그처럼은 아니 해서 그건.)
107046 @ 그추룩 안헤근에?(그처럼 안해서요?)
107046 #2 게난 그 드른마농김치도.(그러니까 그 달래김치도.)
107046 @ 예.(예.)
107046 #2 이 고치나 무신 거 안 놩 그자 소곰물에 그자.(이 고추나 무슨 거 안 넣어서 그저 소금물에 그저.)
107046 @ 소금물에만예?(소금물에만요?)
107046 #2 예.(예.)
107046 @ 예, 예.(예, 예.)
107046 #2 경 헹 담ᄀᆞᆺ다근에 건저 네영 ᄒᆞ민, 그 노랑케 익어근넹 ᄒᆞ민 세콤세콤헤영.(그렇게 해서 담갔다가 건져 내여서 하면, 그 노랗게 익어서 하면 새콤새콤해서.)
107046 @ 예.(예.)
107046 #2 봄이 감저 처도 먹곡.(봄에 고구마 쪄도 먹고.)
107046 @ 예.(예.)
107046 #2 보리밥 헤도 거 먹곡.(보리밥 해도 거 먹고.)
107046 @ 예, 예.(예, 예.)
107046 #2 경 헤낫주.(그렇게 했었지.)
107046 @ 예, 어.(예, 어.)
107047 @ 배추김치ᄒᆞ고 무김치는 ᄀᆞᆯ아 주난에. 깍두기는예. 아까 무김치. 동치미예? 그거 말고 깍두기 이 살강살강 썰어근에 저기.(배추김치하고 무김치는 말해 주니까. 깍두기는 아까 무김치. 동치미요? 그거 말고 깍두기 이 살강살강 썰어서 저기.)
107047 #2 그거.(그거.)
107047 @ 뿌렁 허는 거는 그냥 소금물에 ᄒᆞ끔 놧단 헤신가마씨?(뿌려서 하는 거는 그냥 소금물에 조금 넣었다가 했는가요?)
107047 #2 아니 소곰물에 이제 ᄒᆞ는 거는 오레 먹을 거 허고.(아니 소금물에 이제 하는 거는 오래 먹을 거 하고.)

107047 @ 예.(예.)

107047 #2 그자 먹을 거는 그자 소곰이영 양념이영 헹 ᄀᆞ찌.(그저 먹을 거는 그저 소금이랑 양념하고 해서 같이.)

107047 @ ᄀᆞ찌.(같이.)

107047 #2 고칫ᄀᆞ루 믄저 뿌령 그 김치 싸라 그 무 싸라 논 것에.(고춧가루 먼저 뿌려서 그 김치 썰어 그 무 썰어 넣은 것에.)

107047 @ 예, 예.(예, 예.)

107047 #2 경 허민 고춧ᄀᆞ루 믄저 뿌리민, 그 저 무에 고칫물이 들어근엥이 희지 안 형.(그렇게 하면 고춧가루 먼저 뿌리면 그 저 무에 고춧물이 들어서 희지 안 해서.)

107047 @ 예, 예.(예, 예.)

107047 #2 불그릉ᄒᆞ주.(발그레하지.)

107047 @ 불그릉헤기네예.(발그레해서요.)

107047 #2 응 경 허민, 그추룩 ᄒᆞ게 헹 놧당 소곰이영 양념이영 다 ᄀᆞ찌 홈치 헤영.(응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게 해서 놓았다가 소금이랑 양념이랄 다 같이 함께 해서.)

107047 @ 예.(예.)

107047 #2 경 헹 헤사.(그렇게 해서 해야.)

107047 @ 응.(응.)

107047 #2 이제 ᄒᆞ주. 경 안 허민 무우가 물러.(이제 하지. 그렇게 안하면 무가 물러.)

107047 @ 물러근넹에예.(물러버려서요.)

107047 #2 응, 맛이 엇어.(응, 맛이 없어.)

107047 @ 맛이 엇어근넹에.(맛이 없어서.)

107047 #2 게난 소곰절이는 거는 요즘은 그 저 그 단미정[253]인가 무시거.(그러니까 소금절이는 거는 요즘은 그 저 그 '단미정'인가 무엇.)

107047 @ 예, 예.(예, 예.)

107047 #2 그것에 소곰 ᄒᆞ쏠 놩 버무령 헷다근에. 그자 건저근엥이 ᄒᆞ는 셍입디다 덜.(그것에 소금 조금 넣어서 버무려서 했다가. 그저 건져서 하는 모양입디다 들.)

107047 @ 응.(응.)

107047 #2 우린 원 요센.(우린 원 요새는.)

107047 @ 예, 예.(예, 예.)

107047 #2 안 헤 보난에헌디.(안 해보니까한데.)

107047 @ 예, 예.(예, 예.)

253) '단미정' 감미료 상표 이름을 말하고 있다.

젓갈

107048 @ 젓갈 종류예.(젓갈 종류요).
107048 #2 예.(예.)
107048 @ 젓갈 종류에 대해서 골아줍서.(젓갈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48 #2 젓갈 종류는.(젓갈 종류는.)
107048 @ 젓갈 또는 젓.(젓갈 또는 젓.)
107048 #2 젓 ᄒᆞᆫ 거게, 자리젓.(젓 한 것, 자리젓.)
107048 @ 자리젓.(자리젓.)
107048 #2 멜젓.(멸치젓.)
107048 @ 예 멜젓.(예 멸치젓.)
107048 #2 고등에젓.(고등어젓.)
107048 @ 고등에.(고등어.)
107048 #2 허, 헛.(허, 헛.)
107048 @ 예.(예.)
107048 #2 또 무시거니?(또 무엇이니?)
107048 #1 세우젓.(새우젓.)
107048 #2 세우젓.(새우젓.)
107048 #1 겐디 세우젓도 이딘 엇어.(그런데 새우젓도 여기는 없어.)
107048 #2 저 무시거니 저 젓.(저 무엇이니 저 젓.)
107048 @ 저 엣날에 헷던 건만.(저 옛날에 했던 건만.)
107048 #2 아이고 꽁치젓.(아이고 꽁치젓.)
107048 @ 꽁치?(꽁치?)
107048 #2 아니 꽁치가 아니고 젓 무시거니?(아니 꽁치가 아니고 저 무엇이니?)
107048 @ 고도리.(고도리.)
107048 #2 무시거니? 무시거.(무엇이니? 무엇.)
107048 #1 오징어젓?(오징어젓?)
107048 #2 아니, 오징어젓도 허주만은, 아이 하 핫. 잊어변 못 ᄀᆞ르키여. 곧젠 ᄒᆞ는디.(아니, 오징어젓도 하지만은, 아이 하 핫. 잊어버려서 못 말하겠다. 말하려고 하는데.)
107048 @ 고도리도.(고도리도.)
107048 #2 아이고 무시거엔 곧나마는 원.(아이고 무엇이라고 말한다마는 원.)
107048 @ 자리젓, 멜젓, 정겡이, 아니 청어?(자리젓, 멸치젓, 전갱이, 아니 청어?)
107048 #2 젓, 아이고 저 고등에 말앙 무시거?(젓, 아이고 저 고등에 말아서 무엇?)
107048 @ 고도리.(고도리.)
107048 #1 각제기?(전갱이?)

107048 @ 각제기.(전갱이.)
107048 #2 아 각제기젓.(아 전갱이젓.)
107048 @ 아 각제기예.(아 전갱이요.)
107048 @ 각제기젓.(전갱이젓.)
107048 #2 예, 각제기젓.(예, 전갱이젓.)
107048 #1 각제기 젠젠헌 거.(전갱이 자잘한 거.)
107048 @ 예.(예.)
107048 #2 어 아니 각제기젓 거 맛잇어. 각제기젓도 맛잇곡. 고등에젓도 맛잇곡.(어 아니 전갱이젓 거 맛있어. 전갱이젓도 맛있고. 고등어젓도 맛있고.)
107048 @ 고등에젓도 맛잇고예?(고등어젓도 맛있고요?)
107048 #2 예, 갈치젓도 맛잇고.(예, 갈치젓도 맛있고.)
107048 @ 갈치젓요.(갈치젓요.)
107048 #2 예.(예.)
107048 @ 갈치젓 오징어젓은?(갈치젓 오징어젓은?)
107048 #2 오또젓 오징어젓도 ᄒᆞ고.(오징어젓 오징어젓도 하고.)
107048 #1 어.(어.)
107048 @ 오징어젓도ᄒᆞ고예?(오징어젓도하고요?)
107048 #2 어.(어.)
107048 @ 오징어젓도ᄒᆞ예?(오징어젓도요?)
107048 #2 예.(예.)
107048 @ 아 오징어도 젓 담아.(아 오징어도 젓 담가.)
107048 #1 아 뭐 젓 못허는 게 엇주.(아 뭐 젓 못하는 것이 없지.)
107048 #2 적깔도.(적도.)
107048 #1 소곰에 절이면 젓이난.(소금에 절이면 젓이니까.)
107048 #2 절이민 젓이난에.(절이면 젓이니까.)
107048 #1 헤, 헤헷.(헤, 헤헷.)
107048 @ 오징어 젓 또 아깐 새우젓이엔 헌디 거.(오징어젓 또 아까는 새우젓이라고 한데 거.)
107048 #2 새우젓은.(새우젓은.)
107048 @ 겡이젓? 겡이 젓이수과?(게젓? 게젓 있습니까?)
107048 #2 겡이 응, 겡이도 젓 헹먹주. 겡이.(게 응, 게도 젓 해서먹지. 게.)
107048 @ 예 겡이젓.(예 게젓.)
107048 #2 에.(에.)
107048 @ 겡이젓 바당에 나는 건 다 젓이 뒈난 소라젓 아니 고동젓.(게젓 바다에 나는 건 다 젓이 되니까 소라젓 아니 소라젓.)
107048 #1 고동도 뒈주 머.(소라도 되지 뭐.)
107048 #2 고동도 젓, 것도 젓이주양. 양념헷당 먹는 거난.(소라도 젓, 그것도

젓이지요. 양념했다가 먹는 거니까.)
107048 #1 허, 헛.(허, 헛.)
107048 @ 예.(예.)
107048 #2 거 젓이엔 헹 담아 먹질 아녀고.(거 젓이라고 해서 담가 먹지를 아니하고.)
107048 @ 어.(어.)
107048 #2 그자 잡앙 셍 차 그 성헌 때 뭇앙 싸라근에에. 싸랑 근장에 이제 고칫ᄀᆞ루에 마농에.(그저 잡아서 생 째 그 성한 때 빻아서 썰어서. 썰어서 간장에 이제 고춧가루에 마늘에.)
107048 @ 아.(아.)
107048 #2 그런 양념덜 다 놔근엥이 헹 먹는 거난 젓이 아니주게.(그런 양념들 다 넣어서 해서 먹는 거니까 젓이 아니지.)
107048 #1 그냥 젓엉 금방 먹는 거.(그냥 저어서 금방 먹는 거.)
107048 @ 금방 먹는 거?(금방 먹는 거?)
107048 #2 건 무처먹는 거난.(건 무쳐서 먹는 거니까.)
107048 @ 무청 먹는 거예.(무쳐서 먹는 거요.)
107048 #2 응.(응.)
107048 @ 무처먹는 거 무침으로 봐야 될 거라.(무쳐먹는 거 무침으로 봐야 될 거야.)
107048 #2 거난 그 무시거니 젓은 잇주. 전복 게웃젓.[254](그러니까 그 무엇이니 젓은 있지. 전복 '게웃젓.')
107048 @ 아 전복.(아 전복.)
107048 #1 응.(응.)
107048 #2 응 전복 게웃젓.(응 전복 '게웃젓.')
107048 #1 응 창자젓.(응 창자젓.)
107048 @ 게우젓 예.('게우젓' 예.)
107048 #2 예.(예.)
107048 @ 전복 게웃젓예.(전복 '게웃젓'요.)
107048 #2 예 그거 잇주 그거.(예 그거 있지 그거.)
107048 @ 또 전복 게웃젓 허고 또 엇인가? 음식도 다양헌게마씨? 예 여기.(또 전복 '게웃젓' 하고 또 없는가? 음식도 다양하네요? 예 여기.)
107048 #1 아니 그거.(아니 그거.)
107048 @ 아니 솜씨가 하꽈?(아니 솜씨가 많습니까?)
107048 #1 다 헹 먹진 아녀주게.(다 해서 먹지는 아니하지.)
107048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7048 #2 으.(으.)

254) '게웃젓' 전복 내장으로 담근 젓이다.

107048 @ 여펜[255]삼춘이예 솜씨가 경 헤도 삼춘이 헤난 거난 기억을 헹 잘 골암주마씨 게. 놈만 본거는 경을 못헤여예?('여편' 삼촌이요 솜씨가 그렇게 해도 삼촌이 했던 거니까 기억을 해서 잘 말하고 있지요 게. 남만 본거는 그렇게 못하지요?)

107048 #2 아니 게난 각제기젓ᄒᆞ곡 고등에 젓사.(아니 그러니까 전갱이젓하고 고등어 젓이야.)

107048 @ 항상 해나난.(항상 했었으니까.)

107048 #2 게 헹 먹어나고. 이 멜젓도 느랑ᄒᆞ고 저 무시거니 자리젓도게 ᄒᆞ고게.(그럼 해서 먹었었으니까. 이 멸치젓도 늘 하고 저 무엇이니 자리젓도 하고.)

107048 @ 예 김치도 이렇게 이렇게에 많이 ᄒᆞ곡예. 우리가 어머니한티 얻어먹지 못헤부니까. 종류를 몰라근에. 하, 하, 하, 하.(예 김치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고요. 우리가 어머니한티 얻어먹지 못해버리니까. 종류를 몰라서. 하, 하, 하, 하.)

107048 #2 음 아.(음 아.)

107048 @ 경 헤근에 헤신디사 경 헤서.(그렇게 해서 했었는지 그렇게 해서.)

107048 #2 겐디.(그런데.)

107048 @ 응.(응.)

107048 #2 이젠 김치 헤나건 디가. 이거 여남은 헤 뒘수다.(이젠 김치 했었던지가. 이거 여남은 해 되고 있습니다.)

107048 @ 아 삼춘.(아 삼촌.)

107048 #1 김치 우리 이젠 안 헴서.(김치 우리 이젠 안 하고 있어.)

107048 @ 예.(예.)

107048 #1 뚤덜 다 헤오민 먹엄서.(딸들 다 해오면 먹고 있어.)

107048 @ 아이, 경 헙주마씨게.(아이, 그렇게 합지요.)

107048 #2 응.(응.)

107048 @ 경 헙주마씨.(그렇게 합니다요.)

107048 #2 아 김칠 무사 안 허길 시작 헤시녕 ᄒᆞ민. 그 허리 수술허레 간 오난. 그자 어떵 뚤덜이 김치를 그 헤 부터 듬아옴 시작ᄒᆞ난. 이 뚤이 듬아오고 저뚤이 듬아오곡 ᄒᆞ난.(아 김치를 왜 안 하기를 시작했느냐 하면. 그 허리 수술하러 갔다 오니까. 그저 어떻게 딸들이 김치를 그 해부터 담가오기 시작하니까. 이 딸이 담가오고 저 딸이 담가오고 하니까.)

107048 @ 아 좋수다게.(아 좋습니다.)

107048 #2 이때ᄁᆞ지 원 안 듬아 봐수다게.(이때까지 전혀 안 담가 봤습니다.)

107048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48 #1 잘 듬아 와.(잘 담가 와.)

107048 @ 좋수다게. 경 헤도 맛이 잇이난에 그걸 다 먹는 거 아니꽈예.(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맛이 있으니까 그걸 다 먹는 거 아닙니까요.)

---

255) '여펜' '예펜' '예청' '여편(女便)'은 여자어른을 높이는 제주말이다.

107048 #2 허, 헛.(허, 헛.)

107048 @ 맛엇이민 나데로 허키여 헹 헐 건디.(맛없으면 나대로 하겠다고 해서 할 건데.)

107048 #2 아이들이 더 잘 허주게.(아이들이 더 잘 하지.)

107048 @ 예.(예.)

107048 #2 이젠 어멍이 손맛 맛이 가볌주게.(이젠 어머니 손맛 맛이 가버리지.)

107048 #1 헤, 헤, 헷.(헤, 헤, 헷.)

107048 #2 이젠 늙어부난 손맛이 가비여.(이젠 늙어버리니까 손맛이 가버려.)

107049 @ 예 삼춘 자리젓에 대해서 ᄀᆞᆯ아줍서. 자리젓은 어느 제 ᄒᆞᆫ 오월 유월?(삼촌 자리젓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자리젓은 어느 때 한 오월 유월?)

107049 #2 유월 뚤.(유월 달.)

107049 @ 유월에예?(유월에요?)

107049 #2 예.(예.)

107049 @ 유월에 헤다가 그 젓 담으는 거는 홁은 거가 아니고 중 것?(유월에 해다가 그 젓 담그는 거는 굵은 거가 아니고 중 것?)

107049 #2 중 거.(중 거.)

107049 @ 중 거로 헤근에예.(중 거로 해서요.)

107049 #2 응.(응.)

107049 @ 중 거 통채로 헙니까? 아니면 배 ᄒᆞ끔 저기.(중 거 통째로 합니까? 아니면 배 조금 저기.)

107049 #2 통차로.(통째로.)

107049 @ 누뚜렁헙니까?(눌러서합니까?)

107049 #2 통체.(통째.)

107049 @ 통차로?(통째로?)

107049 #2 응.(응.)

107049 @ 통차로 허당 보면은 이거 막 녹아 불껀디. 맛은 언제 좋을 건고예?(통째로 하다가 보면 이거 막 녹아버릴 건데. 맛은 언제 좋을 건가요?)

107049 #2 아이고 저 녹아 녹아분 거 그거는 너무 싱겁게 허므로 녹아부는 거.(아니 저 녹아 녹아버린 거 그거는 너무 싱겁게 함으로 녹아버리는 거.)

107048 @ 아.(아.)

107049 #2 경 아니헤근넹에 적당이.(그렇게 안 해서 적당이.)

107049 #1 간이 잘 뒈사주.(간이 잘 돼야지.)

107049 #2 자리 세 게민, 자리 세 사발이민 저 소곰은 ᄒᆞᆫ 사발. 자리 세 사발이민 소곰은 ᄒᆞᆫ 사발. 이제 멜젓은.(자리 세 개면, 자리 세 사발이면 저 소금은 한 사발. 자리 세 사발이면 소금은 한 사발. 이제 멸치젓은.)

107049 @ 응.(응.)

107049 #2 이제 동양을 놔사 허곡.(이제 동양을 넣어야 하고.)

107049 @ 동양? ᄀᆞ튼양예.(동양? 같은 양요).
107049 #2 응.(응.)
107049 @ 멜젓은 동양.(멸치젓은 같은 양.)
107049 #2 응.(응.)
107049 @ 아, 경허문 자리젓은 거문 녹지 안허큰게예?(아, 그렇게 하면 자리젓은 그러면 녹지 않겠네요?)
107049 #2 아니 녹아.(안 녹아.)
107049 @ 안 녹아예.(안 녹아요.)
107049 #2 게난에 그것도 자리도오 홁음 줄메도 가주게.(그러니까 그거도 자리도 굵음 작음에도 가지.)
107049 @ 응.(응.)
107049 #2 홁음 줄메 가아.(굵음 작음에 가.)
107049 @ 응.(응.)
107049 #2 경 ᄒᆞ난에 훌근 자리 홀 뗀 경 헹 ᄒᆞ곡.(그렇게 하니까 굵은 자리 할 땐 그렇게 해서 하고.)
107049 @ 아.(아.)
107049 #2 또 준 자리 홀 때는 그보단 약허게 놓고.(또 조그마한 자리 할 때는 그보다는 약하게 넣고.)
107049 @ 조금 약허게 ᄒᆞ고예.(조금 약하게 하고요.)
107049 #2 응, 경 헤연.(응, 그렇게 했어.)
107049 @ 자리젓 먹을 때는 거문 몇 달 잇엉 먹으코마씨? ᄒᆞᆫ두 달?(자리젓 먹을 때는 그러면 몇 달 있어서 먹을까요? 한두 달?)
107049 #2 아앗.(아앗.)
107049 @ 여름에는 자리젓을 먹어사 반찬이 될 거난에예.(여름에는 자리젓을 먹어야 반찬이 될 거니까요.)
107049 #2 어 게난, 유월 ᄃᆞᆯ허민게 팔월 나민 먹주게.(어 그러니까, 유월 달하면 팔월 되면 먹지.)
107049 @ 팔 월예.(팔 월요.)
107049 #2 응 팔월 촐 헐 때민.(응 팔월 꼴 할 때면.)
107049 @ 촐 헐 때.(꼴 할 때.)
107049 #2 그 자리젓은 먹으난에게.(그 자리젓은 먹으니까.)
107049 @ 예 촐은 저기 추석.(예 꼴은 저기 추석.)
107049 #2 팔월 ᄃᆞᆯ 나난게.(팔월 달 되니까.)
107049 @ 예 추석 지나근에예.(예 추석 지나서요.)
107049 #1 응.(응.)
107049 #2 응, 경 허난.(응, 그렇게 하니까.)
107049 @ 자리젓을 먹엉예.(자리젓을 먹어서요.)

107049 #2 게난 팔월 둘 나민 먹주게. 유월 달에 메 저, 자리젓을 허민.(그러니까 팔월 달 되면 먹지. 유월 달에 매 저, 자리젓을 하면.)

107049 @ 예.(예.)

107049 #2 두어 둘 잇이민 먹주게.(두어 달 있으면 먹지.)

107049 @ 예.(예.)

107049 #1 이, 박사 아니민 말대답 못허키여.(이, 박사 아니면 말대답 못하겠어.)

107049 @ 아.(아.)

107049 #2 하, 하하, 핫.(하, 하하, 핫.)

107049 #1 이거 하도 이것저것 들어노난에. 헤, 헤, 헤, 헷.(이거 너무 많이 이것저것 들으니까. 헤, 헤, 헤, 헷.)

107049 @ 저기 우리 물, 냉국, 냉국 종류에 대해서 이십 이번 오이냉국 우럭 어렝이 오징어 여기 자리냉국이 안 들어가수다.(저기 우리 물, 냉국, 냉국 종류에 대해서 이십 이번 오이냉국 오징어 여기 자리냉국이 안 들어갔습니다.)

107049 #2 무시거?(무엇?)

107049 @ 냉국 헐 때.(냉국 할 때.)

107049 #2 어.(어.)

107049 @ 자리물회.('자리물회.')

107049 #2 아 자리 물회 안 들어간?(아 자리 물회 안 들어갔어?)

107049 @ 자리물회 이 중요한 거 자리물회를 놓쳐부런.('자리물회' 이 중요한 거 '자리물회'를 놓쳐버렸어.)

107049 #2 하, 하하, 핫.(하, 하하, 핫.)

107049 #1 응.(응.)

107049 @ 아이고 이추룩도 헴신게마씨예. 나도 이 중요허게 생각을 해야 헐 건디.(아이고 이렇게도 하고 있네요. 나도 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건데.)

107050 @ 경 허곡, 멜은 멜젓은 멜젓이엔 허지예?(그렇게 하고, 멸치는 멸치젓은 멸치젓이라고 하지요?)

107050 #2 멜젓.(멸치젓.)

107050 @ 멜젓예.(멸치젓요.)

107050 #2 예.(예.)

107050 @ 멜젓예. 멜젓예 멜젓은 이거는 어느 때 담그는고예?(멸치젓요. 멸치젓요 멸치젓은 이거 어느 때 담그는가요?)

107050 #1 것도 거.(것도 거.)

107050 #2 멜젓도 저 거시기.(멸치젓도 저 거시기.)

107050 #1 오뉴월에 둠가야 뒈여.(오뉴월 달에 담가야 돼.)

107050 #2 오월유월 둘에가 젤.(오월유월 달에가 젤.)

107050 #1 어, 어.(어, 어.)

107050 #2 저 적기주.(저 적기지.)

107050 #1 그떼가 멜 나사 담글 거난에 헤, 헷.(그때가 멸치 나야 담글 거니까 헤, 헷.)

107050 @ 거난 바당에 멜 들어왓덴.(그러니까 바다에 멸치 들어왔다고.)

107050 #1 어, 어.(어, 어.)

107050 @ 헤기네 헐 떼 그떼 담그는 거난.(해서 할 때 그때 담그는 거니까.)

107050 #2 아니 게난 멜 들 떼. 정월달에도 들고.(아니 그러니까 멸치 들 때. 정월달에도 들고.)

107050 @ 예, 예, 예.(예, 예, 예.)

107050 #2 이제 이월 달에도 들어도.(이제 이월 달에도 들어도.)

107050 @ 젓 담그는 거난.(젓 담그는 거니까.)

107050 #2 이제 오유월 홀 멜젓이 젤 좋주게.(이제 오뉴월 할 멸치젓이 젤 좋지.)

107050 @ 기지예. 오뉴월에예.(그렇지요. 오뉴월에요.)

107050 #2 예.(예.)

107050 @ 동양으로 ᄒᆞ고.(동양으로 하고.)

107050 #2 어.(어.)

107050 @ 이거는 담그면은 어느 제쯤이면은.(이거는 담그면 어느 때쯤이면.)

107050 #2 아니, 그저 멜젓은 놈덜 말이 무신 이 주만 뒈민 먹나 무시거 ᄒᆞᆫ다헤도 우린 경은 안 헤보난에.(아니, 그저 멸치젓은 남들 말이 무슨 이 주만 되면 먹나 무엇 한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보니까.)

107050 @ 으.(으.)

107050 #2 경 ᄒᆞ난 아멩헤도게. 그것도게 ᄒᆞᆫ 두어 ᄃᆞᆯ 뒈사 먹주게.(그렇게 하니까 아무리해도. 그것도 한 두어 달 되어야 먹지.)

107050 @ 두어 ᄃᆞᆯ예.(두어 달요.)

107050 #2 아멩헤도.(아무래도.)

107050 @ 잘 익어사.(잘 익어야.)

107050 #2 잘 익어사 맛잇테주 몰라도.(잘 익어야 맛있을 테지 몰라도.)

107050 @ 이거는 어떵 허민 제일 맛좋게 먹으는고예?(이거는 어떻게 하면 제일 맛좋게 먹는가요?)

107050 #2 아 그거 게 올케 헤카지지[256] 않으민.(아 그거 게 올케 '헤카지지' 않으면.)

107050 @ 헤카지지 않으면.('헤카지지' 않으면.)

107050 #2 양념헤근엥이.(양념해서.)

107050 @ 양념헤근에예.(아 양념해서요.)

107050 #2 아 양념형게.(아 양념해서.)

256) '헤카지지' '헤싸지다' 헤어져 뜯어지거나 바수어지다 뜻이다.

107050 #1 아 게난 간을 잘 맞췌야 뒈여.(아 그러니까 간을 잘 맞추어야 돼.)
107050 @ 예 이거 헤근에.(예 이거 해서.)
107050 #1 젓이엔 혼 건 간에 호랑이주.(젓이라고 한 것은 간에 호랑이지.)
107050 @ 예.(예.)
107050 #1 그거 간 맞추는데.(그거 간 맞추는데.)
107050 @ 영 헤근에 ᄂᆞ물 ᄉᆞᆲ아근에.(이렇게 해서 나물 삶아서.)
107050 #2 응, 찍엉 먹어도 뒈고.(응, 찍어서 먹어도 되고.)
107050 @ 찍엉 먹곡 쌍 먹곡.(찍어서 먹고 싸서 먹고.)
107050 #2 그자도 먹고.(그저도 먹고.)
107050 @ 그자도 먹고.(그저도 먹고.)
107050 #1 뒈야지고기도 찍엉 먹으민 맛잇서.(돼지고기도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
107050 @ 어 고기 예.(어 고기 예.)
107050 #1 멜젓에 찍으민.(멸치젓에 찍으면.)
107050 @ 예, 찍어 먹어근에예.(예, 찍어 먹어서요.)
107050 #2 응.(응.)
107050 @ 그냥도 먹곡예. 아 경허곡 이제 이거를 김치에는 이거 멜젓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예.(그냥도 먹고요.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김치에는 이거 멸치젓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107050 #2 멜젓 다 들어가사주.(멸치젓 다 들어가야지.)
107050 @ 멜젓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는. 멜 김치에 놓을 때는 멜젓을 배추김치만 솖앙 놓고 다른 것들은 그냥 떠근에 놓아.(멸치젓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는. 김치에 넣을 때는 멸치젓을 배추김치만 삶아서 넣고 다른 것들은 그냥 떠서 넣어.)
107050 #2 아니 저 그거시 멜이 잘 삭앙.(아니 저 그것이 멸치가 잘 삭아서.)
107050 @ 예.(예.)
107050 #2 멜이 잘 삭아근엥이 그 엑젓ᄀᆞ찌 궁물이 많아면.(멸치가 잘 삭아서 그 액젓같이 국물이 많으면.)
107050 @ 예.(예.)
107050 #2 많아면 그자 체 밧텽. 그자 양념허는 더레 밧텨놩 헤도 뒈고.(많으면 그자 체 받쳐서. 그저 양념하는 데에 받쳐놔서 해도 되고.)
107050 @ 예.(예.)
107050 #2 또 경 아녕 멜이 산차 너미 짜근에.(또 그렇게 안 해서 멸치가 산채 너무 짜서.)
107050 @ 예.(예.)
107050 #2 산 차 잇이면 그거는.(산 채 있으면 그거는.)
107050 @ 혼번 끌여근에.(한번 끓여서.)
107050 #2 예, 끓이든지 ᄀᆞᆯ아근엥이 이제 허든지.(예, 끓이든지 갈아서 이제 하

든지.)
107050 @ 아.(아.)
107050 #1 물 꿰영게.(물 끓여서.)
107050 #2 경 ᄒᆞ든지.(그렇게 하든지.)
107050 @ 아 갈아근에 허고예.(아 갈아서 하고요.)
107050 #2 응.(응.)
107050 @ 예 그 옛날에 출레[257]엔 헌 거가 잇어난 거 닮아예.(예 그 옛날에 '출레'라고 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7050 #2 출레가 멜젓 지진 거게.('출레'가 멸치젓 지진 거.)
107050 #1 헤헷, 헤, 헤, 헤, 헷.(헤헷, 헤, 헤, 헤, 헷.)
107050 @ 기지예? 멜젓 지진 거예. 하, 하하, 핫.(그렇지요? 멸치젓 지진 거요. 하, 하하, 핫.)
107050 #2 자리젓이나 멜젓이나 지진 게 촐레.(자리젓이나 멸치젓이나 지진 것이 '출레.')
107050 @ 지진 거예?(지진 거요?)
107050 #2 응.(응.)
107050 @ 그거 냄비 바탕에 놔근에.(그 냄비 바닥에 넣어서.)
107050 #2 응.(응.)
107050 @ 저기 ᄒᆞᆫ 국자나 두 국자 놓고.(저기 한 국자나 두 국자 넣고.)
107050 #2 어, 물 ᄒᆞ쏠 놓고 그거 놓고 헹 지지민 쫍찌그랑 ᄒᆞ민.(어, 물 조금 넣고 그거 넣고 해서 지지면 짭짤해서 하면.)
107050 @ 예.(예.)
107050 #2 그게 출레.(그것이 '출레.')
107050 @ 거문 여기 예.(거문 여기 예.)
107050 #1 그걸 뭘로 지져시냐 허민 엿날은.(그 걸 뭘로 지졌느냐 하면 옛날은.)
107050 @ 예.(예.)
107050 #1 전복껍덕. 그 놓아 가지고 전복껍덕에 놓왕.(전복갑. 그 넣어 가지고 전복갑에 넣어서.)
107050 #2 헛, 헛.(헛, 헛.)
107050 @ 아.(아.)
107050 #1 촐레 지정 먹넨 ᄒᆞ주.('출레' 지져서 먹는다고 하지.)
107050 @ 전복껍떡에예.(전복갑에요.)
107050 #1 전복껍데기에.(전복갑에.)
107050 @ 예.(예.)
107050 #2 거 전복껍떡에 츰 올케 요 소코리만인 홈네다게.(거 전복갑에 참 올케 이 소쿠리만큼 합니다.)

257) '출레'는 밥과 곁들이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이다.

107050 @ 예, 예예, 큰 거어.(예, 예예, 큰 거.)

107050 #2 경 ᄒᆞ민 그거 이디 고냥이. 이디 고냥이.(그렇게 하면은 구멍이. 여기 구멍이.)

107050 @ 예.(예.)

107050 #2 알로는 족아도 우트레 나민 고냥이 커.(아래는 작아도 위쪽에는 하면 구멍이 커.)

107050 @ 크지예? 예, 예.(크지요? 예, 예.)

107050 #2 경 ᄒᆞ민 그거를 솜으로 헤근에 그 고냥을 다 막아.(그렇게 하면 그것을 솜으로 해서 그 구멍을 다 막아.)

107050 @ 아.(아.)

107050 #2 막아근에 이제 그레 멜젓 놓곡. 물 ᄒᆞ쏠 놓곡 헤영 덕[258] 앚쩡 무신 무시거나 잇어게.(막아서 이제 거기에 멸치젓 넣고. 물 조금 넣고 해서 덕 앉혀서 무슨 무엇이나 있어.)

107050 @ 그냥.(그냥.)

107050 #2 덕 앚쩌근에 불 ᄒᆞ쏠 솜으민 보글보글 허민 그자 그거 거려 앚아네영 사발에사 비와신디 원 그자사 먹어신디 원.(덕 앉혀서 불 조금 때면 보글보글 하면 그저 그거 떠내 가져서 사발에야 비웠는지 원 그저야 먹었는지 원.)

107050 #1 피, 잇.(피, 잇.)

107050 @ 조창[259] 먹으면예.('조창' 먹으면요.)

107050 #2 어떵사 먹어신디.(어떻게야 먹었는지.)

107050 #1 에 에.(에 에.)

107050 #2 경 허민 ᄂᆞ물 솖앙도 먹고.(그렇게 하면 나물 삶아서도 먹고.)

107050 @ ᄂᆞ물 솖앙도 먹고.(나물 삶아서도 먹고.)

107050 #2 그자 즉앙 그냥.(그저 찍어서 그냥.)

107050 @ 어.(어.)

107050 #2 밥 거려 먹고.(밥 떠서 먹고.)

107050 #1 겐디 그게 출레.(그런데 그게 '출레.')

107050 #2 그거 즉앙도 먹고.(그거 찍어서도 먹고.)

107050 @ 예 이게 출레예.(아 그게 '출레요.')

107050 #2 응.(응.)

107050 #2 경 ᄒᆞ난 그게 출레.(그렇게 하니까 그게 '출레.')

107050 @ 예.(예.)

107050 #1 헤, 헤.(헤, 헤.)

107050 #2 게난 자리젓이나 멜젓이나 지진게 출레.(그러니까 자리젓이나 멸치젓이나 지진 '출레.')

---

258) '덕'은 여기에서 솥을 앉힐 자리를 만든다는 의미다.

259) '조창' 반찬으로 갖추어 먹는 것을 말한다.

107050 @ 지진게 출레예.(지진 '출레'요.)
107050 #2 응.(응.)
107050 @ 게민 이 출레가 허면은 반찬으로 고기반찬ᄀᆞ추룩 코시롱허니까는.(그러면 이 '출레'가 하면은 반찬으로 고기반찬처럼 고소하니까는.)
107050 #2 으 응.(으 응.)
107050 @ 예 밥이.(예 밥이.)
107050 #2 어, 밥이 ᄂᆞ물 솖은 거 엇이민 그것만.(어, 밥이 나물 삶은 거 없으면 그것만.)
107050 @ 저 해도.(저 해도.)
107050 #2 밥 거려 먹곡.(밥 떠서 먹고.)
107050 @ 버무령 먹고.(버무려서 먹고.)
107050 #2 국 거려 먹곡.(국 떠서 먹고.)
107050 @ 예.(예.)
107050 #2 거 먹곡 찍어, 거 엿날에 근장 즉앙 영 밥 먹듯이게.(그거 먹고 찍어, 그거 옛날에 간장 찍어서 이렇게 밥 먹듯이.)
107050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50 #2 그 그런 식 아니라.(그 그런 식 아니라.)
107050 @ 예, 예 출레반찬예.(예, 예 '출레'반찬요.)
107050 #2 응.(응.)
107050 @ 게 멜첫을 하영 헌 거라예.(그래서 멸치젓을 많이 한 거예요.)
107050 #2 응.(응.)
107050 @ 멜젓이예.(멸치젓이요.)
107050 #2 응, 경 헤영.(응, 그렇게 해서.)
107050 @ 예, 게난 멜젓이 용도는 김치허고 양념 버무려근에 양념 놓고.(예, 그러니까 멸치젓이 용도는 김치하고 양념 버무려서 양념 넣고.)
107050 #2 예.(예.)
107050 @ 저기 양념허민 뭐 이것저것 마농 파도 썰어놓고 헤기네.(저기 양념하면 뭐 이것저것 마늘 파도 썰어 넣고 해서.)
107050 #2 다 헤놔사.(다 해놓아야.)
107050 @ 이거 ᄒᆞ고 출레 헤기네 먹고.(이거 하고 '출레' 해서 먹고.)
107050 #2 예.(예.)
107050 @ 예 아이고 이거 맛 좋키여 이거.(예 아이고 이거 맛 좋겠다 이거.)
107050 #1 아이고 느네 거시기 뭘.(아이고 너희 거시기 무얼.)
107050 @ 잠깐만 요기까지.(잠깐만 여기까지.)
107050 #1 뭘 무시거 ᄌᆞ냑.(뭘 무엇 저녁.)
107050 @ 아니 저 삼춘예, ᄋᆞ둘 왜냐허면 저녁 헤영 그거 먹곡 허당 보민 시간이 흘러불거난 ᄒᆞ쏠만.(아니 저 삼촌요, 여덟 왜냐하면 저녁 해서 그거 먹고 하다가

보면 시간이 흘러버릴 거니까 조금만.)
107050 #1 응.(응.)
107050 @ ᄒᆞ끔만. 흔 ᄋᆞᄃᆞᆯ 시까지만.(조금만. 한 여덟 시까지만.)
107050 #1 응.(응.)
107050 @ 장 장 담그는 거 허고예 이것만 ᄒᆞ끔허게마씨.(장 장 담그는 거 하고요 이것만 조금하게요.)
107050 #2 예.(예.)
107050 @ 게난 이게 밥 먹고 촐리고 허당 보민 시간 우리도 시에 이제 가젠 허민 뭐허난 그 시간 조금 애껴근넹에.(그러니까 이게 밥 먹고 차리고 하다가 보면 시간 우리도 시에 가려고 하면 뭐하니까 그 시간 조금 아껴서.)
107050 #1 응.(응.)
107050 @ 막 지칫과? 지치지예? 말.(아주 지칩니까? 지치지요? 말.)
107050 #2 하, 하하, 핫.(하, 하하, 핫.)
107050 @ ᄒᆞ끔 물이라도 삼춘 먹읍써.(조금 물이라도 삼촌 먹으십시오.)
107050 #2 아 뒈수다 게. 뒈서 뒈서.(아 됐습니다 게. 됐어 됐어.)
107050 @ 아니 이거라도 ᄒᆞ끔 드십서.(아니 이거라도 조금 드십시오.)
107050 #2 아니 아니 아니 먹크라.(아니 아니 아니 먹겠어.)
107050 @ 물 ᄒᆞ끔 드십서.(물 조금 드십시오.)
107050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50 @ 막 염려되기네. 겐디 재미잇지안우꽈?(매우 염려되어서. 그런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107050 #2 으 하, 하핫.(으 하, 하핫.)
107050 @ 옛날 말 ᄀᆞᆯ아 가니깐예.(옛날 말 말해 가니까요.)
107050 #1 헤, 힛.(헤, 힛.)
107050 #2 재미사 신디 뭣사인디.(재미야 있는지 무엇인지.)
107050 @ 아 겐디 잘 ᄀᆞᆯ암수다 삼춘님.(아 그런데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삼촌님.)
107050 #1 응.(응.)
107050 #2 하, 하, 핫.(하, 하, 핫)
107050 @ 삼춘네 배고팡 저녁시간 뗴 놓쳐부난.(삼촌님 배고파서 저녁시간 끼니 놓쳐버리니까.)
107050 #2 아니 우리 베고프는 거 보다도게.(아니 우리 베고프는 것보다도.)
107050 #1 아 느네 이추룩 오라근에에.(아 너희 이렇게 와서.)
107050 @ 예.(예.)
107050 #2 오렌만이 왕 이거 올케 이거 번찍.[260](오랜만에 와서 이거 올케 이거 '번찍.')
107050 @ 엇수다게. 우리 아까우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아닙니다. 우리 아까

260) '번찍' '판찍'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우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107050 #1 응.(응.)
107050 @ 물김치 동김치 뭐 갓김치 반찬 같은 거예. 음식을 이추룩 헹 잘 먹으니까예. 남자삼춘이예. 건강 혀셔신게마씨.(물김치 '동김치' 뭐 갓김치 반찬 같은 거요. 음식을 무슨 거 이렇게 해서 잘 먹으니까요. 남자삼촌이요. 건강하셨습니다요.)
107050 #1 응?(응?)
107050 #2 하, 하하, 핫.(하, 하하, 핫.)
107050 @ 이축 헹 잘 알고 음식을 잘 알고 헹 먹으난예. 건강허신 거라마씨. 건강이 딴데 있는게 아니고예.(이렇게 해서 잘 알고 음식을 잘 알고 해서 먹으니까요.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107050 #2 잘해 네 부난.(잘해 내 버리니까.)
107050 #1 할망 떼문에?(할머니 때문에?)
107050 @ 예.(예.)
107050 #2 할망 따문에?(할머니 때문에?)
107050 @ 혈압도 없고마씨.(혈압도 없고요.)
107050 #1 아이고 고마와.(아이고 고마워.)
107050 @ 예, 예, 예.(예, 예, 예.)
107050 @ 이추룩.(이처럼.)
107050 #2 아이고.(아이고.)
107050 #1 고마워.(고마워.)
107050 @ 아니마씨게예 이추룩 아이 이추룩허기 힘들주마씨게.(아니요 이처럼 아이 이처럼 하기 힘들지요.)
107050 #2 아이고.(아이고.)
107050 @ 예 나는 막 소망 일어수다게. 이렇게예.(예 나는 아주 소망 일었습니다. 이렇게요.)
107050 #2 게 소망 일언?(그럼 소망 일었어?)
107050 @ 예 나는 하나토 모르주마씨게예. 겐디 삼춘 글아가니깐 아, 영 헷구나 헹 허는디 삼춘이, 말씀도 잘 하시고.(예 나는 하나도 모르지요. 그런데 삼촌 말해 가니까 아, 이렇게 했구나 해서 하는데 삼촌이, 말씀도 잘 하시고.)
107050 #2 잘 헴젠 ᄒᆞ난 고마운게. 하, 핫.(잘 한다고 하니까 고마워. 하, 핫.)
107050 @ 하, 하핫. 아이고 참.(하, 하핫. 아이고 참.)
107051 @ 삼춘 아감젓? 아강 젓?(삼춘 아감젓? 아감젓?)
107051 #2 아가미젓?(아감젓?)
107051 @ 아가미 젓이로구나. 아감젓예?(아감젓이로구나. 아감젓요?)
107051 #2 예.(예.)
107051 @ 아감 아가미젓.(아감 아감젓.)
107051 #2 예 아가미젓.(예 아감젓.)

107051 @ 예.(예.)
107051 #2 아가미젓은 그 저 고기에.(아감젓은 그 저 고기에.)
107051 @ 응 솔라니.(응 옥돔.)
107051 #2 응, 고기에 그 젓.(응, 고기에 그 저.)
107051 #1 어우셍이.(아가미.)
107051 #2 어우셍이인가 흔 거.(아가미인가 한 거.)
107051 #1 어우셍이.(아가미.)
107051 #2 빨강 거.(빨강 거.)
107051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51 #2 이런 디 그딧 거 토당. 젓 흔 게 아가미젓이주.(이런 데 그데 거 뜯어서. 젓 한 것이 아감젓이지.)
107051 @ 아 고기 거문 셍선은 이거 벨거라도 다 토다 놓으면 고등어도 막 토다 놔도 되는가마씨?(아 고기 그러면 생선은 이거 별거라도 다 뜯어 넣으면 고등어도 막 뜯어 넣어도 되는가요?)
107051 #2 아유 저 거시기 고등에.(아유 저 거시기 고등어.)
107051 @ 솔라니허고 조기만 흰살셍선.(옥돔하고 조기만 '흰살생선.')
107051 #2 그런 거는 안 뒈고.(그런 거는 안 되고.)
107051 @ 예.(예.)
107051 #2 갈치.(갈치.)
107051 @ 아.(아.)
107051 #2 갈치 그런 거 저 또시로 젓 무시거니? 조기.(갈치 그런 거 저 다시로 저 무엇이니? 조기.)
107051 @ 조기.(조기.)
107051 #2 응. 그런 거.(응 그런 거.)
107051 #1 게난 그 보민 그.(그러니까 그 보면 그.)
107051 @ 솔라니.(옥돔.)
107051 #2 응, 솔레기.(응, 옥돔.)
107051 #1 아가미젓이엔 흔 게 갈치 내장젓을 말하는 게 아니라?(아감젓이라고 한 것이 갈치 내장젓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107051 #2 응 게난 아가미엔 흔 게. 그 저 갈치엣 게 이 소람소람[261]ᄒᆞ곡. 이 먹기가.(응 그러니까 아가미라고 한 것이. 그 저 갈치에 것이 이 길쭉하고. 이 먹기가.)
107051 @ 응.(응.)
107051 #2 좋을 것 같에. 게난 그것에 베술도.(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에 창자도.)
107051 @ 예.(예.)

261) '소람소람' '소랑소랑' 길죽한 모양이다.

107051 #2 그것에 부떵 경 허민 그 베설 똥 빠뒁 그것에 젓 헤여근에 영 믓아근에 나오는 게 아가미젓인 거라.(그것에 붙어서 그렇게 하면 그 창자 똥 빼두어서 그것에 젓 해서 이렇게 빻아서 나오는 것이 아감젓인 거야.)

107051 @ 아, 그추룩 헤기네예.(아, 그요, 그처럼 해서요.)

107051 #1 으 응.(으 응.)

107051 #2 응.(응.)

107051 #1 아 그렇게 우린 헤보지 안 헷주만은.(아 그렇게 우린 해보지 안 했지만은.)

107051 @ 아.(아.)

107051 #1 그렇게.(그렇게.)

107051 #2 그 그거시 아가미 젓인 것 같아.(그 그것이 아감젓인 것 같아.)

107051 @ 그 게예?(그 게요?)

107051 #2 예.(예.)

107051 @ 아가미젓예.(아감젓요.)

107051 #2 으.(으.)

107051 @ 그 흰살생선에는 그 조기나 솔라니 같은 경우도 아가미는 뭐 졸여 먹을 떼도 거 버리지 안 헹 다 먹지 안읍니까예?(그 '흰살생선'에는 그 조기나 옥돔 같은 경우도 아가미는 뭐 졸여 먹을 때도 거 버리지 안 해서 다 먹지 않습니까요?)

107051 #1 아, 겐디 아가미는 그게 이 저 이 뭐 먹을 때 그 저 뭐 저 불순물이라도 막 제거ᄒᆞ는 이거 아니라게 벌경 헌 거.(아, 그런데 아가미는 그게 이 저 이 뭐 먹을 때 그 저 뭐 저 불순물이라도 막 제거 하는 이거 아니야 빨강 한 거.)

107051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51 #1 어 게난 그게 젓 헤도 그건 먹질 못 헤여.(어 그러니까 그게 젓 해도 그건 먹지를 못 해.)

107051 @ 예, 예, 예.(예, 예, 예.)

107051 #2 쎄주 쎄여.(세지 세어.)

107051 @ 예.(예.)

107051 #1 까시랑 헤근에 경 ᄒᆞ난 그.(까슬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107051 #2 그 아가미에 부뜬, 아가미에 이거시 영 아가미난 ᄋᆞ레 영 부뜬 게 잇어 주랑ᄒᆞ게.(그 아가미에 붙은, 아가미에 이것이 이렇게 아가미니까 요기에 이렇게 붙은 것이 있어 기다랗게.)

107051 @ 예, 예.(예, 예.)

107051 #2 부뜬 게 잇이난 올로 요렇게 끗차근엥에 그거를 영 똥을 빼불면 그거시 영 ᄒᆞ게 질주게. 경 허면 그거시 아가미젓으로 셍각헤저.(붙은 게 있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끊어서 그거를 이렇게 똥을 빼버리면 그것이 이렇게 길지.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아감젓으로 생각해져.)

107051 @ 응, 솔도 솔 지픈 것도 들어가고예.(으, 살도 살 깊은 것도 들어가고

요.)
107051 #2 술은 안 들어가.(살은 안 들어가.)
107051 @ 아 술은 안 들어가고.(아 살은 안 들어가고.)
107051 #2 그 베설.(그 창자.)
107051 @ 내장만.(내장만.)
107051 #2 으, 내장. 그 아가미에 부뜬 거. 부뜬 것에 거 영 잘르면은.(으, 내장. 그 아가미에 붙은 거. 붙은 것에 거 이렇게 자르면.)
107051 @ 예.(예.)
107051 #2 영 형.(이렇게 해서.)
107051 #1 게난 그 갈치에 건만.(그러니까 그 갈치에 건만.)
107051 #2 우리 하르방이 그런 그 창지만 잘 먹젠 헤난. 그런 거 헤나난 알아지주.(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그 창자만 잘 먹으려고 했었으니까. 그런 거 했었으니까 알아지지.)
107051 @ 아 예.(아 예.)
107051 #2 베설을 잘 지정 먹젠 잘 헙니다게.(창자를 잘 지져서 먹으려고 잘 합니다.)
107051 @ 아.(아.)
107051 #1 베설이 맛잇주게.(창자가 맛있지.)
107051 @ 예 맛 좋으니깐예.(예 맛 좋으니까요.)
107051 #1 헤, 헤. 아 게 모든 게.(헤, 헤. 아 그럼 모든 것이.)
107051 @ 어.(어.)
107051 #1 그 창자가 다 맛잇는 거라.(그 창자가 다 맛있는 거야.)
107051 @ 예에 맞수다.(예에 맞습니다.)
107051 #2 게난 그게 난 그걸로 아가미젓으로 생각ᄒᆞ는디 몰르주게.(그러니까 그게 난 그걸로 아감젓으로 생각하는데 모르지.)
107052 @ 아 그 저기 게젓, 겡이젓예?(아 그 저기 게젓, 게젓요?)
107052 #2 으.(으.)
107052 @ 겡이젓은 어떵 헙니까?(게젓은 어떻게 합니까?)
107052 #2 그 겡이젓 겡이젓은.(그 게젓 게젓은.)
107052 @ 응.(응.)
107052 #2 그 잡아다근엥이. 뭇앙.(그 잡아다가. 빻아.)
107052 @ 예.(예.)
107052 #2 뭇아근에 이제 마농 다, 마농 다져놓고.(빻아서 이제 마늘 다, 마늘 다져넣고.)
107052 @ 예.(예.)
107052 #2 이제 엿날엔 그 반찬으로 먹젠 ᄒᆞ난, 콩 볶아근넹에 그레 놩.(이제 옛날에는 그 반찬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콩 볶아서 거기에 넣어.)

107052 @ 예, 예.(예, 예.)
107052 #2 경 헹 허민 그레 즉아 먹으민 코시롱허게시리.(그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 찍어 먹으면 고소하게끔.)
107052 @ 예, 코시롱헤근에.(예, 고소하게.)
107052 #2 먹곡.(먹고.)
107052 @ ᄀᆞ찌 예, 예.(같이 예, 예.)
107052 #2 군장 엇인 할망덜은, 그거 잡아당 경 헷당.(간장 없이는 할머니들은, 그거 잡아다가 그렇게 했다가.)
107052 @ 응.(응.)
107052 #2 국도 끌려근에 그거 일어놩 국도 끌영 먹곡.(국도 끓여서 그거 일어넣어 국도 끓여서 먹고.)
107052 @ 아, 그거 헤 놔근에 국도 끌리고예.(아, 그거 해 넣어서 국도 끓이고요.)
107052 #2 응.(응.)
107052 @ 겡이국예.(게국요.)
107052 #2 응 겡이국 경 경 헹 끌영 먹고 헤낫주.(응 게국 그렇게 그렇게 해서 끓여서 먹고 했었지.)
107052 @ 예 게난.(예 그러니까.)
107052 #2 게난 반찬 엇일 때난 그거 반찬으로 헹 먹은 거난게.(그러니까 반찬 없을 때니까 그거 반찬으로 해서 먹은 거니까.)
107052 @ 응 게난 옛날에도 이게 겡이 허면은 무릎에도 좋덴 허곡?(응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거 게 하면은 무릎에도 좋다고 하고?)
107052 #2 응 어, 어.(응 어, 어.)
107052 @ 예 무릎에도 좋곡예.(예 무릎에도 좋고요.)
107052 #2 이 뻬에 들민 좋덴 허난.(이 뼈에 들면 좋다고 하니까.)
107052 @ 뻬에 좋덴예.(뼈에 좋다고요.)
107052 #2 응.(응.)
107052 @ 예.(예.)
107052 #2 경 허난 엿날 할망덜은 주로 겡일 잡아단 잘 볶안 먹주.(그렇게 하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주로 게를 잡아다가 잘 볶아서 먹지.)
107052 @ 예.(예.)
107052 #2 게난 잡아다근엥이 ᄀᆞ루 놓곡 헤영 군장 놩 볶안도 먹곡.(그러니까 잡아다가 가루 넣고 해서 간장 넣어서 볶아서도 먹고.)
107052 @ 볶앙도 먹곡 ᄀᆞ루 놔근에예?(볶아서도 먹고 가루 넣어서요?)
107052 #2 으, ᄀᆞ루 놓고 헤영.(으, 가루 넣고 해서.)
107052 @ 예, 예, 예.(예, 예, 예.)
107052 #2 볶안도 먹곡.(볶아서도 먹고.)

107053 @ 아까는 저기 헤시난에 장아찌는 어 이제 지시엔 허잖아예?(아까는 저기 했으니까. 장아찌는 어 이제 장아찌라고 하잖아요?)

107053 #2 예. 지시(예. 장아찌.)

107053 @ 지시? 지시예 지시.(장아찌? 장아찌요 장아찌.)

107053 #2 마농지시.(마늘 장아찌.)

107053 @ 예. 출레도 헷곡 헤시난.(이제 '출레'도 했고.)

107053 #2 으.(으.)

107054 @ 그 옛날에 출레엔 헌 거가 잇어난 거 닮아예.(그 옛날에 '출레'라고 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7054 #2 출레가 멜젓 지진 거게.('출레'가 멸치젓 지진 거.)

107054 @ 기지예. 멜젓 지진 거예.(그렇지요. 멸치젓 지진 거요.)

107054 #2 자리젓이나 멜젓이나 지진 게 촐레.(자리젓이나 멸치젓이나 지진 것이 '출레.')

107054 @ 지진 거예?(지진 거요?)

107052 #2 으.(으.)

107054 @ 아, 지진 거어.(아, 지진 거.)

107054 #2 거, 냄비 바탕에 놔근에 저기 혼 국자나 두 국자 놓고.(거, 냄비 바닥에 넣어서 저기 한 국자나 두 국자 넣고.)

107052 @ 예.(예.)

107054 #2 어, 물 ᄒᆞ쏠 놓고 그거 놓고 헹 지지민 짭찌그랑 ᄒᆞ민 그게 출레.(어, 물 조금 넣고 그거 넣고 해서 지지면 짭짤해서 하면 그게 '출레.')

107054 @ 거문 여기.(그러면 여기.)

107054 #1 그걸 뭘로 지져시냐 허민 엿날은 전복껍덕 그 놓아 가지고 전복껍덕에 노왕 촐레 지정 먹는 거주 거 전복껍데기에에.(그걸 뭘로 지졌느냐 하면 옛날은 전복갑 그 넣어 가지고 전복갑에 넣어서 '출레' 지져서 먹는 거지 거 전복갑에.)

107054 #2 거 전복껍덕에 츰 올케 요 소코리만인 헙네다게.(거 전복갑에 참 올케 이 소쿠리만큼 합니다.)

107054 @ 예. 큰 거어.(예. 큰 거.)

107054 #2 경 혼디 고냥이 이디 고냥이 알로는 족아도 우트른 ᄒᆞ민 고냥이 커 경 ᄒᆞ민 그걸 솜으로 헤근에 그 고냥을 다 막아 막아근에 이제 그레 멜젓 놓고 물 ᄒᆞ쏠 놓고 헤영 덕 앚정 무신 무시거나 잇어게. 덕 앚저근에 불 ᄒᆞ쏠 솜으민 보글보글 허민 그자 거려 앚아네영 사발에사 비신디 원 그자사 먹어신디 원 어떵사 먹어신디.(그렇게 한데 구멍이 여기 구멍이 아래는 작아도 위쪽에는 하면 구멍이 커 그렇게 하면 그걸 솜으로 해서 그 구멍을 다 막아 막아서 이제 거기에 멸치젓 넣고 물 조금 넣고 해서 덕 앉혀서 무슨 무엇이나 있어 덕 앉혀서 불 조금 때면 보글보글 하면 그저 떠서 가져 내어서 사발에야 비웠는지 원 그저야 먹었는지 원 어떻게야 먹었는지.)

107054 @ 조창 먹으면예.(조치개로 먹으면요.)
107054 #2 경 허민 ᄂᆞ물 솖앙도 먹고.(그렇게 하면 나물 삶아도 먹고.)
107054 @ ᄂᆞ물 솖앙도 먹고.(나물 삶아도 먹고.)
107054 #2 그자 즉앙 밥거려 먹고 그거 즉앙도 먹고.(그저 찍어서 밥 떠서 먹고 그거 찍어도 먹고.)
107054 #1 겐디 그게 촐레.(그런데 그게 '출레.')
107054 @ 아 그게 출레.(아 그게 '출레.')
107054 #2 경 ᄒᆞ난 그게 출레 자리젓이나 멜젓이나 지진 게 출레.(그렇게 하니까 그게 '출레' 자리젓이나 멸치젓이나 지진 것이 '출레.')
107054 @ 지진 게 촐레예?(지진 것이 '출레'요?)
107054 #2 응.(응.)
107054 @ 게민 이 출레가 허면은 반찬으로 고기반찬ᄀᆞ추룩 코시롱허니까는.(그러면 이 '출레'가 하면은 반찬으로 고기반찬처럼 고소하니까는.)
107054 #2 응.(응.)
107054 @ 예 밥이.(예 밥이.)
107054 #2 예, 밥이 ᄂᆞ물 솖은 거 엇이민 그것만 밥 거려 먹곡, 국 거려 먹곡 거 먹곡 찍어, 거 엿날에 근장 찍엉 영 밥 먹듯이게 그런 식 아니라.(예, 밥이 나물 삶은 거 없으면 그것만 밥 떠서 먹고, 국 떠서 먹고 그거 먹고 찍어, 그 옛날에 간장 찍어서 이렇게 밥 먹듯이 그런 식 아니야.)
107054 @ 맞수다게. 출레 반찬예. 멜젓을 하영 헌 거라예. 멜젓이.(맞습니다. '출레' 반찬요. 멸치젓을 많이 한 거예요. 멸치젓이.)
107054 #2 응, 경 헤근에.(응, 그렇게 해서.)
107054 @ 예, 게난 멜젓이 용도는 김치허고 양념 버무려근에 양념먹고 양념허민 이것저것 파도 썰어 놓고.(예, 그러니까 멸치젓이 용도는 김치하고 양념 버무려서 양념 먹고 양념 하면 이것저것 파도 썰어 넣고.)
107054 #2 다 헤영.(다 해서.)
107054 @ 출레 헤기네기. 이거 먹고 아 이거 맛 좋키여 이거.('출레' 해서는. 이거 먹고 아 이거 맛 좋겠다 이거.)

장아찌와 회

107055 @ 장아찌, 장아찌는 어 지시엔 허잖아예?(장아찌, 장아찌는 어 장아찌라고 하잖아요?)
107055 #2 예, 지시.(예, 장아찌.)
107055 @ 지시예. 지시.(예, 장아찌요. 장아찌.)
107055 #2 마농지시.(마늘장아찌.)
107055 @ 예.(예.)
107055 #2 파 저 콥데산이 지시.(파 저 마늘장아찌.)

107055 @ 마농, 예 콥데산이.((마늘, 예 마늘.)
107055 #2 예.(예.)
107055 @ 또 유는 무시건고?(또 들깨는 무엇인가?)
107055 #2 무시거?(무엇?)
107055 @ 아, 유입 예.(아, 들깻잎 예.)
107055 #2 유입 절인 거.(들깻잎 절인 거.)
107055 @ 유입지예?(들깻잎 장아찌요?)
107055 #2 응.(응.)
107055 @ 아, 유입지시.(아, 들깻잎장아찌.)
107055 #2 유입지.(들깻잎장아찌.)
107055 @ 유입지예.(들깻잎장아찌요.)
107055 #2 응.(응.)
107055 @ 유입이 깬닙이 아닌가?(들깻잎이 들깻잎이 아닌가?)
107055 #1 응, 깬닙이 유입이렌 ᄒᆞ고.(응, 들깻잎이 들깻잎이라고 하고.)
107055 #2 깬닙이 유입이우다게. 깬입이.(들깻잎이 들깻잎입니다. 들깻잎이.)
107055 @ 그 파초엔 헌 거가 잇어나신디. 파초가 옛날에 반하, 아니 반하.(그 파초라고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파초가 옛날에 반하, 아니 반하.)
107055 #2 파초엔 헌 거 난 몰르쿠다.(파초라고 한 거 난 모르겠습니다.)
107055 @ 파초엔 헌 거가 아 잇어나신디. 파초 저 그 무시거 닮은 거. 바나나 잎 같은 거예.(파초라고 한 것이 아 있었었는데. 파초 저 무엇 같은 거. 바나나 잎 같은 거요.)
107055 #1 아.(아.)
107055 @ 반치, 아니.(파초, 아니.)
107055 #1 거 저 무시거?(거 저 무엇?)
107055 @ 아니.(아니.)
107055 #1 반치.(파초.)
107055 #2 반치.(파초.)
107055 @ 반치이?(파초?)
107055 #2 응.(응.)
107055 @ 으 반치도.(으 파초도.)
107055 #2 저 그것도 지시 헹 먹어.(저 그것도 장아찌 해서 먹어.)
107055 @ 지시 했지예?(장아찌 했지요?)
107055 #2 응.(응.)
107055 @ 반치 닮은 거.(파초 같은 거.)
107055 #2 반치 저 뒌장에.(파초 저 된장에.)
107055 @ 묻어근에예?(묻어서요?)
107055 #2 예.(예.)

107055 @ 뒌장에.(된장에.)
107055 #2 그거 지시 헤근에에 먹어나서.(그거 장아찌 해서 먹었었어.)
107055 @ 뒌장 묻어근에ᄒᆞ고 양에, 양에.(묻어서하고 양하, 양하.)
107055 #2 예.(예.)
107055 @ 양하엔 헙니까? 양에엔 헙니까?(양하라고 합니까? 양하라고 합니까?)
107055 #2 양헷근 헤여근엥이 요세 지시헴젠 헤여 엿날엔 지실 안 혀고.('양엣근' 해서 이 요새 장아찌 한다고 해 옛날에는 장아찌를 안 하고.)
107055 @ 예.(예.)
107055 #2 솖아근엥이 무청 먹엇주.(삶아서 무쳐서 먹었지.)
107055 @ 아 양에는 지시 안 허고.(아 양하는 장아찌 안 하고.)
107055 #2 으.(으.)
107055 @ 솖앙 먹고예.(삶아서 먹어요.)
107055 #2 응, 양에끈 양에끈.(응, '양엣근' '양엣근.')
107055 @ 예.(예.)
107055 #2 또 양에도 그자 비영 솖앙 무처먹곡.(또 양하도 그저 베어서 삶아서 무쳐먹고.)
107055 @ 무처 먹고예?(무쳐 먹고요?)
107055 #1 어릴 적에.(어릴 적에.)
107055 #2 게난 지시엔 헌 건 엇주. 안 헷주게.(그러니까 장아찌라고 한 건 없지. 안 했지.)
107055 @ 지시는 안허고예.(장아찌는 안하고요.)
107055 #1 으, 거 크면은 그 거 밥 싸 먹으민.(으, 그거 크면 그거 밥 싸 먹으면.)
107055 @ 밥 싸 먹어도예.(밥 싸 먹어도요.)
107055 #1 또 맛잇서.(또 맛있어.)
107055 @ 예, 예 그 뒤엣 거 딱 꺾어근에.(예, 예 그 뒤에 거 딱 꺾어서.)
107055 #2 응.(응.)
107055 @ 영 헤도근에예.(이렇게 해두어서요.)
107055 #1 으.(으.)
107055 @ 예, 예.(예, 예.)
107055 @ 모자반, 몸도 지시 헤나신가마씨?(모자반, 모자반도 장아찌 했는가요?)
107055 #2 아니 그런 거 지시 안 혀. 그런 거 그자 몸국 끌일 때 헤 먹곡.(아니 그런 거 지시 안 해. 그런 거 그저 모자반 국 끓일 때 해 먹고.)
107055 @ 응.(응.)
107055 #2 무청 먹곡 헷주.(무쳐서 먹고 했지.)
107055 @ 응.(응.)

107055 #2 거 지시 ᄀᆞ뜬 건 안혀 봐서.(거 장아찌 같은 건 안 해봤어.)
107055 @ 응. 삼춘 그, 반치엔 허지예?(응. 삼촌 그, 파초라고 하지요?)
107055 #2 응, 반치이.(응, 파초.)
107055 @ 반치예?(파초요?)
107055 #2 응.(응.)
107055 #1 으 응.(으 응.)
107055 @ 그 반치예? 반치.(그 파초요? 파초.)
107055 #2 응.(응.)
107056 @ 마늘 마늘지시 만드는 법은?(마늘 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은?)
107056 #2 마늘지신 그자 저 소곰 헷당 건정 군장에 허는 거주마. 마농지신.(마늘장아찌는 그저 저 소금 했다가 건져서 간장에 하는 거지. 마늘장아찌는.)
107056 @ 아, 소금 해나신가마씨?(아, 소금 했는가요?)
107056 #2 소곰.(소금.)
107056 #1 몸 죽영.
107056 #2 몸을 너무 하영 죽이민 무시거, 그자 아쓱 헷다근에.(몸을 너무 많이 죽이면 무엇, 그저 조금 했다가.)
107056 @ 조끔.(조금.)
107056 #2 군장 부엉허고.(간장 부어서 하고.)
107056 @ 예 간장.(예 간장.)
107056 #2 또, 그자 잠시 빨리 먹젠 허민.(또, 그저 잠시 빨리 먹으려고 하면.)
107056 @ 예.(예.)
107056 #2 군장 허곡 물, 군장 반 물 반헤근엥에 끌영 식영.(간장 하고 물, 간장 반 물 반해서 끓여서 식혀서.)
107056 @ 예.(예.)
107056 #2 놓는 사람도 잇고.(넣는 사람도 있고.)
107056 @ 아.(아.)
107056 #2 ᄒᆞ쏠 따뜻헌 떼 놓왕 허민 빨리 먹곡.(조금 따뜻한 때 넣어서 하면 빨리 먹고.)
107056 @ 예에 물 온도에 따라 가지고예.(예에 물 온도에 따라 가지고요.)
107056 #2 으, 으.(으, 으.)
107056 @ 아, 아.(아, 아.)
107056 #2 경 헤근에 잇따근넹이 오레 잇당 먹을 사람은 그거 군장을 식영.(그렇게 해서 이따가 오래 이따가 먹을 사람은 그거 간장을 식혀서.)
107056 @ 예.(예.)
107056 #2 놓곡, 경 안 헤근넹이 ᄒᆞ는 사람은 싸라근엥이 그냥 그 단지에 담아 근넹에 따뜻 ᄒᆞᆫ 때.(넣고, 그렇게 안 해서 하는 사람은 썰어서 그냥 그 단지에 담아서 따뜻한 때.)

107056 @ 먹고예.(먹고요.)
107056 #2 놓곡.(넣고.)
107056 @ 예, 예, 예.(예, 예, 예.)
107056 #2 빨리 먹젠 허민.(빨리 먹으려고 하면.)
107056 @ 삼춘 이게 간장은 집에 장물 얘기 허는 거 아닛꽈예?(삼촌 이것이 간장은 집에 간장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요?)
107056 #1 응.(응.)
107056 @ 장물예.(간장요.)
107056 #2 응, 집에 근장 담은 거게.(응, 집에 간장 담은 거.)
107056 @ 예 간장 담은 거.(예 간장 담은 거.)
107056 #2 겐디 요셋 어른덜은 그거 먹엄서? 평엣 거 사당 먹엄주.(그런데 요새의 어른들은 그거 먹고 있니? 병에 거 사다가 먹고 있지.)
107056 @ 펭엣 거 사단 허주예. 옛날은?(병에 거 사다가 하지요. 옛날은?)
107056 #1 우린 담은 거 먹어.(우린 담근 거 먹어.)
107056 @ 아, 지금도.(아, 지금도.)
107056 #2 응.(응.)
107056 @ 담은 거예? 예. 담은 거가 좋은 거주마씨. 나도 장은 담앙 먹읍니다. 된장허고 장물허고 겐디 맛 좋아예. 식게 헐 때도 그걸로 딱 노민예. 그 그예 참.(담근 거요? 예. 담근 것이 좋은 거지요. 나도 장은 담가서 먹습니다. 된장하고 간장하고 그런데 맛 좋아요. 제사 할 때도 그걸로 딱 넣으면요. 그 그요 참.)
107056 #2 근장 둠앙 먹어사 뒈주게.(간장 담가서 먹어야 되지.)
107056 @ 예, 예 건강에 좋고예.(예, 예 건강에 좋고요.)
107056 #2 게난 요세 싸름덜은 그거 짜다 무신 맛 엇다. 허멍 허난.(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그거 짜다 무슨 조금 맛 없다. 하면서하니까.)
107056 @ 응.(응.)
107056 #2 짜민 ᄒᆞ끔만 놓라. 핫, 핫, 핫, 핫.(짜면 조금만 넣으라. 핫, 핫, 핫, 핫.)
107056 @ 아, 아.(아, 아.)
107056 #2 짜민 ᄒᆞ끔만 놓라.(짜면 조금만 넣으라.)
107056 @ 아.(아.)
107056 #2 게민 무신 물도 ᄒᆞ쏠 국도 ᄒᆞ쏠 검으릉 헴저 허민.(그러면 무슨 물도 조금 국도 조금 거무스름 한다고 하면.)
107056 @ 어.(어.)
107056 #2 검어도 근장 논거난 어떵 안 헌다 난 경 ᄒᆞ멍.(검어도 간장 넣은 거니까 어떻게 안 한다 난 그렇게 하면서.)
107056 @ 예, 예, 예. 검으릉 검으릉 헐수록 그거가 오래되고 좋은 거렌 허난에. 그거가 그 요구르트 우리 먹는 약 먹는 거예? 거 그것보다도 몇 천 배여, 몇 만

배엔 허난예. 그게 좋은 거렌 허난.(예, 예, 예. 거무스름 거무스름할수록 그것이 오래되고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것이 그 요구르트 우리 먹는 약 먹는 거요? 그거 그것보다도 몇 천 배다, 몇 만 배라고 하니까요. 그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107056 #2 게난 요세 싸름덜 그거 먹젠 헴서게?(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그거 먹으려고 하고 있어?)

107056 @ 응.(응.)

107057 @ 회?(회?)

107056 #2 소곰 놩 끌영 먹젠 ᄒᆞ곡.(소금 넣어서 끓여서 먹으려고 하고.)

107057 @ 하, 하하.(하, 하하.)

107056 @ 멩물에 소금예.(맹물에 소금요.)

107056 #2 응.(응.)

107057 @ 회, 회 종류에 대해 ᄀᆞᆯ아줍서. 자리회 새끼회?[262](회, 회 종류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자리회 '새끼회?')

107057 #2 회?(회?)

107057 @ 예. 자리회 아까헌 거.(예. 자리회 아까 한 거.)

107057 #2 자리회.(자리회.)

107057 @ 예.(예.)

107057 #2 어렝이회.('어렝놀래기회.')

107057 @ 어렝이회.('어렝놀래기회.')

107057 #2 또 그다음 무시거라?(또 그다음 무엇이야?)

107057 @ 어렝이회.('어렝놀래기회.')

107057 #2 아니 게난에 저 무시거니? 오징어회.(아니 그러니까 저 무엇이니? '오징어회.')

107057 @ 예 인칙에 막 ᄀᆞᆯ아신디예.(예 일찍이 아주 말했는데요.)

107057 #2 으, 오징에회.(으, '오징어회.')

107057 @ 솔라니도 헤기네 조기회도 잇고예?(옥돔도 해서 조기회도 있고요.)

107057 #2 으.(으.)

107057 @ 또 오징어.(또 오징어.)

107057 #1 거 회가 족아게.(거 회가 적어.)

107057 @ 문어회 뭐.(문어회 뭐.)

107057 #2 문어.(문어.)

107057 #1 광어.(광어.)

107057 @ 옛날에도 광어 잇어나수꽈?(옛날에도 광어 있었습니까?)

107057 #1 광어? 아 엿날에에.(광어? 아 옛날에.)

107057 @ 예, 예.(예, 예.)

107057 #1 아 엿날에도 광어 잇엇주게.(아 옛날에도 광어 있었지.)

---

262) '새끼회'는 1, 2개월 된 돼지 태를 손질하여 다진 다음에 갖은 양념을 하여 쳐서 만든 촛국이다.

107057 @ 으 바닷 속엣 거예?(으 바다 속에 거요?)
107057 #1 으 바다 속에.(으 바다 속에.)
107057 @ 자연산.(자연산.)
107057 #1 바다 속에 바닥에 그 진짜베기.(바다 속에 바닥에 그 진짜배기.)
107057 @ 으 으.(으 으.)
107057 #2 문어 문어회도 잇고게. 무신 회가 족아서.(문어 문어회도 있고. 무슨 회가 작아서.)
107057 @ 청각?(청각?)
107057 #2 성게 성게훼도 잇어고게.(성게 '성게회'도 있었고.)
107057 @ 예 성게.(예 성게.)
107057 #2 청각도 헤영 회헹 먹곡게.(청각도 해서 회해서 먹고.)
107057 @ 예 청각도 허고예.(예 청각도 하고요.)
107057 #2 응, 무시거 뭐 갯것 거 훼 안, 못헹 먹는 것가 잇어?(응, 무엇 뭐 바에것 거 회 안, 못해서 먹는 것이 있어?)
107057 @ 새끼회도 헤나신가마씨?('새끼회'도 했는가요?)
107057 #2 으, 새끼회도 헹 먹어나고게.(으, '새끼회'도 해서 먹었었고.)
107057 @ 새끼회도예?('새끼회'도요?)
107057 #2 응.(응.)
107057 @ 뭐 밧, 저 갯 거시. 그 저기 전복으로도 물회 해나지 안 해나수과? 옛날에.(뭐 밭, 저 바다 것이. 그 저기 전복으로도 물회 해나지 안 했었습니까?)
107057 #2 아이고 전복으로 물회 헤영.(아이고 전복으로 물회 해서.)
107057 @ 고등어도 헤나고.(옛날에, 고등어도 했었고.)
107057 #1 전복물회 헐 게 어디 서?(전복물회 할 거 어디 있니?)
107057 #2 물회를 물회가 어떵 헹 먹을 말이라. 못 헹 먹어.(물회를 물회가 어떻게 해서 먹을 말이야. 못 해서 먹어.)
107057 #1 헤, 헤, 헤, 헷.(헤, 헤, 헤, 헷.)
107057 #2 전복 물횐 안 헹 먹어보고. 솔레기물회 헤영 먹곡.(전복 물회는 안 해서 먹어보고. '옥돔물회' 해서 먹고.)
107057 @ 아.(아.)
107057 #2 저 춤 어렝이.(저 참 어렝놀래기.)
107057 @ 어렝이물회ᄒᆞ곡예.('어렝놀래기물회'하고요.)
107057 #2 물회 허곡.(물회 하고.)
107057 #1 자리.(자리돔.)
107057 #2 자리회 허곡.(자리회 하고.)
107057 #1 아, 뭐 그자 문문헌 건 어렝이물회 자리물회주 뭐.(아, 뭐 그저 만만한 건 어렝놀래기물회 '자리물회지' 뭐.)
107057 @ 예.(예.)

107057 #2 경 ᄒᆞ곡.(그렇게 하고.)
107057 #1 헐 허고.(헐 하고.)
107057 #2 회 무청 먹는 거는 멜 멜도 회헹 먹어.(회 무쳐서 먹는 거는 멸치 멸치도 회해서 먹어.)
107057 @ 멜.(멸치.)
107057 #2 회 무청 먹는 거 멜도 뭐 ᄒᆞ면은 맛잇어.(회 무쳐서 먹는 거 멸치도 뭐 하면은 맛있어.)
107057 #1 거 츰 싹 ᄒᆞ게.(거 참 싹 하게.)
107057 @ 예.(예.)
107057 #1 가죽 ᄉᆞ이엣 거 뻬 떼도근에.(가죽 사이에 거 뼈 떼어서.)
107057 @ 아.(아.)
107057 #1 훼 ᄒᆞ면은.(회 하면.)
107057 @ 싱싱헌 떼?(싱싱한 때?)
107057 #1 음.(음.)
107057 @ 부드럽고예.(부드럽고요.)
107057 #1 싱싱 안 혀.(싱싱 안 해.)
107057 #2 아니 싱싱ᄒᆞᆫ 거는 더 궂읍니께.(아니 싱싱한 거는 더 궂습니다.)
107057 @ 아.(아.)
107057 #2 ᄒᆞ쏠 저 물 가 가듯 ᄒᆞ는 걸 헤영 헤사.(조금 저 물 가 가듯 하는 걸 해서 해야.)
107057 @ 아.(아.)
107057 #2 장만헤영 영영 헤 가민 비늘 다 벗어저불곡.(장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면 비늘 다 벗겨져 버리고.)
107057 @ 아, 아.(아, 아.)
107057 #2 경 허민.(그렇게 하면.)
107057 @ 냄새 안 나곡 어.(냄새 안 나고 어.)
107057 #2 짝 쩨어근에 가운디 꽝.(찢어서 가운데 뼈.)
107057 #1 꽝차.(뼈째.)
107057 #2 꼴랑지 끗차두고 헹 그 술만 헹 허민 잘도 맛잇입니게.(꼬리 끊어두고 해서 그 살만 해서 하면 잘도 맛있습니다.)
107057 @ 응 저기, 그.(응 저기, 그.)
107058 @ 이 시절에 따라 계절에 따라예. 반찬들이 잇지 아니우꽈예? 그 우럭조림은 여름에 많이 먹읍니까?(이 시절에 따라 계절에 따라요. 반찬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 우럭조림은 여름에 많이 먹습니까?)
107058 #2 무신 조림?(무슨 조림?)
107058 @ 우럭, 우럭.(우럭, 우럭.)
107058 #2 우럭?(우럭?)

107058 @ 예, 예. 조령 먹는 거.(예, 예. 조려서 먹는 거.)

107058 #2 아니 우럭 조림은 아무 떼 먹어도 우럭은 존 거.(아니 우럭 조림은 아무 때 먹어도 우럭은 좋은 거.)

107058 #1 헤, 헤, 헷.(헤, 헤, 헷.)

107058 @ 응 우럭은예?(응 우럭은예?)

107058 #2 우럭은. 저슬에 먹어도 좋고, 여름에 먹어도 좋고 가을에 먹어도 좋고. 우럭은.(우럭은 겨울에 먹어도 좋고, 여름에 먹어도 좋고 가을에 먹어도 좋고. 우럭은.)

107058 @ 응.(응.)

107058 #2 원 아무 떼 먹어도 존디.(원 아무 때 먹어도 좋은데.)

107058 #1 가시가 한.(가시가 많아.)

107058 @ 응.(응.)

107058 #2 춤 까시가 함으로 그거주. 뭐 춤 제일 맛잇는 거 우럭인디. 경 헌디.(참 가시가 많음으로 그거지. 뭐 참 제일 맛있는 거 우럭인데 그런데.)

107058 @ 응.(응.)

107058 #2 그자 저 조기가 이 떼 맛잇일 철인가?(그저 저 조기가 이 때 맛있을 철인가?)

107058 @ 조기?(조기?)

107058 #2 응.(응.)

107058 @ 조기는 쫌 추울 떼?(조기는 좀 추울 때?)

107058 #2 응, 추울 떼.(응, 추울 때.)

107058 @ 아.(아.)

107058 #2 경 ᄒᆞ곡.(그렇게 하고.)

107058 @ 아, 조림예.(아, 조림요.)

107058 #2 응.(응.)

107058 #1 솔레기도 지금이 맛실 떼주머.(옥돔도 지금이 맛있을 때지.)

107058 #2 게 솔레기사게 체 ᄀᆞᆯ을 거꽈? 솔레기사. 핫.(그럼 옥돔이야 체 말을 할 것입니까? 옥돔이야. 핫)

107058 @ 어, 핫. 솔레기야.(어, 핫. 옥돔이야.)

107058 #2 핫, 핫.(핫, 핫.)

107058 @ 으 솔레기 조림ᄒᆞ고 또 겨울에 조림헤서 먹는 거는 고등에?(으 옥돔 조림하고 또 겨울에 조림해서 먹는 거는 고등어?)

107058 #2 고등에.(고등어.)

107058 @ 고등에예? 고등에. 고등에 조림.(고등어요? 고등어. 고등어 조림.)

107058 #2 으 고등에 조림 ᄒᆞ곡게. 지금 무시거 뭐 겨울에 먹는 거 동테ᄒᆞ곡 무시거 그런 거.(으 고등어조림 하고. 지금 무엇 뭐 겨울에 먹는 거 동태하고 무엇 그런 거.)

107058 @ 각 각제기도 여름에.(전 전갱이도 여름에.)
107058 #2 각제기도 뭐.(전갱이도 뭐.)
107058 @ 겨울에 아니.(겨울에 아니.)
107058 #2 으.(으.)
107058 @ 겨울에 각제기 졸여근에.(거울에 전갱이 졸여서.)
107058 #1 견디 각제기가 겨울에 안 나.(그런데 전갱이가 겨울에 안 나.)
107058 #2 응 봄 나가사 나.(응 봄 나야 나.)
107058 #1 봄 나사.(봄 나야.)
107058 @ 아, 봄예?(아, 봄요?)
107058 #2 예.(예.)
107058 @ 봄에는 각제기 조림예?(봄에는 전갱이 조림요?)
107058 #2 응, 각제기.(응, 전갱이.)
107058 @ 봄에 각제기 조림.(봄에는 전갱이 조림.)
107058 #2 봄 나가사 각제기 조림ᄒᆞ곡. 갈치도 저 거시기.(봄 나가야 전갱이 조림하고. 갈치도 저 거시기.)
107058 #1 건 가을 뒈사.(건 가을 되야.)
107058 #2 가을뒈어 구시월 뒝.(가을되어 구시월 되어서.)
107058 @ 가을 으 구시월예?(가을 으 구시월요?)
107058 #1 응.(응.)
107058 #2 이제 맛잇을 거라 갈치.(이제 맛있을 거야 갈치.)
107058 @ 응.(응.)
107058 #2 이젯꼬지 맛잇실 거우다 갈치.(이제까지 맛있을 겁니다 갈치.)
107058 @ 예, 시월 달 십일월 달부터 맛 좋덴 헙디다머예.(예, 시월 달 십일월 달부터 맛 좋다고 합디다뭐요.)
107058 #2 응.(응.)
107058 @ 예 저기 그러면 겨울에 조림이 맛 좋은 거는. 어, 또 저 돼지고기도 장물 놔근에 졸여근에 먹지 안읍니까예?(예 저기 그러면 겨울에 조림이 맛 좋은 거는. 어, 또 저 돼지고기도 간장 넣어서 졸여서 먹지 않습니까요?)
107058 #1 아이고 막 그 저 아이들 그 술만 헹 헤 주민 좋주게.(아이고 막 그 저 아이들 그 살만 해서 해주면 좋지.)
107058 @ 돼지고기예?(돼지고기요?)
107058 #2 뒈에지고기에 근장 놩 조림헤영.(돼지고기에 간장 넣어 조림해서.)
107058 @ 예.(예.)
107058 #2 경 헹 ᄒᆞ민.(그렇게 해서 하면.)
107058 @ 예 간장 놔근에예?(예 간장 넣어서요?)
107058 #2 예 조림헤영.(예 조림해서.)
107058 @ 뭐 저 소고기.(뭐 저 소고기.)

107058 #2 뭐 저 메추리 알이나 ᄒᆞ쏠 놓고 헹.(뭐 저 메추리알이나 조금 넣고 해서.)
107058 @ 예 소고기 같은 거는 어려워근에.(예 소고기 같은 거는 어려워서.)
107058 #2 응.(응.)
107058 @ 허주만은예.(하지만은요.)
107058 #2 소고기는 너무 저 질겨.(소고기는 너무 저 질겨.)
107058 @ 아.(아.)
107058 #2 게난 뒈지고기가 술로 아이덜 헤영 주민.(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살로 아이들 해서 주면.)
107058 @ 응.(응.)
107058 #2 잘 먹어.(잘 먹어.)
107058 @ 음 봄에는 각제기.(음 봄에는 전갱이.)
107058 #2 각제기.(전갱이.)
107058 @ 또 뭐 잇인고마씨? 봄에는?(또 뭐 있는가요? 봄에는?)
107058 #2 알아지크라? 뭣사 허민 좋을 것산디. 허, 허, 헛.(알아지겠어? 뭣이야 하면 좋을 것인지. 허, 허, 헛.)
107058 @ 음 조림 어.(음 조림 어.)
107058 #2 바당고기는 아무 떼나 조림이 헤도.(바닷고기는 아무 때나 조림을 해도.)
107058 @ 아무 떼나.(아무 때나.)
107058 #2 맛만 곤만 잘 맞춰 허민 다 맛 잇입니다게.(맛만 간만 잘 맞춰서 하면 다 맛 좋습니다.)
107058 @ 음 조림ᄒᆞ고 겨울에 제일 맛좋은 음식은 무시건고예?(음 조림하고 겨울에 제일 맛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107058 #2 젤 젤 맛잇은 건. 이 성산포에서 솔레기주마.(젤 젤 맛있는 건. 이 성산포에서 옥돔이지.)
107058 @ 겨울에?(겨울에?)
107058 #2 예, 겨울에.(예, 겨울에.)
107058 @ 솔레기.(옥돔.)
107058 #2 지금양, 일로부터 섯덜 씩에 막 맛 좋아.(지금요, 이리로부터 섣달 사이에 아주 맛 좋아.)
107058 @ 아.(아.)
107058 #2 섯 둘 넘엉 정월 넘어사 가민 ᄒᆞ꼼 맛이 뭐헤 가주양?(섣달 넘어서 정월 넘어서 가면 조금 뭐해 가지요?)
107058 @ 아.(아.)
107058 #2 이제 부터양.(이제 부터요.)
107058 @ 섯달 사이에?(섣달 사이에?)

107058 #2 섯둘 정월은 잘도 맛잇어.(섣달 정월은 잘도 맛있어.)

107058 @ 옛날에도 그 솔레기 많이 나와나수과?(옛날에도 그 옥돔 많이 나왔었습니까?)

107058 #1 으.(으.)

107058 @ 구워근에.(구워서.)

107058 #2 으 으.(으 으.)

107058 @ 옛날에예. 성산포.(옛날에요. 성산포.)

107058 #1 게난 고기가 겨울 들면은 솔레기는 술찌거든. 게 모든 게 술 찔 때가 제일 맛 인거라.(그러니까 고기가 겨울 들면 옥돔은 살찌거든. 그럼 모든 것이 살 찔 때가 제일 맛있는 거야.)

107058 @ 아 옛날에도 그 그건 풍선으로 강으넹에 잡아 와신가마씨?(옛날에도 그 그건 풍선으로 가서 잡아 왔는가요?)

107058 #2 엿날에 풍선으로 강 허민게 자꾸 불려낭.(옛날에 풍선으로 가서 하면 자꾸 불려나서.)

107058 #1 건 건 낙씨.(건 건 낚시.)

107058 @ 주낙?(주낙?)

107058 #2 낙씨로 낙까 온 거난 얼마나게.(낚시로 낚아 온 거니까 얼마나.)

107058 #1 낙끄는 거난.(낚는 거니까.)

107058 @ 으.(으.)

107058 #2 게난 성산 솔레기가 세어 나수다. 옛날에.(그러니까 성산 옥돔이 헤아렸었습니다. 옛날에.)

107058 @ 예, 예.(예, 예.)

107058 #2 엿날부터 경 헌디 이젠 솔레기 성산 솔레기가 잇수꽈?(옛날부터 그렇게 한데 이젠 옥돔 성산 옥돔이 있습니까?)

107058 #1 다 헤, 헤, 헤, 헷.(다 헤, 헤, 헤, 헷.)

107058 #2 어디사 간 잡앙 왐신디. 하, 핫.(어디야 가서 잡아서 오고 있는지. 하, 핫.)

107058 @ 음.(음.)

107058 #2 경 헤도.(그렇게 해도.)

107058 @ 맛 좋아예.(맛 좋아요.)

107058 #2 이 지방엣게 맛 존넨 헙니다.(이 지방에 것이 맛 좋다고 합니다.)

107058 @ 맞수다.(맞습니다.)

107058 #2 이 저 페선[263]이 저 짝엣 건 맛업덴.(이 저 '표선'이 저 쪽에 것은 맛없다고.)

107058 @ 응.(응.)

107058 #2 솔레기도.(옥돔도.)

263) '페선'은 서귀포시 성산읍 행정마을 중 표선마을이다.

107058 #1 여깃게 게 두껍주.(여기 것이 두껍지.)
107058 @ 아.(아.)
107058 #1 응.(응.)
107058 @ 잡으레 가는 지경이 잇일거우다뭐.(잡으러 가는 지경이 있을 겁니다.)
107058 #1 응.(응.)
107058 #2 아마도 경 헴신고라.(아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107058 @ 예, 예, 예.(예, 예, 예.)
107058 #2 이 성산지방에서.(이 성산지방에서.)
107058 @ 응.(응.)
107058 #2 이제 픈는 솔레기는 두껍고 맛잇고.(이제 파는 옥돔은 두껍고 맛있고.)
107058 @ 응.(응.)
107058 #2 이 저 거시기로 표선으로 저 짝더렌.(이 저 거시기로 표선으로 저 쪽으로는.)
107058 @ 남군 더렌.(남군 쪽으로는.)
107058 #2 예.(예.)
107058 #1 얄바 헤영헤여.(얇아 하얘서.)
107058 #2 얄브곡 맛이 엇덴 헙네다.(얇고 맛이 없다고 합니다.)
107058 #1 몰르민 헤영.(마르면 하얘서.)
107058 @ 아.(아.)
107058 #1 여긴 벌경.(여기는 붉어.)
107058 @ 응.(응.)
107058 #2 예.(예.)
107058 @ 겨울에는 솔레기. 겨울에는예. 솔레기가 반찬예?(겨울에는 옥돔. 겨울에는요. 옥돔이 반찬요?)
107058 #2 으.(으.)
107058 @ 제일 맛 좋은 거 반찬예.(제일 맛 좋은 거 반찬요.)
107058 #2 예.(예.)
107058 @ 그냥 겨울에 반찬은 뭐 김치허고.(그냥 겨울에 반찬은 뭐 김치하고.)
107058 #2 김치허곡게 무신 파 김치허곡게.(김치하고 무슨 파김치하고.)
107058 @ 예 김치종류예.(예 김치종류요.)
107058 #2 으, 짐치종류 그런 거 헹 먹주 무신.(으, 김치종류 그런 거 해서 먹지 무슨.)
107058 @ 국, 뭐 국이나 뭐 따뜻헌 국 헤서 뭐 콩국.(국, 뭐 국이나 뭐 따뜻한 국 해서 뭐 콩국.)
107058 #2 따뜻흔 거에 뭰장국 뭐 눼지 안 허는 거 그거 그자 메 날 끌영 먹엉 헤, 헤 헷.(따뜻한 것에 뭐 된장국 뭐 눼지 안 하는 거 그거 그저 매 날 끓여서 먹

어 헤, 헤 헷.)
107058 @ 예, 예. 된장국예. 여름에 맛 좋은 거는 외, 저기 웨예?(예, 예. 된장국요. 여름에 맛 좋은 거는 오이, 저기 오이요?)
107058 #2 웨? 웨넹국.(오이? 오이냉국.)
107058 @ 예 외냉국예.(예 오이냉국요.)
107058 #2 응.(응.)
107058 @ 웨넹국.(오이냉국.)
107058 #2 웨 놓곡 머 저 거시기 오징에나 데우청 싸라 놓고 허민 머.(응, 오이 넣고 뭐 저 거시기 오징어나 데워서 썰어 넣고 하면 뭐.)
107058 @ 예, 외냉국 헤가지고.(예, 오이냉국 해가지고.)
107058 #2 잘도 맛 좋주 마.(잘도 맛 좋지 뭐.)
107058 @ 예 반찬이 외냉국허고 여름에는 또 저 지시덜 놔근에예.(예 반찬이 오이냉국하고 여름에는 또 저 장아찌들 넣어서요.)
107058 #2 예.(예.)
107058 @ 젓갈 젓허고예.(젓갈 젓하고요.)
107058 #2 예, 지시, 마농지시허곡.(예, 장아찌, 마늘장아찌하고.)
107058 @ 예.(예.)
107058 #2 저 거시기 무시거니 셍기리 지시 허곡게.(저 거시기 무엇이니 무말랭이 장아찌 하고.)
107058 @ 아, 생기리예 생기리.(아, 무말랭이요, 무말랭이.)
107058 #2 경 헤근넹이 헤영 여름에.(그렇게 해서 해서 여름에.)
107058 @ 지시예.(장아찌요.)
107058 #1 자리회 어렝이회.(자리회 어렝놀래기회.)
107058 @ 예, 예.(예, 예.)
107058 #1 젤 물회 맛잇주.(젤 물회 맛있지.)
107058 @ 물회 맛 좋은거예. 그 봄에는 반찬이 ᄒᆞ끔 저기 헐 건디. 이때도 김치도 뭐.(예, 물회 맛 좋은 거요. 그 봄에는 반찬이 조금 저기 할 건데. 이때도 김치도 뭐.)
107058 #2 김치 종류로 먹엄주게.(김치 종류로 먹고 있지.)
107058 @ 예.(예.)
107058 #2 김치게 뭐 저 알타리 무수김치도 허고.(김치 뭐 저 총각무 무김치도 하고.)
107058 @ 무수 김치도 허고.(무수 김치도 하고.)
107058 #2 또 총각김치도 허곡게.(또 총각김치도 하고.)
107058 @ 예, 예.(예, 예.)
107058 #2 경 혀근에 먹엄주 무신 뭐.(그렇게 해서 먹고 있지 무슨 뭐.)
107058 @ 예, 가을에는 갈치허고 저기 반찬이 가을에는 가을에도.(예, 가을에는

갈치하고 저기 반찬이 가을에는 가을에도.)
107058 #1 가을에도 이것저것 뭐.(가을에도 이것저것 뭐.)
107058 @ 젓갈예? 젓갈 익어근에.(젓갈요? 젓갈 익어서.)
107058 #1 똑 ᄒᆞ나만 먹어저게.(딱 하나만 먹어지니.)
107058 @ 맞수다.(맞습니다.)
107058 #1 게난 나는 건 다 먹어 허.(그러니까 나는 건 다 먹어 허.)
107058 #2 허, 허, 헛.(허, 허, 헛.)
107058 #1 헤, 헤, 헤, 헷.(헤, 헤, 헤, 헷.)
107058 @ 예, 예. 자리젓도 헤가지고.(예, 예. 자리젓도 해가지고.)
107058 #2 으, 자리젓도 뭐.(으, 자리젓도 뭐.)
107058 @ 그거 저기.(그거 저기.)
107058 #2 잇당 먹곡.(이따가 먹고.)
107058 #1 으.(으.)
107058 @ 촐밧 헐 떼.(꼴밭 할 때.)
107058 #2 으.(으.)
107058 @ 가저 강 먹고예, 자리젓도 허곡. 뭐 조림이야 뭐 이것저것.(가져가서 먹고요, 자리젓도 하고. 뭐 조림이야 뭐 이것저것.)
107058 #2 으 이것저것.(으 이것저것.)
107058 @ 헤가지고.(해가지고.)
107058 #2 허곡게 무신.(하고 무슨.)
107058 @ 응.(응.)
107058 #1 갈치 구웡도 먹곡.(갈치 구워서도 먹고.)
107058 @ 예, 예 경허고.(예, 예 그렇게 하고.)
107058 #1 갈치 구우민 얼마나 맛이 잇서.(갈치 구우면 얼마나 맛이 있어.)
107058 @ 아, 그리고 여름에는 호박.(아, 그리고 아, 여름에는 호박.)
107058 #1 으.(으.)
107058 #2 호박국? 팔월 나민.(호박국? 팔월 나면.)
107058 @ 예 팔월 나민 호박국예. 겨울에는 호박국허고.(예 팔월 나면 호박국요. 겨울에는 호박국 하고.)
107058 #1 호박에 갈치국[264] 끌여야 젤 맛잇곡.(호박에 갈치국 끓여야 젤 맛있고.)
107058 @ 예 호박에 갈치국예 맞수다 갈치국.(예 호박에 갈치국요 맞습니다 갈치국.)
107058 #2 여름엔 갈치국 맛엇엉 구시월 나사.(여름에는 갈치국 맛없어서 구시월 나야.)
107058 @ 아, 구시월 나사예?(아, 구시월 나야요?)

264) '갈치국'은 호박과 갈치를 넣고 국으로 끓인다.

107058 #2 예.(예.)
107058 @ 갈치국이 십일월 이후부턴.(갈치국이 십일월 이후부턴.)
107058 #2 예.(예.)
107058 @ 맛 좋으니깐은예.(맛 좋으니까는요.)
107058 #2 예.(예.)
107058 @ 어 서서이. 장 담그는 거까지 허게마씸요? 딱 허면 되 뭠직허우다.(어 서서히. 장 담그는 거까지 하게요? 딱 하면 그러면 되 되겠습니다.)

장 담그기

107059 @ 삼춘 장은 언제 둠음니까?(삼촌 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2 장?(장?)
107059 @ 예.(예.)
107059 #2 섯둘 우린 섯둘 그믐에 둠아.(섣달 우린 섣달 그믐에 담가.)
107059 @ 섯둘 그음 거문 저기 멩질 츠려 놔근에.(섣달 그음 그러면 저기 명절 차려 놔서.)
107059 #2 멩질 전이게 멩질 아시날게.(명절 전에 명절 전날.)
107059 @ 아시날 섯둘거문 멩질 아시날예?(전날 섣달 그러면 명절 전날요?)
107059 #2 응 경 허고.(응 그렇게 하고.)
107059 @ 아 담그는 거가 멩질 아시날 둠가예?(아 장 담기가 명절 전날 담가요?)
107059 #2 응.(응.)
107059 @ 아시날.(전날.)
107059 #2 솖는 건 동짓둘에 솖아사.(삶는 건 동짓달에 삶아야.)
107059 @ 예, 솖기는예.(예, 삶기는요.)
107059 #2 응.(응.)
107059 @ 동짓둘에예.(동짓달에요.)
107059 #2 응.(응.)
107059 @ 응, 동짓둘예.(응, 동짓달요.)
107059 #2 응.(응.)
107060 @ 그 종류는 장 종류는 어떤 것이 잇인고마씨?(그 종류는 장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107060 #2 장 종뉴는게, 무시거게. 어떵 헤게.(장 종류는, 무엇. 어떻게 해.)
107060 @ 뭰장 ᄒᆞ고.(된장 하고.)
107060 #2 뭰장 ᄒᆞ곡 ᄀᆞ장 ᄒᆞ곡게.(된장 하고 간장 하고.)
107060 @ 간장ᄒᆞ곡(간장하고)
107060 #2 또.(또.)
107060 @ 간장? 장물?(간장? 간장.)

107060 #2 군장.(간장.)
107060 @ 어.(어.)
107060 #2 장물.(간장.)
107060 @ 장물예.(간장요.)
107060 #2 장물게 장 ᄃᆞ문 간장 된장ᄒᆞ고게.(간장 장 달면 간장 간장하고.)
107060 @ 뒌장 장물ᄒᆞ고.(된장 간장하고.)
107060 #2 에 저 담는 딘 막장도 담고.(에 저 담는 데는 막장도 담고.)
107060 @ 막장도 담고.(막장도 담고.)
107060 #2 으.(으.)
107060 @ 어.(어.)
107060 #2 고치장도 담고게.(고추장도 담고.)
107060 @ 고치장도예.(고추장도요.)
107060 #2 으.(으.)
107060 @ 고치장도 담고. 막장이엔 헌 거는 저기.(고추장도 담고. 막장이라고 한 거는 저기.)
107060 #2 군장 안 빼영 그자 ᄒᆞ는 거 막장.(간장 안 빼어서 그저 하는 것이 막장.)
107060 @ 간장 안 빼여근에예?(간장 안 빼서요?)
107060 #2 으 가 저기.(으 가 저기.)
107060 @ 바로 허는 거예. 예?(바로 허는 거요. 예?)
107060 #2 메주 쑤엉 티왕. 장담글 때 이제 소곰을 골아 놓고 헤영 그거. 이제 메주를 벌러지민 벌르고 못 벌르민 그자 헤영 그 물에.(메주 쑤어서 띠워서. 장담을 때 이제 소금 갈아 넣고 해서 그거. 이제 메주를 쪼개지면 쪼개고 못 쪼개면 그저 해서 그 물에.)
107060 @ 그 물에?(그 물에?)
107060 #2 뒌장에 맞게 놓와근넹이.(된장에 맞게 넣어서.)
107060 @ 예.(예.)
107060 #2 헤영 ᄌᆞ늘민.(해서 무르면.)
107060 @ 되는 거?(되는 거?)
107060 #2 뀌여근엥이 그 군장 빼지 안 헹 ᄒᆞᆫ 게 막장.(이겨서 그 간장 빼지 안 해서 한 것이 막장.)
107060 @ 그냥 그대로예?(그냥 그대로요?)
107060 #2 으, 그자로.(으, 그저로.)
107060 @ 예.(예.)
107060 #2 ᄒᆞᆫ 게 막장.(한 것이 막장.)
107060 @ 예 간장 엇이 ᄒᆞ는 게 막장예?(예 간장 없이 하는 것이 막장요?)
107060 #2 으.(으.)

107060 #1 뒌장도 맛좋은 뒌장이 될 거주.(대체적으로 맛좋은 된장이 될 거지.)
107060 #2 으, 경 허민 막장으로 맛좋은 뒌장.(으, 그렇게 하면 막장으로 맛좋은 된장.)
107061 @ 으 뒌장은 어 메주헤기네 아니 저기 콩 솖앙.(으 된장은 어 메주해서 콩 삶아서.)
107061 #2 으, 콩 솖앙.(으, 콩 삶아서.)
107061 @ 콩 솖앙.(콩 삶아서.)
107061 #2 메주 멘들앙.(메주 만들어서.)
107061 @ 예 메주 헤근에 틔왕.(예 메주 해서 띄워서.)
107061 #2 틔왕.(띄워서.)
107061 @ 메주 틔우는 디 이거는 저 무시거가 잇어야 뒐 거 아니우꽈?(메주 띄우는데 이거는 저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7061 #2 산듸찦.(밭볏짚.)
107061 @ 저 나록, 산듸찦.(저 벼, 밭볏짚.)
107061 #2 산듸찦으로 돌아메영.(밭볏짚으로 달아매어서.)
107061 @ 산듸찦헤영 돌아메여근네예.(밭볏짚해서 달아매어서요.)
107061 #2 으, 이제 뜨민.(으, 이제 뜨면.)
107061 @ 예.(예.)
107061 #2 뜨민, 이제 다 말르민 섯돌그믐 뒈민 누려왕 씻엉, 근장. 그 장 둠아.(뜨면, 이제 다 마르면 섣달그믐 되면 내려서 씻어서 간장 그 장담아.)
107061 @ 잘 말려사예.(잘 말려서요.)
107061 #2 응.(응.)
107061 @ 예, 잘 말려서, 뜬덴 허면은예. 색깔이 어느 정도 어떤 색이 많이 나사 될 건고마씨?(예, 잘 말려서, 뜬다고 하면은요. 색깔이 어느 정도 어떤 색이 많이 나야 될 건가요?)
107061 #2 아니 장을 헤보민 어떤 땐 하양케 뜨곡.(아니 장을 해보면 어떤 땐 하얗게 뜨고.)
107061 @ 예.(예.)
107061 #2 어떤 뗀 까망케 트곡 헹 원 어떵 일이산디.(어떤 땐 까맣게 뜨고. 해서 어떤 일인지.)
107061 @ 아 어떤 뗀 까맣고 어떤 땐 희고예?(아 어떤 땐 까맣고 어떤 땐 희고요?)
107061 #2 응.(응.)
107061 @ 예 거는 뭐 상관엇이 꼭 ᄀᆞ찌 헤도예?(예 그거는 뭐 상관없이 꼭 같이 해도요?)
107061 #2 으.(으.)
107061 @ 예.(예.)

107061 #2 꼭 ᄀᆞ치헤도 경허여 원 어떵 연 일산디.(꼭 같이해도 그렇게 해 원 어떻게 한 일인지.)

107061 @ 말리는 ᄆᆞᆯ리는 기간도 혼두 달 정도 혼 오십일?(말리는 말리는 기간도 한두 달 정도 한 오십일?)

107061 #2 응, 게난 섯ᄃᆞᆯ그믐에 ᄃᆞᆷ으민 이제, 이 월 그믐이나 삼월 초승 뒈민 갈라.(응, 그러니까 섣달그믐에 담그면 이제, 이월 그믐이나 삼월 초승 되면 갈라.)

107061 @ 이월 그믐이나.(이월 그믐이나.)

107061 #2 그믐이나 삼월 초승 뒈민.(그믐이나 삼월 초승 되면.)

107061 @ 삼월 초순에예?(삼월 초순에요?)

107061 #2 예, 그자 두 ᄃᆞᆯ.(예, 그저 두 달.)

107061 @ 으, 두 ᄃᆞᆯ 남짓.(예, 두 달 남짓.)

107061 #1 거문 ᄀᆞᆫ장 ᄒᆞ곡 뒌장ᄒᆞ고 분리.(그러면 간장 하고 된장하고 분리.)

107061 #2 응.(응.)

107061 @ 예 이거 갈르는 거예.(예 이거 가르는 거요.)

107061 #2 으.(으.)

107061 @ 갈르는 거. 그 으, 갈르는 거. 그 뒌장에.(가르는 거. 그 으, 가르는 거. 그 된장에.)

107061 #2 으.(으.)

107061 @ 그 이거는 해마다 새 뒌장이고.(그 이거는 해마다 새 된장이고.)

107061 #2 으 으.(으 으.)

107061 @ 묵은장 관리는 어떵 헙니까?(묵은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107061 #2 묵은장 묵은 뒌장 관린, 새 뒌장은 난 그릇을 ᄋᆞ라게 부찌지 말젠.(묵은장 묵은 된장 관리는, 새 된장은 난 그릇을 여러 개 붙이지 말려고.)

107061 @ 예.(예.)

107061 #2 묵은 뒌장은 그릇에 퍼 놩.(묵은 된장은 그릇에 퍼 넣어서.)

107061 @ 예, 예 그릇에 퍼 놩.(예, 예 그릇에 퍼 넣어서.)

107061 #2 다른 그릇에 퍼 놔뒁 새 뒌장은 뀌엉. 알러레 놩.(다른 그릇에 퍼 넣어서 새 된장은 이겨서. 아래에 넣어.)

107061 @ 예.(예.)

107061 #2 알러레 그 콩 솖아근에 뀌엉.(아래에 그 콩 삶아서 이겨서.)

107061 @ 예, 예.(예, 예.)

107061 #2 ᄀᆞ찌 뀌어근에. 이제 ᄂᆞᆷ은 소곰 논덴 헤도. 난 ᄀᆞᆫ장으로 그 저 콩 솖은 걸 간혜영.(같이 이겨서. 이제 남은 소금 넣는다고 해도. 난 간장으로 그 저 콩 삶은 걸 간해서.)

107061 @ 예.(예.)

107061 #2 경 헨 뒌장에 서껑.(그렇게 하고 된장에 섞어서.)

107061 @ 으.(으.)

107061 #2 아레 놓고. 묵은장은 이제 먹을 거 족은 오가리터레 담당 남은 건. 그 웃터레 놔근넹에 덖엉 놔둬.(아래 넣고. 묵은장은 이제 먹을 거 작은 항아리에로 담다가 남은 건. 그 위에로 놓아서 덮어 놔둬.)

107061 @ 아, 덖엉 놔뒁예.(아, 덮어 놔둬서요.)

107061 #2 으.(으.)

107061 @ 아, 거니까 소금을 안 허고 장물이난에 그거가 그대로 이용허는 거난예.(아, 그러니까 소금을 안 하고 장물이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요.)

107061 #2 근장을.(간장을.)

107061 @ 안 헤근에.(안 해서.)

107061 #2 안 부쩡 저 소곰을.(안 붙여서 저 소금을.)

107061 @ 안헤근에예.(안해서요.)

107061 #2 늠은 섞어근엥이 놓는 놓아두는디.(남은 섞어서 놓는 넣어두는데.)

107061 @ 으.(으.)

107061 #2 나는 근장을 놔근에.(나는 간장을 놔서.)

107061 @ 예, 예.(예, 예.)

107061 #2 그 뒌장을 서껑 놔두주.(그 된장을 섞어서 넣어두지.)

107061 @ 예 거문 더 잘 익을 거주마씨예.(예 그러면 더 잘 익을 거지요.)

107061 #2 예, 경 허민 간이 저 장이 더 맛잇을 거우다.(예, 그렇게 하면 간이 저 장이 더 맛있을 겁니다.)

107061 @ 예 장이 더ᄒᆞ고.(예 장이 더하고.)

107061 #2 더 맛잇는 거 닮아.(더 맛있는 거 같아.)

107061 @ 예 새 된장허고 거문 장 솖아난 물이 그렇게 저기.(예 새 된장하고 그러면 장 삶았던 물이 그렇게 저기.)

107061 #2 응.(응.)

107061 @ 묵은장이랑 같이 헌다는 거 아니꽈?(묵은장하고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107061 #2 으 으 응.(으 으 응.)

107061 @ 거문 돌고예?(그러면 달고요?)

107061 #2 응, 게난 그 장 솖아난 물도 뒌장에.(응, 그러니까 그 장 삶은 물도 된장에.)

107061 @ ᄀᆞ찌?(같이?)

107061 #2 묵은장에 놓고.(묵은장에 넣고.)

107061 @ 놓고예.(넣고요.)

107061 #2 따시 갈르젠 ᄒᆞ민 또 콩 솖앙 그레 섞을 거 아니라게.(다시 가르려고 하면 또 콩 삶아서 거기에 섞을 거 아니야.)

107061 @ 예, 예, 예.(예, 예, 예.)

107061 #2 경 허민 콩물도 놓곡.(그렇게 하면 콩물도 넣고.)

107061 @ 그 콩물도 놓고 뒌장 놓곡 어.(그 콩물도 넣고 된장 넣고 어.)

107061 #2 뒌장에 콩 숢은 것도 뀌영 그레 놓고.(된장에 콩 삶은 것도 이겨서 거기에 넣고.)

107061 @ 예 거문 장이 막 둘주마씨예?(예 그러면 장이 아주 달지요?)

107061 #2 예, 경 헤근에 그 간은 군장으로.(예, 그렇게 해서 그 간은 간장으로.)

107061 @ ᄒᆞ곡.(하고.)

107061 #2 예.(예.)

107061 @ 예.(예.)

107061 #2 군장으로 물, 군장 두어 물박 거려 놓민.(간장으로 물, 간장 두어 물박 떠 넣으면.)

107061 @ 예.(예.)

107061 #2 간이 뒈난에.(간이 되니까.)

107061 @ 삼춘 장물에 장물도 장물항아리도 ᄒᆞ끔 비우지 안 헙니까예?(삼촌 간장에 간장도 간장항아리도 조금 비우지 안합니까요?)

107061 #2 장물 항아리는 그 닷 뒈짜리 펭이 잇주.(간장 항아리는 그 닷 되짜리 병이 있지.)

107061 @ 예.(예.)

107061 #2 게난 그거 두 개에 담아 놔뒁. 그 황은 씻어.(그러니까 그거 두 개에 담아 넣어둬. 그 독은 씻어.)

107061 @ 아 씻어?(아 씻어?)

107061 #2 어.(어.)

107061 @ 무사마씨?(왜요?)

107061 #2 씻어근엥이 저 거시기 물류왕.(씻어서 저 거시기 말려서.)

107061 @ 응.(응.)

107061 #2 네볏당.(내버렸다가.)

107061 @ 예, 예.(예, 예.)

107061 #2 또 멩년 둠을 때민 ᄇᆞ뎌[265]가민 물 놔근엥이.(또 내년 담글 때면 'ᄇᆞ뎌'가면 물 넣어서.)

107061 @ 아 울러근넹이.(아 우려서.)

107061 #2 그것에 장 둠아.(그것에 장 담가.)

107061 @ 울러근넹이예.(우려서요.)

107061 #2 으 경ᄒᆞᆫ디.(으 그런데.)

107061 @ 응.(응.)

107061 #2 올린 원.(올해는 원.)

107061 @ 응.(응.)

265) 'ᄇᆞ뎌' 'ᄇᆞ디다'는 정해 놓은 시기나 거리가 가까워 지다의 뜻이다.

107061 #2 올리만 듬앙 멩년은 듬지 말젠.(올해만 담가서 내년은 담지 말려고.)
107061 @ 아, 예에.(아, 예에.)
107061 #2 하, 하하, 핫.(하, 하하, 핫.)
107061 @ 예에, 예.(예에, 예.)
107062 @ 으 메주 쑤는 거는 저기 아까 육십이 번 어, 동짓둘에예?(으 메주 쑤는 거는 저기 아까 육십이 번 어, 동짓달에요?)
107062 #2 응.(응.)
107062 @ 예 동짓둘에 동짓둘에, 저기 헤기네. 메주 쑬 때는 메주는 씻어 놔기네 물에 담갓다근에 ᄒᆞ룻밤 ᄌᆞ늘앗다기네.(예 동짓달에 동짓달에, 저기 해서. 메주 쑬 때는 메주는 씻어 놓아서 물에 담갔다가 하룻밤 물렀다가.)
107062 #2 아니 난 경 안녕. 넬 메주 쑬 날이민.(아니 난 그렇게 안 해. 내일 메주 쑬 날이면.)
107061 @ 예.(예.)
107062 #2 이녁이 ᄆᆞ날에 솖으민.(이녁이 말날에 삶으면.)
107061 @ 예.(예.)
107062 #2 오늘 ᄉᆞ일 이난에.(오늘 뱀날 이니까.)
107062 #2 이제 오널 밤이 이 ᄌᆞ냑 헹 먹고 영 놀다근엥이. 이제 텔레비 보곡 헹 눵 잘 때 뒈민 강 콩 씻엉.(이제 오늘 밤에 이 저녁 해서 먹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텔레비전 보고 해서 누워서 잘 때 되면 가서 콩 씻어서.)
107062 @ 예.(예.)
107062 #2 콩 씻어근엥이. 이제 그거 빠주왕 ᄲᆞᆷ을 통더레 놩.(콩 씻어서. 이제 그거 빠지게 해서 삶을 통으로 넣어서.)
107062 @ 예.(예.)
107062 #2 놔근에 네볏다근엥에 솖아.(넣어서 내버렸다가 삶아.)
107062 @ 아 솖은 통에.(아, 삶은 통에.)
107062 #2 경 헹 아칙 세벡이.(그렇게 해서 아침 새벽에.)
107062 @ 아.(아.)
107062 #2 서너 시나 두어 시나 뒈민 일어낭 솖아근엥에.(서너 시나 두어 시나 되면 일어나서 삶아서.)
107062 @ 솖아근엥에예.(삶아서요.)
107062 #2 예 거민.(예 그러면.)
107062 @ 거문 저 통쏙에 놀 때 물까지 맞춰근엥에 놓는 거 아니우꽈예?(그러면 저 통속에 넣을 때 물까지 맞춰서 놓는 거 아닙니까요?)
107062 #2 물ᄁᆞ지 딱 맞추지 못 허여.(물까지 딱 맞추지 못해.)
107062 @ 아.(아.)
107062 #2 무거와근넹 그레 들러 놓지 못허기 때문에.(무거워서 거기에 들여 넣지 못하기 때문에.)

107062 @ 예, 예.(예, 예.)
107062 #2 쪼끔 놔근넹.(조금 넣어서.)
107062 @ 예.(예.)
107062 #2 그자 콩 차 그레 놔근에 더껑 놔불민.(그저 콩 째 거기에 넣어서 덮어 놔버리면.)
107062 @ 응.(응.)
107062 #2 뭐 ᄒᆞ카부뎅. 물 쪼금 놔근에.(뭐 할까보아서. 물 조금 넣어서.)
107062 @ 물 쪼끔 놔근에예?(물 조금 넣어서요?)
107062 #2 으, 경 헹 네불엇당.(으, 그렇게 해서 내버렸다가.)
107062 @ 삼춘은 메주는 그 콩은 저기 몇 말꺼지 솖읍디가?(삼촌은 메주는 그 콩은 저기 몇 말까지 삶았습니까?)
107062 #2 메주?(메주?)
107062 @ 예.(예.)
107062 #2 콩 두 말.(콩 두 말.)
107062 @ 예, 두말예. 두 말에는 장물 저기 빼젠 허민 장을 몇 뒈들이?(예, 두 말요. 두 말에는 간장 저기 빼려고 하면 장을 몇 되들이?)
107062 #2 거 메주 그거어 경 ᄒᆞ영게. 메주를 잘 ᄆᆞ를 때는 그 항에 담아도 곤장이 쫌 쪽고.(그 메주 그거 그렇게 해서. 메주를 잘 마를 때는 그 독에 담아도 간장이 좀 작고.)
107062 @ 예.(예.)
107062 #2 메주를 잘 아니 ᄆᆞᆯ라근넹이. 만약에 초승에.(메주를 잘 아니 말라서. 만약에 초승에.)
107062 @ 예.(예.)
107062 #2 이제 초 뎃 세 고비에 그 메주를 쑤엉 ᄃᆞᆯ아메면은.(이제 초 대엿 세 고비에 그 메주를 쑤어서 달아매면.)
107062 @ 예.(예.)
107062 #2 이제 섯ᄃᆞᆯ그믐 헤면은 곤장이 싹 그거시 잘 ᄆᆞᆯ르니까.(이제 섣달그믐하면은 간장이 싹 그것이 잘 마르니까.)
107062 @ 잘 마르니까예.(잘 마르니까.)
107062 #2 뿔아 먹으면은 곤장이 족고.(빨아 먹으면 간장이 작고.)
107062 @ 족고 예에.(작고 예에.)
107062 #2 이제 초승에 못 헤서 보름고비나 솖아 가지고 이제 그믐에 ᄃᆞᆷ젠 ᄒᆞ면은 ᄒᆞ쏠 덜 ᄆᆞᆯ랏는가 장물이, 장물이 멧 뒈가 족아지여.(이제 초순에 못 해서 보름고비나 삶아 가지고 이제 그믐에 담그려고 하면은 조금 덜 말랐는가 장물이, 장물이 몇 되가 작아져.)
107062 @ 예 에.(예 에.)
107062 #2 경 헌 거뿐이주.(그렇게 한 것뿐이지.)

107062 @ 으.(으.)
107062 #2 뭐.(뭐.)
107062 @ 그런.(그런.)
107062 #2 얼마 무시거 어떵 ᄒᆞ는 거.(얼마 무엇 어떻게 하는 거.)
107062 @ 그 가늠허지 안 허고예?(가늠하지 안 하고요?)
107062 #2 으.(으.)
107062 @ 예 저 삼춘 소금, 소금은 어떵 조절 헙니까?(예 저 삼촌 소금, 소금은 어떻게 조절 합니까?)
107062 #2 소곰은 ᄒᆞᆫ 허벅에 요세 소곰 어떵헌 건 짜고 어떵 헌 건 싱겁고.(소금은 한 동이에 요새 소금 어떠한 건 짜고 어떠한 건 싱겁고.)
107062 @ 싱겁고 헤부난.(싱겁고 해버리니까.)
107062 #2 으, 경 허난 어떤 때는 이제 ᄒᆞᆫ 허벅에 석 뒈도 놓고.(으, 그렇게 하니까 어떤 때는 이제 한 동이에 석 되도 넣고.)
107062 @ 예.(예.)
107062 #2 어떤 때는 짜민.(어떤 때는 짜면.)
107062 @ 예.(예.)
107062 #2 짜민 물을 하영 먹엄붐신싸 허영 ᄒᆞ민 간을 헤보민 두 뒈 반.(짜면 물을 많이 먹어버렸는가 해서 하면 간을 해보면 두 되 반.)
107062 @ 응.(응.)
107062 #2 헤질 때도 ᄒᆞᆫ 허벅에에.(했을 때도 한 동이에.)
107062 @ 예, 예.(예, 예.)
107062 #2 경 헤영 놔저.(그렇게 해서 넣어져.)
107062 @ 아, 소금은 ᄒᆞᆫ 허벅에예?(아, 소금은 한 동이에요?)
107062 #2 응.(응.)
107062 @ 예, 허벅으로예.(예, 동이로요.)
107062 #2 응 허벅으로 허난 그자 난 물박으로오.(응 동이로 하니까 그저 난 물박으로.)
107062 @ 예.(예.)
107062 #2 물박으로 열 개민 ᄒᆞᆫ 허벅이다.(물박으로 열 개면 한 동이다.)
107062 @ 아.(아.)
107062 #2 엿날에 허벅으로 ᄒᆞ민게.(옛날에 동이로 하면.)
107062 #1 어, 어.(어, 어.)
107062 #2 열 뒈 여산ᄒᆞ는 거.(열 되 계산하는 거.)
107062 #1 허, 허.(허, 허.)
107062 #2 아니 열 뒈.(아니 열 되.)
107062 @ 예, 예.(예, 예.)
107062 #2 열 뒈가 ᄒᆞᆫ.(열 되가 한.)

107062 #1 혼 말.(한 말.)
107062 #2 허벅이난.(동이니까.)
107062 #1 여산 헤가지고.(계산 해가지고.)
107062 #2 혼 허벅이 열 뒈로 여산헤영.(한 동이 열 되로 계산해서.)
107062 @ 예, 예.(예, 예.)
107062 #1 음.(음.)
107062 #2 그 물박 요센 ᄌᆞ락 돋은 물박 잇잔여.(그 물바가지 요새는 자루 돋은 물박 있잖아.)
107062 @ 예, 예.(예, 예.)
107062 #2 그걸로 열 게 여산 헤영으넹이 바갓스[266]에 몃 게 영 놔보민 우리 물 바갓스엔 족으난 산디. 일곱 게 벳긴 안들어.(그걸로 열 개 계산해서 양동이에 몇 개 넣어보면 우리 물 양동이에는 작으니까 인지. 일곱 개 밖에 안 들어.)
107062 @ 아.(아.)
107062 #2 경 ᄒᆞ민 그거 게산헤여근넹에 그자 놩 허곡. 어떤 뗀 그자 그냥 황[267]드레 담앙 호스[268] 데영 그자 팡팡 담앙 놔불곡.(그렇게 하면 그거 계산해서 그저 넣어서 하고. 어떤 땐 그저 그냥 독으로 담아서 고무관 대어서 그저 팡팡 담아서 넣어버리고.)
107062 #1 헛, 헛, 헛.(헛, 헛, 헛.)
107062 #2 하, 하하, 핫.(하, 하하, 핫.)
107062 @ 으 ᄒᆞ끔 허다근에 보면은 이게 짤 건가 싱거울 건가 간음을 헤사 될 거 아니우꽈? 경 헐 뗀 무시걸로 간음을 헤신고예? 놈들은 계란 ᄃᆞᆨ세기나 놔근에.(으 조금 하다가 보면 이게 짤 건가 싱거울 건가 간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땐 무엇으로 가늠을 했는가요? 남들은 계란 달걀이나 넣어서.)
107062 #2 아이.(아니.)
107062 @ 티와보곡.(띄워보고.)
107062 #2 난 게랄도 안 헤보곡 그자 손짐작으로 영 헤 봉. 먹어 봉 에에 뒈건 뒈고 말민 말라허멍 네벼도.(난 계란도 안 해보고 그저 손짐작으로 이렇게 해 보아서. 먹어 보아서 에에 되면 되고 말면 말라하면서 내버려도.)
107062 @ 아 예에 경 헷구나예.(아 예에 그렇게 했군요.)
107062 #2 안직ᄁᆞ장은.(아직까지는.)
107062 @ 응.(응.)
107062 #2 장 넴세. 나거나 무시거 헤보진 안혓주.(장 냄새. 나거나 무엇 해보자는 안했지.)
107062 @ 경 헤보진 아년예.(그렇게 해보지는 아니해서요.)
107062 #2 안직ᄁᆞ장은.(아직까지는.)

266) '바갓스' 일본말(バケツ)[bucket]로 양동이다.
267) '황' '항'은 독의 제주말이다.
268) '호스'는 호스(hose)다. 고무, 비닐, 헝겊 따위로 만든 관(管)이다.

107062 @ 예에 경 헷구나예. 아, 장.(예에 그렇게 했군요. 아, 장)
107062 #1 거 데 데충헤사 잘 뒈주.(저 대 대충해야 잘 되지.)
107062 #2 하, 하하, 핫.(하, 하하, 핫.)
107062 #1 맛잇서.(맛있어.)
107062 @ 맞수다.(맞습니다.)
107062 #1 데충 안혀면 까다로우민.(대충 안하면 까다로우면.)
107062 @ 아.(아.)
107062 #1 그게 더.(그게 더.)
107062 @ 대충 할 수 있는.(대충 할 수 있는.)
107062 #1 문제가 셍겨. 허, 허, 헛.(문제가 생겨. 허, 허, 헛.)
107062 @ 능력이엔 헌게예. 판단력이엔 헌 게에 자기가 뚜렷허게 잇이난에 솜씨도 좋코 허난에.(능력이라고 한 것이요. 판단력이라고 한 것이 자기가 뚜렷하게 있으니까 솜씨도 좋고 하니까.)
107063 @ 삼춘예 마지막으로예.(삼촌요 마지막으로요.)
107063 #2 으.(으.)
107063 @ 장 담글 때에 금기 허는 거 잇지 안우꽈?(장 담글 때에 금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7063 #2 으.(으.)
107063 @ 어떤 거를 멩심헹 금기허는고예?(어떤 거를 명심해서 금기하는가요?)
107063 #2 아이, 멩심헹 금지ᄒᆞ는 건 난 아니 보난에 몰라. 그자 뎅기다근넹에 아, 멧 칠 날 이제 나 나민.(아이, 명심해서 금기하는 건 난 안보니까 몰라. 그저 다기다가 아, 며칟날 이제 나 나면.)
107063 #1 ᄆᆞᆯ 날만 담가 이딘.(말 날만 담가 여기는.)
107063 @ 아.(아.)
107063 #2 저 이녁 냥으로 모 모르, 어떵 영 뷔리지 못 ᄒᆞᆯ 뗀 하르방ᄀᆞ라 어느 때 모날이꽈? 영 허민.(저 이녁 냥으로 모 모르,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못 할 땐 할아버지보고 어느 때 말날입니까? 이렇게 하면.)
107063 @ 아 모날 아.(아 말날 아.)
107063 #2 아무 때 모날이여 허민 게민 그자 모날 뒈민. 그자 아시날 황.(아무 때 말날이다 하면 그러면 그저 말날 되면. 그저 전날 독.)
107063 @ ᄆᆞᆯ날?(말날?)
107063 #2 예 에.(예 에.)
107063 @ 응 아시날에.(응 전날에.)
107063 #2 아시 날 그자 황 확 ᄒᆞ게시리 헹 네불곡. 메주헹 네벼다근넹.(전 날 그저 독 확 하게끔 해서 내버리고. 메주해서 내버렸다가.)
107063 @ 응.(응.)
107063 #2 그날 그자 씻으멍.(그날 그저 씻으면서.)

107063 @ 그날예.(그날요.)
107063 #2 그레 들이청 그자.(거기에 들이뜨려서. 그저.)
107063 @ 예, 예.(예, 예.)
107063 #2 일주일 잇당 소곰 들이처근엥이.(일주일 이따가 소금 들이뜨려서.)
107063 @ 예, 예.(예, 예.)
107063 #2 물에 물에.(물에 물에.)
107063 @ 일주일 잇당 소금 헙니까?(예, 예. 일주일 이따가 소금 합니까?)
107063 #2 저 메주에 둠강.(저 메주에 담가서.)
107063 @ 예.(예.)
107063 #2 황에에.(독에.)
107063 @ 예.(예.)
107063 #2 경 헹 일주일 네볏당. 이제 소곰 이제 그자 쳇 번 홀 뗀 두 뒈 놩 둠앙 저 크곡.(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버렸다가. 이제 소금 이제 그저 첫 번 할 땐 두 되 넣어 담가서 저 잠그고.)
107063 @ 예.(예.)
107063 #2 잘리에 둠앙.(자루에 담가서.)
107063 @ 예, 예.(예, 예.)
107063 #2 저 광목잘리 헤 두 겁, 광목잘리 두 겁 헤근엥이.(저 광목자루 해 두 겹, 광목자루 두 겹 해서.)
107063 @ 예.(예.)
107063 #2 그것에 헤영ᄒᆞ민 아젱이 그레 안 ᄂᆞ려갑니다게.(그것에 해서하면 앙금이 거기에 안 내려갑니다.)
107063 @ 예, 예.(예, 예.)
107063 #2 경 ᄒᆞ난에 광목잘리 두 겁 헹근넹 그레 두 게 헹 초담은 크곡.(그렇게 하니까 광목자루 두 겹 해서 거기에 두 개해서 처음은 잠그고.)
107063 @ 예.(예.)
107063 #2 따시 두 번 찬 흔 뒈썩 커근에 맛보멍.(다시 두 번 채는 한 되씩 잠가서 맛보면서.)
107063 @ 아 아, 소금물을 장만 안 헤기네?(아 아, 소금물을 장만 안 해서?)
107063 #2 예 소곰물 ᄀᆞᆯ앙 허질 아녕.(예 소금물 갈아서 하지를 아니해서.)
107063 @ ᄀᆞᆯ앙 ᄒᆞ질 아녕예?(갈아서 하지를 아니해서요?)
107063 #2 예.(예.)
107063 @ 아 이거는 또 또 아, 옛날어른덜이 영 헷구나예?(아 이거는 또 또 아, 옛날어른들이 이렇게 했군요?)
107063 #2 엿날에 엿날에 우린 듬을 때 경 헹 둠아나난. 그자 그 식으로 헤집니다게.(옛날에 옛날에 우린 담글 때 그렇게 해서 담갔었으니까. 그저 그 식으로 해집니다.)

107063 @ 예, 예, 옛날 자루헤기네 허는 거.(예, 예, 옛날 자루해서 하는 거.)
107063 #2 예, 예.(예, 예.)
107063 @ 나도 봐나수다 머.(나도 봤었습니다 뭐.)
107063 #2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63 @ 아.(아.)
107063 #2 자루 헤영 소곰헤영 커근에 헨디 요세덜은 무신 소곰물 헹. 게랄 무신 오벡 원짜리.(자루 해서 소금해거 잠가서 했는데 요새들은 무슨 소금물 해서. 계란 무슨 오백 원짜리.)
107063 @ 맞춰근에예.(맞춰서요.)
107063 #2 동전마니.(동전만큼.)
107063 @ 물 맞추기 어려우니까는.(물 맞추기 어려우니까는.)
107063 #2 예 경 헨.(예 그렇게 해서.)
107063 @ 혼 혼꺼번에예.(한 한꺼번에요.)
107063 #2 경 ᄒᆞ영 혼덴 헤도 경 아니 헙니다게.(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107063 @ 응.(응.)
107063 #2 경 ᄒᆞ난 그 그추룩 헤영. 장을 듬아나질 안 헤부난. 경 헐 거 셍각을 안헤저.(그렇게 하니까 그 그처럼 해서. 장을 담가나지를 안 해버리니까. 그렇게 할 거 생각을 안했어.)
107063 @ 응.(응.)
107063 #2 그자 자루에 컹 헤나나난 그자. 경 헹 혼 번 헤나민 그 자루 뒛싸근에 께끗이 뿔앙 널엇다근엥이 따시 이제.(그저 자루에 잠가 했었으니까 그저.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나면 그 자루 뒤집어서 깨끗이 빨아서 널었다가 다시 이제.)
107063 @ 응.(응.)
107063 #2 혼 일주일 잇이민 또 그거 놓곡. 두 번차 놀 뗀 또 혼 일주일 잇당 놧당. 서너 번차 놀 뗀 게 혼 보름도 잇당 놓고게.(한 일주일 있으면 또 그거 넣고. 두 번째 넣을 땐 또 한 일주일 이따가 넣었다가. 서너 번째 넣을 땐 한 보름도 이따가 넣고.)
107063 @ 응, 응.(응, 응.)
107063 #2 경 허민 장이 더 빨리 우러나곡.(그렇게 하면 장이 더 빨리 우러나고.)
107063 @ 응.(응.)
107063 #2 맛이 더 잇어.(맛이 더 있어.)
107063 @ 아, 아, 경 헷구나예.(아, 아, 그렇게 했군요.)
107063 #2 게난 거 소곰물에 곳 듬근 거는 ᄎᆞᄎᆞ 이 차헤근넹에.(그러니까 거 소금물에 곧 담근 거는 차차 이차해서.)
107063 @ 아.(아.)

107063 #2 오레 우러나주만은.(오래 우러났었지만.)
107063 @ 으.(으.)
107063 #2 이거는 양. 경 헹 허문 빨리 우러납네께.(이거는요. 그렇게 해서 하면 빨리 우러납니다.)
107063 @ 삼춘 무사 모날에 꼭 저기 장을.(삼촌 왜 말날에 꼭 저기 장을.)
107063 #2 아니 게난에.(아니 그러니까.)
107063 @ 듬가신고예?(담갔는가요?)
107063 #2 개날은 아방 본멩일이고.(개날은 아버지 본명일이고.)
107063 @ 아 개날예.(아 개날요.)
107063 #2 뒈지날은 손지덜 본멩일이고.(돼지날은 손주들 본명일이고.)
107063 @ 아.(아.)
107063 #1 어 엇.(어 엇.)
107063 #2 이제 독날은 이제 족은 아돌 본멩일이고.(이제 닭날은 이제 작은 아들 본명일이고.)
107063 @ 아.(아.)
107063 #2 경 ᄒᆞ난에 그자.(그렇게 하니까 그저.)
107063 @ 그냥.(그냥.)
107063 #2 뚤이 ᄆᆞᆯ혜치가 잇수다.(딸이 말띠가 있습니다.)
107063 @ 예, 예 경 헤도.(예, 예 그렇게 해도.)
107063 #2 경 헤도 뚤은 씨집 가분 거 부난.(그렇게 해도. 딸은 시집 가버린 것이라 버리니까.)
107063 @ 아.(아.)
107063 #2 경 헤부난에 모날에만 듬가근에.(그렇게 해버리니까 말날에만 담가서.)
107063 @ 뚤이 이서도 모날에 허지 안혜수과예?(딸이 있어도 말날에 하지 안했습니까요?)
107063 #2 예, 뚤은게.(예, 딸은.)
107063 @ 뚤은 하, 하.(딸은 하, 하.)
107063 #2 게 씨집가부난에.(그럼 시집가버리니까.)
107063 @ 게난, 시집 가기 전에도 모날 허지 안혜수과예?(그러니까, 시집가기 전에도 말날 하지 않았습니까?)
107063 #2 으.(으.)
107063 @ 겐디 무사 모날은 경, 다 헤신고예? 제주도 어른들은 모날에 헙디다. 모날예.(그런데 왜 말날은 그렇게, 다 했는가요? 제주도 어른들은 말날에 합디다. 말날요.)
107063 #2 모날에 듬으민.(말날에 담그면.)
107063 @ 예.(예.)

107063 #2 그 숭페가 엇덴 허영 모날에.(그 흉패가 없다고 해서 말날에.)

107063 @ 숭페가 엇덴예.(흉패가 없다고요.)

107063 #2 으, 게난 그 숭페가 이제 엇덴 헤근엥에 모날에 헤 듬음니다게. 영 보면은 모날에 헤[269] 듬아.(으, 그러니까 그 흉패가 이제 없다고 해서 말날에 많이 담급니다. 이렇게 보면 말날에 많이 담가.)

107063 @ 옛날에 다예. 하영들예.(옛날에 다요. 많이들요.)

107063 #2 예.(예.)

107063 @ 거이 다 모날에 제주어른들은 저기 모날에예.(거의 다 말날에 제주어른들은 저기 말날에요.)

107063 #2 으.(으.)

107063 @ 저기 헙디다 뭐. 예 어, 경 허곡 여기에 장항 옆에. 그 삼춘이 멩심ᄒᆞ게 허는 건 엇입니까? 그냥 그냥 장 뚜껑 잘 열고 닫고.(저기 합디다 뭐. 예 어,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장독 옆에. 그 삼촌이 명심하게 하는 건 없습니까? 그냥 그냥 장독 뚜껑 잘 열고 덮고.)

107063 #1 으응.(으응.)

107063 @ 예 에, 그 정도.(예 에, 그 정도.)

107063 #2 난 그자 장 듬으민 소쿠리 ᄒᆞ나 탁 덮엉 네병. 그자 비나 왐쩽 헤사 무시거 황 두께도 더끄고 허주. 경 그거 원 안 헤 봐수다.(난 그저 장 담그면 소쿠리 하나 탁 덮어서 내버려. 그저 비나 온다고 해야 무엇 독 뚜껑도 덮고 하지. 그렇게 원 안 해 봤습니다.)

107063 @ 어.(어.)

107063 #2 그자 소코리 장 듬는 날로부터 소쿠리 앗당 더끄민 그자 지데로 불려나지 안 허민 거기로 놧당.(그저 소쿠리 장 담는 날로부터 소쿠리 가져다가 덮으면 그저 자기대로 불려나버리지 안 하면 그대로 놓았다가.)

107063 @ 응.(응.)

107063 #2 저 소곰 놀 때 올앙 소곰 다 녹으민 또 더껑 네볏당.(저 소금 넣을 때 열어서 소금 다 녹으면 또 덮어서 내버렸다가.)

107063 @ 으.(으.)

107063 #2 또 소곰 놀 때민 올고.(또 소금 넣을 때면 열고.)

107063 @ 맞수다 예, 예.(맞습니다 예, 예.)

107063 #2 예, 경 헴주 아이.(예, 그렇게 하고 있지 아이.)

107063 @ 그 예, 혹시나 저기 그 사이에 빗물이라도 ᄒᆞ나라고 튀면은 또.(그 예, 혹시나 저기 그 사이에 빗물이라도 하나라고 튀면 또.)

107063 #2 비 오젠ᄒᆞ민 더껌주게.(비 오려고 하면 덮고 있지.)

107063 #1 으 헤, 헷.(으 헤, 헷.)

107063 #2 하, 하하, 핫.(하, 하하, 핫.)

269) '헤'는 제주어 '하영' 많다의 뜻이다.

107063 @ 하, 하, 하, 하. 멩심 헨예.(하, 하, 하, 하. 명심해서요.)
107063 #1 비 온뎅 ᄒᆞ민.(비 온다고 하면.)
107063 @ 예, 예.(예, 예.)
107063 #2 비 온뎅 ᄒᆞ민 게 더껌주게.(비 온다고 하면 게 덮고 있지.)
107063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63 #2 으 흐흣.(으 흐흣.)
107063 @ 아이고 맞수다.(아이고 맞습니다.)
107063 #2 날 졸 때만 올암주게.(날 좋을 때만 열고 있지.)
107063 @ 예, 아이고 고맙수다. 십 분 딱.(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십 분 딱.)
107063 #1 끗난?(끝났니?)
107063 @ 예, 오늘은 딱.(예, 오늘은 딱.)
107063 #2 아이고.(아이고.)
107063 @ 예, 오늘은.(예, 오늘은.)
107063 #2 이거 미시거 이거.(이거 무엇 이거.)
107063 #1 게민 강 저 미깡[270]이라도 머 뭐.(그러면 가서 저 귤이라도 뭐 뭐.)
107063 @ 엇수다 엇수다.(없습니다 없습니다.)
107063 #2 미시거?(무엇?)
107063 #1 무시거? 무시것에 앗앙 가.(무엇? 무엇에 가져서 가.)
107063 @ 엇수다 엇수다.(없습니다 없습니다.)
107063 #1 저 비니루.(저 비닐.)
107063 @ 이 이걸로 응.(이 이걸로 응.)
107063 #1 큰 거 헤다근에 돔아.(큰 거 해다가 담아.)
107063 @ 아 츤츤이 헙서. ᄒᆞ끔.(아 찬찬이 하십시오. 조금.)

270) '미깡'은 일본말(みかん) 이고 귤, 밀감(蜜柑)이다.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4

발행인 박찬식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